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8

-대정읍 신도리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사업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9
2. 제보자 일생	38
3. 밭일	70
4. 들일	139
5. 바다일	165
6. 의생활	204
7. 식생활	237
8. 주생활	310
9. 신앙	329
10. 세시풍속	331
11. 놀이	348
12. 통과의례	362
13. 민간요법	401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421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 ·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욱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ᄃ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ᄃ’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2018년도 제주어구술 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II. 구술 자료

(@: 신우봉, #1: 변동휘, #2: 이부자, #3: 유순옥, #4: 박창임, #5: 김희옥, #6: 진옥열)

1. 조사 마을

101001 @ 어 원래 이 신도일리¹⁾ 마을에 대해서 먼저 좀 물어볼게요.(아 원래 이 ‘신도일리’ 마을에 대해서 먼저 좀 물어볼게요.)

101001 #1 예.(예.)

101001 @ 그 마을은 어떻게 형성됐마씨? 그냥 편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해 줘서.(그 마을은 어떻게 형성됐어요? 그냥 편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해주십시오.)

101001 #1 어.(어.)

101001 @ 얘기해 주면 돼마씨. 편하게.(얘기해 주면 돼요. 편하게.)

101001 #1 그 정확히는 그 마을 그 설동의 유래가 정확히 어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그 정확히는 그 마을 그 설동의 유래가 정확히는 어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101001 @ 예.(예.)

101001 #1 어 천구백 천오백십구 년 을미사화가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그때 사회에 연류되어 가지고 이 저 고구 이씨 입도조 이 셋째 번째 그 도사가 이제 그 제주도로 유배 오면서. 어, 그 이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 훈락했다는 그 그런 기록이 남는데.(어 천구백 천오백 십구 년 을미사화인가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그때 사회에 연류되어 가지고 이 저 고구 이씨 입도조 이 셋째 번째 그 도사가 이제 그 제주도로 유배 오면서. 어, 그 이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훈락했다는 그 그런 기록이 남는데.)

101001 @ 예.(예.)

101001 #1 그걸로 보면은 그 당시에 천오백 한 이십년 전후에서도 여기 사람이 살았던 거는 분명한데. 그 목장의 유래는 확실히 여기서의 거 파악이 못하지만은 어 육소 게니간 십이 제주도 십소장²⁾과 별개로 어 여 이쪽에 거 모동장³⁾이라고 있

1) ‘신도일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2) ‘십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1430년부터 세종의 지시로 세워진 10개의 국영 목마장을 의미한다.

3) ‘모동장(毛洞場)’은 ‘목장’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국가정책에 의한 목양활동이 활발했는데 도전체 십소(十所)와 별도로 원나라로 진상하기 위한 우마를 각소에서 차출하여 출육하기 전에 잠시 방목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모동장(모두어 방목하는 곳)’이라 명명했었으나, 그 후 한자표기에 의하여 ‘모동장’이라 하여 일개 독립목장으로서는 우마감(牛馬監)을 두어 우마를 방목시켰다 한다. 그 후 가파도에 흑(黑)암소만을 방목하는 흑우장(黑牛場)을 설치했다가 영조 26년(1750) 영국함대의 약탈이 있는 후 가파도

엇인디 모동장.(그걸로 보면은 그 당시에 천오백 한 이십년 전후에서도 여기 사람이 살았던 거는 분명한데. 그 목장의 유래는 확실히 여기서는 거 파악이 못하지만은 어 육소 그러니깐 십이 제주도 ‘십소장’과 별개로 어 여 이쪽에 거 ‘모동장’이라고 있었는데 ‘모동장’.)

101001 @ 모동장마씨?(‘모동장’이요?)

101001 #1 어, 모동장. 그게 여기서 보통 모동장 모동장 허는데 나가 생각허기는 그 한글 우리나라말 어원으로 모동장. 모두 모두어서 관리했던 곳이 아닌가.(어, ‘모동장’. 그게 여기서 보통 ‘모동장’ ‘모동장’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 한글 우리나라말 어원으로 ‘모동장’. 모두 모두어서 관리했던 곳이 아닌가.)

101001 @ 예.(예.)

101001 #1 그 현재 모동장 모동장 해서 모동장에 예 남장, 서장, 중장, 이렇게 해서 그 삼장을 나누어 가지고 그 목자 그 목 어 머 거기 그 여러 가지 그 그 우마를 관리하는 그런 직제를 뒤가지고 관리를 했는데.(그 현재 ‘모동장’ ‘모동장’ 해서 모동장에 예 남장, 서장, 중장, 이렇게 해서 그 삼장을 나누어 가지고 그 목자 그 목 어 머 거기 그 여러 가지 그 그 우마를 관리하는 그런 직제를 뒤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101001 @ 예.(예.)

101001 #1 예, 그 그 관리할 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사람이 살았던 걸로 보고. 또 이쪽에 그 포구 뭐 자구내⁴⁾ 포구나 아니면 신도이리⁵⁾, 이 포구 현재 신도 이리 포구에 사람이 살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추측이 가능헌데.(예, 그 그 관리할 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사람이 살았던 걸로 보고. 또 이쪽에 그 포구 뭐 ‘자구내’ 포구나 아니면 ‘신도이리’, 이 포구 현재 ‘신도이리’ 포구에 사람이 살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추측이 가능헌데.)

101001 @ 예.(예.)

101001 #1 이 셋째 번째 예 그 분이 그 도사 개설 한 분이 제주도로 귀양오면서 그 당시 돈포⁶⁾ 그 당시 돈포 현재는 고산⁷⁾이주만은. 그 당시 돈포에 적거 생활을 하면서 훈락을 했던 기록으로 보면은.(이 셋째 번째 예 그 분이 그 도사 개설 한 분이 제주도로 귀양오면서 그 당시 ‘돈포’ 그 당시 ‘돈포’ 현재는 ‘고산’이지만. 그 당시 ‘돈포’에 적거 생활을 하면서 훈락을 했던 기록으로 보면.)

101001 @ 예.(예.)

101001 #1 그분이 예 귀양 오기 전부터. 어 벌써 그 산재돼어 잇지만은. 이 이

에 흑우장을 폐장하고 돈포 경내(境內)인 모동장으로 흑우장을 옮겼다. 모동장의 주위는 37리였다고 하며 장(場)을 관리상 서장(西場. 현 농남봉 동측 일원), 중장(中場. 셋장. 무릉 1리 동측과 무릉 2리 경), 남장(南場. 무릉 1리 남쪽과 영락리경)등 3개장으로 분리 흑우를 방목하였고 우감(牛監) 1인, 군두(群頭) 3인, 목자(牧子) 18인을 두어 목장을 관리하였다 한다.

4) ‘자구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포구의 이름 중 하나이다.

5) ‘신도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6) ‘돈포(돈포)’는 대정읍 지명의 이름으로 현재 고산과 신도 이리 사이를 말한다.

7) ‘고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쭉쭉쪽으로 분산되어 있지만은 어 인가가 최소한 한 이십 세대 이상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그분이 예 귀양 오기 전부터. 어 벌써 그 산재되어 있지만은. 이 이쪽저쪽으로 분산되어 있지만은 어 인가가 최소한 한 이십 세대 이상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101001 @ 예.(예.)

101001 #1 예 그때부터 유래 그 마을이 설 어 설동에 그 기초를 두고. 어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어 그 기록이 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애긴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을에 그 음료수 개정했다는 그 기록이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데 한 천오백 팔십 구년인가 이제 처음으로 음료수를 개정했다.(예 그때부터 유래 그 마을이 설 어 설동에 그 기초를 두고. 어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어 그 기록이 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애긴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을에 그 음료수 개정했다는 그 기록이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데 한 천오백 팔십 구년인가 이제 처음으로 음료수를 개정했다.)

101001 @ 예.(예.)

101001 #1 그게 음료수를 개정했다 허는 것은 사람이 최 최소한의 어 수십 가구 수십 한 백여명 이상이 모여 살아서 어 주민들이 그 합의해서 음료수를 개정했을 거다. 팟을 거다 그 당시는 봉천수⁸⁾니까. 어디 여기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천수니까 그렇게 했 했을 거다 했어. 이제 음료수 개정 그 연원에 보면은 윤나뭇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윤나뭇이 이 천오백 팔십 구년인가 구십 년도에 개정된 걸로 이 이렇게 간걸로 봐서.(그게 음료수를 개정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최 최소한의 어 수십 가구 수십 한 백여명 이상이 모여 살아서 어 주민들이 그 합의해서 음료수를 개정했을 거다. 팟을 거다 그 당시는 ‘봉천수’니까. 어디 여기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천수’니까 그렇게 했 했을 거다 했어. 이제 음료수 개정 그 연원에 보면 윤나뭇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윤나뭇이 이 천오백 팔십 구년인가 구십 년도에 개정된 걸로 이 이렇게 간걸로 봐서.)

101001 @ 예.(예.)

101001 #1 천 십오 세기부터 십오 세기 초부터 십오 세기로 아 천오백 년도 그 천오백 년도 십육 세기네. 십육 세기초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은 분명헌데 예 십육 세기 게니 천오백 구십 년경부터는 그래도 조그마한 마을 형태로서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 그때 예 그 마을에 그 형성된 그것을 보면은 대정⁹⁾에 그 게니까 뭐 거 대정이건 뭐건 전체적으로 이 근방 대정군 거 거 제주목 대정현 어 정의현¹⁰⁾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대정현은 현재 한경면 일대가 예 제주시 관할 한경면 일대가 거의 대정현 안에 들었는데 예 저쪽으로 보민 거 읍성

8) ‘봉천수’는 빗물을 받아 사용한 음용수나 빗물이 고인 연못의 물을 의미한다.

9) ‘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행정읍 가운데 하나이다.

10) ‘정의현’은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제주지역의 행정구역 단위이다. 제주지역의 성은 크게 읍성, 진성, 장성 등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성이 모두 석성이나 향파두리성은 토성이고, 삼별초 군대가 애월에 세운 성은 목책성이었다. 제주지역의 읍성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인 제주목성, 정의현성, 대정현성이 있다.

이난 보성 그렇게 허니까 대정군청 소재지 거기하고 모슬포¹¹⁾ 계난 상모슬 하모슬
 계니까 모슬 하모슬은 엇일지도 모르고. 모슬하고 일과리¹²⁾ 다음에는 금악¹³⁾하고
 일 일과리 사 다음에는 마을이 거의 엇었는데 우리 마을이 에 처음으로 거 일과리
 하고 금악 사이에는 우리 그게 그 저 신도가 옛날 그 뽕개¹⁴⁾라는 이름으로 설동뽕
 주개.(천 십오 세기부터 십오 세기 초부터 십오 세기로 아 천오백 년도 그 천오백
 년도 십육 세기네. 십육 세기초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은 분명한데 에 십육 세기 그
 러니 천오백 구십 년경부터는 그래도 조그마한 마을 형태로서 이제 사람이 살기 시
 작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 그때 에 그 마을에 그 형성된 그것을 보면은
 ‘대정’에 그 그러니까 뭐 거 ‘대정’이건 뭐건 전체적으로 이 근방 ‘대정군’ 거 거 ‘제
 주목’ ‘대정현’ 어 ‘정의현’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대정현’은 현재 ‘한경면’ 일대가 에
 제주시 관할 ‘한경면’ 일대가 거의 ‘대정현’ 안에 들었는데 에 저쪽으로 보면 거 읍
 성 이니까 보성 그렇게 하니까 ‘대정’ 군청 소재지 거기하고 ‘모슬포’ 그러니까 ‘상
 모슬’ ‘하모슬’ 그러니까 ‘모슬’ ‘하모슬’은 없을지도 모르고. ‘모슬’하고 ‘일과리’ 다
 음에는 ‘금악’하고 일 ‘일과리’ 다음에는 마을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마을이 에 처음
 으로 거 ‘일과리’하고 ‘금악’ 사이에는 우리 그게 그 저 ‘신도’가 옛날 그 ‘뽕개’라는
 이름으로 설동뽕지.)

101001 @ 옛날 뽕개마씨?(옛날 ‘뽕개’요?)

101001 #1 어 뽕개. 뽕개는 순수 우리말이고.(어 ‘뽕개’. ‘뽕개’는 순수 우리말이
 고.)

101001 @ 아, 그럼 그게 무슨 뜻마씨?(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지요?)

101001 #1 어 돈포라고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학자 그 학자에 따라서 틀렸는데
 뽕 돈자 개 포자를 쓰는 쓴다는 사람도 있고.(어 돈포라고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학
 자 그 학자에 따라서 틀렸는데 뽕 돈자 개 포자를 쓰는 쓴다는 사람도 있고.)

101001 @ 예.(예.)

101001 #1 주둔 돈자에 개 포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계니깐 어 그렇게 허지만
 은 그 우리말 그 후세 사람들은 우리말 후세 사람들은 뽕 돈자나 두터울 그 저저
 뽕냐 어 주둔 돈자는 이건 아니다 해서 어 계니까 그 양 쪼뽕 천허다 그 이름은.
 게서 두터울 돈을 써서 돈포라고도 헛지만은 나가 생각하기에는 에 뽕 돈자에 개
 포자를 썼기 때문에 저 우리말로는 뽕개. 뽕개로 해서 어 뽕개라는 이름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저쪽 그 정의 쪽으로는 몰라도 정의 쪽 이쪽으로 한 현재 한 남원¹⁵⁾ 제
 주시 이 저 서쪽으로는 뽕개라는 사람 아 허면은.(주둔 돈자에 개 포자를 쓰는 사람

11) ‘모슬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포구이다.

12) ‘일과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3) ‘금악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4) ‘뽕개’는 신도리의 옛 이름이다. 한자어 돈포(敦浦, 頓浦)는 ‘뽕개’의 한차 차용 표기이다. ‘뽕개’의
 뜻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의 신도2리에 있는 신도리 포구를 이른다. ‘뽕개’ 가까이에 있던 마을을
 돈포리(敦浦里)[뽕개imagefont을]라 하였으며, 18세기 말에 돈포리(頓浦里)로 표기했다. 신도리는 일
 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도원리(桃源里)와 순창리(順昌里)를 통합하여 생겼는데, 새롭
 게 흥성하는 도원리라는 의미에서 신도리라 한 것으로 보인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15) ‘남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행정읍 가운데 하나이다.

도 있고 그러니깐 어 그렇게 하지만은 그 우리말 그 후세 사람들은 우리말 후세 사람들은 똥 돈자나 두터울 그 저저 뭐냐 어 주돈 돈자는 이견 아니다 해서 어 그러니까 그 양 조금 천하다 그 이름은. 그래서 두터울 돈을 써서 돈포라고도 했지만은 나가 생각하기에는 에 똥 돈자에 개 포자를 썼기 때문에 저 우리말로는 ‘똥개’. ‘똥개’로 해서 어 ‘똥개’라는 이름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저쪽 그 ‘정의’ 쪽으로는 몰라도 ‘정의’ 쪽 이쪽으로 한 현재 한 ‘남원’ 제주시 이 저 서쪽으로는 ‘똥개’라는 사람이 하면은.)

101001 @ 예.(예.)

101001 #1 거의 아 어느 지역에 똥개라 있다는 건 옛날도 알았젠 허여.(거의 아 어느 지역에 ‘똥개’라 있다는 건 옛날도 알았다고 해.)

101001 @ 알아져마씨?(알아져요?)

101001 #1 어. 알았다 그리고 어 그래서 허다가 이제 사실상 대정현 행정구역상으로 편의 저 마을 이름이 현 것은 예 십칠 세기 후반. 똥개 저 우리 마을이 행정, 행정 단위 마을로 이제 뭐냐 드 등 등기에 나냐? 등기라고 하면 표현해야 똥나. 저 우리 마을이 대정 그 군에 한 마을로 이름을 올린 것은 에 천 아 저 십칠 세기 말 십칠 세기말 천육백 한 구십 년경 천구백 아 저 천육백 그렇게 봐야 똥나. 아 그렇게 해서 어 비로소 마을이 완전 형성이 똥 거고. 그 그들 그 그때부터 어 바로 마을 한 그 마을로서 이제 그 책임자도 있고 그 당시 그 직제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똥고 그 당시 우리 마을 경계는 고산 현재 당산봉¹⁶.(어. 알았다 그리고 어 그래서 허다가 이제 사실상 ‘대정현’ 행정구역상으로 편의 저 마을 이름이 한 것은 예 십칠 세기 후반. ‘똥개’ 저 우리 마을이 행정, 행정 단위 마을로 이제 뭐냐 드 등 등기에 나냐? 등기라고 하면 표현해야 똥나. 저 우리 마을이 ‘대정’ 그 군에 한 마을로 이름을 올린 것은 에 천 아 저 십칠 세기 말 십칠 세기말 천육백 한 구십 년경 천구백 아 저 천육백 그렇게 봐야 똥나. 아 그렇게 해서 어 비로소 마을이 완전 형성이 똥 거고. 그 그들 그 그때부터 어 바로 마을 한 그 마을로서 이제 그 책임자도 있고 그 당시 그 직제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똥고 그 당시 우리 마을 경계는 ‘고산’ 현재 ‘당산봉’.)

101001 @ 예.(예.)

101001 #1 북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저 한경면 이제 그게 새신오름¹⁷.(북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저 한경면 이제 그게 ‘새신오름’.)

101001 @ 아, 새신오름. 새신오름마씨?(아, ‘새신오름’. ‘새신오름’이요?)

101001 #1 예. 남쪽으로는 영락¹⁸이 밑에 돈, 돈두, 돈두악¹⁹이라고.(예. 남쪽으로는 ‘영락’이 밑에 돈, 돈두, 돈두악이라고.)

101001 @ 예.(예.)

16) ‘당산봉’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오름을 의미한다.

17) ‘새신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오름을 의미한다.

18) ‘영락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9) ‘돈두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 있는 봉우리를 의미한다.

101001 #1 게서 돈두악하고 이게 내 일과리하고 이게 금약 사이에는 우리 마을이 그 당산봉에서 일과리 저게 영락이 밑에 돈두악하고 해서 하표를 해 가지고 요건 뉘개라는 이름으로 그저 마을을 쪽. 운영해 오다가.(그래서 ‘돈두악’하고 이게 내 ‘일과리’하고 이게 ‘금약’ 사이에는 우리 마을이 그 ‘당산봉’에서 ‘일과리’ 저게 ‘영락’이 밑에 ‘돈두악’하고 해서 하표를 해 가지고 요건 ‘뉘개’라는 이름으로 그저 마을을 쪽. 운영해 오다가.)

101001 @ 그래서마씨?(그래서요?)

101001 #1 운영해 오다가.(운영해 오다가.)

101001 @ 예.(예.)

101001 #1 그 후에 그 대정군지에도 보면 그러지만은 어 이조 때 문과 급제 한 한 사람이 대정군에 몇 사람 안 돼. 정확히 나온 사람은 세 사람. 사 사후에 벼슬 저 교지를 저 저 저 합격한 그 사후 참판 김○자 한 자인가 김○○ 한 자인가 그분까지 포함해서 문과 급제 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외에 무슨 뭐 그 외에도 뭐 후에 후에는 어떤 면에서 난 그 저 인정도 하고 싶지 아니한테. 그 저 국가에서 예산 없으면은 지방 관리들한테 뭐에 백지 교지 주어 가지고 돈 받아근영 그 내 그 행정 다스리는 그 뭐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과거를 봐서.(그 후에 그 대정군지에도 보면 그러지만은 어 이조 때 문과 급제 한 한 사람이 대정군에 몇 사람 안 돼. 정확히 나온 사람은 세 사람. 사 사후에 벼슬 저 교지를 저 저 저 합격한 그 사후 참판 김*자 한 자인가 김○○ 한 자인가 그분까지 포함해서 문과 급제 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외에 무슨 뭐 그 외에도 뭐 후에 후에는 어떤 면에서 난 그 저 인정도 하고 싶지 아니한테. 그 저 국가에서 예산 없으면 지방 관리들한테 뭐에 백지 교지 주어 가지고 돈 받아서 그 내 그 행정 다스리는 그 뭐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과거를 봐서.)

101001 @ 예.(예.)

101001 #1 실지 과거를 봐서 합격 한 사람은 대정군 전체적으로 세 사람으로 보는데 두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이야.(실지 과거를 봐서 합격 한 사람은 ‘대정군’ 전체적으로 세 사람으로 보는데 두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이야.)

101001 @ 아, 두 사람이마씨?(아, 두 사람이요?)

101001 #1 어, 두 사람.(어, 두 사람.)

101001 @ 예.(예.)

101001 #1 그 그러기 때문에 에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는.(그 그러기 때문에 에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는.)

101001 @ 예.(예.)

101001 #1 말에서 내려서 지나갔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말에서 내려서 지나갔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101001 @ 아. 기구나예. 그믐 신도 지금은 일리, 이리, 삼리잖아예. 어르신 태어나실 때는 어 어른 태어나셨을 때도 신도 일리, 이리, 삼리로 나눠전마씨?(아. 그렇

군요. 그러면 ‘신도’ 지금은 일리, 이리, 삼리잖아요. 어르신 태어나실 때는 어 어른 태어나셨을 때도 ‘신도 일리’, 이리, 삼리로 나눠졌어요?)

101001 #1 어. 우리가 태어났을 그 우리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일구²⁰⁾, 이구.
(어. 우리가 태어났을 그 우리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일구, 이구.)

101001 @ 일구, 이구마씨?(일구, 이구요?)

101001 #1 일구 이구. 어 신도 일리, 삼리 경호난 말이 그 저 아까 걸 나가 나가 얘기한 거 마무리 돼야 그 연관돼겠는데. 그 후에 에 그렇게 그 뭐 향교에 가서 뭐 훈장 과거 급제해서 최소한 계도 한 정 한 사품 벼슬까지 한 분들. 경 해 가니까. 이런 마을에 개 포자. 개 포자는 포구에는 이제 포구.(일구 이구. 어 ‘신도 일리’, 삼리 그러니까 말이 그 저 아까 걸 내가 내가 얘기한 거 마무리 돼야 그 연관 되겠는데. 그 후에 에 그렇게 그 뭐 향교에 가서 뭐 훈장 과거 급제해서 최소한 그 래도 한 정 한 사품 벼슬까지 한 분들. 그렇게 해 가니까. 이런 마을에 개 포자. 개 포자는 포구에는 이제 포구.)

101001 @ 예.(예.)

101001 #1 계난 그저 포구에 하건 뭐 거 사농공상 옛날에 저 그런 그 쯤 그 계급 사회라 놓으니까 포자를 붙여. 그 붙든 그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 뻗겠느냐. 아 그래서 개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가 도원으로 개명돼. 도원으로.(그러니 그저 포구에 하건 뭐 거 사농공상 옛날에 저 그런 그 쯤 그 계급 사회라 놓으니까 포자를 붙여. 그 붙든 그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느냐. 아 그래서 개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가 ‘도원’으로 개명돼. ‘도원’으로.)

101001 @ 도원마씨?(‘도원’이요?)

101001 #1 도원으로 된 디가 한 천 천팔백년 어 전후 해가지고 도원으로 개명 돼고 어 완전히 그 법적으로 그 당시 법적으로 도원으로 등록된 것은 처 천팔백십 일년 신미년에 등록이 돼고. 어 그렇게 허다가 이제 그 후에 에 천구백년 돼니까 또 어 그 서로 그 스 파벌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다시 한 번 바꿔야 된다. 뭐 도원 순창이다 허다가 절충안으로 나온 게 신돈데. 절충안으로 나온 게 신돈데 신 도를 줌 어 한 십여 년간 운영할 때, 한일합방이 됐고, 한일합방이 돼고 천구백십삼 년도 십팔년까지 거 전국 토지 조사.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세부 측량²¹⁾이라 하는데. 세부 측량이 끝나는 해에.(‘도원’으로 된 디가 한 천 천팔백 년 어 전후 해가지고 ‘도원’으로 개명되고 어 완전히 그 법적으로 그 당시 법적으로 ‘도원’으로 등록된 것은 처 천팔백십일 년 신미년에 등록이 되고.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후에 에

20) 1935년경에는 제주지역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신엄리를 일구, 중엄리를 이구, 송랑이를 삼구라 하여 행정장을 구장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21) ‘세부 측량’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제주 지역의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한 사건이다. 일제는 1913년 8월 5일 제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1913년 8월부터 1914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에 주소·성명·소유자·지목·등급 등을 신고해야 했다.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한 전라남도 당국은 1916년 1월 4일 제주도 전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 및 그 구역을 공시하고, 도청에서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복잡한 신고 양식 및 근대적 법률 관념에 어두워 조상 전래의 농지를 그대로 몰수당하였다.

천구백년 되니까 또 어 그 서로 그 스 파벌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다시 한 번 바뀌야 된다. 뭐 ‘도원’ ‘순창’이다 하다가 절충안으로 나온 게 ‘신도’인데. 절충안으로 나온 게 ‘신도’인데 ‘신도’를 좀 어 한 십여 년간 운영할 때, 한일합방이 됐고, 한일합방이 되고 천구백십삼 년도 십팔 년까지 거 전국 토지 조사.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세부 측량이라 하는데. 세부 측량이 끝나는 해에.)

101001 @ 예? 뭐라고마씨? 어르신 다시 한 번. 세부창?(예? 뭐라고요? 어르신 다시 한 번. 세부창?)

101001 #1 세부 측량.(‘세부 측량’.)

101001 @ 세부 측량.(‘세부 측량’.)

101001 #1 우리 그 전 국토 그 토지 조사.(우리 그 전 국토 그 토지 조사.)

101001 @ 예.(예.)

101001 #1 토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지적도 만들어 진 거주게. 왜놈들에 의해서.(토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지적도 만들어 진 거지. 왜놈들에 의해서.)

101001 @ 왜놈들한테마씨?(왜놈들한테요?)

101001 #1 응. 왜놈들에 의해서. 게서 거 끝나는 해에 에 지역 그 관리를 위해서 신도 일구 이구로 나뉘졌다가.(응 왜놈들에 의해서. 그래서 거 끝나는 해에 에 지역 그 관리를 위해서 ‘신도’ 일구 이구로 나뉘졌다가.)

101001 @ 예.(예.)

101001 #1 어 건국 후에 저 삼리는 별도로 뵈주게.(어 건국 후에 저 삼리는 별도로 뵈지.)

101001 @ 아. 별도로.(아. 별도로.)

101001 #1 어. 신도 이리에서 나뉘지고 신도 일리, 일구를 포함해서 저 삼리는 별도로 뵈주게.(어. ‘신도 이리’에서 나뉘지고 ‘신도 일리’, 일구를 포함해서 저 삼리는 별도로 뵈지.)

101002 @ 아. 어르신 그러면 신도 일리는 그 주로 성잇잖아예. 사람들. 무슨 씨가 제일 많아마씨?(아. 어르신 그러면 ‘신도 일리’는 그 주로 성잇잖아요. 사람들. 무슨 씨가 제일 많아요?)

101002 #1 경주 김씨가 사실상 그저 중반까지는 건 저 한 사십 프로 차지했는데.(경주 김씨가 사실상 그저 중반까지는 건 저 한 사십 프로 차지했는데.)

101002 @ 경주 김씨마씨?(경주 김씨요?)

101002 #1 어. 경주 김씨가.(어. 경주 김씨가.)

101002 @ 예.(예.)

101002 #1 그런데 현재도 거의 한 이십 한 칠팔 프로. 거의 삼십 프로 가깝지. 가까이 경주 김씨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워낙 그 여기가 그 농 우리 그 마을 그 뭐가 피폐해 놓으니까.(그런데 현재도 거의 한 이십 한 칠팔 프로. 거의 삼십 프로 가깝지. 가까이 경주 김씨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워낙 그 여기가 그 농 우리 그 마을 그 뭐가 피폐해 놓으니까.)

101002 @ 예.(예.)

101002 #1 소득도 엇고 일자리도 엇고 해놓으니까 이거 거의 저 육지나 제주시로 나가 가지고. 거 씨족들이 이동이 어떻게 인연이 잇는 씨족은 서울이나 제주시로 가고. 인연이 엇는 씨족은 여기 잇어서 지금은 경주 김씨 이외에는 뭐 변씨, 고구 저 이씨, 뭐 광산 김씨,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뭐 그냥 그렇게 분포.(소득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해놓으니까 이거 거의 저 육지나 제주시로 나가 가지고. 거 씨족들이 이동이 어떻게 인연이 잇는 씨족은 서울이나 제주시로 가고. 인연이 엇는 씨족은 여기 잇어서 지금은 경주 김씨 이외에는 뭐 변씨, 고구 저 이씨, 뭐 광산 김씨,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뭐 그냥 그렇게 분포.)

101003 @ 그면 그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옛날에 신도 일리 사람들은 어 무슨 일 하명 주로 머 먹고 살안마씨?(그러면 그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옛날에 ‘신도 일리’ 사람들은 어 무슨 일 하면서 주로 머 먹고 살았어요?)

101003 #1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뭐 특수한 그런 거 저 생수도 엇고. 뭐 땅속에서 나는 지하수도 엇고 허니까. 주로 밭농사. 일반 밭농사를 하고. 하늘에 맏겨 가지고 뭐 비가 와주면 농사를. 풍작 되는 거고. 비가 앓고 바람 불민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순수한 뭐 점. 아주 옛날은. 아주 옛날은, 조, 뭐, 보리, 뭐, 콩, 그런 것도 허는데, 에 그 건국 후에도 자연히 에 천구백 한 육십 년대까지는 비료가 자급자족이 우리나라가 안 뵈 때라 놓으니까. 이 마을 주변에 비옥한 땅에는 그래도 농사를 좀 어떻게 해먹고. 그 웨에는 척박한 땅에는 보리도 쌀보리 같은 건 안 뵈고 걸보리나, 이런 식으로 재배를 허고. 순수한 밭작물. 보리 겐디 보리 콩 뭐 고구마 뭐 여 이것도 뭐 수확 다 수확 그런 게 아니고 연명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재배를 해. 하다가, 산업화 뵈면서 천구백 칠십년 전후해서 중농정책 그 오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주.(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뭐 특수한 그런 거 저 생수도 없고. 뭐 땅속에서 나는 지하수도 없고 허니까. 주로 밭농사. 일반 밭농사를 하고. 하늘에 맏겨 가지고 뭐 비가 와주면 농사를. 풍작 되는 거고. 비가 앓고 바람 불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순수한 뭐 점. 아주 옛날은. 아주 옛날은, 조, 뭐, 보리, 뭐, 콩, 그런 것도 허는데, 에 그 건국 후에도 자연히 에 천구백 한 육십 년대까지는 비료가 자급자족이 우리나라가 안 뵈 때라 놓으니까. 이 마을 주변에 비옥한 땅에는 그래도 농사를 좀 어떻게 해먹고. 그 웨에는 척박한 땅에는 보리도 쌀보리 같은 건 안 뵈고 걸보리나,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순수한 밭작물. 보리 그런데 보리 콩 뭐 고구마 뭐 여 이것도 뭐 수확 다 수확 그런 게 아니고 연명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재배를 해. 하다가, 산업화 뵈면서 천구백 칠십년 전후해서 중농정책 그 오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지.)

101003 @ 아 어떤 변화인가마씨?(아 어떤 변화인가요?)

101003 #1 그게 그 당시에는. 웨냐면 여기가 농토가 높고.(그게 그 당시에는. 왜냐면 여기가 농토가 높고.)

101003 @ 예.(예.)

101003 #1 또 거름을 안 주는, 비료를 안 쓰던 땅에 거름을 주니까.(또 거름을 안 주는, 비료를 안 쓰던 땅에 거름을 주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이제 그 토양 자체가 여기는 농암갈색 화산회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게 보면 화산회토 그런 디보다는 비료 효과도 더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로 거 연작 피해도 없고 해 가지고. 고구마 해서 절간고구마, 유채. 이게 엄청 잘 돼. 딴 지역에 비해서.(이제 그 토양 자체가 여기는 농암갈색 화산회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게 보면 화산회토 그런 디보다는 비료 효과도 더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로 거 연작 피해도 없고 해 가지고. 고구마 해서 절간고구마, 유채. 이게 엄청 잘 돼. 딴 지역에 비해서.)

101003 @ 예.(예.)

101003 #1 그래서 좀 진짜 우리나라 거 밭을 초가집도 없애고, 뭐 마을 길도 넓히고, 한 한 것이 천구백 칠십년 전후데 그 당시부터 조금, 육체적으로 노동은 많이 했지만은.(그래서 좀 진짜 우리나라 거 밭을 초가집도 없애고, 뭐 마을 길도 넓히고, 한 한 것이 천구백 칠십년 전후데 그 당시부터 조금, 육체적으로 노동은 많이 했지만은.)

101003 @ 예.(예.)

101003 #1 조금 소득이 향상 돼가지고. 그래도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지.(조금 소득이 향상 돼가지고. 그래도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지.)

101004 @ 으음. 그 신도리에 주변에 오름이나 뭐 내천, 아니면 바위나 굴 같은 거 잇인가마씨? 좀 유명한 거 잇어마씨?(으음. 그 '신도리'에 주변에 오름이나 뭐 내천, 아니면 바위나 굴 같은 거 있어요? 좀 유명한 거 있어요?)

101004 #1 아, 그런 건 없고. 여기 뭐 오름은 여기 뭐 녹남봉²²⁾ 하나가 있고.(아, 그런 건 없고. 여기 뭐 오름은 여기 뭐 '녹남봉' 하나가 있고.)

101004 @ 녹남봉마씨?('녹남봉'이요?)

101004 #1 에 녹남봉 있고. 녹남봉이영 자연 동굴은 없고. 어 그게 일본놈들 그 진지 동굴들, 한 다섯 개 그냥 저 있고.(에 '녹남봉' 있고. '녹남봉'이랑 자연 동굴은 없고. 어 그게 일본놈들 그 진지 동굴들, 한 다섯 개 그냥 저 있고.)

101004 @ 그건 어디 잇어마씨?(그건 어디 있어요?)

101004 #1 여기 녹남봉 저기 우에 올라가야 있고.(여기 '녹남봉' 저기 위에 올라가야 있고.)

22) '녹남봉'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위치한 측화산이다(고도 : 100m). 산정에 원형 분화구를 갖고 있는 오름으로 마을에서는 이를 '가메창'이라 부른다. 이 원형 분화구 안의 화구원에는 화구 안쪽 사면과의 사이에 삼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감귤원이 조성되어 있다. 『탐라도』, 『탐라순력도』(한라장축), 『탐라지도병서』,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용목악(龍木岳)'이라 기재했다. 『조선지지자료』에 '녹남봉(綠楠峰)', 『조선지형도』에 '농남봉(農南峯)'이라 표기했다. 예로부터 이곳에 녹나무가 많아서 '녹남오름'이라 했고,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참조.)

101004 @ 아. 올라가야. 그 녹남봉에 대해서 좀 그 얽힌 거 잇이든 얘기해 주실 거 잇어마씨?(아. 올라가야. 그 ‘녹남봉’에 대해서 좀 그 얽힌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실 거 없어요?)

101004 #1 겐디 그 녹남봉에 한 것도 누가 뚜렷이 뭐 기록으로 남은 것도 잇고.(그런데 그 ‘녹남봉’에 한 것도 누가 뚜렷이 뭐 기록으로 남은 것도 없고.)

101004 @ 예.(예.)

101004 #1 또 여 거 옛날에는 거 녹나무가 엄청난 엄청나게 여기 많았고. 녹나무가.(또 여 거 옛날에는 거 녹나무가 엄청난 엄청나게 여기 많았고. 녹나무가.)

101004 @ 예.(예.)

101004 #1 그 녹나무. 녹남방이라고 해가지고 제주 저저 한 녹남봉에서 자란 녹남을 잘라가지고 만든 방아가, 한 몇 달음 쉰 그 방아가, 해방 당시까지도 신도 모 사람네 집이 잇었는데, 그 후에 뭐 골동품 수집가가 이제 그 가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잇는데.(그 녹나무. 녹나무방이라고 해가지고 제주 저저 한 ‘녹남봉’에서 자란 녹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든 방아가, 한 몇 달음 된 그 방아가, 해방 당시까지도 신도 모 사람네 집이 잇었는데, 그 후에 뭐 골동품 수집가가 이제 그 가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잇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그건 뭐 고증할 수는 잇고. 고증할 수는 잇고, 어 녹나무 그렇게 해서 녹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해 가지고 이제 녹남봉이라고 허는데. 지금 그 진성기 지명 유래. 진성기 그 저 학자 몰라? 진○○ 씨?(그건 뭐 고증할 수는 없고. 고증할 수는 없고, 어 녹나무 그렇게 해서 녹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해 가지고 이제 ‘녹남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진○○ 지명 유래. 진○○ 그 저 학자 몰라? 진○○ 씨?)

101004 @ 예예. 잘.(예예. 잘.)

101004 #1 진○○ 제주도 지명 유래를 책자를 만든 분이라.(진## 제주도 지명 유래를 책자를 만든 분이라.)

101004 @ 아.(아.)

101004 #1 우리 여기만 아니고 제주도 이런 지역으로.(우리 여기만 아니고 제주도 이런 지역으로.)

101004 @ 예.(예.)

101004 #1 어 진○○ 지명 유래에 보면은 녹남봉은 장목봉이라 해서. 장목봉. 녹나무, 녹나무 장자에 나무 목자를 써서 장목봉. 겐디 장목봉이라고 허는 것은 그건 녹나무엔 현 것을 이름 저 뭐냐 한자 표기로 해서 장목봉이라 현 것은 난 그것은 맞지 았고.(어 진○○ 지명 유래에 보면은 ‘녹남봉’은 ‘장목봉’이라 해서. ‘장목봉’. 녹나무, 녹나무 장자에 나무 목자를 써서 ‘장목봉’. 그런데 ‘장목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녹나무라고 현 것을 이름 저 뭐냐 한자 표기로 해서 ‘장목봉’이라 한 것은 난 그것은 맞지 았고.)

101004 @ 예.(예.)

101004 #1 어 녹나무는 녹남봉 녹나무. 현재 농사 농자에 남녘 남자를 거의 쓰는데, 예 나 생각으로는, 순수한 우리 우리말. 녹나무 오름. 녹나무 오름을 줄이다 보니까 녹남봉 녹남봉 허는데.(어 녹나무는 ‘녹남봉’ 녹나무. 현재 농사 농자에 남녘 남자를 거의 쓰는데, 예 나 생각으로는, 순수한 우리 우리말. 녹나무 오름. 녹나무 오름을 줄이다 보니까 ‘녹남봉’ ‘녹남봉’ 하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그런 설도 있고. 가끔 그 풍수지리에서는, 예 까치가, 그 뭐, 알을 뭐 허고 품어서 희롱한다고 해서, 룡, 희롱 룡자 룡, 계란 란자 란. 해서, 녹남봉이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것은, 풍수지리로 해서 그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순수하게 녹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제 녹남, 녹나무 오름.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유래 댜 걸로 이제 보주.(그런 설도 있고. 가끔 그 풍수지리에서는, 예 까치가, 그 뭐, 알을 뭐하고 품어서 희롱한다고 해서, 룡, 희롱 룡자 룡, 계란 란자 란. 해서, ‘녹남봉’이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것은, 풍수지리로 해서 그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순수하게 녹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제 녹남, 녹나무 오름.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유래된 걸로 이제 보지.)

101005 @ 그러면 이제 신도 일리에는 그 공공기관 잇잖아예. 공공기관에는 뭐, 뭐 잇어마씨? 여기에는.(그러면 이제 ‘신도 일리’에는 그 공공기관 잇잖아요. 공공기관에는 뭐, 뭐 잇어요? 여기에는.)

101005 #1 아무것도 잇어.(아무것도 없어.)

101005 @ 아무것도 잇어마씨?(아무것도 없어요?)

101005 #1 신도초등학교가 잇다가 폐교뵈 부니까.(신도초등학교가 잇다가 폐교뵈 버리니까.)

101005 @ 아. 언제 폐교뵈마씨?(아. 언제 폐교뵈었어요?)

101005 #1 어, 폐교뵈 지가 한, 한 십오년 한 한 십오년 이상 뵈지.(어, 폐교뵈 지가 한, 한 십오년 한 한 십오년 이상 뵈지.)

101005 @ 아. 경 뵈마씨? 그럼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기관 같은 거.(아. 그렇게 뵈었어요? 그럼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기관 같은 거.)

101005 #1 아, 보 보건 보건 진료소.(아, 보 보건 보건 진료소.)

101005 @ 아.(아.)

101005 #1 보건 진료소. 그 웨엔 잇어.(보건 진료소. 그 외에는 없어.)

101005 @ 그 웨엔 잇어마씨? 그럼 여기서 뭐 기관 가젠 허민 가까운 뵈 어디로 가야뵈마씨?(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기관 가려고 하면 가까운 뵈 어디로 가야뵈요?)

101005 #1 뭐 행정 에 거 뭐 등초본 때려면 읍사무소, 모슬포 가야 뵈고.(뭐 행정 에 거 뭐 등초본 때려면 읍사무소, ‘모슬포’ 가야 뵈고.)

101005 @ 모슬포까지마씨?(‘모슬포’까지요?)

101005 #1 또 뭐 예금, 뭐 예 예금 예대출 영 이런 거 허젠허민 무릉, 대정 농협 무릉지소로 가야 되고.(또 뭐 예금, 뭐 예 예금 예대출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하면 ‘무릉’, ‘대정’ 농협 무릉지소로 가야 되고.)

101005 @ 아, 무릉지소마씨?(아, 무릉지소요?)

101005 #1 과출소도 여기 무릉에 잇었다가 이제는 모슬포로 가야 되고.(과출소도 여기 ‘무릉’에 있었다가 이제는 ‘모슬포’로 가야 되고.)

101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1005 #1 우체국도 우체국 무릉에 잇었다가 다 이제 모슬포.(우체국도 우체국 ‘무릉’에 있었다가 다 이제 ‘모슬포’.)

101006 @ 그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혹시 계 잇잖아예. 이렇게 몇 명 모아가지고 하는 거 잇잖아예. 그 제주도에서 뭐 접이라 햇수광 혹시? 계, 접?(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혹시 계 잇잖아요. 이렇게 몇 몇 모아가지고 하는 거 잇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뭐 접이라 했습니까 혹시? 계, 접?)

101006 #1 계로 어 보는데, 계로.(계로 어 보는데. 계로.)

101006 @ 계로 봐마씨? 그면 계들이 잇언마씨? 어르신? 옛날에는?(계로 봐요? 그러면 계들이 있었어요? 어르신? 옛날에는?)

101006 #1 옛날에야 뭐 더 많았겠지. 지금보다.(옛날에야 뭐 더 많았겠지. 지금보다.)

101006 @ 아. 지금도 잇어마씨?(아. 지금도 있어요?)

101006 #1 근데 뭐, 현 현존하고 잇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잇는 것은 엇고. 뭐 오래 잇어야 한. 한 칠십년 정도 한 계들은 잇겠다. 칠십년.(근데 뭐, 현 현존하고 잇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잇는 것은 엇고. 뭐 오래 잇어야 한. 한 칠십년 정도 한 계들은 잇겠다. 칠십년.)

101006 @ 어땡? 그건 뭐마씨?(어땡게? 그건 뭐예요?)

101006 #1 그건 부인 친목회가 현재까지 존속해 잇는데. 부인 친목회. 오십, 오십 삼년도 조직해 가지고 하니까 칠십 삼년 정도 됐나?(그건 부인 친목회가 현재까지 존속해 잇는데. 부인 친목회. 오십, 오십 삼년도 조직해 가지고 하니까 칠십 삼년 정도 됐나?)

101006 @ 예.(예.)

101006 #1 오십 삼년도 조직해 가지고. 그땐 상부상조였어. 뭐 조금 예 장례 에 장의사들이 장례식장에서 허던 것을 서로 대치도 해주고. 또 결혼식.(오십 삼년도 조직해 가지고. 그때는 상부상조였어. 뭐 조금 예 장례 에 장의사들이 장례식장에서 허던 것을 서로 대치도 해주고. 또 결혼식.)

101006 @ 예.(예.)

101006 #1 경사스러운 거 경사 결혼식이나 뭐 어땡 가서 축하를 해주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는 애도해 주고. 하는 그런 켜데. 옛날에는 한꺼번에 만약 쌀 한 가마니도 귀한 때니까.(경사스러운 거 경사 결혼식이나 뭐 어땡게 가서 축하를 해주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는 애도해 주고. 하는 그런 계인데. 옛날에는 한꺼번에 만약 쌀 한 가마니도 귀한 때니까.)

101006 @ 예.(예.)

101006 #1 쌀 한 가마니도 요즘 저 이북에서 무슨 뭐 월급 받아근영 쌀 한 말 산다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우리도 어렵게 살 때는. 쌀 한 가마니도 귀한 때니까. 그런 그 계를 조직해서 친목 단체를 조직해서 어려울 때, 쌀도 부주하고 가서 거 좀 벗도 해줘서 마음에 위안도. 아주. 그렇게 한 게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계로는 오십삼년도에 조직한 게 제일 오래된 거.(쌀 한 가마니도 요즘 저 이북에서 무슨 뭐 월급 받아서 쌀 한 말 산다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우리도 어렵게 살 때는. 쌀 한 가마니도 귀한 때니까. 그런 그 계를 조직해서 친목 단체를 조직해서 어려울 때, 쌀도 부조하고 가서 거 좀 벗도 해줘서 마음에 위안도. 아주. 그렇게 한 게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계로는 오십삼년도에 조직한 게 제일 오래된 거.)

101006 @ 제일 오래된 거마씨? 그거 말고 뭐 남자들이 했던 건 엇수광?(제일 오래된 거요? 그거 말고 뭐 남자들이 했던 건 없습니까?)

101006 #1 물론 있겠지. 있으나 그러나 뭐 그것이 현재 존속이 될지 안 해 부니까.(물론 있겠지. 있으나 그러나 뭐 그것이 현재 존속이 되지를 안 해 버리니까.)

101006 @ 그러니까 그냥 뭐 존속되는 거 말고예. 옛날에 있었던 것만 그냥 아시는 거 하나 하나만.(그러니까 그냥 뭐 존속되는 거 말고. 옛날에 있었던 것만 그냥 아시는 거 하나 하나만.)

101006 #1 아 예를 들어서 뭐 좀 뭇방계²³⁾라고 뭇방²⁴⁾ 알아? 뭇방?(아 예를 들어서 뭐 좀 ‘뭇방계’라고 연자방아 알아? 연자방아?)

101006 @ 아 예. 뭇방은 알주마씨. 예.(아 예. 연자방아는 알지요. 예.)

101006 #1 그게 뭇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친목을. 게니까 뭇방이 혼자가 만든 게 아니고.(그게 연자방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친목을. 그러니까 연자방아가 혼자가 만든 게 아니고.)

101006 @ 예.(예.)

101006 #1 여러 사람이 거 만들어서 가지고 뭇방계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좀 열심히 해서 밭도 상 공동 작업도 하고.(여러 사람이 거 만들어서 가지고 ‘뭇방계’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좀 열심히 해서 밭도 사서 공동 작업도 하고.)

101006 @ 아.(아.)

101006 #1 뭐 허는데. 그 그 뭇방계는 현재 존속은 안 돼지만 조직한 지는 한 한 구십 년으로 봐야지 팔구십 년. 응. 응. 뭇방계. 그런 계 좀 있었고.(뭐 허는데. 그 그 ‘뭇방계’는 현재 존속은 안 돼지만 조직한 지는 한 한 구십 년으로 봐야지 팔구십 년. 응. 응. ‘뭇방계’. 그런 계 좀 있었고.)

101007 @ 예. 그럼 신도에만 있는 풍습 같은 거 혹시 있어마씨? 어떻 풍습 있

23) ‘뭇방계’는 ‘연자방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계를 뜻하는 말이다.

24) ‘뭇방’은 ‘연자방아’ 혹은 ‘연자매’를 뜻하는 말이다.

수광?(예. 그럼 ‘신도’에만 있는 풍습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어떻게 풍습 있습니까?)

101007 #1 어 글썄 난 신도만의 풍습은 신도만의 풍습은.(어 글썄 난 ‘신도’만의 풍습은 ‘신도’만의 풍습은.)

101007 @ 엇어마씨?(없어요?)

101007 #1 그 신도만의 풍습은 아닌데 이걸 뭐 좋은 풍습이건 나쁜. 요즘으로 보면은 요즘 식에 맞아서 좋은 풍습이지만은.(그 ‘신도’만의 풍습은 아닌데 이걸 뭐 좋은 풍습이건 나쁜. 요즘으로 보면은 요즘 식에 맞아서 좋은 풍습이지만은.)

101007 @ 예.(예.)

101007 #1 그 모관²⁵허고.(그 ‘모관’하고.)

101007 @ 예.(예.)

101007 #1 정의허고.(‘정의’하고.)

101007 @ 예.(예.)

101007 #1 대정. 대정이 뭐 거 게니까. 딱 신도만 아니주게. 대정은. 대정은 도관 도관포구 서쪽은 대정이고.(‘대정’. ‘대정’이 뭐 거 그러니까. 딱 ‘신도’만 아니지. ‘대정’은. ‘대정’은 ‘도관’ ‘도관포구’ 서쪽은 ‘대정’이고.)

101007 @ 예.(예.)

101007 #1 두모²⁶ 이쪽은 판포²⁷ 이쪽은 대정이주게.(‘두모’ 이쪽은 ‘판포’ 이쪽은 ‘대정’이지.)

101007 @ 예.(예.)

101007 #1 게난 제주시 경 판포 이쪽 저 이제 서귀포시 거 법환포구²⁸ 서쪽 거긴 대정인데.(그러니 제주시 그렇게 ‘판포’ 이쪽 저 이제 서귀포시 거 ‘법환포구’ 서쪽 거기는 ‘대정’인데.)

101007 @ 예.(예.)

101007 #1 모관허고 정의허고 대정 풍습은 좀 달라. 다른 거 풍습이라는 게. 어 그건 그 당시는 그 효가 모관 모관허민 어딘지 알아?(‘모관’하고 ‘정의’하고 ‘대정’ 풍습은 좀 달라. 다른 거 풍습이라는 게. 어 그건 그 당시는 그 효가 ‘모관’ ‘모관’ 하면 어딘지 알아?)

101007 @ 뭐 대충 알아마씨. 예. 저번에. 들어 봤인다.(뭐 대충알아요. 예. 저번에. 들어 봤는데.)

101007 #1 거 어 어디라 모관?(거 어 어디라 ‘모관’?)

101007 @ 시 쪽에 말하는 거 아니짱?(시 쪽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101007 #1 목사²⁹가 관리하던 곳.(‘목사’가 관리하던 곳.)

101007 @ 예. 모관 해 가지고.(예. ‘모관’ 해 가지고.)

25) ‘모관’은 옛 제주의 행정도시인 ‘제주목 안’을 의미한다.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동문, 서문, 남문 안을 ‘성안’ 또는 ‘모관’이라고 했다.

26) ‘두모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27) ‘판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28) ‘법환포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포구이다.

29) ‘제주목사’는 조선시대 제주목을 맡아 다스린 정3품 외직 문관을 의미한다.

101007 #1 어 모관. 그게 모관이고, 정의는 저 정의현에서 관리하던 데고 여긴 대정인데. 에 그 대정 쪽은 뭐 전부허거나 아니고 특히 이 이 현재 대정 쪽. 이쪽은 사람이 돌아가면은 그 당시도 삼일장을 많이 했어 삼일장. 오일장 이래서 거. 거 저 쪽은 그렇게 허고. 이쪽은 돌아가거나 딱 허면은 그 풍수지리에서 그 뒤에서 많이 허주게. 상조에 액운이 나쁜 액운만 아니면은 바로 성복허고. 성복이 뭔지 알지 성복?(어 ‘모관’. 그게 ‘모관’이고, ‘정의’는 저 ‘정의현’에서 관리하던 데고 여긴 ‘대정’인데. 에 그 ‘대정’ 쪽은 뭐 전부허거나 아니고 특히 이 이 현재 ‘대정’ 쪽. 이쪽은 사람이 돌아가면은 그 당시도 삼일장을 많이 했어 삼일장. 오일장 이래서 거. 거 저 쪽은 그렇게 하고. 이쪽은 돌아가거나 딱 하면은 그 풍수지리에서 그 뒤에서 많이 하지. 상조에 액운이 나쁜 액운만 아니면은 바로 성복하고. 성복이 뭔지 알지 성복?)

101007 @ 예.(예.)

101007 #1 성복허고 어 임시 가봉군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다 모셨주게.(성복하고 어 임시 가봉군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다 모셨지.)

101007 @ 아.(아.)

101007 #1 겐디 모관이나 저 정의 쪽은 오일 아니 칠일이나 방 안에 모셨어.(그런데 ‘모관’이나 저 ‘정의’ 쪽은 오일 아니 칠일이나 방 안에 모셨어.)

101007 @ 예.(예.)

101007 #1 게난 그건 옛날에는 거 효의 상징일런지 몰라도 지금은 대정이 맞아.(그러니까 그건 옛날에는 거 효의 상징일런지 몰라도 지금은 ‘대정’이 맞아.)

101007 @ 아.(아.)

101007 #1 지금. 일단 돌아갔으면은 좀 불효인지 몰라도 그 성복일랑 끝난 다음에 가봉군 만들었다가 가는 게 위생적으로나 뭐나 좋은 거지.(지금. 일단 돌아갔으면은 좀 불효인지 몰라도 그 성복일랑 끝난 다음에 가봉군 만들었다가 가는 게 위생적으로나 뭐나 좋은 거지.)

101007 @ 예.(예.)

101007 #1 그게 그런 풍습 차이는 대정하고 정의, 모관 차이는 그게 분명 있어.(그게 그런 풍습 차이는 ‘대정’하고 ‘정의’, ‘모관’ 차이는 그게 분명 있어.)

101008 @ 그면 그 신도 특산물은 잇어마씨? 특산물 잇인가마씨?(그러면 그 ‘신도’ 특산물은 잇어요? 특산물 없어요?)

101008 #1 특산물은 엇고.(특산물은 없고.)

101008 @ 예.(예.)

101008 #1 옛날 제주도 전체적으로 토지 비옥도를 봐서 일 강정 이 도원 했주게.(옛날 제주도 전체적으로 토지 비옥도를 봐서 일 ‘강정’ 이 ‘도원’ 했지.)

101008 @ 예.(예.)

101008 #1 강정³⁰⁾이 최고, 그 다음 도원³¹⁾.(‘강정’이 최고, 그 다음 ‘도원’.)

30) ‘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을 의미한다.

101008 @ 어디가 최고, 최고마씨?(어디가 최고, 최고예요?)

101008 #1 강정.(‘강정’.)

101008 @ 아, 강정 마을.(아, ‘강정’ 마을.)

101008 #1 어, 강정 마을에 토양이 비옥하고 쌀 맛도 좋고, 뭐 게 모든 게 좋고, 그 다음 이 도원. 두 번째는 도원이고.(어, ‘강정’ 마을에 토양이 비옥하고 쌀 맛도 좋고, 뭐 게 모든 게 좋고, 그 다음 이 ‘도원’. 두 번째는 ‘도원’이고.)

101008 @ 도원?(‘도원’?)

101008 #1 어. 세 번째는 삼 번네³²⁾라고 사계 쪽인데 아 저 사계 저쪽 그 저 화순 쪽.(어. 세 번째는 삼 ‘번네’라고 ‘사계’ 쪽인데 아 저 ‘사계’ 저쪽 그 저 ‘화순’ 쪽.)

101008 @ 아, 화순마씨?(아, 화순이요?)

101008 #1 어 게 삼 번네. 어 게서 일 강정, 이 도원, 삼 번네. 경 행 일 강정 거는 워낙 토지가 비옥하고, 겐데 거기는 논밭이 좀 많주.(어 그럼. 삼 ‘번네’. 어 그래서 일 ‘강정’, 이 ‘도원’, 삼 ‘번네’, 그렇게 해서 일 ‘강정’ 거는 워낙 토지가 비옥하고, 그런데 거기는 논밭이 좀 많지.)

101008 @ 예.(예.)

101008 #1 게서 여기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암갈색 화산회토라고, 어 지금 보면 수원 쪽 토양하고 거의 비슷할런지 모를 거라. 수원 거 한림 쪽. 거 게니깐 여기는 같은 보리쌀이라도 딴 지역 저 저쪽 거 동쪽의 보리쌀하고 차원이 틀려. 쉽게 말해서 저기는 일반, 일반 벼고.(그래서 여기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암갈색 화산 회토라고, 어 지금 보면 ‘수원’ 쪽 토양하고 거의 비슷할런지 모를 거라. ‘수원’ 거 ‘한림’ 쪽. 거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보리쌀이라도 딴 지역 저 저쪽 거 동쪽의 보리 쌀하고 차원이 틀려. 쉽게 말해서 저기는 일반, 일반 벼고.)

101008 @ 예.(예.)

101008 #1 보리라도. 여기는 찰벼. 찰, 찰쌀이라. 찰쌀.(보리라도. 여기는 찰벼. 찰, 찰쌀이라. 찰쌀.)

101008 @ 아.(아.)

101008 #1 게고 거 조도 조팝도. 여기는 완전히 그 끈덕끈덕허주게. 저쪽은 헛쌀, 밥을 허면 저쪽 쌀도 헛쌀 해서 이쪽은 끈덕끈덕허고 헛주게. 토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신도 보리쌀, 신도 쌀이라고 허면은 중간 이 지금은 그렇지 아니주만은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 가서도 값을 한 몇 번 더 받을 수 있어.(그리고 거 조도 조팝도. 여기는 완전히 그 끈덕끈덕하지. 저쪽은 헛쌀, 밥을 하면 저쪽 쌀도 헛쌀 해서 이쪽은 끈덕끈덕하고 했지. 토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신도’ 보리쌀, ‘신도’ 쌀이라고 하면은 중간 이 지금은 그렇지 아니지만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 가서도 값을 한 몇 번 더 받을 수 있어.)

31) ‘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을 의미한다.

32) ‘번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의 옛 지명이다.

101008 @ 아.(아.)

101008 #1 그래서. 여기는 토양이 워낙 비옥해가지고. 어 제주도에서는 강정 다음에 여기 토양이 토질이 좋다.(그래서. 여기는 토양이 워낙 비옥해가지고. 어 제주도에서는 ‘강정’ 다음에 여기 토양이 토질이 좋다.)

101009 @ 그럼 그게 일종의 자랑거리잖아예. 신도 토양이 좋다.(그럼 그게 일종의 자랑거리잖아요. ‘신도’ 토양이 좋다.)

101009 #1 그럼.(그럼.)

101009 @ 그럼 토양이 좋은 거 말고 또 또 자랑거리 혹은 엇을까마씨? 어르신? 신도 자랑거리? 게니까 뭐 무릉도원 해 가지고 나오던데.(그럼 토양이 좋은 거 말고 또 또 자랑거리 혹은 없을까요? 어르신? ‘신도’ 자랑거리? 그러니까 뭐 무릉도원 해 가지고 나오던데.)

101009 #1 글썄 자랑거리는 대정. 당시도 문과급제 뭐 칠십 뭐 가짜로 뭐 해근 앵 교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줌 뭐, 뭐 했주만은 그 후에도 이 녹남봉에 정기를 받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주만은.(글썄 자랑거리는 ‘대정’. 당시도 문과급제 뭐 칠십 뭐 가짜로 뭐 해서 교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줌 뭐, 뭐 했지만 그 후에도 이 ‘녹남봉’에 정기를 받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01009 @ 예.(예.)

101009 #1 어 여기 고시, 고시 합격이 많은 동네라.(어 여기 고시, 고시 합격이 많은 동네라.)

101009 @ 아, 고시마씨?(아, 고시요?)

101009 #1 어.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합격이 많주게.(어.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합격이 많지.)

101010 @ 그러면 이 밖에도 마을에 대해서 어르신 뭐 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얘기나 뭐 그런 거 엇일까마씨? 마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엇어마씨?(그러면 이 밖에도 마을에 대해서 어르신 뭐 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얘기나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마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없어요?)

101010 #1 글썄, 얘기하고 싶은 건 뭐 뚜렷한 건 엇주만은. 뭐 어느 부락도 다 마찬가지로 단합이 좋고 뭐 허는디. 우리 부락도 단합이 좋다.(글썄, 얘기하고 싶은 건 뭐 뚜렷한 건 없지만. 뭐 어느 부락도 다 마찬가지로 단합이 좋고 뭐 하는데. 우리 부락도 단합이 좋다.)

101010 @ 예.(예.)

101010 #1 게고 거 우리 그 경로당만 허더라도 게니깐 경로당 회원이 한 인구의 한 오십 프로되던가 초초초 고속 고령화됐주게.(그리고 거 우리 그 경로당만 허더라도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이 한 인구의 한 오십 프로되던가 초초초 고속 고령화됐지.)

101010 @ 오십 프로마씨? 그러면 어르신 가면 막내마씨?(오십 프로요? 그러면 어르신 가면 막내예요?)

101010 #1 초초초 여 저기 인제 고령화인데.(초초초 여 저기 인제 고령화인데.)

101010 @ 예.(예.)

101010 #1 에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도 뭐 부양 받겠다 뭐 생각보다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한 축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이 순하고. 뭐 그런 게 자랑으로 보고. 인심 좋고.(에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도 뭐 부양 받겠다 뭐 생각보다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한 축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이 순하고. 뭐 그런 게 자랑으로 보고. 인심 좋고.)

101002 @ 그럼 이 마을은 주로 무슨 성씨가 많아마씨?(그럼 이 마을은 주로 무슨 성씨가 많아요?)

101002 #2 성씨?(성씨?)

101002 @ 예. 무슨 성이 제일 많아마씨?(예. 무슨 성이 제일 많아요?)

101002 #2 경주 김씨 하르방이 첫째 이디 완.(경주 김씨 할아버지가 첫째 여기 왔어.)

101002 @ 아.(아.)

101002 #2 그 변○○ 알아지지?(그 변○○ 알아지지?)

101002 @ 예.(예.)

101002 #2 변○○도 이 마을이주게. 그 변○○이 권당.(변○○도 이 마을이지. 그 변○○이 권당.)

101002 @ 아, 권당마씨?(아, 권당이에요?)

101002 #2 어. 겐디 이 경주 김씨 하르방이 여기 왕 사난 경주 김씨가 제일 하주게.(어. 그런데 이 경주 김씨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사니까 경주 김씨가 제일 많지.)

101002 @ 그 다음은 또?(그 다음은 또?)

101002 #2 그 다음은 뭐 이 마을에선 변씨들이 제일 많지.(그 다음은 뭐 이 마을에서는 변씨들이 제일 많지.)

101003 @ 그럼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지언마씨?(그럼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지었어?)

101003 #2 다 농사지어.(다 농사지어.)

101004 @ 그럼 주변에 오름이나 뭐 바위나 굴이나 좀 유명한 거 있어마씨?(그럼 주변에 오름이나 뭐 바위나 굴이나 좀 유명한 거 없어요?)

101004 #2 그 저 오름에 굴 있어.(그 저 오름에 굴 있어.)

101004 @ 아, 녹남봉에?(아, '녹남봉'에?)

101004 @ 어.(어.)

101004 #2 무슨 굴 있어마씨? 굴 이름은 뭐짱?(무슨 굴 있어요? 굴 이름은 뭐 입니까?)

101004 #2 굴 이름은 모르고 그 일본병정들 왕 판. 그 때 싸울 때. 녹남봉에 요

기 그딤 이 오름에 그 안네 가메창이 있어.(굴 이름은 모르고 그 일본병정들 와서 봤어. 그 때 싸울 때, ‘녹남봉’에 요기 거기 이 오름에 그 안에 분화구가 있어.)

101004 @ 예.(예.)

101004 #2 이 영 오름이주만은 그 가운데 한라산³³치 움막³³ 데 있어. 그딤 를 가메창³⁴이라고 하여.(이 이렇게 오름이지만 그 가운데 한라산같이 ‘움막한’ 데 있어. 거기를 ‘가메창’이라고고 해.)

101004 @ 예.(예.)

101004 #2 가메창.(‘가메창’.)

101004 @ 가메창.(‘가메창’.)

101004 #2 가메창 있어. 신도 오름은 녹남봉이고.(분화구 있어. 신도 오름은 녹남봉이고.)

101004 @ 예.(예.)

101004 #2 속에 들어가면 가메창도 있고 굴도 있고.(속에 들어가면 분화구도 있고 굴도 있고.)

101008 @ 그럼 여기 신도리 특산물은 뭐 있어마씨?(그럼 여기 ‘신도리’ 특산물은 뭐 있어요?)

101008 #2 특산물 없어. 관광객도 없고. 별게 없어.(특산물 없어. 관광객도 없고. 별거 없어.)

101009 @ 그럼 그 마을 자랑거리 알아 줘서. 마을 자랑거리. 어르신 그때 그 땅이 좋다고 말했는데 그거 말앙 또. 그것도 또 얘기해 주고 다른 것도 또 얘기해 줘서.(그럼 그 마을 자랑거리 말해 주십시오. 마을 자랑거리. 어르신 그때 그 땅이 좋다고 말했는데 그거 말고 또. 그것도 또 얘기해 주고 다른 것도 또 얘기해 주십시오.)

101009 #2 제주도에서.(제주도에서.)

101009 @ 예.(예.)

101009 #2 땅 좋은 게 일 강정 이 돈이. 이디가 이 돈이라 헛주 옛날에. 지금은 신도렌 해도.(땅 좋은 게 일 ‘강정’ 이 ‘돈이’. 여기가 이 ‘돈이’라 헛지 옛날에. 지금은 ‘신도’라고 해도.)

101009 @ 그거 말고 땅 말앙 다른 거 좋은 거 있어마씨?(그거 말고 땅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없어요?)

101009 #2 좋은 거 없어. 물 멀고 땅만 좋주. 관광객도 없고. 이디 제주에서 제일 땅 싸.(좋은 거 없어. 물 멀고 땅만 좋지. 관광객도 없고. 여기 제주에서 제일 땅 싸.)

101009 @ 아, 제주에서? 그럼 뭐 마을 여기 장수 마을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 잊지 않아마씨?(아, 제주에서? 그럼 뭐 마을 여기 장수 마을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

33) ‘움막하다’는 가운데가 움푹하게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34) ‘가메창’은 오름의 분화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있지 않아요?)

101009 #2 엇어. 그런 거. 제주도에서 제일 촌일거라.(없어. 그런 거. 제주도에서 제일 촌일거야.)

101009 @ 제일 촌마씨?(제일 촌이요?)

101009 #2 제일 촌.(제일 촌.)

101001 @ 이 마을 신도이리³⁵⁾ 형성된 거 옛날부터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시는 거 잇이민 줌 곱아 줌서.(이 마을 ‘신도이리’ 형성된 거 옛날부터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즐 말해 주십시오.)

101001 #5 계메게 옛날에 옛날 옛날에는 우리 살 때는.(글쎄 옛날에 옛날 옛날에는 우리 살 때는.)

101001 @ 예.(예.)

101001 #5 그 사삼사건 때.(그 사삼사건 때.)

101001 @ 예.(예.)

101001 #5 그거 곱읍서게.(그거 말하십시오.)

101001 @ 예. 뭐 곱아줍서게 괜찮아마씨 할머니.(예. 뭐 말해주십시오 괜찮아요 할머니.)

101001 #6 사삼 사건 땀게 옛날에는.(사삼 사건 때는 옛날에는.)

101001 #5 이 할망이 잘 알주.(이 할머니가 잘 알지.)

101001 @ 예. 할머니 성함은 어떻 뉘주마씨?(예.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지요?)

101001 #6 난 진○○.(난 진○○.)

101001 @ 마을 형성에 대해서.(마을 형성에 대해서.)

101001 #6 마을에 이제 나도 이 동네서 태어났인다.(마을에 이제 나도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101001 @ 예.(예.)

101001 #6 열두 살 때 뉘난.(열두 살 때 되니까.)

101001 @ 예.(예.)

101001 #6 이 사삼이 나난.(이 사삼이 나니까.)

101001 @ 예.(예.)

101001 #6 어느 날 뉘 갑자기 아버지 오빠 둘 다 심어당 요디 요 옆 다 총살해 버련.(어느 날 뉘 갑자기 아버지 오빠 둘 다 잡아다가 여기 여 옆 다 총살해 버렸어.)

101001 @ 아, 할머니 어렸을 때?(아, 할머니 어렸을 때?)

101001 #6 어릴 때. 어릴 때. 경 허난 다 그날은 이제 고만히 집이 잇이난.(어릴 때. 어릴 때. 그렇게 하니까 다 그날은 이제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101001 @ 예.(예.)

35) ‘신도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1001 #6 다 집집마다 땡기멍.(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101001 @ 예.(예.)

101001 #6 이제 다 나오렌.(이제 다 나오라고.)

101001 @ 예.(예.)

101001 #6 경 허난게 이제 다 나오지 못 헨. 우리 아버지도 아니 나오고 우리 오빠들도 아니 나오고 다른 동네 어른들은 다 나오난 요디서 이제 그날에 다 모여 앉앙 어른들 아이 할 것 엇이 다 모여 오난.(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 나오지 못 했어. 우리 아버지도 안 나오고 우리 오빠들도 안 나오고 다른 동네 어른들은 다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그날에 다 모여 앉아서 어른들 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 오니까.)

101001 @ 예.(예.)

101001 #6 이름 호명허명 이젠 아무 아무 나오렌 헿 몇 사람을 나오난 그날 그디서 으섯 사람을 그 어른들 앞에서 탕탕 총 맞혀 죽여 부난.(이름 호명하면서 이제 는 아무 아무 나오라고 해서 몇 사람을 나오니까 그날 거기서 여섯 사람을 그 어른들 앞에서 탕탕 총 맞혀서 죽여 버리니까.)

101001 @ 예.(예.)

101001 #6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들은 막스와 부난 다 도망을 갖지.(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들은 무서워 버리니까 다 도망을 갖지.)

101001 @ 예.(예.)

101001 #6 도망을 가 부난 그날부터 매날 그들이 좇으멍 좇으멍 좇아당 무릉지서에 강 아버지는 심어당 죽여 불곡 오빠들은 막 심으렌 땡겨도 심지 못 허영 이젠 어디 갖는지 모르고 죽여 불곡.(도망을 가 버리니까 그날부터 매일 그들이 좇으면서 좇으면서 찾아다가 무릉지서에 가서 아버지는 잡아다가 죽여 버리고 오빠들은 막 잡으려고 다녀도 잡지 못 해서 이제 는 어디 갖는지 모르고 죽여 버리고.)

101001 @ 예.(예.)

101001 #6 경 허영 오늘ㄱ정 살아오랏수게.(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101001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1002 @ 그림 이 마을은 신도 이리는 그 옛날에 무슨 성씨가 많안마씨? 주로?(그림 이 마을은 '신도 이리'는 그 옛날에 무슨 성씨가 많았어요? 주로?)

101002 #6 주로? 이 동네는?(주로? 이 동네는?)

101002 @ 예.(예.)

101002 #6 진씨도 하고.(진씨도 많고.)

101002 @ 아, 진씨도 하고.(아, 진씨도 많고.)

101002 #6 어. 진씨 하고. 김씨도 하고.(어. 진씨 많고. 김씨도 많고.)

101002 #5 진씨, 김씨.(진씨, 김씨.)

101002 @ 진씨, 김씨?(진씨, 김씨?)

101002 #6 예.(예.)

101003 @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뭐 하면서 예전에는 살안마씨?(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뭐 하면서 예전에는 살았어요?)

101003 #6 농사를 지으멍.(농사를 지으면서.)

101003 #5 농사, 바다.(농사, 바다.)

101003 @ 반농반어가 아니고?(반농반어가 아니고?)

101003 #6 갈치 나쁘러 하영 텅젓주게.(갈치 낚으러 많이 다녔지.)

101003 #5 그 옛날에는.(그 옛날에는.)

101003 @ 예.(예.)

101003 #5 할아버지들이.(할아버지들이.)

101003 @ 예.(예.)

101003 #5 그 낚배를 해가지고.(그 낚싯거루를 해가지고.)

101003 @ 낚배?(낚싯거루?)

101003 #5 낚배.(낚싯거루.)

101003 @ 예.(예.)

101003 #5 그 이제 둘이서 서이서 탕 이제 젓어근앵.(그 이제 둘이서 셋이서 타서 이제 저어서.)

101003 @ 예.(예.)

101003 #5 바당에 밤이면 갈치 나쁘러 가곡게.(바다에 밤이면 갈치 낚으러 가고.)

101003 @ 예.(예.)

101003 #5 낮이면 우럭 나쁘러 가곡.(낮이면 우럭 낚으러 가고.)

101003 #6 낮이는 그 뭐 사들 허영.(낮에는 그 뭐 사들 해서.)

101003 #5 사들 허영 자리 거리곡.(사들 해서 자리 잡아 올리고.)

101003 @ 아, 아. 사들 그거.(아, 아. 사들 그거.)

101003 #5 어, 어. 경 허영 자리 거리곡. 경 허멍 살안. 테 그 옛날은 아주 옛날은 할아버지들은 테 허여근앵 테로 이제 강.(어, 어.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아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떼 그 옛날은 아주 옛날은 할아버지들이 떼 해서 때로 이제 가서.)

101003 @ 예.(예.)

101003 #6 몹도 거리곡 바당에 가서.(모자반도 잡아 올리고 바다에 가서.)

101003 @ 몹도 허고?(모자반도 하고?)

101003 #6 예. 경 허영 살아 오당 보난 그 시국을 나난게.(예. 그렇게 해서 살아 오다가 보니까 그 시국을 나니까.)

101003 @ 예.(예.)

101003 #6 아이고 못 사난.(아이고 못 사니까.)

101003 @ 예.(예.)

101003 #6 이제 그 저 이 서숙을 허면은.(이제 그 저 이 조를 하면.)
 101003 @ 예.(예.)
 101003 #6 보리 ㄱ튼 거.(보리 같은 거.)
 101003 @ 예. 알아마씨.(예. 알아요.)
 101003 #6 보리 ㄱ튼 거 조 ㄱ튼 거 허면은 보리는 우리 먹을 수가 엇으난 저 물 맹물 잇는 우에 잇는 디 가근엥 물방애로 지는 거라 물 넣곡.(보리 같은 거 조 같은 거 하면 보리는 우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 물 맹물 잇는 위에 잇는 데 가서 물방아로 지는 거야 물 넣고.)
 101003 @ 예.(예.)
 101003 #6 그 보리 넣곡 허면은 그거 보리 허여근엥 그걸 보리쌀이엔 밥 허영 먹고.(그 보리 넣고 하면 그거 보리 해서 그걸 보리쌀이라고 밥 해서 먹고.)
 101003 @ 아, 경 행 먹언마씨?(아,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101003 #6 어.(어.)
 101003 #5 맏들로 영 뱅뱅 돌멍게.(맏들로 이렇게 뱅뱅 돌면서.)
 101003 #6 경 허영 밥행 먹곡. 또 보리 비민.(그렇게 해서 밥해서 먹고. 또 보리 베면.)
 101003 @ 예.(예.)
 101003 #5 막 보리 거시기 꺼끄럽잖아.(막 보리 거시기 깔끄럽잖아.)
 101003 @ 예. 꺼끄럽주마씨.(예. 깔끄럽지요.)
 101003 #5 경 허민 목욕할 때도 엇고 허민 그 물통에 가근엥 목욕허영.(그렇게 하면 목욕할 때도 없고 하면 그 물통에 가서 목욕해서.)
 101003 @ 예.(예.)
 101003 #5 물허벅³⁶⁾ 지영.(‘물허벅’ 지어서.)
 101003 @ 예.(예.)
 101003 #5 강 물허벅은 옆이 놓고.(가서 ‘물허벅’은 옆에 놓고.)
 101003 @ 예.(예.)
 101003 #5 또 보릿냥 흔 줌 가져강.(또 보릿짚 한 줌 가져가서.)
 101003 @ 예.(예.)
 101003 #5 이제 목욕허면은 춤지게.(이제 목욕하면 춤지.)
 101003 @ 예. 춤주마씨.(예. 춤지요.)
 101003 #5 추우면은 이제 그 목욕해나민 그 불로 허여근엥 불 붙여근엥 이제 그 몸을 터는 거라. 그추록 허영 불 허영 옷 입영 또 올 때는 물허벅 지영 왕 밥행 먹고 해주게.(추우면 이제 그 목욕해나면 그 불로 해서 불 붙여서 이제 그 몸을 터는 거야. 것처럼 해서 불 해서 옷 입어서 또 올 때는 ‘물허벅’ 지어서 와서 밥해서 먹고 했지.)

36) ‘물허벅’은 물을 길는 데 쓰는 ‘허벅’을 의미한다. 그리고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물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허배기, 허베기, 험데기라고도 한다.

101003 @ 음.(음.)

101003 #5 또 조를 허민 좁쌀.(또 조를 하면 좁쌀.)

101003 @ 좁쌀.(좁쌀.)

101003 #5 조를 지으면은 또 큰 땅이 여기 엇으니까.(조를 지으면 또 큰 땅이 여기 없으니까.)

101003 @ 예.(예.)

101003 #6 큰 땅이 엇으난게 들방에.(큰 땅이 없으니까 연자방아에.)

101003 #5 들방 허영 들방 허영 쉼 허여근영 뱅뱅 돌민 쉼은 어떤 때는 께부리는 쉼은 안 돌아.(연자방아 해서 연자방아 해서 소 해서 뱅뱅 돌면 소는 어떤 때는 께부리는 소는 안 돌아.)

101003 #6 멀미허영.(멀미해서.)

101003 #5 안 돌민.(안 돌면.)

101003 @ 께부리는 쉼도 잇언마씨?(뀌부리는 소도 있었어요?)

101003 #5 어?(어?)

101003 @ 께부리는 쉼도 잇언마씨? 옛날에는?(뀌부리는 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101003 #5 잇엇주게. 그축룩 허민 이제 그 쉼.(있었지. 것처럼 하면 이제 그 소를.)

101003 @ 예.(예.)

101003 #5 앞 못 보게 이제 그 옷으로 머리를 썩우는 거라.(앞 못 보게 이제 그 옷으로 머리를 썩우는 거야.)

101003 @ 아, 머리를 썩와 불어마씨?(아, 머리를 썩워 버려요?)

101003 #5 어. 썩와 불민 이제 길에서 그 쉼이 말 안 들어가민 또 그 쉼 모는 그 주인은 신경질 나민 막 막대기로 두드리멍게 그 쉼은 막 요란을 치는 거라.(어. 썩워 버리면 이제 길에서 그 소가 말 안 들어가면 또 그 소 모는 그 주인은 신경질 나민 막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그 소는 막 요란을 치는 거야.)

101003 @ 아.(아.)

101003 #5 그런 뵈도 잇엇고예. 그축룩 허멍 살안.(그런 뵈도 잇엇고. 것처럼 하면서 살았어.)

101003 @ 옛날에는 그러니까 농사도 허고 뵈 여기 그 바당일도 허고 두 개 다 헛갯다예?(옛날에는 그러니까 농사도 허고 뵈 여기 그 바당일도 허고 두 개 다 헛갯군요?)

101003 #5 예. 게. 그축룩 허멍 살앗주게.(예. 그럼. 것처럼 하면서 살았지.)

101003 @ 아.(아.)

101003 #5 이 동네는 완전 강허여게 사름들이.(이 동네는 완전 강해 사름들이.)

101004 @ 그럼 마을 주변에 유명한 오름이나 바위, 굴 잇수광? 혹시 여기? 오름은 오름은 엇지예 여긴?(그럼 마을 주변에 유명한 오름이나 바위, 굴 잇습니까?)

혹시 여기? 오름은 오름은 없지요 여긴?)

101004 #5 오름은 엇고.(오름은 없고.)

101004 #6 바위, 굴 있어.(바위, 굴 있어.)

101004 @ 바위 뭐 유명한 거 잇수광?(바위 뭐 유명한 거 있습니까?)

101004 #6 유명한 거 있어.(유명한 거 있어.)

101004 @ 뭐 이름이 뭐짱?(뭐 이름이 뭐입니까?)

101004 #6 저 도고리알³⁷.(저 ‘도고리알’.)

101004 #5 큰도고리알 셋도고리알 죽은도고리알.(‘큰도고리알’, ‘셋도고리알’, ‘죽은도고리알’.)

101004 @ 도고리알?(‘도고리알’?)

101004 #6 빛이 가면은 저 바닷에 가면은.(밭에 가면 저 바다에 가면.)

101004 @ 예.(예.)

101004 #6 큰 도고리추록 막 영 허영 도고리.(큰 함지박처럼 막 이렇게 해서 함지박.)

101004 @ 도고리알?(‘도고리알’?)

101004 #5 도고리알.(‘도고리알’.)

101004 #6 그 물 고이는.(그 물 고이는.)

101004 @ 예.(예.)

101004 #6 또 다음에는 죽은 거.(또 다음에는 작은 거.)

101004 @ 예.(예.)

101004 #6 또 다음에는 또 죽은 거.(또 다음에는 또 작은 거.)

101004 @ 아, 그거 세 개가 있어? 그게 제일 유명헤마씨?(아, 그거 세 개가 있어? 그게 제일 유명해요?)

101004 #6 예.(예.)

101004 @ 그럼 거기서 뭐허는 것광? 그문?(그럼 거기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01004 #5 아, 뭐는 안 허고 그냥 잇는 거.(아, 뭐는 안 하고 그냥 잇는 거.)

101004 @ 아, 그게 그냥 유명헤마씨? 음.(아, 그게 그냥 유명해요? 음.)

101004 #5 어.(어.)

101005 @ 그럼 이 마을에 기관은 뭐 잇어마씨? 신도 이리에 기관?(그럼 이 마을에 기관은 뭐 잇어요? ‘신도 이리’에 기관?)

101005 #5 기관?(기관?)

101005 @ 뭐 동사무소는 여기 하나 잇지예? 복지회관 하나 잇고.(뭐 동사무소는 여기 하나 잇지요? 복지회관 하나 잇고.)

101005 #5 복지회관은 그저 이런 거지.(복지회관은 그저 이런 거지.)

37) ‘도고리알’은 신도2리 3125번지 서쪽에 있는 것으로 이 마을 동남쪽에 자리잡은 갯바위 하나가 마치 나무함지박을 닮았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도고리’는 함지박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1005 @ 그럼 초등학교나 이런 거는 었지예?(그럼 초등학교나 이런 거는 없지요?)

101005 #5 아, 잇어낫인다.(아, 잇엇엇는데.)

101005 @ 예.(예.)

101005 #5 우리 흑교 다닐 때는 저기 저 흑교 조그만한 것 잇어낫어.(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기 저 학교 조그마한 것 잇엇어.)

101005 @ 예.(예.)

101005 #5 우리 동네만 다니는 흑교 잇엇는데.(우리 동네만 다니는 학교 잇엇는데.)

101005 @ 이제는 신도일리로 다 넘어간마씨?(이제는 ‘신도일리’로 다 넘어갔어요?)

101005 #5 아니. 신도일리도 었고. 이제.(아니. ‘신도일리’도 없고. 이제.)

101005 @ 아, 이제 었어마씨?(아, 이제 없어요?)

101005 #5 이제는 다 었어전. 무릉으로 간.(이제는 다 없어졌어. ‘무릉’으로 갔어.)

101005 @ 그럼 뭐 특별히 경찰서나 소방서나 경찰서는 었어마씨?(그럼 뭐 특별히 경찰서나 소방서나 경찰서는 없어요?)

101005 #5 그런 건 었고게. 촌이라 부난.(그런 건 없고. 촌이라 버리니까.)

101005 @ 경 허난 촌이라 부난 복지회관 하나?(그렇게 해서 촌이라 버리니까 복지회관 하나?)

101005 #5 어.(어.)

101006 @ 그든 옛날에는 그 뭐 게 잇잖아예? 접 이렇게 모여가지고 허는 거.(그러면 옛날에는 그 뭐 게 잇잖아요? 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거.)

101006 #5 어.(어.)

101006 @ 그런 거는 뭐, 뭐 잇언마씨? 옛날에는?(그런 거는 뭐, 뭐 잇엇어요? 옛날에는?)

101006 #5 논계, 생계.(‘논계’, ‘생계’.)

101006 #6 논계, 생계.(‘논계’, ‘생계’.)

101006 #5 논계, 생계.(‘논계’, ‘생계’.)

101006 #6 사밭제.(‘사밭제’.)

101006 @ 논계는 뭐팡?(‘논계’는 뭐입니까?)

101006 #5 몰라 뵈산지 몰라도.(몰라. 뵈인지 몰라도.)

101006 @ 예.(예.)

101006 #5 논계엔 허곡 이제 열일곱 열다섯 허영 허곡.(‘논계’라고 하고 이제 열일곱 열다섯 해서 하고.)

101006 @ 예.(예.)

101006 #5 또 논계.(또 ‘논계’.)

101006 @ 예.(예.)

101006 #5 논계 허곡. 무엇인지 몰라도 그런 제도를 허명 살았주게.(‘논계’ 하고. 무엇인지 몰라도 그런 제도를 하면서 살았지.)

101006 #6 사밭제. 서숙제. 그런 경 허민 그걸 혼 얼마씩 좀 모으는 거라.(‘사밭제’, ‘서숙제’. 그런 그렇게 하면 그걸 한 얼마씩 좀 모으는 거야.)

101006 @ 예.(예.)

101006 #6 서숙제 허민 보리면 보리 이렇게 돈 허영 해 낫다가 또 이 집에 큰 일 나면 가곡 또 저 집에 허민 얼마씩 허영 허곡 그런 제.(‘서숙제’ 하면 보리면 보리 이렇게 돈 해서 해 낫다가 또 이 집에 큰일 나면 가고 또 저 집에 하면 얼마씩 해서 하고 그런 제.)

101007 @ 아, 그럼 이 마을만의 특별한 풍습 같은 거 잇언마씨?(아, 그럼 이 마을만의 특별한 풍습 같은 거 있었어요?)

101007 #5 무싱거?(무엇?)

101007 @ 풍습. 이 마을에서만 뭐 허는 거마씨. 신도이리의 특징 뭐 풍습. 따로 잇인가마씨?(풍습. 이 마을에서만 뭐 하는 거요. ‘신도이리’의 특징 뭐 풍습. 따로 없었어요?)

101007 #6 풍습은 벨난 거는 잇언.(풍습은 벨난 거는 없었어.)

101008 @ 그럼 신도이리에 특산물은 잇수광?(그럼 ‘신도이리’에 특산물은 잇습니까?)

101008 #5 어?(어?)

101008 @ 특산물?(특산물?)

101008 #5 특산물도 그자 해녀들 채취허는 거.(특산물도 그자 해녀들 채취하는 거.)

101008 @ 아, 해녀들 채취허는 거마씨? 그럼 따로 뭐 농산물로 따로 허는 건 잇언마씨?(아, 해녀들 채취하는 거요? 그럼 따로 뭐 농산물로 따로 하는 건 없었어요?)

101008 #5 그런 건 잇고 여기서 질 잘허는 거는 요즘은 옛날은.(그런 건 없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거는 요즘은 옛날은.)

101008 @ 예.(예.)

101008 #5 뭐 보리 감저 고구마 뭐 그거를 최고로 헛주만은 요즘은 뭐 마늘.(뭐 보리 고구마 고구마 뭐 그거를 최고로 헛지만 요즘은 뭐 마늘.)

101008 @ 마농?(마늘?)

101008 #5 마농이 최고주게. 마농이여 뭐여 양배추여 양파.(마늘이 최고지. 마늘이여 뭐여 양배추여 양파.)

101009 @ 그럼 뭐 마을 자랑거리 좀 잇수광? 신도이리 자랑거리? 강헌 거?(그럼 뭐 마을 자랑거리 좀 잇습니까? ‘신도이리’ 자랑거리? 강한 거?)

101009 #5 자랑거리? 단체.(자랑거리? 단체.)

101009 @ 단체?(단체?)

101009 #5 우리 신도이리는 단체는 진짜 좋아.(우리 '신도이리'는 단체는 진짜 좋아.)

101009 @ 아, 무슨 단체마씨?(아, 무슨 단체요?)

101009 #5 협심이 잘도 좋아.(협심이 매우 좋아.)

101009 @ 아, 협심이?(아, 협심이?)

101009 #5 여기서 뭘 청소를 한다.(여기서 뭘 청소를 한다.)

101009 @ 예.(예.)

101009 #5 무슨 뭘 이디 사업을 한다.(무슨 뭘 여기 사업을 한다.)

101009 @ 예.(예.)

101009 #5 계문 방송 흔 번만 허면 다 짝 나와.(그러면 방송 한 번만 하면 다 짝 나와.)

101009 @ 아, 다 짝 나와마씨?(아, 다 짝 나와요?)

101009 #5 어. 그거는 진짜 아무 마을에 가도 진짜 우리 마을은 특별한 거.(어. 그거는 진짜 아무 마을에 가도 진짜 우리 마을은 특별한 거.)

101009 @ 그럼 그 마을에 복지회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언제 보통 모여 마씨?(그럼 그 마을에 복지회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언제 보통 모여요?)

101009 #5 모이는 거?(모이는 거?)

101009 @ 예.(예.)

101009 #5 일주일에 흔 번씩 흔 달에 흔 번씩 치매 교육. 치매 교육 허영 할머니들 허곡.(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치매 교육. 치매 교육 해서 할머니들 하고.)

101009 @ 치매 교육 허고?(치매 교육 하고?)

101009 #5 어.(어.)

101010 @ 이밖에 그냥 마을에 덧붙이고 뭐 마을 어떤 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허는 건 엇수광?(이밖에 그냥 마을에 덧붙이고 뭐 마을 어떤 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건 없습니까?)

101010 #5 마을에?(마을에?)

101010 @ 예.(예.)

101010 #5 마을에 좋아졌다 허는 거는.(마을에 좋아졌다 하는 거는.)

101010 @ 예.(예.)

101010 #5 이 마을에.(이 마을에.)

101010 @ 예.(예.)

101010 #5 노인들을.(노인들을.)

101010 @ 예.(예.)

101010 #5 노인들을 막 즐겁게.(노인들을 막 즐겁게.)

101010 @ 막 즐겁게?(막 즐겁게?)

101010 #5 즐겁게 노래시키고 춤추고 그런 거 허민 좋주게.(즐겁게 노래시키고 춤추고 그런 거 하면 좋지.)

2. 제보자 일생

102001 @ 어르신, 그러면 저 이제 제보자 일생에 대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까. 어 어르신 낳고 자란 과정 잇잖아예. 처음 태어나고 자란 과정, 그냥 간단하게 어르신 일생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마씨?(어르신, 그러면 저 이제 제보자 일생에 대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르신 낳고 자란 과정 잇잖아요. 처음 태어나고 자란 과정, 그냥 간단하게 어르신 일생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02001 #1 어 우리 태어나기 전, 한창 때 천구백사십일년도. 천구백사십일년도. 어 뭐. 셋방이나 사람 었는 좀 완전 이간 초 초가집에서 태어났는데.(어 우리 태어나기 전, 한창 때 천구백사십일년도. 천구백사십일년도. 어 뭐. 셋방이나 사람 없는 좀 완전 이간 초 초가집에서 태어났는데.)

102001 @ 예.(예.)

102001 #1 어 그렇게 생활 쪽 허다가. 해방을 맞았고. 어 여덟 살 나는, 일월달에 이 그 당시는 그 지금은 뭐 다 과학차원에서 사삼을 다 이제 묶었는데. 우리 경우는 바로 우리 마을에서 빨치산으로 올라간 사람한테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어 그렇게 생활 쪽 허다가. 해방을 맞았고. 어 여덟 살 나는, 일월달에 이 그 당시는 그 지금은 뭐 다 과학차원에서 사삼을 다 이제 묶었는데. 우리 경우는 바로 우리 마을에서 빨치산으로 올라간 사람한테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저 그 그렇게 또 완전 그렇게 성복은 못허고 도민 화합차원에서, 뭐 그 음 그것은 다 잇고. 다 누구 누구한테 죽었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저 그 그렇게 또 완전 그렇게 성복은 못허고 도민 화합차원에서, 뭐 그 음 그것은 다 잇고. 다 누구 누구한테 죽었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

102001 @ 아.(아.)

102001 #1 아버지. 계난 그 그 그것을 다 잇고 이제 에 미안허지만은 아버지가 그 사삼사건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엄청나게 어머니가 고생했주게.(아버지. 그러니깐 그 그 그것을 다 잇고 이제 에 미안하지만은 아버지가 그 사삼사건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엄청나게 어머니가 고생했지.)

102001 @ 예.(예.)

102001 #1 특히나 에 나보다 밑에 우리 그 당시 육남맨데. 에 큰누나만 결혼했고, 그 웨엔 결혼 안 현 상텐디. 에 아버지가 돌아가 부니까. 어머니 혼자 오남매

영 어렵게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육이오 사변을 또 맞이했고. 어 사실상 그 오십삼 년도에 중학교 입학했는데 중학교도 당추 중학교 갈 수 었다, 어떻게근영 중학교를 보내겠느냐 했는데, 어머니가 아 지금 잇었으면은, 한 일억 가까이 되는 밧을. (특히나 에 나보다 밑에 우리 그 당시 육남매인데. 에 큰누나만 결혼했고, 그 외에는 결혼 안 한 상태인데. 에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니까. 어머니 혼자 오남매 이렇게 어렵게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육이오 사변을 또 맞이했고. 어 사실상 그 오십삼 년도에 중학교 입학했는데 중학교도 당최 중학교 갈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중학교를 보내겠느냐 했는데, 어머니가 아 지금 있었으면, 한 일억 가까이 되는 밧을.)

102001 @ 아.(아.)

102001 #1 그 당시 백만 원, 백만 환에 팔아서 중학교 입학금만 삼십팔만 천오백 원을 냈어.(그 당시 백만 원, 백만 환에 팔아서 중학교 입학금만 삼십팔만 천오백 원을 냈어.)

102001 @ 아.(아.)

102001 #1 밧 하나 백만 원에 팔아 가지고 삼십팔만 천오백 원을 냈는데, 그게 이 월달인가 환율 교환허니까 백 대 일로 교환허니까 삼십팔만 천오백 원인데 백 대 일로 교환허니까. 삼천팔백십오 원짜피 안 댕는데, 계난 밧이 지금 거 일 억 가까이 갈 밧이 그 당시 만 원에 폰 거야.(밭 하나 백만 원에 팔아 가지고 삼십팔만 천오백 원을 냈는데, 그게 이 월 달인가 환율 교환하니까 백 대 일로 교환하니까 삼십팔만 천오백 원인데 백 대 일로 교환하니까. 삼천팔백십오 원밖에 안 댕는데, 그러니 밧이 지금 거 일 억 가까이 갈 밧이 그 당시 만 원에 판 거야.)

102001 @ 아.(아.)

102001 #1 저 저기 환율을 백 대 일로 교환을 허니까. 또 그 후에 십 대 일로 허니까 이제 천 원짜리가 돼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웠지. 저 한 오십사 년도 오십오 년도. 그 오십사 년도 오십오 년도는 먹을 게 었었어. 이게 고구마, 그 정도 잇으면 좋고, 지금 그 돼지도 안 먹는.(저 저기 환율을 백 대 일로 교환을 하니까. 또 그 후에 십 대 일로 하니까 이제 천 원짜리가 돼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웠지. 저 한 오십사 년도 오십오 년도. 그 오십사 년도 오십오 년도는 먹을 게 없었어. 이게 고구마, 그 정도 잇으면 좋고, 지금 그 돼지도 안 먹는.)

102001 @ 예.(예.)

102001 #1 전분 찌꺼기, 고구마로 전분 뽑은, 뽑았던 그 찌꺼기로 한 일 년이상 연명하면서 생활을 했지. 생활을 쪽 허다가 사범, 에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 큰 누나가 에 사범학교에 진학허면은, 학비는 대주깅 해도, 어머니 생각난 진학을 아니 허고, 어머니를 돕겠다 헤 가지고, 오십칠 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전분 찌꺼기, 고구마로 전분 뽑은, 뽑았던 그 찌꺼기로 한 일 년이상 연명하면서 생활을 했지. 생활을 쪽 하다가 사범, 에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 큰누나가 에 사범학교에

진학하면은, 학비는 대주겠다고 해도, 어머니 생각나서 진학을 안 하고, 어머니를 돕겠다 해 가지고, 오십칠 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102001 @ 예.(예.)

102001 #1 그리고 마을, 마을 사무장도 오십칠 년도부터 열일곱 살부터 마을 사무장 하면서, 허다가, 오십칠 년도 그 시작을 하면서 또 그 농촌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인연으로 해서 집사람하고 결혼도 했고. 그 결혼도 어머니가 이제 혼자 이제 고생하는 걸 뭐 해 가지고, 열아홉 살에 결혼을 했는데.(그리고 마을, 마을 사무장도 오십칠 년도부터 열일곱 살부터 마을 사무장 하면서, 허다가, 오십칠 년도 그 시작을 하면서 또 그 농촌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인연으로 해서 집사람하고 결혼도 했고. 그 결혼도 어머니가 이제 혼자 이제 고생하는 걸 뭐 해 가지고, 열아홉 살에 결혼을 했는데.)

102001 @ 예.(예.)

102001 #1 그렇게 쪽 생활을 허다가, 아 뭐 육십삼 년도에 군인 가서 또 제대를 허고, 그 후에 또 돌아와, 아 거기까 육십삼 육십일 년도 시월 달에 공무원 자격시험이 있었는데, 공무원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는데.(그렇게 쪽 생활을 허다가, 아 뭐 육십삼 년도에 군인 가서 또 제대를 하고, 그 후에 또 돌아와, 아 그러니까 육십삼 육십일 년도 시월 달에 공무원 자격시험이 있었는데, 공무원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102001 @ 아.(아.)

102001 #1 어, 그 당시엔 어떻게 해서, 절차를 어떻 해야 취업이 돼고 그런 걸 몰라 가지고.(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 취업이 되고 그런 걸 몰라 가지고.)

102001 @ 예.(예.)

102001 #1 게 군대 갔다와 보니까 그건 무효돼 불고.(군대 갔다와서 보니까 그건 무효되어 버리고.)

102001 @ 예.(예.)

102001 #1 다시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 당시엔 그 구급이 아니고, 오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시험 보려고 딱 허다가 이제 좀 쪼금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가 봐야 동기생이라도 진급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다시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 당시에는 그 구급이 아니고, 오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시험 보려고 딱 허다가 이제 좀 쪼금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가 봐야 동기생이라도 진급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

102001 @ 예.(예.)

102001 #1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걸 아니다. 난 오로지 그 농촌에서 이제 생활을 허겠다 해서, 농사 개량부도 조직하고. 뭐 그렇게 쪽 생활하면서 칠십일 년도, 전국적으로 처음에 새마을 사업 시작할 때, 초대 새마을 지도자 허

면서 많이 깨우친다고. 그 전에도 한 육십구 년도부터 신도초등학교 육성회장을 했지만은, 그건 학교 거 육성회 책임이고, 마을 개발 사업을 위해서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그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처음으로 새마을 사업이 시작한 해부터, 새마을 사업 지도자로 해 가지고, 열심히 첫째도 좀 그 당시 그들 그 당시에 생활 사업, 그 본래 취지는 첫째도 기상, 둘째도 기상, 셋째도 기상 오로지 그, 그대로 실천을 했고.(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걸 아니다. 난 오로지 그 농촌에서 이제 생활을 하겠다 해서, 농사 개량부도 조직하고. 뭐 그렇게 쪽 생활하면서 칠십일 년도, 전국적으로 처음에 새마을 사업 시작할 때, 초대 새마을 지도자 하면서 많이 깨우친다고. 그 전에도 한 육십구 년도부터 신도초등학교 육성회장을 했지만, 그건 학교 거 육성회 책임이고, 마을 개발 사업을 위해서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그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처음으로 새마을 사업이 시작한 해부터, 새마을 사업 지도자로 해 가지고, 열심히 첫째도 좀 그 당시 그들 그 당시에 생활 사업, 그 본래 취지는 첫째도 기상, 둘째도 기상, 셋째도 기상 오로지 그, 그대로 실천을 했고.)

102001 @ 예.(예.)

102001 #1 어 그 우리 마을의 뭐 도로 확장이다, 뭐 기본적으로 사업이 끝나자마자 칠십삼 년도에 이장.(어 그 우리 마을의 뭐 도로 확장이다, 뭐 기본적으로 사업이 끝나자마자 칠십삼 년도에 이장.)

102001 @ 아, 이장도 하신마씨?(아, 이장도 하셨어요?)

102001 #1 어. 한 이년 허다가, 또 일년 또 쉬었다가, 다시 새마을 지도자 또 한 삼년, 뭐 무릉중학교 육성회장, 뭐 하여튼 여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하면서 생활하다가, 에 팔십 년도에, 우리 큰 애가 팔십 학번인데.(어. 한 이년 하다가, 또 일년 또 쉬었다가, 다시 새마을 지도자 또 한 삼년, 뭐 무릉중학교 육성회장, 뭐 하여튼 여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하면서 생활하다가, 에 팔십 년도에, 우리 큰 애가 팔십 학번인데.)

102001 @ 아.(아.)

102001 #1 팔십 한, 팔십 년도에 아이들이 팔십, 아 칠십구 년도. 칠십 구년도. (팔십 한, 팔십 년도에 아이들이 팔십, 아 칠십구 년도. 칠십 구년도.)

102001 @ 예.(예.)

102001 #1 칠십구 학번에 둘째가 팔십일 학번에, 쪽 해서 그 사남매가 다 대학교 가게 됐니까 도저히 이제, 공적인 일, 마을 사업에만, 이런 디만 해서 안 돼겠다. 우선 자식들 학자금 조달 위해서는, 우선 자기 삶, 삶도 돌아봐야 돼겠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한, 십여 년간,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해서 사남매 다 대학교 졸업을 시키고. 그런 거 뭐. 큰 애는 지금 뭐, 엠비시 제작국장 허다가 이제 뭐 내일모레 정년됐니까, 하게 되니까, 뭐 좀 셋아덜은 다른 또 법조인으로 그렇게 하고.(칠십구 학번에 둘째가 팔십일 학번에, 쪽 해서 그 사남매가 다 대학교 가게 됐니까 도저히 이제, 공적인 일, 마을 사업에만, 이런 데

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 자식들 학자금 조달 위해서는, 우선 자기 삶, 삶도 돌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열심히 한, 십여 년간,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해서 사남매 다 대학교 졸업을 시키고, 그런 거 뭐. 큰 애는 지금 뭐, 엠비시 제작국장 하다가 이젠 뭐 내일모레 정년되니까, 하게 되니까, 뭐 좀 둘째 아들은 다른 또 법조인으로 그렇게 하고.)

102001 @ 예.(예.)

102001 #1 그렇게 해서 좀 지금까지 하는데, 난 그 공무원 시험을,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 해서, 그 공무원이 안 된 건 후회를 안 해. 농촌 생활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농촌에서 부락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보람도 느꼈고. 또 자식을 또, 그런 거, 정규대학교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고. 만약에 나가 공직에 있었으면은, 사고 없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성장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기에 좀. 농촌생활에 후회는 없고. 지금도, 지금도 좀 기회가 있고, 뭐 하면은 좀 마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그렇게 해서 좀 지금까지 하는데, 난 그 공무원 시험을,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 해서, 그 공무원이 안 된 건 후회를 안 해. 농촌 생활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농촌에서 부락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보람도 느꼈고. 또 자식을 또, 그런 거, 정규대학교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고. 만약에 나가 공직에 있었으면, 사고 없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성장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기에 좀. 농촌생활에 후회는 없고. 지금도, 지금도 좀 기회가 있고, 뭐 하면은 좀 마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102003 @ 어르신, 그럼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은 어디마씨?(어르신, 그럼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은 어디예요?)

102003 #1 여기.(여기.)

102003 @ 신도일리마씨?('신도일리'요?)

102003 #1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 에이치³⁸⁾, 사 에이치, 나 열일곱 살이니까, 오십칠 년도, 사 에이치,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사 에이치 클럽이 조직한 마을은 좀 뒤떨어졌어.(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 에이치', '사 에이치', 나 열일곱 살이니까, 오십칠 년도, '사 에이치',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사 에이치' 클럽이 조직한 마을은 좀 뒤떨어졌어.)

102003 @ 아.(아.)

102003 #1 사일 클로버라고 해 가지고, 그 사 에이치 그룹, 지금도 사 에이치 조직이 좀 있을 걸?(사일 클로버라고 해 가지고, 그 '사 에이치' 그룹, 지금도 '사 에이치' 조직이 좀 있을 걸?)

102003 @ 사일칠 조직마씨?(사일칠 조직이요?)

102003 #1 사 에이치.(사 에이치.)

38) '사 에이치 클럽(4H club)'은 생활개선이나 기술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청소년·소녀들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102003 @ 사 에이치?('사 에이치'?)

102003 #1 사 에이치. 사 에이치, 계난 거 영어로는 다 모르지만 클로버가, 네잎 클로버야.('사 에이치'. '사 에이치', 그러니까 거 영어로는 다 모르지만 클로버가, 네잎 클로버야.)

102003 @ 예.(예.)

102003 #1 네잎클로버야 사 에이치. 게서 그 농촌의 청소년들이 농촌 운동의 시발점은 사 에이치. 지금 뭐 대학교 사 에이치 클럽도 있을걸?(네잎클로버야 '사 에이치'. 그래서 그 농촌의 청소년들이 농촌 운동의 시발점은 '사 에이치'. 지금 뭐 대학교 '사 에이치' 클럽도 있을걸?)

102003 @ 잘 모르쿠다. 모르크라마씨. 그럼, 어머님도 여기고, 아버님도 신도일리 출신마씨?(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여기고, 아버님도 '신도일리' 출신이예요?)

102003 #1 아, 계난. 우리 집사람은 사 에이치 부회장이었고, 난 회장이었고.(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사 에이치' 부회장이었고, 난 회장이었고.)

102003 @ 아.(아.)

102003 #1 계난 만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연이 났고. 또.(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연이 났고. 또.)

102003 @ 예. 아니, 어르신 어머님 고향은 어디마씨?(예. 아니, 어르신, 어머님 고향은 어디예요?)

102003 #1 아아. 아니 그 한경면에서.(아아. 아니 그 '한경면'에서.)

102003 @ 한경면마씨?('한경면'이요?)

102003 #1 뭐 그 그건 뭐 아주 뭐.(뭐 그 그건 뭐 아주 뭐.)

102003 @ 아주 옛날이지예?(아주 옛날이지요?)

102003 #1 옛날 한경면에서 여기 신도로 시집 온 거주.(옛날 '한경면'에서 여기 '신도'로 시집 온 거지.)

102004 @ 아, 기구나예. 그럼 어르신, 어릴 때는.(아, 그렇군요. 그럼 어르신, 어릴 때는.)

102004 #1 어.(어.)

102004 @ 뭐 거의 노실 일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땜, 친구들이랑 놀이하잖아 예. 어떤 놀이들이 잇었마씨?(뭐 거의 노실 일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친구들이랑 놀이하잖아요. 어떤 놀이들이 있었어요?)

102004 #1 고매나엔 허던가. 고매나 알아져?(고매나라고 하던가. 고매나 알아져?)

102004 @ 고매나? 처음 들어마씨.(고매나? 처음 들어요.)

102004 #1 이렇게 줄 그려 가지고, 영 행 통과허영, 하고, 머하는 거. 이제도 룰은, 나도 잊어버렸는가 모르겠고, 고매나, 계전. 계전이라는 것은 왜놈들 그 얘기지 만은, 대장, 수리장, 요꾸 해 가지고.(이렇게 줄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하고, 머하는 거. 이제도 룰은, 나도 잊어버렸는가 모르겠고, 고매나, 계전. 계전이 라는 것은 왜놈들 그 얘기지만은, 대장, 수리장, 요꾸 해 가지고.)

102004 @ 예.(예.)

102004 #1 요꾸는 대장을 보는 사람, 수리장은 공격하는 사람, 뭐 허는 그런 거. 거 저 인터넷에 다 나왔을걸?(요꾸는 대장을 보는 사람, 수리장은 공격하는 사람, 뭐 하는 그런 거. 거 저 인터넷에 다 나왔을걸?)

102004 @ 아, 예. 그 검색하면 나오주마씨. 그럼 그런 거 허명.(아, 예. 그 검색 하면 나오지요. 그럼 그런 거 하면서.)

102004 #1 뭐, 주로 그런 거. 공, 공치기. 요즘 야구.(무, 주로 그런 거. 공, 공치기. 요즘 야구.)

102005 @ 그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기억나시는 건 잊어마씨?(그러면 일 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기억나시는 건 있어요?)

102005 #1 거의 잊는데.(거의 없는데.)

102005 @ 거의 잊어마씨?(거의 없어요?)

102005 #1 폐전 거기, 저, 일본이 거 폐전 당시에.(폐전 거기, 저, 일본이 거 폐 전 당시에.)

102005 @ 예.(예.)

102005 #1 그때 관동군 십만 명이 제주도로 다 이동시킨다는 얘기가 잊었주게. (그때 관동군 십만 명이 제주도로 다 이동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지.)

102005 @ 아.(아.)

102005 #1 관동군이엔 현 거, 만주에 주둔하고, 제주도 와서, 제주도를 일본 방 어에 최후 보루로 삼으려고 허다가, 히로시마에 원전이 폭발하기에 제주도 사람들 이 살았주게. 아님 제주도 사람 전멸했지 뭐.(관동군이라고 한 거, 만주에 주둔하고, 제주도 와서, 제주도를 일본 방어에 최후 보루로 삼으려고 하다가, 히로시마에 원전 이 폭발하기에 제주도 사람들이 살았지. 아님 제주도 사람 전멸했지 뭐.)

102005 @ 그면, 일제강점기 때.(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102005 #1 어, 계난 그때.(어, 그러니까 그때.)

102005 @ 예.(예.)

102005 #1 그 조금 그 불필요한 사람들, 이제 병력에 뭐 도움이, 뭐 전쟁에 도 움이 안 돼거나, 뭐 조금 불필요한 사람은 배를 탕 가당 수장시키젠 헤낫주게. 여 신도 이리 포구에 배도 하나 정박해 놓고. 계난 그 배에 타기 전에 망해 부니깐. 그 배에 사람들 탔으면 그 사람들 가서 바다에 수장될 뻔 했지.(그 조금 그 불필요한 사람들, 이제 병력에 뭐 도움이, 뭐 전쟁에 도움이 안 돼거나, 뭐 조금 불필요한 사 람은 배를 타서 가다가 수장시키려고 했었지. 여 ‘신도 이리’ 포구에 배도 하나 정 박해 놓고. 그러니까 그 배에 타기 전에 망해 버리니깐. 그 배에 사람들 탔으면 그 사람들 가서 바다에 수장될 뻔 했지.)

102005 @ 어르신, 그럼 공출 같은 건 잘 모르셔마씨?(어르신, 그럼 공출 같은

건 잘 모르세요?)

102005 #1 공출은, 어렸을 때 공출은 잘 기억이 안 나고.(공출은, 어렸을 때 공출은 잘 기억이 안 나고.)

102005 @ 예.(예.)

102005 #1 우리 그, 우리 자유당 때도 우리 건국 후에도 현물세로 세금 내주게. 현물세로. 이제, 이제는 돈으로 내지만, 그 당시엔 쌀로 행, 현물세로, 보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주.(우리 그, 우리 자유당 때도 우리 건국 후에도 현물세로 세금 내지. 현물세로. 이제, 이제는 돈으로 내지만, 그 당시엔 쌀로 해서, 현물세로, 보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지.)

102005 @ 아.(아.)

102005 #1 뭐, 옛날 들은 얘기는 뭐 공출하는데, 뭐 가미가제니 뭐니 해서, 일본놈들 그 군수물이 뭐 허니까, 쇠에 잇는 쇠는, 낫그릇이다 허는 것은 다 공출했인디, 낫그릇이다 뭐다 허는 것은. 다 공출 해볼엇주게, 그건 우리가 어렸, 아주 어려,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그 뭐, 들은 기억밖에 잇는 거고.(뭐, 옛날 들은 얘기는 뭐 공출하는데, 뭐 가미가제니 뭐니 해서, 일본놈들 그 군수물이 뭐 하니까, 쇠에 잇는 쇠는, 낫그릇이다 하는 것은 다 공출했는데, 낫그릇이다 뭐다 하는 것은. 다 공출 해버렸지, 그건 우리가 어렸, 아주 어려,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그 뭐, 들은 기억밖에 없는 거고.)

102006 @ 그뎨 사삼 사건은 좀 기억하시잖아예. 할 얘기 많으시겠지만, 사삼 사건 그뎨 생활 같은 거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잇는 거 잇어마씨?(그러뎨 사삼 사건은 좀 기억하시잖아요. 할 얘기 많으시겠지만, 사삼 사건 그뎨 생활 같은 거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잇는 거 잇어요?)

102006 #1 비참했지 뭐, 생활이. 엄청 비참했지. 뭐, 옷이엔 현 옷은 거의 다 누더기 옷이고, 비옷을 입을 정도. 뭐 양말 그런 건 잇언, 다 천으로 해근엿 조각으로, 버선식으로 만들엿 신잇고. 엄청, 엄청나게 생, 생활이, 엄청 피폐했지. 그뎨 뭐 잇는 사람은 좀 덜 했으면, 잇는 사람은, 잇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실지 어떻 해서 연명만 해주뎨 그걸 최선으로 알고 살앗으니까.(비참했지 뭐, 생활이. 엄청 비참했지. 뭐, 옷이라고 현 옷은 거의 다 누더기 옷이고, 비옷을 입을 정도. 뭐 양말 그런 건 없었어, 다 천으로 해서 조각으로, 버선식으로 만들어서 신잇고. 엄청, 엄청나게 생, 생활이, 엄청 피폐했지. 그뎨 뭐 잇는 사람은 좀 덜 했으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실제로 어떻게 해서 연명만 해주뎨 그걸 최선으로 알고 살앗으니까.)

102007 @ 어르신, 그럼 할머니랑 결혼할 때, 중매 결혼하셨마씨? 아니면 연애 결혼하셨마씨?(어르신, 그럼 할머니랑 결혼할 때, 중매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연애 결혼하셨어요?)

102007 #1 중매 반, 연애 반.(중매 반, 연애 반.)

102007 @ 아, 중매 반, 연애 반. 그럼 그뎨 뭐짱? 중매 반 연애 반이?(아, 중매

반, 연애 반. 그럼 그게 뭐니까? 중매 반 연애 반이?)

102007 #1 서로 알, 아는 사이니까.(서로 알, 아는 사이니까.)

102007 @ 음.(음.)

102007 #1 중매를 해도 얼굴도 모르고 허면은, 뭐 허지만, 다 알고 뭐 허난. 같이, 회의도 같은 근방에서 허고, 그 당시만 해도 남녀칠세부동석이라이.(중매를 해도 얼굴도 모르고 하면은, 뭐 하지만, 다 알고 뭐 하니. 같이, 회의도 같은 근방에서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남녀칠세부동석이라.)

102007 @ 예.(예.)

102007 #1 우리 사 에이치 그룹 열일곱 살에 회의, 거 만들어서 회회를 허젠 허민 장소를 여러 차례 옮겨 회의했어. 남자 여자가, 처녀 총각이, 같은 자리에서, 한 방에서 앉아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 정말 처, 처음 막 나이 한, 그 당시 나이는 한 우리보다 한 이십 세고, 한 우리는 이십 세 미만이지만, 그분들은 한 사십 세 전후한 사람들인데. 어디 나, 난 처녀 총각이 같은 방에서 뭐 허느냐고 해서 그냥 와서 막 두드리려고 뭐 허면 도망강, 판 데, 워탄 집에 가서 회의하고 헛주게.(우리 ‘사 에이치’ 그룹 열일곱 살에 회의, 거 만들어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장소를 여러 차례 옮겨서 회의했어. 남자 여자가, 처녀 총각이, 같은 자리에서, 한 방에서 앉아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 정말 처, 처음 막 나이 한, 그 당시 나이는 한 우리보다 한 이십 세고, 한 우리는 이십 세 미만이지만, 그분들은 한 사십 세 전후한 사람들인데. 어디 나, 난 처녀 총각이 같은 방에서 뭐 하느냐고 해서 그냥 와서 막 두드리려고 뭐 하면 도망가서, 판 데, 외탄 집에 가서 회의하고 했지.)

102008 @ 결혼 하실 때 사주 같은 것도 보셨어요 혹시?(결혼 하실 때 사주 같은 것도 보셨어요 혹시?)

102008 #1 봤겠지. 난 모르주만은 어머니는 봤겠지.(봤겠지. 난 모르지만 어머니는 봤겠지.)

102008 @ 그에 대해선 들어본 건 잇어마씨? 사주에 대해선?(그에 대해서는 들어본 건 잇어요? 사주에 대해서는?)

102008 #1 아들딸 잘 낳고, 뭐 했을 테지 뭐, 거야.(아들딸 잘 낳고, 뭐 했을 테지 뭐, 거야.)

102009 @ 그럼, 결혼하실 때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 준비하잖아예.(그럼, 결혼하실 때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 준비하잖아요.)

102009 #1 그 당시는.(그 당시는.)

102009 @ 예.(예.)

102009 #1 그, 예물 그런 건 빌어서도 허고, 그 형식적으로 뭐, 시계든, 뭐든 빌어서도 허고 허니까 그건 특별히 뭐, 얘기할 만한, 그건 그렇게 본인이 돈 주고 사서 예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그, 예물 그런 건 빌려서도 하고, 그 형식적으로 뭐, 시계든, 뭐든 빌려서도 하고 하니까 그건 특별히 뭐, 얘기할 만한, 그건 그렇게 본인이 돈 주고 사서 예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102009 @ 예.(예.)

102009 #1 어, 나도 그게 결혼은 그 당시 신식. 사모관델 안 썼으니까.(어, 나도 그게 결혼은 그 당시 신식, 사모관대를 안 썼으니까.)

102009 @ 뭘?(뭘?)

102009 #1 사모관대를 안 썼으니까. 족두리하고 사모관대를 안 썼으니까.(사모관대를 안 썼으니까. 족두리하고 사모관대를 안 썼으니까.)

102009 @ 예.(예.)

102009 #1 그거 안 썼으니까 한데, 요즘은 자동차도 있고 뭐 허지만, 가까운 데니까. 신랑집에서 신부집까지 걸영 왔고, 신부집에서 신부도 또 걸영 가니까. 그 말 타서 할 때 허는 사람도 잇었고, 어 좀 먼 데는 군용 트럭을 빌거나. 뭐 이제 승용차다 뭐 한 건 없을 때고.(그거 안 썼으니까 한데, 요즘은 자동차도 있고 뭐 하지만, 가까운 데니까. 신랑집에서 신부집까지 걸어서 왔고, 신부집에서 신부도 또 걸어서 가니까. 그 말 타서 할 때 하는 사람도 잇었고, 어 좀 먼 데는 군용 트럭을 빌리거나. 뭐 이제 승용차다 뭐 한 건 없을 때고.)

102009 @ 예.(예.)

102009 #1 뭐. 그게 그런 식으로.(뭐. 그게 그런 식으로.)

102010 @ 그뎨 그때 결혼식은 어디서 하셧마씨?(그러면 그때 결혼식은 어디서 하셧어요?)

102010 #1 마당.(마당.)

102010 @ 어디 마당?(어디 마당?)

102010 #1 이제, 집 마당. 신랑 집 마당.(이제, 집 마당. 신랑 집 마당.)

102010 @ 아, 지금 집 말고 다른, 예전에 살던 집마씨?(아, 지금 집 말고 다른, 예전에 살던 집이요?)

102010 #1 아니. 예전, 예전. 아주 예전.(아니. 예전, 예전. 아주 예전.)

102010 @ 그러면 사진은 찍으셧마씨? 마당에서 하실 때?(그러면 사진은 찍으셧어요? 마당에서 하실 때?)

102010 #1 무사. 찍엇겠지.(왜. 찍엇겠지.)

102010 @ 아, 찍언마씨?(아, 찍엇어요?)

102010 #1 어.(어.)

102010 @ 기구나예. 그럼 그 당시에도 결혼행, 누가 찍언마씨? 그 당시엔 사진.(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에도 결혼해서, 누가 찍엇어요? 그 당시에는 사진.)

102010 #1 사진관이 그 당시엔 잇엇지. 좀 어려웠지.(사진관이 그 당시에는 잇엇지. 좀 어려웠지.)

102011 @ 그럼 신혼살림은 어르신 어디서 시작하셧마씨?(그럼 신혼살림은 어르신 어디서 시작하셧어요?)

102011 #1 그냥 집에서 뭐.(그냥 집에서 뭐.)

102011 @ 그냥 집에서마씨? 어디팡? 어디엿수팡? 이 근처마씨? 아니면.(그냥

집에서요? 어답니까? 어디였습니까? 이 근처요? 아니면.)

102011 #1 저, 일주도로.(저, 일주도로.)

102011 @ 일주도로 쪽에. 그럼 거기 신도 이리 쪽 아니우짱?(일주도로 쪽에. 그럼 거기 '신도 이리' 쪽 아닙니까?)

102011 #1 아니, 아니. 바로, 바로 위. 회관 잇는 디.(아니, 아니. 바로, 바로 위. 회관 잇는 데.)

102012 @ 그럼, 아까 어르신 좀 얘기해 주신 건데. 어르신 자녀분들, 자녀분들에 대해서. 몇 명 잇고. 그 다음에.(그럼, 아까 어르신 좀 얘기해 주신 건데. 어르신 자녀분들, 자녀분들에 대해서. 몇 명 잇고. 그 다음에.)

102012 #1 삼남 일녀.(삼남 일녀.)

102012 @ 그러면 손주 손녀들은?(그러면 손주 손녀들은?)

102012 #1 거기 손남이 다섯. 손녀가 둘. 일곱.(거기 손남이 다섯. 손녀가 둘. 일곱.)

102012 @ 아, 일곱. 그러면 자녀분들은 다 어떻게. 어디 사시고?(아, 일곱. 그러면 자녀분들은 다 어떻게. 어디 사시고?)

102012 #1 서울 둘. 제주도 둘.(서울 둘. 제주도 둘.)

102012 @ 아, 둘 둘마씨.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다, 추석 때 오시겠다예.(아, 둘 둘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다, 추석 때 오시겠군요.)

102012 #1 으, 응.(으, 응.)

102014 @ 그러면 그 자녀분들 결혼은 어떻게 하선마씨? 다.(그러면 그 자녀분들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102014 #1 결혼이야 뭐 요즘 진작 그건 허고 신식으로 했지게 이제. 결혼이야. 결혼 사진 다 어디 가불엇지.(결혼이야 뭐 요즘 진작 그건 하고 신식으로 했지 이제. 결혼이야. 결혼 사진 다 어디 가버렸지.)

102014 @ 첫째 아들부터 결혼하셨지예? 그 삼남일녀면 그 따님이.(첫째 아들부터 결혼하셨지요? 그 삼남일녀면 그 따님이.)

102014 #1 딸이 막낸데.(딸이 막내인데.)

102014 @ 아.(아.)

102014 #1 셋째 아들만 하고, 두 번째는 딸보다 먼저 했지.(셋째 아들만 하고, 두 번째는 딸보다 먼저 했지.)

102014 @ 아, 딸부터 먼저 헨마씨?(아, 딸부터 먼저 했어요?)

102014 #1 어.(어.)

102015 @ 그럼 며느리 셋에, 사위 하나잖아예. 아까 자녀분들은 뭐 하는지 대충 어르신 소개해 주셨으니까, 며느리랑 사위에 대해서.(그럼 며느리 셋에, 사위 하나잖아요. 아까 자녀분들은 뭐 하는지 대충 어르신 소개해 주셨으니까, 며느리랑 사위에 대해서.)

102015 #1 순수한 전업 주부.(순수한 전업 주부.)

102015 @ 아.(아.)

102015 #1 순수한 전업, 전업 주부인데, 딸만 다 아이들 키우니까, 현재 어린이집 교사.(순수한 전업, 전업 주부인데, 딸만 다 아이들 키우니까, 현재 어린이집 교사.)

102015 @ 아.(아.)

102015 #1 며느리들도 뭐 자격증이나 갖, 어떻 허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느라고.(며느리들도 뭐 자격증이나 갖, 어떻게 허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느라고.)

102015 @ 그럼 사위는?(그럼 사위는?)

102015 #1 엠비씨.(엠비씨.)

102015 @ 예.(예.)

102015 #1 경리국장 허당. 뭐 이제 후임자 후임자한테 물려가실거라, 이제 한 몇 년 잊이민 퇴임이니까.(경리국장 하다가. 뭐 이제 후임자 후임자한테 물려가실거라,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퇴임이니까.)

102016 @ 이밖에 어르신 뭐 사시면서 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뭐. 그런 얘기해 주실 거 있어마씨?(이밖에 어르신 뭐 사시면서 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뭐. 그런 얘기해주실 거 있어요?)

102016 #1 힘들었던 일. 나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힘들었던 일. 나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102016 @ 예.(예.)

102016 #1 또 자식들 학교 다닐 때는.(또 자식들 학교 다닐 때는.)

102016 @ 예.(예.)

102016 #1 내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딴 사람네 자식. 딴 사람네 자식을 공부 잘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내 자식도 공부 잘 하겠다는 그런 심리로. 거 외람된 말이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한테 자문 구하러 온 학부모들도 많아.(내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딴 사람네 자식. 딴 사람네 자식을 공부 잘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내 자식도 공부 잘 하겠다는 그런 심리로. 거 외람된 말이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한테 자문 구하러 온 학부모들도 많아.)

102016 @ 아, 많아마씨?(아, 많아요?)

102016 #1 난 신조가 만약, 운동회 때. 운동회 때 허면은, 물건 찾기라도 해서 딴 사람 자식한테 줘지, 이녀 자식한테 물건 찾기 해서 가져다 줘 본 일 없어. 딴 아이들한테 우선, 뭐 만약에 주전자 달라면, 본부석에 앉았다 주전자 줘주게. 내 자식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해 본 적 없어.(난 신조가 만약, 운동회 때. 운동회 때 허면은, 물건 찾기라도 해서 딴 사람 자식한테 줘지, 이녀 자식한테 물건 찾기 해서 가져다 줘 본 일 없어. 딴 아이들한테 우선, 뭐 만약에 주전자 달라면, 본부석에 앉았다 주전자 줘지. 내 자식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해 본 적 없어.)

102001 @ 어르신 낳고 자란 과정 간단히 얘기해 줘서.(어르신 낳고 자란 과정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102001 #2 그게 케면 신도에서 자랑 신도에서 난게 저 국민학교 졸업하고.(그게 그러면 '신도'에서 자라서 '신도'에서 나서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102001 @ 예.(예.)

102001 #2 다음은 또 우리 할 때는 이 중학교가 무릉이 엇어난 졸업할 때는.(다음은 또 우리 할 때는 이 중학교가 '무릉'이 없으니까 졸업할 때는.)

102001 @ 예.(예.)

102001 #2 중학교는 엇어 부난 중학교 못 허영 양재학원 강 허연 왕 흐꿈 살당 결혼허연. 결혼허영게 또 이제 사는 디 옆이.(중학교는 엇어 버리니까 중학교 못 해서 양재학원 가서 하다가 와서 조금 살다가 결혼했어. 결혼해서 또 이제 사는 데 옆에.)

102001 @ 예.(예.)

102001 #2 초가집 짓엉 살당 또 이제 호꿈 짓어난 쓰레뜨집 짓엉 쓰레뜨집에서 또 뜯엉 고천. 새로 집 만들엉 상점 헛주게.(초가집 지어서 살다가 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쓰레뜨집 지어서 쓰레뜨집에서 또 뜯어서 고쳤어. 새로 집 만들어서 상점 했지.)

102001 @ 음.(음.)

102001 #2 상점 혼 이십년 삼십년 봐져실 거라 젊을 때.(상점 한 이십년 삼십년 봤을 거야 젊을 때.)

102001 @ 그때는 상점 잇엇구나예?(그때는 상점 있었군요?)

102001 #2 응 가게 허연.(응 가게 했어.)

102001 @ 처음 왓인디 신도에 뭐 상점이나 슈퍼 아무 것도 엇이난.(처음 왔는데 '신도'에 뭐 상점이나 슈퍼 아무 것도 없으니까.)

102001 #2 안 됐었지. 농협에 요 무릉에 농협 생기고 허난.(안 됐지. 농협에 요 '무릉'에 농협 생기고 하니까.)

102001 @ 예.(예.)

102001 #2 차들 생기난 거기 강 사당게 냉장고 잇고 허난 놓고. 그전엔 냉장고도 엇고 버스로 가젠 허민 힘들고 허난 막 상점 잘 돼연.(차들 생기니까 거기 가서 사다가 냉장고 잇고 하니까 놓고. 그전에는 냉장고도 없고 버스로 가려고 하면 힘들고 하니까 막 상점 잘 됐어.)

102001 @ 음.(음.)

102001 #2 이 학교도 짓고 허난게. 학용품도 풀고.(이 학교도 잇고 하니까. 학용품도 팔고.)

102001 @ 아.(아.)

102001 #2 막 장사 잘 돼연.(막 장사 잘 됐어.)

102002 @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셴마씨?(부모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102002 #2 농사 지엿주게.(농사 지엿지.)

102002 @ 신도에서? 무슨 농사마씨?('신도'에서? 무슨 농사요?)

102002 #2 이디 허는 농사 보리 감자. 하당 일본 가 불언.(여기 하는 농사 보리 감자. 하다가 일본 가 버렸어.)

102002 @ 아, 일본 가 버린마씨? 기구나예.(아, 일본 가 버렸어요? 그렇군요.)

102003 @ 그럼, 어머님 고향은 어디마씨?(그럼, 어머님 고향은 어디예요?)

102003 #2 요 무릉이리.(요 '무릉이리'.)

102003 @ 아, 무릉이리.(아, '무릉이리'.)

102003 #2 우리 엄마이?(우리 엄마?)

102003 @ 예. 그럼 아버님 고향은 어디주마씨?(예. 그럼 아버님 고향은 어디지요?)

102003 #2 이 신도. 신도에서 컷주게.(이 '신도'. '신도'에서 컷지.)

102003 @ 음. 아버님은 신도고 어머님은 무릉이리.(음. 아버님은 '신도'고 어머님은 '무릉이리'.)

102005 @ 그 일제 시대는 기억 안 나시지예? 거의?(그 일제 시대는 기억 안 나시지요? 거의?)

102005 #2 우린 안 나. 저 우리보다 혼 다섯 살 우이 사람들은 일본말도 배우고 했댄.(우리는 안 나. 저 우리보다 한 다섯 살 위 사람들은 일본말도 배우고 했다.)

102005 @ 예.(예.)

102005 #2 게난 우리집 하르방은 나보다 네 살 윈디.(그러니 우리집 할아버지가 나보다 네 살 위인데.)

102005 @ 예.(예.)

102005 #2 일본말도 배웠댄.(일본말도 배웠다.)

102006 @ 그른 어르신사삼 사건은 기억나시지예?(그러면 어르신 사삼 사건은 기억나시지요?)

102006 #2 응.(응.)

102006 @ 그럼 사삼 사건 때 어떻 살아신지 얘기해 줘서.(그럼 사삼 사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102006 #2 사삼 사건 때게 그 커 갈 때 우리 커 갈 때게 막 폭도들 뭐 해 부난 게 쪼그만한 마을들에 왔주게. 우리 마을들에 들어완.(사삼 사건 때 그 커 갈 때 우리 커 갈 때 막 폭도들 뭐 해 버리니까 쪼그마한 마을들에 왔지. 우리 마을들에 들어왔어.)

102006 @ 아.(아.)

102006 #2 들어왕 이젠 막 선. 담으로 들어오지 못허게. 경 행 막 지켰주게. 밤이.(들어와서 이제는 막 섰어. 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막 지켰지. 밤에.)

102006 @ 예.(예.)

102006 #2 밤이 지컨. 지켜영 허염시난게 우리 마을 사람이 산에 올라갓당 또 밤이 내려와네 겨울에.(밤에 지켰어. 지켜서 하니까 우리 마을 사람이 산에 올라갔

다가 또 밤에 내려와서 겨울에.)

102006 @ 예.(예.)

102006 #2 막 이장네 집에 강 이장네 막 죽여 불고 불 붙여 불고 사람도 죽이고 막 곡식 가져가고.(막 이장네 집에 가서 이장네 막 죽여 버리고 불 붙여 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막 곡식 가져가고.)

102006 @ 아.(아.)

102006 #2 경 현 사람도 이제, 이제 돈 준댄 험서.(그렇게 한 사람도 이제, 이제 돈 준다고 하고 있어.)

102006 @ 무슨 돈마씨?(무슨 돈이요?)

102006 #2 그 사삼 사건 때 사삼 사건 때 죽은 사람들.(그 사삼 사건 때 사삼 사건 때 죽은 사람들.)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2 그 나라에 재판혜영.(그 나라에 재판해서.)

102006 @ 예.(예.)

102006 #2 이기난게. 계난 그건 경 혈 일이 아니다. 에휴 나라도 원. 우리나라 반대해근엥 저 한라산 올라강 우리 동네 습격 들엉 막 사람 죽이고 현 사람들 또 돈 주고.(이기니까. 그러니 그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에휴 나라도 원. 우리나라 반대해서 저 한라산 올라가서 우리 동네 습격 들어서 막 사람 죽이고 한 사람들 또 돈 주고.)

102006 @ 아, 그 폭도들한테도?(아, 그 폭도들한테도?)

102006 #2 으. 이제 판찍³⁹⁾ 현 사람들 아이들 군인 강 죽은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 엇이든 그대로 내 불고 거 완전 안 쉐 일이라.(어. 이제 '판찍' 한 사람들 아이들 군인 가서 죽은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 없으면 그대로 내 버리고 거 완전 안 된 일이야.)

102007 @ 그럼 어르신은 결혼은 중매결혼 험마씨? 연애결혼 험마씨?(그럼 어르신은 결혼은 중매결혼 했어요? 연애결혼 했어요?)

102007 #2 중매결혼게 옛날은.(중매결혼 옛날은.)

102008 @ 그럼 그 결혼할 때 사주는 보션마씨?(그럼 그 결혼할 때 사주는 보셨어요?)

102008 #2 뭐?(뭐?)

102008 @ 사주는 보션마씨? 사주? 결혼할 때.(사주는 보셨어요? 사주? 결혼할 때.)

102008 #2 사주 보주게. 옛날에. 옛날엔 주로 그거 봐야 해여. 뭐 띠가 맞고 안 맞고 뭐.(사주 보지. 옛날에. 옛날에는 주로 그거 봐야 해. 뭐 띠가 맞고 안 맞고 뭐.)

102009 @ 그른 그 결혼할 때 요즘처럼 막 요즘처럼은 안 하잖아예? 혼수품이나

39) '판찍'은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 혹은 전혀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뭐 예물 같은 거예요? 그런 것 좀 안 헨마씨?(그러면 그 결혼할 때 요즘처럼 막 요즘처럼은 안 하잖아요? 혼수품이나 뭐 예물 같은 거요? 그런 것 좀 안 했어요?)

102009 #2 그게 갈 때 이불행 가고 퀘행 가고. 그추룩만 헛주게.(그게 갈 때 이불해서 가고 퀘해서 가고. 그처럼만 했지.)

102009 @ 이불하고 뭐마씨?(이불하고 뭐요?)

102009 #2 퀘. 퀘. 옷 놓는 거.(퀘. 퀘. 옷 놓는 거.)

102009 @ 아, 퀘. 퀘짜.(아, 퀘. 퀘짜.)

102010 @ 그럼 식은 하션마씨? 결혼식은?(그럼 식은 하셨어요? 결혼식은?)

102010 #2 응.(응.)

102010 @ 어디서 하션마씨?(어디서 하셨어요?)

102010 #2 마당에서 헨. 옛날에.(마당에서 했어. 옛날에.)

102010 @ 그럼 결혼식 때 사진은 찍언마씨?(그럼 결혼식 때 사진은 찍었어요?)

102010 #2 게.(그럼.)

102010 @ 막 신식으로 헛다예?(막 신식으로 했군요?)

102010 #2 게. 그때도 제법 신식으로 허연 헛주게.(그럼. 그때도 제법 신식으로 해서 했지.)

102011 @ 그럼 신혼살림은 여기 신도에서 하션마씨?(그럼 신혼살림은 여기 ‘신도’에서 하셨어요?)

102011 #2 으.(어.)

102012 @ 그른 그때 아이들은 몇 명 잇주마씨?(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몇 몇 잇지요?)

102012 #2 우리?(우리?)

102012 @ 예.(예.)

102012 #2 아들 넷 딸 하나.(아들 넷 딸 하나.)

102012 @ 아들 넷 딸 하나. 손자 손녀는 몇 명 잇어마씨?(아들 넷 딸 하나. 손자 손녀는 몇 명 있어요?)

102012 #2 열한명.(열한명.)

102013 @ 그럼 어르신 그 시집살이 하셨지예?(그럼 어르신 그 시집살이 하셨지요?)

102013 #2 난 별로 시집살이 안 허연.(난 별로 시집살이 안 했어.)

102013 @ 안 허연. 많이 안 허연마씨?(안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102014 @ 그럼 그 자녀분들은 결혼은 어떻게 헨마씨?(그럼 그 자녀분들은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102014 #2 연애헌 아이도 잇고 중매헌 아이도 잇고.(연애한 아이도 있고 중매한 아이도 있고.)

102014 @ 그럼 결혼은 어디서 헨마씨? 식은?(그럼 결혼은 어디서 했어요? 식은?)

102014 #2 시에서 결혼 예식도 하고 서귀포서도 하고 요 모슬포서도 하고 그 신부네 집 가까운 데서 해주게. 서귀포 사는 며느리는 서귀포 쪽에서 하고. 요 모슬포 쪽에서 사는 며느리는 모슬포서 하고.(시에서 결혼 예식도 하고 서귀포서도 하고 요 ‘모슬포’에서도 하고 그 신부네 집 가까운 데서 하지. 서귀포 사는 며느리는 서귀포 쪽에서 하고. 요 ‘모슬포’ 근처에 사는 며느리는 ‘모슬포’에서 하고.)

102015 @ 그럼 며느리 넷이랑 사위 한 명 잇는 거마씨?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좀 좋은 말 과아 줘서.(그럼 며느리 넷이랑 사위 한 명 잇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좀 좋은 말 말해 주십시오.)

102015 #2 우린 딸도 선생 메누리도 다 선생이라.(우리는 딸도 선생 며느리도 다 선생이야.)

102015 @ 예.(예.)

102015 #2 게난 막 좋아. 어떻 안 하여. 착실하고 또 아무래도 배운 아이들이 난.(그러니 막 좋아. 어떻게 안 해. 착실하고 또 아무래도 배운 아이들이니까.)

102015 @ 예.(예.)

102015 #2 예의도 지키꼭.(예의도 지키고.)

102015 @ 예.(예.)

102015 #2 아들들이 나쁘주 메누린 좋아.(아들들이 나쁘지 며느리는 좋아.)

102001 @ 할머니 그 시집살이 했던 거예. 시집살이 했던 거 좀 과아 줘서.(할머지 그 시집살이 했던 거예. 시집살이 했던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2001 #3 무사 그거 해 주민 어떻 나 살리젠?(왜 그거 해 주면 어떻게 나 살리려고?)

102001 @ 아니, 그건 아닌디예. 그냥 할머니 고생 많이 하셧잖아예. 젊으셧을 때. 그거 얘기 좀 과아 줘서.(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냥 할머니 고생 많이 하셧잖아요. 젊으셧을 때. 그거 얘기 좀 말해 주십시오.)

102001 #3 체음이 살 때?(처음에 살 때?)

102001 @ 예.(예.)

102001 #3 집도 엇고 밧도 엇고 아무 것도 웃인디. 왕 살젠 허난 장사허멍 호끔씩 호끔씩 현 장사 허레 집마다 돌아다니멍 돈 벌영.(집도 없고 밧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와서 살려고 하니까 장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 장사 하러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서.)

102001 @ 예.(예.)

102001 #3 경 허영 살곡. 또 이제 큰 장사 헤근앵 그때는 돈 하영 버난 집도 사곡 밧도 사곡 경 행 살앗주게.(그렇게 해서 살고. 또 이제 큰 장사 해서 그때는 돈 많이 버니까 집도 사고 밧도 사고 그렇게 해서 살았지.)

102001 @ 그럼 맨 처음 시집갓을 때는 뭐 누구영 살안마씨?(그럼 맨 처음 시집갓을 때는 뭐 누구와 살았어요?)

102001 #3 저. 남편은 군인 가 불고. 시어머니가 잇주게.(저. 남편은 군인 가 버

리고. 시어머니가 있지.)

102001 @ 예.(예.)

102001 #3 계난 시어머니광 계속 살안. 죽을 때까지.(그러니 시어머니와 계속 살았어. 죽을 때까지.)

102001 @ 아, 죽을 때까지.(아, 죽을 때까지.)

102001 #3 응.(응.)

102001 @ 아, 그럼 할머니 몇 살 때 시집 왔수광?(아, 그럼 할머니 몇 살 때 시집 왔습니까?)

102001 #3 스물 둘에.(스물 둘에.)

102001 @ 스물 둘에. 그럼 그때 뭐 기억나는 거 엇수광? 기억나는 거 얘기 좀 해줍서.(스물 둘에. 그럼 그때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기억나는 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102001 #3 기억나는 거 벨로 엇어.(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

102001 @ 낳고 자란 거 과정 지금까지 어떻 살아신지 좀 곶아 줍서.(낳고 자란 거 과정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말해 주십시오.)

102001 #4 옛날에 살 때엔.(옛날에 살 때에는.)

102001 @ 예.(예.)

102001 #4 이 시국 일어났을 때에는 무시거 부대들 나왕 산에 사람도 므습고 이디 순경도 므습고.(이 시국 일어났을 때에는 무엇 부대들 나와서 산에 사람도 무섭고 여기 순경도 무섭고.)

102001 @ 예.(예.)

102001 #4 여기서 가민 우리 다시 폭도영 뉘 우리 산 쪽 들엇젠 우릴 막 죽여 불젠 허곡.(여기서 가면 우리 다시 폭도와 뉘 우리 산 쪽 들었다고 우리를 막 죽여 버리려고 하고.)

102001 @ 아, 사삼 사건 때?(아, 사삼 사건 때?)

102001 #4 예. 사삼 사건 때. 이제 산에서 오민 순경 쪽 들엇젠 다시 우릴 죽여 불젠 허곡.(예. 사삼 사건 때. 이제 산으로 오면 순경 쪽 들었다고 다시 우리를 죽여 버리려고 하고.)

102001 @ 예.(예.)

102001 #4 계난 우리 절로 부대 오민 막 어둠에만 오는 거주게. 계난 콩밭에 가는 거라. 콩밭 속으레.(그러니 우리 저기로 부대 오면 막 어둠에만 오는 거지. 그러니 콩밭에 가는 거야. 콩밭 속으로.)

102001 @ 콩밭 속으로? 아 거기서 숨언마씨?(콩밭 속으로? 아 거기서 숨었어 요?)

102001 #4 그런디 숨고.(그런데 숨고.)

102001 @ 예.(예.)

102001 #4 이 집에 옛날에 우리는 양에 질르난. 양에왔이 강 곱아근엥 숨도 크게 못 쉬고.(이 집에 옛날에 우리는 양하 기르니까. 양하밭에 가서 숨어서 숨도 크게 못 쉬고.)

102001 @ 예.(예.)

102001 #4 허당 그 사람들 왕 막 동네 돌아다니명 막 가버려사 나오고. 경 허당 보민 붉으민 순경들이 막 오는 거라.(하다가 그 사람들 와서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가버려야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밝으면 순경들이 막 가는 거야.)

102001 @ 예.(예.)

102001 #4 순경 오민 다시 산 쪽 들엄젠 우리 다시 스못 심어당 죽여 부는 사람은 죽여 불곡.(순경 오면 다시 산 쪽 든다고 우리 다시 사못 데려다가 죽여 버리는 사람은 죽여 버리고.)

102001 @ 예.(예.)

102001 #4 경 헤 가난 우리 막 므스왕 혈 때에 그 시절에 저 옛날도 청수⁴⁰⁾ 올라강 흔 흔 십일 살아신가? 계난 다시 고산더레 내려가렌 헐.(그렇게 해 가니까 우리 막 무서워서 할 때에 그 시절에 저 옛날도 ‘청수’ 올라가서 한 한 십일 살았는가? 그러니까 다시 ‘고산’에 내려가라고 했어.)

102001 @ 예.(예.)

102001 #4 우리 나 우리 처녀 때 그건.(우리 나 우리 처녀 때 그건.)

102001 @ 아 처녀 때?(아 처녀 때?)

102001 #4 경 행 고산 강 다신 살아가난 아니 웃드리서 왔젠 몬딱 젊은 남자들은 죽여 부는 거라.(그렇게 해서 ‘고산’ 가서 다시 살아가니까 아니 ‘웃드리’에서 왔다고 전부 젊은 남자들은 죽여 버리는 거야.)

102001 @ 아.(아.)

102001 #4 산 쪽이영 허명.(산 쪽이라고 하면서.)

102001 @ 예.(예.)

102001 #4 산 쪽 아니더라도 이 웃드리서 온 사람은 젊은 사람은 다 죽여 분 거라 진짜.(산 쪽 아니더라도 이 ‘웃드리’서 온 사람은 젊은 사람은 다 죽여 버리는 거여 진짜.)

102001 @ 아, 젊은 사람은?(아, 젊은 사람은?)

102001 #4 어. 계난 나이 어리곡 늙은 하르방들만 살앙 다시 이젠 올라오라 헤 근엥 살아가는 게 이거 아이고 기가 맥히게 살앗주게.(어. 그러니 나이 어리고 늙은 할아버지들만 살아서 다시 이제는 올라오라 해서 살아가는 게 이거 아이고 기가 막히게 살았지.)

102001 @ 그러면?(그러면?)

102001 #4 계난 집도 몬딱 이디서 우리 가부난 불 붙여 불곡.(그러니 집도 전부 여기서 우리 가버리니까 불 붙여 버리고.)

40) ‘청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2001 @ 예.(예.)

102001 #4 아무것도 잊어난 먹을 것도 잊고 행 스뭇 영 다 뭇 해근엿 움막추룩 짓엿 살앗주게.(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사뭇 이렇게 다 뭇 해서 움막처럼 지어서 살았지.)

102001 @ 움막추룩?(움막처럼?)

102001 #4 응. 이녁 동네 해지 뒤엿 돌아오젠 허난.(응. 이녁 동네 해지되어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102001 @ 예.(예.)

102001 #4 혼 삼월 달 뒤엿 돌아왔주게. 시월 달에 강 삼월 달 뒤도록 고산에서 살앗주게.(한 삼월 달 되어서 돌아왔지. 시월 달에 가서 삼월 달 되도록 ‘고산’에서 살았지.)

102001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2001 #4 어.(어.)

102002 @ 할머니.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셧마씨?(할머니.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셧어요?)

102002 #4 우리 부모?(우리 부모?)

102002 @ 예.(예.)

102002 #4 부모는 농사짓엿주게.(부모는 농사 지엿지.)

102002 @ 농사 지언마씨? 무슨 농사 지언마씨?(농사 지엿어요? 무슨 농사 지엿어요?)

102002 #4 그렇게 보리, 감저 옛날엔.(그냥 보리, 고구마 옛날에는.)

102002 @ 아, 보리, 감저 옛날에.(아, 보리, 고구마 옛날에.)

102002 #4 조, 그런 거 콩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멍 살앗주게.(조, 그런 거 콩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서 살았지.)

102002 @ 그럼 할머니도 그런 일 밧일 하셧마씨?(그럼 할머니도 그런 일 밧일 하셧어요?)

102002 #4 나도게 부모님 따라 다니멍 그런 일 허멍 살당 이디 시집 온 거라.(나도 부모님 따라 다니면서 그런 일 하면서 살다가 여기 시집 온 거야.)

102003 @ 아, 그러면 그 어머님 고향은 어디마씨?(아, 그러면 그 어머님 고향은 어디예요?)

102003 #4 산양⁴¹⁾이주게.(‘산양’이지.)

102003 @ 예?(예?)

102003 #4 우리 고향?(우리 고향?)

102003 @ 아니 할머니 어머니 고향마씨.(아니 할머니 어머니 고향이요.)

102003 #4 계매 어머니네가 산양이라.(글쎄 어머니네가 ‘산양’이야.)

102003 @ 그럼 아버님은?(그럼 아버님은?)

41) ‘산양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2003 #4 아버님도 산양이주게.(아버님도 ‘산양’이지.)

102004 @ 아, 기구나예. 그럼 어릴 때도 어떤 놀이 같은 거 하신마씨? 노는 거.(아, 그렇군요. 그럼 어릴 때도 어떤 놀이 같은 거 하셨어요? 노는 거.)

102004 #4 노는 거사 우리사게 요새 놀듯이게 뭐 무신 베뿔락이나 허곡 방찰락이나 허곡.(노는 거야 우리야 요새 놀듯이 뭐 무슨 줄넘기나 하고 ‘방찰락’이나 하고.)

102004 @ 베뿔락이랑 뭐마씨?(줄넘기랑 뭐요?)

102004 #4 베뿔락허곡 방찰락. 방 그려근앵 영 떡대 낱 툽툽 차명 허는 거.(줄넘기하고 ‘방찰락’. 방 그려서 이렇게 목대 놔서 툽툽 차면서 하는 거.)

102004 @ 아, 그게 방찰락?(아, 그게 ‘방찰락’.)

102004 #4 어. 그런 것도 허곡 다시 저 낭에 걸어근앵 이제 무시거옴 허는디.(어. 그런 것도 하고 다시 저 나무에 걸어서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데.)

102004 @ 그네?(그네?)

102004 #4 어. 그네 뛰는 거.(어. 그네 뛰는 거.)

102004 @ 그네 뛰는 거.(그네 뛰는 거.)

102004 #4 어.(어.)

102004 @ 그것도 헨마씨?(그것도 했어요?)

102004 #4 이녁 부모네 쉼 때 허여근앵 짐 신고 허는 거 베 막 헤 놔두민 그거 모르게 곱져다근앵 밤이 막 벗들이영 그 낭에 돌아맹 헨주게. 주총 옛날엔 우리 주총이라고 헨주게.(자기 부모네 소 때 해서 짐 신고 하는 거 베 막 헤 놔두면 그거 모르게 숨졌다가 밤에 막 벗들과 그 나무에 달아매서 헨지. 쇠꼬리채 옛날에는 우리 쇠꼬리채라고 헨지.)

102004 @ 주총?(쇠꼬리채?)

102004 #4 주총으로 막 뛰는 거라.(쇠꼬리채로 막 뛰는 거야.)

102004 @ 아, 주총으로.(아, 쇠꼬리채로.)

102004 #4 어. 우리 옛날에 경 허멍 놀았주게. 뭐 엇이난게.(어.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놀았지. 뭐 없으니까.)

102005 @ 그럼 일제 시대 때도 기억나는 거 잇수광?(그럼 일제 시대 때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2005 #4 일제 시대, 일제 시대엔 우리 혼 열다섯 나난 혼련 허렌 헨.(일제 시대, 일제 시대에는 우리 혼 열다섯 되니까 혼련 하라고 했어.)

102005 @ 예? 무슨 혼련마씨?(예? 무슨 혼련이요?)

102005 #4 군인게 여자들도 군인 시키켄 허멍 막 우리 혼련헨주게.(군인 여자들도 군인 시키겠다고 하면서 막 우리 혼련헨지.)

102005 @ 할머니도 혼련헨수광?(할머니도 혼련헨습니까?)

102005 #4 어.(어.)

102005 @ 어떤 혼련헨마씨?(어떤 혼련헨했어요?)

102005 #4 그렇게 이디서 이제 훈련하듯이 말만 따라 허는 거라.(그냥 여기서 이제 훈련하듯이 말만 따라 하는 거야.)

102005 @ 예.(예.)

102005 #4 이제 영 쪽 사근앵 번호 불르렌 허영 이찌 영 허민 이디 사람은 니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일, 이, 삼 허듯이.(이제 이렇게 쪽 서서 번호 부르라고 해서 이찌 이렇게 하면 여기 사람은 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 이. 삼 하듯이.)

102005 @ 예.(예.)

102005 #4 이찌, 니, 산 영 허멍 경 허멍 이디서 저만축 허민 탁 허민 번호 불르곡. 경 행 훈련 나간 스못 훈련허고 헛주게.(이찌, 니, 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저만큼 하면 탁 하면 번호 부르고. 그렇게 해서 훈련 나가니까 사못 훈련하고 헛지.)

102005 @ 아, 그러면 그 공출, 공출 같은 것도 알아마씨? 일제 시대 때?(아, 그러면 그 공출, 공출 같은 것도 알아요? 일제 시대 때?)

102005 #4 일제 시대에 우리.(일제 시대에 우리.)

102005 @ 막 뺏어가는 거마씨.(막 뺏어가는 거요.)

102005 #4 그때에 우리 보리허민 보리 공출 허렌 문딱.(그때에 우리 보리하면 보리 공출 하라고 전부.)

102005 @ 아.(아.)

102005 #4 국내가 막 못 살앗주게게.(국내가 막 못 살았지.)

102005 @ 그니까 얼마나 공출해 간마씨 그때는?(그러니까 얼마나 공출해 샀어요 그때는?)

102005 #4 혼 혼 집이 할당 나오는 거라.(한 한 집에 할당 나오는 거야.)

102005 @ 아, 예.(아, 예.)

102005 #4 몇 가마니 허영 나오민.(몇 가마니 해서 나오면.)

102005 @ 예.(예.)

102005 #4 그걸 버티질 못 헛주게 옛날은 비료 잘 안 나오곡 허난.(그걸 버티지를 못 헛지 옛날은 비료 잘 안 나오고 하니까.)

102005 @ 예.(예.)

102005 #4 돈 엇영 비료 사지 못 허곡. 비료 놔근앵 허민 농사가 잘 되고.(돈 없어서 비료 사지 못 하고. 비료 놔서 하면 농사가 잘 되고.)

102005 @ 예.(예.)

102005 #4 비료 못 넣은 사람은 보리가 요만씩 헤근앵 잘 나지를 앓앗주게게.(비료 못 넣은 사람은 보리가 요만큼 해서 잘 나지를 앓았지.)

102005 @ 예.(예.)

102005 #4 경 헛인디 이 웨놈들 공출허렌 허민 멘네도 갈앙 공출허라 이젠 옛날엔 제충국 이제 약 쓰는 거. 제충국이엔 현 거 그것도 갈앙 ㄹ장 탕 물려 왕 그

것도 공출허라. 뭐 공출 안 허는 게 엇엇어.(그렇게 했는데 이 외놈들 공출하라고 하면 목화도 같아서 공출하라 이제는 옛날에는 제충국 이제 약 쓰는 거. 제충국이 라고 한 거 그것도 같아서 꽃 따서 말려 와서 그것도 공출하라. 뭐 공출 안 하는 게 없었어.)

102005 @ 제충국, 제충국이 뭐짱?(제충국, 제충국이 뭐입니까?)

102005 #4 제충국 이제 아이들은 모를 거라 그거.(제충국 이제 아이들은 모를 거야 그거.)

102005 @ 예.(예.)

102005 #4 이제 ㄹ트민 뿔이렌 곶을 건가. 꼭 백합ㄹ장ㄹ치 허영 헤여근엿 허민 막 독헌 거라. 그거 약, 약 쓰는 거라.(이제 같으면 무엇이라고 말할 건가. 꼭 백합 꽃같이 하얗게 해서 하면 막 독한 거야. 그거 약, 약 쓰는 거야.)

102005 @ 아. 뭐, 비료 약, 약 같은 거마씨? 농시힐 때?(아. 뭐, 비료 약, 약 같은 거예요? 농사할 때?)

102005 #4 예. 그거 그거 허영 얼마나 그것도 몇 근 허영 할당 허민 그것도 허젠 허민 힘들고게. 우선 멘네 할당을 할당 시경 허민 멘네가 제일 어려왔주게.(예. 그거 그거 해서 얼마나 그것도 몇 근 해서 할당 하면 그것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우선 목화 할당을 할당 시켜서 하면 목화가 제일 어려웠지.)

102005 @ 아.(아.)

102005 #4 보리 ㄹ튼 건 공출해 불민 우리 먹을 거 엇엇 스뭇 흠 바당에 강 툷이나 허영 먹고.(보리 같은 건 공출해 버리면 우리 먹을 거 없어서 사뭇 참 바다에 가서 툷이나 해서 먹고.)

102005 @ 바당 바당에 강 바당일도 물질도 좀 헛수광?(바다 바다에 가서 바다일도 물질도 좀 했습니까?)

102005 #4 게고 아니 물질은 우리 못 허엿주만은 멀어도 바당에 가민 물때 뉘민 바당에도 가곡 경 허멍 해. 이 제국 시대에는 말도 잘 허지 못 허여.(그리고 아니 물질은 무리 못 했지만 멀어도 바다에 가면 물때 되면 바다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해. 이 제국 시대에는 말도 잘 하지 못 해.)

102005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02005 #4 어. 너무 스뭇 애석허영⁴²⁾.(어. 너무 사뭇 ‘애석해서’.)

102005 @ 아.(아.)

102005 #4 공출허지 경 허당 이제 막 스뭇 경 헤 가난 그 전쟁이 저 간 풀이라.(공출하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사뭇 그렇게 해 가니까 그 전쟁이 저 간 풀이야.)

102005 @ 예.(예.)

102005 #4 여자들도 다 군인 나오렌 헨 몬딱.(여자들도 다 군인 나오라고 했어 전부.)

42) ‘애석다’는 근심에 겨워 속이 아주 상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102005 @ 예.(예.)

102005 #4 그냥 강제로 뽑아가젠.(그냥 강제로 뽑아가려고.)

102005 @ 아.(아.)

102005 #4 경 험 동안에 칠월 보름날산지 손 들은 거라.(그렇게 할 동안에 칠월 보름날인지 손 들은 거야.)

102005 @ 예.(예.)

102005 #4 계난 우리 산디 검질메러 갖당 비행기들 오난 막 팡팡 저 미국 비행기들 왕 팡팡 해 가난 일본 군인들이 듣지를 못 허영 다 곱으멍 그때 손 들어 분 거라.(그러니 우리 밧벼 김매러 갔다가 비행기들 오니까 막 팡팡 저 미국 비행기들 와서 팡팡 해 가니까 일본 군인들이 도망가지를 못 해서 다 숨어서 그때 손 들어 버린 거야.)

102005 @ 아, 그때?(아, 그때?)

102005 #4 어. 이 녹남오름⁴³⁾ 이디도 올라강 살았을 거라.(어. 이 ‘녹남오름’ 여기도 올라가서 살았을 거야.)

102005 @ 아. 녹남오름에 강?(아. ‘녹남오름’에 가서?)

102005 #4 어. 우리 옛날 농사도 옆이 오름 잇이난 그디 올라강 굴 파 뒤서 군인들 들어강 살았주게.(어. 우리 옛날 농사도 옆에 오름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굴 파 뒤서 군인들 들어가서 살았지.)

102005 @ 아.(아.)

102005 #4 우리 군인들 잇인데 강 하간 장사도 허연. 비누도 받앙 쓰고 무신 떡 허영 가면 그 사람들 굶으민 그것도 줏주게.(우리 군인들 잇는데 가서 여러 장사도 했어. 비누도 받아서 쓰고 무슨 떡 해서 가면 그 사람들 굶으면 그것도 줏지.)

102005 @ 예.(예.)

102005 #4 계고이 거기서 지네들 쓰젠 허던 걸로.(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 쓰려고 하던 걸로.)

102005 @ 예.(예.)

102005 #4 막 받앙 그거 받앙 왕 쓰고 경 헷주게기.(막 받아서 그거 받아서 와서 쓰고 그렇게 했지.)

102005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02005 #4 어. 경 허당 손 들으난 그 사람들 줄바로 가지를 못허곡 큰 군인들은 굴속에서 자살해 분 거라 지네양으로.(어. 그렇게 하다가 손 들으니까 그 사람들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큰 군인들은 굴속에서 자살해 버린 거야 스스로.)

102005 @ 아, 큰 군인들은 자살 헨마씨?(아, 큰 군인들은 자살 했어요?)

102005 #4 어.(어.)

102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43) ‘녹남오름’은 제주도 제주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오름 중 하나이다. 녹남봉, 녹남오름이라고도 한다.

102005 #4 막 굴속에 집 짓엉 살당 나오지를 안 허연. 고향 돌아가지 안 허연.
(막 굴속에 집 지어서 살다가 나오지를 았았어. 고향 돌아가지 았았어.)

102006 @ 그러면 아까 할머니 곶아 준 건데예. 그 사삼 사건 때 잇잖아예?(그
러면 아까 할머니 말해 준 건데. 그 사삼 사건 때 잇잖아요?)

102006 #4 어.(어)

102006 @ 그때는 할머니 몇 살이엇수광? 사삼 사건 때.(그때는 할머니 몇 살이
엇습니까? 사삼 사건 때.)

102006 #4 나? 스물.(나? 스물.)

102006 @ 아, 스물. 그럼 그때 막 안 좋은 일 다 봤겠다예?(아, 스물. 그럼 그때
막 안 좋은 일 다 봤겠군요?)

102006 #4 계난 산 사람도 므습고 순경도 므습고 허난 우린 곱양만 살았주.(그
러니 산 사람도 무섭고 순경도 무섭고 하니까 우리는 숨어서 살았지.)

102006 @ 아, 곱양만 살안?(아, 숨어서만 살았어요?)

102006 #4 어.(어.)

102006 @ 그럼 할머니 얼마나 그때 경 곱양 살안마씨?(그럼 할머니 얼마나 그
때 그렇게 숨어서 살았어요?)

102006 #4 혼 서너 들은 우리 잘도 므스웠어.(한 서너 달은 우리 잘도 무서웠
어.)

102006 @ 아 잘도 므스완마씨?(아 잘도 무서웠어요?)

102006 #4 어.(어.)

102006 @ 할머니 그럼 친구 분들도 막 좀 다쳤마씨?(할머니 그럼 친구 분들도
막 좀 다쳤어요?)

102006 #4 친구 분들 우리 친구 분들은 우리영 친헌 사람은 이제 고산 내려가
난.(친구 분들 우리 친구 분들은 우리와 친한 사람은 이제 ‘고산’ 내려가니까.)

102006 @ 예.(예.)

102006 #4 이 산에 산 쪽 아니 들어도 지네가 막 때 므스우난.(이 산에 산 쪽
아니 들어도 자기네가 막 때 무서우니까.)

102006 @ 예.(예.)

102006 #4 바른 말 허렌 무시거 허렌 허난 나도 지서에 두어 번 가고 헛주게.
(바른 말 하라고 무엇 하라고 하니까 나도 지서에 두어 번 가고 했지.)

102006 @ 아, 그때 할머니도 지소에 갔엇수광?(아, 그때 할머니도 지소에 갔엇
습니까?)

102006 #4 경 행 나도 산에 사람한테 물이라도 췌젠 행 거짓말이라도 막 닭달
해 가난 가의네 혼 말로 막 곶아 분 거라.(그렇게 해서 나도 산에 사람한테 물이
라도 췌다고 해서 거짓말이라도 막 닭달해 가니까 그 아이네 한 말로 막 말해 버린
거야.)

102006 @ 예.(예.)

102006 #4 골으난 난 그때 아파 부난게 지서에 사람들 심어가도 머리영 손이영 다 이만히 허난 매도 하나 안 맞고.(말하니까 난 그때 아파 버리니까 지서에 사람들 붙잡아가도 머리와 손과 다 이만이 하니까 매도 하나 안 맞고.)

102006 @ 아.(아.)

102006 #4 동네에 산에 오른 사람 알아지느냐 허난 동네 사람이나 알아진다고 했주게.(동네에 산에 오른 사람 알아지느냐 하니까 동네 사람이나 알아진다고 했지.)

102006 @ 음.(음.)

102006 #4 계난 그 사람 어디 갔냐 허난 나 아파 누워 부난 어디 간 줄 모르켄 허난.(그러니 그 사람 어디 갔냐 하니까 나 아파 누워 버리니까 어디 간 줄 모르겠다고 하니까.)

102006 @ 예.(예.)

102006 #4 순경들 날 보고 뵈이렌 안 골안. 그냥 그저 지서 강 왓주게. 경 행난 집이 가렌 허고게. 우리 우리 사람들 친구 여자는 몇 사람 죽여 버렸주게.(순경들 날 보고 무엇이라고 안 말했어. 그냥 그저 지서 가서 왔지. 그렇게 해서 난 집에 가라고 하고. 우리 우리 사람들 친구 여자는 몇 사람 죽여 버렸지.)

102006 @ 어디 사람들마씨?(어디 사람들이요?)

102006 #4 우리 친구들.(우리 친구들.)

102006 @ 아, 친구들.(아, 친구들.)

102006 #4 그전 사람은 지서에 심영 강 허민 바른말 허렌 허민 못 견더 가면 막 헛말로 들어 분 거라 그때는.(그전 사람은 지서에 붙잡아 가서 하면 바른말 하라고 하면 못 견더 가면 막 헛말로 들어 버린 거야 그때는.)

102006 @ 예.(예.)

102006 #4 아이고 그거 매 맞는 거 보문 기가 맥혀.(아이고 그거 매 맞는 거 보면 기가 막혀.)

102006 @ 아이고, 막 힘들엇겄다예.(아이고, 막 힘들엇겄군요.)

102006 #4 계난 그런 사람은 우리 친구들 우리보다 두 살 아래 혼 살 아래 사람은 다 죽엇어.(그러니 그런 사람은 우리 친구들 우리보다 두 살 아래 한 살 아래 사람은 다 죽엇어.)

102006 @ 아, 다 죽언마씨?(아, 다 죽엇어요?)

102006 #4 여자도. 여자도 죽여 분 거라.(여자도. 여자도 죽여 버린 거야.)

102006 @ 아, 여자도?(아, 여자도?)

102006 #4 어. 다 죽여 부렸주게.(어. 다 죽여 버렸지.)

102007 @ 할머니 그럼 지금 할아버지는 어디 돌아가션마씨? 어디?(할머니 그럼 지금 할아버지는 어디 돌아가셨어요? 어디?)

102007 #4 계난 그 옛날 우리 아버지는 죽엇주게.(그러니 그 옛날 우리 아버지는 죽엇지.)

102007 @ 아, 기구나예. 그럼 결혼은 할머니 옛날에 연애결혼 헨마씨? 중매결혼 헨마씨?(아, 그렇군요. 그럼 결혼은 할머니 옛날에 연애결혼 했어요? 중매결혼 했어요?)

102007 #4 중매.(중매.)

102007 @ 아, 중매결혼 헨마씨?(아, 중매결혼 했어요?)

102007 #4 연애가 어디 셔? 여기 탁 허게 통행금지 있어 부난 어디 옆이 사람들도 몰랐어 그때는.(연애가 어디 있어? 여기 탁 하게 통행금지 있어 버리니까 어디 옆에 사람들도 몰랐어 그때는.)

102007 @ 아, 통행금지 있어 부난.(아, 통행금지 있어 버리니까.)

102007 #4 통행금지 있어 부난 그때 어디 가지도 못 했어. 게도 우린 얼굴도 안 보고.(통행금지 있어 버리니까 그때 어디 가지도 못 했어. 그래도 우리는 얼굴도 안 보고.)

102007 @ 예.(예.)

102007 #4 경 행 춤 이디 온 거주게. 그때.(그렇게 해서 참 여기 온 거지. 그때.)

102008 @ 그럼 중매할 때 사주는 보셨수광?(그럼 중매할 때 사주는 보셨습니까?)

102008 #4 사진도 엇고 우린.(사진도 없고 우리는.)

102008 @ 아니 사주, 사주.(아니 사주, 사주.)

102008 #4 어?(어?)

102008 @ 사주팔자 잇잖아예?(사주팔자 잇잖아요?)

102008 #4 아. 사주팔자사 봤주게.(아. 사주팔자야 봤지.)

102008 @ 아. 그럼 그건 어떻게 잘 나왔마씨?(아. 그럼 그건 어떻게 잘 나왔어요?)

102008 #4 몰라 어떻게 헤신지 그때.(몰라 어떻게 했는지 그때.)

102008 @ 그럼 그때는 사주팔자 누가 봐줬마씨? 그 옛날에는?(그럼 그때는 사주팔자 누가 봐줬어요? 그 옛날에는?)

102008 #4 부모들이게 신랑 쪽에서는 신랑 아방이 봐근앵 강 돌아오는 거라.(부모들이 신랑 쪽에서는 신랑 아버지가 봐서 가서 돌아오는 거야.)

102008 @ 아, 강 돌아오는 거마씨?(아,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102008 #4 어.(어.)

102008 @ 그럼 어디 고산까지 가야 그거 보는 사람 잇엇수광?(그럼 어디 '고산' 까지 가야 그거 보는 사람 잇엇습니까?)

102008 #4 이 동네도 잇주게 그런 건.(이 동네도 있지 그런 건.)

102008 @ 아, 이 동네도 잇언마씨?(아, 이 동네도 있었어요?)

102008 #4 어. 이 동네에도 그런 것 잇엇주게.(어. 이 동네에도 그런 것 있지.)

102008 @ 지금은 엇일 거 아닌가마씨?(지금은 없을 거 아닌가요?)

102008 #4 지금도 셔.(지금도 있어.)

102008 @ 아, 지금도 셔?(아, 지금도 있어?)

102008 #4 어. 지금은 이젠 우리 가젠 허민 모슬포 가근앵.(어. 지금은 이제는 우리 가려고 하면 ‘모슬포’ 가서.)

102008 @ 예.(예.)

102008 #4 봐 오는 거라. 모슬포 가근앵.(봐 오는 거야. ‘모슬포’ 가서.)

102008 @ 아, 모슬포 가근앵.(아, ‘모슬포’ 가서.)

102009 @ 그럼 할머니 그 결혼할 때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 같은 건 엇었지예? 그런 건?(그럼 할머니 그 결혼할 때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 같은 건 없었지요? 그런 건?)

102009 #4 그때는 예물 그런 건 혼엇이 엇엇어. 우리 어렸을 때는.(그때는 예물 그런 건 별로 없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102009 @ 아, 혼엇이 엇언마씨. 그럼 결혼할 때 뭐, 뭐 가져왔수광? 할머니?(아, 별로 없었어요. 그럼 결혼할 때 뭐, 뭐 가져왔습니까? 할머니?)

102009 #4 뭐 가져 온 것이 이녀 더끝 거 이불들이나배끼.(뭐 가져 온 것이 자기 덮을 거 이불들밖에.)

102009 @ 아.(아.)

102009 #4 이불이나배끼 다른 건 안 허여. 그때는.(이불밖에 다른 건 안 해. 그때는.)

102009 @ 그럼 할아버지는 뭐 다른 거 안 헛수광? 집?(그럼 할아버지는 뭐 다른 거 안 했습니까? 집?)

102009 #4 집게 집.(집 집.)

102009 @ 아, 집. 어디 여기 이것광?(아, 집. 어디 여기 이것입니까?)

102009 #4 이건 우리냥으로 나냥으로 산 거주게.(이건 우리대로 나대로 산 것이지.)

102009 @ 아, 그럼 원래 원래는 어디 잇언마씨?(아, 그럼 원래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102009 #4 다른 데 어디 저 오름 동네 초가집 허영 살앗주게.(다른 데 어디 저 오름 동네 초가집 해서 살았지.)

102009 @ 아, 원래는 초집에서 살앗수광?(아, 원래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까?)

102009 #4 예. 옛날은 원래 다 초집에서 살앗주게 옛날은. 이거 이거 짓은 집은 게 초집에 살당 이거 상 내려 완.(예. 옛날은 원래 다 초가집에서 살았지 옛날은. 이거 이거 지은 집은 초가집에서 살다가 이거 사서 내려 왔어.)

102009 @ 아, 초집에 살당 이거 산마씨?(아, 초가집에서 살다가 이거 샀어요?)

102009 #4 어. 나 살림 샀어 이제.(어. 나 살림 샀어 이제.)

102010 @ 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션마씨? 할머니?(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

어요? 할머니?)

102010 #4 이 이 동네에서.(이 이 동네에서.)

102010 @ 이 동네?(이 동네?)

102010 #4 어.(어.)

102010 @ 그러니까 이 동네 어디서 하선마씨, 결혼식은?(그러니까 이 동네 어디서 하셨어요, 결혼식은?)

102010 #4 어?(어?)

102010 @ 그냥 할아버지 집에서 하선마씨?(그냥 할아버지 집에서 하셨어요?)

102010 #4 할아방네 집에서 저 오름 동네에서.(할아버지네 집에서 저 오름 동네에서.)

102010 @ 아, 오름 동네에서?(아, 오름 동네에서?)

102010 #4 그때는 우리 가메 타근앵.(그때는 우리 가마 타서.)

102010 @ 예.(예.)

102010 #4 몰 허여근앵 양펜에 영 몰로 신그고 허영 가메 탕 왔주게.(말 해서 양편에 이렇게 말로 신고 해서 가마 타서 왔지.)

102010 @ 아, 가메탕 왔수광? 그럼 그것 좀 곱아 줘서. 어땜 아침에 누가 왕 가메허곡.(아, 가마타서 왔습니까? 그럼 그것 좀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아침에 누가 와서 가마하고.)

102010 #4 이디서 신랑 쪽에서.(여기서 신랑 쪽에서.)

102010 @ 예.(예.)

102010 #4 우시들이 가는 거라. 이 저 새각시 모시러.(위요들이 가는 거야. 이 저 새색시 모시러.)

102010 @ 아, 우시들?(아, 위요들?)

102010 #4 어.(어.)

102010 @ 우시들이 누구팡?(위요들이 누구입니까?)

102010 #4 우시들은 이녁 일가 사람들 두어 명 허곡 다시 이젠 새각시 모시러 땡기는 사람이 있어.(위요들은 자기 일가 사람들 두어 명 하고 다시 이제는 새색시 모시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102010 @ 예.(예.)

102010 #4 이젠 그런 거 엇어도 옛날은 그런 놈은 흐쭈 그런 사람은 흐끔 상놈으로 헛주게. 나쁘게 본 사람이 셔.(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옛날은 그런 놈은 조금 그런 사람은 조금 상놈으로 했지. 나쁘게 본 사람이 있어.)

102010 @ 예.(예.)

102010 #4 돼지 잡곡 새각시 모셔 다니는 사람은 막 상놈 옛날엔.(돼지 잡고 새색시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막 상놈 옛날에는.)

102010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02010 #4 예. 계난 경 현 사람이 이디서 몰이영 그 가메 모실 몰 빌민 그런 사

람이 물 무등에 딱 심어근영.(예. 그러니 그렇게 한 사람이 여기서 말과 그 가마 모실 말 빌리면 그런 사람이 말 목말에 딱 잡아서.)

102010 @ 예.(예.)

102010 #4 들락하지 못하게 허영 경 헌 사람이 신고 오는 거라.(들썩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신고 오는 거야.)

102010 @ 아, 신고 오는 거?(아, 신고 오는 거?)

102010 #4 어. 새각시. 경 허영 우린 가메 탕 이디로 왔주게.(어. 새각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마 타서 여기로 왔지.)

102010 @ 그럼 결혼할 때 사진은 혹시 찍었수광?(그럼 결혼할 때 사진은 혹시 찍었습니까?)

102010 #4 사진도 엇고.(사진도 없고.)

102010 @ 아. 그때는 사진은 엇언마씨?(아. 그때는 사진은 없었어요?)

102010 #4 우리보다 흥쓸 말제라 가난 사진 찍고 하간 게 잇엇주게. 이젠 나가 구십 흥나인데.(우리보다 조금 나중에 가니까 사진 찍고 여러 게 있었지. 이제는 내가 구십 하나인데.)

102010 @ 할머니 구십 흥나짱?(할머니 구십 하나입니까?)

102010 #4 어.(어.)

102010 @ 머리가 까매 부난 막 한 칠십, 팔십으로 보여마씨.(머리가 까매 버리니까 막 한 칠십, 팔십으로 보여요.)

102010 #4 머리는 요 흥 공일날 오난 저 교회에서 인천에서 온.(머리는 요 흥 공일날 오니까 저 교회에서 인천에서 온.)

102010 @ 예.(예.)

102010 #4 대학생들 왕 머리 물들엿주게.(대학생들 와서 머리 물들였지.)

102010 @ 아, 해 준 거? 그럼 할머니 이팔년 생이짱?(아, 해 준 거? 그럼 할머니 이팔년 생입니까?)

102010 #4 몇 년산지 그것도 난 몰라.(몇 년인지 그것도 난 몰라.)

102011 @ 그럼 신희살림은 여기 저기 오름 쪽에?(그럼 신희살림은 여기 저기 오름 쪽에?)

102011 #4 예. 저 오름 동네에서 살당 여기로 왔주게.(예. 저 오름 동네에서 살다가 여기로 왔지.)

102012 @ 그럼 할머니 아이들은 그 몇 명 잇어마씨?(그럼 할머니 아이들은 그 몇 명 있어요?)

102012 #4 아이들은 난 여러 개 낳앗인디 옛날은 낳민 죽고 낳민 죽고 해 부난 게 이제 오누이배끼 엇어.(아이들은 난 여러 개 낳았는데 옛날은 낳으면 죽고 낳으면 죽고 해 버리니까 이제 오누이밖에 없어.)

102012 @ 예?(예?)

102012 #4 오누이.(오누이.)

102012 @ 오누이마씨?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마씨??(오누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요?)

102012 #4 어. 이딴 이제 이딴 사는 아들은 오뎡허게 저 교통사고 낭 죽어 불곡.(어. 여기 이제 여기 사는 아들은 그만 저 교통사고 나서 죽어 버리고.)

102012 @ 아, 아들.(아, 아들.)

102012 #4 어. 경 해부난 손지헝곡게 이딴 며누리헝고 살고이 난 이 밖거리에 살고게.(어. 그렇게 해버리니까 소진하고 여기 며느리하고 살고 난 이 바깥채에 살고.)

102012 @ 아, 밖거리에 살고.(아, 바깥채에 살고.)

102012 #4 어.(어.)

102012 @ 아, 그럼 손지하고 며느리 여기 살아마씨?(아, 그럼 손주하고 며느리 여기 살아요?)

102012 #4 아니게, 손지 며느리들은 시에 살암서.(아니, 손자 며느리들은 시에 살고 있어.)

102012 @ 아, 제주시 살맨? 제주시에마씨?(아, 제주시 살아요? 제주시예요?)

102012 #4 어. 우리 손지도 저 경찰대라. 해양 경찰.(어. 우리 손주도 저 경찰대야. 해양 경찰.)

102012 @ 해양 경찰.(해양 경찰.)

102012 #4 어. 이제 배 타러 탕검서.(어. 이제 배 타러 다니고 있어.)

102012 @ 아, 배 타러 탕기맨마씨?(아, 배 타고 다녀요?)

102012 #4 어.(어.)

102012 @ 그럼 어디 추석 때나 명절 때는 오고 하겠다예?(그럼 어디 추석 때나 명절 때는 오고 하겠군요?)

102012 #4 명절 때도 오곡 다시 헝쓸 휴가 받았도 오곡.(명절 때도 오고 다시 조금 휴가 받아서도 오고.)

102012 @ 식계 헝 때도 오고마씨?(제사 할 때도 오고요?)

102012 #4 어.(어.)

102013 @ 그 할머니 시집살이 좀 많이 헝수광? 왔을 때 시집 왔을 때?(그 할머니 시집살이 좀 많이 헝습니까? 왔을 때 시집 왔을 때?)

102013 #4 시집 시집갈 때는 많이 허곡 그때는 뭐 벨로 할 것도 엇고게.(시집 시집갈 때는 많이 하고 그때는 뭐 벨로 할 것도 없고.)

102013 @ 할머니 그럼 그때는 시어명이영 같이 살안마씨?(할머니 그럼 그때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102013 #4 시어명 오난 열매 안 살안. 우리 따로 살안.(시어머니 오니까 올마 안 살았어. 우리 따로 살았어.)

102013 @ 아. 그때 따로 살안마씨?(아. 그때 따로 살았어요?)

102013 #4 어.(어.)

102013 @ 그럼 따로 살았으면 막 계도 좀 편했겠다예?(그럼 따로 살았으면 막 그래도 좀 편했겠군요?)

102013 #4 계. 따로 살아야 편하게.(그럼. 따로 살아야 편하지.)

102013 @ 기지예. 그때도 따로 살아야 편했마씨?(그렇지요. 그때도 따로 살아야 편했어요?)

102013 #4 어.(어.)

102014 @ 그 큰 자식들은 결혼은 언제 헨마씨?(그러면 자식들은 결혼은 언제 했어요?)

102014 #4 결혼허건 디가 오죽 오래주게. 우리 큰 아들이 예순 넷이다.(결혼한 지가 오죽 오래지. 우리 큰 아들이 예순 넷인데.)

102014 @ 큰아들이 예순 넷이팡?(큰아들이 예순 넷입니까?)

102014 #4 어. 가의는 이제 아이도 딸 두 개만 낳으난 딸 두 개 다 팔앙 손지까지 봤이다.(어. 그 아이는 이제 아이도 딸 두 개만 낳으니까 딸 두 개 다 팔아서 손자까지 봤는데.)

102014 @ 아, 손지까지 판마씨? 그럼 할머니도 이제 증조할머니우다예?(아, 손자까지 봤어요? 그럼 할머니도 이제 증조할머니이군요?)

102014 #4 어. 이디 죽은메누리는 ㄴ째 굴은 아들 팔아근앵 이제 손지보고.(어. 여기 막내며느리는 금방 말한 아들 팔아서 이제 손자보고.)

102014 @ 아. 죽은메누리도?(아. 막내며느리도?)

102014 #4 어.(어.)

102015 @ 그럼 사위도 잇수광? 오누이니까 사위도 잇지예?(그럼 사위도 있습니까? 오누이니까 사위도 잇지요?)

102015 #4 어. 사우 육지 살암서. 육지.(어. 사위 육지 살고 있어. 육지.)

102015 @ 딸은 육지 살맨 그러면?(딸은 육지 살아요 그러면?)

102015 #4 딸도 육지 살고 아들도 육지 살아 불고.(딸도 육지 살고 아들도 육지 살아 버리고.)

102015 @ 아 큰아들 육지 살맨마씨?(아 큰아들 육지 살아요?)

102015 #4 어.(어.)

102015 @ 그럼 손지만 여기 제주도에 잇수광?(그럼 손자만 여기 제주도에 있습니까?)

102015 #4 이디 죽은아들이 손지.(여기 막내아들이 손자.)

102015 @ 아, 죽은 아들이?(아, 막내 아들이?)

102015 #4 어.(어.)

102015 @ 그럼 큰아들은 육지 어디 살맨마씨? 큰아들은?(그럼 큰아들은 육지 어디 살아요? 큰아들은?)

102015 #4 김해.(김해.)

102015 @ 김해?(김해?)

102015 #4 김해.(김해.)
 102015 @ 아, 김해. 그럼 딸은?(아, 김해. 그럼 딸은?)
 102015 #4 딸도 김해.(딸도 김해.)
 102015 @ 어떻 둘 다 김해에 강 살맨마씨? 제주도 말앙.(어떻게 둘 다 김해에 가서 살아요? 제주도 말고.)
 102015 #4 그 오라방신디 보내 놔두난 그딴서 연애 허영 시집 간 거라.(그 오라 방에게 보내 놔두니까 거기서 연애 해서 시집 간 거야.)
 102015 @ 아, 거기 강 연애 허영 시집 간마씨?(아, 거기 가서 연애 해서 시집 갔어요?)
 102015 #4 어.(어.)
 102015 @ 그럼 거기 결혼했을 때는 할머니가 올라갔수광?(그럼 거기 결혼했을 때는 할머니가 올라갔습니까?)
 102015 #4 어. 올라갔주게.(어. 올라갔지.)
 102015 @ 아. 제주도에서 결혼 안 허곡 육지에서.(아. 제주도에서 결혼 안 하고 육지에서.)
 102015 #4 제주도에서는 잔치만 허곡 그딴도 시어명이 잔치 해주난.(제주도에서는 잔치만 하고 거기도 시어머니가 잔치 해주니까.)
 102015 @ 예.(예.)
 102015 #4 그딴 강 잔치 저 결혼했주게.(거기 가서 잔치 저 결혼했지.)
 10201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2015 #4 어.(어.)

3. 밭일

103001 @ 어르신 그면, 밭일에 대해서 물어보쿠다. 우선, 밭일에는 뭐, 뭐 있어 마씨? 무슨 농사? 무슨 농사?(어르신 그러면, 밭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밭일에는 뭐, 뭐 있어요? 무슨 농사? 무슨 농사?)
 103001 #1 아, 계난. 옛날에는.(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103001 @ 예.(예.)
 103001 #1 옛날에는 우선 보리 유채. 겨울 작물로.(옛날에는 우선 보리 유채. 겨울 작물로.)
 103001 @ 예.(예.)
 103001 #1 겨울 작물 보리 유채. 겨울 감자 같은 거.(겨울 작물 보리 유채. 겨울 감자 같은 거.)
 103001 @ 예.(예.)
 103001 #1 주로 그랬고. 여름에는 뭐 콩, 고구마, 밭벼, 참깨.(주로 그랬고. 여름

에는 뭐 콩, 고구마, 밭벼, 참깨.)

103001 @ 아.(아.)

103001 #1 이런 식으로 옛날엔 헛고 요즘은 작물이 다양해가지고 뭐 양배추, 양파 여름에. 주로 많은 게 양배추 양파고. 여름에 뭐 특수한 품목도 잇주만은 주로 허는 거는 양배추, 양파. 에 가을 감자 일부 허고 많이 하는 게 여기는 대정읍이 전국에서 한 십삼 프로 한 십 프로가 그 우리 그 양념으로 하는 마늘이 주산지가 대정인데.(이런 식으로 옛날엔 헛고 요즘은 작물이 다양해가지고 뭐 양배추, 양파 여름에. 주로 많은 게 양배추 양파고. 여름에 뭐 특수한 품목도 있지만 주로 하는 거는 양배추, 양파. 에 가을 감자 일부 하고 많이 하는 게 여기는 ‘대정읍’이 전국에서 한 십삼 프로 한 십 프로가 그 우리 그 양념으로 하는 마늘이 주산지가 ‘대정’인데.)

103001 @ 예.(예.)

103001 #1 신도도 뭐 엄청나게 마늘을 많이 심그곡 주로 제일 소득이 많은 것은 마늘 농사를 많이 허주게.(‘신도’도 뭐 엄청나게 마늘을 많이 심고 주로 제일 소득이 많은 것은 마늘 농사를 많이 하지.)

103001 @ 마농?(‘마농’?)

103001 #1 마늘.(마늘.)

103001 @ 마농이라고 안 헤마씨?(‘마농’이라고 안 헤요?)

103001 #1 어 저 옛날은 마농.(어 저 옛날은 ‘마농’.)

103001 @ 예.(예.)

103001 #1 옛날. 그제, 토종 마늘은 제주 재배를 토종 마늘이엔 허고. 요즘 심는 거는 품종 개량 행 뭐 여러 가지 잇주게.(옛날. 그제, 토종 마늘은 제주 재배를 토종 마늘이라 하고. 요즘 심는 거는 품종 개량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

103001 @ 밭일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도 뤼마씨?(밭일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도 돼요?)

103001 #4 밭일은 무슨?(밭일은 무슨?)

103001 @ 밭일에는 뭐, 뭐 잇언마씨? 여기선 신도에선?(밭일에는 뭐, 뭐 있었어요? 여기서는 ‘신도’에서는?)

103001 #4 신도선?(‘신도’에서는?)

103001 @ 예. 어떤 농사 어떤 농사 헛수광?(예. 어떤 농사 어떤 농사 했습니까?)

103001 #4 이딴 우리 사람 스몛 돈 벌젠 허난 감저 하영 싱건.(여기서는 우리 사람 스몛 돈 벌려고 하니까 고구마 많이 심었어.)

103001 @ 아.(아.)

103001 #4 저 고구마.(저 고구마.)

103001 @ 예.(예.)

103001 #4 고구마 싱경 그거 빼때기 팔멍 이 집 샷주게.(고구마 심어서 그거 팔

랭이 팔면서 이 집 샀지.)

103001 @ 아. 빼때기 팔명?(아. 말랭이 팔면서?)

103001 #4 어. 빼때기 하영 행 팔명게 저 가마니로 이백 열 개를 헌 거라.(어. 말랭이 많이 해서 팔면 저 가마니로 이백 열 개를 한 거야.)

103001 @ 이백 열 개마씨?(이백 열 개요?)

103001 #4 어. 그땐 혼 가마니에 만원.(어. 그때는 한 가마니에 만원.)

103001 @ 예.(예.)

103001 #4 만원 허난.(만원 하나까.)

103001 @ 그럼 이백만원이구나예.(그럼 이백만원이군요.)

103001 #4 어 이백만 원 흐쫄 넘으난 그 돈 모양 이 집 오백만원 쯤 샷주게.(어 이백만 원 조금 넘으니까 그 돈 모아서 이 집 오백만원 쥐서 샷지.)

103001 @ 그거 언제마씨?(그거 언제예요?)

103001 #4 그거 나 혼 쉰다섯 즈음에.(그거 나 한 쉰다섯 즈음에.)

103001 @ 쉰다섯이든 이십 오년 전인게마씨. 막 옛날인게예.(쉰다섯이면 이십 오년 전이네요. 막 옛날이네요.)

103001 #4 어.(어.)

보리농사

103002 @ 그럼 먼저, 보리농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예. 어르신 보리농사 해 보셨지예?(그럼 먼저, 보리농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르신 보리농사 해 보셨지요?)

103002 #1 어.(어.)

103002 @ 보리농사 지으려면 뭐, 뭐 준비해야 돼마씨?(보리농사 지으려면 뭐, 뭐 준비해야 돼요?)

103002 #1 보리농사는 간단하지 뭐. 우선 종자 있으면 돼고 비료 있으면 돼고. 걸로 끝이주게.(보리농사는 간단하지 뭐. 우선 종자 있으면 되고 비료 있으면 되고. 걸로 끝이지.)

103002 @ 걸로 끝마씨?(걸로 끝이에요?)

103002 #1 게고 뭐 일 년에 한 두세 번, 한 세 번, 네 번 농약 치면 돼고.(그리고 뭐 일년에 한 두세 번, 한 세 번, 네 번 농약 치면 되고.)

103003 @ 그럼, 보리밭 거름은 어떻 만들어마씨? 보리밭 거름.(그럼, 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만들어요? 보리밭 거름.)

103003 #1 옛날에?(옛날에?)

103003 @ 예. 옛날 거 곱아 줍서.(예. 옛날 거 말해 주십시오.)

103003 #1 옛날 아주 옛날은 내가 어렸을 적에 한 오십 년 전까지는.(옛날 아주 옛날은 내가 어렸을 적에 한 오십 년 전까지는.)

103003 @ 예.(예.)

103003 #1 그 돼지를 재래식 돼지 재래식 돼지 해서 변 받아.(그 돼지를 재래식

돼지 재래식 돼지 해서 변 받아.)

103003 @ 똥돼지마씨?(똥돼지요?)

103003 #1 똥돼지 해서 그딴 강 변 봤어?(똥돼지 해서 거기 가서 변 봤어?)

103003 @ 표선 가서 봤주마씨.(‘표선’ 가서 봤지요.)

103003 #1 그거 주어당 부어다근엥 변이 실수해서 똥해근엥 돼지 머리 통에 싸면 탁탁 털면 그 돼지똥 이녁 몸에 튀어봤어?(그거 주워서 부어서 변이 실수해서 똥해서 돼지 머리 통에 싸면 탁탁 털면 그 돼지똥 이녁 몸에 튀어봤어?)

103003 @ 아니, 그런 건 안 헨마씨.(아니, 그런 건 안 했어요.)

103003 #1 그런 경우가 많았지. 그런 그 돼지. 그 물에 물기가 막 많고 경 허민. 보리떡 같은 거 그것이 바로 거름이 되는 거라. 게 거름을 내서 이 넓은 마당에 딱 그 쇠시랑하고 굴체로 날라당 낵.(그런 경우가 많았지. 그런 그 돼지. 그 물에 물기가 막 많고 그렇게 하면. 보릿짚 같은 거 그것이 바로 거름이 되는 거라. 게 거름을 내서 이 넓은 마당에 딱 그 쇠시랑하고 삼태기로 날라다가 놔서.)

103003 @ 예.(예.)

103003 #1 그 씨, 그 보리씨를 만약 이 거름이 천 평에 갈 거다 허면은 천 평에 필요한 보리씨를 거기 거름에 서경.(그 씨, 그 보리씨를 만약 이 거름이 천 평에 갈 거다 허면은 천 평에 필요한 보리씨를 거기 거름에 섞어.)

103003 @ 예.(예.)

103003 #1 서경 소나 말로 그걸 막 다져. 이 씨허고 거름이 섞이게.(섞어서 소나 말로 그걸 막 다져. 이 씨하고 거름이 섞이게.)

103003 @ 예.(예.)

103003 #1 그걸 또 것을 뿔망텅이⁴⁴⁾ 알아져?(그걸 또 것을 ‘뿔망텅이’ 알아져?)

103003 @ 어, 예 들어판마씨. 고산에서 얘기할 때.(어, 예 들어봤어요. ‘고산’에서 얘기할 때.)

103003 #1 뿔망텅이엔 그거 허영 구루마 잇는 사람은 구루마 구루마가 이제 마차인데.(‘뿔망텅이’라고 그거 해서 수레 잇는 사람은 수레 수레가 이제 마차인데.)

103003 @ 예.(예.)

103003 #1 구루마에 싯경 가고 경 안 한 사람은 쇠 질메 지어근엥 양쪽에 뿔망텅이 하나씩 행 강 그거 많이 노는 밧은 한 열 망텅이 백오십 평에 열 망텅이 놓고, 적게 놓으면은 뭐 한 여덟 개 낵 그걸 또 뿌리는 것도 기술들이 있어야주게.(수레에 싯어서 가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소 길마 지어서 양쪽에 ‘뿔망텅이’ 하나씩 해서 가서 그거 많이 노는 밧은 한 열 ‘망텅이’ 백오십 평에 열 ‘망텅이’ 놓고, 적게 놓으면 뭐 한 여덟 개 놔서 그걸 또 뿌리는 것도 기술들이 있어야지.)

103003 아.(아.)

103003 #1 잘못 뿌리면은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거름이 이 저 즈배기⁴⁵⁾추

44) ‘뿔망텅이’는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두서 말들이의 망태기를 의미하고 ‘뿔망태’, ‘뿔망텅이’라고도 한다.

45) ‘즈배기’는 수제비를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즈바기’, ‘저배기’, ‘즈배기’라고도 한다.

룩.(잘못 뿌리면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거름이 이 저 수제비처럼.)

103003 예.(예.)

103003 #1 탁탁 잘라지면서 일률적으로 바둑판처럼 일률적으로 뿌려져야 보리가 일정하게 나지.(탁탁 잘리면서 일률적으로 바둑판처럼 일률적으로 뿌려져야 보리가 일정하게 나지.)

103003 예.(예.)

103003 #1 경 안 해근엥 많은 곳은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곳은 적게 나면 보리가 일정하게 안 나주게. 그걸 영 뿌려 낵 이제 소, 소로 갈았는데. 기계화 돼기 시작하니까 광작하기 시작하니까.(그렇게 안 해서 많은 곳은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곳은 적게 나면 보리가 일정하게 안 나지. 그걸 이렇게 뿌려 놔서 이제 소, 소로 갈았는데. 기계화 되기 시작하니까 광작하기 시작하니까.)

103003 예.(예.)

103003 #1 그런 거름이 엇어가지고 거의 다 화학 비료로, 화학 비료로 헛주게.(그런 거름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화학 비료. 화학 비료로 했지.)

103004 @ 그럼 보리 갈 때 보통 언제 갈고 누가 어떻게 갈아마씨?(그럼 보리 갈 때 보통 언제 갈고 누가 어떻게 갈아요?)

103004 #1 보리 가는 거는 소로, 소로 행 주로 갈았지. 옛날에는 소로 행 쟁기로 갈았는데 에 여름 농사는 육월절 겨울 농사는 시월절이라 그러거든 음력으로.(보리 가는 거는 소로, 소로 해서 주로 갈았지. 옛날에는 소로 해서 쟁기로 갈았는데 에 여름 농사는 육월절 겨울 농사는 시월절이라 그러거든 음력으로.)

103004 @ 유월, 시월에마씨?(유월, 시월요?)

103004 #1 유월 소서, 소서가 유월절이고 입동이 시월절이나. 게니깐 딱 그 옛날 조금 그 총명하지 못한 자식들 넘겨두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유월이라고 허는다. 무조건 여름 농사는 유월절 지난 짓고. 겨울 농사는 시월 지난 지라고 유언을 했다는 건데. 시기는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요즘은 좀 빨리 가는 편이 많고 거보다는.(유월 소서, 소서가 유월절이고 입동이 시월절이나. 그러니까 딱 그 옛날 조금 그 총명하지 못한 자식들 넘겨두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유월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여름 농사는 유월절 지나서 짓고. 겨울 농사는 시월 지나서 지으라고 유언을 했다는 건데. 시기는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요즘은 좀 빨리 가는 편이 많고 거보다는.)

103004 @ 예.(예.)

103004 #1 그거보다는 빨리 파종허는 게 많주만.(그거보다는 빨리 파종하는 게 많지만.)

103005 @ 그럼 보리씨는 어떻 뿌려마씨? 보리씨.(그럼 보리씨는 어떻게 뿌려요? 보리씨.)

103005 #1 아 게난 옛날은 다 손으로. 게 보리씨도 잘 뿌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잘 가는데 못하는 사람은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게

보리씨도 잘 뿌리고 어 밧 뒤에 그 단도리 뒤에 단도리도 잘 허고 허면은 곡식이 좋아지고.(아 그러니 옛날은 다 손으로. 게 보리씨도 잘 뿌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잘 가는데 못하는 사람은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게 보리씨도 잘 뿌리고 어 밧 뒤에 그 단도리 뒤에 단도리도 잘 하고 하면 곡식이 좋아지고.)

103005 @ 단도리는 뭐짱?(단도리는 뭘니까?)

103005 #1 뒤에 영 병텅이⁴⁶⁾ 닳은 거 풀어주고 거 뭐 해근엥 허는 거.(뒤에 이렇게 ‘병텅이’ 닳은 거 풀어주로 거 뭐 해서 하는 거.)

103006 @ 그럼 보리 종류 잇잖아예? 보리 종류에는 뭐, 뭐 잇어마씨?(그럼 보리 종류 잇잖아요? 보리 종류에는 뭐, 뭐 잇어요?)

103006 #1 옛날에는 대맥허곡 쌀보리 했주.(옛날에는 대맥하고 쌀보리 했지.)

103006 @ 대맥이랑? 쌀보리마씨?(대맥이랑? 쌀보리요?)

103006 #1 대맥이라는 것은 어 그 저 겹죽 잇는 보리. 겹죽 잇는 보리 허고 쌀보리엔 허는 것은 그냥 알맹이 겹죽 잇이 나오는 건데. 그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맥주 보리는 맥아 원료로.(대맥이라는 것은 어 그 저 거죽 잇는 보리. 거죽 잇는 보리 하고 쌀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맹이 거죽 없이 나오는 건데. 그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맥주 보리는 맥아 원료로.)

103006 @ 예.(예.)

103006 #1 맥주 보리 종자는 경 헛는데, 예 나 일찍 얘기했주만은 쌀보리나 대맥 뭐 해서는 밥 맛이 이쪽이 훨씬 좋주게.(맥주 보리 종자는 그렇게 했는데, 예 나 일찍 얘기했지만 쌀보리나 대맥 뭐 해서는 밥 맛이 이쪽이 훨씬 좋지.)

103006 @ 훨씬 좋아마씨?(훨씬 좋아요?)

103006 #1 차지고 쫄깃쫄깃허고. 그런 얘기고. 어 맥주 보리는 재배한 지가 뭐 한 사십 년? 사십오 년? 사십 년? 그 웨는 그 전에는 맥주 보리가 잇었고.(차지고 쫄깃쫄깃하고. 그런 얘기고. 어 맥주 보리는 재배한 지가 뭐 한 사십 년? 사십오 년? 사십 년? 그 웨는 그 전에는 맥주 보리가 없었고.)

103007 @ 어르신 그럼 보리밭 밟기 잇잖아예?(어르신 그럼 보리밭 밟기 잇잖아요?)

103007 #1 그건 눈이 많이 오고 뭐 해서 밧이 푸석하게 들어졌을 때.(그건 눈이 많이 오고 뭐 해서 밧이 푸석하게 들어졌을 때.)

103007 @ 아. 눈이 왔을 때마씨?(아. 눈이 왔을 때요?)

103007 #1 서리가 밧이 얼음이 얼어가지고.(서리가 밧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103007 @ 예.(예.)

103007 #1 얼음이 얼면 흑 자체가 들어지주게 녹아가면은.(얼음이 얼면 흑 자체가 들어지지 녹아가면.)

103007 @ 아.(아.)

46) ‘병텅이’는 가루로 된 물건이 엉키어 붙은 자그마한 덩어리를 의미한다.

103007 #1 그렇게 해서 뿌리가 활착이 좀 안 돼가지고 들어지니까 그 활착시키기 위해서 보리밭 밟기하주. 보리 밟기하면 무조건 수확도 더 나고 보리는 단단하게 돼.(그렇게 해서 뿌리가 활착이 좀 안 돼가지고 들어지니까 그 활착시키기 위해서 보리밭 밟기하지. 보리 밟기하면 무조건 수확도 더 나고 보리는 단단하게 돼.)

103007 @ 아, 그럼 해야 되는 거마씨?(아,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103007 #1 해야 되는데.(해야 되는데.)

103007 @ 예.(예.)

103007 #1 인력, 인력 때문에. 사람 노동력 때문에 그걸 못 허는 거지. 허면 좋지.(인력, 인력 때문에. 사람 노동력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지. 하면 좋지.)

103007 @ 그럼 보통 밟기 할 때는 추워서 허는 거면 여름 농사에는 보리밭 밟기는 안 해도 되는 거마씨?(그럼 보통 밟기 할 때는 추워서 하는 거면 여름 농사에는 보리밭 밟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3007 #1 뭐, 겨울 겨울에 보리가 다 해근엿 봄에 수확, 늦은 봄에 수확해 버리는데 여름에 무슨 보리하고 관계있어?(뭐, 겨울 겨울에 보리가 다 해서 봄에 수확, 늦은 봄에 수확해 버리는데 여름에 무슨 보리하고 관계있어?)

103007 @ 아니 아까 유월이랑 시월에 보리 한다고 하지 않안마씨?(아니 아까 유월이랑 시월에 보리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103007 #1 보리는.(보리는.)

103007 @ 예.(예.)

103007 #1 시월절.(시월절.)

103007 @ 예.(예.)

103007 #1 양력이 아니라.(양력이 아니라.)

103007 @ 예.(예.)

103007 #1 음력으로 시월절에 한 십일월 초순 돼는데. 그때 파종해서 오월말에 걷어 들이는게 보리고.(음력으로 시월절에 한 십일월 초순 돼는데. 그때 파종해서 오월말에 걷어 들이는게 보리고.)

103007 @ 아.(아.)

103007 #1 보리 그 후작으로 여름에 고구마 심그던지 콩을 가는 게.(보리 그 후작으로 여름에 고구마 심던지 콩을 가는 게.)

103007 @ 아.(아.)

103007 #1 유월절에 싱거서 구월 달에 걷어 들이는 게 그거지.(유월절에 심어서 구월 달에 걷어 들이는 게 그거지.)

103008 @ 그럼 보리밭에 김매기는 몇 번 해마씨?(그럼 보리밭에 김매기는 몇 번 해요?)

103008 #1 그거 적게 허는 사람, 많이 허는 사람은 다 농약으로 재배한다. 제초제로.(그거 적게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 다 농약으로 재배한다. 제초제로.)

103008 @ 아, 기광?(아, 그렇습니까?)

103008 #1 옛날에야 김매기 뭐 김매기는 많이 할수록 좋아.(옛날에야 김매기 뭐 김매기는 많이 할수록 좋아.)

103008 @ 예.(예.)

103008 #1 계난 시간이 잇이민 여러 번 허고 시간이 잇이민 한 번 행 끝나는 거고.(그러니 시간이 있으면 여러 번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한 번 해서 끝나는 거고.)

103008 @ 보통 두 번 세 번 정해진 거 잇어마씨? 보리 세 번. 조는 두 번. 쌀 한 번.(보통 두 번 세 번 정해진 거 없어요? 보리 세 번. 조는 두 번. 쌀 한 번.)

103008 #1 조는 계난 옛날에 지금은 조도 한 번 로터리로 한 번 영 행 그냥 끝나주만은.(조는 그러니 옛날에 지금은 조도 한 번 로터리로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지만.)

103008 @ 예.(예.)

103008 #1 옛날에는 초불검질, 두불검질, 세불검질 헛주게.(옛날에는 애벌매기, 두벌매기, 세벌매기 했지.)

103008 @ 예.(예.)

103008 #1 초불에 쪼금 완전히 처음 뭐 조가 바래서 두 잎 세 잎 할 때 뭐 십 센치 간격으로 허면은 그게 잘 자라지 못허여.(애벌에 쪼금 완전히 처음 뭐 조가 바래서 두 잎 세 잎 할 때 뭐 십 센치 간격으로 하면 그게 잘 자라지 못해.)

103008 @ 아.(아.)

103008 #1 계난 처음엔 쪼금 어느 정도만 뽑았다가 두 번째 쪼금 손 봤다가 세 번째는 뭐 현 팔 센치에서 십 센치 간격으로 일정하게 하면은 수확이 많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법이 잇어. 요즘은 뭐. 그렇게 허면 농사행 힘들주게.(그러니 처음엔 쪼금 어느 정도만 뽑았다가 두 번째 쪼금 손 봤다가 세 번째는 뭐 현 팔 센치에서 십 센치 간격으로 일정하게 하면은 수확이 많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법이 없어. 요즘은 뭐. 그렇게 하면 농사해서 힘들지.)

103008 @ 그럼,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나마씨?(그럼,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이 나요?)

103008 #1 검질 뭐. ㄴ시락풀, 진풀.(김 뭐. 원추리, 별꽃.)

103008 @ ㄴ시락풀마씨?(원추리요?)

103008 #1 뭐 ㄴ시락풀허고 진풀 질 많이 나는 거라 보면 뒤겅다. 보리에는(뭐 원추리하고. 진풀 제일 많이 나는 거라 보면 되겅다. 보리에는.)

103010 @ 그럼 보리 수확 잇잖아예? 보리 이제 다 자라가지고.(그럼 보리 수확 잇잖아요? 보리 이제 다 자라가지고.)

103010 #1 음.(음.)

103010 @ 수확 할 때. 보리 벤 다음에 묶고 가리 하는 과정 잇잖아예.(수확 할 때. 보리 벤 다음에 묶고 가리 하는 과정 잇잖아요.)

103010 #1 그 옛날식으로 허면.(그 옛날식으로 하면.)

103010 @ 예. 옛날식으로 곶아 줍서.(예. 옛날식으로 말해 주십시오.)

103010 #1 요즘에야 뭐.(요즘에야 뭐.)

103010 @ 기계로?(기계로?)

103010 #1 무슨 기계로 해근엔 딱 허면 생산자는 가만히 있으면은 다 비고 수확해근엔 건조하고 가져다 왔습시다 하면은 돈만 주면 돼는 거고.(무슨 기계로 해서 딱 하면 생산자는 가만히 있으면 다 베고 수확해서 건조하고 가져다 왔습시다 하면은 돈만 주면 되는 거고.)

103010 @ 예.(예.)

103010 #1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비고.(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베고.)

103010 @ 예.(예.)

103010 #1 또 묶으고.(또 묶고.)

103010 @ 예.(예.)

103010 #1 경 행 모으고.(그렇게 해서 모으고.)

103010 @ 예.(예.)

103010 #1 탈곡하고 다 그런 절차를 가졌지.(탈곡하고 다 그런 절차를 가졌지.)

103010 @ 다 하션마씨? 어른신도?(다 하셨어요? 어른신도?)

103010 #1 그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 저.(그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 저.)

103010 @ 그 과정 다 얘기해 줘서.(그 과정 다 얘기해 주십시오.)

103010 #1 뭐한 말로 우리 큰아들은 초등학교 일학년 셋아들은 이제 다섯 살 댜다.(뭐한 말로 우리 큰아들은 초등학교 일학년 둘째아들은 이제 다섯 살 때인데.)

103010 @ 예.(예.)

103010 #1 그 밑에 세 살 두 살짜리는 구루마 그 당시에는 뭐 경운기도 엇고 구루마에 영 방에 눕혀두고 경 행 해 질 때까지는 그 보리를 묶으는 거라. 다 묶으려고. 해 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다 모양 모여야 그 뒷날은 기계 빌영 장만 허니까. 모이는데 엄마 아빠만 허민 힘들거든. 계난 여덟 살 난 애, 다섯 살 난 애 다 걸 열시까지 작업을 시키는 거라.(그 밑에 세 살 두 살짜리는 수레 그 당시에는 뭐 경운기도 없고 수레에 이렇게 방에 눕혀두고 그렇게 해서 해 질 때까지는 그 보리를 묶는 거라. 다 묶어서 하고. 해 지기 시작하면 그걸 다 모아서 모여야 그 뒷날은 기계 빌려서 장만 하니까. 모이는데 엄마 아빠만 하면 힘들거든. 그러니 여덟 살 난 애, 다섯 살 난 애 다 걸 열시까지 작업을 시키는 거라.)

103010 @ 예.(예.)

103010 #1 다 작업을 시키다보면은 애들 못 찾앙 허당 보면 어디 보민 문트멍에 혼자 울고 그런 식으로 생활했주.(다 작업을 시키다보면 애들 못 찾아서 하다 보면 어디 보면 문틈에 혼자 울고 그런 식으로 생활했지.)

103010 @ 예. 그런 거 얘기 허면 뉘마씨.(예. 그런 거 얘기 하면 되요.)

103010 #1 어.(어.)

103011 @ 그럼 보리 수확한 다음에 타작하잖아예?(그럼 보리 수확한 다음에 타작하잖아요?)

103011 #1 탈곡. 탈곡기.(탈곡. 탈곡기.)

103011 @ 예. 탈곡허는디. 훑기랑 도리깨질도 하잖아예? 옛날에는.(예. 탈곡하는데. 훑기랑 도리깨질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103011 #1 그건.(그건.)

103011 @ 예.(예.)

103011 #1 우리 아주 어렸을 적에.(우리 아주 어렸을 적에.)

103011 @ 예. 그거 좀 얘기해 줘서.(예.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3011 #1 그건 저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학교 다니곡 할 때, 때에 틀 있지? 보리틀?(그건 저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학교 다니고 할 때, 때에 그네 있지? 보리 그네?)

103011 @ 예.(예.)

103011 #1 보리 홀트는 기계라고 허멘.(보리 훑는 기계라고 해.)

103011 @ 예.(예.)

103011 #1 게. 그걸로 그 보리 영 행.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이 허는 사람이 현 열 석 스무 석. 계난 지 마당에 다 그 구루마, 마차로 헤근엥 놀을 놀어.(그럼. 그걸로 그 보리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 현 열 석 스무 석. 그러니 지 마당에 다 그 수레, 마차로 해서 가리를 가려.)

103011 @ 예.(예.)

103011 #1 놀 놀영 완전히 한 다음에. 그 기계 헤근엥 홀트주. 홀타. 기계 틀 이렇게 있으면은 보리 이렇게 맥여가지고 이렇게 홀트는데. 홀타근엥 맥타기로 그걸 장만했는데.(가리 가려서 완전히 한 다음에. 그 기계 해서 훑지. 훑아. 기계 그네 이렇게 있으면 보리 이렇게 먹여가지고 이렇게 훑는데. 훑아서 맥타기로 그걸 장만했는데.)

103011 @ 예.(예.)

103011 #1 우리가 한 아이들 낳기 시작행 좀 크기 시작허니깐 것도 엇어져 불고. 그냥 탈곡기냐? 탈곡기. 맥타기말양 탈곡기에 넣영 헛주게.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다가 콤바인 나온 지는 막 오래진 않았지. 콤바인 나온 거는 요 금방이니까. 계난 뭐 할 때는 도리깨 할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안 행 모르고.(우리가 한 아이들 낳기 시작해서 좀 크기 시작하니깐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탈곡기냐? 탈곡기. 맥타기말고 탈곡기에 넣어서 했지. 그렇게 해 농사를 짓다가 콤바인 나온 지는 막 오래진 않았. 콤바인 나온 거는 요 금방이니까. 그러니 뭐 할 때는 도리깨 할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안 해서 모르고.)

103011 @ 예.(예.)

103011 #1 맥타기. 보리 클로 해서 보리 홀타가지고 맥타기로 허는 거. 그거 기억하는데.(맥타기. 보리 그네로 해서 보리 훑아가지고 맥타기로 하는 거. 그거 기억

나는데.)

103012 @ 그럼 쌀 잇잖아예? 쌀 이제 훑타가지고 쌀알 나오려면 연자매나 맷돌 있어야 하잖아예?(그럼 쌀 잇잖아요? 쌀 이제 훑아가지고 쌀알 나오려면 연자매나 맷돌 있어야 하잖아요?)

103012 #1 음 그걸로 많이 헛지.(음 그걸로 많이 헛지.)

103012 @ 뭘로 많이 헨마씨?(뭘로 많이 헛어요?)

103012 #1 그 연자방아.(그 연자방아.)

103012 @ 아 연자방아마씨?(아 연자방아요?)

103012 #1 그거 들방에 들방에 말로 매서 들방에라고 헛는데.(그거 ‘들방에’ ‘들방에’ 말로 매서 ‘들방에’라고 헛는데.)

103012 @ 예.(예.)

103012 #1 그건 소로 허고 적은 거는 사람으로도 헛는데. 그렇게 헛다가 이제 저 물방아 식으로 정미소에 가서 참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우리 마을에도 뭐 정미소면은 참 그 정미소 주인이 아이돼서 조금 도장 방법을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제라하게 꺾테기만 깎아지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니깐 뭐 요즘 요즘 시중에서 파는 보리쌀 같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주게.(그건 소로 하고 적은 거는 사람으로도 헛는데. 그렇게 헛다가 이제 저 물방아 식으로 정미소에 가서 참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우리 마을에도 뭐 정미소면 참 그 정미소 주인이 안 돼서 조금 도장 방법을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온전하게 꺾테기만 깎아지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니깐 뭐 요즘 요즘 시중에서 파는 보리쌀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103014 @ 그럼 보릿겨 잇잖아예?(그럼 보릿겨 잇잖아요?)

103014 #1 어.(어.)

103014 @ 보릿겨나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등 남는 거 잇잖아예? 그건 뭘로 활용하셧마씨? 그냥 버려마씨?(보릿겨나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등 남는 거 잇잖아요? 그건 뭘로 활용하셧어요? 그냥 버렸어요?)

103014 #1 흥년에는 그걸 먹었지.(흥년에는 그걸 먹었지.)

103014 @ 아.(아.)

103014 #1 처음에 처음 초벌헌 것만 버려두고 게 일찍이 얘기했지만 나 중학교 다녔을 적에 오십 사년도 오십 삼사년도에는 그것은 완전히 고급 음식.(처음에 처음 애벌한 것만 버려두고 일찍이 얘기했지만 나 중학교 다녔을 적에 오십 사년도 오십 삼사년도에는 그것은 완전히 고급 음식.)

103014 @ 보리가마씨?(보리가요?)

103014 #1 보리 찌꺼기가 고급 음식이라.(보리 찌꺼기가 고급 음식이라.)

103014 @ 찌꺼기가?(찌꺼기가?)

103014 #1 ㄴ. 그것이 고급 음식이고 이젠 이젠 돼지도 안 먹는 그 고구마, 고구마 찌꺼기 고구마 전분 뽑당 그냥 찌꺼기. 이젠 그거 돼지도 안 먹어. 그거 가져

다가 이 울타리 그 돌담에 딱딱 즈배기처럼 붙였다가 그거 마르면은.(응. 그것이 고급 음식이고 이젠 이젠 돼지도 안 먹는 그 고구마, 고구마 찌꺼기 고구마 전분 뽑다가 그냥 찌꺼기. 이젠 그거 돼지도 안 먹어. 그거 가져다가 이 울타리 그 돌담에 딱딱 수제비처럼 붙였다가 그거 마르면.)

103014 @ 즈배기마씨?(수제비요?)

103014 #1 아니, 그냥 붙이면 풀칠행 붙일 수도 엇고. 그냥 즈배기처럼 붙이는 거지. 경 행 마르면은.(아니, 그냥 붙이면 풀칠해서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수제비처럼 붙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르면.)

103014 @ 아.(아.)

103014 #1 그걸 그냥 젖으면 뭐 할 수 없으니까 마르면은 이제 멧돌에 갈양 그것도 보관했다가 그걸 먹는 거라. 게면 그게 우리 마을의 경우도 그거 안 먹은 사람은 삼분의 이 될 거고.(그걸 그냥 젖으면 뭐 할 수 없으니까 마르면은 이제 멧돌에 갈아서 그것도 보관했다가 그걸 먹는 거라.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을의 경우도 그거 안 먹은 사람은 삼분의 이 될 거고.)

103014 @ 예.(예.)

103014 #1 그 흥년에. 우리 같이 뭐 워낙 못 사는 사람은 그거 많이 먹어. 그거 먹는데 그거 먹당 보면 영양실조 걸리고 토 나오고 경 허주게. 그런 식으로 생활 했주게.(그 흥년에. 우리 같이 뭐 워낙 못 사는 사람은 그거 많이 먹어. 그거 먹는데 그거 먹다가 보면 영양실조 걸리고 토 나오고 그렇게 하지. 그런 식으로 생활 했지.)

103015 @ 어르신, 그럼 보리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같은 거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보리농사에 대해 물어봤잖아예?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거 엇어마씨?(어르신, 그럼 보리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같은 거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보리농사에 대해 물어봤잖아요?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거 없어요?)

103015 #1 아니, 계남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 열시까지 그거 다 비울 것 같은 거나 뒷날 작업을 허젠 하면 무조건 강요를 한 거지. 옛날 아이들 학교 가기 시작하면은 단 하루도 결석 안 시켰는데. 하루도 결석을 안 시켰는데. 아무리 바빠도.(아니, 그러니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 열시까지 그거 다 비울 것 같은 거나 뒷날 작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강요를 한 거지. 옛날 아이들 학교 가기 시작하면 단 하루도 결석 안 시켰는데. 하루도 결석을 안 시켰는데. 아무리 바빠도.)

103015 @ 예.(예.)

103015 #1 계도 밤에는 일 시켜야 했주게.(그래도 밤에는 일 시켜야 했지.)

103015 @ 예.(예.)

103015 #1 학교는 결석을 안 시켰주만은.(학교는 결석을 안 시켰지만.)

103015 @ 아.(아.)

103015 #1 그런 식으로 자식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착하게 큰 거 님아.(그런

식으로 자식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착하게 큰 거 닮아.)

103015 @ 그럼 농사도 지었지예?(그럼 농사도 지었지요?)

103015 #2 계, 계.(그럼, 그럼.)

103015 @ 농사했던 얘기 좀 글아 줘서. 무슨 농사했고 무슨 농사했고. 농사짓는 방법도 좀 얘기해 주고.(농사했던 얘기 좀 말해 주십시오. 무슨 농사했고 무슨 농사했고. 농사짓는 방법도 좀 얘기해 주고.)

103015 #2 우리 살아날 땐게. 돛걸름 혜영.(우리 살아날 때는. 돼지거름 해서.)

103015 @ 예.(예.)

103015 #2 돛걸름 내여근엥 보리씨 뿌령 비료 엇어 부난. 것에 막 영 버무려근 엥 밧에 싣고 강 영 뿌려.(돼지거름 내어서 보리씨 뿌려서 비료 없어 버리니까. 것에 막 이렇게 버무려서 밧에 싣고 가서 이렇게 뿌려.)

103015 @ 예.(예.)

103015 #2 뿌령계 밧 갈아근엥 허민 보리나면게 또 검질도 매고 허영 보리 빌 거주게. 오죽 힘들게 헛어. 비어당근엥 마당에 가근엥 클로 홀타.(뿌려서 밧 갈아서 하면 보리나면 또 김도 매고 해서 보리 벨 거지. 오죽 힘들게 헛어. 비어다가 마당에 가서 그네로 훑아.)

103015 @ 예.(예.)

103015 #2 홀타 놔근엥 또 도깨로 두드리고 헛주게.(훑아 놔서 또 도리깨로 두드리고 헛지.)

103015 @ 그계. 보리농사.(그계 보리농사.)

103015 #2 보리농사.(보리농사.)

103002 @ 그른 할머니 보리농사도 하섯수광?(그럼 할머니 보리농사도 하섯습니까?)

103002 #4 예. 보리농사도 하영 허곡.(예. 보리농사도 많이 하고.)

103002 @ 그럼 옛날, 옛날 걸로 그 보리농사 짓젠 허민 뭐가 필요혜마씨? 준비 허젠 허민.(그럼 옛날, 옛날 걸로 그 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혜요? 준비 하려고 하면.)

103002 #4 옛날 보리농사 허젠 허민게 비료 빼고.(옛날 보리농사 하려고 하면 비료 뿌리고.)

103002 @ 예.(예.)

103002 #4 씨 빼고.(씨 뿌리고.)

103002 @ 예.(예.)

103002 #4 그추룩 허멍 저 검질이나 메민 보리 허여근엥 이제 보리 우리 손으로 막 비어 놓으민.(그처럼 하면서 저 김이나 매면 보리 해서 이제 보리 우리 손으로 막 베어 놓으면.)

103002 @ 예.(예.)

103002 #4 그거 무끄고 문딱 허영 모양 탈곡기에 그때는 저 보리 장만허는 기

계가 셔낫주게.(그거 묶고 전부 해서 모아서 탈곡기에 그때는 저 보리 장만하는 기계가 있었지.)

103002 @ 예.(예.)

103002 #4 탈곡기에 그거 빌어다근엥 막 장만허영.(탈곡기에 그거 빌어다가 막 장만해서.)

103002 @ 아, 탈곡기 잇언마씨?(아, 탈곡기 있었어요?)

103002 #4 어. 동네에 그걸로 버는 사람이 잇이난 그걸로.(어. 동네에 그걸로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로.)

103002 @ 아.(아.)

103002 #4 것도 다 차례로 허여근엥.(것도 다 차례로 해서.)

103002 @ 뭐 허는 거?(뭐 하는 거?)

103002 #4 차례로 밀 곁은 사람네 걸로 허영.(차례로 밀 곁은 사람네 걸로 해서.)

103002 @ 아, 차례로.(아, 차례로.)

103002 #4 어.(어.)

103002 @ 그른 준비허 허민 보리씨랑 거름만 잇이든 뉘마씨?(그러면 준비하려고 하면 보리씨와 거름만 있으면 돼요?)

103002 #4 보리씨는 새해 허젠 허민 올히 허여 놔둔 거 몇 가마니 놔두주게.(보리씨는 새해 하려고 하면 올해 해서 놔둔 거 몇 가마니 놔두지.)

103002 @ 예.(예.)

103002 #4 몇 가마니 놔둬사 이녁씩 허는 거주게.(몇 가마니 놔둬야 자기대로 하는 거지.)

103003 @ 옛날에는 비료 엇지 앓안마씨?(옛날에는 비료 없지 앓았어요?)

103003 #4 비료 셔.(비료 있어.)

103003 @ 아.(아.)

103003 #4 셔도 배급 정도로.(있어도 배급 정도로.)

103003 @ 아, 배급 정도로.(아, 배급 정도로.)

103003 #4 어. 계난 이녁 믹음대로 사지를 못 허여게. 저기서 주면 몇 가마디 강 헤다근엥 허당 비료 모지르믄 곡식이 잘 아니 뵈주게.(어.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사지 못 해. 저기서 주면 몇 가마니 가서 헤다가 하다가 비료 모지라면 곡식이 잘 안 뵈지.)

103003 @ 아, 그럼 그 비료는 누가 배급헤마씨?(아, 그럼 그 비료는 누가 배급 했어요?)

103003 #4 이 법에서들 해주난게.(이 법에서 해주니까.)

103003 @ 어디서?(어디서?)

103003 #4 이 나라에서들 그때는.(이 나라에서들 그때는.)

103003 @ 예.(예.)

103003 #4 이제 그 무시거라 조합에 강 뭐 허영 오듯이.(이제 그 무엇이야 조합에 가서 뭐 해서 오듯이.)

103003 @ 예.(예.)

103003 #4 경 허영 혼 집이 몇 가마니 허영 해 오는 거주게. 몇 키로 허민 구루마 꿏영 강 반양 오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한 집에 몇 가마니 해서 해 오는 거지. 몇 킬로 하면 수레 끌어서 가서 받아서 오는 거지.)

103003 @ 그럼 거름 같은 것도 거기서 받아 오는 거마씨?(그럼 거름 같은 것도 거기서 받아 오는 거예요?)

103003 #4 아이고 거름은 이녀냥으로 도새기 질러근영.(아이고 거름은 자기대로 돼지 길러서.)

103003 @ 예.(예.)

103003 #4 통지에.(돼지우리에.)

103003 @ 예. 알아마씨.(예. 알아요.)

103003 #4 알아져?(알아져?)

103003 @ 예. 알아져마씨.(예. 알아져요.)

103003 #4 통지에 걸름허영 그거 통지 하간 거 보릿낭 ㄱ튼 거 하간 거 놓으멍 걸름 막 시켜 도새기 질러난 그거 막 뵈으민 그거 걸름이 돼주게.(돼지우리에 거름 해서 그거 돼지우리 여러 거 보릿짚 같은 거 여러 거 놓으면서 거름 막 시켜서 돼지 기르니까 그거 막 밟으면 그거 거름이 되지.)

103003 @ 음.(음.)

103003 #4 그거 쉼시랑으로 내영.(그거 쇠스랑으로 내어서.)

103003 @ 예.(예.)

103003 #4 아이고 우리 옛날에 보리 갈 때에 그거 그 걸름 내영 그리 보리씨 서꺼근영 막 불령.(아이고 우리 옛날에 보리 갈 때에 그거 그 거름 내어서 그리 보리씨 섞어서 막 밟아서.)

103003 @ 예.(예.)

103003 #4 그거 이만히 허영 데몇당 쉼로 그거 신거 가멍 그 춤 옛날 못 견디게 살았어.(그거 이만이 해서 쌓았다가 소로 그거 실어 가면서 그 참 옛날 못 견디게 살았어.)

103003 @ 아, 힘들엇겠다예.(아, 힘들엇겠군요.)

103003 #4 막 힘들주게. 경 허멍 스못 쉼에 그때는 구루마도 엇영.(막 힘들지. 그렇게 하면서 사뭇 소에 그때는 수레도 없어서.)

103003 @ 예.(예.)

103003 #4 쉼에 헤여근영 저 멩텅이 하르방들 막 즐앗주게 옛날은.(소에 해서 저 망태기 할아버지들 막 걸었지 옛날은.)

103003 @ 예.(예.)

103003 #4 게민 멩텅이에 그 걸름 담양 저 쉼에 뭇 엇인 사람은 그거 문딱 신

거근엥 경 허영 우리 걸름 가근엥 스뭇 아이고 손 실르멍 그 걸름 착착 뿌려근엥 보리 갈아난. 그때 비료 하영 안 날 때엔.(그러면 망태기에 그 거름 담아서 저 소에 말 없는 사람은 그거 전부 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거름 가서 사뭇 아이고 손 실 으면서 그 거름 착착 뿌려서 보리 갈았어. 그때 비료 많이 안 날 때에는.)

103003 @ 예.(예.)

103003 #4 말제라 가난 비료 나난 볍씨 강 빼어근엥 보리 갈았주. 옛날은 통제 걸름허여근엥 저 내영 그것에 보리씨 서꺼근엥 그거 볍앙 그거 밧이 흐끔씩 싣거당 또 요만씩배끼 못 허여.(나중에 가니까 비료 나니까 볍씨 가서 뿌려서 보리 갈았지. 옛날은 돼지우리 거름해서 저 내어서 그것에 보리씨 섞어서 그거 밧아서 그거 밧에 조금씩 실어다가 또 요만씩밖에 못 해.)

103003 @ 음.(음.)

103003 #4 췌에 우에 싣거근엥 그거 강 뿌렁 허민 그거 우리 강 여자들은 그 걸름 들영 부비멍 영 허는 거라게.(소에 위에 실어서 그거 가서 뿌려서 하면 그거 우리 가서 여자들은 그 거름 들어서 부비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103003 @ 아, 부비멍?(아, 부비면서?)

103003 #4 어. 부비멍. 그디 씨가 서꺼지니깐.(어. 부비면서. 거기 씨가 섞어지니 까는.)

103003 @ 예.(예.)

103003 #4 걸름에 씨 서꺼지난.(거름에 씨 섞어지니까.)

103003 @ 예.(예.)

103003 #4 그 고르게 허젠 경 보리 갈아난 옛날엔.(그 고르게 하려고 그렇게 보 리 갈았어 옛날에는.)

103004 @ 음. 그럼 보리는 일 년에 한 번 갈지예?(음. 그럼 보리는 일 년에 한 번 갈지요?)

103004 #4 흔 번게.(한 번.)

103004 @ 언제 갈아마씨? 보리는?(언제 갈아요? 보리는?)

103004 #4 시월 달에.(시월 달에.)

103004 @ 아, 시월 달에.(아, 시월 달에.)

103004 #4 시월 달에 갈민 이 저 스월 오월 나가민 보리 허여 들이주게.(시월 달에 갈면 이 저 사월 오월 되면 보리 해서 들이지.)

103005 @ 아. 그럼 보리씨 뿌릴 때는 어떻 뿌려마씨? 그냥 손으로 뿌려마씨? (아. 그럼 보리씨 뿌릴 때는 어떻게 뿌려요? 그냥 손으로 뿌려요?)

103005 #4 아, 이제는.(아, 이제는.)

103005 @ 예.(예.)

103005 #4 이런 보리씨 이거 보리씨면 영 심영 콕콕 빼엿주만은 우리 옛날은게 그 ㄱ췌 근듣이게 걸름에 걸름에 보리씨 서경.(이런 보리씨 이거 보리씨면 이렇게 심어서 콕콕 뿌렸지만 우리 옛날은 그 아까 말했듯이 거름에 거름에 보리씨 섞어

서.)

103005 @ 아, 걸름에 보리씨 서갱.(아, 거름에 보리씨 섞어서.)

103005 #4 어. 경 허영 옛날 우리 저 옛날 살 때는 경 허명 보리 같안.(어. 그렇게 해서 옛날 우리 저 옛날 살 때는 그렇게 하면서 보리 같았어.)

103005 @ 예.(예.)

103005 #4 경 행 허단 말제에 비료도 나고 하간 게 해 가난 그냥 걸름에 서갱 강 빛이 강 좌좌 빼영 비료 놔근영 허민 보리 해 먹었주게.(그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비료도 나고 여러 게 해 가니까 그냥 거름에 섞어서 가서 밭에 가서 좌좌 뿌려서 비료 놔서 하면 보리 해 먹었지.)

103005 @ 음.(음.)

103005 #4 아주 옛날엔 쉼 걸름 허영 내엿다근영 그것에 보리씨 서꺼근영 그제 걸름이니까 비료.(아주 옛날에는 소 거름 해서 내엿다가 그것에 보리씨 섞어서 그제 거름이니까 비료.)

103005 @ 아, 그제 걸름이니까. 음.(아, 그제 거름이니까. 음.)

103005 #4 경 행 허여난.(그렇게 해서 했었지.)

103006 @ 그럼 옛날에 보리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그럼 옛날에 보리 종류는 뭐, 뭐 있었어요?)

103006 #4 옛날엔 걸보리.(옛날에는 걸보리.)

103006 @ 예.(예.)

103006 #4 그리고 이제 맥주보리.(그리고 이제 맥주보리.)

103006 @ 아, 맥주보리.(아, 맥주보리.)

103006 #4 다시 흐뎡 서가난 쌀보리.(다시 조금 있어가니까 쌀보리.)

103006 @ 아, 쌀보리.(아, 쌀보리.)

103006 #4 쌀보리 해 가난 춤 좋앗주게. 이 여물도 허곡.(쌀보리 해 가니까 참 좋았지. 이 여물도 하고.)

103006 @ 그럼 걸보리는 뭐짱?(그럼 걸보리는 뭐입니까?)

103006 #4 걸보리는게 맥주보리 영 영 줄로 헛주만은.(걸보리는 맥주보리 이렇게 이렇게 줄로 했지만.)

103006 @ 예.(예.)

103006 #4 그건 빛이엔 곱앙 좋을 건가. 쌀보리 쌀보리처럼 허여도 막 막 ㄴ시 락 나고 걸보리엔 험 거.(그건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 건가. 쌀보리 쌀보리처럼 해도 막 막 까끄라기 나고 걸보리라고 한 거.)

103006 @ 예. 그럼 맥주보리는?(예. 그럼 맥주보리는?)

103006 #4 맥주보리는 두 줄로 영 쪽 허게 나온 거 요새 나온 거 맥주보리.(맥주보리는 두 줄로 이렇게 쪽 하게 나온 거 요새 나온 거 맥주보리.)

103006 @ 아. 그거 다 할머니 하선마씨?(아. 그거 다 할머니 하셨어요?)

103006 #4 그거 다 허여 낫주게.(그거 다 해 낫지.)

103006 @ 아. 쌀보리까지 나중에 나오는 것까지마씨?(아. 쌀보리까지 나중에 나오는 것까지요?)

103006 #4 솔보리 이 집에 오는 데도 허영 나 들어왔주게. 팔멍 헛주게.(쌀보리 이 집에 오는 데도 해서 나 들어왔지. 팔면서 했지.)

103007 @ 그럼 보리밭 보리씨 뿌린 다음에 밟잖아예?(그럼 보리밭 보리씨 뿌린 다음에 밟잖아요?)

103007 #4 아 그건 저실이 막 눈이나 하영 오면 육지 닳지 안 허난 여기는.(아 그건 겨울에 막 눈이나 많이 오면 육지 닳지 안 하니까 여기는.)

103007 @ 예.(예.)

103007 #4 눈으로 하영 오민 밧 곳이민 불리는 거주게 보리 나게 허젠.(눈으로 많이 오면 밧 곱으면 밟는 거지 보리 나게 하려고.)

103007 @ 아.(아.)

103007 #4 이젠 경 허는 법 엇어.(이제는 그렇게 하는 법 없어.)

103007 @ 그래도 옛날엔 좀 그래도 밟안마씨?(그때도 옛날에는 좀 그래도 밟았어요?)

103007 #4 우린 블라본 적 엇어.(우리는 밟아본 적 없어.)

103007 @ 그건 무사 밟는 거마씨?(그건 왜 밟는 거예요?)

103007 #4 그거 밧 곳아 불민.(그거 밧 곱아 버리면.)

103007 @ 예.(예.)

103007 #4 종자가 즐바로 올라오지 안 해근영.(종자가 똑바로 올라오지 안 해서.)

103007 @ 아.(아.)

103007 #4 죽어 부난게.(죽어 버리니까.)

103007 @ 죽어 버리니까.(죽어 버리니까.)

103007 #4 어. 탄탄허렌. 땅 탄탄허민 그 보리밭이 질겨근영 경 허젠 밟는 거주게.(어. 탄탄하라고. 땅 탄탄하면 그 보리밭이 질겨서 그렇게 하려고 밟는 거지.)

103008 @ 그믐 옛날에도 보리밭에 검질메잖아예?(그러면 옛날에도 보리밭에 검매잖아요?)

103008 #4 보리 막 나 가민 이월 달 나 가민 보리 할 때 검질메사주게.(보리 막 나 가면 이월 달 지나가면 보리 할 때 검매야지.)

103008 @ 그럼 보리는 검질 몇 번 그러니까 몇 번 메마씨?(그럼 보리는 검질 몇 번 그러니까 몇 번 매요?)

103008 #4 몇 번 안 메여. 혼 번 메곡. 다시 보리 커 가민 대우리⁴⁷⁾엔 현 거.(몇 번 안 매. 한 번 매고. 다시 보리 커 가면 귀리라고 한 거.)

103008 @ 예. 대우리.(예. 귀리.)

103008 #4 대우리 메곡 경 헛주.(귀리 매고 그렇게 했지.)

47) '대우리'는 '귀리'의 제주어로, '대오리'로도 실현된다.

103008 @ 그럼 한두 번 경 매마씨?(그럼 한두 번 그렇게 매요?)

103008 #4 어. 두 번.(어. 두 번.)

103009 @ 그럼 보리밭 검질들 종류는 아까 뭐 대우리 말앙 또 잇수광?(그럼 보리밭 검들 종류는 아까 뭐 귀리 말고 또 있습니까?)

103009 #4 대우리 말앙 무신 히여뜩흔 거 검질 하영 나누게.(귀리 말고 무슨 허튼 거 김 많이 나지.)

103009 @ 아, 히여뜩흔 거?(아, 허튼 거?)

103009 #4 어.(어.)

103009 @ 그거 뭐 이름 기억나는 거 잊어마씨?(그거 뭐 이름 기억나는 거 없어요?)

103009 #4 저 무시거엔 허는디 고사리 무시거엔 허는디.(저 무엇이라고 하는데 고사리 무엇이라고 하는데.)

103009 @ 고사리풀?(고사리풀?)

103009 #4 고사리풀이여 무신 진풀이여.(고사리풀이여 무슨 별꽃이여.)

103009 @ 아, 진풀.(아, 별꽃.)

103009 #4 어. 진풀 ㄴ튼 거 하영 나누게.(어. 별꽃 같은 거 많이 나지.)

103009 @ 아, 그럼 제일 그래도 많이 나는 건 대우리짱?(아, 그럼 제일 그래도 많이 나는 건 귀리입니까?)

103009 #4 말제가 가민 대우리 밭에 하영 나고 경 안 허민 하영 안 낫어.(말제에 가면 귀리는 밭에 많이 나고 그렇게 안 하면 많이 안 낫어.)

103009 @ 아.(아.)

103009 #4 대우리 매는 건 뭐 흔 이틀이면 매주만은 검질은 여러 날 매지주게.(귀리 매는 거는 뭐 한 이틀이면 매지만 김은 여러 날 매지.)

103010 @ 그럼 시월 달에 보리 뿌리면 오월 달에 보리 그 수확해마씨?(그럼 시월 달에 보리 뿌리면 오월 달에 보리 그 수확해요?)

103010 #4 예.(예.)

103010 @ 그럼 수확은 어떻게 허주마씨? 수확할 때.(그럼 수확은 어떻게 하지요? 수확할 때.)

103010 #4 그제 수확할 때 이녀냥으로 비어근앵게.(그제 수확할 때 자기대로 베어서.)

103010 @ 그러니까 뭘로 비어마씨?(그러니까 뭘로 베어요?)

103010 #4 호미로게. 낫으로.(낫으로. 낫으로.)

103010 @ 예. 호미로 비영 그 다음에 어떻 해마씨?(예. 낫으로 베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03010 #4 호미로 비어근앵 이제 흐끔 돌르민.(낫으로 베어서 이제 조금 마르면.)

103010 @ 예.(예.)

103010 #4 주런히 영 행 놓으민 다시 다시 그걸 무생이 멘들었다근엥.(나란히 이렇게 해서 놓으면 다시 다시 그걸 매끼 만들었다가.)

103010 @ 무생이?(매끼?)

103010 #4 무생이게. 무끄는 건 이젠 영 현 걸로 허주만은,(매끼. 묶는 건 이젠 이렇게 한 걸로 하지만.)

103010 @ 예.(예.)

103010 #4 옛날은 짝으로 허여근엥.(옛날은 짝으로 해서.)

103010 @ 예.(예.)

103010 #4 나록 해난 거 짝 사당 저 번네⁴⁸⁾ 강 사다근엥.(벼 했던 거 짝 사다가 저 ‘번네’ 가서 사서.)

103010 @ 예.(예.)

103010 #4 번네엔 현 데는이 저기 화순이라.(‘번네’라고 한 데는 저기 ‘화순’이야.)

103010 @ 예. 그 번네가 화순의 옛날 이름이지예?(예. 그 ‘번네’가 ‘화순’의 옛날 이름이지요?)

103010 #4 어. 옛날. 그딴 강 사다근엥 짝 사당 낫다근엥 막 무생이를 멘드는 거라.(어. 옛날. 거기 가서 사다가 짝 사다가 낫다가 막 매끼를 만드는 거야.)

103010 @ 아, 무생이를 만들어.(아, 매끼를 만들어.)

103010 #4 어. 할아방들 영 행 막 만들어 낫당 그거 가정 텅기명 보리 문딱 묶어근엥.(어. 할아버지들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 낫다가 그거 가져서 다니면서 보리 전부 묶어서.)

103010 @ 예.(예.)

103010 #4 그거 모다당 시꺼 왕 이제 클 허영 폭폭 영 혼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클 때에.(그거 모아다가 실어 와서 이제 그네 해서 폭폭 이렇게 훑았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클 때에.)

103011 @ 예. 예. 그거 곶아 주면 돼마씨.(예. 예. 그거 말해 주면 되요.)

103011 #4 경 행 클로 홀탕 홀트으민 남저 기신 좋은 사람 잘 허는 사람 빌어 근엥 허민 우리 양편에 앉앙 보리 쥐낫주게.(그렇게 해서 그네로 훑아 훑으면 남자기운 좋은 사람 잘 하는 사람 빌려서 하면 우리 양편에 앉아서 보리 줬었지.)

103011 @ 아.(아.)

103011 #4 흥 줌씩 영 주민 기신 잇인 사람은 영 착 받으멍 팍팍 그거 홀트는 거라.(한 줌씩 이렇게 주면 기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착 받으면서 팍팍 그거 훑으는 거야.)

103011 @ 예.(예.)

103011 #4 홀탕 보릿낭은 뒤트레 영 데끼면.(훑아서 보릿짚은 뒤로 이렇게 던지면.)

48) ‘번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화순리를 의미한다.

103011 @ 예.(예.)

103011 #4 뒤처리 허는 사람. 보릿낱 처리 허는 사람 싯고. 우리 췌여 주는 사람 싯고.(뒤처리 하는 사람. 보릿짚 처리 하는 사람 있고. 우리 쥐어 주는 사람 있고.)

103011 @ 예.(예.)

103011 #4 이제.(이제.)

103011 @ 흘튼 다음 이렇게 도리깨질 허는 것도 잊지 았안마씨? 흘튼 다음에 허는 거마씨.(흫은 다음 이렇게 도리깨질 하는 것도 잊지 았았어요? 흫은 다음에 하는 거요.)

103011 #4 우린 어린 때에는 우리 아버지네는 췌영 물이영 마당에 막 흘타어. 걸보리 할 때는.(우리 어린 때에는 우리 아버지네는 소와 말과 마당에 막 흘았어. 걸보리 할 때는.)

103011 @ 예.(예.)

103011 #4 그레 놆 놆근엥 물 아저당 막 불리는 거라.(그리 놆 놆서 말 가져다가 막 드리는 거야.)

103011 @ 아.(아.)

103011 #4 물 아저당 막 불리민 우리 마라 물 똥 싸 가민 물 따라다니명 똥 주으렌 허고.(말 가져다가 막 드리면 우리더러 말 똥 싸 가면 말 따라다니면서 똥 주으라고 하고.)

103011 @ 예.(예.)

103011 #4 경 허명 해난 옛날엔.(그렇게 하면서 했어 옛날에는.)

103011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12 @ 그럼 그 다 흘튼 다음에 보리쌀 나오잖아예?(그럼 그 다 흫은 다음에 보리쌀 나오잖아요?)

103012 #4 보리쌀 나오민.(보리쌀 나오면.)

103012 @ 보리쌀은 어떻 어떻게 만드는 거마씨?(보리쌀은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3012 #4 그거 이제 브름 막 불어사 그걸 불리는 거라.(그거 이제 바람 막 불어야 그걸 드리는 거야.)

103012 @ 아, 브름 불으민.(아, 바람 불으면.)

103012 #4 브름코지에 가근엥 어디 강 경 헌디 강 놆근엥 며칠 불려 옛날엔.(바람받이 가서 어디 가서 그렇게 한데 가서 놆서 며칠 드려 옛날에는.)

103012 @ 브름코지는 여기 어디 잇언마씨?(바람받이는 여기 어디 있었어요?)

103012 #4 아니, 이녁 사는 지역마다.(아니, 자기 사는 지역마다.)

103012 @ 예.(예.)

103012 #4 올레로 영 나가근엥.(오래로 이렇게 나가서.)

103012 @ 예.(예.)

103012 #4 산태에 낱 이젠 구루마영 무스거영 꺾어 가는 것이 잇지만은 옛날 하르방은 산태 영 낱 그 우이 보리 보리 멩탱이에 낱 멩이라고 허주 멩탱이.(삼태기에 낱서 이제는 수레와 무엇과 끌어 가는 것이 있지만 옛날 할아버지들은 삼태기 이렇게 낱서 그 위에 보리 보리 망태기에 낱서 망태기라고 하지 망태기.)

103012 @ 예. 멩탱이.(예. 망태기.)

103012 #4 그것드레 보리 영 블령 막 마당에 거 놔근앵.(그것에 보리 이렇게 드려서 ㅁ가 마당에 거 낱서.)

103012 @ 예.(예.)

103012 #4 불리는데 가근앵 어멍들 불려 가든 그레 들고 가민 불리곡.(드리는데 가서 어머니들 드려 가면 그리 들고 가면 드리고.)

103012 @ 예.(예.)

103012 #4 이제 불린 거 다시 집드레 날라오곡 경 허멍 옛날에 살앗인디 이젠 뭐 보리 비는 게 문제라 뭐? 기계 들여왕 싹싹 그냥 허곡계.(이제 드린 거 다시 집에 날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살았는데 이제는 뭐 보리 베는 게 문제야 뭐? 기계 들여와서 싹싹 그냥 하고.)

103012 @ 예. 요즘은 기계로 허지예?(예. 요즘은 기계로 하지요?)

103012 #4 불리지도 안 허곡.(드리지도 안 하고.)

103012 @ 예.(예.)

103012 #4 여자들 한걸허주게.(여자들 한가하지.)

103012 @ 그럼 옛날엔 보리쌀 갈 때는 돌방 강 헛수광? 돌방 강?(그럼 옛날에 보리쌀 갈 때는 연자방아에 가서 했습니까? 연자방아에 가서?)

103012 #4 방에에 가근앵.(방아에 가서.)

103012 @ 방에에 강.(방아에 가서.)

103012 #4 보리, 보리 영 허민 물 지어가곡.(보리, 보리 이렇게 하면 물 지어가고.)

103012 @ 예.(예.)

103012 #4 방에에 가근앵 보리 저근앵 그 방에에 놔근앵 물 서경 스뭇 쉼 메어 근앵 쉼 텅겨근앵 허는 거라.(방아에 가서 보리 저서 그 방아에 낱서 물 섞어서 사뭇 소 메어서 소 당겨서 하는 거야.)

103012 @ 아.(아.)

103012 #4 우리는 쉼 조름에 상 쉼 몰곡. 계민 어멍은 다시 이제 그 방에에서 들어 올려.(우리는 소 똥무니에 서서 소 몰고. 그러면 어머니는 다시 이제 그 방아에서 들어 올려.)

103012 @ 아, 이렇게 들어 올려마씨?(아, 이렇게 들어 올려요?)

103012 #4 어. 맏돌 영 도는디.(어. 맏돌 이렇게 도는데.)

103012 @ 예.(예.)

103012 #4 계민 쏘이 나오는 거라.(그러면 쌀이 나오는 거야.)

103012 @ 아, 경 허른 쌀이 나오는 거.(아, 그렇게 하면 쌀이 나오는 거.)

103013 @ 그럼 그 보리쌀 나오면 그걸로 뭐 해 먹었주마씨?(그럼 그 보리쌀 나오면 그걸로 뭐 해 먹었지요?)

103013 #4 그걸로 보리밥 해 먹었주게.(그걸로 보리밥 해 먹었지.)

103013 @ 아. 밥 말앙 또 다른 거 해 먹는 건 엇엇수광?(아. 밥 말고 또 다른 거 해 먹는 건 없었습니까?)

103013 #4 그냥게 보리 장만헤지른 그냥 보리 볶아근엥 개역도 행 먹고.(그냥 보리 장만헤지면 그냥 보리 볶아서 미숫가루도 해서 먹고.)

103013 @ 아, 예. 개역도 해 먹고.(아, 예. 미숫가루도 해 먹고.)

103013 #4 어.(어.).

103013 @ 그 개역은 어떻 해 먹어마씨? 보리 볶아근엥.(그 미숫가루는 어떻게 해 먹어요? 보리 볶아서?)

103013 #4 보리 볶아근엥 ㄹ레에 곶앙.(보리 볶아서 맷돌에 갈아서.)

103013 @ 아, ㄹ레에 곶앙.(아, 맷돌에 갈아서.)

103013 #4 ㄹ레에 곶아근엥 체로 청.(맷돌에 갈아서 체로 쳐서.)

103013 @ 예.(예.)

103013 #4 줌진체⁴⁹⁾ 허영 치민 그건 줌진 ㄹ루 허영 맛 좋게 먹고.(‘줍진체’ 해서 치면 그건 아줄 자잘한 가루 해서 맛 좋게 먹고.)

103013 @ 음.(음.)

103013 #4 굵은 건 굵은 거대로 밥 버무리멍 먹고 옛날엔. 경 허멍 살앗주게 옛날은.(굵은 건 굵은 거대로 밥 버무리면서 먹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옛날은.)

103014 @ 그럼 보리 하면 뭐 남는 거 잇잖아예? 까끄라기나 뭐 곶에 것들.(그럼 보리 하면 뭐 남는 거 잇잖아요? 까끄라기나 뭐 곶에 것들.)

103014 #4 그 보리체⁵⁰⁾는게 도새기 먹이고게.(그 ‘보리체’는 돼지 먹이고.)

103014 @ 아, 보리체?(아, ‘보리체’?)

103014 #4 응.(응.)

103014 @ 도새기 먹연마씨?(돼지 먹였어요?)

103014 #4 보리 방아에 막 찼으민 쫄이 나오지?(보리 방아에 막 찼으면 쌀이 나오지?)

103014 @ 예.(예.)

103014 #4 쫄 나오곡 그 꺾데기는 꺾데기대로 영 허민 이 벵에 강 물리멍 그거 불리영 다시 도새기 행 먹이고 우린 쫄 먹고.(쌀 나오고 그 꺾데기는 꺾데기대로 이렇게 하면 이 벵에 가서 말리면서 그거 드러서 다시 돼지 해서 먹이고 우리는 쌀 먹고.)

49) ‘줍진체’는 체의 한 종류로 가루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하며, 구멍이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50) ‘보리체’는 보리쌀의 겉껍질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3014 @ 아, 그건 도새기 먹었구나예 옛날은?(아, 그건 돼지 먹었군요 옛날은?)

103014 #4 어. 그건 도새기 먹이고 우린 쌀 먹고.(어. 그건 돼지 먹이고 우리는 쌀 먹고.)

103015 @ 할머니 그럼 보리농사 옛날에 하면서 뭐 경험이나 추억 같은 거 잇수 광 옛날에?(할머니 그럼 보리농사 옛날에 하면서 뭐 경험이나 추억 같은 거 잇습니까 옛날에?)

103015 #4 추억은 무시거게? 그게 그거주게.(추억은 무엇? 그게 그거지.)

조 농사

103016 @ 그럼 조 농사도 해보셨지예? 이장님?(그럼 조 농사도 해보셨지요? 이장님?)

103016 #1 으. 조 농사도.(응. 조 농사도.)

103016 @ 예. 조 농사 하려면 어떤 뭐, 뭐 필요해마씨? 조 농사 할 때.(예. 조 농사 하려면 어떤 뭐, 뭐 필요해요? 조 농사 할 때.)

103016 #1 그 옛날은.(그 옛날은.)

103016 @ 예.(예.)

103016 #1 가급적이면 장마 끝날 때 장마가 끝날 때.(가급적이면 장마 끝날 때 장마가 끝날 때.)

103016 @ 예.(예.)

103016 #1 장마 끝날 때 과중하잖아. 뭐 준비할 건 엇지. 그냥 옛날에는 그 저 밭이 마른 때 조는 갈아야 되니까 마를 때 건조할 때.(장마 끝날 때 과중하잖아. 뭐 준비할 건 없지. 그냥 옛날에는 그 저 밭이 마른 때 조는 갈아야 되니까 마를 때 건조할 때.)

103016 @ 예.(예.)

103016 #1 건조할 때 갈아야 하니까 그건 뭐. 소허고 쟁기로 갈고 씨 뿌리고 준비하는 건 거고.(건조할 때 갈아야 하니까 그건 뭐. 소하고 쟁기로 갈고 씨 뿌리고 준비하는 건 거고.)

103016 @ 음.(음.)

103016 #1 또 그 가물어서 허면 그 밭. 그 흙이 막 뭉치니까 그 곰베. 곰방메로 옛날 우리 제주도말로 곰베엔 허고. 표준말로는.(또 그 가물어서 하면 그 밭. 그 흙이 막 뭉치니까 그 곰방메라고 하고. 표준말로는.)

103016 @ 표준말은 몰라도 돼고예.(표준말은 몰라도 되고요.)

103016 #1 어.(어.)

103016 @ 그냥 제춧말로 굴아 줘서.(그냥 제춧말로 얘기해 주십시오.)

103016 #1 곰베로 해서 그 줌 부인들 막 흙을 잘게 뿌셔서.(곰방메로 해서 그 줌 부인들 막 흙을 잘게 부셔서.)

103016 @ 예.(예.)

103016 #1 조 밭아하기 쉽게끔 허고 또 소, 말 거 아주 옛날에는 소허고 말을 많이 기를 때니까. 소로 막 그 밭을 다지지 막 다지지 다져.(조 밭아하기 쉽게끔 허고 또 소, 말 거 아주 옛날에는 소허고 말을 많이 기를 때니까. 소로 막 그 밭을 다지지 막 다지지 다져.)

103016 @ 음.(음.)

103016 #1 완전히 다져서 밭아돼야 잡초도 안 나고 조만 잘 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그냥 좁씨 뭐 그냥 빼고 로터리로 경운기로 뭐 행 그냥 로터리로 갈고 또 뭐냐 제초 같은 것도 로터리로 제초 작업허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완전히 다져서 밭아돼야 잡초도 안 나고 조만 잘 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그냥 좁씨 뭐 그냥 뿌리고 로터리로 경운기로 뭐 해서 그냥 로터리로 갈고 또 뭐냐 제초 같은 것도 로터리로 제초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103016 @ 아.(아.)

103016 #1 그 토질이 그 뭐 자갈들도 자갈이 경 많지 않은 곳이니까. 그 초불 두벌 세벌 검질을 밷주. 옛날에는.(그 토질이 그 뭐 자갈들도 자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니까. 그 애벌 두벌 세벌 김을 밷지. 옛날에는.)

103016 @ 예.(예.)

103016 #1 초불에는 뭐냐 한 오 센치 간격으로 헷다가 두 번째는 칠 팔 센치 간격으로 헷다가 나중에는 십 센치 이상 간격으로 쪽 좀 너무 बे지 않게. 좀 적당한 간격으로 완전히 손 봤는데.(애벌에는 뭐냐 한 오 센치 간격으로 헷다가 두 번째는 칠 팔 센치 간격으로 헷다가 나중에는 십 센치 이상 간격으로 쪽 좀 너무 बे지 않게. 좀 적당한 간격으로 완전히 손 봤는데.)

103016 @ 예.(예.)

103016 #1 요즘, 요즘은 조를 많이 안 허난 요 중간에는 로터리 그 중간 중간 빼가지고 그 로터리로 치워 불면은 뭐 제초도 안 허고 그걸로.(요즘, 요즘은 조를 많이 안 허니까 요 중간에는 로터리 그 중간 중간 빼가지고 그 로터리로 치워 버리면 뭐 제초도 안 하고 그걸로.)

103016 @ 음. 그럼 조?(음. 그럼 조?)

103016 #1 옛날, 옛날허고는 좀 많이 다루주게. 옛날에는 그냥 소허고 말로 막 밭을 다지고, 다지고 경 헷는데 요 중간에는 로터리로 헷주.(옛날, 옛날허고는 좀 많이 다루지. 옛날에는 그냥 소허고 말로 막 밭을 다지고, 다지고 그렇게 헷는데 요 중간에는 로터리로 헷지.)

103017 @ 그럼 조밭에 거름 잇잖아예? 그거는?(그럼 조밭에 거름 잇잖아요? 그거는?)

103017 #1 거름은?(거름은?)

103017 @ 조밭 거름은 뭘로 준비해마씨?(조밭 거름은 뭘로 준비해요?)

103017 #1 거름은 아주 옛날에는 완전 화학비료가 일체 엇고.(거름은 아주 옛날

에는 완전 화학비료가 일체 없고.)

103017 @ 예.(예.)

103017 #1 게니깐 보리 거름 생산이 많이 안 뵈 때니까. 거름은 보리 갈 때 하고 그냥, 그냥 거름 엇이 주로 거름 엇이 하니까. 요 집 인근 가까운 디를 이네왓⁵¹⁾이라고 허는데 이네왓. 마을 안에 밧이라고 헤가지고.(그러니까 보리 거름 생산이 많이 안 뵈 때니까. 거름은 보리 갈 때 하고 그냥, 그냥 거름 없이 주로 거름 없이 하니까. 요 집 인근 가까운 데를 ‘이네왓’이라고 하는데 ‘이네왓’. 마을 안에 밧이라고 헤가지고.)

103017 @ 아.(아.)

103017 #1 이네왓은 조가 그런 대로 잘뵈서 좀 키도 한 일 메다 이상 자라고 허는데.(‘이네왓’은 조가 그런 대로 잘뵈서 좀 키도 한 일 미터 이상 자라고 하는데.)

103017 @ 예.(예.)

103017 #1 저 목장 게니깐 척박한 땅에는 조가 뭐 한 이 삼 센티밖에 이 삼 센티밖에 안 자라가지고 수확도 안 나고 뭐 그런 비료는 엇엇고.(저 목장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는 조가 뭐 한 이 삼 센티밖에 이 삼 센티밖에 안 자라가지고 수확도 안 나고 뭐 그런 비료는 없엇고.)

103017 @ 예.(예.)

103017 #1 옛날엔 화학비료 나오기 시작한 지가 현 한 한 육십 년? 육십 년 뵈지만은 그 비료가 한 호당 한 두포 이상 거 굉장히 어렵게 주니까 비료를 포대기로 사는 게 아니고.(옛날엔 화학비료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 한 한 육십 년? 육십 년 뵈지만 그 비료가 한 호당 한 두포 이상 거 굉장히 어렵게 주니까 비료를 포대기로 사는 게 아니고.)

103017 @ 예.(예.)

103017 #1 또 마을에 몇 포 나오면은 그거를 키로로 가르나 그 저 뵈 뵈나 홉으로 가르거나 그 저 키로로 몇 키로 몇 키로 갈랐지. 포 단위로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비료가 귀해서.(또 마을에 몇 포 나오면 그거를 킬로로 가르나 그 저 뵈 뵈나 홉으로 가르거나 그 저 킬로로 몇 킬로 몇 킬로 갈랐지. 포 단위로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비료가 귀해서.)

103018 @ 그림 조는 언제 같고 또 어떻게 같아마씨?(그림 조는 언제 같고 또 어떻게 같아요?)

103018 #1 조는 뭐 유월절 나야지. 아까 얘기했지만은.(조는 뭐 유월절 나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103018 @ 예.(예.)

103018 #1 옛날엔 유월절 행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옛날엔 유월절 해서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

51) ‘이네왓’은 마을 안에 있는 밧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거리왓’, ‘가름팻’이라고도 한다.

103018 @ 예.(예.)

103018 #1 가는데 그건 뭐 소 쟁기로 갈았지 옛날엔.(가는데 그건 뭐 소 쟁기로 갈았지 옛날엔.)

103018 @ 쟁기로마씨?(쟁기로요?)

103018 #1 뭐 딴 파종 방법은 엇고.(뭐 딴 파종 방법은 없고.)

103018 @ 예.(예.)

103018 #1 조를 소 쟁기로 갈고. 그 돌, 흙무덤을 뿌서 놔가지고 씨를 파종해서 그 위에 다지고 그런 걸로 경 허민 끝나는 거.(조를 소 쟁기로 갈고. 그 돌, 흙무덤을 부쉬 놔가지고 씨를 파종해서 그 위에 다지고 그런 걸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103019 @ 그면 줍씨 뿌리는 방법은 따로?(그러면 줍씨 뿌리는 방법은 따로?)

103019 #1 아니 그냥 손으로.(아니 그냥 손으로.)

103019 @ 손으로마씨?(손으로요?)

103019 #1 줍씨 잘 뿌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만약 백 평당 몇 홉을 뿌린다고 계산허민 딱 맞게 뿌리고.(줍씨 잘 뿌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만약 백 평당 몇 홉을 뿌린다고 계산하면 딱 맞게 뿌리고.)

103019 @ 예.(예.)

103019 #1 또 새로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은 좀 그거 잘 못허주게. 그런 그렇게 허는데 여튼 줍씨는 다 손으로 그 당시 뿌렸어. 손으로.(또 새로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은 좀 그거 잘 못하지. 그런 그렇게 허는데 하여튼 줍씨는 다 손으로 그 당시 뿌렸어. 손으로.)

103020 @ 그럼 조밭은 어떻 밟아마씨? 말떼나 남떼나 돌테, 끄게 사용헨마씨?(그럼 조밭은 어떻게 밟아요? 말떼나 남떼나 돌테, 끄게 사용했어요?)

103020 #1 아 그, 그것은.(아 그, 그것은.)

103020 @ 예.(예.)

103020 #1 워낙 순한 밭 이위에는.(워낙 순한 밭 이외에는.)

103020 @ 예.(예.)

103020 #1 섬비⁵²⁾라고 허지 섬비. 저 팡나무로 이제 만든 섬비로 해서 좀 많이 그 무게를 저 무겁게 헤가지고 소 말로 끌던지.(‘섬비’라고 하지 ‘섬비’. 저 팡나무로 이제 만든 ‘섬비’로 해서 좀 많이 그 무게를 저 무겁게 헤가지고 소 말로 끌던지.)

103020 @ 예.(예.)

103020 #1 좀 가볍게 해서 사람, 사람, 두 사람 끄어서 그 저 줍씨를 파종 후에 흙을 했는데 에 그렇게 될 밧은 별로 엇고 주로 파종 한 다음에 그냥 그 사람 밧로 라도 밟아야 돼.(좀 가볍게 해서 사람, 사람, 두 사람 끌어서 그 저 줍씨를 파종 후에 흙을 했는데 에 그렇게 될 밧은 별로 없고 주로 파종 한 다음에 그냥 그 사람

52) ‘섬비’는 나무로 만든 씨레를 의미한다. 조 등의 씨앗을 파종하고 땅속에 잘 묻히게 하기 위하여, 나무를 부채꼴로 엮어 소나 말이 끌기도 하고, 사람의 끌기도 하는 제주 특유의 농기구이다.

발로라도 밟아야 돼.)

103020 @ 예.(예.)

103020 #1 계속 경 그렇게 해서 옛날엔 허고. 요즘은 뭐 파종 한 파종 한 후에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서 뭐 허면 돼주만은 옛날에는 옛날 파종 방법은 밧을 소 우마로 이제 같고. 흙을 좀 잘게 부셔가지고 씨를 파종하고 저 발로 밟는 거.(계속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옛날엔 하고. 요즘은 뭐 파종 한 파종 한 후에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서 뭐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옛날 파종 방법은 밧을 소 우마로 이제 같고. 흙을 좀 잘게 부셔가지고 씨를 파종하고 저 발로 밟는 거.)

103020 @ 음.(음.)

103020 #1 게고 섬비질도 허는 경우도 있고. 섬비는 그 한라산에 가면 팡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거친 나무지. 거친 나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돌 같은 거 위에 넣어서 꽂어가면은.(그리고 ‘섬비질’도 하는 경우도 있고. ‘섬비’는 그 한라산에 가면 팡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거친 나무지. 거친 나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돌 같은 거 위에 넣어서 꽂어가면.)

103020 @ 예.(예.)

103020 #1 꽂어가면은 그게 좀 밧도 다듬어질 뿐더러 씨가 완전히 흑하고 골고루 섞여져가지고 좋주게. 하여간 조 파종은 뭐 어려운 거 었어. 비료도 거의 안 줘서 했으니까 옛날에는.(꽂어가면 그게 좀 밧도 다듬어질 뿐더러 씨가 완전히 흑하고 골고루 섞여져가지고 좋지. 하여간 조 파종은 뭐 어려운 거 없어. 비료도 거의 안 줘서 했으니까 옛날에는.)

103021 @ 그럼 조밭 김매기 아까 세 번 한다고?(그럼 조밭 김매기 아까 세 번 한다고?)

103021 #1 초벌, 두벌 세벌 검질 영 매는다.(애벌, 두벌 세벌 김 이렇게 매는데.)

103021 @ 예.(예.)

103021 #1 검질도 검질 그 풀, 잡초도 잡초지만은.(김도 김 그 풀, 잡초도 잡초지만.)

103021 @ 예.(예.)

103021 #1 조를 거 그 간격을, 간격을 어느 정도 한 십 센치 십이 센치 그 간격으로 해야 조가 여물고 거 이삭도 크고 허니까.(조를 거 그 간격을, 간격을 어느 정도 한 십 센치 십이 센치 그 간격으로 해야 조가 여물고 거 이삭도 크고 하니까.)

103021 @ 예.(예.)

103021 #1 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마지막에 경 허고. 처음에는 막 그 베개 심어진 디. 밀씩 췌 것만 뽑앗다가 두 번째는 좀 한꺼번에 다 뽑으면은 그 조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바람에도 쓰러지니까 어느 정도 어 크꼭 완전히 굵고 클 때까지는 거의 붙은 상태로 잇다가 마지막 세 번째 검질 계단 세 번째 검질떨 때는 완전히 그것이 결실 췌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마지막에 그

렇게 하고. 처음에는 막 그 베개 심어진 데. 밀식 된 것만 뽑았다가 두 번째는 좀 한꺼번에 다 뽑으면 그 조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바람에도 쓰러지니까 어느 정도 어 크고 완전히 굽고 클 때까지는 거의 붙은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세 번째 김 그러니 세 번째 김낼 때는 완전히 그것이 결실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103022 @ 그럼 조밭에는 검질들이 뭐, 뭐 нама씨? 종류가?(그럼 조밭에는 김들이 뭐, 뭐 나요? 종류가?)

103022 #1 검질 뭐 여러 가지지 뭐.(김 뭐 여러 가지이지 뭐.)

103022 @ 그니깐 뭐, 뭐 잇어마씨?(그러니까 뭐, 뭐 있어요?)

103022 #1 췌비눔, 뭐 아 뭐 검질은 여러 가지 겨울 검질, 뭐 여름 검질은 절환지, 주로 절환지가 많이 나고.(쇠비름, 뭐 아 뭐 김은 여러 가지 겨울 김, 뭐 여름 김은 바랭이, 주로 바랭이가 많이 나고.)

103022 @ 절환지마씨?(바랭이요?)

103022 #1 어. 절환지, 췌비눔 뭐 춤비눔 뭐 거 옛날 같은 때는 제초제를 안 쓸 때야 속 같은 것도 많이 나고.(어. 바랭이, 쇠비름 뭐 참비름 뭐 거 옛날 같은 때는 제초제를 안 쓸 때야 속 같은 것도 많이 나고.)

103022 @ 예.(예.)

103022 #1 주로 절환지가 많이 제초하는 데 좀 힘들어.(주로 바랭이가 많이 제초하는 데 좀 힘들어.)

10302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23 @ 그럼 조 수확은 이제 다 자라면 수확은 어떻 헤마씨? 옛날은. 지금은 트랙터나 뭐 기계로 허는데. 예전에 그냥 기계 없었을 때.(그럼 조 수확은 이제 다 자라면 수확은 어떻게 해요? 옛날은. 지금은 트랙터나 뭐 기계로 허는데. 예전에 그냥 기계 없었을 때.)

103023 #1 옛날은 헤 오면은.(옛날은 헤 오면.)

103023 @ 예.(예.)

103023 #1 호미, 낫.(호미, 낫.)

103023 @ 예.(예.)

103023 #1 낫으로 이삭을 그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낫으로 이삭을 그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103023 @ 예.(예.)

103023 #1 잘라가지고 발로 밟든지 물방에 거주만은 영 뭐 도리깨로 치던지. 조 장만 허는 거는 조는 워낙 잘 저 건조하면은 탈곡이 잘 돼니까. 방법은 탈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앗간 이용도 허고.(잘라가지고 발로 밟던지 연자방아에 가지만 이렇게 뭐 도리깨로 치던지. 조 장만 하는 거는 조는 워낙 잘 저 건조하면 탈곡이 잘 돼니까. 방법은 탈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앗간 이용도 하고.)

103023 @ 예.(예.)

103023 #1 뭐 도리깨질은 뭐 거의 안 해도 뭐 사람이 밟아서도 허고.(뭐 도리깨

질은 뭐 거의 안 해도 뭐 사람이 밝아서도 하고.)

103024 @ 덩드렁마께⁵³⁾ 들어보셨마씨?(‘덩드렁마께’ 들어보셨어요?)

103024 #1 아 케난 덩드렁마께로 막 해주만은 그거 힘들어가지고.(아 그러니 ‘덩드렁마께’로 막 하지마 그거 힘들어가지고.)

103024 @ 덩드렁마께가 뭐짱?(‘덩드렁마께’가 뭐니까?)

103024 #1 덩드렁마께는 나무토막으로.(‘덩드렁마께’는 나무토막으로.)

103024 @ 예.(예.)

103024 #1 원형 거의 원형 나무토막인데. 나무토막에 손잡이만 가운데로 그 이렇게 나무토막이 원형이 있어.(원형 거의 원형 나무토막인데. 나무토막에 손잡이만 가운데로 그 이렇게 나무토막이 원형이 있으면.)

103024 @ 예.(예.)

103024 #1 이 손 잡는 부분을 또 이렇게 깎아서.(이 손 잡는 부분을 또 이렇게 깎아서.)

103024 @ 예.(예.)

103024 #1 깎아서 만든 거지. 쉽게, 쉽게 표현할 방법이 있나? 이걸 원형이라 하면은. 원형이, 원형이 이 정도 굵어.(깎아서 만든 거지. 쉽게, 쉽게 표현할 방법이 있나? 이걸 원형이라 하면. 원형이, 원형이 이 정도 굵어.)

103024 @ 예.(예.)

103024 #1 이 정도 굵고 길이, 길이도 이 정도 허는데. 여기 손잡이가 붙이는 게 아니고.(이 정도 굵고 길이, 길이도 이 정도 하는데. 여기 손잡이가 붙이는 게 아니고.)

103024 @ 예.(예.)

103024 #1 이 나무 자체를 깎아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만든 게 덩드렁마께주게.(이 나무 자체를 깎아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만든 게 ‘덩드렁마께’지.)

103024 @ 음, 아 기구나예.(음, 아 그렇군요.)

103024 #1 덩드렁마께 하면은. 옛날 짚신을 삼으려면 그 짚, 짚을 순하게.(‘덩드렁마께’ 하면. 옛날 짚신을 삼으려면 그 짚, 짚을 순하게.)

103024 @ 예.(예.)

103024 #1 순하게 하여튼 손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덩드렁마께로 맷돌로 이리 놔가지고 그걸 짚을 부셔가지고. 완전히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짚신도 삼고 그랬주.(순하게 하여튼 손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덩드렁마께’로 맷돌로 이리 놔가지고 그걸 짚을 부셔가지고. 완전히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짚신도 삼고 그랬지.)

103025 @ 음. 그럼 좁쌀은 어떻게 장만해마씨? 좁쌀은?(음. 그럼 좁쌀은 어떻게 장만했어요? 좁쌀은?)

103025 #1 좁쌀사 뭐. 옛날엔 어떻 했는지 모르켜. 기억이.(좁쌀이야 뭐. 옛날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53)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의미한다. 던드렁마께라고도 한다.

103026 @ 그럼 좁쌀로는 보통 뭐해 드션마씨? 밥이나 떡이나 감주나 술.(그럼 좁쌀로는 보통 뭐해 드셨어요? 밥이나 떡이나 감주나 술.)

103026 #1 그러주게. 뭐 오메기떡⁵⁴⁾ 같은 것도 허고 주로.(그러지. 뭐 ‘오메기떡’ 같은 것도 하고 주로.)

103026 @ 예.(예.)

103026 #1 보리밥만은 이 뭐냐 찰지질 얇으니까.(보리밥만은 이 뭐냐 차지질 얇으니까.)

103026 @ 예.(예.)

103026 #1 흐린좁쌀 그 조도 흐린좁쌀 모힌좁쌀 잇주게.(차좁쌀 그 조도 차좁쌀 메좁쌀 있지.)

103026 @ 아.(아.)

103026 #1 흐린좁쌀은.(차좁쌀은.)

103026 @ 예.(예.)

103026 #1 굉장히 차진 거고 모힌좁쌀은 그 저 밥해도 차지질 안 해서. 그 차조쌀 같은 거는 보리밥에 보리쌀에 저 밥을 허다가 한 반 정도 보리가 익으면은 좁쌀을 영 해근엥 넣으면 굉장히 차지고 좀 뭐. 이렇게 수저로 떠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굉장히 차진 거고 메좁쌀은 그 저 밥해도 차지질 안 해서. 그 차좁쌀 같은 거는 보리밥에 보리쌀에 저 밥을 한다가 한 반 정도 보리가 익으면 좁쌀을 이렇게 해서 넣으면 굉장히 차지고 좀 뭐. 이렇게 수저로 떠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103026 @ 음.(음.)

103026 #1 뭐 차져가지고. 맛도 있고. 그게 주로 밥은 보리쌀에 서경 허는 경우가 많고 좁 좁쌀밥만은 거의 안 해 먹고. 어 뭐 어떻게 죽 같은 것도, 죽도 썬 먹을 수도 있고 뭐 주로 어 오메기떡 만들엉 떡도 허고 뭐 여러 가지지 뭐 좁쌀은. 뭐 여튼 보리쌀에 해근엥 주식으로 좀 먹는 게 거의 뭐고. 오메기떡 해근엥 술 만들거나 떡 만드는 거는 여유 있는 집에서나 허는 거고 가난한 집에서는 주로 뭐 주식으로 사용했다 봐야지.(뭐 차져가지고. 맛도 있고. 그게 주로 밥은 보리쌀에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좁 좁쌀밥만은 거의 안 해 먹고. 어 뭐 어떻게 죽 같은 것도, 죽도 썬 먹을 수도 있고 뭐 주로 어 ‘오메기떡’ 만들어서 떡도 하고 뭐 여러 가지지 뭐 좁쌀은. 뭐 하여튼 보리쌀에 해서 주식으로 좀 먹는 게 거의 뭐고. ‘오메기떡’ 해서 술 만들거나 떡 만드는 거는 여유 있는 집에서나 하는 거고 가난한 집에서는 주로 뭐 주식으로 사용했다 봐야지.)

103027 @ 음. 그럼 조 할 때 조짚 남은 거는 뭐에 써마씨?(음. 그럼 조 할 때 조짚 남은 거는 뭐에 쓰요?)

103027 #1 소, 소.(소, 소.)

103027 @ 소?(소?)

54)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동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 낸 떡을 의미한다. 팔고물은 무치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하며, 술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103027 #1 소 사료.(소 사료.)

103027 @ 아, 여물마씨?(아, 여물이요?)

103027 #1 아니. 이제 한우나 옛날 여기 그 소들 소 사료. 소 사료하고 것이 워낙 그 대가 강해 놓으니까.(아니. 이제 한우나 옛날 여기 그 소들 소 사료. 소 사료하고 것이 워낙 그 대가 강해 놓으니까.)

103027 @ 예.(예.)

103027 #1 이파리 부분 연약한 부분은 소가 먹고 나머지 강한 것은 쉼 밑에 깔아주면은 거름으로도 거름으로 사용하고.(이파리 부분 연약한 부분은 소가 먹고 나머지 강한 것은 소 밑에 깔아주면 거름으로도 거름으로 사용하고.)

103028 @ 그럼 조 농사나 할 때 뭐 추억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잊어마씨? 어르신, 옛날에 조 농사 하셨지예?(그럼 조 농사나 할 때 뭐 추억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 어르신, 옛날에 조 농사 하셨지요?)

103028 #1 기억나는 거 뭐 옛날 무슨 그런 특별한 기억은 었고.(기억나는 거 뭐 옛날 무슨 그런 특별한 기억은 없고.)

103028 @ 예.(예.)

103028 #1 조 농사도 여긴 조 농사도 많이 허지도 안 헛어.(조 농사도 여긴 조 농사도 많이 하지도 안 헛어.)

103028 @ 그지예?(그렇지요?)

103028 #1 예, 보리는 보리 그거 정부수매로 해서 판매도 해서 뭐 어떤 학자금도 마련하고 용돈도 쓰고 허주만은. 좁쌀은 거 겨우 이년 자금자족 할 정도를 허지. 거 시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재배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예, 보리는 보리 그거 정부수매로 해서 판매도 해서 뭐 어떤 학자금도 마련하고 용돈도 쓰고 하지만. 좁쌀은 거 겨우 이년 자금자족 할 정도를 허지. 거 시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재배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103028 @ 아.(아.)

103028 #1 거의 뭐 자금자족해서 자기 주식으로 이용허고.(거의 뭐 자금자족해서 자기 주식으로 이용허고.)

103028 @ 예.(예.)

103028 #1 계난 보리허고 틀러가지고.(그러니 보리하고 달라가지고.)

103028 @ 예.(예.)

103028 #1 그 조를 재배해서 어떻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재배는 거의 안 헛고. 그냥 주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헛주.(그 조를 재배해서 어떻게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재배는 거의 안 헛고. 그냥 주신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헛지.)

103028 @ 조 농사도 헛지예?(조 농사도 헛지요?)

103028 #2 계.(그럼.)

103028 @ 조 농사 헛 거 얘기헤 줘서.(조 농사 한 거 얘기헤 주십시오.)

103028 #2 옛날에게 보리 갈 때에 겨울엔 보리 갈고.(옛날에 보리 갈 때에 겨울에는 보리 갈고.)

103028 @ 예.(예.)

103028 #2 여름 나면 조 갈아. 조 갈앙게 조는 장마 지남 영 막 날 좋아야 조가 잘 돼여. 비 와 불면 안 돼고. 경 허민게 농사 다 해뒀게 이월 스무날에 막 쉬고 득 잡아먹고 헛주게.(여름 나면 조 갈아. 조 갈아서 조는 장마 지나서 이렇게 막 날 좋아야 조가 잘 돼. 비 와 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농사 다 해뒀서 이월 스무날에 막 쉬고 닭 잡아먹고 했지.)

103016 @ 그럼 할머니 옛날에 조 농사도 하신마씨?(그럼 할머니 옛날에 조 농사도 하셨어요?)

103016 #4 조도 허고게.(조도 하고.)

103016 @ 아. 그믐 조 농사 하려면 뭐 준비해야 됩마씨? 뭐 필요해마씨?(아. 그러면 조 농사 하려면 뭐 준비해야 되요? 뭐 필요해요?)

103016 #4 조사 강 허여근앵게 그 좁씨 가근앵 삐영 놔뒀다근앵 조 나민 그 쫄리지 말게 막 조는 하영 빼는 거주게.(조야 가서 해서 그 좁씨 가서 뿌려서 놔뒀다가 조 나면 그 쫄지 말게 막 조는 많이 뿌리는 거지.)

103016 @ 음.(음.)

103016 #4 하영 빼면 좇아근앵 좇으민 곡식이 나오지를 안 허여.(많이 뿌리면 좇아서 좇으면 곡식이 나오지를 앓아.)

103016 @ 예.(예.)

103016 #4 그럼 그거 허영 검질메영.(그럼 그거 해서 김매서.)

103016 @ 예.(예.)

103016 #4 몇 번 메여근앵 고고리 나오민 그거 먹어낫주게.(몇 번 매어서 이삭 나오면 그거 먹었었지.)

103017 @ 그럼 조밭 헐 때도 거름 썬수광?(그럼 조밭 할 때도 거름 썬습니까?)

103017 #4 거름? 조는 혼엇이 거름 안 허여도 행 먹언.(거름? 조는 별로 거름 안 해도 해서 먹었어.)

103017 @ 아, 옛날에도 거름은 안 헨마씨? 조밭에는?(아, 옛날에도 거름은 안 했어요? 조밭에는?)

103017 #4 예. 검질만 잘 매면 해 난. 옛날에는.(예. 김만 잘 매면 해 낫어. 옛날에는.)

103017 @ 아. 그럼 조는 거름 잘 안 쓰고.(아. 그럼 조는 거름 잘 안 쓰고.)

103017 #4 어.(어.)

103018 @ 그럼 그 아까 보리는 시월 달에 씨 뿌리는데 조는 언제 갈아마씨?(그럼 그 아까 보리는 시월 달에 씨 뿌리는데 조는 언제 갈아요?)

103018 #4 조는 이 유월 달.(조는 이 유월 달.)

103018 @ 유월 달?(유월 달?)

103018 #4 유월 달 돼 가민.(유월 달 되어 가면.)

103018 @ 아 그럼 저번 달 즈음에 조 갈았겠다예?(아 그럼 저번 달 즈음에 조 갈았겠군요?)

103018 #4 예. 이제 조 갈아근엥 막 날 때주게.(예. 이제 조 갈아서 막 날 때지.)

103018 @ 아, 조 막 날 때마씨?(아, 조 막 날 때예요?)

103018 #4 어.(어.)

103019 @ 그럼 좁씨는 어떻 뿌려마씨?(그럼 좁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19 #4 손으로 영 뿌리주게.(손으로 이렇게 뿌리지.)

103019 @ 아, 손으로 영?(아, 손으로 이렇게?)

103019 #4 어.(어.)

103019 @ 그 보리는 옛날에 거름에 보리씨는 거름에 서경 뿌렸는데 조는 그냥 뿌려마씨?(그 보리는 옛날에 거름에 보리씨는 거름에 섞어서 뿌렸는데 조는 그냥 뿌렸어요?)

103019 #4 어. 조는 그냥 조만.(어. 조는 그냥 조만.)

103020 @ 그럼 조밭도 밟안마씨? 여기는 안 밟안마씨?(그럼 조밭도 밟았어요? 여기는 안 밟았어요?)

103020 #4 막 밟았어 옛날엔.(막 밟았어 옛날에는.)

103020 @ 아, 그럼 뭤로 밟안마씨? 조밭은.(아, 그럼 무엇으로 밟았어요? 조밭은?)

103020 #4 췌로 영 들로 영 사름으로 드러 막 마당추룩 허영 저추룩 제각 밟아 사 조.(소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사람으로 매우 막 마당처럼 해서 저처럼 재각 밟아야 조.)

103020 @ 조는 무사 밟아마씨?(조는 왜 밟아요?)

103020 #4 몰라. 무사사 밟았는지 그냥 드러 뽕려 조 허믄 옛날에는.(몰라. 왜 밟았는지 그냥 매우 밟아 조 하면 옛날에는.)

103020 @ 음.(음.)

103020 #4 이젠 뽕지 안 허연 그저 기계로 짝 갈앙 허는다.(이제는 밟지 안 해 그저 기계로 짝 갈아서 하는데.)

103020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20 #4 어. 옛날엔 막 밟안.(어. 옛날에는 막 밟았어.)

103021 @ 그럼 조밭은 검질은 몇 번 멘마씨?(그럼 조밭은 김은 몇 번 땀어요?)

103021 #4 흔 엇어. 드러 슈으곡 검질 여러 번 메어야.(한 없어. 매우 슈고 김 여러 번 메야.)

103021 @ 아, 조는 여러 번 메야 돼마씨?(아, 조는 여러 번 메야 되요?)

103021 #4 어. 여러 번 메야 돼주게.(어. 여러 번 메야 되지.)

103021 @ 보리는 한두 번 메는데 조는 여러 번 메야 돼마씨?(보리는 한두 번

매는데 조는 여러 번 매야 되요?)

103021 #4 어. 여러 번 매야.(어. 여러 번 매야.)

103022 @ 그럼 조밭에도 검질 막 자라잖아예?(그럼 조밭에는 검 막 자라잖아요?)

103022 #4 아이고 자라고 말고게.(아이고 자라고 말고.)

103022 @ 뭐, 뭐 자라마씨?(뭐, 뭐 자라요?)

103022 #4 옛날은 이제 저 무시거 절라니⁵⁵.(옛날은 이제 저 무엇 바랭이.)

103022 @ 아, 절란지? 제와니?(아, '절란지'? '제외니'?)

103022 #4 어. 숙 그런 거. 여름에 그런 거 나주게.(어. 썩 그런 거. 여름에 그런 거 나지.)

103023 @ 그럼 조 수확은 언제 해마씨?(그럼 조 수확은 언제 해요?)

103023 #4 조 수확은 시월 달. 아니 구월 달 나가면 조 헐 거라.(조 수확인 시월 달. 아니 구월 달 되면 조 할 거야.)

103023 @ 아, 구월 달에?(아, 구월 달에?)

103023 #4 응.(응.)

103023 @ 그럼 수확은 어떻게 헐마씨? 조는?(그럼 수확은 어떻게 했어요? 조는?)

103023 #4 그거 이젠 뭐 기계로도 확확 해도 그땐 호미로 비어다근엥 것도 신 거당 놔둬서.(그거 이제는 뭐 기계로도 확확 해도 그때는 낫으로 베어다가 것도 실어다가 놔둬서.)

103023 @ 예.(예.)

103023 #4 호미 허여근엥 영 앓앙 드러 허는 거라 고고리.(낫으로 해서 이렇게 앓아서 막 하는 거야 이삭.)

103023 @ 음.(음.)

103023 #4 조 코고리 툫앙.(조 이삭 뜯어다가.)

103023 @ 예.(예.)

103023 #4 이제 그거 조 코고리 헐주게. 경 허영 조.(이제 그거 조 이삭 헐지. 그렇게 해서 조.)

103023 @ 경 허영 조 헐 거마씨?(그렇게 해서 조 한 거예요?)

103023 #4 어. 경 허영 조 헐낫주게.(어. 그렇게 해서 조 헐었지.)

103023 @ 예.(예.)

103023 #4 경 허영 그거 드러 물러 왕 딱로 방에에 강.(그렇게 해서 그거 막 말려 와서 따로 방아에 가서.)

103023 @ 예.(예.)

103023 #4 드러 치는 거라.(매우 치는 거야.)

103023 @ 방에에 강?(방아에 가서?)

55) '절라니'는 바랭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제와니, 절란지, 제완지, 제한지'라고도 한다.

103023 #4 어. 경 행 가민 줍쌀도 나오곡.(어. 그렇게 해서 가면 줍쌀도 나오
고.)

103023 @ 방에에 강 줍쌀 나와마씨?(방아에 가서 줍쌀 나와요?)

103023 #4 방에에 가근앵.(방아에 가서.)

103024 @ 그럼 방에에 가기 전에 조 타작도 허지 았아마씨?(그럼 방아에 가기
전에 조 타작도 하지 았아요?)

103024 #4 조 타작은 계메.(조 타작은 글썸.)

103024 @ 예.(예.)

103024 #4 고고리 툃아 놔근앵 그냥 헛주게.(이삭 뜯어 놔서 그냥 헛지.)

103024 @ 아, 고고리 툃아근앵 그냥?(아, 이삭 뜯어서 그냥?)

103024 #4 어.(어.)

103025 @ 그럼 줍쌀도 방에에 강 이렇게 나오는 거마씨?(그럼 줍쌀도 방아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3025 #4 어.(어.)

103025 @ 음.(음.)

103025 #4 방에에 강 줍쌀 내와.(방아에 가서 줍쌀 내와.)

103026 @ 그럼 줍쌀 나오면 그걸로 뭐 헤마씨? 밥 말고 조밥도 헤 먹고.(그럼
줍쌀 나오면 그걸로 뭐 헤요? 밥 말고 조밥도 헤 먹고.)

103026 #4 조밥도 헤 먹고 죽도 썬영 먹고 헛주게.(조밥도 헤 먹고 죽도 썬서
먹고 헛지.)

103026 @ 아, 죽도 썬영 먹고.(아, 죽도 썬서 먹고.)

103026 #4 어.(어.)

103026 @ 그 다음 또. 뭐 떡이나 술 같은 건 엇언마씨?(그 다음 또. 뭐 떡이나
술 같은 건 없었어요?)

103026 #4 아니 그것도 술도 허곡 떡도 허곡계.(아니 그것도 술도 하고 떡도 하
고.)

103026 @ 무슨 술?(무슨 술?)

103026 #4 탁배기게 저 누룩 헤다근앵.(막걸리 저 누룩 헤다가.)

103026 @ 예.(예.)

103026 #4 저 탁배기 헤근앵.(저 막걸리 해서.)

103027 @ 그믄 조짚, 조짚 잇잖아예?(그러면 조짚, 조짚 잇잖아요?)

103027 #4 어.(어.)

103027 @ 조짚은 어떻게 뒤에 썬마씨?(조짚은 어떻게 뒤에 썼어요?)

103027 #4 조짚은 썬 먹엿주게.(조짚은 소 먹엿지.)

103027 @ 아, 썬 먹연?(아, 소 먹엿어요?)

103027 #4 어. 썬출⁵⁶로.(어. 쇠꼴로.)

56) '썬출'은 소먹이로 쓰이는 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3027 @ 보리는 도새기 먹이고 조는 쉼 맥연마씨?(보리는 돼지 먹이고 조는 소 먹였어요?)

103027 #4 도새기도 안 먹이고 그저 도새기 짝 좋주게. 통제에.(돼지는 안 먹이고 그저 돼지 짝 좋지. 돼지우리에.)

103027 @ 예.(예.)

103027 #4 도새기 질르는데 어떤 통제는 물 글르는 거라.(돼지 기르는데 어떤 돼지우리는 물이 고이는 거야.)

103027 @ 아.(아.)

103027 #4 게민 그 보릿낭 드러 놔 주고.(그러면 그 보릿짚 막 놔 주고.)

103027 @ 예.(예.)

103027 #4 경 헛주게.(그렇게 했지.)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 해 보셨마씨? 콩 농사도?(콩 농사도 해 보셨어요? 콩 농사도?)

103029 #1 콩은 농촌에 콩 농사 뭐 다.(콩은 농촌에 콩 농사 뭐 다.)

103029 @ 다 허지마씨?(다 하지요?)

103029 #1 뭐 다 해주마는.(뭐 하지만.)

103029 @ 그럼 콩 농사 물어볼게마씨. 콩 농사 하려면 뭐, 뭐 필요해마씨?(그럼 콩 농사 물어볼게요. 콩 농사 하려면 뭐, 뭐 필요해요?)

103029 #1 그것도 것도 뭐 종자만 허면 되는 거. 콩 농사는 거의 처음에 비료도 안 쓰주게.(그것도 것도 뭐 종자만 하면 되는 거. 콩 농사는 거의 처음에 비료도 안 쓰지.)

103029 @ 아.(아.)

103029 #1 만약에 옛날 허면 보리 끝나면 보리 후작으로 보리에 거름 넣은 걸로 해서 콩은 그대로 넣으니까. 콩이 비옥한 땅 비옥허민 오히려 결실이 안 좋아.(만약에 옛날 하면 보리 끝나면 보리 후작으로 보리에 거름 넣은 걸로 해서 콩은 그대로 넣으니까. 콩이 비옥한 땅 비옥하면 오히려 결실이 안 좋아.)

103029 @ 아.(아.)

103029 #1 콩, 콩이 도장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자라야 결실도 좋고 수확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비료도 안 주고 콩 씨만 뿌려서 그냥 갈면 되는 거.(콩, 콩이 도장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자라야 결실도 좋고 수확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비료도 안 주고 콩 씨만 뿌려서 그냥 갈면 되는 거.)

103030 @ 그럼 콩은 언제 어떻 갈아마씨?(그럼 콩은 언제 어떻게 갈아요?)

103030 #1 것도, 것도 유월절 전후. 옛날엔 유월절 전후 헛는데. 요즘은 어 양력한 유월 이십일서 칠 월 오 일 그 사이에 주로 파종허는데 콩씨 그대로 만약에 그 토양 또 여러 가지 그,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종자를 많이 빼여야 되겠다허면 좀

많이 빠여야 되고 저 이 밧의 경우에는 밧아가 잘 돼니까 적게 빠자고 허민 적게 빠고.(것도, 것도 유월절 전후. 옛날엔 유월절 전후 했는데. 요즘은 어 양력 한 유월 이십일서 칠 월 오 일 그 사이에 주로 파종하는데 콩씨 그대로 만약에 그 토양 또 여러 가지 그,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종자를 많이 부려야 되겠다하면 좀 많이 뿌려야 되고 저 이 밧의 경우에는 밧아가 잘 되니까 적게 뿌리자고 하면 적게 뿌리고.)

103030 @ 예.(예.)

103030 #1 또 경운기로 파종을 하느냐 소로 파종 하느냐 트랙터로 파종하느냐 따라서 또 종자가 좀 더 많이 소요되고 덜 소요되고 허는데.(또 경운기로 파종을 하느냐 소로 파종 하느냐 트랙터로 파종하느냐 따라서 또 종자가 좀 더 많이 소요되고 덜 소요되고 하는데.)

103030 @ 예.(예.)

103030 #1 어, 그건 왜냐면 트랙터로 하면 깊이 묻어 지니까.(어, 그건 왜냐면 트랙터로 하면 깊이 묻어 지니까.)

103030 @ 예.(예.)

103030 #1 밧아 안 되는 밧아, 밧아올이 떨어지니까 많이 빠는 거고.(밧아 안 되는 밧아, 밧아올이 떨어지니까 많이 뿌리는 거고.)

103030 @ 예.(예.)

103030 #1 단지. 저 콩씨만 뿌리면 돼. 비료는 워낙 적박하다고 생각하면 뭐 판 농사에 비해서 십분의 일 정도?(단지. 저 콩씨만 뿌리면 돼. 비료는 워낙 적박하다고 생각하면 뭐 다른 농사에 비해서 십분의 일 정도?)

103031 @ 그럼, 콩밭에 거름은 필요 없어마씨?(그럼, 콩밭에 거름은 필요 없어요?)

103031 #1 계메 글쎄, 거름을 거의 안 줘려 한다니까. 식용으로 하는 콩은.(글쎄, 글쎄, 거름을 거의 안 줘서 한다니까. 식용으로 하는 콩은.)

103032 @ 그럼 콩씨 뿌리는 건 어떻 뿌려마씨?(그럼 콩씨 뿌리는 건 어떻게 뿌려요?)

103032 #1 다 사람 손으로 그리 옛날에 사람 손으로.(다 사람 손으로 그리 옛날에 사람 손으로.)

103032 @ 콩씨도 뭐 이렇게 뿌리는 거마씨?(콩씨도 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103032 #1 것도 한 줌 영 가정강 허는 거게.(것도 한 줌 이렇게 가져가서 하는 거.)

103032 @ 예.(예.)

103032 #1 세 번에 던지는 사람 뭐. 다섯 번에 던지는 사람 자기 재주껏 허는 거지. 재주껏.(세 번에 던지는 사람 뭐. 다섯 번에 던지는 사람 자기 재주껏 하는 거지. 재주껏.)

103032 @ 음.(음.)

103032 #1 게서. 잘 뿌리는 사람은 콩이 발아돼도 일정하게 발아되고 좀 서툰 사람은 막 소식되면은 소식되고 밀식되면은 밀식되고.(그래서. 잘 뿌리는 사람은 콩이 발아돼도 일정하게 발아되고 좀 서툰 사람은 막 소식되면 소식되고 밀식되면 밀식되고.)

103033 @ 그럼 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해마씨? 콩밭은?(그럼 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해요? 콩밭은?)

103033 #1 콩밭 김매기 한 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충 콩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밀식이 되면은.(콩밭 김매기 한 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충 콩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밀식이 되면.)

103033 @ 예.(예.)

103033 #1 콩잎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풀이 안 나.(콩잎이 어느 정도 자라면 풀이 안 나.)

103033 @ 아, 왜 경 허주마씨?(아, 왜 그렇게 하지요?)

103033 #1 어?(어?)

103033 @ 왜 그럼 한 번만 하면 돼마씨? 검질은?(왜 그럼 한 번만 하면 돼요? 검은?)

103033 #1 아니, 검질 한 번 안 매는 사람도 있주만은 한 번만 매면은 거의 콩 해 먹어. 게고 콩이 막 두벌하면은.(아니, 김 한 번 안 매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만 매면 거의 콩 해 먹어. 그리고 콩이 막 두벌하면.)

103033 @ 예.(예.)

103033 #1 소식되고 두벌매면 그 햇빛이 땅에 들어가면은.(소식되고 두벌매면 그 햇빛이 땅에 들어가면.)

103033 @ 예.(예.)

103033 #1 저 잡초가 생기지만은 콩 이파리가 이렇게 더꺼져서 여기 햇빛이 저 그 햇빛이 안 들어가면 잡초가 안 나.(저 잡초가 생기지만 콩 이파리가 이렇게 덜어져서 여기 햇빛이 저 그 햇빛이 안 들어가면 잡초가 안 나.)

103034 @ 그럼 콩밭에만 나는 검질은 따로 엇어마씨? 주로 콩밭에만 많이 나는 검질은?(그럼 콩밭에만 나는 검은 따로 없어요? 주로 콩밭에만 많이 나는 검은?)

103034 #1 거의 마찬가지로 여름 농사 마찬가지로라 여하튼 콩밭에는 췌비늬, 절란지 그런 거 많이 나주게.(거의 마찬가지로 여름 농사 마찬가지로라 여하튼 콩밭에는 쇠비름, 바랭이 그런 거 많이 나지.)

103034 @ 음. 지원제 제완제? 그거는 안 나마씨?(음. ‘지원제’ ‘제완제’? 그거는 안 나요?)

103034 #1 제완제엔 허는 거 절란지 아니?(‘제완제’라고 하는 거 ‘절란지’ 아니?)

103034 @ 아. 여긴 절란지라고 해마씨?(아. 여긴 ‘절란지’라고 해요?)

103034 #1 어.(어.)

103034 @ 고산에서는 제완제라고 하던데마씨. 절환지.(고산에서는 ‘제완제’라고 하던데요. ‘절환지’.)

103034 #1 그거 잔디 모양으로 뭐 허는 건데.(그거 잔디 모양으로 뭐 하는 건데.)

103034 @ 예. 맞아마씨.(예. 맞아요.)

103034 #1 그게 그거주게.(그게 그거지.)

103035 @ 그럼 콩 수확은 어떻 해마씨? 콩 수확은. 다 자란 다음에는?(그럼 콩 수확은 어떻게 해요? 콩 수확은. 다 자란 다음에는?)

103035 #1 옛날에는.(옛날에는.)

103035 @ 예.(예.)

103035 #1 그 일일이 다 손으로 비어가지고 묶어서 뭐 많이 안 할 때는 소로도 밟고 마차로도 굴러근영 허고 도리깨로도 옛날엔 헛지 옛날에는 헛는데.(그 일일이 다 손으로 베어가지고 묶어서 뭐 많이 안 할 때는 소로도 밟고 마차로도 굴러서 하고 도리깨로도 옛날엔 헛지 옛날에는 헛는데.)

103035 @ 예.(예.)

103035 #1 요 기계화 돼고 난 다음에는 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허니까.(요 기계화 되고 난 다음에는 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103035 @ 예.(예.)

103035 #1 콩타기, 콩을 비어서 일정한 장소까지 그 운반했다가 더프면은 콩타기 경운기에 콩타기를 매어가지고.(콩타기, 콩을 비어서 일정한 장소까지 그 운반했다가 덮으면 콩타기 경운기에 콩타기를 매어가지고.)

103035 @ 예.(예.)

103035 #1 그 헛고 요즘은 콤바인으로 그냥 다 허고.(그 헛고 요즘은 콤바인으로 그냥 다 하고.)

103036 @ 그럼 콩으로는 뭐, 뭐 드션마씨? 주로, 예전에는.(그럼 콩으로는 뭐, 뭐 드셨어요? 주로, 예전에는.)

103036 #1 아 그거 콩도 많이 허면 저 뭐 이젠 판매도 허고 돈도 돼지만은.(아 그거 콩도 많이 하면 저 뭐 이제는 판매도 하고 돈도 되지만.)

103036 @ 예.(예.)

103036 #1 옛날에는.(옛날에는.)

103036 @ 예.(예.)

103036 #1 콩 수매가 뭐 정부에서 안 허고 뭐 할 때는.(콩 수매가 뭐 정부에서 안 하고 뭐 할 때는.)

103036 @ 그 뭐 드셨잖아예?(그 뭐 드셨잖아요?)

103036 #1 아, 여튼 옛날 단백질 공급은 웬장으로 헛으니까.(아, 하여튼 옛날 단백질 공급은 된장으로 헛으니까.)

103036 @ 예.(예.)

103036 #1 뉼장이 그 뉼냐 열 식구다 하면 열 말을 뉼장을 담았어.(뉼장이 그 뉼냐 열 식구다 하면 열 말을 뉼장을 담았어.)

103036 @ 아.(아.)

103036 #1 한 사람에 한 말.(한 사람에 한 말.)

103036 @ 음.(음.)

103036 #1 한 말로 해서 뉼 그것이 뉼 반찬도 뉼고, 국도 끓여 먹고 여하튼 영양 보충은 그걸로 해줘야 뉼어. 뉼장으로. 게서 주로 뉼장을 담기 위해서 그 옛날엔 콩을 했고.(한 말로 해서 뉼 그것이 뉼 반찬도 되고, 국도 끓여 먹고 여하튼 영양 보충은 그걸로 해줘야 뉼어. 뉼장으로. 그래서 주로 뉼장을 담기 위해서 그 옛날엔 콩을 했고.)

103036 @ 예.(예.)

103036 #1 뉼 그 웨에 콩가루 해서 뉼 떡도 허고 뉼 허주만은 그건, 그건 여유 잇는 집이 허고 경 안 헌 집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허지만은 그건 뉼 일부고 주로 장, 장을 아니 뉼장 담기 위해서 콩을 파종 했다고 보면 뉼고. 많은 면적을 콩 많은 면적을 파종하기 시작한 것은 한 삼십 년밖에 안 뉼어. 한 삼십 년. 팔십 년대부터는 콩도 제법 소득 사업으로 해서.(뉼 그 외에 콩가루 해서 뉼 떡도 하고 뉼 하지만 그건, 그건 여유 잇는 집이 하고 그렇게 안 한 집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지만 그건 뉼 일부고 주로 장, 장을 아니 뉼장 담기 위해서 콩을 파종 했다고 보면 되고. 많은 면적을 콩 많은 면적을 파종하기 시작한 것은 한 삼십 년밖에 안 뉼어. 한 삼십 년. 팔십 년대부터는 콩도 제법 소득 사업으로 해서.)

103036 @ 예.(예.)

103036 #1 이제 그 정부 수매도 허니까. 게 그게 뉼 뉼는데. 또 그것도 수확도 많이 안 나고 해가지고 저 중간에 예 육십 년대는 콩도 정팔 허던지 콩도 이십 그 심어 심어서 저 수확을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운동까지 벌였는데 그것이 그 노동력에 비해서 어 수입이 따르지 못허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파종 방법도 었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손으로 그냥 막 빼어서 쉽게, 쉽게 농사를 허지. 뉼 처음에 정과 해 놓은 거 하나 하나 간격 딱 유지해근엔 콩을 심는 거주게.(이제 그 정부 수매도 허니까. 게 그게 뉼 뉼는데. 또 그것도 수확도 많이 안 나고 해가지고 저 중간에 예 육십 년대는 콩도 정팔 허던지 콩도 이십 그 심어 심어서 저 수확을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운동까지 벌였는데 그것이 그 노동력에 비해서 어 수입이 따르지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파종 방법도 없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손으로 그냥 막 뿌려서 쉽게, 쉽게 농사를 허지. 뉼 처음에 정과 해 놓은 거 하나 하나 간격 딱 유지해서 콩을 심는 거지.)

103036 @ 예.(예.)

103036 #1 그건 뉼 육지부에서 적, 적은 땅에서 허지. 제주도 같이 널른 땅에는 그게 맞지 았어. 그건 그냥 뉼 꼭 간격 벌영 저 콩씨를 뉼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근엔 가정 뿌린 다음 씨 뿌린 다음에 경운기나 트랙터로 갈양 이제 좀 농사를 하곤

했주.(그건 뭐 옥지부에서 적, 적은 땅에서 하지. 제주도 같이 넓은 땅에는 그게 맞지 않아. 그건 그냥 뭐 꼭 간격 벌려서 저 콩씨를 뿌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가져서 뿌린 다음 씨 뿌린 다음에 경운기나 트랙터로 갈아서 이제 좀 농사를 하곤 했주.)

103037 @ 그럼 콩짚. 농사할 때 콩짚도 나는데 그것도 그냥 소한테 주었인가마씨? 콩짚은 어떻 써마씨?(그럼 콩짚. 농사할 때 콩짚도 나는데 그것도 그냥 소한테 주었어요? 콩짚은 어떻게 써요?)

103037 #1 콩은 그건 연료로 썼주. 연료. 연료로 많이 썼는데.(콩은 그건 연료로 썼지. 연료. 연료로 많이 썼는데.)

103037 @ 예.(예.)

103037 #1 콩에, 콩도 저 소도 먹는 거 소 사료도 이용했주만은 그냥 저 연료로도 연료로도 사용했주. 그 옛날에는 보리짚도 같은 것도 연료로 사용했으니까.(콩에, 콩도 저 소도 먹는 거 소 사료도 이용했지만 그냥 저 연료로도 연료로도 사용했지. 그 옛날에는 보릿짚도 같은 것도 연료로 사용했으니까.)

103037 @ 아.(아.)

103037 #1 재래식 그 부엌해근엥 보리, 보리쪽으로 이제 연료 할 때는 한 사람이 쪽 대기 해야 돼. 그게 그렇게 허곤 허는데. 콩 같은 거. 유채 유채나무 콩나물 같은 것은 연료로 사용하고. 축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재래식 그 부엌해서 보리, 보릿짚으로 이제 연료 할 때는 한 사람이 쪽 대기 해야 되어. 그게 그렇게 하곤 하는데. 콩 같은 거. 유채 유채나무 콩나무 같은 것은 연료로 사용하고. 축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103038 @ 그 콩 농사 최근에는 언제 하셨마씨? 그거 좀 얘기해 줘서.(그 콩 농사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3038 #1 난 농사를 빨리 그만둔 사람이니까.(난 농사를 빨리 그만둔 사람이니까.)

103038 @ 아. 그럼 예전에는?(아. 그럼 예전에는?)

103038 #1 콩 농사 아니. 한 칠십 전에는 조금 했주. 칠십. 한 육 칠년 전까지는.(콩 농사 아니. 한 칠십 전에는 조금 했지. 칠십. 한 육 칠년 전까지는.)

103038 @ 그럼 얼마 안 돼신게마씨.(그럼 얼마 안 되셨네요.)

103038 #1 으. 그 때까지는 했는데. 그 콩 농사도 그 비옥해근엥 거름을 잘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감자 후작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어. 그 때까지는 했는데. 그 콩 농사도 그 비옥해서 거름을 잘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감자 후작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103038 @ 예.(예.)

103038 #1 콩이 도장해가지고 그 열매가 달리긴 달려도.(콩이 도장해가지고 그 열매가 달리긴 달려도.)

103038 @ 예.(예.)

103038 #1 그것이 에 뭐라고 표현하면 돼나. 그 정상적으로 콩이 자라질 않아. 콩이 안 돼어가지고 썩어버리던가 아니면 어 그 저 뭐냐 잘 익지 않아가지고.(그것이 에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 그 정상적으로 콩이 자라질 않아. 콩이 안 돼어가지고 썩어버리던가 아니면 어 그 저 뭐냐 잘 익지 않아가지고.)

103038 @ 음.(음.)

103038 #1 콩이 다 다 저 시기적으로는 시월말 돼면은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시월말까지도 콩이 퍼렁해근영 익지를 않아. 게니깐 그걸 상품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붙고 판매도 못 허고 식용으로 안 돼고. 그게 그런 그런 그 폐작 될 우려도 많주.(콩이 다 다 저 시기적으로는 시월말 되면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시월말까지도 콩이 퍼래서 익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걸 상품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판매도 못 하고 식용으로 안 되고. 그게 그런 그런 그 폐작 될 우려도 많지.)

103038 @ 아.(아.)

103038 #1 그 저 뭐냐 감자 후작에 그 그런 경우가 많은 데 거름이 많은 밭. 게니깐 그 콩은 거름을 안 줘 같아야 돼지. 거름을 안 주주마는 거름은 그 XX는 안 허지만은 이제 전작에, 전작에 거름이 그대로 후작까지 저 이월 돼가지고 어 콩이 도장허면은 결실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식용 가치도 떨어지고.(그 저 뭐냐 감자 후작에 그 그런 경우가 많은 데 거름이 많은 밭. 그러니까 그 콩은 거름을 안 줘서 같아야 돼지. 거름을 안 주지만 거름은 그 XX는 안 허지만 이제 전작에, 전작에 거름이 그대로 후작까지 저 이월 되가지고 어 콩이 도장하면 결실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식용 가치도 떨어지고.)

103038 @ 음.(음.)

103038 #1 게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지 많아. 주로 감자 농사 후작으로 하면은.(그게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지 많아. 주로 감자 농사 후작으로 하면.)

103038 @ 그럼 콩 농사는 하신마씨? 옛날에?(그럼 콩 농사는 하셨어요? 옛날에?)

103038 #2 콩 농사는 장마 전이 같아. 같아근영 이제 이제 비여. 우리도 조금 싹당 비젠 허는디.(콩 농사는 장마 전에 같아. 같아서 이제 이제 베어. 우리도 조금 있다가 비려고 하는데.)

103038 @ 음.(음.)

103038 #2 비영 옛날은이 옛날은 비여근영 도깨로 두드렸주만은 지금은게 기계로 햅주게.(베어서 옛날은 옛날은 베어서 도리깨로 두드렸지만 지금은 기계로 하고 있지.)

103029 @ 할머니 그럼 혹시 보리, 조 말앙 콩 농사도 헛수광?(할머니 그럼 혹시 보리, 조 말고 콩 농사도 했습니까?)

103029 #4 콩 농사도 허고 말고.(콩 농사도 하고 말고.)

103029 @ 콩 농사는 뭐 필요해마씨?(콩 농사는 뭐 필요해요?)

103029 #4 콩 허민게 콩죽도 행 먹고 장도 장 장.(콩 하면 콩죽도 해서 먹고 장

도 장 장.)

103029 @ 장도 만들곡.(장도 만들고.)

103029 #4 어.(어.)

103029 @ 그럼 콩 농사 허려면 어떻 콩씨만 잇이민 돼마씨?(그럼 콩 농사 허려면 어떻게 콩씨만 있으면 되요?)

103029 #4 게 콩씨만 잇이민 돼 그건.(그럼 콩씨만 있으면 돼 그건.)

103030 @ 아, 그럼 콩은 언제 갈아마씨?(아, 그럼 콩은 언제 갈아요?)

103030 #4 콩도 이 이 때에 갈아근엥 이제 막 더벅더벅 날 거주게.(콩도 이 이 때에 갈아서 이제 막 더벅더벅 날 거지.)

103030 @ 한 칠월에?(한 칠월에?)

103030 #4 아니. 유월 들에.(아니. 유월 달에.)

103030 @ 지금 칠월 아니짱?(지금 칠월 아닙니까?)

103030 #4 계메.(글쎄.)

103030 @ 아, 유월에 콩도? 그럼 조랑 조도 유월에 콩도 유월에?(아, 유월에 콩도? 그럼 조랑 조도 유월에 콩도 유월에?)

103030 #4 예.(예.)

103031 @ 콩에도 밧에 거름 뿌렸수광? 옛날에?(콩에도 밧에 거름 뿌렸습니까? 옛날에?)

103031 #4 아니.(아니.)

103031 @ 거름 안 헨마씨?(거름 안 했어요?)

103031 #4 콩은 거름 혼엇이 아니 들어.(콩은 거름 별로 안 들어.)

103032 @ 그럼 콩씨는 어떻 뿌려마씨? 그냥 이렇게 손으로?(그럼 콩씨는 어떻게 뿌려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103032 #4 콩 그냥 저 손으로 영 허영 뿌리주게.(콩 그냥 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지.)

103032 @ 아. 좀 그래도 일정하게 이렇게 씨 뿌려야 돼지 앓아마씨?(아. 좀 그래도 일정하게 이렇게 씨 뿌려야 되지 앓아요?)

103032 #4 일정허게 뿌리지주게 영 콩씨 뿌리멍 영 나가멍.(일정하게 뿌려지지 이렇게 콩씨 뿌리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103032 @ 그럼 그 콩씨 뿌릴 때는 어디에 담양 콩씨 뿌려마씨?(그럼 그 콩씨 뿌릴 때는 어디에 담아서 콩씨 뿌렸어요?)

103032 #4 담는 거사 옛날은 멩텅이에도 허곡 이젠 이 다라⁵⁷⁾에도 영 헤근엥.(담는 거야 옛날은 망태기에도 하고 이제는 이 대야에도 이렇게 해서.)

103032 @ 아, 다라에도 허곡.(아, 대야에도 하고.)

103032 #4 어. 다라에 영 옆갈리에 허영.(어. 대야에 이렇게 옆구리에 해서.)

103033 @ 음. 그럼 콩밭에도 김매기 그 검질메마씨?(음. 그럼 콩밭에도 김매기

57) '다라'는 일본어 '罎:たらい'로 대야를 말한다.

그 김매요?)

103033 #4 어. 검질메고 말고.(어. 김매고 말고.)

103033 @ 몇 번 메마씨? 콩밭에는?(몇 번 매요? 콩밭에는?)

103033 #4 콩밭 흔 번만 메민 돼여.(콩밭 한 번만 매면 돼.)

103034 @ 아, 한 번만 매면 돼마씨. 그럼 콩밭에도 여러 가지 김 검질이 나마씨? 어떤 거?(아, 한 번만 매며 되요. 그럼 콩밭에도 여러 가지 김 김이 나요?)

103034 #4 어. 여러 가지 나. 여름에 난 절좌니 곱은 거.(어. 여러 가지 나. 여름에 난 '절좌니' 곱은 거.)

103034 @ 예.(예.)

103034 #4 숙 곱은 거 막 어지렁흔 것들 나.(숙 곱은 거 막 어지러운 것들 나.)

103034 @ 아, 어지렁흔 것들 나?(아, 어지러운 것들 나?)

103034 #4 어.(어.)

103035 @ 그믐 콩 수확은 어떻 해마씨?(그러면 콩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35 #4 콩 수확은.(콩 수확은.)

103035 @ 언제?(언제?)

103035 #4 콩 수확도 이 2월 들어근엥게 시월 달 돼 가민.(콩 수확도 이 가을 들어서 시월 달 되 가면.)

103035 @ 예.(예.)

103035 #4 시월 달 돼 가민 몬딱 비주게. 시월 달 전이 비주게게.(시월 달 되 가면 전부 베지. 시월 달 전에 베지.)

103035 @ 아, 시월 달 전이 다 비어마씨?(아, 시월 달 전에 다 베어요?)

103035 #4 어. 다 비영.(어. 다 비어서.)

103035 @ 뭘로 호미로?(무엇으로 낫으로?)

103035 #4 호미로도 꺾으곡.(낫으로도 꺾으고.)

103035 @ 그 어떻 꺾어마씨?(그 어떻게 꺾어요?)

103035 #4 호미로 영 허영 똑똑 하게 꺾으면 막 바삭 익으면 똑똑 하게 두드려 가면 꺾어지주게.(낫으로 이렇게 해서 똑똑 하게 꺾으면 막 바삭 익으면 똑똑 하게 두드려 가면 꺾어지지.)

103035 @ 아, 그럼 그 다음에 꺾은 다음에는 어떻 해야 돼마씨?(아, 그럼 그 다음에 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103035 #4 꺾은 다음에는 탈곡기로.(꺾은 다음에는 탈곡기로.)

103035 @ 예.(예.)

103035 #4 탈곡기 헤다근엥 그것에 영 담아근엥.(탈곡기 해다가 그것에 이렇게 담아서.)

103035 @ 아, 탈곡기로 헨마씨?(아, 탈곡기로 했어요?)

103035 #4 어.(어.)

103035 @ 옛날에도 탈곡기 잇엇수광?(옛날에도 탈곡기 잇엇습니까?)

103035 #4 스몯 옛날에는 엇엇지만은.(사몯 옛날에는 없엇지만.)
 103035 @ 예.(예.)
 103035 #4 우리 옛날은게 영 도께로 두드리고.(우리 옛날은 이렇게 도리께로 두드리고.)
 103035 @ 예. 그거 곱아 줍서. 도께로?(예. 그거 말해 주십시오. 도리께로?)
 103035 #4 어. 도께로 두드리고.(어. 도리께로 두드리고.)
 103035 @ 예.(예.)
 103035 #4 그 다음에 탈곡기 낫주게. 이디 오난 나 이디 오난 농사짓으난 탈곡기 난 거라.(그 다음에 탈곡기 생겼지. 여기 오니까 나 여기 오니까 농사지으니까 탈곡기 생긴 거야.)
 103035 @ 아. 그 전에는 도께로 하고?(아. 그 전에는 도리께로 하고?)
 103035 #4 그 전이는 우린 도께로 마당에 뉘싸 놓으멍 도께로 두드련.(그 전에는 우리는 도리께로 마당에 뒤집어 놓으면서 도리께로 두드렸어.)
 103036 @ 그럼 콩 이제 도께로 두드렁 나오민 콩으로는 뭐 해 먹언마씨?(그럼 콩 이제 도리께로 두드려서 나오면 콩으로는 뭐 해 먹엇어요?)
 103036 #4 콩게 장도 해 먹곡.(콩 장도 해 먹고.)
 103036 @ 장도 해 먹고.(장도 해 먹고.)
 103036 #4 곱아근엿 죽도 썩영 먹곡.(갈아서 죽도 썩어서 먹고.)
 103036 @ 죽도 썩영 먹고?(죽도 썩어서 먹고?)
 103036 #4 어.(어.)
 103037 @ 그른 콩도 이렇게 하면 콩짚 남잖아예? 그것도 쉼 쥐마씨? 콩짚은 뭐에 씨마씨?(그러면 콩도 이렇게 하면 콩짚 남잖아요? 그것도 소 쥐요? 콩짚은 뭐에 씨요?)
 103037 #4 콩짚은 쉼.(콩짚은 소.)
 103037 @ 아, 쉼. 쉼가 조 꺽질도 조짚도 먹고 콩짚도 먹는 거마씨?(아, 소. 소가 조 꺽질도 조짚도 먹고 콩짚도 먹는 거예요?)
 103037 #4 예. 콩 꺽질도 먹곡.(예. 콩 꺽질도 먹고.)

밭벼 농사

103039 @ 밧벼 농사도 줍 물어보젠 험신디예. 밧벼 농사.(밭벼 농사도 줍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밧벼 농사.)
 103039 #1 밧벼 농사 난 안 해봤인디.(밭벼 농사 난 안 해봤는데.)
 103039 @ 아는 것만 곱아 줍서. 밧벼 농사 할 때 뭐가 필요하카마씨?(아는 것만 말해 주십시오. 밧벼 농사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103039 #1 아무것도 필요 엇어. 씨만 뿌리면 돼고. 비료, 비료허고 씨랑.(아무것도 필요 없어. 씨만 뿌리면 되고. 비료, 비료하고 씨랑.)
 103039 @ 그럼 옛날에는 밧벼 씨는 어디서 샅거나 어디서 받안마씨?(그럼 옛날

에는 밭벼 씨는 어디서 샀거나 어디서 받았어요?)

103039 #1 아주 옛날에는 뭐 ○○○○로 헛주 뭐. 한 우리 결혼 전이 그 때는 뭐 옛날에 그 때는 어 육지에서 뭐 쌀이 들어온 때도 아니고.(아주 옛날에는 뭐 ○○○○로 했지 뭐. 한 우리 결혼 전에 그 때는 뭐 옛날에 그 때는 어 육지에서 뭐 쌀이 들어온 때도 아니고.)

103039 @ 예.(예.)

103039 #1 저 제사를 해 먹기 위해서 밭벼는 꼭 같았으니까.(저 제사를 해 먹기 위해서 밭벼는 꼭 같았으니까.)

103039 @ 아, 예.(아, 예.)

103039 #1 밭벼는 좀 같았으니까. 그건 그 당시에는 농약도 엇지. 이 뭐 여기 같이 관정도 엇지 허니까.(밭벼는 좀 같았으니까. 그건 그 당시에는 농약도 없지. 이 뭐 여기 같이 관정도 없지 하니까.)

103039 @ 예.(예.)

103039 #1 우선 그 하늘에 맏기는 거라. 농사를. 파종만 헌 다음에는.(우선 그 하늘에 맏기는 거야. 농사를. 파종만 한 다음에는.)

103039 @ 아. (아.)

103039 #1 파종 헌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어느 정도 와주면은 밭벼가 되는 거고 가물면 안 되고.(파종 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어느 정도 와주면 밭벼가 되는 거고 가물면 안 되고.)

103040 @ 그럼 밭벼는 언제 어떻게 갈아마씨?(그럼 밭벼는 언제 어떻게 갈아요?)

103040 #1 삐죽새 울기 시작하면 간다고 그래.(삐죽새 울기 시작하면 간다고 그래.)

103040 @ 아.(아.)

103040 #1 양력으로 한 오 월 십 일. 오 월 십 일경에 파종하고. 어떻게 가는 거는.(양력으로 한 오 월 십 일. 오 월 십 일경에 파종하고. 어떻게 가는 거는.)

103040 @ 예.(예.)

103040 #1 벼, 볍씨 이제 보리 가는 식으로 볍씨 뿌려 놔근앵.(벼, 볍씨 이제 보리 가는 식으로 볍씨 뿌려 놔서.)

103040 @ 음.(음)

103040 #1 보리 가는 식으로 뭐 쟁기 같고 흑 흑 골라주고.(보리 가는 식으로 뭐 쟁기 같고 흑 흑 골라주고.)

103041 @ 밭벼 밭 거름은 뭐 따로 엇인가마씨?(밭벼 밭 거름은 뭐 따로 없나요?)

103041 #1 옛날엔 거름이 없었주. 거의 그냥, 그냥.(옛날엔 거름이 없었지. 거의 그냥, 그냥.)

103041 @ 그냥?(그냥?)

103041 #1 계난 요즘도 계속 연작도 앓고 뭐 허니까 요즘 토양보다는 그 당시

는 그 토양 자체적으로 좀 힘이 있었주.(그러니 요즘도 계속 연작도 않고 뭐 하나까
요즘 토양보다는 그 당시는 그 토양 자체적으로 좀 힘이 있었지.)

103042 @ 그럼 밭벼씨 뿌리는 거는 또 따로 어떻게 뿌리는 거 잊어마씨?(그럼 밭
벼씨 뿌리는 거는 또 따로 어떻게 뿌리는 거 없어요?)

103042 #1 아, 다 뭐 이제도 거의 다 손으로 뿌려.(아, 다 뭐 이제도 거의 다 손
으로 뿌려.)

103042 @ 밭벼씨도마씨?(밭벼씨도요?)

103042 #1 어. 보리도 뭐 보리씨도 마찬가지로주게.(어. 보리도 뭐 보리씨도 마찬
가지이지.)

103043 @ 그럼 밭벼밭은 그 검질 몇 번 메마씨?(그럼 밭벼밭은 그 김 몇 번 매
요?)

103043 #1 그건 뭐.(그건 뭐.)

103043 @ 예.(예.)

103043 #1 그건 뭐. 밭벼씨가.(그건 뭐. 밭벼씨가.)

103043 @ 예.(예.)

103043 #1 밭벼씨가 저 파종할 때.(밭벼씨가 저 파종할 때.)

103043 @ 예.(예.)

103043 #1 물이 어느 정도 맞고 파종해서 한 십오일 간 저 뭐냐 한 일주일 이
상 그 날씨가 좋아 불면.(물이 어느 정도 맞고 파종해서 한 십오일 간 저 뭐냐 한
일주일 이상 그 날씨가 좋아 버리면.)

103043 @ 예.(예.)

103043 #1 검질이 덜 나고.(김이 덜 나고.)

103043 @ 음.(음.)

103043 #1 파종해근엥 금방 뭐 비 와 불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검질은 뭐 다섯
번도 났 수 있고 한두 번도 났 수 있고 허니까 그 몇 번 메는 기준은 엇고.(파종해
서 금방 뭐 비 와 버리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김은 뭐 다섯 번도 났 수 있고 한두
번도 났 수 있고 하나까 그 몇 번 메는 기준은 없고.)

103043 @ 기준은 엇고.(기준은 없고.)

103044 @ 그럼 밭벼밭에는 거기도 똑같이 다른 검질 종류는 새로운 건 엇일까
마씨?(그럼 밭벼밭에는 거기도 똑같이 다른 김 종류는 새로운 건 없을까요?)

103044 #1 거기도 절환지허고 복쿨.(거기도 바랭이하고 깨풀.)

103044 #1 아.(아.)

103044 #1 절환지, 복쿨 뭐 그런 정도.(바랭이, 깨풀 뭐 그런 정도.)

103044 @ 복쿨?(깨풀?)

103044 #1 어. 복쿨.(어. 깨풀.)

103044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45 @ 그른 밭벼 수확은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마씨? 수확은?(그러면 밭벼 수

확은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수확은?)

103045 #1 밭벼 수확은 그 옛날엔.(밭벼 수확은 그 옛날에는.)

103045 @ 옛날에마씨?(옛날에요?)

103045 #1 옛날에 저 그.(옛날에 저 그.)

103045 @ 베는 것부터 곱아 줍서.(베는 것부터 말해 주십시오.)

103045 #1 아, 게 그거.(아, 그게 그거.)

103045 @ 예.(예.)

103045 #1 호미로 그건 옛날엔 그거 비고.(낫으로 그건 옛날에는 그거 베고.)

103045 @ 예. 그 다음에 묶으시예?(예. 그 다음에 묶지요?)

103045 #1 그거 묶어근영.(그거 묶어서.)

103045 @ 예.(예.)

103045 #1 그 옛날 보리 장만하는 식으로 틀이 있어.(그 옛날 보리 장만하는 식으로 그네가 있어.)

103045 @ 아.(아.)

103045 #1 밭벼 홀트는 틀.(밭벼 훑는 그네.)

103045 @ 홀트는 틀마씨?(훑는 그네요?)

103045 #1 어. 홀트는 틀로 틀어가지고 뭐 그건 좀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게 하는 사람은 발로 비벼서 그 에 ㄱ시락이엔 허나?(어. 훑는 그네로 훑아가지고 뭐 그건 좀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게 하는 사람은 발로 비벼서 그 에 까끄라기라고 하나?)

103045 @ 예.(예.)

103045 #1 저 보리에는 ㄱ시락이 맞는데 그 그런 말이 손으로 발로 비벼서 적게 하는 사람은 그걸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 탈곡하는 것은 그 연자방아도 연자방아지만 그.(저 보리에는 까끄라기가 맞는데 그 그런 말이 손으로 발로 비벼서 적게 하는 사람은 그걸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 탈곡하는 것은 그 연자방아도 연자방아지만 그.)

103045 @ 물방에?(연자방아에?)

103045 #1 집집마다 요만씩 한 그 요런.(집집마다 요만씩 한 그 요런.)

103045 @ 맷돌마씨?(맷돌이요?)

103045 #1 맷돌이 아니고 그것도 방아지 방아. 이렇게 절구, 절구통. 절구통에 놔서 쌀, 쌀을 영 찍어서 쌀 만들어가지고 먹었주. 절구통에서.(맷돌이 아니고 그것도 방아지 방아. 이렇게 절구, 절구통. 절구통에 놔서 쌀, 쌀을 이렇게 찍어서 쌀 만들어가지고 먹었지. 절구통에서.)

103046 @ 그럼 밭벼쌀로는 그냥 보통 밥이나 떡 만들었인가마씨? 밭벼쌀로는 뭐 만들었마씨?(그럼 밭벼쌀로는 그냥 보통 밥이나 떡 만들었어요? 밭벼쌀로는 뭐 만들었어요?)

103046 #1 옛날, 옛날에는.(옛날, 옛날에는.)

103046 @ 예.(예.)

103046 #1 제사 때.(제사 때.)

103046 @ 예.(예.)

103046 #1 우리 뭐 한 어렸을 때 우리 뭐 한, 한 삼십대까지도.(우리 뭐 한 어렸을 때 우리 뭐 한, 한 삼십대까지도.)

103046 @ 예.(예.)

103046 #1 제사하고 명절 때 아니면 쌀밥을 못 먹어서. 밭벼 밥도. 계란 그거 그냥 고스란히 저장해 두었다가 제사 때 떡도 허고.(제사하고 명절 때 아니면 쌀밥을 못 먹어서. 밭벼 밥도. 그러니 그거 그냥 고스란히 저장해 두었다가 제사 때 떡도 하고.)

103046 @ 아.(아.)

103046 #1 제삿밥 하고 그러지.(제삿밥 하고 그러지.)

103047 @ 그럼 밭벼짚은 뭘로 사용하마씨?(그럼 밭벼짚은 뭘로 사용해요?)

103047 #1 그건 사료, 그건 백 프로 사료로 사용해주게.(그건 사료. 그건 백 프로 사료로 사용하지.)

103048 @ 밭벼 농사는 안 해보셨마씨?(밭벼 농사는 안 해보셨어요?)

103048 #2 응?(응?)

103048 @ 밭벼 농사. 밭벼 농사.(밭벼 농사. 밭벼 농사.)

103048 #2 벼?(벼?)

103048 @ 예. 밭벼, 밭벼. 논에서 허는 거 말고. 밭벼.(예. 밭벼, 밭벼. 논에서 하는 거 말고. 밭벼.)

103048 #2 해 낫주게. 밭벼도.(해 낫지. 밭벼도.)

103048 @ 아, 밭벼는 어떻 헨마씨?(아, 밭벼는 어떻게 했어요?)

103048 #2 밭이 그 씨 뿌렁 갈앙.(밭에 그 씨 뿌려서 갈아서.)

103048 @ 예.(예.)

103048 #2 물 줘. 물 줘. 물 이제 잇이난.(물 줘. 물 줘. 물 이제 있으니까.)

103048 @ 예.(예.)

103048 #2 이제도 들어 허고 옛날도 헛주게. 여기는 논이 엇어. 밭들이 다 높아. 높은 데라 부난. 논이 엇이난 말제들은 밭이 나록 갈아근앵 물만 줏주게. 이제 막 물만 황황 나난 물이. 계난게 물주민게 나록이 되는 거주게. 물 줘.(이제도 들어 하고 옛날도 헛지. 여기는 논이 엇어. 밭들이 다 높아. 높은 데라 버리니까. 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밭에 벼 갈아서 물만 줏지. 이제 막 물만 황황 나니까 물이. 그러니 물주면 벼가 되는 거지. 물 줘.)

103039 @ 할머니 그럼 밭벼 농사도 헛수광?(할머니 그럼 밭벼 농사도 헛었습니까?)

103039 #4 어?(어?)

103039 @ 밭벼 농사. 밭벼.(밭벼 농사. 밭벼.)

103039 #4 벼농사는 논 신 사람은 허곡 논 엇인 사람은 못 헛주게.(벼농사는 논 있는 사람은 하고 논 없는 사람은 못 했지.)

103039 @ 아. 게니깐 할머니는 헤 보신 적 잇어마씨?(아. 그러니까 할머니는 헤 보신 적 잇어요?)

103039 #4 이디 오난게 저 박 대통령.(여기 오니까 저 박 대통령.)

103039 @ 예.(예.)

103039 #4 박정희 나온 후에 이제 밧에 나록 헤낫주게.(박정희 나온 후에 이제 밧에 벼 했었지.)

103039 @ 아. 게난 밧벼 말앙 나록 헤난?(아. 그러니 밧벼 말고 벼 했어요?)

103039 #4 어. 그때에 물 스뭇 올려주난게 경 행 쓸밥 먹젠 그걸 허민 쓸밥이라 이젠.(어. 그때에 물 사뭇 올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쌀밥 먹으려고 그걸 하면 쌀밥이야 이젠.)

103039 @ 예. 곤밥이지예?(예. 흰밥이지요?)

103039 #4 곤밥. 옛날은 곤밥이 어디 셔게.(흰밥. 옛날은 흰밥이 어디 있어.)

103039 @ 그니까예. 그럼 그 나록은 뭐 언제 갈아마씨? 그건?(그러니까요. 그럼 그 벼는 뭐 언제 갈아요? 그건?)

103039 #4 그거?(그거?)

103039 @ 예.(예.)

103039 #4 언제 스월 달에 헛인가.(언제 사월 달에 했었나.)

103039 @ 아, 그거 사월 달에?(아, 그거 사월 달에?)

103039 #4 어.(어.)

103039 @ 그러면 그것도 영 거름이 필요해마씨?(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거름이 필요해요?)

103039 #4 것도 걸름이 필요허주게.(것도 거름이 필요하지.)

103039 @ 무슨 거름 어떻 그건 어디서 낫수광?(무슨 거름 어떻게 그건 어디서 낫습니까?)

103039 #4 걸름 비료나 허여근엥 빼영 물 받아근엥 스뭇 밧이 싱것주게. 나록 내어 낫다근엥 그거 매여다근엥.(거름 비료나 해서 뿌려서 물 받아서 사뭇 밧에 심었지. 벼 내어 낫다가 그거 매어다가.)

103039 @ 예.(예.)

103039 #4 경 행 싱진. 혼 몇 년 헤 먹었어.(그렇게 해서 심었어. 한 몇 년 헤 먹었어.)

103039 @ 아. 몇 년 헤 먹언마씨?(아. 몇 년 헤 먹었어요?)

103039 #4 이제 이제는 경 안 허여근엥 물만 밧앙 나록들 험서. 씨만 빼영.(이제 이제는 그렇게 안 해서 물만 받아서 벼들 하고 있어. 씨만 뿌려서.)

103039 @ 아, 씨만 빼영?(아, 씨만 뿌려서?)

103039 #4 어. 우리 옛날에도 물 밧앙 막 스뭇 그거 논 다 허영.(어. 우리 옛날

에도 물 받아서 막 사뭇 그거 논 다 해서.)

103039 @ 예.(예.)

103039 #4 허영 헛인디 이젠 맛이 허여근엥 나룩씨만 빠민 물 맛이 들어오난.
(해서 했는데 이제는 밭에 해서 범씨만 뿌리면 물 밭에 들어오니까.)

103039 @ 예.(예.)

103039 #4 계난 이제 물 받아근엥 나룩들 해 먹엄서.(그러니 이제 물 받아서 벼
들 해 먹고 있어.)

103039 @ 그럼 나룩은 어떻 뿌려마씨? 나룩도 그냥 손으로?(그럼 벼는 어떻게
뿌려요? 벼도 그냥 손으로?)

103039 #4 손으로 그냥 나룩씨도 그냥 손으로.(손으로 그냥 범씨도 그냥 손으
로.)

103039 @ 그럼 나룩은?(그럼 벼는?)

103039 #4 요새에 기계들 잇이난 기계 신 사람은 기계로 짝짝 행 허곡.(요새에
기계들 잇으니까 기계 있는 사람은 기계로 짝짝 해서 하고.)

103039 @ 예. 기계 말양 그냥 옛날 헛던 얘기.(예. 기계 말고 그냥 옛날 헛던
얘기.)

103039 #4 어. 옛날 옛날은 그냥 손으로 헛주게.(어. 옛날 옛날은 그냥 손으로
헛지.)

103039 @ 그럼 검질은 몇 번 멘마씨? 나룩은?(그럼 김은 몇 번 땀어요? 벼는?)

103039 #4 그거? 스뭇 가근엥 싱그민 드러 검질메주고 경 허멍 것도 많이 공
들어.(그거? 사뭇 가서 심으면 막 김매주고 그렇게 하면서 것도 많이 공들여.)

103039 @ 그럼 몇 번 매는 거마씨?(그럼 몇 번 매는 거예요?)

103039 #4 그거 몇 번 잇어? 이녀 착하영 일 허젠 허는 사람은 들어강 허민 곡
석 더 잘 나고.(그거 몇 번 잇어? 자기 착해서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하
면 곡식 더 잘 나고.)

103039 @ 아.(아.)

103039 #4 일 바뻡 못 헛 사람은 곡식 잘 아니 나고 손 아니 보믄 아니 나는
거.(일 바빠서 못 헛 사람은 곡식 잘 안 나고 손 안 보면 안 나는 거.)

103039 @ 아, 기구나예. 그럼 나룩 검질 잇잖아예? 나룩에도 검질은?(아, 그렇
군요. 그럼 벼 김 있잖아요? 벼에도 김은?)

103039 #4 검질 계메 그거 손 잘 보는 사람은.(김 글썸 그거 손 잘 보는 사람
은.)

103039 @ 예.(예.)

103039 #4 곡식 좋게 잘 해 먹곡 손 못 보믄 뵈도 못 허여.(곡식 좋게 잘 해 먹
고 손 못 보면 뵈도 못 해.)

103039 @ 그러니까 언제 어떤 거 자라마씨? 거기도 제와니? 절환지?(그러니까
언제 어떤 거 자라요? 거기도 ‘제와니’? ‘절환지’?)

103039 #4 절좌니도 나고 무슨?('절좌니'도 나고 무슨?)

103039 @ 진풀?(별꽃?)

103039 #4 진풀 곁은 건 흔엇이 안 날 거라. 이진 마른 밧이 나는 거난.(별꽃 같은 건 별로 안 날 거야. 이진 마른 밧에 나는 거니까.)

103039 @ 아. 나룩에는 안 нама씨?(아. 벼에는 안 나요?)

103039 #4 어. 검질도 드러 요새 지장 ㄱ튼 것도 지장도 나고.(어. 김도 막 요새 기장 같은 것도 기장도 나고.)

103039 @ 지장? 지장은 뭐짱? 어떻 생긴 거마씨?(기장? 기장은 뭐입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103039 #4 요새게 좁쌀 닳은 지장들 요새 가난 비엄실 거라. 지장.(요새 좁쌀 닳은 기장들 요새 가니까 베고 있을 거야. 기장.)

103039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39 #4 그런 거.(그런 거.)

103039 @ 예.(예.)

103039 #4 흔 흔 번씩 그저 나는 거라.(한 한 번씩 그저 나는 거야.)

103039 @ 나룩 수확은 어떻 헤마씨?(벼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39 #4 나룩 수확 잘 나.(벼 수확 잘 나.)

103039 @ 그러니까 어떻 이렇게 호미로 벤 다음에 빈 다음에.(그러니까 어떻게 낮으로 벤 다음에 벤 다음에.)

103039 #4 이제사 호미로 안 비엄주게.(이제야 낮으로 안 베고 있지.)

103039 @ 그러니까 옛날은 어떻?(그러니까 옛날은 어떻게?)

103039 #4 옛날은 호미로 비엄 장만했주만은.(옛날은 낮으로 베어서 장만했지 만.)

103039 @ 예.(예.)

103039 #4 이젠 기계들 나오난 기계로.(이제는 기계들 나오니까 기계로.)

103039 @ 그럼 나룩 쌀로는 밥 보통 곤밥 먹엇수광?(그럼 벼 쌀로는 밥 보통 흰밥 먹엇습니까?)

103039 #4 그냥 곤밥 먹엇주게.(그냥 흰밥 먹엇지.)

103039 @ 밥 말양 또 헤 먹은 건 뭐 잇엇수광?(밥 말고 또 헤 먹은 건 뭐 잇엇 습니까?)

103039 #4 그 나룩 현 후에 곤밥 먹엇어 이제도.(그 벼 한 후에 흰밥 먹엇어 이 제도.)

103039 @ 아. 그럼 떡도 헛엇수광?(아. 그럼 떡도 헛엇습니까?)

103039 #4 어. 떡도 허곡.(어. 떡도 하고.)

103039 @ 무슨 떡 헛마씨? 나룩으로는?(무슨 떡 헛어요? 벼로는?)

103039 #4 나룩으로게 제편도 헛 먹고.(벼로는 절편도 해서 먹고.)

103039 @ 예.(예.)

103039 #4 다신 하간 거 여러 가지 해지주게.(다신 여러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103039 @ 여러 가지 떡 헨마씨? 그럼 나룩도 짚 남으면 남으면 그것도 쉼 맥연 마씨?(여러 가지 떡 했어요? 그럼 벼도 짚 남으면 남으면 그것도 소 먹었어요?)

103039 #4 나룩찍도 쉼 맥이고.(벳짚도 소 먹이고.)

고구마 농사

103049 @ 혹시, 어르신 고구마 농사도 해보셨마씨?(혹시, 어르신 고구마 농사도 해보셨어요?)

103049 #1 고구마야 여기 저 제주도서 여기가 제일 많이 하는 데니까.(고구마야 여기 저 제주도서 여기가 제일 많이 하는 데니까.)

103049 @ 아, 기짱? 그럼 고구마 농사하젠 하민 뭐 준비해야 돼마씨?(아, 그렇 습니까? 그럼 고구마 농사하려 하면 뭐 준비해야 돼요?)

103049 #1 우선 종자를 해서 이 월말 삼 월초에.(우선 종자를 해서 이 월말 삼 월초에.)

103049 @ 예.(예.)

103049 #1 묘종을 묘상을 만들어야지. 고구마, 고구마로 어 옛날에는 비니루 없을 때는 그대로 했지만은 비니루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 이십 센치 간격으로 그 고구마 종자를 묻어서 비닐하면 그게 발아 되면 발아 순이 고구마 하나에 뭐 삼십 개도 나고 이십 개도 나고 그래.(묘종을 묘상을 만들어야지. 고구마, 고구마로 어 옛날에는 비닐 없을 때는 그대로 했지만 비닐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 이십 센티 간격으로 그 고구마 종자를 묻어서 비닐하면 그게 발아 되면 발아 순이 고구마 하나에 뭐 삼십 개도 나고 이십 개도 나고 그래.)

103049 @ 예.(예.)

103049 #1 경흐난 그걸 어느 정도 크면은 그걸 한 삼십 센치 정도 간격씩 잘라 가지고 밭에 심는 거주.(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크면 그걸 한 삼십 센티 정도 간격씩 잘라가지고 밭에 심는 거지.)

103051 @ 고구마 밭 거름은 또 엇어마씨? 고구마 밭 거름?(고구마 밭 거름은 또 없어요? 고구마 밭 거름?)

103051 #1 아니, 무사게 화학 비료.(아니, 왜 화학 비료.)

103051 @ 화학비료 말고는 엇어마씨?(화학비료 말고는 없어요?)

103051 #1 아니, 여기 여기는 화학비료 말고는 거의 광작해 놓으니까 고구마 밭 까지 갈 거름을 준비를 못해.(아니, 여기 여기는 화학비료 말고 거의 광작해 놓으니까 고구마 밭까지 갈 거름을 준비를 못해.)

103052 @ 그럼 고구마는 어떻 심어마씨? 심는 건?(그럼 고구마는 어떻게 심어요? 심는 건?)

103052 #1 싱그는 건.(심는 건.)

103052 @ 예.(예.)

103052 #1 소로 갈 때는 뭐 허면 여기는 파종이.(소로 갈 때는 뭐 하면 여기는 파정이.)

103052 @ 예.(예.)

103052 #1 고랑 사이가 이 육십 센치 간격으로 들어간다. 육십 센치 간격으로.(고랑 사이가 이 육십 센티 간격으로 들어간다. 육십 센티 간격으로.)

103052 @ 예.(예.)

103052 #1 육십 센치 간격으로 이랑을 영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 고구마 묘상에서 그 순을 잘라온 걸 순을 잘라서 약 한 삼십 센치 길이씩 그걸 순에서 또 순이 한 일 미터도 돼고 오십 센치도 돼고 뭐 긴 것은 일 미터 오십 센치도 되는데 그걸 한 삼십 센치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그 육십 센치로 만든 이랑 위에 일렬로 심어 일렬로 쪽 심어.(육십 센티 간격으로 이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 고구마 묘상에서 그 순을 잘라온 걸 순을 잘라서 약 한 삼십 센티 길이씩 그걸 순에서 또 순이 한 일 미터도 되고 오십 센티도 되고 뭐 긴 것은 일 미터 오십 센티도 되는데 그걸 한 삼십 센티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그 육십 센티로 만든 이랑 위에 일렬로 심어 일렬로 쪽 심어.)

103052 @ 예.(예.)

103052 #1 일렬로 심어 가는데 방법은 에 등치하고 끝이 일률적으로 한 쪽으로 해. 등치하고 등치가 붙거나 그 뭐냐 순하고 그 끝하고 끝이 영 붙어 붙민 수확이 안 나. 게난 여기가 등치면 등치가 다 왼쪽으로 가게 쪽 심어 가고. 저 게서 어 그렇게 그렇게 뭐 심어가지고 어 이 한 활착이 돼가지고 한 얼마 한 이십 일 되면은 걸 중간에 복토하지 복토. 골 갈양. 골 간댄 허는다.(일렬로 심어 가는데 방법은 에 등치하고 끝이 일률적으로 한 쪽으로 해. 등치하고 등치가 붙거나 그 뭐냐 순하고 그 끝하고 끝이 이렇게 붙어 버리면 수확이 안 나. 그러니 여기가 등치면 등치가 다 왼쪽으로 가게 쪽 심어 가고. 저 그래서 어 그렇게 그렇게 뭐 심어가지고 어 이 한 활착이 되가지고 한 얼마 한 이십 일 되면 걸 중간에 복토하지 복토. 골 갈아서. 골 간다고 하는데.)

103052 @ 예.(예.)

103052 #1 골 갈아근엥 복토하고. 고구마 농사는 뭐 그 복토 허면은 나중에 수확하면 되는거라.(골 갈아서 복토하고. 고구마 농사는 뭐 그 복토 하면 나중에 수확하면 되는거라.)

103053 @ 그럼 고구마 밭은 김매기는 몇 번 해마씨?(그럼 고구마 밭은 김매기는 몇 번 해요?)

103053 #1 복토허면은게 거의 안 할 수도 있고.(복토하면 거의 안 할 수도 있고.)

103053 @ 아.(아.)

103053 #1 게고 제초제가 이 고구마가 여기 한창 절간고구마 아 할 때까지는

좀 제초제가 안 나왔지만은.(그리고 제초제가 이 고구마가 여기 한창 절간고구마 아 할 때까지는 좀 제초제가 안 나왔지만.)

103053 @ 예.(예.)

103053 #1 팔십 년대 댜니까 제초제가 나와 가지고 제초제로 했지만은. 제초제가 안 나올 적에는 복토하고 거 한 번 정도만 거 제초하면은.(팔십 년대 댜니까 제초제가 나와 가지고 제초제로 했지만. 제초제가 안 나올 적에는 복토하고 거 한 번 정도만 거 제초하면은.)

103053 @ 예.(예.)

103053 #1 콩, 콩과 마찬가지로 감자 녁쿨이 영 얽어져 불민 풀이 발아가 안 돼.(콩, 콩과 마찬가지로 고구마 녁쿨이 이렇게 얽어져 버리면 풀이 발아가 안 돼.)

103054 @ 그럼 고구마 밭에는 검질들 그냥 똑같애마씨? 앞에 보리농사 때 했던 거나?(그럼 고구마 밭에는 검들 그냥 똑같아요? 앞에 보리농사 때 했던 거나?)

103054 #1 아이 여름 농사 고구마 밭에는 별로 검질 난다고. 복쿨, 절환지 그 정도 낫다가 한 번 즘음 복토하고 뭐 허면.(아이 여름 농사 고구마 밭에는 별로 검 난다고. 깨풀, 바랭이 그 정도 낫다가 한 번 즘음 복토하고 뭐 하면.)

103055 @ 고구마 자라면 수확은 어떻 헤마씨?(고구마 자라면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55 #1 수확은.(수확은.)

103055 @ 예.(예.)

103055 #1 녁쿨을 먼저 제거하고. 녁쿨.(њ쿨을 먼저 제거하고. 녁쿨.)

103055 @ 예.(예.)

103055 #1 녁쿨 제거하고 녁쿨은 말렸다가 소 사료로 쓰고.(њ쿨 제거하고 녁쿨은 말렸다가 소 사료로 쓰고.)

103055 @ 아, 소 사료로 쓰고.(아, 소 사료로 쓰고.)

103055 #1 녁쿨하고 그 다음에는 트랙터. 그건 소 쟁기건 에 뭐냐 경운기 쟁기건 다 그 같아근영.(њ쿨하고 그 다음에는 트랙터. 그건 소 쟁기건 에 뭐냐 경운기 쟁기건 다그 같아서.)

103055 @ 예.(예.)

103055 #1 같고 다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그 또 고구마 같고 그 뭐 행 캐면은 줄기가 다 붙으지.(같고 다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그 또 고구가 같고 그 뭐 해서 캐면 줄기가 다 붙지.)

103055 @ 예.(예.)

103055 #1 게난 그 줄기를 분리해서 분리해가지고 절간 할 때는 절간 그 고구마, 고구마 썬는 기계로 또 썰어가지고 말리고.(그러니 그 줄기를 분리해서 분리해가지고 절간 할 때는 절간 그 고구마, 고구마 썬는 기계로 또 썰어가지고 말리고.)

103055 @ 예.(예.)

103055 #1 경 안 허민 전분 공장에 판매하고.(그렇게 안 하면 전분 공장에 판매

하고.)

103056 @ 그럼 고구마는 옛날에 어떻 보관했마씨?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감저눌⁵⁸)이라고 들어보셨지예?(그럼 고구마는 옛날에 어떻게 보관했어요?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감저눌’이라고 들어보셨지요?)

103056 #1 고구마허면은 옛날엔 한 직경 한 일 미터 오십 정도로 행 구덩이 파지.(고구마하면 옛날에는 한 직경 한 일 미터 오십 정도로 해서 구덩이 파지.)

103056 @ 구덩이 파마씨?(구덩이 파요?)

103056 #1 구덩이 파가지고 고구마 저장고들 안 생겼을 때. 한 오륙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구덩이 파서 그냥 그 습기가 있는 밭은 파면은.(구덩이 파가지고 고구마 저장고들 안 생겼을 때. 한 오륙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구덩이 파서 그냥 그 습기가 있는 밭은 파면.)

103056 @ 예.(예.)

103056 #1 건조한 땅 구덩이를 한 일 미터 깊이 아니 일점 오 미터 넓이 일 미터 깊이로 파가지고 거기에 그 가로 역새 같은 거 영 역새 같은 거 옆에 세워가지고 고구마 넣어서 또 위에, 위에 현재 봉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건조한 땅 구덩이를 한 일 미터 깊이 아니 일점 오 미터 넓이 일 미터 깊이로 파가지고 거기에 그 가로 역새 같은 거 이렇게 역새 같은 거 옆에 세워가지고 고구마 넣어서 또 위에, 위에 현재 봉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103056 @ 아.(아.)

103056 #1 느람지⁵⁹) 더경. 걸로.(이영 덮어서. 그걸로.)

103056 @ 그게 감저눌이라고 해마씨?(그게 ‘감저눌’이라고 해요?)

103056 #1 으. 그게 감저눌.(어. 그게 ‘감저눌’.)

103056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57 @ 그럼 고구마로는 절간고구마 있다고 했잖아예? 그럼 씨 고구마는 안 해마씨?(그럼 고구마로는 절간고구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씨 고구마는 안 해요?)

103057 #1 왜 씨 고구마 당연히 해야지.(왜 씨 고구마 당연히 해야지.)

103057 @ 절간고구마랑 씨 고구마가 뭐, 어떤 차이마씨?(절간고구마랑 씨 고구마는 뭐, 어떤 차이예요?)

103057 #1 아니, 아니. 고구마 같은 건데.(아니, 아니. 고구마 같은 건데.)

103057 @ 예.(예.)

103057 #1 같은 건데.(같은 건데.)

103057 @ 예.(예.)

58) ‘감저눌’은 집 옆에 1.5m 정도 땅을 파서 짚을 깔고 고구마를 보관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감저눌’은 땅 밑 온도 변화가 적어 그런지 2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였으며, ‘감저눌’에 보관한 고구마는 쌀이 없는 제주민들의 겨울 점심 식량이 되었던 것이다.

59) 이영은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카리 위에 덮는 물건을 의미한다. ‘느래미, 느라미, 느람쥐, 느람지, 느레, 놀레’라고도 한다.

103057 #1 거기서 우선 종자용 고구마를 깨끗한 걸로 추려두고 계난 종자는 많이 안 드니까.(거기서 우선 종자용 고구마를 깨끗한 걸로 추려두고 그러니 종자는 많이 안 드니까.)

103057 @ 예.(예.)

103057 #1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삼천 평을 심나 심는다 해도 어 고구마 한 열 다섯 가마 정도면 충분히 심으니까. 한 열 다섯 가마 삼천 평 우리가 삼천 평 심겠다고 하면 열다섯 가마만 종자 깨끗하고 뭐 너무 크지도 적지도 안 한 거 균일하게 뽑아서 종자로 따로 해 두고 나머지는 절간 하던지 생고구마로 파는 건데.(만약에 예를 들어 뭐 삼천 평을 심나 심는다 해도 어 고구마 한 열 다섯 가마 정도면 충분히 심으니까. 한 열 다섯 가마 삼천 평 우리가 삼천 평 심겠다고 하면 열다섯 가마만 종자 깨끗하고 뭐 너무 크지도 적지도 안 한 거 균일하게 뽑아서 종자로 따로 해 두고 나머지는 절간 하던지 생고구마로 파는 건데.)

103057 @ 예.(예.)

103057 #1 에 칠십년, 칠십 년대 후반, 칠십 년대 후반까지는 절간고구마가 한창 뭐 저 농업, 중농. 어 농업 뭐여 중농정책. 오개년 계획이나 해서 그 절간고구마를 막 육성하고 주종 주종을 절간고구마로 많이 했주.(에 칠십년, 칠십 년대 후반, 칠십 년대 후반까지는 절간고구마가 한창 뭐 저 농업, 중농. 어 농업 뭐여 중농정책. 오개년 계획이나 해서 그 절간고구마를 막 육성하고 주종 주종을 절간고구마로 많이 했지.)

103057 @ 예.(예.)

103057 #1 소주 만드는 걸로. 그래서 하다가 팔십 년대 들어서에는 절간고구마는 사양에 들고 다 생고구마로 행 전분.(소주 만드는 걸로. 그래서 하다가 팔십 년대 들어서에는 절간고구마는 사양에 들고 다 생고구마로 해서 전분.)

103057 @ 음.(음.)

103057 #1 전분 공장에 이제 판매했주.(전분 공장에 이제 판매했지.)

103058 @ 그럼 그 고구마 아까 줄기는 줄기도 고구마 줄기는 뭐에 써마씨?(그럼 그 고구마 아까 줄기는 줄기도 고구마 줄기는 뭐에 써요?)

103058 #1 고구마줄, 고구마줄은 소 사료 가축 사료로 써. 가축 사료.(고구마줄, 고구마줄은 소 사료 가축 사료로 써. 가축 사료.)

103059 @ 고구마 농사는 아직도 많이 해마씨? 신도리에서?(고구마 농사는 아직도 많이 해요? '신도리'에서?)

103059 #1 거의 안 해.(거의 안 해.)

103059 @ 아, 예전에는 많이 헨마씨?(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103059 #1 예전에는 많이 했주.(예전에는 많이 했지.)

103059 @ 아.(아.)

103059 #1 예전에는 뭐 현 육칠천 평 심는 사람도 있고.(예전에는 뭐 한 육칠천 평 심는 사람도 있고.)

103059 @ 어떻게 안 하게 된 게 돈이 안 돼니까마씨?(어떻게 안 하게 된 게 돈이 안 되니까요?)

103059 #1 그렇지게. 소득이. 이 마늘 심기 이제 시작하니까.(그렇지. 소득이. 이 마늘 심기 이제 시작하니까.)

103059 @ 예.(예.)

103059 #1 뭐 고구마 농사도 죽어지고 콩 농사도 죽어지고.(뭐 고구마 농사도 힘들고 콩 농사도 힘들고.)

103059 @ 아, 마농은 많이 심어마씨? 이제? 지금은 마농이 제일 많아마씨?(아, 마늘은 많이 심어요? 이제? 지금은 마늘이 제일 많아요?)

103059 #1 어. 지금은 마농이 제일 많주게.(어. 지금은 마늘이 제일 많지.)

103059 @ 그럼 마늘, 마늘 농사는 어떻 해마씨?(그럼 마늘, 마늘 농사는 어떻게 해요?)

103059 #1 마늘 농사는 일 년 내내 마늘 뭐.(마늘 농사는 일 년 내내 마늘 뭐.)

103059 @ 대충 함 골아 줘서. 대충.(대충 함 말해 주십시오. 대충.)

103059 #1 마늘은 이제 저 수확이 오월 말에서 유월 초까지 허는데.(마늘은 이제 저 수확이 오월 말에서 유월 초까지 하는데.)

103059 @ 예.(예.)

103059 #1 그 때가 완전히 완전 건조시키거나 건조장에서 건조 현 다음에 하나 하나 다 까야 돼주게. 훔알로 다 까야 돼는데.(그 때가 완전히 완전 건조시키거나 건조장에서 건조 현 다음에 하나하나 다 까야 되지. 훔알로 다 까야 되는데.)

103059 @ 예.(예.)

103059 #1 만약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잘 까는 사람이 한 욱십 평쯤 심을 거 까고. 그 다 까서 한 다음에 뭐 소득한 사람은 소득하고 요즘 한창 심엄주게. 팔월 한 이십 일 전후로 해가지고. 구월, 팔월 이십 일서부터 구월 오일까지 딱 한 십오 센치 십일 센치 간격으로 거의 그 이상 한 사람도 있고 그보다 밀식 현 사람도 있주만은 보통 십오 센치 길이 십오 센치 폭 십일 센치 간격으로 쪽 다 판을 한 비니루 멀칭을 해야 되니까.(만약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잘 까는 사람이 한 욱십 평쯤 심을 거 까고. 그 다 까서 한 다음에 뭐 소득한 사람은 소득하고 요즘 한창 심고 있지. 팔월 한 이십 일 전후로 해가지고. 구월, 팔월 이십 일서부터 구월 오일까지 딱 한 십오 센티 십일 센티 간격으로 거의 그 이상 한 사람도 있고 그보다 밀식 현 사람도 있지만 보통 십오 센티 길이 십오 센티 폭 십일 센티 간격으로 쪽 다 판을 한 비닐 멀칭을 해야 되니까.)

103059 @ 예.(예.)

103059 #1 한 일 메다 한 욱십 오. 욱십에서 욱십오 정도 어 이량을 만들어. 거기에 십오 센치 길이에 십 센치 폭으로 영 심는 거라. 게서 마늘 농사가 엄청 그걸 갖는데 에 한 욱십 평 정도 잘 까야 욱십 평 정도 허는데. 심는데 잘 심어야 백오 십 평 심어.(한 일 미터 한 욱십 오. 욱십에서 욱십오 정도 어 이량을 만들어. 거기

에 십오 센티 길이에 십 센티 폭으로 이렇게 심는 거라. 그래서 마늘 농사가 엄청 그걸 갖는데 에 한 육십 평정도 잘 까야 육십 평 정도 하는데. 심는데 잘 심어야 백오십 평 심어.)

103059 @ 예.(예.)

103059 #1 심는데. 또 이제 경 허면 또 이제 그거 밭아 되면 시월 달 되면은. 하나하나 비닐, 비닐 덮어가지고 마늘 하나씩 난 거 다 뺏아. 뽑아내야 돼 그것도 일일이 비닐 밖으로.(심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거 밭아 되면 시월 달 되면. 하나하나 비닐, 비닐 덮어가지고 마늘 하나씩 난 거 다 뺏아. 뽑아내야 돼 그것도 일일이 비닐 밖으로.)

103059 @ 예.(예.)

103059 #1 그거 허고 농약치고 뭐 허게 되면은. 에 마늘 종자까지 허면 평당 한 칠천 원 소요될 거라. 비료도 엄청 많이 쓰주게.(그거 하고 농약치고 뭐 하게 되면. 에 마늘 종자까지 하면 평당 한 칠천 원 소요될 거라. 비료도 엄청 많이 쓰지.)

103059 @ 아, 마늘 많이 써마씨?(아, 마늘 많이 써요?)

103059 #1 어. 계란 마늘 비료도 거름 비료까지 허면 한 평당 천오백 원 계산해야 될 거고 종자는 한 이천오백 원 이상 계산해야 될 거고. 뭐 인건비 허면은 여튼 마늘은 평당 생산비가 한 칠천 원 정도 소요될 거라.(어. 그러니 마늘 비료도 거름 비료까지 하면 한 평당 천오백 원 계산해야 될 거고 종자는 한 이천오백 원 이상 계산해야 될 거고. 뭐 인건비 하면 하여튼 마늘은 평당 생산비가 한 칠천 원 정도 소요될 거라.)

103059 @ 고구마 농사도 하셨지예?(고구마 농사도 하셨지요?)

103059 #2 고구마 농사 했주게. 고구마 고구마는 싱것당 갈아, 갈아근엥 절간허여. 영 틀려서 썰영.(고구마 농사 했지. 고구마 고구마는 심었다가 갈아, 갈아서 절간해. 이렇게 말려서 썰어서.)

103059 @ 예.(예.)

103059 #2 그때 그 술 원료 헌텐 해났어.(그때 그 술 원료 한다고 했었어.)

103059 @ 음.(음.)

103059 #2 그때에 일허는 사람들은 막 돈 벌었어. 돈 벌영 밧도 사고. 고구마 할 때는 여기서 많이 허연. 몇 백 개씩 허영 그때 상도 타고 해났어. 칠백 개. 그 애월면들에서만 행 제주도 판 데는 영 안 헨게. 밧도 널르지 안 허고 허난. 이 동네는 칠백 개 헌 사람들 막 상 타났어.(그때에 일하는 사람들은 막 돈 벌었어. 돈 벌어서 밧도 사고. 고구마 할 때는 여기서 많이 했어. 몇 백 개씩 해서 그때 상도 타고 했었어. 칠백 개. 그 '애월면'에서만 해서 제주도 다른 데는 영 안 했어. 밧도 넓지 안 하고 하니까. 이 동네는 칠백 개 한 사람들 막 상 탔었어.)

103059 @ 아.(아.)

103059 #2 대정 농협이 우리나라에서 일등이난.(‘대정’ 농협이 우리나라에서 일등이니까.)

103059 @ 음.(음.)

103059 #2 절간 막 허여근엥 받았 허난. 이젠 제일 못 험서. 이 저 저 조합장 잘 못하고 이제들은 마농만 허고 허난.(절간 막 해서 받아서 하니까. 이제는 제일 못 하고 있어. 이 저 저 조합장 잘 못하고 이제들은 마늘만 하고 하니까.)

103049 @ 할머니 그럼 그 뭐냐 감저 농사도 헛수광?(할머니 그럼 그 뭐냐 고구마 농사도 헛습니까?)

103049 #4 감저 농사 허고 말고.(고구마 농사 하고 말고.)

103049 @ 감저 농사하려면 뭐, 뭐 필요헤마씨?(고구마 농사하려면 뭐, 뭐 필요헤요?)

103049 #4 감저 농사게 뭐 필요한 거 잇어게. 감저 그 옛날에 우리 감저 허민. (고구마 농사 뭐 필요한 거 잇어. 고구마 그 옛날에 우리 고구마 하면.)

103049 @ 예.(예.)

103049 #4 감저 허민 절간 허멍 이녀 종자를 몇 가마니 놔두주게.(고구마 하면 절간 하면서 이녀 종자를 몇 가마니 놔두지.)

103049 @ 아, 몇 가마니?(아, 몇 가마니?)

103049 #4 어. 몇 가마니 놔둡. 그걸 딱시게 이제 그걸 구덩이 팡 허는 사람. 경안 허민 우린 방에 놔두주게. 주런히 영 방에 낵.(어. 몇 가마니 놔둡서. 그걸 따듯하게 이제 그걸 구덩이 파서 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방에 놔두지. 나란히 이렇게 방에 놔서.)

103049 @ 예.(예.)

103049 #4 딱시게 헵 놔두민 썩지 안 허민 그걸로 이삼월 달 나기 전이 그 감저를 다 싱그는 거라.(따듯하게 해서 놔두면 썩지 않으면 그걸로 이삼월 달 되기 전에 그 고구마를 다 심는 거야.)

103050 @ 아, 삼월 달에?(아, 삼월 달에?)

103050 #4 어. 현 삼월 초에.(어. 한 삼월 초에.)

103050 @ 예.(예.)

103050 #4 경 헵 그걸로 감저 땅에 문딱 문영 놔두민. 나근엥 줄이 나민 그거 줄 비어당 감저 다시 여름날 싱것주게 오월 달 나가민.(그렇게 해서 그걸로 고구마 땅에 전부 문어서 놔두면. 나서 덩굴이 나면 그거 덩굴 베어다가 고구마 다시 여름날 심었지 오월 달 되면.)

103051 @ 음. 그럼 거름도 그때는 필요헤마씨?(음. 그럼 거름도 그때는 필요헤요?)

103051 #4 어 그건 거름도 넣곡.(어 그건 거름도 넣고.)

103051 @ 무슨 거름? 어떻게? 어떤 거름 넣언마씨?(무슨 거름? 어떻게? 어떤 거름 넣었어요?)

103051 #4 비료, 비료.(비료, 비료.)

103051 @ 아, 비료.(아, 비료.)

103051 #4 쉼 걸름 엇인 사람은 그냥 비료로 헛주게.(소 거름 없는 사람은 비료로 했지.)

103052 @ 아. 그럼 그거 감저는 어떻 심어마씨? 심을 때는?(아. 그럼 그거 고구마는 어떻게 심어요? 심을 때는?)

103052 #4 그냥 밭 갈민 영 줄 비어다근영 영 똑꼭 찢렁 영.(그냥 밭 갈면 이렇게 덩굴 베어다가 이렇게 똑꼭 찢러서 이렇게.)

103052 @ 줄, 줄 비어당?(덩굴, 덩굴 베어다가?)

103052 #4 어. 감젓줄 비어당.(어. 고구마 덩굴 베어다가.)

103052 @ 아, 감젓줄?(아, 고구마 덩굴?)

103052 #4 어. 감젓줄로. 경 행 놔두민 감저 다 잘 들어근영 팔월 돼민 강 파먹고.(어. 고구마 덩굴로. 그렇게 해서 놔두면 고구마 다 잘 들어서 팔월 되면 가서 파먹고.)

103052 @ 아, 팔월 돼민 파먹고?(아, 팔월 되면 파먹고?)

103052 #4 어.(어.)

103053 @ 거기도 검질 нама씨?(거기도 김 나요?)

103053 #4 검질 나곡 말곡.(김 나고 말고.)

103053 @ 아, 그럼 거기에는 무슨 검질 нама씨?(아, 그럼 거기에는 무슨 김 나요?)

103053 #4 검질은 뭐 쉼비눔 ㄱ튼 거 절라니 ㄱ튼 거.(김은 뭐 쇠비름 같은 거 바랭이 같은 거.)

103053 @ 아, 쉼비눔?(아, 쇠비름?)

103053 #4 어. 여름에 그런 거 막 나.(어. 여름에 그런 거 막 나.)

103054 @ 그럼 검질은 몇 번 메야 돼마씨? 거기는?(그럼 김은 몇 번 메야 되요? 거기는?)

103054 #4 그건 흔 번만 메 불민 감젓줄 탁 더꺼저 불민 검질.(그런 한 번만 매 버리면 고구마 덩굴 탁 덮어져 버리면 김.)

103054 @ 아, 한 번만 매면 돼마씨?(아, 한 번만 매면 되요?)

103054 #4 어.(어.)

103055 @ 그럼 그거 이렇게 수확할 때는 어떻게 수확허주마씨?(그럼 그거 이렇게 수확할 때는 어떻게 수확하지요?)

103055 #4 수확할 때는게 그거 줄 다 비영.(수확할 때는 그거 덩굴 다 베어다가.)

103055 @ 예.(예.)

103055 #4 우리 절간감저 혈 때는.(우리 절간고구마 할 때는.)

103055 @ 예.(예.)

103055 #4 줄 비어 뒤근영 쉼로 가는 거라. 경 허는 거라.(덩굴 베어 뒤서 소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103055 @ 아, 웨로?(아, 소로?)

103055 #4 웨로 허영.(소로 해서.)

103055 @ 음.(음.)

103055 #4 갈민 이제 인부들 몇 개 허영 갈아근엥 감저가 별짱게 나오민 그거 다 좇엉.(갈민 이제 인부들 몇 개 해서 갈아서 고구마가 별짱게 나오면 그거 다 주어서.)

103055 @ 예.(예.)

103055 #4 좇엉 메왕 이제 절간감저 헐 때에 어디 싰거다근엥.(주어서 메워서 이제 절간고구마 할 때에 어디 실어다가.)

103055 @ 예.(예.)

103055 #4 그거 기계로 들어 썰어근엥 몰령 허영 돈 벌영 살앗주게.(그거 기계로 들어 썰어서 말려서 해서 돈 벌어서 살았지.)

103056 @ 그럼 보관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보관은 어디다가 헨마씨?(그럼 보관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보관은 어디다가 했어요?)

103056 #4 그 보관은 문밖 몰린 다음에게 이제.(그 보관은 전부 말린 다음에 이제.)

103056 @ 예.(예.)

103056 #4 이녀 창고 싰 사람은 창고에 놓곡.(이녀 창고 있는 사람은 창고에 놓고.)

103056 @ 음.(음.)

103056 #4 경 안 허민 우린 집 이 집 안 살 때 저 오름에 살 때난.(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집 이 집 안 살 때 저 오름에 살 때니까.)

103056 @ 예.(예.)

103056 #4 이 웃동네에도 막 데머근엥 막 더껏주게.(이 웃동네에도 막 쌓아서 막 덮었지.)

103056 @ 아 웃동네에 데면? 감저눌? 감저눌이라고 이렇게 쌓아 놓은 거 잇엇 수광?(아 웃동네에 쌓았어요? ‘감저눌’? ‘감저눌’이라고 이렇게 쌓아 놓은 거 잇엇습니까?)

103056 #4 감저눌은 그거 밧에들 강 구덩이 파근엥 감저눌로 헛주만은.(‘감저눌’은 그거 밧에 가서 구덩이 파서 ‘감저눌’로 했지만.)

103056 @ 예. 그거 구덩이 팡 허는 거마씨?(예. 그거 구덩이 파서 하는 거예요?)

103056 #4 어. 구덩이 팡.(어. 구덩이 파서.)

103056 @ 구덩이 팡 그럼 그것도 헛수광? 감저눌로?(구덩이 파서 그럼 그것도 했습니까? ‘감저눌’로?)

103056 #4 우린 그거 혼엇이 헤보지 았앗주. 방에 낯주 방에.(우리는 그거 별로 헤보지 았았지. 방에 낯지 방에.)

103057 @ 그럼 고구마는 절간고구마랑 씨고구마 잇잖아예?(그럼 고구마는 절간고구마와 씨고구마 잇잖아요?)

103057 #4 절간고구마 계메 절간고구마.(절간고구마 글썸 절간고구마.)

103057 @ 그럼 씨고구마는 뭐짱?(그럼 씨고구마는 뭐입니까?)

103057 #4 씨?(씨?)

103057 @ 예.(예.)

103057 #4 씨는게 그 종자주게. 종자.(씨는 그 종자지. 종자.)

103057 @ 예. 종자.(예. 종자.)

103057 #4 종자. 그걸 골라다근앵.(종자. 그거를 골라다가.)

103057 @ 예.(예.)

103057 #4 종자 영 헐 거는.(종자 이렇게 할 거는.)

103057 @ 예.(예.)

103057 #4 곱닥흔 거는 막 상처 나지 않은 거는 그런 걸로 골라근앵.(매끈하고 고운 거는 막 상처 나지 않은 거는 그런 걸로 골라서.)

103057 @ 예.(예.)

103057 #4 몇 가마니 허영 씨 몇 마지기 싱글 거면 몇 가마니 헤다근앵 다 집에 놔뒀다근앵 씨 헛주게.(몇 가마니 해서 씨 몇 마지기 심을 거면 몇 가마니 헤다가 다 집에 놔뒀다가 씨 헛지.)

103057 @ 아.(아.)

103057 #4 그걸로 그걸로 봄 나민 문영.(그걸로 그걸로 봄 되면 문어서.)

103057 @ 예. 그럼 곱닥흔 게 종자로?(예. 그럼 매끈하고 고운 게 종자로?)

103057 #4 어. 곱닥흔 걸로.(어. 매끈하고 고운 걸로.)

103057 @ 음. 그럼 절간은 곱닥흔 거 말앙 나머지가?(음. 그럼 절간은 매끈하고 고운 거 말고 나머지가?)

103057 #4 어. 절간은 뭐 다 내부는 거 다 썰민 절간 뒤는 거니까.(어. 절간은 뭐 다 내버리는 거 다 썰면 절간 되는 거니까.)

103057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57 #4 어.(어.)

103058 @ 그럼 그 감저 줄기 잇잖아예? 그건 어떻?(그럼 그 고구마 줄기 잇잖아요? 그건 어떻게?)

103058 #4 어.(어.)

103058 @ 남은 거는 뭐에 씨마씨? 감저 줄기.(남은 거는 뭐에 씨요? 고구마 줄기.)

103058 #4 남은 거는 막 물러근앵.(남은 거는 막 말려서.)

103058 @ 예.(예.)

103058 #4 비 맞히지 말앙 물령 잘 놔두민 쉼출⁶⁰로 다 쉼출로 허주게. 경 허

60) '쉼출'은 쇠먹이로 쓰이는 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영 쉼 먹영 살리주게.(비 맞히지 말고 말려서 잘 놔두면 ‘췌출’로 다 ‘췌출’로 하지. 그렇게 해서 소 먹여서 살리지.)

103060 @ 할머니 이거 마농은 어디 어디서 허는 거마씨?(할머니 이거 마늘은 어디 어디서 하는 거예요?)

103060 #4 이거 마농게 영 허여당 저 기계에서 들령 이거 영 놔두민 이제 구월 달 나민 팔월 구물어 가면 이거 몬딱 싱글 거주게. 밧 갈아근영.(이거 마늘 이렇게 해다가 저 기계에서 말려서 이거 이렇게 놔두면 이제 구월 달 되면 팔월 저물어 가면 이거 전부 심을 거지. 밧 갈아서.)

103060 @ 아, 이거 싱글 거마씨?(아, 이거 심을 거예요?)

103060 #4 어.(어.)

103060 @ 파는 거 아니?(파는 거 아니?)

103060 #4 파는 거 아니.(파는 거 아니.)

103060 @ 영 많이 싱거마씨?(이렇게 많이 심어요?)

103060 #4 아이고, 많이 싱그고 말고게.(아이고, 많이 심고 말고.)

103060 @ 어디 어디서 싱거마씨?(어디 어디서 심어요?)

103060 #4 이녁 밧이 강.(이녁 밧에 가서.)

103060 @ 계난 할머니 이녁 밧은 어디팡?(그러니까 할머니 이녁 밧은 어디입니까?)

103060 #4 저기 오름 뒤에 위쪽에 잇주게. 놈의 밧도 빌영 허고게.(저기 오름 뒤에 위쪽에 있지. 남의 밧도 빌려서 하고.)

기타 농사

103060 @ 그 이장님. 혹시 수박 농사도 하셧마씨?(그 이장님. 혹시 수박 농사도 하셧어요?)

103060 #1 그런 건 여기 거의 안 허여.(그런 건 여기 거의 안 해.)

103060 @ 수박. 참웨도 안 헛지예?(수박. 참외도 안 헛지요?)

103060 #1 참웨, 수박 그런 원예 작물은 안 허여.(참외, 수박 그런 원예 작물은 안 해.)

103062 @ 아. 원예 작물은 안 헤마씨? 그럼 고추 농사는 어떻?(아. 원예 작물은 안 해요? 그럼 고추 농사는 어떻게?)

103062 #1 고추도 자가로 먹을 거 조금 뭐 한 한 삼십 평 그 정도 허는 사람이 많이 허는 사람이고 삼십 평 이상 허는 사람도 엇주게. 그건 뭐.(고추도 자가로 먹을 거 조금 뭐 한 한 삼십 평 그 정도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이고 삼십 평 이상 허는 사람도 없지. 그건 뭐.)

103064 @ 배추나 늪빼도 다 안 헤마씨?(배추나 무도 다 안 해요?)

103064 #1 아. 무는 월동 무 많이 허지.(아. 무는 월동 무 많이 하지.)

103064 @ 아. 늪빼는 많이 헤마씨?(아. 무도 많이 해요?)

103064 #1 어. 월동 무 많이 허지. 월동 무는 여기 이쪽에 많이 해주게.(어. 월동 무 많이 하지. 월동 무는 여기 이쪽에 많이 하지.)

103064 @ 아, 기구나예. 그럼 월동 무는 어떻 해마씨? 농사는?(아, 그렇군요. 그럼 월동 무는 어떻게 해요? 농사는?)

103064 #1 그건 일반 저 작물 재배 허는 거랑 마찬가지로. 것도 사람에 따라서 뭐 육십 센치 간격으로 이랑 만드는 사람도 있고.(그건 일반 저 작물 재배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것도 사람에 따라서 뭐 육십 센치 간격으로 이랑 만드는 사람도 있고.)

103064 @ 예.(예.)

103064 #1 또 그 사십오 센치 간격으로 이랑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그저 이제는 파종기가 잇었는데 파종기 잇을 때에는 약 한 한 사십 센치 간격으로 사람 손으로 그 저 씨앗을 영 줘아놓주. 줘아넣어근영.(또 그 사십오 센치 간격으로 이랑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그저 이제는 파종기가 잇었는데 파종기 없을 때에는 약 한 한 사십 센치 간격으로 사람 손으로 그 저 씨앗을 이렇게 집어넣지. 집어넣어서.)

103064 @ 예.(예.)

103064 #1 흑 더경 내불면은 경 해서 제초제 주고 물 한번 받고 경 허민 밭아 돼주게. 밭아돼면은 뭐 별로 관리 할 거 없어. 농약이나 한 두 번 치면.(흫 덮어서 내버리면 그렇게 해서 제초제 주고 물 한번 받고 그렇게 하면 밭아 되지. 밭아 되면 뭐 별로 관리 할 거 없어. 농약이나 한 두 번 치면.)

103065 @ 저, 지실은 안 헨마씨? 농사. 지실?(저, 감자는 안 했어요? 농사. 감자?)

103065 #1 지실 지금도 조금 허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헨주게.(감자 지금도 조금 하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했지.)

103065 @ 옛날은 많이 하셧마씨?(옛날은 많이 하셧어요?)

103065 #1 옛날엔 많이 헨주게.(옛날에는 많이 했지.)

103065 @ 어르신도 하셧마씨?(어르신도 하셧어요?)

103065 #1 우리도 감자 많이 헨주게.(우리도 감자 많이 했지.)

103065 @ 지실은 어떻 하는 거마씨? 지실도 마찬가지로?(감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자도 마찬가지로?)

103065 #1 지실은.(감자는.)

103065 @ 다른 거 잇수광? 흑시.(다른 거 있습니까? 흑시.)

103065 #1 종자는 가을 감자 하던지 만약 대관량산을 구입허면은 그걸 다 눈만 눈만 하나씩 잇게 다 잘라 내야 돼.(종자는 가을 감자 하든지 만약 대관량산을 구입하면 그걸 다 눈만 눈만 하나씩 잇게 다 잘라 내야 돼.)

103065 @ 예.(예.)

103065 #1 잘라 내가지고 이것도 한 육십 센치 정도 폭 이랑 만들어근영 한 이십 센치 간격으로 밀식해서 그거 해서 에 겨울에 놓는 겨울 감자는.(잘라 내가지고

이것도 한 육십 센티 정도 폭 이랑 만들어서 한 이십 센티 간격으로 밀식해서 그거 해서 에 겨울에 놓는 겨울 감자는.)

103065 @ 예.(예.)

103065 #1 심어서 제초제만 주고 심은 다음에 비니루 더꿏다가 밭아되면 비닐 밖으로 그걸 내치면 순을 내치면 되는 거고. 이제 가을 감자는 만약 밭아뒀 다음에 비닐 덮어서 이제 그 좀 힘들지만은 그 순 난 것을 전부 비닐 밖으로 내쳐야 돼.(심어서 제초제만 주고 심은 다음에 비닐 덮었다가 밭아되면 비닐 밖으로 그걸 내치면 순을 내치면 되는 거고. 이제 가을 감자는 만약 밭아뒀 다음에 비닐 덮어서 이제 그 좀 힘들지만 그 순 난 것을 전부 비닐 밖으로 내쳐야 돼.)

103068 @ 그 메밀이나 담배 농사는 신도리에서 안 했지예?(그 메밀이나 담배 농사는 '신도리'에서 안 했지요?)

103068 #1 담배 농사 옛날 뭐 현.(담배 농사 옛날 뭐 현.)

103068 @ 아, 담배 농사 하션마씨?(아, 담배 농사 하셨어요?)

103068 #1 담배 농사 해난 때는 육십 년? 한 오십 오년 쉰 거 같다.(담배 농사 해난 때는 육십 년? 한 오십 오년 쉰 거 같다.)

103068 @ 담배 농사 하신 거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 어떻게 했인지?(담배 농사 하신 거 기억나는 거 잇어요? 어떻게 했는지?)

103068 #1 뭐 기억나는 거야 뭐. 씨앗으로 해근엥 묘종 놓았다가.(뭐 기억나는 거야 뭐. 씨앗으로 해서 묘종 놓았다가.)

103068 @ 예.(예.)

103068 #1 정식해서.(정식해서.)

103068 @ 예.(예.)

103068 #1 정식해서 재배해서 하나하나 이파리 따서 또 그걸 엮어가지고 엮어 이렇게 이렇게 엮어가지고.(정식해서 재배해서 하나하나 이파리 따서 또 그걸 엮어가지고 엮어 이렇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103068 @ 예.(예.)

103068 #1 어. 옛날은 초가집 이런 집 아니고 초가집인데. 초가집에 풍채가 잇어. 풍채.(어. 옛날은 초가집 이런 집 아니고 초가집인데. 초가집에 차양이 잇어. 차양.)

103068 @ 예.(예.)

103068 #1 초가집 비가림 하는 풍채. 그 쪽에서 저 반대편으로 줄 매어 가서 이렇게 저 담배 엮은 걸 양쪽 어 선 선을 매서 거기 했다가 비 와가면 쪽 밀려다가 그 풍채 안에 집어넣었다가 내치고 했는데.(초가집 비가림 하는 차양. 그 쪽에서 저 반대편으로 줄 매어 가서 이렇게 저 담배 엮은 걸 양쪽 어 선 선을 매서 거기 했다가 비 와가면 쪽 밀려다가 그 차양 안에 집어넣었다가 내치고 했는데.)

103068 @ 예.(예.)

103068 #1 한, 육십 년. 여기도. 몇 개 읍면 합쳐근엥 한 군데서 했주게.(한, 육

십 년. 여기도. 몇 개 읍면 합쳐서 한 군데서 했지.)

103068 @ 예.(예.)

103068 #1 것도 부지런한 사람은.(것도 부지런한 사람은.)

103068 @ 예.(예.)

103068 #1 그 뭐야 주황색 식으로 담배 이파리를 말리고. 조금 게으른 사람은 시커멓게 해서 품질도 여러 가지고 그랬주. 그건 한 오십 육십 년대. 육십년, 육십년 전후.(그 뭐야 주황색 식으로 담배 이파리를 말리고. 조금 게으른 사람은 시커멓게 해서 품질도 여러 가지고 그랬지. 그건 한 오십 육십 년대. 육십년, 육십년 전후.)

103068 @ 예.(예.)

103068 #1 자유당 때부터 시작해서 육십년 전후 한 오일 육 난 후에까지 이렇게 현 걸로 기억하는데.(자유당 때부터 시작해서 육십년 전후 한 오일 육 난 후에까지 이렇게 현 걸로 기억하는데.)

103068 @ 예.(예.)

103068 #1 그게 담배 농사는 많은 인원이 참여 안 하지만. 우리 마을은 칠팔년은 재배한 거 같애.(그게 담배 농사는 많은 인원이 참여 안 하지만. 우리 마을은 칠팔년은 재배한 거 같아.)

103065 @ 그른 옛날에 지실농사 한 거, 좀 곱아 줘서. 지실농사 한 거. 어떻게 하션마씨?(그러면 옛날에 감자농사 한 거, 좀 말해 주십시오. 감자농사 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103065 #2 어떻게 해. 췌로 갈아.(어떻게 해. 소로 갈아.)

103065 @ 예. 뭘 갈아마씨?(예. 뭘 갈아요?)

103065 #2 밧을 갈지.(밭을 갈지.)

103065 @ 예.(예.)

103065 #2 췌로 밧 갈아그넝 영 지슬을 찢러. 찢러근엥 비닐을 더꺼.(소로 밧 갈아서 이렇게 감자를 찢러. 찢러서 비닐을 덮어.)

103065 @ 아. 비닐을 더꺼마씨?(아. 비닐을 덮어요?)

103065 #2 응. 경 허영 나가민 영 터주야.(응. 그렇게 해서 나가면 이렇게 터쥬.)

103065 @ 예.(예.).

103065 #2 나가면 터주면 크면게.(나가면 터주면 크면.)

103065 @ 예.(예.)

103065 #2 그 십이월 달에 낱 오월 뒤면 캐여.(그 십이월 달에 낱 오월 되면 캐.)

103065 @ 예.(예.)

103065 #2 파. 경 허영게 육지로도 올리고 막 서울로도 올렸주게.(그 십이월 달에 낱 오월되면 캐. 파. 그렇게 해서 육지로도 올리고 막 서울로도 올렸지.)

103065 @ 그럼 뭐 그 검질은 몇 번 맨마씨? 지실할 때?(그럼 뭐 그 김은 몇 번 땀어요? 감자할 때?)

103065 #2 그 지실할 땐 별로 검질 안 땀어. 저 영 약 뿌렁 허영.(그 감자할 땐 별로 김 안 땀어. 저 이렇게 약 뿌려서 해.)

103065 @ 아.(아.)

103065 #2 그건 나중에. 처음에는 보리 같고, 감제 싱것주게 고구마.(그건 나중에. 처음에는 보리 같고, 감자 심었지 고구마.)

103065 @ 예.(예.)

103065 #2 감자 싱거근영 검질메고 이 쉼로 굴 같고 굴 갈아 올려. 경 허영 감자 절간도 허고.(감자 심어서 김매고 이 소로 굴 같고 굴 갈아 올려. 그렇게 해서 감자 절간도 하고.)

103065 @ 아. 절간마씨?(아, 절간요?)

103065 #2 응. 감자 썰어근영.(응. 감자 썰어서.)

103065 @ 예.(예.)

103065 #2 물러와.(말려.)

103065 @ 절간은 뭐마씨?(절간은 뭐예요?)

103065 #2 감자 영 캐여.(감자 이렇게 캐.)

103065 @ 예.(예.)

103065 #2 영, 우에 기계 여 기계로 들이침 손으로 영 막 썰어.(이렇게, 위에 기계 여 기계로 들이쳐서 손으로 이렇게 막 썰어.)

103065 @ 예.(예.)

103065 #2 기계로 썰어 물러 왕.(기계로 썰어 말려 와서.)

103065 @ 예.(예.)

103065 #2 물러 왕 그걸로 술 헛젠 곶아 옛날에.(말려 와서 그걸로 술 했다고 말해 옛날에.)

103065 @ 아, 술마씨?(아, 술이요?)

103065 #2 응. 술 헛젠.(응. 술 했다고.)

103065 @ 그게 절간고구마마씨?(그게 절간고구마예요?)

103065 #2 응. 절간고구마.(응. 절간고구마.)

103065 @ 그럼 양파도 하지예? 양파 농사.(그럼 양파도 하지요? 양파 농사.)

103065 #2 허주게 이제사. 말제들.(하지 이제야. 나중에.)

103065 @ 그럼 옛날, 옛날에는 뭐?(그럼 옛날, 옛날에는 뭐?)

103065 #2 안 헛어.(안 했어.)

103065 @ 옛날에는 뭐 주로 헛마씨?(옛날에는 뭐 주로 했어요?)

103065 #2 무시거 헛어게. 마농도 우영에 흐뎀 싱거근영 허고. 보리 감저 조 곶은 것만 헛주게.(무엇 했어. 마늘도 텃밭에 조금 심어서 하고. 보리 고구마 조 같은 것만 했지.)

103065 @ 아, 보리, 감저, 조.(아, 보리, 고구마, 조.)

103065 #2 지금이야 양과 햅주.(지금이야 양과 하고 있지.)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그면 소는 처음에 어떻게 길러마씨? 소는?(그러면 소는 처음에 어떻게 길러요? 소는?)

104001 #1 아니, 어떻게 기르는 게 아니라 소는.(아니, 어떻게 기르는 게 아니라 소는.)

104001 @ 예.(예.)

104001 #1 농사를 짓젠 하든 필수적인 거주게.(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필수적인 거주.)

104001 @ 예.(예.)

104001 #1 밧을 그 우마차로 헤근엥.(밭을 그 우마차로 해서.)

104001 @ 예.(예.)

104001 #1 농산물 운반하는 데도 소가 필요했고 또 밧을 경운 해가지고 농사를 짓을 때도 소가 필요했으니까 그건 필수적인 거고.(농산물 운반하는 데도 소가 필요했고 또 밧을 경운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도 소가 필요했으니까 그건 필수적인 거고.)

104001 @ 예.(예.)

104001 #1 농촌에 소 한 마리 없어서는 농사를 짓을 수가 없는 거니깐.(농촌에 소 한 마리 없어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깐.)

104001 @ 예.(예.)

104001 #1 그래서 지엿고. 또 소 기르는 것도 여유가 잇는 사람은 힘세고 크고 뭐 한 소를 길렀는데 여유가 잇는 사람은 해마다 겨우겨우 어 새로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잇는 정도를 교환해서.(그래서 지엿고. 또 소 기르는 것도 여유가 잇는 사람은 힘세고 크고 뭐 한 소를 길렀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해마다 겨우겨우 어 새로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잇는 정도를 교환해서.)

104001 @ 음.(음.)

104001 #1 그 웃돈을 받아가지고 웃돈을 받아가지고 학자금으로 쓰고 경 허니 깐 하나의 그 하나의 재산 형성도 돼지만은 예 농산물 운반이나 밧을 갈거나 뭐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그 웃돈을 받아가지고 웃돈을 받아가지고 학자금으로 쓰고 그렇게 하나의 하나의 그 하나의 재산 형성도 되지만 예 농산물 운반이나 밧을 갈거나 뭐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104001 @ 예.(예.)

104001 #1 소는 사육해야 돼주게.(소는 사육해야 되지.)

104002 @ 그럼 소 종류는 뭐 아시는 거 있어마씨? 털 색깔로.(그럼 소 종류는 뭐 아시는 거 있어요? 털 색깔로.)

104002 # 옛날엔 뭐 토종 뭐 제주 한우로 해서 토종이주만은 그 이후로는.(옛날엔 뭐 토종 뭐 제주 한우로 해서 토종이지만 그 이후로는)

104002 @ 예.(예.)

104002 #1 여러 가지주게. 뭐 젓소 종류도 가끔 있지만은 브라마다 뭐 그 그 뭐냐 색깔도 얼룩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하튼 주로 브라마 그 종류를 많이 사육했주게.(여러 가지지. 뭐 젓소 종류도 가끔 있지만 브라마다 뭐 그 그 뭐냐 색깔도 얼룩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하튼 주로 브라마 그 종류를 많이 사육했지.)

104002 @ 그믐 뿔, 뿔 모양에 따라서 소 나누는 종류는 엇인가마씨?(그러면 뿔, 뿔 모양에 따라서 소 나누는 종류가 없었어요?)

104002 #1 뿔이 일직선으로 섰는지 뒤로 영 현 거는 제주 토종 한우에 가까워. 제주 토종에 가깝고.(뿔이 일직선으로 섰는지 뒤로 이렇게 한 거는 제주 토종 한우에 가까워. 제주 토종에 가깝고.)

104002 @ 예.(예.)

104002 #1 앞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수입한 소로 수입 소로 봐야지 브라마.(앞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수입한 소로 수입 소로 봐야지 브라마.)

104003 @ 소는 밭 가는데 보통 이용하잖아예?(소는 밭 가는데 보통 이용하잖아요?)

104003 # 소는 밭 갈고 구루마.(소는 밭 갈고 수레.)

104003 @ 그리고 또?(그리고 또?)

104003 #1 마차, 마차로 이용허주게. 농산물 운반할 때.(마차, 마차로 이용하지. 농산물 운반할 때.)

104003 @ 보통 그 두 가지마씨?(보통 그 두 가지요?)

104003 #1 으. 그 두 가지.(어. 그 두 가지.)

104004 @ 그럼 소 이렇게 사오면 길들여야 돼잖아예?(그럼 소 이렇게 사오면 길들여야 되잖아요?)

104004 #1 어.(어.)

104004 @ 그건 어떻 길들연마씨?(그건 어떻게 길들였어요?)

104004 # 거는 뭐 사람 그 재주에 따라 여러 가지주만은.(거는 뭐 사람 그 재주에 따라 여러 가지이지만.)

104004 @ 예.(예.)

104004 #1 주로 멧돌 같은 거 구멍 뚫어가지고.(주로 멧돌 같은 거 구멍 뚫어가지고.)

104004 @ 예.(예.)

104004 #1 그 멩에 소 멩에 소 멩에가 잇주게. 쟁기를 땡기젠하면 건 필요한 거 주. 소 멩에 뒤에 멧들을 그 달아매서 그 소에 따라서 소가 워낙 약하면 적은 거로 어느 정도 힘이 잇는 거 같으면 큰 거 해서 며칠 간 이 길을 막 돌아 다니는 거라. (그 멩에 소 멩에 소 멩에가 잇지. 쟁기를 당기려하면 그건 필요한 거지. 소 멩에 뒤에 멧들을 그 달아매서 그 소에 따라서 소가 워낙 약하면 적은 거로 어느 정도 힘이 잇는 거 같으면 큰 거 해서 며칠 간 이 길을 막 돌아 다니는 거라.)

104004 @ 예.(예.)

104004 #1 돌아 다녀서 어느 정도 소가 익숙헌 거 닻으면 그 다음은 쟁기 매어가지고 빈 밭에 가근엔.(돌아 다녀서 어느 정도 소가 익숙헌 거 같으면 그 다음은 쟁기 매어가지고 빈 밭에 가서.)

104004 @ 음.(음.)

104004 #1 쟁기 매어서 이제 허는 거고. 또 마차, 그거 익숙하면 마차도 매어근엔 또 그것은 소 길들이젠 하면 아무도 못허는 거고 힘도 있어야 하고 그거 뭐 한 사람이. 이 좀 가난한 사람은 매해 소는 길들이한다고 봐야 돼여.(쟁기 매어서 이제 허는 거고. 또 마차, 그거 익숙하면 마차도 매어서 또 그것은 소 길들이려고 하면 아무도 못허는 거고 힘도 있어야 하고 그거 뭐 한 사람이. 이 좀 가난한 사람은 매해 소는 길들이한다고 봐야 돼.)

104004 @ 아 매해마씨?(아 매해요?)

104004 #1 어. 매해. 왜냐하면 그 길들이인 소가 어느 정도 크고 허면은.(어. 매해. 왜냐하면 그 길들이인 소가 어느 정도 크고 하면.)

104004 @ 팔아야지마씨?(팔아야지요?)

104004 #1 웃돈을 받아서 소를 거의 매해, 매해, 매해가 아니고.(웃돈을 받아서 소를 거의 매해, 매해, 매해가 아니고.)

104004 @ 예.(예.)

104004 #1 교환허는 거주.(교환하는 거지.)

104004 @ 아.(아.)

104004 #1 만약에 길들이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 돈 값어치가 좀 잇는 것은 우리 그 잇으면은 요 그 작은 작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집에 우리 집에 잇는 소가 백만 원 짜리다하면은 한 오십만 원 육십만 원 짜리라도 질을 들이고 허면은 또 어 밧가는 거나 우마차 운반하는 데 지장 엇겠다 생각뉘면은 돈을 삼사십 만원 좀 받아서 웃돈을 받아서 걸 교환하는 거라. 교환해서 그 돈은 또 학자금으로도 쓰고.(만약에 길들이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 돈 값어치가 좀 잇는 것은 우리 그 잇으면은 요 그 작은 작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집에 우리 집에 잇는 소가 백만 원 짜리다하면 한 오십만 원 육십만 원 짜리라도 길을 들이고 하면 또 어 밧가는 거나 우마차 운반하는 데 지장 없겠다 생각되면 돈을 삼사십 만원 좀 받아서 웃돈을 받아서 걸 교환하는 거라. 교환해서 그 돈은 또 학자금으로도 쓰고.)

104004 @ 예.(예.)

104004 #1 없는 사람은 매해 소를 길들여야 된다고 봐야 돼주게.(없는 사람은 매해 소를 길들여야 된다고 봐야 되지.)

104005 @ 그럼 소 나이는 어떻 알아마씨? 소 나이. 이렇게 보면 소 나이 어떻 알아마씨?(그럼 소 나이는 어떻게 알아요? 소 나이. 이렇게 보면 소 나이 어떻게 알아요?)

104005 #1 이빨로. 주로 이빨로.(이빨로. 주로 이빨로.)

104005 @ 이빨마씨?(이빨이요?)

104005 #1 이빨 벌려서 뭐 다간⁶¹, 다간이면 두 살이고 사릅이면 세 살이고 나릅 다섯 이렇게 허는데.(이빨 벌려서 뭐 ‘다간’, ‘다간’이면 두 살이고 사릅이면 세 살이고 나릅 다섯 이렇게 허는데.)

104005 @ 아.(아.)

104005 #1 다간, 다간은 이빨이 두 개면 다간이고. 이런 식으로.(‘다간’, ‘다간’은 이빨이 두 개면 ‘다간’이고. 이런 식으로.)

104005 @ 그럼.(그럼.)

104005 #1 치아로 나이를 나이는.(치아로 나이를 나이는.)

104005 @ 이게 다간이라고 헤마씨? 두 개 잇는 게.(이게 ‘다간’이라고 해요? 두 개 잇는 게.)

104005 #1 다간은 두 살을 다간이라 허여.(‘다간’은 두 살을 ‘다간’이라 해.)

104005 @ 소 두 살을 다간이라 헤마씨?(소 두 살을 ‘다간’이라 해요?)

104005 #1 어.(어.)

104005 @ 아, 그럼 세 살은 아까 뭐라고 했주마씨?(아, 그럼 세 살은 아까 뭐라고 했지요?)

104005 #1 사릅.(사릅.)

104005 @ 아.(아.)

104005 #1 뭐 곧 낳은 것은 금승⁶².(뭐 곧 낳은 것은 ‘금승’.)

104006 @ 그 쟁기 잇잖아예?(그 쟁기 잇잖아요?)

104006 #1 어.(어.)

104006 @ 소 쟁기. 쟁기도 부분마다 명칭이 이름이 좀 다르잖아예? 부분, 부분.(소 쟁기. 쟁기도 부분마다 명칭이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부분, 부분.)

104006 #1 길이 이제 그 성에, 성에가 뭐 허는 거고. 성에는 어 키로 표현을 해야 돼나?(길이 이제 그 성에, 성에가 뭐 하는 거고. 성에는 어 키로 표현을 해야 되나?)

104006 @ 예.(예.)

104006 #1 그 저 소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성에 제일 긴 거고.(그 저 소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성에 제일 긴 거고.)

61) ‘다간’은 소의 나이 두 살을 의미한다.

62) ‘금승’은 마소의 한 살을 의미한다.

104006 @ 예.(예.)

104006 #1 무쿨⁶³은 보섭하고 벳. 보섭은 이제 영 삼 모양으로 생긴.(‘무쿨’은 보섭하고 벳. 보섭은 이제 이렇게 삼 모양으로 생긴.)

104006 @ 예.(예.)

104006 #1 그것이 보섭허는 게 무쿨. 설치는 무쿨하고 성에를 연결시키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그것이 보섭하는 게 ‘무쿨’. 설치는 ‘무쿨’하고 성에를 연결시키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104006 @ 예.(예.)

104006 #1 게고 양젯머리는 이 사람 손 잡아서 하는게 그것이 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돼주.(그리고 양지머리는 이 사람 손 잡아서 하는게 그것이 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지.)

104007 @ 그럼 길마는 어떤 거마씨? 길마.(그럼 길마는 어떤 거예요? 길마.)

104007 #1 길마라니?(길마라니?)

104008 @ 멩에 줌 곴아 줌서. 멩에.(멩에 줌 말해 주십시오. 멩에.)

104008 #1 멩에는 이렇게 구부린 거. 소 목에 거는 거고.(멩에는 이렇게 구부린 거. 소 목에 거는 거고.)

104008 @ 멩에는 부분마다 뭐 이름 따로 잇어마씨?(멩에는 부분마다 뭐 이름 따로 없어요?)

104008 #1 아니. 멩에는 멩에 하나고.(아니. 멩에는 멩에 하나고.)

104008 @ 예.(예.)

104008 #1 줌게⁶⁴는 멩에를 고정시키는 목에 영 목걸이 모양으로 해가지고.(‘ضمام게’는 멩에를 고정시키는 목에 이렇게 목걸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104008 @ 예.(예.)

104008 #1 그걸 줌게엔 허고.(그걸 ‘ضمام게’라고 하고.)

104008 @ 줌게라고 해마씨?(‘ضمام게’라고 해요?)

104008 #1 어.(어.)

104008 @ 그것도 부분마다 명칭이 따로 잇어마씨?(그것도 부분마다 명칭이 따로 있어요?)

104008 #1 아니, 그게 멩에에 속해 잇는 게. 멩에는 이렇게 목에 걸치는 거고.(아니, 그게 멩에에 속해 잇는 게. 멩에는 이렇게 목에 걸치는 거고.)

104008 @ 예.(예.)

104008 #1 줌게는 그걸 멩에를 고정시키는 막대기고.(ضمام게’는 그걸 멩에를 고정시키는 막대기고.)

104009 @ 그럼 소는 키우섯을 때 보통 어디다가 낵 키워마씨?(그럼 소는 키우

63) ‘무쿨’은 쟁깃술을 의미한다.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이다. 이는 ‘몽쿨’, ‘목훈’, ‘몽쿨’, ‘쟁깃몽쿨’, ‘쟁깃무쿨’라고도 한다.

64) ‘ضمام게’는 멩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의미하며, ‘적괘’, ‘적괘’, ‘ضمام게’, ‘ضمام게’, ‘ضمام게’, ‘ضمام게’, ‘ضمام게’, ‘ضمام게’, ‘ضمام게’라 말한다.

셨을 때 보통 어디다가 놔서 키웠어요?)

104009 #1 아 그건 오양간이 있어. 오양간 만들어야. 집에는 반드시 오양간 있어.(아 그건 외양간이 있어. 외양간 만들어야. 집에는 반드시 외양간 있어.)

104009 @ 아. 지금은 없지예?(아. 지금은 없지요?)

104009 #1 지금은 잇을 리가 었지.(지금은 잇을 리가 없지.)

104010 @ 예. 지금은 없고. 그럼 소는 언제까지 기르셨마씨?(예. 지금은 없고. 그럼 소는 언제까지 기르셨어요?)

104010 #1 소 기른 거? 한 이십 오년?(소 기른 거? 한 이십 오년?)

104010 @ 이십 오년마씨? 소 길렀을 때 기억이나 생각나는 거 뭐 었인가마씨? 좀 기억에 소 많이 길렀잖아예? 그래도.(이십 오년이요? 소 길렀을 때 기억이나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좀 기억에 소 많이 길렀잖아요? 그래도.)

104010 #1 아니 한 마리씩 길렀지. 오래 길렀주게.(아니 한 마리씩 길렀지. 오래 길렀지.)

104010 @ 그러니까 한 마리씩 제일 오래 기른 소는?(그러니까 한 마리씩 제일 오래 기른 소는?)

104010 #1 거의 매해 바꿨는데.(거의 매해 바꿨는데.)

104010 @ 예.(예.)

104010 #1 소는 옛날에는 둔소엔 해. 번쇄⁶⁵⁾, 번쇄. 번쇄는 농번기고 영 허니까 매일 혼자가 매일 소 하나를 그 목장 같은 디나 어디 가서 풀을 뜯거나 허기가 힘드니까.(소는 옛날에는 둔소라고 해. ‘번쇄’, ‘번쇄’. ‘번쇄’는 농번기고 이렇게 하니까 매일 혼자가 매일 소 하나를 그 목작 같은 데나 어디 가서 풀을 뜯거나 하기가 힘드니까.)

104010 @ 예.(예.)

104010 #1 한 십 명 내지 십오 명 그 가까운 인근에 사람들이 번을 만들어가지고.(한 십 명 내지 십오 명 그 가까운 인근에 사람들이 번을 만들어가지고.)

104010 @ 예.(예.)

104010 #1 어 그 소를 췌 내침서 췌 들입서 이렇게 허는데 번쇄, 번쇄해근영 만약 이 이 근방에 십오 세대가 있으면 췌가 열 다섯 개가 돌아가면서 관리를 허는 거라.(어 그 소를 소 게우십시오 소 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번쇄’, ‘번쇄’해서 만약 이 이 근방에 십오 세대가 있으면 소가 열 다섯 개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라.)

104010 @ 아.(아.)

104010 #1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다 이제 아침 몇 시 돼영 딱 나갈 때 돼면 소들이 처음엔 뭐 허다가 이제 며칠만에 길들여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강 목장에 어디 강 저 물 물통에 물 먹이러 가면 말 잘 듣고.(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다 이제 아침 몇 시 되어서 딱 나갈 때 되면 소들이 처음엔 뭐 하다가 이제 며칠만에 길들여

65) ‘번쇄’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를 의미한다.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가서 목장에 어디 가서 저 물 물통에 물 먹이러 가면 말 잘 듣고.)

104010 @ 예.(예.)

104010 #1 어디 강 가두었다가 집에 가자혜근엥 집에 오면 쪽 자기 집으로 다 들어와.(어디 가서 가두었다가 집에 가자해서 집에 오면 쪽 자기 집으로 다 들어와.)

104010 @ 예.(예.)

104010 #1 아무 것도 끈도 엇이 그대로. 번췌로 영 허는데. 소이옌 현 것은 뭐 소는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관리에 따라서 소 종류 따라 생김, 체력, 체력에 따라 다르주만은.(아무 것도 끈도 없이 그대로. ‘번췌’로 이렇게 하는데. 소라고 한 것은 뭐 소는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관리에 따라서 소 종류 따라 생김, 체력, 체력에 따라 다르지만.)

104010 @ 예.(예.)

104010 #1 사람이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하면 소가 말 잘 듣고.(사람이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하면 소가 말 잘 듣고.)

104010 @ 예.(예.)

104010 #1 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추억들은 어린 애들 아이들 자식들 키울 때 한 여덟 살만 되면 소 혜근엥 물 맥여 오라. 여긴 집이 여긴 수돗물이 없을 때니까.(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추억들은 어린 애들 아이들 자식들 키울 때 한 여덟 살만 되면 소 해서 물 먹여 오라. 여긴 집이 여긴 수돗물이 없을 때니까.)

104010 @ 예.(예.)

104010 #1 물 맥영 오라 허민 물 맥여 오고. 어디 가근엥 좀 여덟 살만 되면 소, 소를 맏겼으니까 자식들한테.(물 먹여서 오라 하면 물 먹여 오고. 어디 가서 좀 여덟 살만 되면 소, 소를 맏겼으니까 자식들한테.)

104010 @ 소 길러 보셨지예?(소 길러 보셨지요?)

104010 #2 어.(어.)

104010 @ 소 길렀던 뭐 그 기억나는 거 추억이나 그런 거 잇어마씨?(소 길렀던 뭐 그 기억나는 거 추억이나 그런 거 잇어요?)

104010 #2 이 웃드르⁶⁶⁾는 저 웃드르에 암췌들 질렁 새끼 내오고. 여기는 암췌를 못 질러. 부랭이 많아 부난.(이 ‘웃드르’는 저 ‘웃드르’에 암소들 길러서 새끼 내오고. 여기는 암소를 못 질러. 수소 많아 버리니까.)

104010 @ 예.(예.)

104010 #2 부랭이 질러근엥 막 겨울에 맥영. 여름에는 번췌⁶⁷⁾ 허영 영 돌아가

66)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치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67) ‘번췌’는 이웃끼리 여러 마라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멍 췌들 다 내오주게. 이 각자들이 내 불면 모여근앵 저디 가근앵 맥여. 하루씩 돌아가명. 여름에.(수소 길러서 막 겨울에 먹여서. 여름에는 ‘번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들 다 내오지. 이 각자들이 내 버리면 모여서 저기 가서 먹여. 하루씩 돌아가면서. 여름에.)

104010 @ 음.(음.)

104001 @ 할머니 옛날에 췌 잇잖아예?(할머니 옛날에 소 잇잖아요?)

104001 #4 예.(예.)

104001 @ 췌는 어떻 길러마씨?(소는 어떻게 길러요?)

104001 #4 췌?(소?)

104001 @ 예.(예.)

104001 #4 돈 잇인 사람은 좋은 췌 사오곡 경 안 허민 우린 흐끔흔 췌 사왕.(돈 잇는 사람은 좋은 소 사오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작은 소 사와서.)

104001 @ 예.(예.)

104001 #4 금승송아기엔 곧 난 거. 일 년 췌 거.(하릅송아지라고 곧 난 거. 일 년 된 거.)

104001 @ 일 년 췌 거?(일 년 된 거?)

104001 #4 어. 그런 거 사당 잘 맥영 키우민 막 일 년 췌면 막 크는 거라.(어. 그런 거 사다가 잘 먹여서 키우면 막 일 년 되면 막 크는 거야.)

104001 @ 아, 일 년. 일 년 췌를 뭐라고 헤마씨?(아, 일 년. 일 년 된 소를 뭐라고 해요?)

104001 #4 그거 크민 또 바꾸는 거라.(그거 크면 또 바꾸는 거야.)

104001 @ 음.(음.)

104001 #4 또 막 큰 췌. 췌 췌민.(또 막 큰 소. 소 되면.)

104001 @ 예.(예.)

104001 #4 췌로 허영 팔주게.(소로 해서 팔지.)

104001 @ 예.(예.)

104001 #4 흔 번에 내쳐근앵 이제 또 키우민 췌로 내청 다시 이제 다시 죽은 췌 사다근앵 우리 딱로 키왕 딱로 바꾸곡 경 허명 살안.(한 번에 내쳐서 이제 또 키우면 소로 내쳐서 다시 이제 다시 작은 소 사서 우리 따로 키워서 따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4001 @ 아, 어떻 키워? 어떻 키워마씨? 췌는?(아, 어떻게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소는?)

104001 #4 그거 허민게 집에 매어 뒤서 출 잘 주곡.(그거 하면 집에 매어 뒤서 풀 잘 주고.)

104001 @ 어. 출 잘 주곡.(어. 풀 잘 주고.)

104001 #4 이제 그것 허여근앵 저 우리 ㅁ트민 밥 허듯이 췌 것을 들어 보리 굴멍 췌근앵.(이제 그것 해서 저 우리 같으면 밥 하듯이 소 것을 들어 보리 같면서

쥘서.)

104001 @ 예.(예.)

104001 #4 주는 거라.(주는 거야.)

104001 @ 아.(아.)

104001 #4 재기 키우젠.(빨리 키우려고.)

104001 @ 예.(예.)

104001 #4 재기 키우젠 경 허영계. 허영 맥이민 막 스뭇 쉼 막 몇 키로 막 커 가면 쉼 장사들이 와근엥 바뀜 가는 거라.(빨리 키우려고 그렇게 했어. 해서 먹이면 막 사뭇 소 막 몇 킬로 막 커 가면 소 장사들이 와서 바뀌서 가는 거야.)

104001 @ 음.(음.)

104001 #4 작은 쉼 가져와근엥 큰 쉼로 바뀜 가근엥 그 사람들 장스 허주게.(작은 소 가져와서 큰 소로 바꿔 가서 그 사람들 장사 하지.)

104001 @ 아.(아.)

104001 #4 계민 우리 다시 흥살 운가 얻어근엥.(그러면 우리 다시 조금 웃돈 얻어서.)

104001 @ 뭐 얻어근엥? 운가?(뭐 얻어서요? 웃돈?)

104001 #4 운가엔 허주게.(웃돈이라고 하지.)

104001 @ 운가가 뭐짱?(웃돈이 뭐입니까?)

104001 #4 우리 큰 쉼 줘근엥.(우리 큰 소 줘서.)

104001 @ 예.(예.)

104001 #4 작은 쉼 가정 오민 우리신더레 돈을 주는 거라.(작은 소 가져서 오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야.)

104001 @ 예. 아 그걸 운가라고 헤마씨?(예. 아 그걸 웃돈이라고 해요?)

104001 #4 어. 우수리. 운가.(어. 웃돈. 웃돈.)

104001 @ 아, 우수리. 운가.(아, 웃돈. 웃돈.)

104001 #4 운가. 경 허영 우리 중엔 그걸로 버시렁 살았주게게. 어디 일할 때 엇어. 옛날은.(웃돈. 그렇게 해서 우리 중에는 그걸로 벌면서 살았지. 어디 일할 때 없어. 옛날은.)

104001 @ 예.(예.)

104001 #4 놈의 일할 때도 엇고 이 여기 부업을 안 허니까.(남의 일할 때도 없고 이 여기 부업을 안 하니까.)

104001 @ 예.(예.)

104001 #4 돈 날 때가 엇언. 계난 도새기 질랑 새끼 내왕 풀곡. 쉼 질러근에게 흥끔헌 쉼 바꾸엥 쉼에 다신 일 년 출 맥이민 쉼이 막 슬지곡 크는 거라.(돈 날 때가 없었어. 그러니 돼지 길러서 새끼 내어서 팔고. 소 길러서 조그마한 소 바꾸어서 소에 다시는 일 년 풀 먹이면 소가 막 살찌고 크는 거야.)

104001 @ 아.(아.)

104002 @ 그럼 그 쇠도 종류가 있잖아예? 쇠 종류.(그럼 그 소도 종류가 있잖아요? 소 종류.)

104002 #4 어.(어.)

104002 @ 쇠 종류 아는 거 잇수광? 뭐, 뭐 잇어?(소 종류 아는 거 있습니까? 뭐, 뭐 잇어?)

104002 #4 종류 몰라.(종류 몰라.)

104002 @ 색깔. 색깔 잇잖아예?(색깔. 색깔 잇잖아요?)

104002 #4 색깔게 노랑 현 것도 쇠꼭 꺼멍 쇠도 쇠고.(색깔 노랑 한 것도 있고 꺼멍 소도 있고.)

104002 @ 꺼멍 쇠는 무슨 쇠라고 헤마씨?(꺼멍 소는 무슨 소라고 해요?)

104002 #4 아니. 그냥 꺼멍 쇠엔만 헛주게.(아니. 그냥 꺼멍 소라고만 했지.)

104002 @ 아, 꺼멍 쇠. 그럼 빨 모양에 따라 빨 모양도 좀 달라신가마씨?(아, 꺼멍 소. 그럼 빨 모양에 따라 빨 모양도 좀 달랐어요?)

104002 #4 어. 모양도 빨도 다 질르면서 곱게 나는 빨.(어. 모양도 빨도 다 기르면서 곱게 나는 빨.)

104002 @ 예.(예.)

104002 #4 곱게 이제 막 굳게 다시 나는 거는 그런 건 우린 잘 몰라게.(곱게 이제 막 굳게 다시 나는 거는 그런 거는 우리는 잘 몰라.)

104003 @ 아, 소는 어떻 이용헤마씨? 뭐 헐 때? 밧 갈 때?(아, 소는 어떻게 이용해요? 뭐 할 때? 밧 갈 때?)

104003 #4 밧 갈 때게.(밧 갈 때.)

104004 @ 그럼 밧 갈젠 허민 이렇게 소 교육 시켜야 허잖아예?(그럼 밧 가려고 하면 이렇게 소 교육 시켜야 하잖아요?)

104004 #4 이제 아방은 잠데 심어근엔 쇠 메왕 잠데 허곡. 우린 쇠 이끌엇거든.(이제 아버지는 쟁기 잡아서 소 메워서 쟁기 하고. 우리는 소 이끌엇거든.)

104004 @ 음.(음.)

104004 #4 질 가르치젠.(질 가르치려고.)

104004 @ 아, 질 가르치젠.(아, 질 가르치려고.)

104004 #4 어.(어.)

104004 @ 아, 그럼 어떻 가르친마씨?(아, 그럼 어떻게 가르쳤어요?)

104004 #4 경 허민 혼 혼낫젠 허민 어떤 쇠는 막 잘 허여.(그렇게 하면 혼 혼낫다고 하면 어떤 소는 막 잘 해.)

104004 @ 아, 혼나민?(아, 혼나면?)

104004 #4 어. 버르쟁이 굿인 쇠는 느시 배우지 못헤근엔 허곡.(어. 버르장이 없는 소는 도저히 배우지 못해서 하고.)

104004 @ 예.(예.)

104004 #4 것도 쇠 성질 좋은 쇠는 얼른 허민 가르쳐져 밧, 밧.(것도 소 성질

좋은 소는 얼른 하면 가르쳐져 발, 발.)

104004 @ 아, 얼른 하면?(아, 얼른 하면?)

104004 #4 어. 경 행 우리 밧 가르치명 키와근엥 그거 운가 언엥 살꼭 경 허 명.(어. 그렇게 해서 우리 밧 가르치면서 키워서 그거 웃돈 얻어서 살고 그렇게 하면서.)

104005 @ 아, 그럼 소 나이 잇잖아예? 뭐 혼 살은 뭐라고 하고, 두 살은 뭐라고 해마씨?(아, 그럼 소 나이 잇잖아요? 뭐 한 살은 뭐라고 하고, 두 살은 뭐라고 해요?)

104005 #4 혼 살은 금싱.(한 살은 하릅.)

104005 @ 금싱? 어. 그럼, 두 살은?(하릅? 어. 그럼, 두 살은?)

104005 #4 두 살은 다간.(두 살은 두습.)

104005 @ 다간. 세 살은?(두습, 세 살은?)

104005 #4 나릅이여 무신 사릅이여 사릅, 나릅 경 헛지.(나릅이여 무슨 사릅이여 사릅, 나릅 그렇게 헛지.)

104005 @ 아, 사릅, 나릅 경 헛?(아, 사릅, 나릅 그렇게 했어요?)

104005 #4 어.(어.)

104006 @ 그럼 쟁기 잇잖아예? 쟁기.(그럼 쟁기 잇잖아요? 쟁기.)

104006 #4 쟁기, 쟁기.(쟁기, 쟁기.)

104006 @ 예. 이렇게 소 할 때 이렇게 허는 거.(예. 이렇게 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104006 #4 어.(어.)

104006 @ 그거는 뭐 이름이 따로 잇인가마씨? 부분마다? 잠데 쟁기?(그거는 뭐 이름이 따로 있어요? 부분마다? ‘잠데’ 쟁기?)

104006 #4 잠데, 쟁기. 그제 그거.(‘잠데’, 쟁기. 그제 그거.)

104009 @ 그믄 그 소목장도 잇엇수광? 여기?(그러면 그 소목장도 잇엇습니까? 여기?)

104009 #4 소목장은 저 웃드리 강 이 으름 나가민 목장 강 올리주게.(소목장은 저 ‘웃드리’ 가서 이 여름 나가면 목장 가서 올리지.)

104009 @ 아, 목장 여기도 옛날에 목장 잇언마씨?(아, 목장 여기도 옛날에 목장 잇엇어요?)

104009 #4 저 웃드리에 올라강 저 산에 가야 헛거난.(어 ‘웃드리’에 올라가서 저 산에 가야 하니까.)

104009 @ 예.(예.)

104009 #4 그건 그딤 가근엥 으름에 췌 이되서 이녁이 간호 못허민.(그건 거기 가서 여름에 소 여기서 이녁이 간호 못하면.)

104009 @ 예.(예.)

104009 #4 그딤 가근엥 소, 소 보는 사람이 셔 목장에.(거기 가서 소, 소 보는

사람이 있어 목장에.)

104009 @ 아. 목장에 소 보는 사람이 있어마씨?(아. 목장에 소 보는 사람이 있어요?)

104009 #4 어. 계민 그딴 강 땀경 시월 달 나가민 몰아오는 거라.(어. 그러면 거기 가서 맡겨서 시월 달 되면 몰아오는 거야.)

104009 @ 아, 그 목장에 잇는 사람보고 이름 뭐라고 해마씨? 소 거기 목장에 잇는 사람.(아, 그 목장에 잇는 사람보고 이름 뭐라고 해요? 소 거기 목장에 잇는 사람.)

104009 #4 몰라. 이름은. 아니 허염주만은 우린 그런 건 몰라. 남저들이 강 맡경 오난 우리는 그런 거 몰라.(몰라. 이름은. 안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몰라. 남자들이 가서 맡겨서 오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몰라.)

104010 @ 그럼 할머니도 젊으셨을 때는 췌 질렀지예?(그럼 할머니도 젊으셨을 때는 소 길렀지요?)

104010 #4 계.(그럼.)

104010 @ 그럼 뭐 옛날 추억 그런 거 잇수광?(그럼 뭐 옛날 추억 그런 거 잇습니까?)

104010 #4 그냥 질러근앵 운가 얻어근앵 살앗주께.(그냥 질러서 웃돈 얻어서 살았지.)

104010 @ 아, 운가 얻으멍 살안?(아, 웃돈 얻으면서 살았어요?)

104010 #4 어.(어.)

104010 @ 그럼 막 말 잘 들엇던 췌도 잇엇수광?(그럼 막 말 잘 들엇던 소도 잇었습니까?)

104010 #4 어. 말 잘 들엇던 췌도 잇곡. 어떤 췌는 허영 놔두난 사람 가가믄 막 질러부는 췌도 잇고.(어. 말 잘 들엇던 소도 잇고. 어떤 소는 해서 놔두니까 사람 가가면 막 질러버리는 소도 잇고.)

104010 @ 아, 질러부는 췌도 잇어?(아, 질러버리는 소도 잇어?)

104010 #4 어. 확 질러부는 췌도 셔 허민 그런 건 바로 도사에 가 버려.(어. 확 질러버리는 소도 잇어 하면 그런 건 바로 도살장에 가 버려.)

104010 @ 아, 바로 도사에 가마씨?(아, 바로 도살장에 가요?)

104010 #4 어. 췌도 성질 좋은 건 막 좋아.(어. 소도 성질 좋은 건 막 좋아.)

104010 @ 성질 나쁜 것들도 잇엇수광?(성질 나쁜 것들도 잇었습니까?)

104010 #4 나쁜 건게 사람 보민 막 질러 불곡게.(나쁜 거는 사람 보면 막 질러 버리고.)

104010 @ 아.(아.)

104010 #4 일도 안 허젠 이제 스뭇 그르쳐 가민.(일도 안 하려고 이제 사뭇 그르쳐 가면.)

104010 @ 예.(예.)

104010 #4 밧 갈러 가민 탁 들어 누워 불곡.(밭 가려고 가면 탁 들어 누워 버리고.)

104010 @ 아, 들어 누워 버려마씨?(아, 들어 누워 버려요?)

104010 #4 들어 누워 버려. 이제 경 험 쉼 잇이민 이제 담뱃불로 붙영 그걸로 허영 가르쳐 보젠 해도 그런 건 즐바로 못 가르치게.(들어 누워 버려. 이제 그렇게 한 소 있으면 이제 담뱃불로 붙여서 그걸로 해서 가르쳐 보려고 해도 그런 거는 똑바로 못 가르쳤어.)

104010 @ 즐바로 못 가르쳐?(똑바로 못 가르쳐?)

104010 #4 어. 우리도 쉼 몇 개 허영 밧 곶아 봤인디.(어. 우리도 소 몇 개 해서 밧 갈아 봤는데.)

104010 @ 음. 한 몇 마리 길러 질러 봤수광?(음. 한 몇 마리 길러 길러 봤습니까?)

104010 #4 몇 마리스 질렀인지. 매해 하나씩 길렀주게.(몇 마라야 길렀는지. 매해 하나씩 길렀지.)

104010 @ 아, 거의 매해 하나씩?(아, 거의 매해 하나씩?)

104010 #4 어. 흔해 허영 어린 어린 쉼 사다근앵 막 잘 맥영 키왕 또 어린 거 바꾸곡 매해에 바꾸난.(어. 흔해 해서 어린 어린 소 사다가 막 잘 먹여서 키워서 또 어린 거 바꾸고 매해에 바꾸니까.)

104010 @ 음. 그게 돈이 좀 돼마씨? 운가가?(음. 그게 돈이 좀 되요? 웃돈이?)

104010 #4 게난게 돈 날 때는 엇고 허난 그걸로 살앗젠 허난?(그러니까 돈 날 때는 없고 하니까 그걸로 살았다고 하니까?)

104010 @ 아. 그럼 쉼장시는 어디 잇어마씨?(아. 그럼 소장수는 어디 있어요?)

104010 #4 이 동네 사람게.(이 동네 사람.)

104010 @ 아, 동네 사람 잇언?(아, 동네사람 있었어요?)

104010 #4 어. 동네 사람도 잇고 웨방서도 쉼 잘 맥염져 허민 사러 막 와.(어. 동네 사람도 있고 외방에서도 소 잘 먹인다고 하면 사러 막 와.)

104010 @ 사러 막 와마씨?(사러 막 와요?)

104010 #4 쉼 규정 이제 좋은 쉼 가정 오랭 행 놔두민. 좋은 쉼 가정 바꾸레 와.(소 가지고 이제 좋은 소 가져서 오라고 해서 놔두면. 좋은 소 가져서 바꾸러 와.)

104010 @ 그럼 족은 쉼는 그 어디 강 사와마씨?(그럼 작은 소는 그 어디 가서 사와요?)

104010 #4 몰라 지네들 어디 강 사오는지. 새끼 난 것 헤근앵 사오주게.(몰라 자기네들 어디 가서 사오는지. 새끼 난 것 해서 사오지.)

말 기르기

104011 @ 그럼 말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잇인가마씨? 기르진 았아도 대충 알

잦아예?(그럼 말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어요? 기르진 않아도 대충 알잖아요?)
 104011 #1 말은 몰라.(말은 몰라.)
 104011 @ 말은 몰라마씨?(말은 몰라요?)
 104011 #1 어.(어.)
 104011 @ 그럼 돌도 키워마씨?(그럼 말도 키웠어요?)
 104011 #4 어?(어?)
 104011 @ 몰.(말.)
 104011 #4 돌은 우린 이딴건 아니 키워 봤인디 저 친정에선.(말은 우리는 여기서 안 키워 봤는데 저 친정에서는.)
 104011 @ 예.(예.)
 104011 #4 우린 아버님네는 몰 지르곡 쉼도 질르곡 허연.(우리는 아버님네는 말 기르고 소도 기르고 했어.)
 104011 @ 아, 그럼 몰 지르는 거 구경 했겠다예? 어렸을 때 줌.(아, 그럼 말 기르는 거 구경 했겠군요? 어렸을 때 줌.)
 104011 #4 거 영 허곡게 몰 질러근엔게. 밧 뵘을 때.(거 이렇게 하고 말 길러서. 밧 뵘을 때.)
 104011 @ 몰은 어떻 질러마씨?(말은 어떻게 길러요?)
 104011 #4 그건 그거 춤 목장에 강 낡 질뤄.(그건 그거 참 목장에 가서 낡서 길러.)
 104011 @ 아, 목장에 강 질러야 돼마씨?(아, 목장에 가서 길러야 되요?)
 104011 #4 어.(어.)
 104012 @ 그럼 돌도 종류가 잇수광?(그럼 말도 종류가 잇습니까?)
 104012 #4 종류는 무신, 무신 종류가 잇어신지.(종류는 무슨, 무슨 종류가 잇었는지.)
 104012 @ 그 가래몰 이런 거 안 들어봐마씨?(그 가래말 이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104012 #4 그런 거? 색깔로 뭐 칭총매여 무신.(그런 거? 색깔로 뭐 칭총매여 무슨.)
 104012 @ 예. 예. 그런 거마씨. 색깔로 칭총매? 그 다음에.(예. 예. 그런 거요. 색깔로 칭총매? 그 다음에.)
 104012 #4 다시 무싱거여 막 이름들 막 잘 곺아. 근데 그런 거 우린 관심에 엇어게.(다시 무엇 막 이름들 막 잘 말해. 근데 그런 거 우리는 관심에 없어.)
 104013 @ 그럼 말은 언제 이용해마씨?(그럼 말은 언제 이용해요?)
 104013 #4 언제 그것도 혼엇이 쉼만이 이용은 안 허는 거라.(언제 그것도 별로 소만큼 이용은 안 하는 거야.)
 104013 @ 아 쉼만은 이용 안 해?(아 소만큼 이용 안 해?)
 104013 #4 그자 조팍 킬릴 때.(그저 조밥 밧을 때.)

104013 @ 아, 조팍 볼릴 때?(아, 조팍 밟을 때?)

104013 #4 어. 그럴 때 몰아당 우린 뭘 조름에 들어서믄 뭘똥 주시렌 헛주게.
(어. 그럴 때 몰아다가 우리는 말 뒤에 들어서면 말똥 주우라고 했지.)

104013 @ 그럼 읍길 때는 뭐 안 썸마씨?(그럼 읍길 때는 뭐 안 썼어요?)

104013 #4 어?(어?)

104013 @ 그 읍길 때 조 그튼 거 이렇게 갈아근엿.(그 읍길 때 조 같은 거 이렇게 갈아서.)

104013 #4 아, 그것도.(아, 그것도.)

104013 @ 예.(예.)

104013 #4 질메 지와근엿 그거 시꺼오고 경 헛주. 뭘에도 시끄고 쉼에도 시끄고.(길마 지워서 그거 실어오고 그렇게 했지. 말에도 싣고 소에도 싣고.)

104013 @ 아, 질메 지와근엿?(아, 길마 지워서?)

104013 #4 어. 질메 지왕 헛주게.(어. 길마 지워서 했지.)

104014 @ 그럼 아까 소 나이도 잇엇잖아예? 다간, 사릅.(그럼 아까 소 나이도 잇엇잖아요? 두릅, 사릅.)

104014 #4 어.(어.)

104014 @ 말도 나이가 잇엇수광?(말도 나이가 잇엇습니까?)

104014 #4 어. 말도 다 셋주게.(어. 말도 다 잇엇지.)

104014 @ 그럼 그 이름 기억나는 거 잇수광? 그 명칭?(그럼 그 이름 기억나는 거 잇습니까? 그 명칭?)

104014 #4 몰라.(몰라.)

104014 @ 말은 혼 살 뭐라고 헛는지 기억 안 나마씨?(말은 한 살 뭐라고 헛는지 기억 안 나요?)

104014 #4 어.(어.)

104015 @ 그럼 할머니 어렸을 때 뭘 기르섯잖아예? 옛날에 집에서.(그럼 할머니 어렸을 때 말 기르섯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104015 #4 어.(어.)

104015 @ 그런 추억이나 경험 이렇게 기억나는 거 뭐 엇어마씨?(그런 추억이나 경험 이렇게 기억나는 거 뭐 없어요?)

104015 #4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오빠들이 셔노난.(그때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오빠들이 잇엇으니까.)

104015 @ 아, 오빠들이 잇언마씨?(아, 오빠들이 잇엇어요?)

104015 #4 어. 오빠들 잇이난 난 그런 거 저런 거 일을 시키지 았앙 살앗주게.
(어. 오빠들 잇으니까 난 그런 거 저런 거 일을 시키지 았아서 살앗지.)

104015 @ 아, 그냥 구경만 헛?(아, 그냥 구경만 헛어요?)

104015 #4 어. 허는 거 그냥 구경만 헛.(어. 하는 거 그냥 구경만 헛어.)

떡이

104016 @ 그러면 소 떡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마씨? 소 떡이.(그러면 소 떡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 떡이.)

104016 #1 그거 고구마 녁쿨.(그거 고구마 녁쿨.)

104016 @ 예.(예.)

104016 #1 고구마 녁쿨. 뭐 벗짚.(고구마 녁쿨. 뭐 벗짚.)

104016 @ 예.(예.)

104016 #1 어 게고 떤데 저 소 사료로 허는 쉼출⁶⁸이 있어. 쉼출로 자라는 풀들이 있어.(어. 그리고 떤데 저 소 사료로 하는 쇠꼴이 있어. 쇠꼴로 자라는 풀들이 있어.)

104016 @ 예.(예.)

104016 #1 그거 해서 주로 그거 한 시월 말 즘에 거기 가서 줌 소. 양에 따라 소 어느 정도 허면 뉘갯다허면 어 바리가 그 마흔 몫이 한 발이주게. 출, 쉼출.(그거 해서 주로 그거 한 시월 말 즘에 거기 가서 줌 소. 양에 따라 소 어느 정도 하면 되갯다하면 어 바리가 그 마흔 몫이 한 발이지. 꼴, 쇠꼴.)

104016 @ 쉼출이.(쇠꼴이.)

104016 #1 쉼출 저 소나무 밧이나 목장 같은 데 가근엥 쉼출 그 마흔 몫이 이렇게 마흔 다발이 한 발인디.(쇠꼴 저 소나무 밧이나 목장 같은 데 가서 쇠꼴 그 마흔 몫이 이렇게 마흔 다발이 한 발인데.)

104016 @ 예.(예.)

104016 #1 한 삼십 바리 내지 사십 바리. 한 삼십 바리 정도 행 집에 늘면은 그것이 소는 주식이라.(한 삼십 바리 내지 사십 바리. 한 삼십 바리 정도 해서 집에 늘면 그것이 소는 주식이라.)

104016 @ 예.(예.)

104016 #1 그계 주식이고. 간식으로는 고구마 녁쿨, 뭐 벗짚 이런 걸로 허는데. 비육을 허는 소는 그걸 이제 작두.(그계 주식이고. 간식으로는 고구마 녁쿨, 뭐 벗짚 이런 걸로 하는데. 비육을 하는 소는 그걸 이제 작두.)

104016 @ 작두?(작두?)

104016 #1 어. 작두로 출을 한 오 센티 길이로 짧게 썰어가지고.(어. 작두로 풀을 한 오 센티 길이로 짧게 썰어가지고.)

104016 @ 예.(예.)

104016 #1 사료.(사료.)

104016 @ 음.(음.)

104016 #1 사료를 서경 어 주어서 그 비육을 주었고.(사료를 섞어서 어 주어서 그 비육을 주었고.)

104016 @ 그럼 출 베는 게 그 작두로 출 베는 거마씨?(그럼 풀 베는 게 그 작

68) '쉼출'은 소먹이로 쓰이는 풀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두로 꿀 베는 거예요?)

104016 #1 출을 자르는 거주.(꿀을 자르는 거지.)

104016 @ 자르는 거마씨? 그럼 출 베기는? 뭘로?(자르는 거요? 그럼 꿀 베기는? 뭘로?)

104016 #1 어. 호미로 낮으로 허주게.(어. 낮으로 낮으로 하지.)

104016 @ 아. 낮으로마씨.(아. 낮으로요.)

104016 #1 어. 낮으로.(어. 낮으로.)

104016 @ 출 종류는 뭐 옛인가마씨?(꿀 종류는 뭐 없었나요?)

104016 #1 출 종류는 자골 뭐 그 꿀 이름을 잊어불영 살아부난게.(꿀 종류는 자귀꿀 뭐 그 꿀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버려서.)

104016 @ 아, 괜찮아마씨. 잊어불어도 상관엇고예.(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상관없고요.)

104017 @ 그럼 출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개인별로 헨마씨 아니면 단체로 해근엥 출 벤마씨?(그럼 꿀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개인별로 했어요 아니면 단체로 해서 꿀 뺐어요?)

104017 #1 여기는.(여기는.)

104017 @ 예.(예.)

104017 #1 이 저 자기 소유 출밭이 엇어.(이 저 자기 소유 꿀밭이 엇어.)

104017 @ 예.(예.)

104017 #1 자기 소유 출밭이 엇어난 목장에 어디 어디 뭐 한경면 저지리면 저지리 그 산을.(자기 소유 꿀밭이 없으니까 목장에 어디 어디 뭐 ‘한경면’ ‘저지리’면 ‘저지리’ 그 산을.)

104017 @ 예.(예.)

104017 #1 저지오름에 그 산을 사서.(‘저지오름’에 그 산을 사서.)

104017 @ 예.(예.)

104017 #1 사서 몇 사람이 몇 사람이 가서 사서 공동으로 행 오는 거주. 출만 하는 거주.(사서 몇 사람이 몇 사람이 가서 사서 공동으로 해서 오는 거지. 꿀만 하는 거지.)

104019 @ 출만마씨? 그거 만약에 거기 강 여기서 거기 강 저지에서 하면 어떻게 가져와마씨?(꿀만요? 그거 만약에 거기 가서 여기서 거기 가서 ‘저지’에서 하면 어떻게 가져와요?)

104019 #1 아니 그건 그 당시 처음에 뭐 할 때는 췌 구루마.(아니 그건 그 당시 처음에 뭐 할 때는 소 수레.)

104019 @ 예.(예.)

104019 #1 소로 구루마로 오고 그 후에 경운기로 뭐 오고 허는데. 그 출 비어근 엥 계속 날 좋으면 삼 일만에 수확이 되거든.(소로 수레로 오고 그 후에 경운기로 뭐 오고 하는데. 그 꿀 베어서 계속 날 좋으면 삼 일만에 수확이 되거든.)

104019 @ 예.(예.)

104019 #1 계 삼 일만에 수확이 안 돼근영 비가 여러 번 와 불면은 비가 오면 은 못 가져 올 수도 있어. 썩어 버려가지고.(그래서 삼 일만에 수확인 안 되어서 비가 여러 번 와 버리면 비가 오면 못 가져 올 수도 있어. 썩어 버려가지고.)

104019 @ 가지고 온 다음에 저장해야 돼잖아예?(가지고 온 다음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104019 #1 저장은 늘 허는 거주.(저장은 가리 하는 거지.)

104019 @ 아, 그건 어떻 만들어마씨?(아,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104019 #1 그게 놀이엔 허는 거는.(그게 가리라고 하는 거는.)

104019 @ 예.(예.)

104019 #1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주도 원래 처음부터 작은 면적에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원으로. 그려 원으로.(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주도 원래 처음부터 작은 면적에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원으로 그려. 원으로.)

104019 @ 예.(예.)

104019 #1 쪽 바닥으로 백 못이면 백 못. 사십 못이면 사십 못 쪽 원으로 이렇게 행 보기도 좋지 이젠. 그 건물에 비유하면은 제주도 그런데 보이는데 여튼 원으로 쪽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높이가 가로 한 이 메다 이 메다 오십 정도 돼면은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근영 그 우에 느람지.(쪽 바닥으로 백 못이면 백 못. 사십 못이면 사십 못 쪽 원으로 이렇게 해서 보기도 좋지 이젠. 그 건물에 비유하면 제주도 그런데 보이는데 하여튼 원으로 쪽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높이가 가로 한 이 미터 이 미터 오십 정도 되면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이 영.)

104019 @ 예.(예.)

104019 #1 느람지 영 더꺼서 최종적으로는 주쟁이 더꺼근영 그 줄, 줄로 이렇게 감아서 바람에 뭐 풀리지 않게 허면 그걸로 저장이 끝나는 거주게.(이영 이렇게 덮어서 최종적으로는 주저리 덮어서 그 줄, 줄로 이렇게 감아서 바람에 뭐 풀리지 않게 하면 그걸로 저장이 끝나는 거지.)

104019 @ 아.(아.)

104019 #1 계난 그 제주도는 저 보리 같은 거. 집에 왕 가져갈 허는 것도 놀르는 거고. 어 가축 사료 출 허는 것도 다 놀 놀러서 저장을 했다고 봐야지. 제주도는.(그러니 그 제주도는 저 보리 같은 거. 집에 와서 가져가서 하는 것도 가리는 거고. 어 가축 사료 풀 하는 것도 다 가리 가려서 저장을 했다고 봐야지. 제주도는.)

104020 @ 출이 이제 여물로 바뀌는 거잖아예? 아닌가마씨?(풀이 이제 여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104020 #1 출이 여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거 파란 풀인데.(풀이 여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거 파란 풀인데.)

104020 @ 예.(예.)

104020 #1 그 띠 모양으로 생긴 풀인데.(그 띠 모양으로 생긴 풀인데.)

104020 @ 예.(예.)

104020 #1 띠 모양으로 생긴 풀을 삼일 간 건조하면은.(띠 모양으로 생긴 풀을 삼일 간 건조하면.)

104020 @ 예.(예.)

104020 #1 그 썩지를 얹아. 게난 그걸 그 풀을 그대로 말렸다가 주는 거주.(그 썩지를 얹아. 그러니 그걸 그 풀을 그대로 말렸다가 주는 거지.)

104016 @ 그 큰 그 말이랑 쉼 키우젠 허민 먹이 줘야 돼잖아예?(그러면 그 말이랑 소 키우려고 하면 먹이 줘야 되잖아요?)

104016 #4 몰도게 이 쉼 쉼 맥이는 거 그런 출 행 먹였주게.(말도 이 소 소 먹이는 거 그런 풀 해서 먹였지.)

104016 @ 아, 출 행 맥연마씨?(아, 풀 해서 먹였어요?)

104016 #4 어.(어.)

104017 @ 그 출은 어디서 난마씨?(그 풀은 어디서 났어요?)

104017 #4 출은 우리 저 출왓 허여근에.(풀은 우리 저 풀밭 해서.)

104017 @ 예.(예.)

104017 #4 이녁냥으로 혼 밧씩 사는 거라.(스스로 한 밧씩 사는 거야.)

104017 @ 아, 이녁냥으로 출왓은 산마씨?(아, 스스로 풀밭은 샀어요?)

104017 #4 어. 출왓.(어. 풀밭.)

104017 @ 어디서 산마씨?(어디서 샀어요?)

104017 #4 이녁 허지 았으민 출왓이 허지 았으민 저 남송이오름⁶⁹에 가근엥 출왓 사근엥 그딤 강 그 출 비엥 오라근엥 막 몰도 주곡 쉼도 주곡 경 험.(이녁 하지 았으면 풀밭이 하지 았으면 저 ‘남송이오름’에 가서 풀밭 사서 거기 가서 그 풀 베어서 와서 막 말도 주고 소도 주고 그렇게 했어.)

104017 @ 아, 그 무슨 남송이오름?(아, 그 무슨 ‘남송이오름’?)

104017 #4 남송이오름 이제 저 동광.(‘남송이오름’ 이제 저 ‘동광’.)

104017 @ 아, 동광에 잇는 남송이오름?(아, ‘동광’에 잇는 ‘남송이오름’?)

104017 #4 어. 그딤 보고 남송이오름이렌 헛주 그저.(어. 거기 보고 ‘남송이오름’ 이라고 했지 그저.)

104017 @ 거기에 잇는 그런 출왓 거기에 출왓이 잇엇수광?(거기에 잇는 그런 풀밭 거기에 풀밭이 잇엇습니까?)

104017 #4 어. 그딤 출왓이 잇어근엥. 출왓 그딤 막 풀 것들이 하. 밧 밧을 아니 풀고 출만.(어. 거기 풀밭이 잇어서. 풀밭 거기는 막 풀 것들이 많아. 밧 밧을 안 팔고 풀만.)

104017 @ 거기는 출만?(거기는 풀만?)

69) ‘남송이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1번지에 있는 오름을 의미한다.

104017 #4 어. 경 허민 우린 밤 자명 거기 강 비어당 쉼 맥이곡 들도 맥이곡 헛 주게.(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밤 자면서 거기 가서 베어다가 소 먹이고 말도 먹이고 했지.)

104018 @ 그럼 그 출은 어떻 베마씨? 비영 출 베기는 어떻 해마씨?(그럼 그 풀은 어떻게 베요? 베어서 풀 베기는 어떻게 해요?)

104018 #4 출 베기는 손으로 호미로 비엿주게 우린.(풀 베기는 손으로 낫으로 베었지 우리는.)

104018 @ 아, 호미로?(아, 낫으로?)

104018 #4 호미로 강 비어근영.(낫으로 가서 베어서.)

104018 @ 예.(예.)

104018 #4 흔 사흘 물렁. 흔 흔 삼일 이추록 햇빛 잘 나민.(한 사흘 말려서. 한한 삼일 이처럼 햇빛 잘 나면.)

104018 @ 예.(예.)

104018 #4 게 출 바삭 물르민 그거 다 무끄영 것도 것도 이제 새 해다근영 무생이 만들영 저거추록.(풀 바삭 마르면 그거 다 묶어서 것도 것도 이제 새 해다가 매끼 만들어서 저거처럼.)

104018 @ 아.(아.)

104018 #4 만들어근영.(만들어서.)

104018 @ 예.(예.)

104018 #4 헛당 경 행 무끄어근영 막 쉼로 시꺼 왓주게. 들로도 시꺼 오희 쉼로도 시꺼 오희.(헛다가 그렇게 해서 묶어서 막 소로 싣고 왓지. 말로도 싣어 오고 소로도 싣어 오고.)

104018 @ 아, 다 시꺼 완마씨?(아, 다 싣어 왔어요?)

104018 #4 어.(어.)

104019 @ 그러니까 그거 그 출왓에서 이디까지 가져오잖아예?(그러니까 그거 그 풀밭에서 여기까지 가져오잖아요?)

104019 #4 이디ㄷ정 가져와근영 이 영 우갓70)이 영 헌데 놀엇다근영.(여기까지 가져와서 이 이렇게 ‘우갓’에 이렇게 한데 쌓았다가.)

104019 @ 예.(예.)

104019 #4 막 그거 놀어사 그거 쉼도 맥이곡 들도 맥이곡.(막 그거 쌓아야 그거 소도 먹이고 말도 먹이고.)

104019 @ 그럼 그거 막 말린 다음에 저장해야 돼잖아예? 보관해야 돼잖아예?(그럼 그거 막 말린 다음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보관해야 되잖아요?)

104019 #4 계메 보관 허는 걸 이디 왕 놀르는 거라.(글쎄 보관 하는 거를 여기 와서 쌓는 거야.)

104019 @ 아, 누는 거마씨?(아, 쌓는 거예요?)

70) ‘우갓’은 한 집안의 울타리의 안쪽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4019 #4 어. 이젠 창고들 잇이난 영 해도 그때는게 마당에 영 행 놀어근엿 헛 주게.(어. 이제는 창고들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그때는 마당에 이렇게 해서 쌓아서 헛지.)

104020 @ 그믐 여물도 만들잖아예?(그러면 여물도 만들잖아요?)

104020 #4 응?(응?)

104020 @ 여물.(여물.)

104020 #4 여물은 무신?(여물은 무슨.)

104020 @ 소 먹이는 여물 이렇게 출로 그냥 출 그냥 먹여마씨?(소 먹이는 여물 이렇게 풀로 그냥 풀 그냥 먹여요?)

104020 #4 출, 출만 먹여 출 그냥.(풀, 풀만 먹여 풀 그냥.)

104020 @ 뭐 그거 끓여가지고 먹이는 건 아니짱?(뭐 그거 끓여가지고 먹이는 건 아녘니까?)

104020 #4 아니 일이나 부리젠 허민 췌겇 췌겇 헛주 우리 옛날엔.(아니 일이나 부리려고 하면 쇠먹이 쇠먹이 헛지 우리 옛날에는.)

104020 @ 예?(예?)

104020 #4 췌 맥이젠 허민 췌 일 부리젠 허민.(소 먹이려고 하면 소 일 부리려고 하면.)

104020 @ 예.(예.)

104020 #4 췌겇을 삶는 거라.(쇠먹이를 삶는 거야.)

104020 @ 아, 췌 무엇을 삶아마씨?(아, 소 무엇을 삶아요?)

104020 #4 보리를 곱앙 어떻 헛당 그걸 막 출에 서끄엿 삶앙.(보리를 갈아서 어떻게 헛다가 그걸 막 풀에 섞어서 삶아서.)

104020 @ 아, 출에 삶앙.(아, 풀에 삶아서.)

104020 #4 삶앙 식혀근엿.(삶아서 식혀서.)

104020 @ 예.(예.)

104020 #4 그거 췌 맥영 강 밧 갈앗주게 옛날은.(그거 소 먹여서 가서 밧 갈앗지 옛날은.)

104020 @ 음.(음.)

104020 #4 일 부리젠 허문게.(일 부리려고 하면.)

104020 @ 아, 일 부리젠 허문. 경 삶앙 먹엇구나예.(아, 일 부리려고 하면. 그렇게 삶아서 먹엇군요.)

104020 #4 삶앙 것 하영 먹연.(삶아서 것 많이 먹엇어.)

104020 @ 그럼 할머니는 옛날에 출 베기는 안 헛수짱?(그럼 할머니는 옛날에 풀 베기는 안 헛습니까?)

104020 #4 출도 비고 경 헛주게.(풀도 베고 그렇게 헛지.)

104020 @ 아, 출도 비엇구나예. 출왓 강 빈 적 잇어마씨?(아, 풀도 베엇군요. 풀 밧 가서 벤 적 잇어요?)

104020 #4 어. 출왓 강 비엿주게.(어. 풀밭 가서 베엿지.)

104020 @ 그럼 한 며칠 간 강 비어마씨? 출왓에 강?(그럼 한 며칠 간 가서 베어요? 풀밭에 가서?)

104020 #4 아이고 그건 날이나 좋으면 며칠 안 비어도 여러 날 비어.(아이고 그건 날이나 좋으면 며칠 안 베어도 여러 날 베어.)

104020 @ 여러 날 비어? 그럼 몇 월 달에 보통 출왓 강 비어마씨?(여러 날 베어? 그럼 몇 월 달에 보통 풀밭 가서 베었어?)

104020 #4 하루 비어봤자 몇 바리 못 비는 거난.(하루 베어봤자 몇 바리 못 베는 거니까.)

104020 @ 그럼 그냥 아무 때나 강 비는 거? 아니면 한 오월 유월에 강 비어?(그럼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베는 거? 아니면 한 오월 유월에 가서 베어?)

104020 #4 팔월 들 하늬브름 터지믄.(팔월 달 하늬바람 터지면.)

104020 @ 하늬브름 터지믄?(하늬바람 터지면?)

104020 #4 응. 하늬브름 터지믄 가근앵 일기 봐근앵.(응. 하늬바람 터지면 가서 일기 봐서.)

104020 @ 일기 봐근앵.(일기 봐서.)

104020 #4 날 좋암직 허민 강 비고 그것도 비 맞아 불면 쉼나 물이나 안 먹어.(날 좋을 것 같으면 가서 베고 그것도 비 맞아 버리면 소나 말이나 안 먹어.)

104020 @ 아, 비 맞으면 안 먹어마씨?(아, 비 맞으면 안 먹어요?)

104020 #4 응 아니 먹어. 썩으믄 안 먹어. 게난 과랴게 물려야.(응 안 먹어. 썩으면 안 먹어. 그러니 과랴게 말려야.)

104020 @ 아.(아.)

104020 #4 게난 일기 뵙 혼 삼일 정도 좋암직 허민 확 허영 강 비주게. 물려 왕재기 비웁직 허민 재기 무끄영 시끄영 오는 거라.(그러니 일기 봐서 한 삼일 정도 좋을 것 같으면 확 해서 가서 베지. 말려 와서 빨리 비올 것 같으면 빨리 묶어서 실어서 오는 거야.)

104020 @ 아, 비, 비 맞으면 말이나 소나 안 먹는구나예?(아, 비, 비 맞으면 말이나 소나 안 먹는군요?)

104020 #4 썩으면 아니 먹어.(썩으면 안 먹어.)

땀감

104022 @ 그럼 혹시 땀감, 땀감도 알아마씨? 땀감. 예전에는 땀감 썼인다.(그럼 혹시 땀감, 땀감도 알아요? 땀감. 예전에는 땀감 썼는데.)

104022 #1 아, 땀감이야게 이 부엌에서 불 때는 게 땀감 아니냐.(아, 땀감이야 이 부엌에서 불 때는 게 땀감 아니냐.)

104022 @ 예. 그럼 땀감 종류에는 뭘, 뭘 잇언마씨?(예. 그럼 땀감 종류에는 뭘, 뭘 있었어요?)

104022 #1 아주 옛날에는 보리떡도 되고.(아주 옛날에는 보릿짚도 되고.)

104022 @ 예.(예.)

104022 #1 보리떡.(보릿짚.)

104022 @ 예.(예.)

104022 #1 또 그 유채, 유채낭.(또 그 유채, 유채 나무.)

104022 @ 예.(예.)

104022 #1 유채 탈곡한 거. 콩, 콩 탈곡 한 다음에 콩 그 나무 그 종류. 제일 그런 빨감으로 고급은 솔썩이주게. 소나무 낙엽.(유채 탈곡한 거. 콩, 콩 탈곡 한 다음에 콩 그 나무 그 종류. 제일 그런 빨감으로 고급은 솔잎이지. 소나무 낙엽.)

104022 @ 아.(아.)

104022 #1 소나무 낙엽 그걸 겨울 때에 허면 그거 해다가 늘 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빨감으로 주로 사용했고.(소나무 낙엽 그걸 겨울 때에 하면 그거 해다가 가리 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빨감으로 주로 사용했고.)

104022 @ 예.(예.)

104022 #1 장작에 소나무 같은 거 해서 그 장작 행 만들었다가 허는 것은 장작 했다가 이제 쓰는 것은 결혼식 때나 조상이 돌아갔을 때 큰일 할 때 다 이제 요즘은 뭐 예식장 같은 데서 다 허지만은. 다 집에서 손님도 치고 했으니까. 그 때 쓰기 위해서 저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한 육십 센치 길이로 행 장작해서 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로 하고.(장작에 소나무 같은 거 해서 그 장작 해서 만들었다가 하는 것은 장작 했다가 이제 쓰는 것은 결혼식 때나 조상이 돌아갔을 때 큰일 할 때 다 이제 요즘은 뭐 예식장 같은 데서 다 하지만. 다 집에서 손님도 치르고 했으니까. 그 때 쓰기 위해서 저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한 육십 센티 길이로 해서 장작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로 하고.)

104022 @ 예.(예.)

104022 #1 제일 고급 빨감은 소나무 낙엽.(제일 고급 빨감은 소나무 낙엽.)

104022 @ 음. 소나무 낙엽.(음. 소나무 낙엽.)

104022 #1 소나무 낙엽이 제일 고급 빨감이고 그 어려운 때는 보리떡도 이제 사용했주.(소나무 낙엽이 제일 고급 빨감이고 그 어려운 때는 보릿짚도 이제 사용했지.)

104023 @ 그럼 소똥이나 말똥 같은 거는?(그럼 소똥이나 말똥 같은 거는?)

104023 #1 그런 걸로 연료는 극히 이 근방에는 안 했어. 소똥 말똥이 경 많지 않으니까.(그런 걸로 연료는 극히 이 근방에는 안 했어. 소똥 말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04024 @ 솔가리 걷기 허는 거마씨?(솔가리 걷기 하는 거예요?)

104024 #1 솔가리.(솔가리.)

104024 @ 걷기. 솔가리 걷기는 안 들어보셨마씨?(걷기. 솔가리 걷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104024 #1 솔가리 걷기?(솔가리 걷기?)

104025 @ 그럼 혹시 나무, 나무해 보셨지예? 산에 가서 나무 허는 거.(그럼 혹시 나무, 나무해 보셨지요?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거.)

104025 #1 소나무 벌채. 그 옛날에는 무조건 그 산림녹화엔 뿔 때문에 무조건 자르지 못 해. 소나무 벌채 신청해가지고.(소나무 벌채. 그 옛날에는 무조건 그 산림녹화라고 뿔 때문에 무조건 자르지 못 해. 소나무 벌채 신청해가지고.)

104025 @ 예.(예.)

104025 #1 신청하면 가지는 가지대로 해다 강 놀 놀어근엥 저장했다가 쓰고.(신청하면 가지는 가지대로 해다 가서 가리 가리해서 저장했다가 쓰고.)

104025 @ 예.(예.)

104025 #1 뭐 가지말고 나무 나무는 도끼로 그 장작 만들었다가 보관했다 쓰고.(뭐 가지말고 나무 나무는 도끼로 그 장작 만들었다가 보관했다가 쓰고.)

104026 @ 숯도 구워 보셨마씨?(숯도 구워 보셨어요?)

104026 #1 여긴 옹기 하는 디 웨에는 숯을 굽지 않았주게.(여긴 옹기 하는 데 외에는 숯을 굽지 않았지.)

104022 @ 그 옛날에 지금은 보일러 잇인디 따뜻하게 허젠. 옛날에는 막 뿔감 썰잖아예? 할머니?(그 옛날에 지금은 보일러 잇는데 따뜻하게 하려고. 옛날에는 막 뿔감 썰잖아요? 할머니?)

104022 #4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엇이난 굴목⁷¹⁾ 지엇그녕 굴목 쇠뿔 돌뿔 막 주워당 헛주게.(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굴목’ 지어서 굴뿔 쇠뿔 말뿔 막 주워다가 했지.)

104022 @ 예.(예.)

104022 #4 바싹 툼러근엥 경 허영 굴목 지영 살앗주게.(바싹 말려서 그렇게 해서 ‘굴목’ 지어서 살았지.)

104022 @ 그럼 그 굴목에 들어가는 뿔감 종류에는 뭐, 뭐 잇어마씨?(그럼 그 ‘굴목’에 들어가는 뿔감 종류에는 뭐, 뭐 잇어요?)

104022 #4 그 굴목게 짓으면 다시 뿔날 강 짓젠 허민 그 불치 뿔 허난 문딱 내 쳐뿔 또 새로 만든 뿔 드밀어근엥 불 붙영 놔두면 밤이 따뜻행 구들이 따뜻행 살앗주게.(그 ‘굴목’ 지으면 다시 뿔날 가서 지으려고 하면 그 불티 뿔 하니까 전부 내 쳐뿔서 또 새로 만든 뿔 드밀어서 불 붙여서 놔두면 밤에 따뜻해서 구들이 따뜻해서 살았지.)

104022 @ 아, 구들이 따뜻행 살안마씨?(아, 구들이 따뜻해서 살았어요?)

104022 #4 어.(어.)

104024 @ 그럼 솔가리 걷기도 알아마씨?(그럼 솔가리 걷기도 알아요?)

104024 #4 어?(어?)

104024 @ 솔가리 걷기? 이렇게 솔잎 떨어진 거 이렇게.(솔가리 걷기? 이렇게

71)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술잎 떨어진 거 이렇게.)

104024 #4 아, 술잎 그건 불 습젠게.(아, 술잎 그건 불 때려고.)

104024 @ 아.(아.)

104024 #4 불 습젠게 그 소낭 밧이 강 이 감저 절간 몬 헤지믄 강 막 글쟁이로 이디 글쟁이 잇이나?(불 때려고 그 소나무 밧에 가서 이 고구마 절간 전부 하면 가서 막 갈퀴로 여기 갈퀴 잇냐?)

104024 @ 아, 저기 이거는 이거 아니짱? 이거, 이거마씨.(아, 저기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요.)

104024 #4 요거로구나. 이추록 헌 거 가정강 막 행 오는 거라.(요거로구나. 이처럼 한 거 가져가서 막 해서 오는 거야.)

104024 @ 아.(아.)

104024 #4 끌어근엥 막 시꺼당 낫당 막 그것도 데명 비 안 들게 헤근엥 저실 불습으민 살앗주게.(끌어서 막 실어 낫다가 막 그것도 쌓여 비 안 들게 해서 겨울 불때면서 살았지.)

104024 @ 음.(음.)

104024 #4 이제는 가스들 잇이난 불 아니 습아도.(이제는 가스들 잇으니까 불 안 때도.)

104024 @ 아, 이제는 가스 잇이난 경 안 해도?(아, 이제는 가스 잇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104024 #4 어.(어.)

104025 @ 그럼 그 옛날에도 나무헨마씨? 나무?(그럼 그 옛날에도 나무했어요? 나무?)

104025 #4 나무도 허고게.(나무도 하고.)

104025 @ 그럼 그 나무는 어디서 헤 왓수광?(그럼 그 나무는 어디서 헤 왓습니까?)

104025 #4 이녁 밧 잇인 사람은게 낭 쫄라근엥 허곡.(이녁 밧 잇는 사람은 나무 잘라서 하고.)

104025 @ 예.(예.)

104025 #4 도끼로 깨여근엥게.(도끼로 쪼개서.)

104025 @ 도끼로 깨여근엥?(도끼로 쪼개서?)

104025 #4 어. 경 허영 이디 막 데명 놔뒤사 헛주게.(어. 그렇게 해서 여기 막 쌓아서 놔뒤야 했지.)

104025 @ 할머니도 젊으셨을 때 나무하션마씨?(할머니도 젊으셨을 때 나무하셨어요?)

104025 #4 응. 나무허고게.(응. 나무하고.)

104025 @ 그럼 그거 어디 어디서 헤 왓수광? 어디 여기 웃드리에 강 헛수광? 산에 강 헛수광? 오름에 강?(그럼 그거 어디 어디서 헤 왓습니까? 어디 여기 '웃드

리'에 가서 했습니까? 산에 가서 했습니까? 오름에 가서?)

104025 #4 아니, 이녘 밭이 강. 저 친정에서 밭을 하나 물려주난.(아니, 이녘 밭에 가서. 저 친정에서 밭을 하나 물려주니까.)

104025 @ 아, 이녘 밭이 잇언마씨?(아, 이녘 밭이 있었어요?)

104025 #4 어. 이녘 밭 시난. 거기 소낭 싱것다근엥.(어. 이녘 밭 잇으니까. 거기 소나무 심었다가.)

104025 @ 예.(예.)

104025 #4 소낭 오래 아니 쟁 흔 십 오년만 웨민 그거 헐 수 잇엇주게.(소나무 오래 안 커서 한 십 오년만 되면 그거 할 수 있었지.)

104025 @ 아, 십 오년?(아, 십 오년?)

104025 #4 어. 십 오년 해서 그저 그거 막 쫄라다근엥 우린 그저 귀천 모르게 살당 이젠 뭐 늙어부난 그 밭도 풀아 불곡게.(어. 십 오년 해서 그저 그거 막 잘라다가 우리는 그저 귀천 모르게 살다가 이제는 뭐 늙어버리니까 그 밭도 팔아 버리고.)

104026 @ 그럼 할머니 혹시 솟은 안 구웠지예? 솟?(그럼 할머니 혹시 솟은 안 구웠지요? 솟?)

104026 #4 우린 솟 안 구웠어. 저 옷드리는 솟 구웁 살앗주게.(우리는 솟 안 구웠어. 저 '옷드리'는 솟 구워서 살았지.)

104026 @ 아, 옷드리는?(아, '옷드리'는?)

104026 #4 어.(어.)

104026 @ 여기는 안 구웁마씨?(여기는 안 구웠어요?)

104026 #4 저 청수⁷²⁾, 당물⁷³⁾은 솟 구웁 살앗어.(저 '청수', '당물'은 솟 구워서 살았어.)

104026 @ 청수랑 어디마씨?('청수'랑 어디요?)

104026 #4 청수, 당물.('청수', '당물'.)

104026 @ 아, 당물.(아, '당물'.)

104026 #4 어 그되는 솟, 솟을 구웁 살곡 우린 옛날 경 살아도 솟 구워보지 았앗주게.(어 거기는 솟, 솟을 구워서 살고 우리는 옛날 그렇게 살아도 솟 구워보지 았았지.)

사냥

104028 @ 그럼 사냥은 안 해보셨지예?(그럼 사냥은 안 해보셨지요?)

104028 # 어.(어.)

104028 @ 할머니 사냥은 안 해봤지예?(할머니 사냥은 안 해봤지요?)

104028 #4 게. 사냥.(그럼. 사냥.)

72) '청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73) '당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큰동네'의 이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당믈, 닥믈, 닥믈, 당믈'라고도 한다.

104028 @ 사냥도 해봤마씨?(사냥도 해봤어요?)
104028 #4 사냥은 안 해봤.(사냥은 안 해봤어.)
104028 @ 사냥은 안 해봤지예?(사냥은 안 해봤지요?)
104028 #4 어떻 사냥 허는 거게.(어떻게 사냥 하는 거.)

5. 바다일

105013 @ 배에 대해서 좀 고깃배 종류는 뭐 잇어마씨?(배에 대해서 좀 고깃배 종류는 뭐 잇어요?)
105013 #1 그것도 여기 사람 잘 몰라.(그것도 여기 사람 잘 몰라.)
105013 @ 신도일리는 모르카마씨?('신도일리'는 모를까요?)
105013 #1 신도이리 가야 알아.('신도이리' 가야 알아.)
105013 @ 아, 이리 가야 알아마씨?(아, 이리 가야 알아요?)
105013 #1 신도이리 가야 알아.('신도이리' 가야 알아.)
105001 @ 바다에서 옛날에 무슨 일 무슨 일 헨마씨?(바다에서 옛날에 무슨 일 무슨 일 했어요?)
105001 #3 바다에 채얌인 옛날엔 비료도 엇고 아무 것도 엇으난.(바다에 처음에는 옛날에는 비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105001 @ 예.(예.)
105001 #3 바당에 몹 즘물어당 밭에 짚앙 농사허곡.(바다에 모자반 캐다가 밭에 깔아서 농사하고.)
105001 @ 음.(음.)
105001 #3 이제 그건 그건디. 이 먹는 건 막 여러 가지라.(이제 그건 그건데. 이 먹는 건 막 여러 가지라.)
105001 @ 아, 막 여러 가지마씨?(아, 막 여러 가지요?)
105001 #3 고기도 소살도 쏘아근엥 허여오곡 이제 테왁 가져강 낚음도 허곡.(고기도 작살도 쏘아서 해오고 이제 '테왁' 가져가서 낚기도 하고.)
105001 @ 예.(예.)
105001 #3 나 낚아 온 것도 하영 낚아 오곡. 소살도 소살로도 찢렁 막 하영 찢렁 낚아 오곡.(나 낚아 온 것도 많이 낚아 오고. 작살도 작살로도 찢러서 막 많이 찢러서 낚아 오고.)
105001 @ 아, 막 이것저것 많이 헛구나예.(아, 막 이것저것 많이 했군요.)
105001 #3 어.(어.)
105002 @ 그럼 듬복이나 감태 알아마씨?(그럼 모자반이나 감태 알아요?)
105002 #3 거 알아.(거 알아.)
105002 @ 그거 여기 어 개인별로 헤마씨? 아니면 사람들이 모영 헤마씨?(그거

여기 어 개인별로 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해요?)

105002 #3 모영 허는 거 아니. 저 감태 그냥 바당 세면 막 메와들어근영⁷⁴⁾ 곳 이 막 모이주게.(모여서 하는 거 아니. 저 감태 그냥 바다 세면 막 한쪽으로 모여들어서 가에 막 모이지.)

105002 @ 예.(예.)

105002 #3 겐디 헐 사람은 그거 깔아근영 허당 어디 밧이 놓고 경 안 헐 사람은 안 허여.(그런데 할 사람은 그거 깔아서 하다가 어디 밧에 놓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안 해.)

105002 @ 아. 그믄 듬북은 뭇짱?(아. 그러면 모자반은 뭇니까?)

105002 #3 듬북? 뭇.(‘듬북’? 모자반.)

105002 @ 아, 뭇?(아, 모자반?)

105002 #3 뭇도 그 듬북이엔 헐 거 잇주게.(모자반도 그 ‘듬북’이라고 한 거 있지.)

105002 @ 그건 어떻 어떻 어떻 채취해마씨? 어떻 캐마씨?(그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채취해요? 어떻게 캐요?)

105002 #3 그거 듬북이엔 헐 건 저 감태추룩 영 덩케기는 하나라.(그거 모자반이라고 한 건 저 감태처럼 이렇게 둥치는 하나라.)

105002 @ 예.(예.)

105002 #3 하난디 영 질어 허민.(하나인데 이렇게 질어 허면.)

105002 @ 예.(예.)

105002 #3 물에 들어강 영 그거 즈물젠 허민 막 요레 강 요거 세운 거추룩 그치민 그것이 우트레 올라와. 뭇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 캐려고 하면 막 요리가서 요거 세운 것처럼 끓으면 그것이 위에 올라와. 모자반이.)

105002 @ 예.(예.)

105002 #3 올라오민 그냥 밀려근영 곳에ㄱ정 밀려오민 곳이서 또 난 것을 이제 그것을 덩겨다근영 이제 또 올리고.(올라오면 그냥 말려서 가에까지 밀려오면 가에서 또 난 것을 이제 그것을 당겨서 이제 또 올리고.)

105002 @ 그럼 감태는 어떻 채취해마씨? 감태는?(그럼 감태는 어떻게 채취해요? 감태는?)

105002 #3 감태는 즈물지 안 허여.(감태는 캐지 안 해.)

105002 @ 즈물지 안 허여?(캐지 안 해?)

105002 #3 바당 세면 막 메와정 밀령 문딱 올라와.(바다 세면 막 한쪽으로 모여들어서 밀려서 전부 올라와.)

10500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02 #3 응.(응.)

105003 @ 그럼, 고둥이나 게도 잡앗, 잡앗지예?(그럼, 고둥이나 게도 잡았, 잡았

74) ‘메와들다’는 한쪽으로 모여들다의 제주어이다.

지요?)

105003 #3 고등이나 게.(고등이나 게.)

105003 @ 강이?(게?)

105003 #3 고등이나 강이엔 현 거여 뭐, 뭐 아니 허는 것이 엇이 다 허여.(고등이나 게라고 하 거여 뭐, 뭐 안 하는 것이 없이 다 해.)

105003 @ 그럼 고등이나 강이는 어떻 잡아마씨?(그럼 고등이나 게는 어떻게 잡아요?)

105003 #3 강이는 돌 일리민 확 돌아불기 때문에 손 빠른 사람은 확확 심어도⁷⁵⁾ 경 아니 허민 심지도 못 허여.(게는 돌 일으키면 확 달아나버리기 때문에 손 빠른 사람은 확확 붙잡아도 그렇게 안 하면 잡지도 못 해.)

105003 @ 그럼 고등은 어떻 잡았수광?(그럼 고등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105003 #3 고등은, 고등은 저 안네도 싯고 돌에 영 현 디도 싯고 영 잡주.(고등은, 고등은 저 안에도 있고 돌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잡지.)

10500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03 #3 응.(응.)

105004 @ 그럼 고등 종류 잇수게. 뭐, 뭐 잇어마씨? 고등의 종류는.(그럼 고등 종류 있지 않습니까. 뭐, 뭐 잇어요? 고등의 종류는.)

105004 #3 고등 종류 고등베끼 안 글앗인디.(고등 종류 고등밖에 안 말했는데.)

105004 @ 아, 고등밖에 안 글안?(아, 고등밖에 안 말했어요?)

105004 #3 어.(어.)

105005 @ 그럼 강이는 종류 엇엇수광? 강이.(그럼 게는 종류 없었습니까? 게.)

105005 #3 강이는 그거 이제 강이엔 안 허여. 옛날엔 우린 강이라고 헛인디 이제는 게, 게.(게는 그거 이제 ‘강이’라고 안 해. 옛날에는 우리 ‘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게, 게.)

105005 @ 그럼 게는 종류가 뭐, 뭐 잇어마씨?(그럼 게는 종류가 뭐, 뭐 잇어요?)

105005 #3 종류?(종류?)

105005 @ 예.(예.)

105005 #3 종류 몰라.(종류 몰라.)

105005 @ 게는 종류 하나밖에 엇엇인가마씨?(게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나요?)

105005 #3 어. 어.(어. 어.)

105006 @ 그든 그 옛날에 햇불 잇잖아예? 햇불. 햇불로도 뭐 고기 그 채취할 때 햇불 이용헨마씨? 햇불로?(그러면 그 옛날에 햇불 잇잖아요? 햇불. 햇불로도 뭐 고기 그 채취할 때 햇불 이용했어요? 햇불로?)

105006 #3 햇불로 허는 건.(햇불로 하는 건.)

105006 @ 예.(예.)

75) 제주어로 ‘심다’는 ‘붙잡다, 잡다’의 의미와 ‘심다(植)’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05006 #3 남자덜.(남자들.)
 105006 @ 예.(예.)
 105006 #3 저 혼 어두와근엥 흐끔 잇이민 바당에 가지?(저 한 어두워서 조금 있으면 바다에 가지?)
 105006 @ 예.(예.)
 105006 #3 가민 그 불 비추민 그 뉘. 물꾸럭 말앙 저.(가면 그 불 비추면 그 뉘. 문어 말고 저.)
 105006 @ 물꾸럭 말앙 뉘마씨?(문어 말고 뉘요?)
 105006 #3 아고, 나 이름 잊어버려부난.(아고, 나 이름 잊어버리니까.)
 105006 @ 아 이름 잊어버려도 상관엇어마씨.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줘서. 그냥 고기?(아 이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고기?)
 105006 #3 것ㄴ라 뉘이라 헌다마는. 저 생체로 헤여근엥 먹는 거.(그것더러 뉘이라 헌다마는. 날것 그대로 먹는 거.)
 105006 @ 아, 그런 거 잇엇수광?(아, 그런 거 잇엇습니까?)
 105006 #3 응.(응.)
 105006 @ 헛불로 행 그걸 잡아마씨?(헛불로 해서 그걸 잡아요?)
 105006 #3 어. 그거 잡아.(어. 그거 잡아.)
 105007 @ 그뉘 원이나 원담⁷⁶⁾이랑 갯담 알아마씨?(그러면 원이나 ‘원담’이랑 ‘갯담’ 알아요?)
 105007 #3 원담 영 헤여근엥 행 왕 허는디.(‘원담’ 이렇게 해서 해서 와서 하는 데.)
 105007 @ 예.(예.)
 105007 #3 옛날엔 막 그디 멜도 들어오주게.(옛날에는 막 거기 멸치도 들어오지.)
 105007 @ 예.(예.)
 105007 #3 겐디 이젠 멜을 배로 막 거러가 부난 엇어.(그런데 이제는 멸치를 배로 막 잡아 올려 버리니까 없어.)
 105007 @ 그럼 원담은 옛날에 어떻 만들언마씨? 원담은 어떻?(그럼 ‘원담’은 옛날에 어떻게 만들엇어요? 원담은 어떻게?)
 105007 #3 돌로.(돌로.)
 105007 @ 예.(예.)
 105007 #3 돌로 이 므을 사람이 강 물 내려가 불 때 돌들 막 메와 왕 이만히 높으게 행 경 허면 멜 들어.(돌로 이 마을 사람이 가서 물 내려가 버릴 때 막 모이게 와서 이만큼 높게 해서 그렇게 하면 멸치 들어와.)

76) ‘갯담,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 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의미한다.

105007 @ 그럼 원담에 물고기 들어오잖아예?(그럼 ‘원담’에 물고기 들어오잖아요?)

105007 #3 물고기 멜, 멜.(물고기 멸치, 멸치.)

105007 @ 멜만 들어와마씨?(멸치만 들어와요?)

105007 #3 어.(어.)

105007 @ 그럼 그건 어떻게 잡아마씨?(그럼 그건 어떻게 잡아요?)

105007 #3 그거?(그거?)

105007 @ 예.(예.)

105007 #3 요만한 족바지 헝 거리는⁷⁷⁾ 사람은 거리고. 이제 돌 트멍에 영 막 메와져. 나도 강 돌 트멍에 거 췌영 구덕에 췌영 왓인디.(요만한 작은 바가지 해서 잡아 올리는 사람은 올리고. 이제 돌 틈에 이렇게 막 모여. 나도 가서 돌 틈에 거 쥐어 왔는데.)

105007 @ 아.(아.)

105007 #3 겐디 저 옛날에는 경 잡고 헛인디. 이젠 배로 막 거려 가 부난 엇어.(그런데 저 옛날에는 그렇게 잡고 했는데. 이제는 배로 막 잡아 올려 가 버리니까 없어.)

105008 @ 그럼 원담 막 그 무너지잖아예. 막 바람 세고 허면.(그럼 ‘원담’ 막 그 무너지잖아요. 막 바람 세고 하면.)

105008 #3 그거 무너지면 또 새로하곡 새로하곡.(그거 무너지면 또 새로하고 새로하고.)

105008 @ 그럼 그 보수는 어떻게 새로 해마씨?(그럼 그 보수는 어떻게 새로 해요?)

105008 #3 돌이 이만한 높게 해근영 높으게 허주게.(돌이 이만한 높게 해서 높게 하지.)

105008 @ 어르신도 그럼 원담 그거 만들어 보션마씨?(어르신도 그럼 ‘원담’ 그거 만들어 보셨어요?)

105008 #3 난 그거 보기만 했주. 허지는 못허여. 남자들이나 허지 여자들은 헤쳐게.(난 그거 보기만 했지. 하지는 못해. 남자들이나 허지. 여자들은 못하지.)

105009 @ 아까, 아까 어르신 말씀해 주신 건디 할머니. 멜 잇잖아예?(아까, 아까 어르신 말씀해 주신 건디 할머니. 멸치 잇잖아요?)

105009 #3 응.

105009 @ 멜 옛날에는 어떻게 잡안마씨? 지금은 고깃배로 잡잖아예?(멸치 옛날에는 어떻게 잡았어요? 지금은 고깃배로 잡잖아요?)

105009 #3 어.(어.)

105009 @ 옛날에는 어떻게 잡안마씨?(옛날에는 어떻게 잡았어요?)

105009 #3 옛날에 그 돌 트멍 같은 디 들어오민.(옛날에 그 돌 틈 같은 데 들어

77) ‘거리다’는 자질구레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오면.)

105009 @ 예.(예.)

105009 #3 족바지 어느만히 이만히 큰 거 허영 그걸로 영 영 거리는 사람은 거리. 거리곡 물 또 싸 가민 그딴 물이 달라가민 그 트멍에 영 막 수두락 수두락 싹 주게. 경 허연. 우린 강 손으로 강 손으로 강 영 구덕들에 췌워낱 오고.(작은 바가지 어느 만큼 이만큼 큰 거 해서.(작은 바가지 어느만큼 이만큼 큰 거 해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 올리는 사람은 잡아 올려. 잡아 올리고 물 또 싸 가면 거기 물이 말라가면 그 틈에 이렇게 막 수두룩 수두룩 있지. 그렇게 했어. 우리는 가서 손으로 가서 손으로 가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놔서 오고.)

105010 @ 그럼 낚시는 안 해보셨지예? 어르신?(그럼 낚시는 안 해보셨지요? 어르신?)

105010 #3 낚시 허여.(낚시 해.)

105010 @ 낚시 해마씨? 그럼 고기는 어떻 낚아마씨?(낚시 해요? 그럼 고기는 어떻게 낚아요?)

105010 #3 고기는 하영 낚아.(고기는 많이 낚아.)

105010 @ 그럼 어떻 낚아마씨? 아까 얘기 헛잖아예 저기서? 그거 낚은 거 얘기해 줘서.(그럼 어떻게 낚아요? 아까 얘기 헛잖아요 저기서? 그거 낚은 거 얘기해 주십시오.)

105010 #3 그거? 너깍 허젠 허민 남자들은 돌 막 두드려근앵 깨여근앵 저 무시 걸로 너깍을 허는다. 우린 경 못허난.(그거? 미끼 하려고 하면 남자들은 돌 막 두드려서 깨어서 저 무슨 걸로 미끼를 하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니까.)

105010 @ 예.(예.)

105010 #3 바로 잡아근앵 그걸 너빨로 흐끔씩 꿇으멍 그 낚시에 꿰영.(바로 잡아서 그걸 이빨로 조금씩 꿇으면서 그 낚시에 꿰어서.)

105010 @ 예.(예.)

105010 #3 경 허영 물 아래로 허민 꿰기도 엇인디 놓민 어디서 막 모여와.(그렇게 해서 물 아래로 하면 고기도 없는데 놓으면 어디서 막 모여와.)

105010 @ 아.(아.)

105010 #3 모여오면 들렁 허영 또 들이치민 또 허곡 또 허곡. 하영 잡았어.(모여오면 들어서 해서 또 들이뜨리면 또 하고 또 하고. 많이 잡았어.)

105011 @ 그럼 낚시 헐 때는 낚싯대도 있고, 낚싯줄도 있고 붕돌도 있어야 돼잖아예?(그럼 낚시 할 때는 낚싯대도 있고, 낚싯줄도 있고 붕돌도 있어야 되잖아요?)

105011 #3 문딱, 문딱.(전부, 전부.)

105011 @ 예. 문딱 그 문딱 어디 어디서 구헐마씨?(예. 전부 그 전부 어디 어디서 구했어요?)

105011 #3 붕돌은 멘들영 푸는 디가 잇이난 사 오고.(붕돌은 만들어서 파는 데

가 있으니까 사오고.)

105011 @ 옛날에도 파는 데 잇엇수광?(옛날에도 파는 데 잇엇습니까?)

105011 #3 낚시영 뽕들은 팔아.(낚시랑 뽕들은 팔아.)

105011 @ 아, 옛날에도?(아, 옛날에도?)

105011 #3 어. 옛날에도.(어. 옛날에도.)

105011 @ 그 다음에 낚시줄이랑 낚시대는?(그 다음에 낚시줄이랑 낚시대는?)

105011 #3 낚시대 영 허난 이제들은 영 푸는 거 이추록 허는 거 영 영 허는 거 잇인다. 꿩기 낚을 때 막 저만히 가게 허여근영 허는 거 잇는데 나왔주게.(낚시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파는 거 이처럼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잇는데. 고기 낚을 때 막 저만큼 가게 해서 하는 거 잇는데 나왔지.)

105011 @ 예.(예.)

105011 #3 계난 이제 그런 걸로 허여. 옛날에는 저 대밭, 대밭이 가근영 대 그 쳇 그걸로 허민 뵈이 가질 안 헛주게. 경 허영 옛날에는 그걸로 고기 낚았어.(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 옛날에는 저 대밭, 대밭에 가서 대 끊어서 그걸로 하면 뵈이 가지를 안 헛지.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걸로 고기 낚았어.)

105012 @ 그럼 작살로도 고기 낚았잖아예?(그럼 작살로도 고기 낚았잖아요?)

105012 #3 작살로도 막 썩난.(작살로도 막 썩엇지.)

105012 @ 어떻, 어떻 잡앗수광? 작살로?(어떻게, 어떻게 잡앗습니까? 작살로?)

105012 #3 작살로 허민 대 이만히 현 대 도치로 어디 가근영 그쳐당.(작살로 하면 대 이만큼 한 대 도끼로 어디 가서 끊어다가.)

105012 @ 예.(예.)

105012 #3 그걸로 이제 막 문들락허게⁷⁸⁾ 막 기계로 깎앙 문들락 헛어. 경 허민 고무줄 이만히 넓은 거 사당 이제 이디 딱 묶어. 처음에는 묶으면 이제 두 번 헛 묶으면 저 고무줄로 막 묶으면 그놈의 걸 이제 그 꿩기를 쏘레 들어가젠 허민 이 줄을 심영 막 적고지 들어근영 힘들게 허여. (그걸로 이제 막 ‘문들락허게’ 막 기계로 깎아서 ‘문들락’ 헛어. 그렇게 하면 고무줄 이만큼 넓은 거 사다가 이제 여기 딱 묶어. 처음에는 묶으면 이제 두 번 해서 묶으면 저 고무줄로 막 묶으면 그놈의 거를 이제 그 고기를 쏘려고 들어가려 하면 이 줄을 심어서 막 적꼬치 들어서 힘들게 해.)

105012 @ 아.(아.)

105012 #3 경 허영 이제 영 고기 신디 허영 허민.(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고기 잇는데 해서 하면.)

105012 @ 예.(예.)

105012 #3 어떤 때는 탁 맞아근영 허고 어떤 때는 돌아나 불아.(어떤 때는 탁 맞아서 하고 어떤 때는 돌아나 버려.)

105013 @ 아, 경 헤마씨? 그른 어르신 고깃배는 안 타봤지예?(아, 그렇게 해요?)

78) ‘문들락’은 물건이 반드러워 거침없이 자꾸 빠져 나가는 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그러면 어르신 고깃배는 안 타봤지요?)

105013 #3 어.(어.)

105013 @ 안 타봤? 그럼 고깃배 종류는 뭐, 뭐 잇인지 기억나마씨?(안 타봤어요? 그럼 고깃배 종류는 뭐, 뭐 잇는지 기억나요?)

105013 #3 고깃배도 그거 그거 그 나오는 거 그 종류가 그거.(고깃배도 그거 그거 그 나오는 거 그 종류가 그거.)

105013 @ 아, 배도 그냥 하나?(아, 배도 그냥 하나?)

105013 #3 배도 하나 아니 막 여러 개인디.(배도 하나 아니 막 여러 개인데.)

105013 @ 예.(예.)

105013 #3 고기 종류가 다 그거라.(고기 종류가 다 그거라.)

105013 @ 그러니까 배는 종류가 엇엇수광? 고깃배.(그러니까 배는 종류가 없었습니까? 고깃배.)

105013 #3 고깃배 무사 종류 엇어?(고깃배 왜 종류 없어?)

105013 @ 예, 잇지예? 그거 좀 곱아 줘서.(예, 잇지요? 그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5013 #3 자리도 거리고 뿔도 거리곡. 이제 또 쫍치 곱은 거. 이제 고등예. 각 제기. 막 하.(자리돔 잡아 올리고 멸치도 잡아 올리고. 이제 또 쫍치 곱은 거. 이제 고등어. 전갱이. 막 많아.)

105013 @ 그른 그 고기 낚을 때 타는 배 잇잖아예?(그러면 그 고기 낚을 때 타는 배 잇잖아요?)

105013 #3 어.(어.)

105013 @ 타는 배. 옛날에 테우? 테우 잇엇수게?(타는 배. 옛날에 떼? 떼 잇지 않았습니까?)

105013 #3 옛날에 흐끔식 배 영 영 영 헛주만은 이제는 기계로 다 하주게.(옛날에 조금씩 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기계로 다 하지.)

105014 @ 그른 그 어르신도 옛날에 줌네 헛엇수광?(그러면 그 어르신도 옛날에 해녀 했엇습니까?)

105014 #3 줌네.(해녀.)

105014 @ 물질 허는 게 줌녀잖아예?(물질 하는 게 해녀잖아요?)

105014 #3 예.(예.)

105014 @ 그럼 그 줌네 헛 때는 그 채취 물에서 얻는 건 뭐, 뭐 잇어마씨? 전복, 뭐 고등어 그런 거.(그럼 그 해녀 할 때는 그 채취 물에서 얻는 건 뭐, 뭐 잇어요? 전복, 뭐 고등어 그런 거.)

105014 #3 어. 그런 거.(어. 그런 거.)

105014 @ 종류가 뭐, 뭐 기억나는 거 잇수광?(종류가 뭐, 뭐 기억나는 거 잇습니까?)

105014 #3 점복허고 고등허곡.(전복하고 고등하고.)

105014 @ 예.(예.)

105014 #3 또, 영 돌 트멍에 흐끔씩 현 점복 아니 그건 바르⁷⁹). (또, 영 돌 틈에 조금씩 한 전복 아니 그건 떡조개.)

105014 @ 바르? 구쟁기 같은 거짱?(떡조개? 소라 같은 겁니까?)

105014 #3 구쟁긴 돌 아래도 싯고 위에도 싯고 경 아니 잡았는데 막 하. (소라는 돌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렇게 아니 잡았는데 막 많아.)

105014 @ 아, 막 하?(아, 막 많아?)

105014 #3 이젠 엇어. (이제는 없어.)

105015 @ 그면 그 물질할 때 들고 가는 거는 뭐, 뭐 잇어마씨? 뭐 작살 아니면 도구 같은 거 잇잖아예?(그러면 그 물질할 때 들고 가는 뭐, 뭐 잇어요? 뭐 작살 아니면 도구 같은 거 잇잖아요?)

105015 #3 물 저 빗창⁸⁰ 요만한 거 헤여근엥 손에 췌영 내려가주게. 내려가민 점복 잇이민 확 헤영 올라오고 엇이민 그냥 구쟁기나 손에 췌영 올라오고. 이제 돌 아래 잇인 건 못 허여. 숨이 췌야. (물 저 ‘빗창’ 요만한 거 해서 손에 쥐어서 내려가지. 내려가면 전복 있으면 확 해서 올라오고 없으면 그냥 소라나 손에 쥐어서 올라오고. 이제 돌 아래 잇는 건 못 해. 숨이 췌야.)

105015 @ 아 그걸 빗창이라고 헤마씨?(아 그걸 ‘빗창’이라고 해요?)

105015 #3 빗창, 빗창. 맞아. (‘빗창’, ‘빗창’. 맞아.)

105015 @ 그럼 그거 말고 또 뭐 가지고 가마씨?(그럼 그거 말고 또 뭐 가지고 가요?)

105015 #3 하. 그거 말고는 엇엄직 현디. (하. 그거 말고는 없음직 한테.)

105015 @ 동그란 거 잇지 았아마씨?(동그란 거 잇지 았아요?)

105015 #3 테왁⁸¹. (‘테왁’.)

105015 @ 아, 테왁. (아, ‘테왁’.)

105015 #3 테왁. (‘테왁’.)

105015 @ 그러니까 테왁이랑 빗창 두 개 들고 가마씨?(그러니까 ‘테왁’이랑 ‘빗창’ 두 개 들고 가요?)

105015 #3 어. (어.)

105016 @ 그럼 요즘 줌네들이랑 예전에 줌네들이랑 물질할 때 뭐가 달라마씨? 다른 게 잇잖아예?(그럼 요즘 해녀들이랑 예전에 해녀들이랑 물질할 때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잇잖아요?)

105016 #3 이젠 막 달라. (이제는 막 달라.)

105016 @ 그러니까 어떻 뭐가 달라마씨?(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달라요?)

105016 #3 이젠 머리로 발끝⁷⁷정 고무로 고무옷으로 입으난 춤지를 았으니 물

79) ‘바르’는 작은 전복(‘떡조개’라고도 한다.)을 의미하는 제주어이고 ‘오분재기’라고도 한다.

80) ‘빗창’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길이는 30 센티미터쯤이며 동그랗게 말린 머리에는 손잡이 끈이 달려 있다.

81)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에 들어갈 막 몇 시간씩 살앙 나와. 겐디 옛날은 경 못 허여. 추워.(이제는 머리로
발끝까지 고무로 고무옷으로 입으니까 춥지를 않으니 물에 들어가서 막 몇 시간씩
살아서 나와. 그런데 옛날은 그렇게 못 해. 추워.)

105016 @ 추워.(추워.)

105016 #3 게민 혼 시간 아니면 두 시간 살앙 나와야.(그러니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살아서 나와야.)

105017 @ 그럼 옷이 바뀐 거잖아예?(그럼 옷이 바뀐 거잖아요?)

105017 #3 이제사 거 새로 나온 건디. 오래 헛주게. 게도.(이제야 거 새로 나온
건데. 오래 했지. 그래도.)

105017 @ 그럼 옛날에는 옛날에 입은 옷은 뭐라고 헤마씨?(그럼 옛날에는 옛날
에 입은 옷은 뭐라고 해요?)

105017 #3 입은 옷은? 미녕 헤여근엥 속곳⁸²)이엔 허영 멘들어. 그거 하나만 입
영.(입은 옷은? 무명 해서 ‘속곳’이라고 해 만들어. 그거 하나만 입어서.)

105017 @ 아, 미녕 헤여근엥 속곳 하나만.(아, 무명 해서 ‘속곳’ 하나만.)

105017 #3 어.(어.)

105017 @ 그럼 요즘에는 고무로 뵈 거예?(그럼 요즘에는 고무로 뵈 거요?)

105017 #3 요즘 고무로 뵈 옷 입으난 춥지 안 허여.(요즘 고무로 뵈 옷 입으니
까 춥지 않아.)

105018 @ 그 옛날에도 툷 채취했지예? 툷.(그 옛날에도 툷 채취했지요? 툷.)

105018 #3 옛날엔. 옛날 옛날에 툷을 가지지 안 허여. 그자 강 허여 오는 사람
들은 허여 왕 먹고 헛인디.(옛날에는. 옛날 옛날에 툷을 가두지 안 해. 그저 가서
해 오는 사람들은 해 와서 먹고 했는데.)

105018 @ 예.(예.)

105018 #3 가치영 헌 디가 막 오래 헛어. 일본에 수출 간 때문. 못 해당 먹게.
딱 가쳐. 게민 해경⁸³) 어느제 즈음 해경 허민 그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강 ㄴ치
허영 툷러근엥 저 일본들에 보내.(가두어서 한 데가 막 오래 헛어. 일본에 수출 간
때문. 못 해다가 먹게. 딱 가두어. 그러면 ‘해경’ 언제 즈음 ‘해경’ 하면 그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같이 해 말려서 저 일본에 보내.)

105018 @ 그러니까 옛날에는 혼자 하당 요즘에는 같이 허멘마씨?(그러니까 옛
날에는 혼자 하다가 요즘에는 같이 해요?)

105018 #3 ㄴ치 ㄴ을에서 ㄴ치 강.(같이 마을에서 같이 가서.)

105018 @ 옛날에도?(옛날에도?)

105018 #3 옛날 옛날에는? 경 허지 안 허난 이녁만치 허여당 먹고 경 헛주게.
(옛날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안 하니까 이녁만큼 해다가 먹고 그렇게 했지.)

105019 @ 그럼 우뭇가사리도 여기서 채취헛마씨?(그럼 우뭇가사리도 여기서 채

82) ‘속곳’은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은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의미한다. ‘소중기, 소중의’라고도 한다.

83) ‘해경’은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
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의미한다.

취했어요?)

105019 #3 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

105019 @ 예.(예.)

105019 #3 우뭇가사리가 씻는 데는 씻고 엷는 데는 엷어.(우뭇가사리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

105019 @ 것도 그냥 개인이?(것도 그냥 개인이?)

105019 #3 그거 우뭇가사리 가치지 안 허난 아무라도 강 헛어.(그거 우뭇가사리가 두지 안 하니까 아무라도 가서 헛어.)

105020 @ 그러면 전복이랑 소라도 따로따로 채취해마씨? 아니면 같이 강 헤마씨?(그러면 전복이랑 소라도 따로따로 채취했어요? 아니면 같이 가서 해요?)

105020 #3 점복이영 소라 이제 가치지 못 허주. 게난 해경 해야. 두어 달 가쳤당.(점복과 소라 이제 가두지 못 해. 그러니 ‘해경’ 해야. 두어 달 가두었다가.)

105020 @ 예.(예.)

105020 #3 이제 해경 허영 허라 허민 허주게. 강 허주게. 게난 그냥 이제 강 그냥 허민 막 벌금 내고. 겁냥 안 허여.(이제 ‘해경’ 해서 해라 하면 하지. 가서 하지. 그러니 그냥 이제 가서 그냥 하면 막 벌금 내고. 겁나서 안 해.)

105021 @ 그럼 전복이랑 소라도 종류 잇잖아예? 암컷, 수컷. 그거 알아져마씨?(그럼 전복이랑 소라도 종류 잇잖아요? 암컷, 수컷. 그거 알아져요?)

105021 #3 알아지긴 알아져.(알아지기는 알아져.)

105021 @ 그건 어땜 알아져마씨?(그건 어떻게 알아져요?)

105021 #3 점복은.(전복은.)

105021 @ 예.(예.)

105021 #3 오모현 게 막 커. 큰디 경 허곡. 이제 점복 하난 암침복⁸⁴이엔 현 거는 영 베짜흔⁸⁵ 어떤 점복은 돌로 영 납작 붙어. 게민 강 떼어 오곡.(오목한 게 막 커. 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전복 하니까 ‘암침복’이라고 한 거는 영 ‘베짜흔’ 어떤 점복은 돌로 이렇게 납작 붙어. 그러면 가서 떼어 오고.)

105021 @ 예.(예.)

105021 #3 이제 그 수침복⁸⁶이엔 현 건 영 허주게. 영 두툼허여.(이제 그 ‘수침복’이라고 한 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두툼해.)

105021 @ 아, 두툼해마씨?(아, 두툼해요?)

105021 #3 어. 두툼허여. 게민 돌 아래 시민 빗창으로 헤여 가는 거주게.(어. 두툼해. 그러면 돌 아래 있으면 ‘빗창’으로 해 가는 거지.)

105021 @ 그럼 소라도 암수 잇지예?(그럼 소라도 암수 잇지요?)

84) ‘암침복’은 전복의 암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색이 희멀건 편이며, 둥글고 납데데한 모습이다. ‘암침복, 암핏, 암툼이’라고도 한다.

85) ‘베짜흔’은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

86) ‘수침복’은 전복의 수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색이 거무죽죽하고 살쨍서 몽뚱한 꼴이며, 껍질이 움푹한 편이다. ‘수침복, 수핏, 수툼이’라고도 한다.

105021 #3 아니, 아니. 소라는 다 마찬가지로.(아니, 아니. 소라는 다 마찬가지로.)

105021 @ 소라는 다 마찬가지로라?(소라는 다 마찬가지로라?)

105021 #3 어.(어.)

105001 @ 그럼 바다일 허는 거 좀 물어보쿠다예.(그럼 바다일 하는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105001 #5 예.(예.)

105001 @ 그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뭐, 뭐 어떤 것들이 잇어마씨?(그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뭐, 뭐 어떤 것들이 잇어요?)

105001 #5 아, 여기는 바다에 들어가민.(아, 여기는 바다에 들어가면.)

105001 @ 예.(예.)

105001 #5 우선에 소라.(우선에 소라.)

105001 @ 소라.(소라.)

105001 #5 어.(어.)

105001 @ 예.(예.)

105001 #5 점복은 보이면은 허곡.(전복은 보이면 하고.)

105001 @ 점복은 보이면은 허고.(전복은 보이면 하고.)

105001 #5 어, 해삼.(어, 해삼.)

105001 @ 해삼.(해삼.)

105001 #5 또 다음에는 성게.(또 다음에는 성게.)

105001 @ 성게?(성게?)

105001 #5 예.(예.)

105001 @ 경 헨마씨? 그거 말양 또 엇우광?(그렇게 했어요?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105001 #5 또 말양게 엇어.(또 말고 없어.)

105001 @ 엇어?(없어?)

105001 #5 어.(어.)

105002 @ 그럼 듬복이랑 감태는 채취허지예?(그럼 뜸부기랑 감태는 채취하지요?)

105002 #5 감태 ㄱ튼 거는 옛날에 감태 올린 거 허곡.(감태 같은 거는 옛날에 감태 올린 거 하고.)

105002 @ 예.(예.)

105002 #5 돈 많이 돼주. 요즘은 힘들어서 감태 헐 수가 엇어.(돈 많이 되지. 요즘은 힘들어서 감태 할 수가 없어.)

105002 @ 아, 헐 수가 엇어?(아, 할 수가 없어?)

105002 #5 예.(예.)

105002 @ 그럼 감태는 옛날에 개개인이 헛수광? 아니면 단체로 같이 헨마씨?(그럼 감태는 옛날에 개개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같이 했어요?)

105002 #5 개인으로도 허곡 단체로도 허곡.(개인으로도 하고 단체로도 하고.)

105002 @ 아, 여기서는 어떻 헨마씨?(아,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105002 #5 여기서는 단체로 허다가.(여기서는 단체로 하다가.)

105002 @ 예.(예.)

105002 #5 또 자기 소원대로.(또 자기 소원대로.)

105002 @ 예.(예.)

105002 #5 자기만씩 허고 싶으면 자기만씩 허곡.(자기만 하고 싶으면 자기만 하고.)

105002 @ 아.(아.)

105002 #5 단체로 허고 싶으면 혼 몇이 조 짜가지고 그렇게.(단체로 하고 싶으면 한 몇이 조 짜가지고 그렇게.)

105003 @ 음. 그럼 고등이랑 계도 잡지예?(음. 그럼 고등이랑 계도 잡지요?)

105003 #5 고등?(고등?)

105003 @ 예.(예.)

105003 #5 고등은 소라 여기.(고등은 소라 여기.)

105003 @ 아, 예 그러니까.(아, 예 그러니까.)

105003 #5 어. 고등은 소라허곡.(어. 고등은 소라하고.)

105003 @ 예.(예.)

105003 #5 게 ㄱ튼 거는 여기 이 바당에 벨로 엇고.(게 같은 거는 여기 이 바당에 벨로 엇고.)

105003 @ 아, 강이는 잘 안 잡아마씨?(아, 게는 잘 안 잡아요?)

105003 #5 어. 그건 잘 안 잡아.(어. 그건 잘 안 잡아.)

105003 @ 그럼 고등은 어떻 잡아마씨?(그럼 고등은 어떻게 잡아요?)

105003 #5 고, 고등은?(고, 고등은?)

105003 @ 예.(예.)

105003 #5 고등은 어떻 잡아? 물에 팡당 들어강 손으로 팍 허게 잡으면.(고등은 어떻게 잡아? 물에 팡당 들어가서 손으로 팍 하게 잡으면.)

105003 #6 육지가 고등 싯주게게 제주도는.(육지가 고등 있지 제주도는.)

105003 #5 어 소라게 여기 제주도는.(어 소라 여기 제주도는.)

105003 @ 아, 소라. 소라, 고등.(아, 소라. 소라, 고등.)

105003 #5 어.(어.)

105003 @ 그럼 그거 채취허러 들어갈 때 뭐, 뭐 가져가야 돼마씨? 줌네들 옛날에 허젠 허민. 기구들은 뭐, 뭐 잇언마씨?(그럼 그거 채취하러 들어갈 때 뭐, 뭐 가져가야 되요? 해녀들 옛날에 하려고 하면. 기구들은 뭐, 뭐 있었어요?)

105003 #5 소라는.(소라는.)

105003 @ 예.(예.)

105003 #5 소라는 그냥 손으로 가져오곡.(소라는 그냥 손으로 가져오고.)

105003 @ 아.(아.)

105003 #5 이 호맹이 가져서 그거를 파면은.(이 호미 가져서 그거를 파면.)

105003 @ 예.(예.)

105003 #5 상처가 나난 안 돼.(상처가 나니까 안 돼.)

105003 @ 아, 호맹이로는 안 돼마씨?(아, 호미로는 안 돼요?)

105003 #5 안 돼. 상처, 상처 나가지고.(안 돼. 상처, 상처 나가지고.)

105003 @ 상처 나 부난?(상처 나 버리니까?)

105003 #5 죽어 버리지.(죽어 버리지.)

105003 @ 음.(음.)

105003 #5 게민 그 웨국들에 수출할 때.(그러면 그 외국에 수출할 때.)

105003 @ 예.(예.)

105003 #5 그것이 썩어 불민 안 돼.(그것이 썩어 버리면 안 돼.)

105003 @ 아, 경 허면 안 돼마씨?(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5003 #5 어. 게난 손으로 잡는 거고.(어. 그러니까 손으로 잡는 거고.)

105003 @ 예.(예.)

105003 #5 해삼도 뭐 기구는 하나도 있어. 해삼도 그냥 손으로 잡고.(해삼도 뭐 기구는 하나도 없어. 해삼도 그냥 손으로 잡고.)

105003 @ 그럼 그 호맹이로 잡는 거는 뭐, 뭐 잇언마씨?(그럼 그 호미로 잡는 거는 뭐, 뭐 있었어요?)

105003 #5 호맹이로 잡는 거는?(호미로 잡는 거는?)

105003 @ 예.(예.)

105003 #5 호맹이로 잡는 거는 문어도 잡고게.(호미로 잡는 거는 문어도 잡고.)

105003 @ 뭐, 아 문게?(뭐, 아 문어?)

105003 #5 문어, 문어.(문어, 문어.)

105003 @ 옛날에는 문게라고 안 헛수광?(옛날에는 ‘문게’라고 안 했습니까?)

105003 #5 아니.(아니.)

105003 @ 물꾸럭?(문어?)

105003 #5 물꾸럭, 물꾸럭.(문어, 문어.)

105003 @ 아, 물꾸럭이라고 헨마씨?(아, ‘물꾸럭’이라고 했어요?)

105003 #5 어.(어.)

105003 @ 아, 그럼 옛날말로 좀 곱아 줘서.(아, 그럼 옛날말로 좀 말해 주십시오.)

105003 #5 아, 물꾸럭.(아, 문어.)

105003 @ 예.(예.)

105003 #5 물꾸럭을 잡주게. 호미, 호미, 호맹이로.(문어를 잡지. 호미, 호미, 호미로.)

105003 @ 아, 물꾸럭 잡안?(아, 문어 잡았어요?)

105003 #5 예. 물꾸럭 잡안.(예. 문어 잡았어요.)

105005 @ 갱이 그럼 종류는 몰라마씨?(게 그럼 종류는 몰라요?)

105005 #5 갱이 종류는 여기 먼 바당에는 갱이는 엇고.(게 종류는 여기 먼 바다에는 게는 없고.)

105005 @ 예.(예.)

105005 #5 또 이 가에.(또 이 가에.)

105005 @ 예.(예.)

105005 #5 가에 물 이제 싸 들어가면은 그 저 갱이는 쇧갱이⁸⁷.(가에 물 이제 싸 들어가면 그 저 게는 ‘쇧갱이’.)

105005 @ 쇧갱이?(‘쇧갱이’?)

105005 #5 응. 똥갱이⁸⁸.(응. ‘똥갱이’.)

105005 @ 똥갱이.(‘똥갱이’.)

105005 #5 춤갱이.(참게.)

105005 @ 예.(예.)

105005 #5 그거.(그거.)

105005 @ 잡지 않아도 종류는 다 알암신게예?(잡지 않아도 종류는 다 알고 있군요?)

105005 #5 게. 다 알지게.(그럼. 다 알지.)

105006 @ 그럼 그 옛날에 햇불도 썻잖아예? 막 옛날에는 햇불로.(그럼 그 옛날에 햇불도 썻잖아요? 막 옛날에는 햇불로.)

105006 #5 햇불? 어. 햇불 밤에.(햇불? 어. 햇불 밤에.)

105006 @ 예.(예.)

105006 #5 물때 맞추왕.(물때 맞춰서.)

105006 @ 예.(예.)

105006 #5 물때 맞추왕 이제 햇불 가정 가. 햇불 가정 가민 옛날에는 그 바닷가에 가보면은 이 돌맹이들이 쫙쫙쫙 쇧지 않아게?(물때 맞춰서 이제 햇불 가져서 가. 햇불 가져서 가면 옛날에는 그 바닷가에 가보면 이 돌맹이들이 쫙쫙쫙 있지 않아?)

105006 @ 예.(예.)

105006 #5 그추룩 행 시면은 그냥 물때 맞추왕 그것도 아무 때나 안 나와.(그처럼 해서 있으면 그냥 물때 맞춰서 그것도 아무 때나 안 나와.)

105006 @ 아.(아.)

105006 #5 어. 소라 ㄱ튼 거.(어. 소라 같은 거.)

105006 @ 예.(예.)

105006 #5 이 저 보말, 보말 ㄱ튼 것도 아무 때나 나오지 않허고 이 물때가 물

87) ‘쇧갱이’는 등어리에 검정과 갈색 무늬가 있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며, 지역에 따라 ‘쇧갱이’이라 한다.

88) ‘똥갱이’는 먹을 수 없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똥갱이’라고도 한다.

조류가 딱 맞아 들어가면은 물 들어올 때 물 내려갔다가 또 우트레 올라올 때 그것이 막 발생허는 모양이라.(이 저 고둥, 고둥 같은 것도 아무 때나 나오지 않고 이 물때가 물 조류가 딱 맞아 들어가면 물 들어올 때 물 내려갔다가 또 위로 올라올 때 그것이 막 발생하는 모양이야.)

105006 @ 아, 물 쌀 때 말고?(아, 물 썰 때 말고?)

105006 #5 어. 그추룩 허면은 그것이 이런 소라나 뭐 보말 ㄴ튼 거.(어. 것처럼 하면 그것이 이런 소라나 뭐 고둥 같은 거.)

105006 @ 예.(예.)

105006 #5 이런 돌맹이 이엄에 따닥따닥 붙어.(이런 돌맹이는 옆에 따닥따닥 붙어.)

105006 @ 예.(예.)

105006 #5 경 허면 그거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잡으면 흔 줌씩 이거 잡아난.(그렇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잡으면 한 줌씩 이거 잡았었어.)

105006 @ 아, 흔 줌씩?(아, 한 줌씩?)

105006 #5 어. 그추룩 허는디. 요즘은.(어. 것처럼 하는데. 요즘은.)

105006 @ 예.(예.)

105006 #5 바당이.(바다가.)

105006 @ 예.(예.)

105006 #5 오염됐다 보니까.(오염되다 보니까.)

105006 @ 예.(예.)

105006 #5 보말도 이제 막 잘 나당 벗어나져 가고.(고둥도 이제 막 잘 나다가 벗어나져 가고.)

105006 @ 예.(예.)

105006 #5 모든 것이 벗어나져 부는 거라.(모든 것이 벗어나져 버리는 거야.)

105006 @ 그럼 햇불로 이용할 때는 어떻 헨마씨?(그럼 햇불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105006 #5 햇불로 이용할 때는 무신 이 대망텅이 ㄴ튼 거.(햇불로 이용할 때는 무슨 이 대망태기 같은 거.)

105006 @ 예.(예.)

105006 #5 대망텅이 ㄴ튼 거에 이 막 험벅을게.(대망태기 같은 거에 이 막 험겘을.)

105006 @ 예.(예.)

105006 #5 험벅으로 이거 막 속에 넣는 거라.(험겘으로 이거 막 속에 넣는 거야.)

105006 @ 예.(예.)

105006 #5 경 허영 그 속에 기름 담아.(그렇게 해서 그 속에 기름 담아.)

105006 @ 예.(예.)

105006 #5 석유.(석유.)

105006 @ 예.(예.)

105006 #5 석유를 담아서 그 횃불 손잡는 디 이렇게 놓고 우에는 그 험벅.(석유를 담아서 그 횃불 손잡는 데 이렇게 놓고 위에는 그 험겔.)

105006 @ 그냥 감양?(그냥 감아서?)

105006 #5 어. 험벅 감양 기름 넣으면은게 그것이 계속 붙이지.(어. 험겔 감아서 기름 넣으면은 그것이 계속 붙지.)

105006 @ 예.(예.)

105006 #5 게민 통 소곱에 기름을 넣으면은.(그러면 통 속에 기름을 넣으면.)

105006 @ 예.(예.)

105006 #5 다시 그 불이 엇어져 가민 이렇게 숙이면 또 팔락 해서 불이 나오코.(다시 그 불이 엇어져 가면 이렇게 숙이면 또 팔락 해서 불이 나오코.)

105006 @ 그럼 그걸로는 고기를 어떻 잡안마씨? 바다에 이렇게 하면.(그럼 그걸로 고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바다에 이렇게 하면.)

105006 #5 바다 소곱에 안 되는 거.(바다 속에 안 되는 거.)

105006 @ 아, 안 되는 거.(아, 안 되는 거.)

105006 #5 겐디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다보니까.(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다보니까.)

105006 @ 예.(예.)

105006 #5 바다 소곱에서 그 후라쉬.(바다 속에서 그 랜턴.)

105006 @ 예.(예.)

105006 #5 후라쉬 비추는디 옛날은 그런 거 엇엇주게.(랜턴 비추는데 옛날은 그런 거 엇엇지.)

105006 @ 예. 옛날은 그러니까 횃불로 고기 잡았잖아예?(예. 옛날은 그러니까 횃불로 고기 잡았잖아요?)

105006 #5 어. 경 허난.(어. 그렇게 하니까.)

105006 @ 그럼 횃불로 영 허민 고기가 모여마씨?(그럼 횃불로 이렇게 하면 고기가 모여요?)

105006 #5 횃불로?(횃불로?)

105006 @ 예.(예.)

105006 #5 게민 횃불로 허민 그거 고기도 보이고게.(그러면 횃불로 하면 그거 고기도 보이코.)

105006 @ 아.(아.)

105006 #5 해삼, 해삼도 조금 보이고게. 어 경 허난.(해삼, 해삼도 조금 보이코. 어 그렇게 하니까.)

105006 #6 낙지?(낙지?)

105006 @ 낙지.(낙지.)

105006 #5 낙지, 낙지.(낙지, 낙지.)
 105006 @ 낙지 ㄴ튼 거는.(낙지 같은 거는.)
 105006 #6 고기는 안 잡안. 그걸로 낙지 잡앗주게.(고기는 안 잡았어. 그걸로 낙지 잡았지.)
 105006 @ 낙지는 그러면 햇불로 이렇게 허면은 낙지들이 모여마씨?(낙지는 그러면 햇불로 이렇게 하면 낙지들이 모여요?)
 105006 #5 모이주게.(모이지.)
 105006 @ 아, 경 허영 잡안마씨?(아,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105006 #5 계난 이 낙지는 불빛이 나오는 모양이라.(그러니까 이 낙지는 불빛이 나오는 모양이야.)
 105006 @ 아.(아.)
 105006 #5 계난 낙지는 물 그냥 이 움푹이 움푹이. 바다에 보면은 이러한 움푹이 있고.(그러니 낙지는 물 그냥 이 움푹이 움푹이. 바다에 보면 이러한 움푹이 있고.)
 105006 @ 움푹이?(움푹이)
 105006 #5 그런 디 잇엇주게.(그런 데 있었지.)
 105006 @ 아, 움푹이를 물 고인 데라고 허지예?(아, 움푹이를 물 고인 데라고 하지요?)
 105006 #5 물 막 내려가지 않아도 요런 움푹이, 움푹이.(물 막 내려가지 않아도 요런 움푹이, 움푹이.)
 105006 @ 예.(예.)
 105006 #5 그런 디 좇아 텡기명 그.(그런 데 좇아 다니면서 그.)
 105006 #6 낙지.(낙지.)
 105006 #5 저 낙지 잡는 사람 그 햇불로 허영 허엇주게게.(저 낙지 잡는 사람 그 햇불로 해서 했엇지.)
 105007 @ 그믄 그 원⁸⁹⁾ 원담, 갯담도 알아져마씨?(그러면 그 ‘원’ ‘원담’, ‘갯담’도 알아요?)
 105007 #6 원 이되도 잇주게.(‘원’ 여기도 있지.)
 105007 @ 원은 뭇짱?(‘원’은 뭇입니까?)
 105007 #5 원은.(‘원’은.)
 105007 @ 예.(예.)
 105007 #5 우리 옛날에 살지 못허난.(우리 옛날에 살지 못하니까.)
 105007 @ 예.(예.)
 105007 #5 살지 못허난 그 바당에 땀.(살지 못하니까 그 바다에 떨치.)
 105007 @ 예.(예.)

89) ‘원’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원담, 갯담’이라고도 한다.

105007 #5 멜 이제 들어오민.(멸치 들어오면.)

105007 @ 예.(예.)

105007 #5 그 멜이 우루루 우루루 가가면은 물 들어올 때.(그 멸치가 우루루 우루루 가가면 물 들어올 때.)

105007 @ 예.(예.)

105007 #5 여기 물 우트레 훌딱 들어올 때는 그 멜 그.(여기 물 위로 훌떡 들어올 때는 그 멸치 그.)

105007 @ 아, 원에 들어와?(아, '원'에 들어와?)

105007 #5 응. 멜 수두룩하게 그냥 물로 그냥 그 원에 들어오는 거라.(응. 멸치 수두룩하게 그냥 물로 그냥 그 '원'에 들어오는 거야.)

105007 @ 아.(아.)

105007 #5 경 허민 그걸 잡기 위해서 원담을 쪽쪽 쌓아 냐어.(그렇게 하면 그걸 잡기 위해서 '원담'을 쪽쪽 쌓아 냐어.)

105007 @ 아, 쌓안마씨?(아, 쌓았어요?)

105007 #5 경 허민 멜이 만약에 이 원에 들어오면은.(그렇게 하면 멸치가 만약에 이 '원'에 들어오면.)

105007 @ 예.(예.)

105007 #5 물이 내려가면은 그것이 원담에서 거려져나주게게.(물이 내려가면 그것이 '원담'에서 잡아 올렸었지.)

105007 @ 아, 그럼 보통 멜 잡아마씨? 원담에서는?(아, 그럼 보통 멸치 잡아요? '원담'에서는?)

105007 #5 아니. 그것도 물 조류로 들어오는 거라.(아니. 그것도 물 조류로 들어오는 거야.)

105007 @ 아, 그럼 뭐, 뭐 잇을지는 모르겠다예?(아, 그럼 뭐, 뭐 잇을지는 모르겠군요?)

105007 #5 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들어오는지 몰라 그건.(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들어오는지 몰라 그건.)

105007 @ 아, 그럼 보통 물고기는 고기는 뭐, 뭐 잇어마씨? 종류는 거기서 잡은 거는?(아, 그럼 보통 물고기는 고기는 뭐, 뭐 잇어요? 종류는 거기서 잡은 거는?)

105007 #5 거기서 잡히는 거는 대충 멜이주게 멜.(거기서 잡히는 거는 대충 멸치이지 멸치.)

105007 @ 아, 대충 멜.(아, 대충 멸치.)

105007 #5 어. 각제기 새끼, 멜 새끼, 어랭이 새끼. 그런 거.(어. 전갱이 새끼, 멸치 새끼, 어랭놀래기 새끼. 그런 거.)

105007 @ 그럼 갯담은 다른 거짱? 원담이랑? 갯담?(그럼 '갯담'은 다른 거입니까? '원담'이랑? '갯담'?)

105007 #5 갯담이나 원담이나 마찬가지로 바당에 허는 거.(갯담'이나 '원담'이나

마찬가지 바다에 하는 거.)

105007 @ 아, 바닷에 허는 거는 마찬가지로?(아, 바다에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105007 #5 어.(어.)

105007 @ 근데 왜 이름은 달라마씨?(근데 왜 이름은 달라요?)

105007 #5 원담은?('원담'은?)

105007 @ 예.(예.)

105007 #6 그 지역에 따라 틀릴 거라.(그 지역에 따라 다른 거야.)

105007 #5 원담은 지역 따라 다른 모양이라.('원담'은 지역 따라 다른 모양이야.)

105007 @ 그럼 갯담이랑 여기는 갯담이라고 안 헨마씨?(그럼 '갯담'이랑 여기는 '갯담'이라고 안 했어요?)

105007 #5 어. 원담 우리는 원담.(어. '원담' 우리는 '원담'.)

105007 @ 여기는 원담만?(여기는 '원담'만?)

105007 #5 어.(어.)

105007 @ 원담만.('원담'만.)

105007 #5 우리는 원담.(우리는 '원담'.)

105008 @ 그럼 원도 이렇게 막 망가질 때도 잇잖아예? 태풍 오고 나면.(그럼 '원'도 이렇게 막 망가질 때도 잇잖아요? 태풍 오고 나면.)

105008 #5 태풍 오면 막 무너지지.(태풍 오면 막 무너지지.)

105008 @ 무너지지예? 그럼 보수는 어떻 헨마씨? 그거 무너지면.(무너지지요? 그럼 보수는 어떻게 해요? 그거 무너지면.)

105008 #5 무너지면은.(무너지면.)

105008 @ 예.(예.)

105008 #5 그걸게 보호해 놔야주게 동네 사람들이 멜 잡젠 허면은.(그걸로 보호해 놔야지 동네 사람들이 멸치 잡으려고 하면.)

105008 @ 그럼 원담은 그냥 개개인이 가서 만드는 거짱?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강 허는 거짱?(그럼 '원담'은 그냥 개개인이 가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105008 #5 개개인이 허는 것이 아니고게. 멜 잡젠 허면은 멜 잡는 분들이.(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멸치 잡으려고 하면 멸치 잡는 분들이.)

105008 @ 예.(예.)

105008 #5 혼 몇몇이 가서 그거를.(한 몇몇이 가서 그거를.)

105008 @ 아, 경 헨마씨?(아, 그렇게 해요?)

105008 #5 어. 경 헨사게.(어. 그렇게 해야.)

105009 @ 그럼 거기 들어온 멜. 멜이 들어오잖아예? 그럼 멜은 그냥 손으로 잡아마씨?(그럼 거기 들어온 멸치. 멸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멸치는 그냥 손으로 잡아요?)

105009 #6 아니.(아니.)
 105009 #5 아니.(아니.)
 105009 @ 그럼 뭘은 어떻 잡아마씨?(그럼 멀치는 어떻게 잡아요?)
 105009 #5 뭘은 그 뭐냐 그 저.(멀치는 그 뭐냐 그 저.)
 105009 @ 무슨 채? 뜯채?(무슨 채? 뜯채?)
 105009 #6 이 손잡이 영 허영 가운데 영 흰 거. 조리 닳은 거.(이 손잡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한 거. 집게뿔 닳은 거.)
 105009 @ 조리 닳은 거 잇어마씨? 이름은 기억 안 нама씨?(집게뿔 같은 거 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요?)
 105009 #5 거 씻주게.(거 있지.)
 105009 @ 아, 이름 씻지예?(아, 이름 있지요?)
 105009 #5 경 허민 옛날은 그런 거 멘들지 못 허난.(그렇게 하면 옛날은 그런 거 만들지 못 하니까.)
 105009 @ 예.(예.)
 105009 #5 이 할망들 쓰는 대체⁹⁰⁾ ㄹ튼 거.(이 할머니들 쓰는 ‘대체’ 같은 거.)
 105009 @ 아, 대체 ㄹ튼 거.(아, ‘대체’ 같은 거.)
 105009 #5 이 보리 영 영 허영 쓰는 대체로 강 거려 봤다가.(이 보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 ‘대체’로 가서 잡아 올렸다가.)
 105009 @ 예.(예.)
 105009 #5 또 이 아니면은 망사리⁹¹⁾로 해서.(또 이 아니면 ‘망사리’로 해서.)
 105009 @ 예.(예.)
 105009 #5 그 망사리 허여근엥 이렇게.(그 ‘망사리’ 해서 이렇게.)
 105009 @ 망사리로?(‘망사리’로?)
 105009 #5 어. 저 만들어가지고.(어. 저 만들어가지고.)
 105009 @ 예.(예.)
 105009 #5 경 만들어근엥 손으로 영 거리면은 거릴 수 잇고 경 헤난.(그렇게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 올리면 잡아 올릴 수 잇고 그렇게 했었어.)
 105009 @ 줌진 걸로는 안 잡앗수광? 뭘은? 그냥 줌진체⁹²⁾로는 안 잡고 대체로만 잡안마씨?(자잘한 걸로는 안 잡았습니까? 멀치는? 그냥 ‘ضمام체’로는 안 잡고 ‘대체’로만 잡았어요?)
 105009 #6 줌진체로도 헤낫주게.(‘ضمام체’로도 했었지.)
 105009 #5 줌진체로도 허고 그냥 닥치는 대로 허는 거라.(‘ضمام체’로도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야.)

90) ‘대체’는 구멍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체로 조나 보리 따위를 타작하고 난 후에 어레미 다음으로 누를 쳐내 버릴 때 쓰는 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91)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나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의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제보자에 따라 ‘망시리’, ‘망아리’라 한다.

92) ‘ضمام체’는 체의 한 종류로 가루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하며, 구멍이 아주 작은 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5009 @ 줌진체로도 하고.(‘줌진체’로도 하고.)

105009 #5 저 멜 나가지 않을 정도로.(저 멀치 나가지 않을 정도로.)

105009 @ 그럼 멜은 보통 채로 이렇게 거렁 잡는 거마씨?(그럼 멀치는 보통 채로 이렇게 잡아 올려서 잡는 거예요?)

105009 #5 게 게. 경 해사주게. 물만 거러지면 되는 거난.(그럼 그럼. 그렇게 해야지. 물만 잡아 올리면 되는 거니까.)

105009 @ 그럼.(그럼.)

105009 #6 족바지 그튼 거라 족바지.(뜰채 같은 거야 뜰채.)

105009 @ 아, 족바지? 족바지로.(아, 뜰채? 뜰채로.)

105009 #5 족바지, 족바지.(뜰채, 뜰채.)

105009 @ 예.(예.)

105009 #5 족바지 신 사람은 족바지로 하고 엇인 사람은 채 아정 하곡.(뜰채 있는 사람은 뜰채로 하고 없는 사람은 채 가져서 하고.)

105010 @ 그럼 그 고기 요즘에는 배로 이렇게 그물로 딱 잡잖아예? 옛날에는 보통 고기 잡을 때 어떻게 낚았주마씨? 고기 낚을 때는?(그럼 그 고기 요즘에는 배로 이렇게 그물로 딱 잡잖아요? 옛날에는 보통 고기 잡을 때 어떻게 낚았지요? 고기 낚을 때는?)

105010 #5 옛날에 여기서 자리 거릴 때는.(옛날에 여기서 자리돔 잡아 올릴 때는.)

105010 @ 예.(예.)

105010 #5 그 사들 잇잖아, 사들.(그 사들 잇잖아, 사들.)

105010 @ 사들?(사들?)

105010 #5 사들.(사들.)

105010 @ 사들은 뭐짱?(사들은 뭐입니까?)

105010 #5 옛날은 사들이렌 굴앗주게 저 자리 거리는 사들.(옛날은 사들이라고 말했지 저 자리돔 잡아 올리는 사들.)

105010 @ 아.(아.)

105010 #5 게민 그 민속촌에 강 보민 그거 잇언게게.(그러면 그 민속촌에 가서 보면 그거 있어.)

105010 @ 예, 예.(예, 예.)

105010 #5 민속촌에 가민 이만허게 크게 둥글락허게 해 놓고.(민속촌에 가면 이만하게 크게 둥글락하게 해 놓고.)

105010 @ 예.(예.)

105010 #5 그디 망사를 그리 썩어 놓고게 배에서 그거 허영 허든 또 그 옛날에.(거기 망사를 그리 썩어 놓고 배에서 그거 해서 하면 또 그 옛날에.)

105010 @ 예.(예.)

105010 #5 옛날에는 그 돈이 엇어 엇어 부난.(옛날에는 그 돈이 없어 없어 버리

니까.)

105010 @ 예.(예.)

105010 #5 돈이 없어 부난 그걸 질기게 해서 질기게 씨게 해서 밧이 그 감나무.(돈이 없어 버리니까 그걸 질기게 해서 질기게 세게 해서 밧에 그 감나무.)

105010 @ 예.(예.)

105010 #5 감 타다가.(감 따다가.)

105010 @ 예.(예.)

105010 #5 감 타다가 그 방앗간에 곶앙 가.(감 따다가 그 방앗간에 갈아서 가.)

105010 @ 예.(예.)

105010 #5 그것을 곶아근엥 그 사들을 물들영.(그것을 갈아서 그 사들을 물들여서.)

105010 @ 아, 그 감 물들이면 질겨마씨?(아, 그 감 물들이면 질겨요?)

105010 #5 물들이면 질기주게.(물들이면 질기지.)

105010 @ 아.(아.)

105010 #5 질기민 그거 허여근엥 사들 허여근엥 거러낫주.(질기면 그거 해서 사들 해서 잡아 올렸었지.)

105010 @ 아, 경 허영 거러낫구나예?(아, 그렇게 해서 잡아 올렸군요?)

105010 #5 어.(어.)

105011 @ 그른 옛날에도 낚싯대랑 낚싯줄 뭐 낚시 이렇게 할 때 뽕돌 같은 것도 다 잇었지예? 옛날에도?(그러면 옛날에도 낚싯대랑 낚싯줄 뭐 낚시 이렇게 할 때 낚싯봉 같은 것도 다 있었지요? 옛날에도?)

105011 #5 낚시는 낚시 할 때 그 뽕돌은 잇었주게. 뽕돌은 이만한 거 허여근엥 대망텅이.(낚시는 낚시 할 때 그 낚싯봉은 있었지. 낚싯봉은 이만한 거 해서 '대망텅이'.)

105011 @ 예.(예.)

105011 #5 대나무 허여근엥.(대나무 해서.)

105011 @ 예.(예.)

105011 #5 춤대 허여근엥 던정.(낚싯대 해서 던져서.)

105011 @ 춤대는 어떻 만들주마씨?(낚싯대는 어떻게 만들지요?)

105011 #5 춤대는 그 저 대나무 밧이 가 보면은.(낚싯대는 그 저 대나무 밧에 가 보면.)

105011 @ 예.(예.)

105011 #5 쪽 허게 곶은 대나무.(쪽 하게 곶은 대나무.)

105011 @ 예.(예.)

105011 #5 곶은 대나무 곶이 가면 막 얹고 그것도 어린 건 안 돼. 곶어야 돼주.(곶은 대나무 곶에 가면 막 얹고 그것도 어린 건 안 돼. 곶어야 되지.)

105011 @ 아, 곶어야 돼마씨?(아, 곶어야 되요?)

105011 #5 어. 굳어야 돼주.(어. 굳어야 되지.)

105011 @ 아, 경 행 어릴 때 그거 할머니가 만든 적 있어마씨?(아, 그렇게 해서 어릴 때 그거 할머니가 만든 적 있어요?)

105011 #5 그 춤대는 멘들지 못했주게.(그 낚싯대는 만들지 못했지.)

105011 @ 아, 춤대는 멘들지 못허고.(아, 낚싯대는 만들지 못하고.)

105011 #5 응. 춤대는 우리 여자라 부난 멘들지 못허고.(응. 낚싯대는 우리 여자라 버리니까 만들지 못하고.)

105011 @ 그럼 할아버지들은 그 춤대는 좀 만들언마씨?(그럼 할아버지들은 그 낚싯대는 좀 만들었어요?)

105011 #5 어. 게. 게난 우리 옛날에 살 때는 하도 어려워 부난 바당에 가면은 그 미역.(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살 때는 하도 어려워 버리니까 바다에 가면 그 미역.)

105011 @ 예.(예.)

105011 #5 미역 허영 이 테역밭에.(미역 해서 이 잔디밭에.)

105011 @ 예. 테역밭에.(예. 잔디밭에.)

105011 #5 어. 잔디밭에 쪽 쪽 흔 몇 개씩 말령 열 단 그 요만씩 현 미역 말령 열 개 낵 흔 단.(어. 잔디밭에 쪽 쪽 한 몇 개씩 말려서 열 단 그 요만큼 한 미역 말려서 열 개 낵서 한 단.)

105011 @ 예.(예.)

105011 #5 한 단 허영 보리쌀 바꿔 먹곡 동네 영 돌아텅기멍.(한 단 해서 보리쌀 바꿔 먹고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05011 @ 아, 무슨 쌀 바꿔 먹언마씨?(아, 무슨 쌀 바꿔 먹었어요?)

105011 #5 보리, 보리, 보리쌀.(보리, 보리, 보리쌀.)

105011 @ 아, 보리쌀. 그거 잡은 다음에 그걸로 바꿔 먹고?(아, 보리쌀. 그거 잡은 다음에 그걸로 바꿔 먹고?)

105011 #5 어. 보리쌀 바꿔 먹곡 그렇게 허영 살앗주게.(어. 보리쌀 바꿔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았지.)

105012 @ 그믐 고기 잡을 때 그 소살 잇잖아예? 작살로 영 고기 잡잖아예?(그러면 고기 잡을 때 그 작살 잇잖아요? 작살로 이렇게 고기 잡잖아요?)

105012 #5 요새는 그 작살도 그거 허믐 안 돼.(요새는 그 작살도 그거 하면 안 돼.)

105012 @ 그러니까 옛날은?(그러니까 옛날은?)

105012 #5 옛날은 헛지.(옛날은 했지.)

105012 @ 아, 옛날에는 그거 어떻 그걸로 잡안마씨? 그 즘녀들이 다 행 가져강 이렇게 바다에 바다에 들어강 잡았수광?(아, 옛날에는 그거 어떻게 그걸로 잡았어요? 그 해녀들이 다 해서 가져가서 이렇게 바다에 바다에 들어가서 잡았습니까?)

105012 #5 어, 어. 옛날에는.(어, 어. 옛날에는.)

105012 @ 예.(예.)

105012 #5 이 바당에 오염이 었어난.(이 바다에 오염이 없었어.)

105012 @ 예.(예.)

105012 #5 오염이 었어난 이 바당에 큰 고기가 핫주게게 하낫어. 그추룩 허민 다금바리, 붉바리.(오염이 없으니까 이 바다에 큰 고기가 많았지 많았어. 그처럼 하면 다금바리, 붉바리.)

105012 @ 붉바리.(붉바리.)

105012 #5 어. 셋우럭, 우럭.(어. 셋우럭, 우럭.)

105012 @ 셋우럭은 뭐짱?(셋우럭은 뭐입니까?)

105012 #5 그 우럭 닳은 우럭 종류 닳은 거 까망허고 흰점 찍어진 거 있어.(그 우럭 닳은 우럭 종류 닳은 거 까망고 흰점 찍어진 거 있어.)

105012 @ 아, 그게 셋우럭이라고 헤마씨?(아, 그게 셋우럭이라고 해요?)

105012 #5 셋우럭. 맛, 맛 좋아.(셋우럭. 맛, 맛 좋아.)

105012 @ 맛 좋아?(맛 좋아?)

105012 #5 어. 그거 허고 다시 우리 우리도 다금바리 ㄴ튼 것도 찢러 봤어.(어. 그거 하고 다시 우리 우리도 다금바리 같은 것도 찢러 봤어.)

105012 @ 아, 찢러 판마씨?(아, 찢러 봤어요?)

105012 #5 다금바리, 붉바리. 경 행 창살로 허면은 붉바리는 저 쏘기가 좋아.(다금바리, 붉바리. 그렇게 해서 창살로 하면 붉바리는 저 쏘기가 좋아.)

105012 @ 아, 쏘기가 좋아마씨?(아, 쏘기가 좋아요?)

105012 #5 순허여. 붉바리는 우리 바당에 들어가면.(순해. 붉바리는 우리 바다에 들어가면.)

105012 @ 예.(예.)

105012 #5 돌맹이가 이렇게 허영 구멍이 잇주게.(돌맹이가 이렇게 해서 구멍이 있지.)

105012 @ 예.(예.)

105012 #5 경 허민 해녀들 들어가면 고기들 무섭잖아.(그렇게 하면 해녀들 들어가면 고기들 무섭잖아.)

105012 @ 예.(예.)

105012 #5 무서우민 그 고기가 돌 알로 들어가는 거라.(무서우면 그 고기가 돌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105012 @ 아, 예.(아, 예.)

105012 #5 경 허민 그 붉바리 종류는 꼭 들어강 돌아상 우릴 봐. 마주쳐.(그렇게 하면 그 붉바리 종류는 꼭 들어가서 돌아서서 우리를 봐. 마주쳐.)

105012 @ 예.(예.)

105012 #5 게민 그것이 막 쏘기가 쉬와.(그러면 그것이 막 쏘기가 쉬워.)

105012 @ 아, 쏘기가 쉬와 그건? 그건 그나마 좀 잡기 쉬웠구나예?(아, 쏘기가

쉬워 그건? 그건 그나마 좀 잡기 쉬웠군요?)

105012 #5 저 그 창살로 잡기가 쉬워. 따치, 객주리,(저 그 창살로 잡기가 쉬워, 독가시치, 객주리.)

105012 @ 까치?(까치?)

105012 #5 저 따치, 따치.(저 독가시치, 독가시치.)

105012 @ 따치?(독가시치?)

105012 #5 어.(어.)

105012 @ 아, 뭐 날아다니는 새 까치 말고마씨?(아, 뭐 날아다니는 새 까치 말고요?)

105012 #5 아니, 아니. 그거 말고.(아니, 아니. 그거 말고.)

105012 @ 물고기 따치?(물고기 독가시치?)

105012 #5 따치, 객주리, 뭐 벨 고기 다 있지 여기는.(독가시치, 객주리, 뭐 벨 고기 다 있지 여기는.)

10501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12 #5 우럭, 어 그런 거.(우럭, 어 그런 거.)

105012 @ 그런 것들도 다 작살로 잡는 거마씨?(그런 것들도 다 작살로 잡는 거예요?)

105012 #5 어, 논쟁이. 그런 거 다.(어, 아홉동가리. 그런 거 다.)

105013 @ 그럼 그 옛날에 고깃배도 탕수광? 고깃배?(그럼 그 옛날에 고깃배도 탕수광입니까? 고깃배?)

105013 #5 고깃배?(고깃배?)

105013 @ 예. 고깃배는 안 타보셨지요?(예. 고깃배는 안 타보셨지요?)

105013 #5 고깃배는 안 타 봤. 우리 물질 땡길 때 저 육지로 강 허민.(고깃배는 안 타 봤어. 우리 물질 다닐 때 저 육지로 가서 하면.)

105013 @ 예.(예.)

105013 #5 해녀들 허여근앵 인술자가 있어.(해녀들 해서 인술자가 있어.)

105013 @ 아, 인술자?(아, 인술자?)

105013 #5 어. 인술자가 제주도 와근앵 해녀들 혼 몇이 혼 삼십 명 해 가민.(어. 인술자가 제주도 와서 해녀들 한 몇이 한 삼십 명 해 가면.)

105013 @ 예.(예.)

105013 #5 그 마을에 가근앵 짝 그냥 해녀들 허는 거라.(그 마을에 가서 짝 그냥 해녀들 하는 거야.)

105013 @ 예.(예.)

105013 #5 강 허민 해녀들이 몇 명씩.(가서 하면 해녀들이 몇 명씩.)

105013 @ 예.(예.)

105013 #5 경 허영 살면은 이 다른 동네 이제 가근앵 그 작업을 해 오젠 허민 그 발동기를 탕.(그렇게 해서 살면 이 다른 동네 이제 가서 그 작업을 해 오려고 하

면 그 발동기를 타서.)

105013 @ 아, 예.(아, 예.)

105013 #5 발동기를 탕 강 우리 혼 해녀들 혼 삼십 명 실어 강 막 먼 데 강 작업을 해 와.(발동기를 타서 가서 우리 한 해녀들 한 삼십 명 실어 가서 막 먼 데 가서 작업을 해 와.)

105013 @ 예.(예.)

105013 #5 작업을 해 오민 우리 혼 몇 프로 혼 사 프로 먹어지카?(작업을 해 오면 우리 한 몇 프로 한 사 프로 먹을 수 있을까?)

105013 @ 사 프로?(사 프로?)

105013 #5 어. 그 정도로 하여근엥 물질들 하여근엥 살앗주게.(어. 그 정도로 해서 물질들 해서 살았지.)

105013 @ 그럼 고깃배 종류는 뭐, 뭐 잇어신지는 혹시 기억 안 нама씨? 고깃배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그럼 고깃배 종류는 뭐, 뭐 잇었는지 혹시 기억 안 나요? 고깃배 종류는 뭐, 뭐 잇었어요?)

105013 #5 배 종류는 우리 육지 땡길 때는 자담배.(배 종류는 우리 육지 다닐 때는 자담배.)

105013 @ 자담배?(자담배?)

105013 #5 자담배.(자담배.)

105013 @ 자담배.(자담배.)

105013 #5 자담배엔 헛 건 무슨 뜻이냐 허민.(자담배라고 한 건 무슨 뜻이냐 하면.)

105013 @ 예.(예.)

105013 #5 이제 큰 그 운반선.(이제 큰 그 운반선.)

105013 @ 큰 운반선.(큰 운반선.)

105013 #5 운반선 ㄱ튼 거 발동기 ㄱ튼 큰 운반선 ㄱ튼 거 하여근엥.(운반선 같은 거 발동기 같은 큰 운반선 같은 거 해서.)

105013 @ 예.(예.)

105013 #5 이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못 살아 부난 이제 일 년 살젠 허민.(이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못 살아 버리니까 이제 일 년 살려고 하면.)

105013 @ 예.(예.)

105013 #5 이제 보리쌀을.(이제 보리쌀을.)

105013 @ 예.(예.)

105013 #5 보리쌀을 이제 가마 수로 그때는 가마 수로 해서 이제 포장을 딱 허는 거라.(보리쌀을 이제 가마 수로 그때는 가마 수로 해서 이제 포장을 딱 하는 거야.)

105013 @ 예.(예.)

105013 #5 계민 혼 사람당 그 돈 많은 사람은 그걸로 이빠이 해 가고.(그러면

한 사람당 그 돈 많은 사람은 그걸로 가득 해 가고.)

105013 @ 예.(예.)

105013 #5 또 돈 엷는 사람은 마대로 호끔 가정 가고.(또 돈 엷는 사람은 마대로 조금 가져서 가고.)

105013 @ 아.

105013 #5 그처럼 허영 허민 또 그때는 비행기도 못 타니까.(그처럼 해서 하면 또 그때는 비행기도 못 타니까.)

105013 @ 예.(예.)

105013 #5 비행기도 엷어서 못 타니까 그 자담배로.(비행기도 엷어서 못 타니까 그 자담배로.)

105013 @ 예.(예.)

105013 #5 그 발동기 배로 쓸 실르고. 그 보리쌀 한 사람당 몇 개씩 실르고. 또 해녀들 실르고 허영 저 울진.(그 발동기 배로 쌀 싣고. 그 보리쌀 한 사람당 몇 개씩 싣고. 또 해녀들 싣고 해서 저 ‘울진’.)

105013 @ 아, 울진까지 간마씨?(아, ‘울진’까지 갔어요?)

105013 #5 울진 가젠 허면은 그 배로 바당을 가민 이제 바당에서 일주일을 걸려.(‘울진’ 가려고 하면 그 배로 바다를 가면 이제 바다에서 일주일을 걸려.)

105013 @ 아, 일주일이나?(아, 일주일이나?)

105013 #5 어, 게민 그 배가 가다가 이제 어디 뭐 대포도 세우곡. 울산 가서도 세우곡. 그 포항 가서도 세우곡 그처럼 허영 그 손님들을 다 퍼 놓고 우리는 마지막에 울진 갖주게.(어, 그러면 그 배가 가다가 이제 어디 뭐 ‘대포’도 세우고. ‘울산’ 가서도 세우고. 그 ‘포항’ 가서도 세우고 그처럼 해서 그 손님들을 다 퍼 놓고 우리는 마지막에 ‘울진’ 갔지.)

10501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13 #5 경 허민 배에서 일주일간을 배에서 먹고 살아야 돼여.(그렇게 하면 배에서 일주일간을 배에서 먹고 살아야 돼.)

105013 @ 아, 일주일 동안?(아, 일주일 동안?)

105013 #5 일주일 동안.(일주일 동안.)

105013 @ 그럼 그 뭐냐 자담배 말고 작은 고깃배 종류들은 뭐 엷어신가마씨? 작은 고깃배.(그럼 그 뭐냐 자담배 말고 작은 고깃배 종류들은 뭐 엷었나요? 작은 고깃배.)

105013 #5 작은 고깃배 종류는 우리는 발동기로 허영 가젠 허민 그 뗏마새끼.(작은 고깃배 종류는 우리는 발동기로 해서 가려고 하면 그 전마선.)

105013 @ 예.(예.)

105013 #5 뗏마새끼 발동기는.(전마선 발동기는.)

105013 @ 뗏마새끼?(전마선?)

105013 #5 발동기는 그 가에서 텔 수 엷으니까.(발동기는 그 가에서 텔 수 없으

니까.)

105013 @ 예.(예.)

105013 #5 텔 수 없으니까 그 발동기로 올라가젠 허민 요만한 뗏마로 이제 혼 몇 사람씩 탕 그 발동기로 운반하는 거라.(텔 수 없으니까 그 발동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요만한 전마선으로 이제 한 몇 사람씩 타서 그 발동기로 운반하는 거야.)

105013 @ 아, 그런 배가 잇언마씨?(아, 그런 배가 있었어요?)

105013 #5 어. 그런 배 잇엇주게. 이어싸 허여근앵 가는 거.(어. 그런 배 있었지. 이어싸 해서 가는 거.)

105014 @ 그러면 줌네들이 줌녀들이 그 해산물 채취허잖아예? 뭐 그 채취하는 거는 물에 들어강 채취하는 건 뭐, 뭐 잇언마씨? 종류들은?(그러면 해녀들이 해녀들이 그 해산물 채취하잖아요? 뭐 그 채취하는 거는 물에 들어가서 채취하는 건 뭐, 뭐 있었어요? 종류들은?)

105014 #5 들어강 채취하는 거?(들어가서 채취하는 거?)

105014 @ 할머니 몇 살 때부터 물질 하션마씨?(할머니 몇 살 때부터 물질 하셨어요?)

105014 #5 우리 여기서 물질 배운 거는게 열, 열일곱 살에.(우리 여기서 물질 배운 거는 열, 열일곱 살에.)

105014 @ 열일곱 살에 배원마씨?(열일곱 살에 배웠어요?)

105014 #5 어.(어.)

105014 @ 그럼 언제까지? 지금까지 배원마씨?(그럼 언제까지? 지금까지 배웠어요?)

105014 #5 큰 물질이지.(큰 물질이지.)

105014 @ 아, 큰 물질.(아, 큰 물질.)

105014 #5 응.(응.)

105014 @ 그럼 큰 물질은 뭐짱?(그럼 큰 물질은 뭐입니까?)

105014 #5 물질을 익숙하다는 거주게. 열다섯, 열셋 나민 바당에 가서 허영 배우고.(물질을 익숙하다는 거지. 열다섯, 열셋 되면 바다에 가서 해서 배우고.)

105014 @ 예.(예.)

105014 #5 또 현 열여섯 일곱 나가문 또 그것이 익숙어.(또 한 열여섯 일곱 되면 또 그것이 익숙해.)

105014 @ 아.(아.)

105014 #5 물질을.(물질을.)

105014 @ 아, 익숙해?(아, 익숙해?)

105014 #5 잘 허니까.(잘 하니까.)

105014 @ 아, 잘 허니까.(아, 잘 하니까.)

105014 #5 잘 하니까.(잘 하니까.)

105014 @ 예.(예.)

105014 #5 또 그것을 익숙어 가면은 또 어머니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또 그것을 익숙해 가면 또 어머니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105014 @ 예.(예.)

105014 #5 보리쌀 보리밥도 못 먹으니까.(보리쌀 보리밥도 못 먹으니까.)

105014 @ 예.(예.)

105014 #5 이제 부모들은 이제 육지로 이제 돈 벌레 보내는 거라.(이제 부모들은 이제 육지로 이제 돈 벌러 보내는 거야.)

105014 @ 아, 보내마씨?(아, 보내요?)

105014 #5 어 보내면은 우리는 그걸 어머니 따라 그냥 육지로 가근앵 돈 벌어 왔주게.(어 보내면 우리는 그걸 어머니 따라 그냥 육지로 가서 돈 벌어 왔지.)

105014 @ 아, 돈 벌어 왔구나예?(아, 돈 벌어 왔군요?)

105014 #5 어.(어.)

105014 @ 그럼 그 물에 들어가면 종류가 뭐, 뭐 잇언마씨? 잡는 거 옛날에는?(그럼 그 물에 들어가면 종류가 뭐, 뭐 있었어요?)

105014 #5 옛날에는 육지 가면은 미역, 그 해삼.(옛날에는 육지 가면 미역, 그 해삼.)

105014 @ 예.(예.)

105014 #5 천초⁹³.(우뭇가사리.)

105014 @ 천초?(우뭇가사리?)

105014 #5 어. 점복.(어. 전복.)

105014 @ 예.(예.)

105014 #5 또 도바.(또 도바.)

105014 @ 도바?(도바?)

105014 #5 도바, 도바, 도박이엔 현 거 잇엇어. 그거 저.(도바, 도바, 도바라고 한 거 있었어. 그거 저.)

105014 @ 뭐 해산물이팡?(뭐 해산물입니까?)

105014 #5 우미.(우뭇가사리.)

105014 @ 우미?(우뭇가사리?)

105014 #5 저 천초 닳은 건데 너풀너풀 현 거 잇어.(저 우뭇가사리 닳은 건데 너풀너풀 한 거 잇어.)

105014 @ 아, 너풀너풀 현 거.(아, 너풀너풀 한 거.)

105014 #5 어. 그런 거 허영 돈 벌고 천초 해서 돈 벌고.(어. 그런 거 해서 돈 벌고 우뭇가사리 해서 돈 벌고.)

105014 @ 음.(음.)

105014 #5 해삼 해서 돈 벌고 미역 허고 전복 따고 그거. 육지 가근앵.(해삼 해서 돈 벌고 미역 하고 전복 다고 그거. 육지 가서.)

93) '천초'는 우뭇가사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우미, 우미'라고도 한다.

105015 @ 그럼 그 즘녀들 물질 헐 때 필요한 도구들은 뭐, 뭐 있어마씨?(그럼 그 해녀들 물질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은 뭐, 뭐 있어요?)

105015 #5 도구 헐 때는 호멍이 필요하고.(도구 할 때는 호미 필요하고.)

105015 @ 호멍이.(호미.)

105015 #5 작살 필요하고.(작살 필요하고.)

105015 @ 작살.(작살.)

105015 #5 빗창.(‘빗창’.)

105015 @ 빗창.(‘빗창’.)

105015 #5 잡을 때는 빗창 뭐, 뭐 그거주게. 오리발 그튼 건 다.(잡을 때는 ‘빗창’ 뭐, 뭐 그거지. 오리발 같은 건 다.)

105015 @ 그럼 그 채취헌 다음에 담는 거는 어디다가 담주마씨?(그럼 그 채취헌 다음에 담는 거는 어디다가 담지요?)

105015 #6 그건 망사리.(그건 ‘망사리’.)

105015 @ 계난 망사리도 들고가지예?(그러니까 ‘망사리’도 들고가지요?)

105015 #5 어. 망사리 테왁 테왁 허영.(어. 망사리 ‘테왁’ ‘테왁’ 해서.)

105015 @ 테왁에 망사리 해근앵 가지예?(‘테왁’에 ‘망사리’ 해서 가지요?)

105015 #5 어.(어.)

105016 @ 그러면 요즘에 물질이랑 예전이랑 비교하면 뭐가 좀 달라마씨? 그러니까 한 구십 년대 최근에 했던 물질했던 거랑 할머니 열일곱 살 때 헐 거랑 뭐가 달라마씨? 옷도 다르지예?(그러면 요즘에 물질이랑 예전이랑 비교하면 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 구십 년대 최근에 했던 물질했던 거랑 할머니 열일곱 살 때 헐 거랑 뭐가 달라요? 옷도 다르지요?)

105016 #6 옷도 다르지.(옷도 다르지.)

105016 #5 영 다르지.(영 다르지.)

105016 @ 영 다르지. 그럼 그 달라진 거 곱아 줘서.(영 다르지. 그럼 그 달라진 거 말해 주십시오.)

105016 #5 아니. 요즘에는 그 국가에서 뭐 오리발 나오고 고무옷⁹⁴ 내어주고 해녀들 진짜 원할 것이 었어.(아니. 요즘에는 그 국가에서 뭐 오리발 나오고 ‘고무옷’ 내어주고 해녀들 진짜 원할 것이 없어.)

105016 @ 아.(아.)

105016 #5 너무 잘해주난.(너무 잘해주니까.)

105016 @ 아, 나라에서 그 오리발도 나와마씨?(아, 나라에서 그 오리발도 나와요?)

105016 #5 어. 아니 요새는 진짜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해녀들이 너무 좋아.(어. 아니 요새는 진짜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해녀들이 너무 좋아.)

105016 @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도구들 막 달라졌잖아예? 그럼 예전에는 오리

94) ‘고무옷’은 해녀들이 작업할 때 입는 꺼먼 고무로 만든 물옷을 의미한다.

밭 엮고 또 뭐 달라전마씨?(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도구들 막 달라졌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오리밭 없고 또 뭐 달라졌어요?)

105016 #5 아이고, 옛날에는이.(아이고, 옛날에는.)

105016 @ 예.(예.)

105016 #5 옛날에는.(옛날에는.)

105016 @ 예.(예.)

105016 #5 속곳 속곳이 잇었어.(‘속곳’, ‘속곳’이 있었어.)

105016 @ 속곳 예.(‘속곳’ 예.)

105016 #5 속곳 요만한 거 그냥 험벅으로 만들어 우리대로 곱게 만들엉 솜씨 잇는 사람은 곱게 만들고.(‘속곳’ 요만한 거 그냥 형겁으로 만들어 우리대로 곱게 만들어서 솜씨 잇는 사람은 곱게 만들고.)

105016 @ 예.(예.)

105016 #5 물적삼⁹⁵⁾ 만들고 또 이디 험벅으로 이 모자 만들고.(‘물적삼’ 만들고 또 여기 형겁으로 이 모자 만들고.)

105016 @ 예.(예.)

105016 #5 경 허영 물에 들어가면 너무 추운 거라.(그렇게 해서 물에 들어가면 너무 추운 거야.)

105016 @ 아, 옛날에는?(아, 옛날에는?)

105016 #5 어. 너무 추웁 가민 이제 그 바구니.(어. 너무 추워서 가면 이제 그 바구니.)

105016 @ 예.(예.)

105016 #5 대나무 바구니.(대나무 바구니.)

105016 @ 예.(예.)

105016 #5 대나무 바구니에 이제 그 불 땀 땀감.(대나무 바구니에 이제 그 불 땀 땀감.)

105016 @ 아, 예.(아, 예.)

105016 #5 불 때는 그.(불 때는 그.)

105016 @ 아, 불 때는 거를 뭐 가져간마씨?(아, 불 때는 거를 뭐 가져갔어요?)

105016 #5 어. 솔잎 ㄹ튼 거. 솔잎 ㄹ튼 거.(어. 솔잎 같은 거. 솔잎 같은 거.)

105016 @ 예.(예.)

105016 #5 그거 가정 강 이제 그걸 비추주게 물에 들어가민.(그거 가져서 가서 이제 그걸 비추지 물에 들어가면.)

105016 @ 예.(예.)

105016 #5 경 허민 그 옛날은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이 짚물 헤울 수가 었었어 이 맹물로.(그렇게 하면 그 옛날은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이 짚물 행굴 수가 없었어

95) ‘물적삼’은 제주도 해녀복의 상의로서 잠수 할 때 물소중이 위에 입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950년대 이후에 입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물소중이가 바다일의 필수라면 물적삼은 선택인 셈이다. 물소중이는 검정물을 들여 입어도 물적삼은 흰색으로 입었다.

이 맹물로.)

105016 @ 아, 맹물로는?(아, 맹물로는?)

105016 #5 그런 머리로 돌아가지 않았고.(그런 머리로 돌아가지 않았고.)

105016 @ 예.(예.)

105016 #5 또 이 중간에 요 중간에 이제 오난 이 저 뭐냐 이 국가에서 그.(또 이 중간에 요 중간에 이제 오니까 이 저 뭐냐 이 국가에서 그.)

105016 @ 예.(예.)

105016 #5 고무옷만.(‘고무옷’만.)

105016 @ 예.(예.)

105016 #5 고무옷만 내주기로 했어.(‘고무옷’만 내주기로 했어.)

105016 @ 예.(예.)

105016 #5 그처럼 허니깐 흡지게.(그처럼 하니까는 흡지.)

105016 @ 예. 흡주마씨.(예. 흡지요.)

105016 #5 어. 경 행 추우민 고무옷 벗이민 이제 이 머리라도 짬물을 헤와사 돼
잖아.(어. 그렇게 해서 추우면 ‘고무옷’ 없으면 이제 이 머리라도 짬물을 행귀야 되
잖아.)

105016 @ 예.(예.)

105016 #5 경 허민 요만한 플라스틱 통.(그렇게 하면 요만한 플라스틱 통.)

105016 @ 예. 플라스틱 통.(예. 플라스틱 통.)

105016 #5 플라스틱 통으로 이제 집에서 물을 끓여 가는 거라.(플라스틱 통으로
이제 집에서 물을 끓여 가는 거야.)

105016 @ 예.(예.)

105016 #5 물을 끓여근엥 거기 담양.(물을 끓여서 거기 담아서.)

105016 @ 예.(예.)

105016 #5 거기 담아근엥 그 대나무 바구니에.(거기 담아서 그 대나무 바구니
에.)

105016 @ 예.(예.)

105016 #5 담양 이제 그걸 지영 물에 가는 거라.(담아서 이제 그걸 지어서 물에
가는 거야.)

105016 @ 예.(예.)

105016 #5 경 허민 물에 들어가민 이제 그 너무 추우민 고무옷 벗어근엥 물 헤
울 데 벗이민 그거 허여근엥 미리 물 끓여 갖다근엥 그것이 어지간히 식어가주게.

105016 @ 아, 경 많이 달라졌구나예?(그렇게 하면 물에 들어가면 이제 그 너무
추우면 ‘고무옷’ 벗어서 물 행굴 데 없으면 그거 해서 미리 물 끓여서 갖다가 그것
이 어지간히 식어가지.)

105016 #5 그딴 가민 시간이 돼 가민 이제 딱 알맞으면 그걸로 영 물 헤우고
이제 불뚱 만들영.(거기 가면 시간이 되 가면 이제 딱 알맞으면 그걸로 이렇게 물

행구고 이제 불똥 만들어서.)

105016 @ 예.(예.)

105016 #5 불똥 만들어근엥 나무들 그 가져가근엥 불 피와근엥 그냥 놓으멍 헛주게. 경 현디 요즘은.(불똥 만들어서 나무들 그 가져가서 불 피워서 그냥 놓으면서 했지. 그렇게 한테 요즘은.)

105016 @ 예.(예.)

105016 #5 이 국가에서 모든 해녀들을 잘해주난.(이 국가에서 모든 해녀들을 잘 해주니까.)

105016 @ 예.(예.)

105016 #5 탈의실 만들어 췌지.(탈의실 만들어 췌지.)

105016 @ 무슨, 아 탈의실?(무슨, 아 탈의실?)

105016 #5 탈의실 만들어 췌지.(탈의실 만들어 췌지.)

105016 @ 예.(예.)

105016 #5 뭐 물 데와근엥.(물 데워서.)

105016 @ 예.(예.)

105016 #5 그거 모욕허렌 다 나오지. 뭐 원하는 것이 었어.(그거 목욕하라고 다 나오지. 뭐 원하는 것이 없어.)

105017 @ 음. 그럼 옷은 좀 어떻 달라졌주마씨? 아까 얘기 했는데 예전에는 속곳만 입엇잖아예?(음. 그럼 옷은 좀 어떻게 달라졌지요? 아까 얘기 했는데 예전에는 ‘속곳’만 입엇잖아요?)

105017 #5 속곳만 입엇는데 이제는 잠수복 그 다 허영 그것도 이 우리 한국에서는 할 수 었으니까 그 원단이.(‘속곳’만 입엇는데 이제는 잠수복 그 다 해서 그것도 이 우리 한국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원단이.)

105017 @ 예.(예.)

105017 #5 일본에서 다 들어와.(일본에서 다 들어와.)

105017 @ 아.(아.)

105017 #5 일본에서 다 들어오면은 여기서 체단허는 사람이 그걸 다 만들어서 일 년 댜민 우리 몸을 다 재 가.(일본에서 다 들어오면 여기서 체단하는 사람이 그걸 다 만들어서 일 년 되면 우리 몸을 다 재 가.)

105017 @ 그럼 옛날에는 속곳만 입엿 물에 들어간마씨?(그럼 옛날에는 ‘속곳’만 입어서 물에 들어갔어요?)

105017 #5 게. 그랬주게.(그럼. 그랬지.)

105017 @ 그건 누가 만들엇수광? 그 속곳은?(그건 누가 만들엇습니까? 그 ‘속곳’은?)

105017 #5 우리 집에 그거, 그거 혼 번 왕 배와 줄 걸? 우리 집에 잇어.(우리 집에 그거, 그거 한 번 와서 가르쳐 줄 걸? 우리 집에 잇어.)

105017 @ 아, 잇어마씨?(아, 잇어요?)

105017 #5 어.(어.)

105017 @ 옛날에 썼던 속곳이 아직도 있어마씨?(옛날에 썼던 ‘속곳’이 아직도 있어요?)

105017 #5 어, 있어. 작년에 만들었 우리 여기서.(어, 있어. 작년에 만들어서 우리 여기서.)

105017 @ 예.(예.)

105017 #5 뭐냐 그 대통령상 타명 했인다.(뭐냐 그 대통령상 타면서 했는데.)

105017 @ 예.(예.)

105017 #5 그때 입영 강 우리 대전 강 게임 허영 그 옷 입영 강 해녀.(그때 입어서 가서 우리 ‘대전’ 가서 게임 해서 그 옷 입어서 가서 해녀.)

105017 @ 아, 그거 햇수광?(아, 그거 했습니까?)

105017 #5 행사했주게.(행사했지.)

105017 @ 할머니 뭐 해녀 행사하면 지금도 가마씨? 거기 그런 데?(할머니 뭐 해녀 행사하면 지금도 가요? 거기 그런 데?)

105017 #5 그런 디 강 우리 대통령상 타오명 했는데.(그런 데 가서 우리 대통령상 타오면서 했는데.)

105017 @ 예.(예.)

105017 #5 요즘에는 그런 것이 자주 안 나오니까.(요즘에는 그런 것이 자주 안 나오니까.)

105017 @ 그럼 지금은 물질 안 하시지예? 지금도 허멘마씨?(그럼 지금은 물질 안 하시지요? 지금도 해요?)

105017 #5 해.(해.)

105017 @ 아, 지금도 해?(아, 지금도 해?)

105017 #5 어저께도.(어저께도.)

105017 @ 어저께도 강 햇수광? 아, 기구나예.(어저께도 가서 했습니까? 아, 그렇군요.)

105017 #5 어저께도 성계 행 완. 했주게.(어저께도 성계 해서 왔어. 했지.)

105018 @ 그럼 툫은 어떻게 채취해마씨?(그럼 툫은 어떻게 채취해요?)

105018 #5 툫은.(툫은.)

105018 @ 예.(예.)

105018 #5 옛날에는.(옛날에는.)

105018 @ 예.(예.)

105018 #5 툫을 엄청나게 많이 했주게.(툫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

105018 @ 예.(예.)

105018 #5 경 허민 계 허여근엥 한 동네 할 사람 몇몇이 짜근엥.(그렇게 하면 계 해서 한 동네 할 사람 몇몇이 짜서.)

105018 @ 예.(예.)

105018 #5 그 톳을 해낫인다.(그 톳을 했었는데.)

105018 @ 예.(예.)

105018 #5 그것도 이제 안 허니까.(그것도 이제 안 하니까.)

105018 @ 예.(예.)

105018 #5 이제 줌수분들이 그것을 이젠 헛어.(이제 해녀들이 그것을 이제는 헛어.)

105018 @ 줌수분들이?(해녀들이?)

105018 #5 줌수분들이. 줌수분이 아니고 어촌계 든 사람은 그저 원하는 사람은 다.(해녀들이. 해녀가 아니고 어촌계 든 사람은 그저 원하는 사람은 다.)

105018 @ 아, 아무나?(아, 아무나?)

105018 #5 어. 어촌계 든 사람은 아무나 다 그딴서 물때 뉘민 이제 때가 이제 십이월 달 그럴 때 뉘민 그것을 채취허여.(어. 어촌계 든 사람은 아무나 다 거기서 물때 되면 이제 때가 이제 십이월 달 그럴 때 되면 그것을 채취해.)

105018 @ 아, 예.(아, 예.)

105018 #5 그추록 허민 그걸 채취허영 다 물렁 이제 그걸 다 물렁 눌엇다가 며칠날 수협에서.(그처럼 하면 그걸 채취해서 다 말려서 이제 그걸 다 말려서 널엇다가 며칠날 수협에서.)

105018 @ 예.(예.)

105018 #5 이제 받으러 왓젠 허민 그걸 강 이제 그걸 팔아낫인다.(이제 받으러 온다고 하면 그걸 가서 이제 그걸 팔았었는데.)

105018 @ 예.(예.)

105018 #5 이제는 이 바당이 오염웨난 그것이 엇어전.(이제는 이 바다가 오염되니까 그것이 엇어졌어.)

105018 @ 아, 이제는 안 허고?(아, 이제는 안 하고?)

105018 #5 응.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긴 나는데.(응.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기는 나는데.)

105018 @ 그럼 예전에는 톳은 그러면 개개인이 채취헛마씨? 아니면 다 같이 안 헛수광?(그럼 예전에는 톳은 그러면 개개인이 채취헛어요? 아니면 다 같이 안 헛수광니까?)

105018 #5 경 허난 어촌계에서.(그렇게 하니까 어촌계에서.)

105018 @ 아, 어촌계에서.(아, 어촌계에서.)

105018 #5 어. 어촌계원이. 어촌계원들이 헛주게.(어. 어촌계원이. 어촌계원들이 헛지.)

105019 @ 그럼 우뉘가사리도 예전에?(그럼 우뉘가사리도 예전에?)

105019 #5 우뉘가사리는.(우뉘가사리는.)

105019 @ 예.(예.)

105019 #5 우리 이 우리 바당에는 엇어.(우리 이 우리 바다에는 엇어.)

105019 @ 아, 여기는 엇언마씨?(아, 여기는 없었어요?)

105019 #5 응. 조금, 조금 잇는데 안 헨. 돈이 안 돼니깐.(응. 조금, 조금 잇는데 안 했어. 돈이 안 되니까.)

105020 @ 그럼 전복이랑 소라는 그냥 각자 채취허는 거지예?(그럼 전복이랑 소라는 그냥 각자 채취하는 거지요?)

105020 #5 각자 채취허지. 경 허영 수협에 가서 받아가고.(각자 채취하지. 그렇게 해서 수협에 가서 받아가고.)

105020 @ 아, 수협에 가서 받아가고.(아, 수협에 가서 받아가고.)

105020 #5 어.(어.)

105020 @ 파는 거는 수협에서 영 허는 거난 단체로 허고.(파는 거는 수협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단체로 하고.)

105020 #5 어. 다. 소라 ㄴ튼 거 다 수협에서 받아가.(어. 다. 소라 같은 거 다 수협에서 받아가.)

105021 @ 전복은 그 암수를 어떻 구분해주마씨? 암침복, 수침복 허잖아예? 암침복, 수침복 어떻 구분해마씨?(전복은 그 암수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암침복’, ‘수침복’ 하잖아요? ‘암천복’, ‘수침복’ 어떻게 구분해요?)

105021 #5 암침복 수침복은.(‘암천복’ ‘수침복’은.)

105021 @ 예.(예.)

105021 #5 수침복은.(‘수침복’은.)

105021 @ 예.(예.)

105021 #5 살도 깊으곡.(살도 깊고.)

105021 @ 살도 깊으곡.(살도 깊고.)

105021 #5 살도 깊으곡 이렇게 쯤팍⁹⁶⁾ ㄴ치 옴팡해.(살도 깊고 이렇게 ‘쯤팍’ 같이 옴팡해.)

105021 @ 아, 쯤팍 ㄴ치.(아, ‘쯤팍’ 같이.)

105021 #5 어. 커. 경 현디 암침복은 이렇게 손바닥처럼.(어. 커. 그렇게 한테 ‘암침복’은 이렇게 손바닥처럼.)

105021 @ 예.(예.)

105021 #5 냅작허게 생겼어.(냅작하게 생겼어.)

105021 @ 아, 냅작해마씨?(아, 냅작해요?)

105021 #5 어. 경 현디 그것이 맛이 그렇게 좋덴.(어. 그렇게 한테 그것이 맛이 그렇게 좋대.)

105021 @ 아, 암침복이?(아, ‘암침복’이?)

105021 #5 암침복이 맛이 그렇게 좋덴. 경 현디 암침복은 냅작허고.(‘암침복’이 맛이 그렇게 좋대. 그렇게 한테 ‘암침복’은 냅작하고.)

96) ‘쯤팍’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솔박, 속박, 손박, 쯤팍세기’라고도 한다.

105021 @ 예.(예.)

105021 #5 그것이 이름이 뭇이라고 하는데. 마, 마, 마드레⁹⁷렌 허여.(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데. 마, 마, ‘마드레’라고 해.)

105021 @ 마드레?(‘마드레’?)

105021 #5 그거 암침복.(그거 ‘암침복’.)

105021 @ 암침복?(‘암침복’?)

105021 #5 그거 큰 거는.(그거 큰 거는.)

105021 @ 큰 거는.(큰 거는.)

105021 #5 어.(어.)

105021 @ 음.(음.)

105021 #5 게민 솥통이, 암통이.(그러면 ‘솥통이’, ‘암통이’.)

105021 @ 아, 솥통이, 암통이. 전복도 그른 작은 것부터 크잖아예? 점점 이렇게.(아, ‘솥통이’, ‘암통이’. 전복도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크잖아요? 점점 이렇게.)

105021 #5 점점 크주게. 게민 점복은 일 년산 이 년산 딱 그릇이 굵어졌어.(점점 크기. 그러면 전복은 일 년산 이 년산 딱 금이 그어졌어.)

105021 @ 아, 구별이 돼마씨?(아, 구별이 되요?)

105021 #5 구별돼여.(구별돼.)

105021 @ 어떻 구별돼마씨?(어떻게 구별되요?)

105021 #5 아니 이제 바레봐 이제이.(아니 이제 바라봐 이제.)

105021 @ 예.(예.)

105021 #5 뭐냐 양식장 점복.(뭐냐 양식장 전복.)

105021 @ 예.(예.)

105021 #5 올히 일 년 큰 거는 또 이쪽으로 파랗게 이렇게 써졌어.(올해 일 년 큰 거는 또 이쪽으로 파랗게 이렇게 써졌어.)

105021 @ 아, 예.(아, 예.)

105021 #5 경 허민 새끼 때 요만헌 새끼 때 처음 헌 건.(그렇게 하면 새끼 때 요만한 새끼 때 처음 한 건.)

105021 @ 예.(예.)

105021 #5 딱 요되 그릇이 있어 파랗게.(딱 여기 금이 있어 파랗게.)

105021 @ 아.(아.)

105021 #5 그건 몇 년이 가도 안 지워져.(그건 몇 년이 가도 안 지워져.)

105021 @ 아, 몇 년이 가도 안 지워져마씨?(아, 몇 년이 가도 안 지워져요?)

105021 #5 어. 안 지워져.(어. 안 지워져.)

105021 @ 그럼 소라도 암수가 잇수광? 소라도?(그럼 소라도 암수가 있습니까? 소라도?)

97) ‘마드레’는 전복의 한 가지로 전복의 암컷과 비슷하면서도 좀 길쭉하고 껍질이 울퉁불퉁한 모양인 전복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5021 #5 그런 건 구별 못 하여. 소라는.(그런 건 구별 못 해. 소라는.)

105022 @ 여기서는 테우 안 탄마씨? 테우?(여기서는 떼 안 탔어요? 떼?)

105022 #5 새우?(새우?)

105022 @ 테우, 테우. 테우 배 잇잖아예. 새우 말앙 테.(테, 테, 테 배 잇잖아요. 새우 말고 떼.)

105022 #5 테 엇어. 이되는 엇어.(떼 없어. 여기는 없어.)

105023 @ 그럼 돛배는 엇엇수광?(그럼 돛배는 없었습니까?)

105023 #5 돛배도 엇어. 잇엇주만은 요즘은 엇어.(돛배도 없어. 있었지만 요즘은 없어.)

105023 @ 요즘은 엇주마씨. 그럼 테우는 잇엇수광?(요즘은 없지요. 그럼 떼는 있었습니까?)

105023 #6 테?(떼?)

105023 @ 예. 테. 아, 예전에는 잇언마씨? 그럼 테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잇어 마씨?(예. 떼. 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럼 떼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잇어요?)

105023 #5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5023 @ 옛날에도 테도 하르방들이 알지예?(옛날에도 떼도 할아버지들이 알지요?)

105023 #5 어.(어.)

105023 @ 테는 모르고.(떼는 모르고.)

105023 #5 테도 우리도 보긴 봐낫주게.(떼도 우리도 보기는 봤었지.)

105023 @ 아, 보긴 봐도 테 그 명칭이나 그런 거는 하르방들이 잘 알지예?(아, 보긴 봐도 떼 그 명칭이나 그런 거는 할아버지들이 잘 알지요?)

105023 #5 어.(어.)

105023 @ 그럼 옛날 그 물질 허는 거랑 지금 물질 허는 거랑 뭐가 좀 많이 달라마씨? 비교하면 할머니.(그럼 옛날 그 물질 하는 거랑 지금 물질 하는 거랑 뭐가 좀 많이 달라요? 비교하면 할머니.)

105023 #5 비교허는 거는?(비교하는 거는?)

105023 @ 옷 말고 아까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줬는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막 다른 거.(옷 말고 아까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줬는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막 다른 거.)

105023 #5 비교허면은.(비교하면.)

105023 @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요즘에는 막 안 좋잖아예?(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요즘에는 막 안 좋잖아요?)

105023 #5 안 좋주게.(안 좋지.)

105023 @ 그런 거 말앙 또 뭐가 잇을까마씨?(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105023 #5 저 파는 과정.(저 파는 과정.)

105023 @ 아, 파는 과정? 어떻 달라마씨?(아, 파는 과정? 어떻게 달라요?)

105023 #5 옛날에는.(옛날에는.)
 105023 @ 예.(예.)
 105023 #5 이녀만씩 허면은.(이녀만큼 하면.)
 105023 @ 예.(예.)
 105023 #5 이 마을에 점복이면 점복 받는 사람이 잇었어.(이 마을에 전복이면 전복 받는 사람이 있었어.)
 105023 @ 아, 마을에 잇언마씨?(아, 마을에 있었어요?)
 105023 #5 어. 마을에 잇으면 그 사름이.(어. 마을에 있으면 그 사람이.)
 105023 @ 예.(예.)
 105023 #5 바당에 가서.(바다에 가서.)
 105023 @ 예.(예.)
 105023 #5 해너 바다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해너 바다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
 105023 @ 예.(예.)
 105023 #5 기다리민 우리는 나와근엥 거기서 이 심는 저울로 영 심는 저울로 해근엥 그 사름헌티 팔곡 헛주만은.(기다리면 우리는 나와서 거기서 이 재는 저울로 이렇게 재는 저울로 해서 그 사름한테 팔고 헛지만.)
 105023 @ 예.(예.)
 105023 #5 요즘에는 수협에서 딱 몇 키로. 일 년에 키로수 넘게도 못 허여.(요즘에는 수협에서 딱 몇 킬로. 일 년에 킬로수 넘게도 못 해.)
 105023 @ 아, 일 년에 넘게도 못 해마씨?(아, 일 년에 넘게도 못 해요?)
 105023 #5 이 마을에 일 년에 몇 백 키로 잡으세요 허면은.(이 마을에 일 년에 몇 백 킬로 잡으세요 하면.)
 105023 @ 예.(예.)
 105023 #5 그 키로 넘을 수도 엇고.(그 킬로 넘을 수도 없고.)
 105023 @ 예.(예.)
 105023 #5 그추룩 허면은 이제 우리 몇 키로 해 낚다가 수협에서 이제 며칠날은 이제 우리 해너 탈의장에 이제 소라 받으러 가겠다고 허면은 우리는 그걸 다 준비해 낚다가 그걸 이제 여기서 다 실어가고.(그처럼 하면 이제 우리 몇 킬로 해 낚다가 수협에서 이제 며칠날은 이제 우리 해너 탈의장에 이제 소라 받으러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다 준비해 낚다가 그걸 이제 여기서 다 실어가고.)
 105023 @ 아, 그러니까 파는 과정이 좀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르구나예?(아, 그러니까 파는 과정이 좀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르군요?)
 105023 #5 어. 파는 과정은 예전에 완전 달라졌지. 완전 틀려.(어. 파는 과정은 예전에 완전 달라졌지. 완전 달라.)

6. 의생활

옷감

106001 @ 그 옛날에 옷감 잇잖아예. 어르신. 옷감. 옷 만드는 거 옷감. 옷감에는 뭐, 뭐 잇엇주마씨?(그 옛날에 옷감 잇잖아요. 어르신. 옷감. 옷 만드는 거 옷감. 옷감에는 뭐, 뭐 있었지요?)

106001 #2 그냥 감 타네 옷을 들엇주게.(그냥 감 따서 옷을 들엇지.)

106001 @ 감 탄?(감 따서?)

106001 #2 옷감? 옷? 옷을 허는 거?(옷감? 옷? 옷을 하는 거?)

106001 @ 예. 옷감마씨. 옷감. 막 천 잇잖아예?(예. 옷감이요. 옷감. 막 천 잇잖아요?)

106001 #2 그거.(그거.)

106001 @ 예.(예.)

106001 #2 토종 감에 타근엥게. 뽕앙 물 헤영. 옷에 들여근엥 물리민.(토종 감에 따서. 뽕아서 물 해서. 옷에 들여서 말리면.)

106001 @ 예.(예.)

106001 #2 게문 옷감 뒤주게.(그러면 옷감 되지.)

106001 @ 그럼 그 종류는 뭐 몇 가지 엇언마씨?(그럼 그 종류는 뭐 몇 가지 없었어요?)

106001 #2 몇 가지 엇어. 그냥 토종 감만 타근엥.(몇 가지 없어. 그냥 토종 감만 따서.)

106001 @ 아, 토종 감만.(아, 토종 감만.)

106001 #2 뭐, 뽕앙 만들주게. 이것들 다 경 현 거주게. 일할 때 입젠들.(뭐, 뽕아서 만들지. 이것들 다 그렇게 한 거지. 일할 때 입으려고.)

106001 @ 아, 그럼 이거 천은 종류가 뭐마씨? 이 천은?(아, 그럼 이거 천은 종류가 뭐예요? 이 천은?)

106001 #2 광목, 광목.(광목, 광목.)

106001 @ 광목?(광목?)

106001 #2 어.(어.)

106001 @ 그럼 종류가 광목이랑 또 다른 거 엇우광?(그럼 종류가 광목이랑 또 다른 거 없습니까?)

106001 #2 베에도 들이고게.(베에도 들이고.)

106001 @ 베?(베?)

106001 #2 이거 베에 들인 거 아니라. 이거 예쁘주게.(이거 베에 들인 거 아니라. 이거 예쁘지.)

106001 @ 아. 이견 베에다가?(아, 이견 베에다가?)

106001 #2 응, 응. 이견, 이견 베에 들여근엥. 일할 때 건드럽게⁹⁸⁾ 소랑허게 입

98) '건드럽다'는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다'의 의미이다.

젠.(응, 응. 이건, 이건 베에 들여서. 일할 때 ‘건드럽게’ 길쭉하게 입으려고.)

106001 @ 아.(아.)

106001 #2 이건 베에다 들인 거. 이건 광목에 들인 거.(이건 베에다 들인 거. 이 건 광목에 들인 거.)

106001 @ 그러면 언제, 언제 광목 입고 언제 베 입어마씨? 그런 건 엇인가?(그러면 언제, 언제 광목 입고 언제 베 입어요? 그런 건 없어요?)

106001 #2 그에, 여름엔게 베 입어야지. 건드럽게.(그, 여름에는 베 입어야지. ‘건드럽게’.)

106001 @ 예.(예.)

106001 #2 또, 이거는 항상 입어.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또, 이거는 항상 입어,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106001 @ 광목은? 겨울에 추우면 뭐 더 입는 거 엇언마씨? 옛날에는? 지금이야 막 두꺼운 잠바 입잖아예.(광목은? 겨울에 추우면 뭐 더 입는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막 두꺼운 잠바 입잖아요.)

106001 #2 어.(어.)

106001 @ 근데 옛날에 뭐 입언마씨?(근데 옛날에 뭐 입었어요?)

106001 #2 옛날에는 별로 엇어. 속에 무싱거. 속에 바지저고리나 입엇주게.(옛날에는 별로 엇어, 속에 무엇. 속에 바지저고리나 입엇지.)

106001 @ 어, 할머니 옷 잇잖아예? 옷?(어, 할머니 옷 잇잖아요? 옷?)

106001 #4 예.(예.)

106001 @ 옷감 종류는 뭐, 뭐 잇엇는지 기억나마씨? 옷감 종류?(옷감 종류는 뭐, 뭐 잇엇는지 기억나요? 옷감 종류?)

106001 #4 옷감 종류 무슨거게. 우리 옛날엔 미녕.(옷감 종류 무엇. 우리 옛날에는 무명.)

106001 @ 예.(예.)

106001 #4 미녕 차근앵 미녕으로 물 들이멍 치메 행 입곡 저고리도 허영 입곡.(무명 짜서 무명으로 물 들이면서 치마 해서 입고 저고리도 해서 입고.)

106001 @ 저고리도 입고.(저고리도 입고.)

106001 #4 경 행 살앗주게.(그렇게 해서 살았지.)

명주

106002 @ 그면 그 옛날에 명주실 잇엇잖아예.(그러면 그 옛날에 명주실 잇엇잖아요.)

106002 #2 어.(어.)

106002 @ 명주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마씨?(명주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106002 #2 게, 누에 질러게.(그럼, 누에 길러.)

106002 @ 그, 길게 천천히 한 번 얘기해 줘서.(그, 길게 천천히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106002 #2 그, 저, 뽕낭 있어. 뽕낭.(그, 저, 뽕나무 있어. 뽕나무.)

106002 @ 아, 뽕낭?(아, 뽕나무?)

106002 #2 응. 뽕낭 뉘에라고 버랭이.(응. 뽕나무 누에라고 벌레.)

106002 @ 예.(예.)

106002 #2 그 뽕낭 타당 그걸 막 맥여.(그 뽕나무 타다가 그걸 막 먹여.)

106002 @ 예.(예.)

106002 #2 맥이민 그것이 똥 찢인가? 어떻 해근엥 멩주실을 현 거라. 멩주실은 싸, 싸신지 어떻 헛인지. 질러 난 사람 잇나만은.(먹이면 그것이 똥 찢인가? 어떻게 해서 멩주실을 한 거라. 멩주실은 자, 잤는지 어떻게 했는지. 질러 난 사람 잇지만은.)

106002 @ 아.(아.)

106002 #2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질랏어.(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길렀어.)

106002 @ 예.(예.)

106002 #2 멩지 허쟁 허민. 뉘에라고 허영 질루앙 뽕낭 타당 막 맥이멍 질루앙 똥 싸민 그걸로 멩주 만들어.(멩주 하려고 하면. 누에라고 해서 길러서 뽕나무 타서 막 먹이면 길러서 똥 싸면 그걸로 멩주 만들어.)

106002 @ 아, 그걸로? 그러니까 어떻 만들어마씨? 똥 싸면 그걸로 뭐 기계에다 집어넣고 경 헤마씨?(아, 그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똥 싸면 그걸로 뭐 기계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요?)

106002 #2 아니. 영 질질질 허멍 감아근엥. 경 행 미녕 차듯, 미녕 차듯 그걸 차야 돼여 손으로.(아니. 이렇게 질질질 하면서 감아서. 그렇게 해서 무멍 짜듯 그걸 짜야 돼 손으로.)

106002 @ 손으로. 손으로 해야 돼마씨?(손으로. 손으로 해야 되요?)

106002 #2 응.(응.)

106003 @ 그럼 그렇게 멩주 만들면 종류 잇잖아여, 멩주실.(그럼 그렇게 멩주 만들면 종류 잇잖아요, 멩주실.)

106003 #2 응.(응.)

106003 @ 멩주실 종류가 잇수광? 뭐, 뭐 잇언마씨?(멩주실 종류가 있습니까? 뭐, 뭐 있었어요?)

106003 #2 종류 혼 가지 뿐이지.(종류 한 가지 뿐이지.)

106003 @ 뭐?(뭐?)

106003 #2 뉘에 질루앙 그걸루.(누에 길러서 그걸로.)

106003 @ 뭐, 생명주, 수화주 들어보시지 았안마씨?(뭐, 생명주, 수화주 들어보시지 았았어요?)

106003 #2 어. 생명주엔. 생명주는 빨지 않은 거 곱앙 생명주엔 허주게.(어. 생명주라고. 생명주는 빨지 않은 거 보고 생명주라고 하지.)

106003 @ 아, 빨지 않은 거?(아, 빨지 않은 거?)

106003 #2 으. 광목도. 그. 하얗하게 허는 건 막 빨앙. 하얗하게 만들곡.(어. 광목도. 그 하얗게 하는 건 막 빨아서. 하얗하게 만들고.)

106003 @ 예.(예.)

106003 #2 빨지 않으민게 막 누렁허니 이 저 쓸 같으민.(빨지 않으면 막 누렁하니 이 저 쌀 같으면.)

106003 @ 예.(예.)

106003 #2 흰쌀들 깨끗이 허민 하얗허고.(흰쌀들 깨끗이 하면 하얗고.)

106003 @ 예.(예.)

106003 #2 금방 현미처럼 허민게 그것이 이 멥주, 생명주지게. 생으로 웨근엔. 깨끗 안 현 거.(금방 현미처럼 하면 그것이 이 명주, 생명주지. 생으로 돼서.)

106003 @ 아. 음.(아, 음.)

106003 #2 깨끗허게 허젠 허민게 막 빨앙 물리고 막 삶으민 하영허고 경 아니민 생명주 웨고.(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막 빨아서 말리고 막 삶으면 하얗고 그렇게 아니면 생명주 되고.)

106003 @ 그러면 생명주가 약간 안 깨끗한 거?(그러면 생명주가 약간 안 깨끗한 거?)

106003 #2 응, 광목도 경 허잖아.(응, 광목도 그렇게 하잖아.)

106003 @ 그러면 깨끗한 거는 뭐라고 헤마씨? 다른 건?(그러면 깨끗한 거는 뭐라고 해요? 다른 건?)

106003 #2 멥주지게 뭐.(명주지 뭐.)

106003 @ 그냥 명주?(그냥 명주?)

106003 #2 응.(응.)

106004 @ 그러면 이제 명주실을 뽑잖아예. 누에로 헤 가지고.(그러면 이제 명주실을 뽑잖아요. 누에로 헤 가지고.)

106004 #2 응.(응.)

106004 @ 그러면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야 웨잖아예.(그러면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06004 #2 어.(어.)

106004 @ 어떤 옷을 만들주마씨?(어떤 옷을 만들지요?)

106004 #2 죽을 때 입는 거.(죽을 때 입는 거.)

106004 @ 예.(예.)

106004 #2 죽을 때 명주옷을 입어야.(죽을 때 명주옷을 입어야.)

106004 @ 음.(음.)

106004 #2 그. 저. 이 광옷 같은 거 나일론 입으면 안 웨지. 썩지 안 허여. 게난

죽을 때 입주게 명주는.(그. 저. 이 광옷 같은 거 나일로 입으면 안 되지. 썩지 않아. 그러니 죽을 때 입지 명주는.)

106004 @ 예.(예.)

106004 #2 지금은 지금도 명지 허지만은 지금은 막 나쁜 것들 저, 창우지 서경 근영 험젠 헤여. 옛날에는 제라흔 멩지라.(지금은 지금도 명주 하지만 지금은 막 나쁜 것들 저, 창호지 섞어서 한다고 해. 옛날에는 온전한 멩주라.)

106004 @ 예.(예.)

106004 #2 제라흔 멩지로 어. 장가갈 때도 허곡, 또 그거 낫당 죽으민 입곡, 이제도 돈 한 사람들은 제라흔 멩지 사근영 이녁으로 옷 해 입주게. 죽으민.(온전한 명주로 어. 장가갈 때도 하고, 또 그거 낫다가 죽으면 입고, 이제도 돈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명주 사서 이녁으로 옷 해 입지. 죽으면.)

106005 @ 아, 기구나예. 그러면 명주 말앙 무명실 잇잖아예, 무명실. 무명실은 모르크라마씨?(아, 그렇군요. 그러면 명주 말고 무명실 잇잖아요, 무명실. 무명실은 모르겠어요?)

106005 #2 무명실은? 몰라.(무명실은 몰라.)

106005 @ 무명실은 안 들어보고.(무명실은 안 들어보고.)

106006 @ 그럼 누에치기도 해 보션마씨?(그럼 누에치기도 해 보셨어요?)

106006 #2 난 안 해 받.(난 안 해 봤어.)

106006 @ 안 해 받마씨?(안 해 봤어요?)

106006 #2 어.(어.)

106006 @ 그래도 그 누에치기 하는 거 이렇게 보기는 헛잖아예? 보시지 았안미 씨?(그래도 그 누에치기 하는 거 이렇게 보기는 헛잖아요? 보시지 았았어요?)

106006 #2 응. 들었주.(응. 들었지.)

106006 @ 아, 들었마씨?(아, 들었어요?)

106006 #2 어.(어.)

106006 @ 그럼 누에치기 들은 거 기억나는 거 잇으면 좀 곶아 줘서.(그럼 누에치기 들은 거 기억나는 거 잇으면 좀 말해 주십시오.)

106006 #2 아, 들은 게 영게. 누에 버랭이 닳은 거 굽뎡이 닳은 거 질러. 희한한 거.(아, 들은 게 이렇게. 누에 벌레 닳은 거 굽뎡이 닳은 거 길러. 희한한 거.)

106006 @ 처음에는 그걸 어디서 구해 와마씨?(처음에는 그걸 어디서 구해 와요?)

106006 #2 몰라. 게. 어디사신디게. 저. 뽕낭 잎사귀 툇아 낱 그걸로 막 맥이민 똥 싸민 그걸로 멩주실 헤근영.(몰라. 어디서인지. 저. 뽕나무 잎사귀 따서 놔서 그걸로 막 먹으면 똥 싸면 그걸로 멩주실 해서.)

106006 @ 아, 그게 누에치기구나예.(아, 그게 누에치기군요.)

106006 #2 어.(어.)

106002 @ 그 멩주 알지예? 멩주.(그 멩주 알지요? 멩주.)

106002 #4 어.(어.)

106002 @ 멥주실은 어떻 만들주마씨?(멍주실은 어떻게 만들지요?)

106002 #4 멥주는게 누에 질러근엥.(멍주는 누에 길러서.)

106002 @ 예.(예.)

106002 #4 누에 질러 그건 우린 어머니 어머니네가 허여 나난 우린 그런 건 안 해보고.(누에 길러서 그건 우리는 어머니 어머니네 해 나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안 해 보고.)

106002 @ 예.(예.)

106002 #4 누에 저 뽕 툄르엥 가오랏주게.(누에 저 뽕 뜯으러 오갔지.)

106002 @ 뉘, 뉘마씨?(뉘, 뉘요?)

106002 #4 누에 밥.(누에 밥.)

106002 @ 예.(예.)

106002 #4 뽕.(뽕.)

106002 @ 예. 뽕. 거 툄르레 가난?(예. 뽕. 거 뜯으러 갔어요?)

106002 #4 어. 그거 툄아다근엥.(어. 그거 뜯어다가.)

106002 @ 예.(예.)

106002 #4 누에 그거를 맥이는 거라.(누에 그거를 먹이는 거야.)

106002 @ 음.(음.)

106002 #4 막 맥이민 그거 막 익으면 그 집 지서근엥 허민 그거 멥주실 내와근 엥 할망들 막 좃앙.(막 먹이면 그거 막 익으면 그 집 지어서 하면 그거 멥주실 내와서 할머니들 막 자아서.)

106002 @ 예.(예.)

106002 #4 내왕 멥주 해낫주. 우린 그거 그저 뽕 허레 뉘길 뿐 우린 멥주, 멥주 차보지는 안 헛주게.(내와서 멥주 했었지. 우리는 그거 그저 뽕 하러 다닐 뿐 우리는 멥주, 멥주 짜보지는 았았지.)

106002 @ 아, 멥주 차보지는 았안마씨?(아, 멥주 짜보지는 았았어요?)

106002 #4 어. 그냥 미녕은 차봐도.(어. 그냥 무명은 짜봐도.)

106003 @ 그럼 멥주 종류는 기억나는 거 엇수광? 멥주 종류?(그럼 멥주 종류는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멥주 종류?)

106003 #4 멥주 종류 계메게 누에게.(멍주 종류 글썽 누에.)

106003 @ 아니, 누에 말고 멥주실. 뉘 생명주, 수아주 이런 건 안 들어뵈마씨? (아니, 누에 말고 멥주실. 뉘 생명주, 수아주 이런 거는 안 들어뵈었어요?)

106003 #4 생명주엔 현 건.(생명주라고 한 건.)

106003 @ 예.(예.)

106003 #4 멥주 허여 놈근엥 세답을 안 허여근엥 그냥 그거 이제 우린 옛날 말로 누에 누여사.(멍주 해 놈서 세답을 안 해서 그냥 그거 이제 우리는 옛날 말로 누에 누여야.)

106003 @ 누여사?(누여야?)

106003 #4 어. 생명주를 누여근엥 막 다듬이로 다듬엉.(어. 생명주를 누여서 막 다듬이로 다듬어서.)

106003 @ 예.(예.)

106003 #4 빨래 허영.(빨래 해서.)

106003 @ 예.(예.)

106003 #4 다듬어근엥 허는 거꼭.(다듬어서 하는 거고.)

106003 @ 예.(예.)

106003 #4 생명지는 그냥 차근엥 그 그대로 무신거 생명지라.(생명주는 그냥 짜서 그 그대로 무엇 생명주야.)

106003 @ 아, 그게 생명지?(아, 그게 생명주?)

106003 #4 어. 그게 생명지.(어. 그게 생명주.)

106003 @ 그럼 그거 그대로 차는 게 생명지고 나머지는 뭐라고 험마씨?(그럼 그거 그대로 짜는 게 생명주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요?)

106003 #4 그건 그 멩지를 생명지를 빨젠 허민 물로 헿 빨아근엥.(그건 그 멩주를 생명주를 빨려고 하면 물로 해서 빨아서.)

106003 @ 예.(예.)

106003 #4 빨아근엥 그 멩주 허젠 허민 풀 허멍 그 멩주를 차는 거주 게난.(빨아서 그 멩주 하려고 하면 풀 하면서 그 멩주를 짜는 거지 그러니.)

106003 @ 음.(음.)

106003 #4 그거 지어근엥 막 놀리멍 허영 빨앙 허는 거ㄴ라 멩주 푸답허는 거엔 허연.(그거 지어서 막 놀리면서 해서 빨아서 하는 거보고 멩주 푸새하는 거라고 했어.)

106003 @ 아, 멩주 푸답?(아, 멩주 푸새?)

106003 #4 어. 멩주 푸답허영 경 허영 옷 헿 입꼭 생명지는 으름에 뭐 간드락허게 입젠 허민 그저 난닝구 ㄴ튼 거 경 헿 생명지로 허꼭.(어. 멩주 푸새해서 그렇게 해서 옷 해서 입고 생명주는 여름에 뭐 간드락하게 입으려고 하면 그저 러닝셔츠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생명주로 하고.)

106004 @ 아, 그럼 멩주로는 그 난닝구 같은 옷만 만들언마씨?(아, 그럼 멩주로는 그 러닝셔츠 같은 옷만 만들었어요?)

106004 #4 난닝구 ㄴ튼 거 안 허여.(러닝셔츠 같은 거 안 해.)

106004 @ 그럼 무슨 옷 만들언마씨?(그럼 무슨 옷 만들었어요?)

106004 #4 멩주 막 그건 어려운 거 비싼 거난.(멩주 막 그건 어려운 거 비싼 거니까.)

106004 @ 예.(예.)

106004 #4 우린 멘드는 중에.(우리는 만드는 중에.)

106004 @ 예.(예.)

106004 #4 경흐난 옷이나 행 입곡 시집갈 때 옷이나 허곡 저싱옷이나 허영 놔 두곡.(그러니 옷이나 해서 입고 시집갈 때 옷이나 하고 수의나 해 놔두고.)

106004 @ 아.(아.)

106004 #4 멩지로 옷.(멍주로 옷.)

106004 @ 무슨 옷?(무슨 옷?)

106004 #4 저싱옷게.(수의.)

106004 @ 저싱옷. 아 저싱옷.(수의, 어 수의.)

106005 @ 그럼 누에 키운 다음에 질른 다음에 그 실 만들잖아예?(그럼 누에 키운 다음에 기른 다음에 그 실 만들잖아요?)

106005 #4 어. 실.(어. 실.)

106005 @ 실은 어떻 만들언마씨?(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106005 #4 실은 누에 버랭이가 고지 돼지?(실은 누에 벌레가 고치 되지?)

106005 @ 예. 고지가 돼지마씨.(예. 고치가 되지요.)

106005 #4 고지가 돼민 솟 하나에 꿰이곡 이 물레 영 놔근영 영 영 빙빙허민 그레 실에 들어 감아지는 거라 물레에.(고치가 되면 솟 하나에 꿰이고 이 물레 이렇게 놔서 이렇게 이렇게 빙빙하면 거기에 실에 들어 감아지는 거야 물레에.)

106005 @ 아, 물레예?(아, 물레예?)

106005 #4 경 행 실 만들엉 미녕 차는 실들 허영 미녕 차듯이 허영 허는 거.(그렇게 해서 실 만들어서 무명 짜는 실들 해서 무명 짜듯이 해서 하는 거.)

106006 @ 아. 그러 누에는 어떻 키워마씨? 누에치기?(아. 그럼 누에는 어떻게 키워요? 누에치기?)

106006 #4 누에씨가 싯는 거라.(누에씨가 있는 거야.)

106006 @ 아, 누에씨가 잇어마씨.(아, 누에씨가 있어요?)

106006 #4 어. 씨가 성 허민 영 종이 이추룩 헌 종이에.(어. 씨가 있어 하면 이렇게 종이 이처럼 한 종이에.)

106006 @ 예.(예.)

106006 #4 누에 그 다 이거 무시거 거미 똥 싸듯이 동글락 동글락하게 이게 책장 닳은 것에 막 누에똥이 싯 허는 거라.(누에 그 다 이거 무엇 거미 똥 싸듯이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게 책장 닳은 것에 막 누에똥이 싯서 하는 거야.)

106006 @ 아, 누에똥이 싯마씨?(아, 누에똥이 싯요?)

106006 #4 어. 그거 나비 돼영 허민.(어. 그거 나비 되어서 하면.)

106006 @ 예.(예.)

106006 #4 고주가 이제 나비 돼영 그걸 누에 똥 싯민 그걸 강 아저다근영 놔두민 그걸로 버랭이가 나오는 거라.(꼬치가 이제 나비 되어서 그걸 누에 똥 싯면 그거를 가서 가져다가 놔두면 그걸로 벌레가 나오는 거야.)

106006 @ 아, 버랭이가 나와?(아, 벌레가 나와?)

106006 #4 어. 나오민 그거 이제 누에 밥을 허영 그 뽕 툇으멍 들어 뵝이민.(어.

나오면 그거 이제 누에 밥을 해서 그 빵 뜯으면서 들어 먹이면.)

106006 @ 예.(예.)

106006 #4 허민 이만씩 커근앵 내중은 고지가 되는 거라.(하면 이만큼 커서 나중에는 꼬치가 되는 거야.)

106006 @ 아, 경 허민 고지 되는 거마씨?(아, 그렇게 하면 꼬치가 되는 거예요?)

106006 #4 어. 고지 돼어근앵 글로 실 나오는 거. 종자 허젠 허민 그냥 나비 내우젠 들어 놔두고.(어. 꼬치 되어서 거기로 실 나오는 거. 종자 하려고 하면 그냥 나비 나오게 하려고 들어 놔두고.)

무명

106007 @ 그 광목 잇잖아예.(그 광목 잇잖아요.)

106007 #2 어.(어.)

106007 @ 광목은 무슨 실로 만들어마씨?(광목은 무슨 실로 만들어요?)

106007 #2 멘네로 만들었지.(목화로 만들었지.)

106007 @ 아, 멘네, 멘네 그 멘네 만드는 거 좀 곱아 줘서.(아, 목화, 목화 그 목화 만드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6007 #2 그, 맨넹게 밭이 멘네씨를 갈아.(그, 목화 밭에 목화씨를 갈아.)

106007 @ 예.(예.)

106007 #2 꽃 피워 가민. 타주게.(꽃 피워 가면. 따지.)

106007 @ 뭐가 타마씨?(뭐가 따요?)

106007 #2 그 꽃 핀 걸.(그 꽃 핀 걸.)

106007 @ 아, 예.(아, 예.)

106007 #2 속에 꽃 피워 속에.(속에 꽃 피워 속에.)

106007 @ 아, 속에?(아, 속에?)

106007 #2 으. 그 멘네씨 헤근앵, 그 우리가 헤낫주게.(어. 그 목화씨 해서, 그 우리가 했었지.)

106007 @ 아.(아.)

106007 #2 자식 딸 풀젠 허민 딸 풀젠 허민 멘네씨 영 갈아근앵 크민 꽃 피워.(자식 딸 시집 장가보내려 하면 딸 시집 보내려 하면 목화씨 이렇게 갈아서 크민 꽃 피워.)

106007 @ 예.(예.)

106007 #2 꽃, 꽃을 열매 열엇당 꽃 피민 소게. 소게라 소게.(꽃, 꽃을 열매 열엇다가 꽃 피면 숨, 숨이라 숨.)

106007 @ 예.(예.)

106007 #2 소게추룩 꽃 피민 그거 타다근앵. 타근앵 그. 이 불르는 데 가근앵 불랑 태와.(숨처럼 꽃 피면 그거 따서. 따서 그. 이 밝는 데 가서 밝아서 태워.)

106007 @ 예.(예.)

106007 #2 그뎨 북삭헝게⁹⁹⁾ 소게가 뉘어. 그뎨 뜰 팔 때 그걸로 헝근엥 이불 만들어근엥.(그러뎨 ‘북삭헝게’ 숨이 돼. 그러뎨 딸 시집갈 때 그걸로 해서 이불 만들어서.)

106007 @ 아, 이불 만들어근엥?(아, 이불 만들어서.)

106007 #2 어.(어.)

106007 @ 그게 그 멘네실 거 만드는 과정이지예?(그게 그 목화실 거 만드는 과정이지요?)

106007 #2 어.(어.)

106007 @ 아, 꽃 피와 가지고.(아, 꽃 피워 가지고.)

106007 #2 어.(어.)

106007 @ 그럼 멘네도 종류 잇잖아마씨? 뉘 잇어마씨?(그럼 목화도 종류 잇잖아요? 뉘 잇어요?)

106007 #2 다, 그걸로.(다, 그걸로.)

106007 @ 다.(다.)

106007 #2 그 종류.(그 종류.)

106007 @ 아, 그 종류.(아, 그 종류.)

106007 #2 저게, 그 미녕은게 우리가 멘네 테워당 영 즐아 실 만들어 우리 냥으로.(저, 그 무명은 우리가 목화 타다가 이렇게 걸어 실 만들어 우리 식으로.)

106007 @ 예.(예.)

106007 #2 우리 그런 거 주로 헝주게. 멘네 타다근엥 영, 저기가 기계 가근엥 테워당 하민 영 실로 만들어.(우리 그런 거 주로 헝지. 목화 따서 이렇게, 저기가 기계 가서 타서 하면 이렇게 실로 만들어.)

106007 @ 예.(예.)

106007 #2 실 만들어근엥 또 영 탁탁 차.(실 만들어서 또 이렇게 탁탁 짜.)

106007 @ 뉘로, 뉘로 차마씨? 그 기계 이름은 기억 안 나마씨?(뉘로, 뉘로 짜요? 그 기계 이름은 기억 안 나요?)

106007 #2 그것 ㄹ라 뉘이라 허는데? 미녕 차는 거.(그것더러 뉘이라 하는데? 무명 짜는 거.)

106007 @ 아, 미녕 차는 거. 발, 발로 헝가지고.(아, 무명 짜는 거. 발, 발로 헝가지고.)

106007 #2 응. 탁허고 차는 거.(응. 탁하고 짜는 거.)

106007 @ 그 미녕은 종류가 뉘, 뉘 잇을까마씨?(그 무명은 종류가 뉘, 뉘 잇을까요?)

106007 #2 종류가 하나라.(종류가 하나라.)

99) ‘북삭헝다’는 “무거운 물건이 움푹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의 의미를 지닌 제주어이다.

106007 @ 뭐?(뭐?)

106007 #2 미녕.(무명.)

106007 @ 그냥 미녕.(그냥 무명.)

106007 #2 그 광목 같은 거 무시거 다 그 멘네로 만들어. 기계로 만들어 멘네로 해가지고.(그 광목 같은 거 무엇 다 그 목화로 만들어. 기계로 만들어 목화로 해가지고.)

106007 @ 그럼 멘네로는 무슨 옷 만들어마씨? 광목도?(그럼 목화로는 무슨 옷 만들어요? 광목도?)

106007 #2 멘네로 옛날에 멘네 현 걸로 그거. 광목 말고.(목화로 옛날에 목화한 걸로 그거. 광목 말고.)

106007 @ 무슨 옷 만들어마씨? 옷.(무슨 옷 만들어요? 옷.)

106007 #2 옷은게 그걸로 다 만들엉 입엇주게. 옛날에.(옷은 그걸로 다 만들어서 입엇지. 옛날에.)

106007 @ 멘네로?(목화로?)

106007 #2 어. 몸빼도 입곡, 저고리도 입곡, 적삼도 허곡.(어. 몸빼도 입고, 저고리도 입고, 적삼도 하고.)

106007 @ 예.(예.)

106007 #2 옛날은 그걸로 다 헛주게.(옛날은 그걸로 다 헛지.)

106007 @ 그럼 광목으로는. 광목은 이걸 다 만들어진 게 광목이라고 해마씨?(그럼 광목으로는. 광목은 이걸 다 만들어진 게 광목이라고 해요?)

106007 #2 광목은 **** 낫주게. 광목 나가난 멘네를 이디서 미녕 차지를 안 헛주게. 미녕을 이녁냥으로 차근앵 광. 아까 무시 거? 광목 말고.(광목은 **** 낫지. 광목 나가니까 목화를 여기서 무명 짜지를 안 헛지. 목화를 이녁만으로 짜서 광. 아까 무슨 거? 광목 말고.)

106007 @ 미녕? 멘네?(무명? 목화?)

106007 #2 미녕. 그 그것 마라 뭐라고 골앗인다. 광목 말고.(무명. 그 그것 보고 뭐라고 말했는데. 광목 말고.)

106007 @ 토목, 생목 이런 거마씨? 닷세 미녕. 멘네?(토목, 생목 이런 거요? 단새 무명. 목화?)

106007 #2 아니. 멘네로 만든 거 무시거라?(아니. 목화로 만든 거 무엇이라?)

106007 @ 생명주마씨?(생명주요?)

106007 #2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106007 @ 그럼?(그럼?)

106007 #2 저 그걸 만들엉게 그걸로 다 사용헛주게. 그거.(저 그걸 만들어서 그걸로 다 사용헛지. 그거.)

106007 @ 아.(아.)

106007 #2 계난 말젠 기계로 광목 나가근앵. 아, 미녕이로구나 미녕.(그러니 나

중에는 기계로 광목 나가서. 아, 무명이로구나 무명.)

106007 @ 미녕?(무명?)

106007 #2 어. 미녕. 미녕을 헛주게. 미녕을 손으로 다 그 멘네 갈아근앵 꽃 피민 거 타다근앵 테와당 영 손으로 짜근앵 실 만들어.(어. 무명. 무명을 헛지. 무명을 손으로 다 그 목화 갈아서 꽃 피면 거 따서 태워다가 이렇게 손으로 짜서 실 만들어.)

106007 @ 예.(예.)

106007 #2 실 만들어근앵 또 영 영 나 무시 거 영 허여근앵 마당에서 허영 그 영 클 놔근앵 영 찻주게.(실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나 무슨 거 이렇게 해서 마당에서 해서 그 이렇게 그네 놔서 이렇게 찻지.)

106007 @ 예.(예.)

106007 #2 게민 그걸로 다 옷 만들엇주게. 옛날에는.(그러면 그걸로 다 옷 만들엇지. 옛날에는.)

106007 @ 음.(음.)

106007 #2 그걸로 만들다근앵 우리 어머니 시절에 그걸로 만들당 다음은.(그걸로 만들다가 우리 어머니 시절에 그걸로 만들다가 다음은.)

106007 @ 예.(예.)

106007 #2 우리 커 가난 광목 허여 가난 광목 나와 가난 아니 헛주게. 그거 힘들고 복잡허난.(우리 커 가니 광목 해 가니까 광목 나와 가니까 안 헛지. 그거 힘들고 복잡하니까.)

106007 @ 음.(음.)

106007 #2 경 허영 그 감자도 심그곡 행 절간도 허영 풀고.(그렇게 해서 그 감자도 심고 해서 절간도 해서 팔고.)

106011 @ 그 그러면 홍세미녕¹⁰⁰은 들어보셨마씨? 홍세미녕?(그 그러면 ‘홍세미녕’은 들어보셨어요? ‘홍세미녕’?)

106011 #2 홍세미녕은 영 저 색 놓으민 홍세미녕이 돼여. 색 놔.(‘홍세미녕’은 이렇게 저 색 놓으며 ‘홍세미녕’이 돼. 색 놔.)

106011 @ 색 놔?(색 놔?)

106011 #2 으. 곱게.(어. 곱게.)

106011 @ 아.(아.)

106011 #2 곱게이 저 이딴서 같으믄게 이추룩 행.(곱게 저 여기서 같으면 이처럼 해서.)

106011 @ 예.(예.)

106011 #2 허듯 영 짧게.(하듯 이렇게 짧게.)

106011 @ 예.(예.)

106011 #2 이거, 이게 미녕 아니?(이거, 이게 무명 아니?)

100)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을 의미한다.

106011 @ 예.(예.)

106011 #2 아까 미녕 말을 근지 못했구나.(아까 무명 말을 말하지 못했구나.)

106011 @ 미녕마씨?(무명이요?)

106011 #2 어. 미녕. 영 허영 차.(어. 무명. 이렇게 해서 짜.)

106011 @ 예.(예.)

106011 #2 영, 사람 손으로 밭 영 허멍. 꼬리헤근엥.(이렇게, 사람 손으로 밭 이렇게 하면서. 꼬리해서.)

106011 @ 예.(예.)

106011 #2 꼬리도 감아. 손으로 감아근엥 차는데 이런 색을 놓아 예쁘게.(꼬리도 감아. 손으로 감아서 짜는데 이런 색을 놓아 예쁘게.)

106011 @ 예.(예.)

106011 #2 그것ㄴ라? 예쁘게.(그것더러? 예쁘게.)

106011 @ 음, 예쁘게 흰 게 홍세미녕?(음. 예쁘게 한 게 ‘홍세미녕’?)

106011 #2 응, 홍세미녕.(응, ‘홍세미녕’.)

106011 @ 그건 언제 만들어마씨? 그 홍세미녕?(그건 언제 만들어요? 그 ‘홍세미녕’?)

106011 #2 아니 영 찰 때에.(아니 이렇게 찰 때에.)

106011 @ 예.(예.)

106011 #2 그 꼬리를 호끔 물 들여근엥, 이거 흰 걸로 요만이 차. 차다근엥 또 색 흰 걸로 영 차민 이만큼 또 색이 돼 가주게. 색.(그 꼬리를 조금 물 들여서, 이거 흰 걸로 요만이 짜. 짜서 또 색 한 걸로 이렇게 짜면 이만큼 또 색이 돼 가지. 색.)

106011 @ 음.(음.)

106011 #2 색 낫주게. 색.(색 낫지. 색.)

106011 @ 색 놓은 게 홍세미녕이구나예?(색 놓은 게 ‘홍세미녕’이군요?)

106011 #2 어.(어.)

106011 @ 아. 그럼 미녕 농사도 여기서 해보션마씨?(아. 그럼 무명 농사도 여기서 해보셨어요?)

106011 #2 응.(응.)

106011 @ 어떻게?(어떻게?)

106011 #2 딸 팔 때 미녕으로 허영 다 헛주게.(딸 시집보낼 때 무명으로 해서 다 했지.)

106011 @ 그럼 미녕농사 헛던 경험 좀. 기억나는 거 엇인가마씨?(그럼 무명농사 헛던 경험 좀. 기억나는 거 없어요?)

106011 #2 농사게. 멘네게 씨 뿌령게 크민게 꽃 피여근엥게 씨 뿌려근엥 열매 열아. 열매 열아근엥 꽃 피어가민 멘네가 돼어.(농사. 목화씨 뿌려서 크면 꽃 피어서 씨 뿌려서 열매 열어. 열매 열어서 꽃 피어가면 목화가 돼.)

106011 @ 그건 몇 월에 시작했어?(그건 몇 월에 시작했어?)

106011 #2 봄에 갈아근영 이때에 다.(봄에 갈아서 이때에 다.)

106011 @ 아, 이때에 다?(아, 이때에 다?)

106011 #2 어.(어.)

106007 @ 그럼 미녕 잇잖아예?(그럼 무명 있잖아요?)

106007 #4 응.(응.)

106007 @ 미녕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무명 종류는 뭐, 뭐 잇어요?)

106007 #4 미녕은게 멘네 허여근영 갈앙.(무명은 목화 해서 갈아서.)

106007 @ 예.(예.)

106007 #4 멘네 갈아근영 저 물레에 그때는 실 다 블라근영.(목화 갈아서 저 물레에 그때는 실 다 밝아서.)

106007 @ 예.(예.)

106007 #4 씨 따로 멘네 따로 저 저레 씨는 이 앞이 나오꼭 저 블랑 아정가근영 저 클에 가근영 테와 오는 거라.(씨 따로 목화 따로 저 저 곳으로 씨는 이 앞이 나오고 저 밝아서 가져가서 저 그네에 가서 태워 오는 거야.)

106007 @ 테와 오는 거? 그럼 그 종류는 뭐, 뭐 잇었는지 기억 안 나마씨? 뭐 토목, 생목, 광목 이런 거?(태워 오는 거? 그럼 그 종류는 뭐, 뭐 잇었는지 기억 안 나요? 뭐 토목, 생목, 광목 이런 거?)

106007 #4 광목, 광목도 다 걸로 나오주만은.(광목, 광목도 다 그것으로 나오지만.)

106007 @ 예.(예.)

106007 #4 광목 ㄱ튼 거는 어디 다른 저 큰 기계에서 나오꼭게.(광목 같은 거는 어디 다른 저 큰 기계에서 나오고.)

106007 @ 예.(예.)

106007 #4 우린 우린 미녕으로 허젠 허민.(우리는 우리는 무명으로 하려고 하면.)

106007 @ 예.(예.)

106007 #4 미녕으로만 허여근영 이녁 테와다근영 그거 테우는 디 강 정 맨들앙.(무명으로만 해서 이녁 테와다가 그거 테우는 데 가서 정 만들어서.)

106007 @ 예.(예.)

106007 #4 허영 멘들어 왕 그걸로 물레에 들어 좇는 거야. 영 영 좇앙 실 내와 근영 그거 허영 미녕 해낫주.(해서 만들어 와서 그걸로 물레에 들어 좇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아서 실 내와서 그거 해서 무명 했었지.)

106008 @ 그럼 그 미녕으로는 무슨 옷 만들어마씨?(그럼 그 무명으로는 무슨 옷 만들어요?)

106008 #4 이거 영 우리 영 입을 갈옷들.(이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입을 갈옷

들.)

106008 @ 아.(아.)

106008 #4 감, 감 들일 옷들도 만들곡.(감, 감 들일 옷들도 만들고.)

106008 @ 예.(예.)

106008 #4 그냥 옛날은 물 들여근엥 그걸 큰 좋은 옷으로 멘들엥 입엇주게.(그냥 옛날은 물 들여서 그걸 큰 좋은 옷으로 만들어서 입엇지.)

106011 @ 할머니 그럼 홍세미녕은 들어보섯수광? 홍세미녕?(할머니 그럼 ‘홍세미녕’은 들어보섯습니까? ‘홍세미녕’?)

106011 #4 어. 홍세미녕은 그거.(어. ‘홍세미녕’은 그거.)

106011 @ 예.(예.)

106011 #4 아들이나 팔젠 허민 빌로 마흔 자 놔.(아들이나 장가보내려고 하면 빌로 마흔 자 놔.)

106011 @ 마흔 자?(마흔 자?)

106011 #4 마흔 자 자로 마흔 자가 혼 빌이라 옛날.(마흔 자 자로 마흔 자가 한 필이야 옛날.)

106011 @ 혼 빌?(한 필?)

106011 #4 그거 게민 홍세 농젠 마흔 자 딱 그대로 꿍엥 놔뒀다근엥.(그거 그러면 ‘홍세’ 놓으려고 마흔 자 딱 그대로 꿍어서 놔뒀다가.)

106011 @ 예.(예.)

106011 #4 아들 풀 때는 거 홍세미녕으로 나가는 거.(아들 장가보낼 때는 거 ‘홍세미녕’으로 나가는 거.)

106011 @ 아, 그럼 홍세미녕은 아들 풀 때 나가는 거광?(아, 그럼 ‘홍세미녕’은 아들 장가보낼 때 나가는 것입니까?)

106011 #4 어. 아들 풀 때 함에 놓는 거주게.(어. 아들 장가보낼 때 함에 놓는 거지.)

106011 @ 아, 함에 놓는 거.(아, 함에 놓는 거.)

106011 #4 함에 낵 새각시신디 가져가는 거.(함에 놔서 새색시에게 가져가는 거.)

106011 @ 그럼 토목이랑 광목은 잘 모르겟다예? 할머니?(그럼 토목이랑 광목은 잘 모르겠군요? 할머니?)

106011 #4 아, 그건 허젠 허민게 그냥 사오랏주 우리 광목은.(아, 그건 하려고 하면 그냥 사왔지 우리 광목은.)

106011 @ 아.(아.)

106011 #4 경 즘질게 만들지 못 허난.(그렇게 가늘게 만들지 못 하니까.)

106011 @ 아, 즘질게 만들지 못 허난 사완?(아, 가늘게 만들지 못 하니까 사왔어요?)

106011 #4 사왔주 그건.(사왔지 그건.)

106011 @ 그럼 홍세미녕은 그러니까 함에다가 아들 풀 때 집어넣는 거?(그럼 ‘홍세미녕’은 그러니까 함에다가 아들 장가보낼 때 집어넣는 거?)

106011 #4 어.(아.)

106011 @ 사십 자?(사십 자?)

106011 #4 어. 사십 자.(어. 사십 자.)

모시

106013 @ 어르신 그럼 모시실도 만드셨마씨?(어르신 그럼 모시실도 만드셨어요?)

106013 #2 아니, 모시실은 육지서.(아니, 모시실은 육지에서.)

106013 @ 예.(예.)

106013 #2 육지서 저 배허고 모시는 육지에서 허여. 그 어느, 어느 곳에서 이 지금도 험실거라.(육지에서 저 배하고 모시는 육지에서 해. 그 어느, 어느 곳에서 이 지금도 하고 있을 거야.)

106013 @ 근데 여기서는 안 험마씨?(근데 여기서는 안 했어요?)

106013 #2 그거 허는 곳도 있어.(그거 하는 것도 있어.)

106013 @ 아.(아.)

106013 #2 모시 허는 곳이 있어. 비어다근엥 께어근엥 숲아.(모시 하는 곳이 있어. 배어서 께어서 삶아.)

106013 @ 예.(예.)

106013 #2 모시 다 숲은 걸로.(모시 다 삶은 걸로.)

106013 @ 예.(예.)

106013 #2 게면 그걸 가져왕 차근엥 허는 거주게.(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짜서 하는 거지.)

106014 @ 그럼 모시로는 어떤 옷 만들어마씨?(그럼 모시로는 어떤 옷 만들어요?)

106014 #2 모시는 옛날엔게. 그 예쁘게 여름에 허영허게.(모시는 옛날에는. 그 예쁘게 여름에 하얗게.)

106014 @ 예.(예.)

106014 #2 하르방들 허영허게 입주게.(할아버지들 하얗게 입지.)

106015 @ 그럼 모시는 여기 신도에서 재배 안 허니깐?(그럼 모시는 여기 ‘신도’에서 재배 안 하니까?)

106015 # 안 허여.(안 해.)

106013 @ 할머니 모시도 알아마씨? 모시?(할머니 모시도 알아요? 모시?)

106013 #4 모신게 허젠 허민 사당 입엇주게.(모시는 하려고 하면 사다가 입엇지.)

106013 @ 아, 모시는 그냥 거 사당 입언마씨?(아, 모시는 그냥 그거 사다가 입

있어요?)

106013 #4 어.(어.)

106013 @ 그럼 모시실은 어떻 만드는지 잘 몰라마씨?(그럼 모시실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106013 #4 거 몰라. 것도게 무시거 무싱걸로 헨다만은. 모시 모시 냥으로 만든 우리 날 때는 들어났인다.(거 몰라. 것도 무엇 무엇으로 한다만. 모시 모시 나무로 만든다고 우리 날 때는 들었었는데.)

삼

106017 @ 그럼 베 잇잖아예?(그럼 베 잇잖아요?)

106017 #2 어.(어.)

106017 @ 어르신 베실은 어떻 만드는지 알아마씨?(어르신 베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106017 #2 그게 베실이나 모시나.(그게 베실이나 모시나.)

106017 @ 예.(예.)

106017 #2 저 같은 종류라. 겐디 모시는. 저. 그 막 빨앙 히양게.(저 같은 종류야. 그런데 모시는. 저. 그 막 빨아서 하양게.)

106017 @ 예.(예.)

106017 #2 막 두드리멍 빨고 빨고 해서 허영케 헤근엥 짠 것이 모시고. 베는 그렇게 빨지 안 허영 헨 것이 베주게. 한 종류.(막 두드리면서 빨고 빨고 해서 하양게 해서 짠 것이 모시고. 베는 그렇게 빨지 않고 한 것이 베지. 한 종류.)

106017 @ 한 종류. 한 종류인데 어떻 막 빨 것은 모시고?(한 종류. 한 종류인데 어떻게 막 빨 것은 모시이고?)

106017 #2 응. 모시는 히양헨 거라 모시렌 허주게.(응. 모시는 하얀 거더러 모시라고 하지.)

106017 @ 예.(예.)

106017 #2 깨끗하게 헨 거. 베는 누리롱헨 걸로.(깨끗하게 한 거. 베는 누르무레 한 걸로.)

106017 @ 예.(예.)

106017 #2 저 헨 것이 베이고.(저 한 것이 베이고.)

106017 @ 그럼 베로는 뭐 어떤 옷 만들언마씨?(그럼 베로는 뭐 어떤 옷 만들었어요?)

106017 #2 여름에게 시원하게 여름에 시원하게.(여름에 시원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106017 @ 예.(예.)

106017 #2 여름에 시원하게.(여름에 시원하게.)

106017 @ 그럼 베도 그 여기서는 재배 안 헛갯다예?(그럼 베도 그 여기서는 재

배 안 했겠군요?)

106017 #2 아니. 아니야, 육지 어디 지금도 허는 곳이 있어. 그것도.(아니. 아니야, 육지 어디 지금도 하는 곳이 있어. 그것도.)

106018 @ 그럼. 혹시 삼 재배 하신마씨?(그럼. 혹시 삼 재배도 하셨어요?)

106018 #2 안 허연.(안 했어.)

106016 @ 할머니 그럼 배 잇잖아예? 배?(할머니 그럼 배 잇잖아요? 배?)

106016 #4 어.(어.)

106016 @ 베로 삼실 만들잖아예?(베로 삼실 만들잖아요?)

106016 #4 베는 삼으로 만든텐 허곡.(베는 삼으로 만든다고 하고.)

106016 @ 예. 그거 알아마씨? 삼으로 만드는 거?(예. 그거 알아요? 삼으로 만드는 거?)

106016 #4 것도 몰라. 우린.(것도 몰라. 우리는.)

106016 @ 것도 잘 모르고.(것도 잘 모르고.)

106016 #4 거 이디서 안 헛주게.(거 여기서 안 했지.)

도구

106019 @ 어르신 그럼 옷 만들 때 쓰는 기계나 씨아라고 들어보션마씨? 씨아?
(어르신 그럼 옷 만들 때 쓰는 기계나 씨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씨아?)

106019 #2 씨아가 뭐라?(씨아가 뭐라?)

106020 @ 그럼 물레는 들어보셨지예? 물레. 물레 이렇게 동그략게 해가지고.(그럼 물레는 들어보셨지요? 물레. 물레 이렇게 동그략게 해가지고.)

106020 #2 웨? 먹는 웨?(외? 먹는 외?)

106020 @ 아노, 물레 물레.(아노, 물레 물레.)

106020 #2 아, 실 차는 물레?(아, 실 짜는 물레?)

106020 @ 예.(예.)

106020 #2 옛날엔 시어낫주게. 지금도 싯주게.(옛날에는 있었지. 지금도 있지.)

106020 @ 아, 지금도 잇어마씨?(아, 지금도 있어요?)

106020 #2 응.(응.)

106020 @ 그러면 실, 실 뽑을 때 베틀 잇지예 베틀. 베틀 안 쓰션지마씨? 실 아까 차는 기계이름 기억 안 난다헛지예?(그러면 실, 실 뽑을 때 베틀 잇지요 베틀. 베틀 안 쓰셨지요? 실 아까 짜는 기계이름 기억 안 났다헛지요?)

106020 #2 기억이.(기억이.)

106020 @ 실 뽑는 기계.(실 뽑는 기계.)

106020 #2 실 뽑는 건게. 여기서 씨, 씨하고 저 멘네허고 영, 따로 해놔 우리가.(실 뽑는 건. 여기서 씨, 씨하고 저 목화하고 이렇게, 따로 해놔. 우리가.)

106020 @ 예.(예.)

106020 #2 하다가근영 씨 따로 멘네 따로 영 해놔.(하다가 씨 따로 목화 따로 이

렇게 해놔.)

106020 @ 예.(예.)

106020 #2 경 헤여근엥 실을 영. 실을 영 다시 허주게. 회관에 강 들으면 알 거라.(그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실을 이렇게 다시 하지. 회관에 가서 들으면 알 거야.)

106020 @ 회관에 강 들으면 알아마씨? 나중에 그건 또 물어볼게예.(회관에 가서 들으면 알아요? 나중에 그건 또 물어볼게요.)

바느질

106022 @ 그 어르신 바느질 할 때 쓰는 도구는 뭐, 뭐 잇언마씨? 지금이랑 옛날이랑 많이 안 다를 거 닐은디.(그 어르신 바느질 할 때 쓰는 도구는 뭐, 뭐 있었어요? 지금이랑 옛날이랑 많이 안 다를 거 같은데.)

106022 #2 무신거 이디 영 손톱 영 허는 거?(무엇 여기 이렇게 손톱 이렇게 허는 거?)

106022 @ 예.(예.)

106022 #2 손톱에 영 자꾸 바농질 허난 이디 아파.(손톱에 이렇게 자꾸 바느질 하니까 여기 아파.)

106022 @ 예.(예.)

106022 #2 영 이디 헤근엥 허는 거 잇주게.(이렇게 여기 해서 하는 거 있지.)

106022 @ 그게, 그게 이름이 뭐주마씨? 골메?(그게, 그게 이름이 뭐지요? 골무?)

106022 #2 몰라 그거.(몰라 그거.)

106022 @ 골무 아니짱? 골무.(골무 아닙니까? 골무.)

106022 #2 우린 그런 거 곧지 았았어. 회관에 강 물어보라.(우린 그런 거 말하지 았았어. 회관에 가서 물어보라.)

106023 @ 그럼 바느질 방법은 어떻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마씨?(그럼 바느질 방법은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06023 #2 게. 게.(그럼. 그럼.)

106022 @ 옷 이렇게 망가지면 바느질 허잖아예?(옷 이렇게 망가지면 바느질 하잖아요?)

106022 #4 예.(예.)

106022 @ 바농질 헐 때는 뭐, 뭐 필요해마씨? 옷 그거 고칠 때.(바느질 할 때는 뭐, 뭐 필요해요? 옷 그거 고칠 때.)

106022 #4 바농질 헐 때 무싱거게 실이나배피 무싱거 바농허고 실허곡.(바느질 할 때 무엇 실이나밖에 무엇 바늘하고 실하고.)

106022 @ 그 다음에 바농허고 실 할 때 이렇게 끼는 거 잇잖아예?(그 다음에 바늘하고 실 할 때 이렇게 끼는 거 잇잖아요?)

106022 #4 어.(어.)
 106022 @ 그거 뭐라고 헛주마씨?(그거 뭐라고 했지요?)
 106022 #4 그거 바농 끼는 거 그자 우리.(그거 바늘 끼는 거 그자 우리.)
 106022 @ 골메, 골메라고 안 헛수광?(골무, 골무라고 안 했습니까?)
 106022 #4 아, 이거 손에 끼는 거? 아, 그거 골메.(아, 이거 손에 끼는 거? 아, 그거 골무.)
 106022 @ 예.(예.)
 106022 #4 영 행 바농 심영 허민 영 받아근영.(이렇게 해서 바늘 심어서 하면 이렇게 받아서.)
 106022 @ 예.(예.)
 106022 #4 골메로 받아근영 허는 거.(골무로 받아서 하는 거.)
 106023 @ 예. 그럼 그 바느질 허는 방법 좀 얘기해 줘서.(예. 그럼 그 바느질 하는 방법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6023 #4 그거 어떻게? 어떤 방법?(그거 어떻게? 어떤 방법?)
 106023 @ 그냥 처음부터 실에 끼어 어떻게 했는지.(그냥 처음부터 실에 끼어서 어떻게 했는지.)
 106023 #4 바농에.(바늘에.)
 106023 @ 그럼 이렇게 양말에 구멍 날 때는 어떻게 헛주마씨?(그럼 이렇게 양말에 구멍 날 때는 어떻게 하지요?)
 106023 #4 양말 그거 옷 허젠 허민게 양말 구멍 나민.(양말 그거 옷 하려고 하면 양말 구멍 나면.)
 106023 @ 예.(예.)
 106023 #4 바농에 실 꿰어근영 험벅 그리 구멍 난 디 험벅 허영 영 행 꼬매주 게.(바늘에 실 꿰어서 험겔 그리 구멍 난 데 험겔 해서 이렇게 해서 꿰매지.)

옷 종류

106024 @ 그럼 옛날에 지금이랑 옛날이랑 남자들 입는 옷 잇잖아예? 그 많이 달라졌잖아예?(그럼 옛날에 지금이랑 옛날이랑 남자들 입는 옷 잇잖아요? 그 많이 달라졌잖아요?)
 106024 #2 어.(어.)
 106024 @ 그거 달라진 거 좀 얘기해 줘서.(그거 달라진 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6024 #2 옛날엔게. 남자털 바지저고리 입엇주게.(옛날에는. 남자들 바지저고리 입엇지.)
 106024 @ 옛날에?(옛날에?)
 106024 #2 이제는 쓰봉 입주만은.(이제는 양복바지 입지만.)
 106024 @ 그 다음 또 달라진 거 엇인가마씨? 남자 옷.(그 다음 또 달라진 거

없어요? 남자 옷.)

106024 #2 뭐 중의 적삼 같은 거.(뭐 중의 적삼 같은 거.)

106024 @ 중의 적삼. 중의 적삼은 뭐잖?(중의 적삼. 중의 적삼은 무엇입니까?)

106024 #2 영계 갈중의¹⁰¹⁾ ㄴ치 하고계 위에 적삼. 크게 이만하고.(이렇게 ‘갈중의’ 같이 하고 위에 적삼. 크게 이만하고.)

106024 @ 예.(예.)

106024 #2 중의라고 또 덤석하게 영 허주게. 중의 적삼.(중의라고 또 ‘덤석’하게 이렇게 하지. 중의 적삼.)

106025 @ 옛날에 그 남자들은 중의 적삼 입고. 그럼 여자 옷은 어떻 쉰마씨? 옛날에?(옛날에 그 남자들은 중의 적삼 입고. 그럼 여자 옷은 어떻게 돼요?)

106025 #2 여자 옷은 이제 한복하고 개량만 입주. 그게 그거라.(여자 옷은 이제 한복하고 개량만 입지. 그게 그거라.)

106025 @ 아, 그게 그거마씨?(아, 그게 그거예요?)

106025 #2 어. 옛날에 영 길게 해근엥 허리로 영 헛주만은.(어. 옛날에 이렇게 길게 해서 허리로 이렇게 했지만.)

106025 @ 예.(예.)

106025 #2 이제라는 이레 영 행 입엇주게. 이레 작게.(이제는 이리 이렇게 해서 입엇지. 이리 작게.)

106025 @ 예.(예.)

106025 #2 옛날은 이까지 해근엥 지금 같은 식이라 치마는. 치마가 같은 식이라.(옛날은 이까지 해서 지금 같은 식이야 치마는. 치마가 같은 식이야.)

106026 @ 그럼 애들 옷은 지금 막 여러 가지 잇잖아예? 옛날에는 애들 옷 어떤 거 입헛마씨? 주로?(그럼 애들 옷은 지금 막 여러 가지 잇잖아요? 옛날에는 애들 옷 어떤 거 입헛어요? 주로?)

106026 #2 옛날엔 막 바지저고리 입헛주게. 일본 강 일본 강 우리나라랑 싸와난 후에는 일본식으로 쓰봉 뭐 그런 거 입엇주.(옛날에는 막 바지저고리 입헛지. 일본 가서 일본 가서 우리나라와 싸운 후에 일본식으로 양복바지 뭐 그런 거 입엇지.)

106026 @ 음.(음.)

106026 #2 몸빼도 일본식. 이런 것도 일본식이라. 이 쓰봉도 일본식이고. 저 한국식은 바지 순 바지저구리.(왜바지도 일본식. 이런 것도 일본식이야. 이 양복바지도 일본식이고. 저 한국식은 바지 순 바지저고리.)

106026 @ 바지저고리?(바지저고리?)

106026 #2 저 그 중의 적삼 같은 거 그거 여름에 입는 거ㄴ라 중의 적삼이라허 주게.(저 그 중의 적삼 같은 거 그거 여름에 입는 거더러 중의 적삼이라 하지.)

106026 @ 그럼 겨울에 입는 것ㄴ라 뭐라 해마씨?(그럼 겨울에 입는 것더러 뭐라 해요?)

101)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로 보통 노동복으로 입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6026 #2 바지저고리.(바지저고리.)

106026 @ 바지저고리.(바지저고리.)

106026 #2 여름엔 중의 적삼.(여름에는 중의 적삼.)

106027 @ 그 어르신 옷은 안 만들어봤지예? 옛날에? 만들어 보셨마씨?(그 어르신 옷은 안 만들어봤지요? 옛날에? 만들어 보셨어요?)

106027 #2 예전에 저 양재 해놔주게. 나가. 시에서. 겐디 이제 옷. 이제 옷은 만들었인디 예전 옷은 안 만들어 봤어.(예전에 저 양재 했었지. 내가. 시에서. 그런데 이제 옷. 이제 옷은 만들었는데 예전 옷은 안 만들어 봤어.)

106027 @ 아, 옛날 옷이 아니라?(아, 옛날 옷이 아니라?)

106027 #2 어.(어.)

106027 @ 그럼 이제 옷이라도 옷 만드는 과정 한번 좀 처음부터 행 곁아 줘서.(그럼 이제 옷이라도 옷 만드는 과정 한번 좀 처음부터 해서 말해 주십시오.)

106027 #2 어떻 해게. 처음엔게 영 재단행 놔근엔게 가옴행 재단해놔 다음은 만들주게.(어떻게 해. 처음에는 이렇게 재단해 놔서 가봉해서 재단해놔서 다음은 만들지.)

106027 @ 그 다음에 자를 땀 가위로 잘란마씨?(그 다음에 자를 때는 가위로 잘랐어요?)

106027 #2 자를 땀 가위로 헛주게.(자를 때는 가위로 했지.)

106029 @ 그믐 단추 잇잖아예? 지금은 단추가 막 이만한 큰 것도 있고 구멍 두 개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단추 종류 엇언마씨?(그럼 단추 잇잖아요? 지금은 단추가 막 이만한 큰 것도 있고 구멍 두 개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단추 종류 없었어요?)

106029 #2 옛날엔 단추ㄴ라 그거 무시거라. 손으로 짠 거 이제도 멋지게 허젠 하믈 그런 거 짜. 들매기, 들매기.(옛날에는 단추더러 그거 무엇이야. 손으로 짠 거 이제도 멋지게 하려고 하면 그런 거 짜. 매듭단추, 매듭단추.)

106029 @ 들매기. 거 뭐짱?(매듭단추. 거 무엇입니까?)

106029 #2 영 가옴으로 해서 영 만들야. 이제도 멋진 옷은 그런 거 허여. 들매기 만들영.(이렇게 가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이제도 멋진 옷은 그런 거 해. 매듭단추 만들어서.)

106024 @ 그럼 옛날에 지금 말앙 옛날에 남자 옷 종류는 뭐, 뭐 잇엇수광?(그럼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남자 옷 종류는 뭐, 뭐 잇엇습니까?)

106024 #4 남자 옷 무싱거게. 두루마기영 무신.(남자 옷 무엇. 두루마기와 무슨.)

106024 @ 두루마기 그 다음에?(두루마기 그 다음에?)

106024 #4 거나배피 무싱거.(거나밖에 무엇.)

106024 @ 거밖에 엇어마씨? 그럼 여자, 여자들은 무슨 옷?(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자, 여자들은 무슨 옷?)

106024 #4 큰일 때 입젠 허민.(큰일 때 입으려고 하면.)
106024 @ 예.(예.)
106024 #4 남자들은 도포도 행 놔두곡.(남자들은 도포도 해서 놔두고.)
106024 @ 도포?(도포?)
106024 #4 어.(어.)
106024 @ 아, 예. 기억나는 구나예?(아, 예. 기억나는 군요?)
106024 #4 창옷도 행 놔두곡.(창옷도 해서 놔두고.)
106024 @ 창옷?(창옷?)
106024 #4 창옷은 그자 우에 도포 속으로 입는 거곡 도포는 질 우에 입는 거곡.(창옷은 그저 위에 도포 속으로 입는 거고 도포는 제일 위에 입는 거고.)
106024 @ 아, 도포 안에 입는 옷이 창옷마씨?(아, 도포 안에 입는 옷이 창옷이에요?)
106024 #4 어.(어.)
106025 @ 그림 여자 옷의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그림 여자 옷의 종류는 뭐, 뭐 있었어요?)
106025 #4 여자 옷의 종류는 무싱거 었어. 그저 뭐 저싱 가젠 허민 장옷이엔 뭐 무싱거예 허여도.(여자 옷의 종류는 무엇 없어. 그저 뭐 저승 가려고 하면 장옷이라고 뭐 무엇 해도.)
106025 @ 장옷?(장옷?)
106025 #4 장옷.(장옷.)
106025 @ 장옷은 어떤 것짱?(장옷은 어떤 것입니까?)
106025 #4 남저 ㄹ트민 도포추룩 입는 거주게.(남자 같으면 도포처럼 입는 거지.)
106025 @ 아.(어.)
106025 #4 새각시 우린 그거 입어근엿 시집도 갖주게.(새색시 우리는 그거 입어서 시집도 갔지.)
106025 @ 저고리 같은 거짱?(저고리 같은 것입니까?)
106025 #4 저고리가 아니고 남저 ㄹ트민 도포랑 일체라.(저고리가 아니고 남자 같으면 도포와 일체야.)
106025 @ 음.(음.)
106025 #4 질게 영 허는 거.(질게 이렇게 하는 거.)
106025 @ 아, 질게 허는 거?(아, 질게 하는 거?)
106025 #4 어. 질게 영 허는 거.(어. 질게 이렇게 하는 거.)
106026 @ 그림 애기들 옷 입히젠 허민 어떤 옷 입현마씨?(그림 애기들 옷 입히려고 하면 어떤 옷 입혔어요?)
106026 #4 아기들?(아기들?)
106026 @ 예.(예.)

106026 #4 아기들 어떤 옷을 입어? 곧 날 땀 베옷이나 영 입지곡.(아기들 어떤 옷을 입어? 곧 날 때는 베옷이나 이렇게 입히고.)

106026 @ 아, 곧 날 때는 베옷 입현마씨?(아, 곧 날 때는 베옷 입혔어요?)

106026 #4 어. 곧 날 때는 베옷 허영 입져사 아기들 옛날엔 ㄹ렘텐 안 헨 등때 기 안 ㄹ렘텐 허난.(어. 곧 날 때는 베옷 해서 입혀야 아기들 옛날에는 가렵다고 안 했어. 등 안 가렵다고 하나까.)

106026 @ 예.(예.)

106026 #4 베옷 허영 입졌주게.(베옷 해서 입혔지.)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믐 어르신 그 옷감, 옷감 손질은 해보신적 잇어마씨?(그럼 어르신 그 옷감, 옷감 손질은 해보신적 있어요?)

106030 #2 으 다래미도 다려보고 헛주게.(어 다리미도 다려보고 했지.)

106030 @ 다리미로. 옛날엔 다리미 엇지 앓안마씨? 뭘로 옷 다련마씨?(다리미로. 옛날에는 다리미 없지 앓았어요? 무엇으로 옷 다렸어요?)

106030 #2 윤디 영 혼 거. 쭈쭈¹⁰²⁾ 혼 거. 윤디로 행 다렸주게.(인두 이렇게 한 거. ‘쭈쭈한’ 거. 인두로 해서 다렸지.)

106030 @ 그럼 윤디로 다릴 때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그럼 인두로 다릴 때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06030 #2 윤디로 그냥 영 화룻불에 찢르주게.(인두로 그냥 이렇게 화룻불에 찢르지.)

106030 @ 그러니까 화리를 준비해야 돼마씨?(그러니까 화로를 준비해야 돼요?)

106030 #2 어. 화리에 찢러근엿 뜨뜻하게 해냥. 영 옷 다렸주게. 찢러주게.(어. 화로에 찢러서 뜨뜻하게 해놔서. 이렇게 옷 다렸지. 찢러지.)

106030 @ 윤디는 뭘로 만들언마씨? 팔안마씨? 윤디는?(인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팔았어요? 인두는?)

106030 #2 저 쉼로 만들엇주게. 쉼로.(저 쇠로 만들엇지. 쇠로.)

106031 @ 그럼 옛날에도 옷 염색했잖아예?(그럼 옛날에도 옷 염색했잖아요?)

106031 #2 어.(어.)

106031 @ 아까, 잠깐 감 해근엿 말해줬는데 한번만 더 얘기해 줘서.(아까, 잠깐 감 해서 말해줬는데 한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106031 #2 감게. 저 감낭에. 옛날은 이제는 곡식이나 과일이라도 다 개주해근엿 좋게 만들지 앓았어. 좋게.(감. 저 감나무에. 옛날은 이제는 곡식이나 과일이라도 다 개주해서 좋게 만들지 앓았어. 좋게.)

106031 @ 예.(예.)

106031 #2 크고 맛있게.(크고 맛있게.)

102) ‘쭈쭈하다’는 물건의 윗부분이 뽀족이 솟아 있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조쭈하다’라고도 한다.

106031 @ 예.(예.)

106031 #2 옛날은 토종 감 막 작은 거라 옛날에. 작은 거에다가 감 열민.(옛날은 토종 감 막 작은 거야 옛날에. 작은 게에다가 감 열면.)

106031 @ 예.(예.)

106031 #2 열면 따다가 이 방엿혹에 막 뺏아근엿 그 물을 해서 옷 낡 막 부벼.(열면 따다가 이 방아확에 막 뺏아서 그 물을 해서 옷 낡서 막 비벼.)

106031 @ 예.(예.)

106031 #2 부벼근엿 널어근엿 자꾸 널어야 색 나오주게. 노랗게 이추룩 예쁘게.(비벼서 널어서 자꾸 널어야 색 나오지. 노랗게 이처럼 예쁘게.)

106031 @ 아, 이것추룩?(아, 이것처럼?)

106031 #2 아니. 이거인디 막 일허멍 입고 빨아가민 나중에 이렇게 돼주게. 처음에는 예쁘디 일하다 보믄 색 변허주게.(아니. 이거인데 막 일하면서 입고 빨아가면 나중에 이렇게 되지. 처음에는 예쁘디 일하다 보면 색 변하지.)

106031 @ 다른 색깔은 잇언마씨? 감만 쓰션마씨 예전에?(다른 색깔은 없었어요? 감만 쓰셨어요 예전에?)

106031 #2 감베끼 안 씻주게. 그냥 물레 헤근엿. 막 옛날엔 물레 사다근엿 곱게 행 한복들 입엇주만은. 이걸 제주도에서만 저 감 허여. 제주도에서만.(감밖에 안 씻지. 그냥 물감 해서. 막 옛날에는 물감 사다가 곱게 해서 한복들 입엇지만. 이걸 제주도에서만 저 감 해. 제주도에서만.)

106031 @ 제주도에서만마씨?(제주도에서만요?)

106031 #2 어.(어.)

106031 @ 어르신, 들방은 들어보션마씨? 들방?(어르신, 연자방아는 들어보셨어요? 연자방아?)

106031 #2 게 들방.(그럼 연자방아.)

106031 @ 들방은 뭐 허는 거마씨?(연자방아는 뭐 하는 거예요?)

106031 #2 들방은 옛날게 그 이제 보리나 조 갈아근엿게 고고리 타다근엿 들방에서 둥굴렛주게 빠지게. 이렇게 고고리 싯잖아?(연자방아는 옛날 그 이제 보리나 조 갈아서 이삭 따서 연자방아에서 굴렸지 빠지게. 이렇게 이삭 싯잖아?)

106031 @ 예.(예.)

106031 #2 게민 방에에 낡 그걸 영 영 막 헤사 영 방울로 떨어지지 안 허여?(그러면 방아에 낡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막 해야 이렇게 방울로 떨어지지 않아?)

106031 @ 예.(예.)

106031 #2 떨어지믄게 그걸로 허는 거주게.(떨어지면 그걸로 하는 거지.)

106031 @ 신도에서도 들방 잇언마씨?('신도'에서도 연자방아 있었어요?)

106031 #2 게 맨 천지주게. 많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그딤 가근엿 이제 그트민 곡식허면게 우리가 곡식허민 기계로 장만허지 안 허여?(그럼 맨 천지지. 많아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거기 가서 이제 같으면 곡식하면 우리가 곡식하면 기계로 장

만하지 않아?)

106031 @ 예.(예.)

106031 #2 그런 식으로게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많고게 것도 많아사 영 조그만한 그런 디 막 있어. 경 혜사 곡식 익으면게 요 동네 사람들은 요기서 허고 저 쪽 사람은 저디서 허고. 여러 있어야주게.(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많고 것도 많아사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데 막 있어. 그렇게 해야 곡식 익으면 요 동네 사람들은 요기서 하고 저 쪽 사람은 저기서 하고. 여러 있어야지.)

106031 @ 고산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밖에 엇었는데.(‘고산’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106031 #2 하나로 어떻 해?(하나로 어떻게 해?)

106031 @ 많아야겠다예.(많아야겠군요.)

106031 #2 우리 동네도 막 하영 잇어났주게.(우리 동네도 막 많이 잇어났지.)

106030 @ 그럼 그 옷감 염색도 헨마씨? 옷에? 염색헌 거 기억나마씨?(그럼 그 옷감 염색도 했어요? 옷에? 염색한 거 기억나요?)

106030 #4 염색?(염색?)

106030 @ 색, 색깔 넣젠 허민 어떻 해야 뉘마씨? 옛날에는?(색, 색깔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옛날에는?)

106030 #4 색깔 넣젠 허민 우린 옛날에 모슬포 강 물레, 물레 헛주게. 물레 장시신디 강.(색깔 넣으려고 하면 우리는 옛날에 ‘모슬포’ 가서 물레, 물레 했지. 물레 장수한테 가서.)

106030 @ 예.(예.)

106030 #4 물감을 사다근엥 그거 허영 물 들영 살안. 입언.(물감을 사서 그거 해서 물 들여서 살았어. 입었어.)

106030 @ 아, 물레 장시한테 물감을 산마씨?(아, 물레 장수한테 물감을 샀어요?)

106030 #4 어. 물레 장시한테 강 물레 장시 물레 장시 허주게. 모슬포 가근엥 우린 물레 장시신디 강 사당 물감 들영 허영 입어난.(어. 물레 장수한테 가서 물레 장수 물레 장수 하지. ‘모슬포’ 가서 우리는 물레 장수한테 가서 사다가 물감 들여서 해서 입었어.)

106031 @ 물감 들영? 그럼 물감 들영 할머니가 직접 물감으로 옷에 이렇게 헨마씨?(물감 들여서? 그럼 물감 들여서 할머니가 직접 물감으로 옷에 이렇게 했어요?)

106031 #4 어. 옷에 들여근에게.(어. 옷에 들여서.)

106031 @ 어떻 들연마씨?(어떻게 들렸어요?)

106031 #4 그거게 물 카근엥게 멘드롱이 허엿다근엥.(그거 물 타다가 미지근하게 했다가.)

106031 @ 예.(예.)

106031 #4 옷 그 물 옷에 맞을만히 물 뇌근엿.(옷 그 물 옷에 맞을만큼 물 뇌서.)

106031 @ 예.(예.)

106031 #4 게민 꼭꼭 담가근엿게.(그러면 꼭꼭 담가서.)

106031 @ 음.(음.)

106031 #4 게민 색깔 나오주게.(그러면 색깔 나오지.)

신발

106032 @ 어르신 신발 잇잖아예? 신발 종류는 옛날에 뭐, 뭐 잇언마씨? 지금이야 운동화랑 이것저것 잇지만.(어르신 신발 잇잖아요? 신발 종류는 옛날에 뭐, 뭐 잇었어요? 지금이야 운동화랑 이것저것 잇지만.)

106032 #2 옛날엔 초신 신엇지만은 우리 시대엔 그 때는 고무신 신엇주게.(옛날에는 짚신 신엇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 때는 고무신 신엇지.)

106032 @ 초신 말양 고무신마씨?(짚신 말고 고무신이요?)

106032 #2 시대에 따라 다르주게. 우리 어머니 시대엔 초신 신엇고. 우리 시대엔 고무신 신엇고 내중에는 운동화 신엇주게.(시대에 따라 다르지.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짚신 신엇고. 우리 시대에는 고무신 신엇고 나중에는 운동화 신엇지.)

106033 @ 그 가죽신은 안 신어 보션마씨? 가죽신?(그 가죽신은 안 신어 보셨어요? 가죽신?)

106033 #2 옛날에 그 시집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죽 고무신 닮은 거 신엇주게.(옛날에 그 시집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죽 고무신 같은 거 신엇지.)

106033 @ 그면 가죽신 만드는 과정은 잘 몰라마씨?(그러면 가죽신 만드는 과정을 잘 몰라요?)

106033 #2 그거는 신 만드는 디서 만들엇주게.(그거는 신 만드는 데서 만들엇지.)

106034 @ 그면 나막신 잇잖아예?(그러면 나막신 잇잖아요?)

106034 #2 어.(어.)

106034 @ 나막신은 혹시 만드는 거 알아마씨?(나막신은 혹시 만드는 거 알아요?)

106034 #2 그거는 저 나무로 해서.(그거는 저 나무로 해서.)

106034 @ 예.(예.)

106034 #2 나무로 혜근엿 이 눈 올 때 비 올 때 젓지 말라고 초신 신을 때.(나무로 해서 이 눈 올 때 비 올 때 젓지 말라고 짚신 신을 때.)

106034 @ 예.(예.)

106034 #2 영 높으게 헛주게.(이렇게 높게 헛지.)

106034 @ 예.(예.)

106034 #2 저 이제 ㄱ트른 구두추룩. 아니 장화추룩 만들엇지. 장화 이리 쫄른

거 같이.(저 이제 같으면 구두처럼. 아니 장화처럼 만들었지. 장화 이리 짧은 거 같이.)

106034 @ 예.(예.)

106034 #2 영 길게는 안 허고 요만큼만 나무 영 파서 나무 판 게 발들어가게끔 파근영 신엇주게.(이렇게 길게는 안 하고 요만큼만 나무 이렇게 파서 나무 판 게 발들어가게끔 파서 신엇지.)

106034 @ 음.(음.)

106034 #2 비 올 때. 발 젖지 말라고.(비 올 때. 발 젖지 말라고.)

106034 @ 그든 나막신 만드는 과정은 알아마씨?(그러면 나막신 만드는 과정은 알아요?)

106034 #2 계난 그 저 녹남봉¹⁰³에.(그러니 그 저 '녹남봉'에.)

106034 @ 예.(예.)

106034 #2 녹남으로 만들엇어. 녹남으로.(녹나무로 만들엇어. 녹나무로.)

106034 @ 녹남으로.(녹나무로.)

106034 #2 우리 저 이 오름에. 이것이 녹남오름이렌 허여.(우리 저 이 오름에. 이것이 '녹남오름'이라고 해.)

106034 @ 아, 녹남오름마씨?(아, '녹남오름'이요?)

106034 #2 녹남을 키웠어. 녹남이 좋은 거 다향. 이 옛날에는 남방에 잇잖아. 그 곡식 키우민 나록이나 무시거 해근영 저 이 또 제사허젠 허면 이 남방에로 찍어. 그것도 녹남으로 해근영 나무해다가 했어. 만들엇어.(녹나무를 키웠어. 녹나무가 좋은 거 같아. 이 옛날에는 남방아 잇잖아. 그 곡식 키우면 벼나 무엇 해서 저 이 또 제사하려고 하면 이 남방아로 찍어. 그것도 녹나무로 해서 나무해다가 했어. 만들엇어.)

106034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6034 #2 녹남.(녹나무.)

106034 @ 그든 초신 잇잖아예?(그럼 짚신 잇잖아요?)

106034 #2 어.(어.)

106034 @ 초신은 종류가 엇어마씨?(짚신은 종류가 없어요?)

106034 #2 짚으로 했주만은. 짚말고. 질긴 거랑 그.(짚으로 했지만. 짚말고. 질긴 거랑 그.)

106034 @ 질긴 거 하나랑 그냥 초신 하나?(질긴 거 하나랑 그냥 짚신 하나?)

106034 #2 어. 질기게 행 초신을 흥끔 영 섞영. 그걸로만 허지를 안 허고 이런 디 같은 디 흥끔 저 질긴 거 허영 했주게. 섞어근영 경 만들엇주게.(어. 질기게 해서 짚신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그거로만 하지 않고 이런 데 같은 데 조금 저 질긴 거 해서 했지. 섞어서 그렇게 만들엇지.)

103) '녹남봉'은 제주도 제주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오름 중 하나이다. '녹남오름. 녹남오름'이라고도 한다.

106035 @ 초신 만드는 건 어떻 만들언마씨? 초신은 그 뭐냐 만드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짚신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짚신은 그 뭐냐 만드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106035 #2 초신은 제각기 만들었주게. 그거 어렵지 않아.(짚신은 제각기 만들었지. 그거 어렵지 않아.)

106035 @ 만드는 거 잠깐만 설명해 줘서.(만드는 거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106035 #2 만드는 거 어떻게. 그 저 초신 알아지지?(만드는 거 어떻게. 그 저 짚신 알아지지?)

106035 @ 예. 알주마씨.(예. 알지요.)

106035 #2 봤지?(봤지?)

106035 @ 예.(예.)

106035 #2 그거게 어떻 헤게. 짝으로 가늘게 짝 허영.(그거 어떻게 해. 짚으로 가늘게 짚 해서.)

106035 @ 예.(예.)

106035 #2 노 꼬아근엥게 영 코글래기¹⁰⁴ 헤근엥게 만들었주게. 이제도 만드는 사람 있어. 저 죽어부러터. 짝신 만들고 무신 영 옛날에 바구니 닮은 거 만들어근엥 막 팔기도 했어.(노 꼬아서 이렇게 ‘코글래기’ 해서 만들었지. 이제도 만드는 사람 있어. 저 죽어버러터. 짚신 만들고 무슨 이렇게 옛날에 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팔기도 했어.)

106035 @ 아, 막 팔기도 헨마씨?(아, 막 팔기도 했어요?)

106035 #2 어. 또 신 그 저 옛날 푸는 데 잊지 않아? 옛날 무신 물건들 파는 디.(어. 또 신 그 저 옛날 파는 데 잊지 않아? 옛날 무슨 물건들 파는 데.)

106035 @ 예.(예.)

106035 #2 그런 디 사람들이 가져가.(그런 데 사람들이 가져가.)

106036 @ 초신은 종류가 엇언마씨?(짚신은 종류가 없었어요?)

106036 #2 짝으로 헛주마는. 질긴 거랑 뭐 잇어게. (짚으로 했지만. 질긴 거랑 뭐 있어.)

106032 @ 그럼 그 옛날에 지금은 신발 이런 거 신는데 옛날엔 신발 종류가 뭐, 뭐 잇었주마씨?(그럼 그 옛날에 지금은 신발 이런 거 신는데 옛날에는 신발 종류가 뭐, 뭐 있었지요?)

106032 #4 옛날에?(옛날에?)

106032 @ 예.(예.)

106032 #4 우리 초신 신고.(우리 짚신 신고.)

106032 @ 초신이랑 또?(짚신이랑 또?)

106032 #4 다시 비 올 때는 남신 남신 남신 파주면 남신 신고.(다시 비 올 때는

104) ‘코글래기’는 밧줄을 둥글게 돌려서 고를 만든 것(혹은 옷고름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한 가닥을 잡아 빼어 고리처럼 되게 한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코골래기’, ‘코글레기’라고도 한다.

나막신 나막신 나막신 파주면 나막신 신고.)

106032 @ 예.(예.)

106032 #4 경 행 우린.(그렇게 했어 우리는.)

106033 @ 그럼 가족신은 안 신언마씨?(그럼 가족신은 안 신었어요?)

106033 #4 가족신은 막 이제 부잣집들이나 가족신 허곡.(가족신은 막 이제 부잣집들이나 가족신 하고.)

106033 @ 음.(음.)

106033 #4 경 헛주.(그렇게 했지.)

106034 @ 그럼 남신 잇잖아예? 남신? 나막신?(그럼 나막신 잇잖아요? 나막신? 나막신?)

106034 #4 계메 남신. 그거계.(글세 나막신. 그거.)

106034 @ 예. 그 남신은 어떻 만들주마씨? 옛날에는?(예. 그 나막신은 어떻게 만들지요? 옛날에는?)

106034 #4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저 남박 파는 하르방이 남신을 파는 거라.(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저 나무바가지 파는 할아버지가 나막신을 파는 거야.)

106034 @ 아, 남박 파는 하르방이?(아, 나무바가지 파는 할아버지가?)

106034 #4 응. 계민 그것 강 사당 신어.(응. 그러면 그것 가서 사다가 신어.)

106034 @ 아, 만들어 본 적은 엿수광?(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106034 #4 어. 우리는 만들어 보지 못 허고.(어. 우리는 만들어 보지 못 하고.)

106034 @ 아, 만들어 보지 못 하고.(아, 만들어 보지 못 하고.)

106034 #4 아무나 만들지 못 허여. 그거 기계 엷인 사람은 못 만들어.(아무나 만들지 못 해. 그거 기계 없는 사람은 못 만들어.)

106034 @ 기구 엷인 사람은 못 만들어?(기구 없는 사람은 못 만들어?)

106034 #4 어.(어.)

106035 @ 그럼 초신 잇잖아예?(그럼 짚신 잇잖아요?)

106035 #4 초신은 옛날에 아무나 삼고계 하르방들.(짚신은 옛날에 아무나 삼고 할아버지들.)

106035 @ 아, 아무나 삼아?(아, 아무나 삼아?)

106035 #4 삼아.(삼아.)

106035 @ 어떻 삼아마씨?(어떻게 삼아요?)

106035 #4 짝 두드려근앵게 허영 낫다근앵.(짚 두드려서 해서 낫다가.)

106035 @ 예.(예.)

106035 #4 이제 우리 동생은 옛날도 이제 산양 살앗주만은 가의 으넝 살 나난 초신 삼으멍 학교 텅져어.(이제 우리 동생은 옛날에도 이제 '산양' 살았지만 그 아이는 여넝 살 되니까 짚신 삼으면서 학교 다녔어.)

106035 @ 아.(아.)

106035 #4 하루가 하루 신으른 데껴 불곡 데껴 불곡 허난.(하루가 하루 신으면

던져 버리고 던져 버리고 하니까.)

106036 @ 그럼 그 초신도 종류가 뭐 잇언마씨?(그럼 그 짚신도 종류가 뭐 있었어요?)

106036 #4 초신 막 곱게 삼는 건 미투리.(짚신 막 곱게 삼는 건 미투리.)

106036 @ 미투리?(미투리?)

106036 #4 미투리 초신. 막 고와 그건 막 즘질게 잘 허연.(미투리 짚신. 막 고와 그건 막 가늘게 잘 했어.)

106036 @ 예.(예.)

106036 #4 경 허영도 신고. 그냥 일헐 때는 훑은 거.(그렇게 해서도 신고. 그냥 일할 때는 굵은 거.)

106036 @ 훑은 거?(굵은 거?)

106036 #4 짝으로 허여근엥 아무거나 허여근엥 짝으로 만들어근엥 허는 거.(짝으로 해서 아무거나 해서 짚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모자 등

106037 @ 어르신 모자 잇잖아예. 옛날에는 모자 종류가 뭐 잇언마씨?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어르신 모자 잇잖아요. 옛날에는 모자 종류가 뭐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잇어요?)

106037 #2 그 그 거멍헌 거라 뭇이렌 해?(그 그 거떻게 한 거더러 무엇이라고 해?)

106037 @ 거멍헌 거? 갓?(거떻게 한 거? 갓?)

106037 #2 어. 그거 아주 흐끔 높은 사람이나 갓 썼지. 돈 하영 잇는 사람이나 갓 썼지. 옛날 하르방이나 쓴 거 봐났주.(어. 그거 아주 조금 높은 사람이나 갓 썼지. 돈 많이 잇는 사람이나 갓 썼지. 옛날 할아버지나 쓴 거 봐났지.)

106037 @ 젊은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뭐 모자 쓰는 거 잇언마씨? 일할 때 막 쓰는 거 잇잖아예. 패랭이 같은 거.(젊은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뭐 모자 쓰는 거 없었어요? 일할 때 막 쓰는 거 잇잖아요. 패랭이 같은 거.)

106037 #2 패랭이도 손으로 짚주게.(패랭이도 손으로 짚지.)

106037 @ 아, 패랭이도 손으로 짚마씨? 옛날에?(아, 패랭이도 손으로 짚어요? 옛날에?)

106037 #2 보릿낭. 보릿낭으로 해근엥.(보릿짚. 보릿짚으로 해서.)

106037 @ 예.(예.)

106037 #2 보릿낭 꼭대기 영 꼬아근엥 손으로 영 이제도 거 패랭이 파는 거 손으로 싹 저거 기계로 헛주만은 우리 어린 때 손으로 영 영 짜근엥 동글락허게 만들었어.(보릿짚 꼭대기 이렇게 꼬아서 손으로 이렇게 이제도 거 패랭이 파는 거 손으로 싹 저거 기계로 했지만 우리 어린 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짜서 동그렇게 만들었어.)

106037 @ 그럼 패랭이 말앙 뭐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 뭐 잇어마씨? 여름에, 여름에 주로 쓰는 모자는 뭐짱?(그럼 패랭이 말고 뭐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잇어요? 여름에, 여름에 주로 쓰는 모자는 무엇입니까?)

106038 #2 남자들 이제 나까오리 해근앵 옛날에.(남자들 이제 중절모 해서 옛날에.)

106038 @ 나까오리?(중절모?)

106038 #2 일 헐 때 말고 놀 때 그거 써나신가?(일 할 때 말고 놀 때 그거 썼었나?)

106038 @ 일할 때 긴 거 쓰잖아예? 큰 거. 짝으로 만든 모자.(일할 때 긴 거 쓰잖아요? 큰 거. 짝으로 만든 모자.)

106038 #2 아주 옛날에 그런 거 썼인디 잘 모르켜.(아주 옛날에 그런 거 썼는데 잘 모르겠다.)

106039 @ 그럼 겨울에 쓰는 모자는 따로 잇엇인가마씨?(그럼 겨울에 쓰는 모자는 따로 없었나요?)

106039 #2 털모자 같은 거.(털모자 같은 거.)

106040 @ 그럼 혹시 어르신 양태 결기는 들어보셴마씨? 양태 결기?(그럼 혹시 어르신 양태 결기는 들어보셨어요? 양태 결기?)

106040 #2 그건 몰라.(그건 몰라.)

106044 @ 그럼 어르신 도롱이, 도롱이 알아마씨?(그럼 어르신 도롱이, 도롱이 알아요?)

106044 #2 그것도 잘 모르켜.(그것도 잘 모르겠다.)

106037 @ 할머니 모자는 종류 이런 거 모르지요? 모자 쓰는 거는?(할머니 모자는 종류 이런 거 모르지요? 모자 쓰는 거는?)

106037 #4 모자는 잘 몰라.(모자는 잘 몰라.)

106037 @ 만들어 본 적도 잇고?(만들어 본 적도 없고?)

106037 #4 만들어 본 적도 잇고. 패랭이 보릿냥으로 행 역어근앵.(만들어 본 적도 없고. 패랭이 보릿짚으로 해서 엮어서.)

106037 @ 패랭이?(패랭이?)

106037 #4 어. 그거 패랭이 만들멍 썼엇주게.(어. 그거 패랭이 만들면서 썼었지.)

106037 @ 아, 패랭이 만들멍. 그럼 그건 뭘로 만들어마씨? 패랭이는?(과, 패랭이 만들면서. 그럼 그건 무엇으로 만들어요? 패랭이는?)

106037 #4 보릿냥 허영 오민?(보릿짚 해서 오면?)

106037 @ 예.(예.)

106037 #4 보릿냥 곱게 허영 고고리 붙은 디로 꿸앵 낫당 그걸로 잇이멍 잇이멍 패랭이 그저 패랭이 어디 잇인고?(보릿짚 곱게 해서 이삭 붙은 데로 꿰어 낫다가 그걸소 이으면서 이으면서 패랭이 그저 패랭이 어디 잇으려나?)

106037 @ 여기 안 보임신게마씨.(여기 안 보이는데요.)
 106037 #4 경 허영 그 패랭이를 막 질게 즐앙.(그렇게 해서 그 패랭이를 막 길게 걸쳐서.)
 106037 @ 예.(예.)
 106037 #4 즐앙 행 그 패랭이 만들어났어. 우리냥으로 패랭이 멘들멍 썼어.(결어서 해서 그 패랭이 만들었어. 우리 스스로 패랭이 만들면서 썼어.)
 106037 @ 저거는 뭘팡? 저거는 모자 아니팡?(저거는 뭘입니까? 저거는 모자 아닙니까?)
 106037 #4 이거?(이거?)
 106037 @ 예.(예.)
 106037 #4 이거 어디 여행 갖당 사온 거주게.(이거 어디 여행 갔다가 사온 거지.)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옛날에 해먹은 밥 잇잖아예? 무슨 밥, 무슨 밥 잇언마씨?(밥 옛날에 해먹은 밥 잇잖아요? 무슨 밥, 무슨 밥 있었어요?)
 107001 #2 무신 밥 잇어서게. 보리밥에 좁쌀 낱 밥행 먹엇주게.(무슨 밥 있어. 보리밥에 좁쌀 넣어서 밥해서 먹었지.)
 107001 @ 그니깐 곤밥, 보리밥, 팻밥 뭐 여러 가지 잇엇잖아예.(그러니까 흰밥, 보리밥, 팻밥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107001 #2 여기 송년 들 때는 저 뭐 행 먹엇어. 밧이 나는 거 잇어. 밧이 영 파민 영 마늘 ㄴ치 요만큼 현 것들. 요만큼 현 것들 과당 숲아근앵 먹언.(여기 흥년 들 때는 저 뭐 해서 먹엇어. 밧에 나는 거 잇어. 밧에 이렇게 파면 이렇게 마늘같이 요만큼 한 것들. 요만큼 한 것들 파다가 삶아서 먹엇어.)
 107001 @ 음.(음.)
 107001 #2 송년 들 때.(흥년 들 때.)
 107008 @ 피밥은 알아져마씨? 피밥?(피밥은 알아져요? 피밥?)
 107008 #2 몰라 이디는 피밥 엇어.(몰라 여기는 피밥 없어.)
 107008 @ 그럼 감저밥¹⁰⁵⁾은?(그럼 ‘감저밥’은?)
 107008 #2 감저밥 행 먹엇주게.(‘감저밥’ 해서 먹었지.)
 107009 @ 그럼 감저밥은 어떻 하는 거마씨?(그럼 ‘감저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7009 #2 그뎨 옛날엔 막 우린 경 안 헛인디. 엇인 사람들은 보통 고구마를 막

105) ‘감저밥’은 고구마와 쌀을 섞어서 지은 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며, ‘감제밥’이라고도 말한다.

떨어놔.(그때는 옛날에는 막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없는 사람들은 보통 고구마를 막 떨어놔.)

107009 @ 예.(예.)

107009 #2 경 행 좁쌀 뇌근엥 밥행 먹엇주게. 게고 지슬 범벅도 먹고.(그렇게 해서 좁쌀 넣어서 밥해 먹엇지. 그리고 감자 범벅도 먹고.)

107009 @ 범벅도 해 먹고?(범벅도 해 먹고?)

107009 #2 어.(어.)

107001 @ 그 큰 밥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 옛날에 밥 종류.(그러면 밥 종류는 뭐, 뭐 잇어요? 옛날에 밥 종류.)

107001 #3 밥 종류 그거게.(밥 종류 그거.)

107001 @ 예.(예.)

107001 #3 보리쌀허고 좁쌀.(보리쌀하고 좁쌀.)

107001 @ 예.(예.)

107001 #3 곤쌀 호끔 경 해도 이제추룩은 먹지 못 허여. 조금씩이나베끼.(흰쌀 조금 그렇게 해도 이제처럼은 먹지 못 해. 조금씩밖에.)

107002 @ 그 큰 밥쌀 종류 잇잖아예? 밥할 때 쓰는 밥쌀.(그러면 밥쌀 종류 잇잖아요? 밥할 때 쓰는 밥쌀.)

107002 #3 밥쌀?(밥쌀?)

107002 @ 예. 그건 뭐, 뭐 잇엇수광?(예. 그건 뭐, 뭐 잇엇습니까?)

107002 #3 이제, 이제?(이제, 이제?)

107002 @ 아니, 예전에. 예전도 곶아 주고 지금도 곶아 주고.(아니, 예전에. 예전도 말해 주고 지금도 말해 주고.)

107002 #3 예전엔 그거 나 곶는 거 그 말 아니냐.(예전에는 그거 나 말한 거 그 말 아니냐.)

107002 @ 게니깐 또, 또 곶아 줘서.(그러니까 또, 또 말해 주십시오.)

107002 #3 보리쌀, 좁쌀.(보리쌀, 좁쌀.)

107002 @ 예.(예.)

107002 #3 곤쌀.(흰쌀.)

107002 @ 예.(예.)

107002 #3 경.(그렇게.)

107002 @ 그 다음에 요즘에는?(그 다음에 요즘에는?)

107002 #3 요즘에는?(요즘에는?)

107002 @ 예.(예.)

107002 #3 요즘에는 검은쌀도 잇어. 그거 쪼끔씩 넣곡.(요즘에는 검은쌀도 잇어. 그거 쪼끔씩 넣고.)

107002 @ 예.(예.)

107002 #3 그냥 이제 이 곤쌀허민 저 몸에 아니 좋덴. 보리쌀을 항상 서끼너.

게민 세 가지 서걱 밥 허는 거라.(그냥 이제 이 흰쌀하면 저 몸에 좋지 않다고. 보리쌀을 항상 섞어. 그러면 세 가지 섞어서 밥 하는 거라.)

107002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07002 #3 어.(어.)

107003 @ 그럼 보리밥에 대해서 아는 거 좀 알아 줘서. 어떻 만드는지.(그럼 보리밥에 대해서 아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만드는지.)

107003 #3 보리밥은.(보리밥은.)

107003 @ 예.(예.)

107003 #3 보리쌀 씻영 놔근엥 막 오래 삶으곡 허여사 밥이 돼여.(보리쌀 씻어서 넣어서 막 오래 삶고 해야 밥이 돼.)

107003 @ 음.(음.)

107003 #3 물 엇게 허젠 하민 막 오래 삶고, 불 경.(물 없게 하려고 하면 막 오래 삶고, 불 켜서.)

107003 @ 예.(예.)

107003 #3 또 이제 불 살랑 삶아사 물이 다 불어. 경 헤사 밥이 되는 거.(또 이제 불 살라서 삶아야 물이 다 불어. 그렇게 해야 밥이 되는 거.)

107003 @ 옛날에는 보리밥 주로 많이 먹었수광?(옛날에는 보리밥 주로 많이 먹었습니까?)

107003 #3 보리밥 엇언 못 먹언.(보리밥 없어서 못 먹었어.)

107003 @ 아. 보리밥도 엇언 못 먹언마씨? 그럼 뭐 드션마씨? 보리밥도 엇이른.(아.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럼 뭐 드셨어요? 보리밥도 없으면.)

107003 #3 막 송년 저부난.(막 흥년 저버리니까.)

107003 @ 그러니깐 뭐 드셨수광?(그러니깐 뭐 드셨습니까?)

107003 #3 아이고, 나 몰라. 나 몰라. 저 어디서 밀 하영 가는디. 밀 영 허면 알카?(아이고, 나 몰라. 나 몰라. 저 어디서 밀 많이 가는데. 밀 이렇게 하면 알겠어?)

107003 @ 예.(예.)

107003 #3 그거 가는디 그 채를 가꾸멍 채 나오주게?(그거 가는데 그 채를 가꾸면서 채 나오지?)

107003 @ 예.(예.)

107003 #3 그 채레 이레 다 보내민 그거 상 그거 밥 허영. 그걸로 밥허영 헤났어.(그 채에 이리 다 보내면 그거 사서 그거 밥 해. 그걸로 밥해서 했었어.)

107003 @ 음.(음.)

107003 #3 막 송년에.(막 흥년에.)

107004 @ 그럼 어르신 할머니 아까 물어본 건디예? 반지기밥 아까 물어봤잖아예?(그럼 어르신 할머니 아까 물어본 건데요? 반지기밥 아까 물어봤잖아요?)

107004 #3 으.(어.)

107004 @ 그거 다시 한번만 알아 줘서.(그거 다시 한번만 말해 주십시오.)

107004 #3 반지기밥은?(반지기밥은?)

107004 @ 예.(예.)

107004 #3 보리쌀이영 곤쌀이영 그치 뇌근엥 밥 해도 돼여. 그것이 반지기밥.
(보리쌀하고 흰쌀하고 같이 넣어서 밥 해도 돼. 그것이 반지기밥.)

107004 @ 언제 반지기밥은 해 먹어마씨?(언제 반지기밥은 해 먹어요?)

107004 #3 허건디 오래여. 그건 허영 먹건디 오래여.(한지 오래. 그건 많이 먹은
지 오래.)

107004 @ 그러니까 뭐 좋은 일 있을 때 반지기밥 먹어마씨?(그러니까 뭐 좋은
일 있을 때 반지기밥 먹어요?)

107004 #3 아니, 아니. 평상 아무라도 다.(아니, 아니. 평상 아무라도 다.)

107005 @ 그럼 흰밥 잇잖아예? 곤밥.(그럼 흰밥 잇잖아요? 흰밥.)

107005 #3 곤밥.(흰밥.)

107005 @ 곤밥, 흰밥은 언제 먹언마씨?(흰밥, 흰밥은 언제 먹었어요?)

107005 #3 그건 아무것도 아니 뇌근엥 곤쌀만 뇌근엥 허니까 흰밥이라고 허는
거주게.(그건 아무것도 안 넣어서 흰쌀만 넣어서 하니까 흰밥이라고 하는 거지.)

107005 @ 옛날에는 흰밥은 좀 특별할 때만 드셨수광?(옛날에는 흰밥은 좀 특별
할 때만 드셨습니까?)

107005 #3 아이고, 특별할 때만.(아이고, 특별할 때만.)

107005 @ 그러니까 언제, 언제 드셨마씨?(그러니까 언제, 언제 드셨어요?)

107005 #3 특별할 때만 어디 잔칫집에 강 새각시 허민 새각시 곤쌀 저 밥 밥으
로 사발로 하나 거령 상에 허민 그 새각시가 그거 아니 먹이민 아기들 가근엥 그거
얻어먹젠 조랑조랑 사민 혼 숟가락씩 걸이멍 다 먹영들 갖추. 경 헤낫어.(특별할 때
만 어디 잔칫집에 가서 새색시 하면 새색시 흰쌀 저 밥 밥으로 사발로 하나 덜어서
상에 하면 그 새색시가 그거 안 먹으면 아기들 가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조랑조랑
서면 한 숟가락씩 덜어서 다 먹고 갔지. 그렇게 했었어.)

107006 @ 그믐 조밥 잇잖아예? 조밥. 그건 줍쌀로 만든 거지예?(그러면 조밥
잇잖아요? 조밥. 그건 줍쌀로 만든 거지요?)

107006 #3 줍쌀로만 만들어져.(줍쌀로만 만들어져.)

107006 @ 아. 그럼 조밥은 뭐팡? 조밥은 저 잘 몰라부난. 조밥 좀 글아 줍서.
(아. 그럼 조밥은 무엇입니까? 조밥은 저 잘 몰라서. 조밥 좀 말해 주십시오.)

107006 #3 조팍은 조 밧이 허영 갈앙.(조밥은 조 밧에 해서 갈아서.)

107006 @ 예.(예.)

107006 #3 익으민 장만혜당근엥 기겡방에 강 지어당 경 행 밥 허는 거.(익으면
장만해서 방앗간에 가서 지어다가 그렇게 해서 밥 하는 거.)

107006 @ 경 행 밥 허는 거? 조팍은 그거 언제 먹어마씨? 조팍도 아무 때나 먹
어마씨?(그렇게 해서 밥 하는 거? 조팍은 그거 언제 먹어요? 조팍도 아무 때나 먹
어요?)

107006 #3 아무 때나.(아무 때나.)

107007 @ 팟밥은 언제 만들었어?(팟밥은 언제 만들었어요?)

107007 #3 팟밥?(팟밥?)

107007 @ 예. 팟밥.(예. 팟밥.)

107007 #3 팟밥은 보리쌀도 농곡 곤슬도 농곡 좁쌀도 농곡 팟도 농곡 여러 가지 낵도 웨어.(팟밥은 보리쌀도 넣고 흰쌀도 넣고 좁쌀도 넣고 팟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도 돼.)

107007 @ 게난 그건 언제 먹어마씨?(그러니까 그건 언제 먹어요?)

107007 #3 그거 아무 때나 못 먹어. 팟이 엇어.(그거 아무 때나 못 먹어. 팟이 없어.)

107007 @ 아.(아.)

107007 #3 아니 곶아. 혼웃이. 게난 보리쌀로 쨌로 허는 건 보리쌀. 이젠 좁쌀도 조도 아니 가난.(안 같아. 한없이. 그러니 보리쌀로 제일로 하는 건 보리쌀. 이제는 좁쌀도 조도 안 가니.)

107007 @ 예.(예.)

107007 #3 좁쌀도 엇어.(좁쌀도 없어.)

107008 @ 그럼 피밥도 드셨수광? 피밥?(그럼 피밥도 드셨습니까? 피밥?)

107008 #3 난 그건 몰라.(난 그건 몰라.)

107009 @ 그른 어 감저밥은 들어보셨수광? 감저밥?(그러면 어 ‘감저밥’은 들어 보셨습니까? ‘감저밥’?)

107009 #3 감저 갈아근엿 허민 감저 썰어 낵 밥 허영 꺾치 쫄에 낵 보리쌀에 낵.(고구마 갈아서 하면 고구마 썰어 넣어서 밥 해서 같이 쌀에 넣어서 보리쌀에 넣어서.)

107009 @ 그건 어떻게?(그건 어떻게?)

107009 #3 그 배 부르젠. 그 보리쌀이 엇이민 감저 넣영 허주게. 경 행 먹엇주 게.(그 배 부르려고. 그 보리쌀이 없으면 고구마 넣어서 하지. 그렇게 해서 먹엇지.)

107009 @ 그것도 옛날에 드셨지예? 감저밥.(그것도 옛날에 드셨지요? ‘감저밥’.)

107009 #3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7010 @ 무밥은 알아마씨? 무밥? 무? 무밥?(무밥은 알아요? 무밥? 무? 무밥?)

107010 #3 무?(무?)

107010 @ 네.(네.)

107010 #3 무는 저 늑뻘. 그거 썰어근엿 밥 해 먹지 안 헛고.(무는 저 ‘늑뻘’. 그거 썰어서 밥 해 먹지 안 헛고.)

107010 @ 여기서는 안 먹언마씨?(여기서는 안 먹었어요?)

107010 #3 그건 저 물만 찰찰 나오기 때문 밥해도 물이 나오주게.(그건 저 물만 찰찰 나오기 때문에 밥해도 물이 나오지.)

107010 @ 예.(예.)

107010 #3 경 해부난 잘 안 해.(그렇게 해서 잘 안 해.)
 107010 @ 늬삐로는 잘 안 헨마씨?(무로는 잘 안 했어요?)
 107010 #3 안 허여. 짐치나 허곡. 저 웬장 농곡 국 끓여 먹는 거.(안 해. 김치나 하고. 저 된장 놓고 국 끓여 먹는 거.)
 107011 @ 툷밥은 알아마씨? 툷밥?(툷밥은 알아요? 툷밥?)
 107011 #3 툷밥도.(툷밥도.)
 107011 @ 밥헐 때 툷도 집어넣엇수광?(밥할 때 툷도 집어넣엇습니까?)
 107011 #3 어. 밥헐 때 툷 낱 먹는 사람도 잇어.(어. 밥할 때 툷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잇어.)
 107011 @ 어르신은 안 해보션마씨?(어르신은 안 해보셨지요?)
 107011 #3 이 도시에서가 더 잘 허영게 그건.(이 도시에서가 더 잘 해. 그건.)
 107011 @ 아, 시에?(아, 시에?)
 107011 #3 어. 시에. 나 그디 강 살아보난 그 툷밥 허영 먹는 거 막 나와.(어. 시에. 나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그 툷밥 해서 먹는 거 막 나와.)
 107011 @ 그럼 신도에서는 안 해 먹언마씨?(그럼 ‘신도’에서는 안 해 먹었어요?)
 107011 #3 안 허연.(안 했어.)
 107012 @ 그럼 패밥은 들어봣수광? 패밥?(그럼 패밥은 들어봣습니까? 패밥?)
 107012 #3 그 옛날은 패 허여당 우리도 먹어낫주만은.(그 옛날은 패 해다가 우리도 먹어낫지.)
 107012 @ 아, 기팍? 패밥은 처음 들어봣인디 패밥은 뭘팍?(아, 그렇습니까? 패밥은 처음 들어봣는데 패밥은 무엇입니까?)
 107012 #3 패밥은 큰 솔에 놔근엿 오래 삶으면.(패밥은 큰 솔에 넣어서 오래 삶으면.)
 107012 @ 예.(예.)
 107012 #3 그 경 안 허민 질경 못 먹어. 게난 막 오래 삶아사. 허영 경 삶앙 이제 무신 ㄱ루나 무시거 저 시민 것에 버무려근엿 그 먹는 거라.(그 그렇게 안 하면 질겨서 못 먹어. 그러니 막 오래 삶아야. 해서 그렇게 삶아서 이제 무슨 가루나 무엇 저 있으면 것에 버무려서 그 먹는 거야.)
 107012 @ 아, 그게 패밥이팍?(아, 그게 패밥입니까?)
 107012 #3 으.(어.)
 107013 @ 그든 이제 밥 먹을 때 국이랑 같이 먹잖아예?(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 국이랑 같이 먹잖아요?)
 107013 #3 응.(응.)
 107013 @ 국은 종류가 옛날에 뭐, 뭐 잇언마씨? 어르신 만든 거 기억나는 거 곶아 줍서.(국은 종류가 옛날에 뭐, 뭐 있었어요? 어르신 만든 거 기억나는 거 말해주십시오.)

107013 #3 녹말도 넣엉 먹을 때 잇고.(나물도 넣어서 먹을 때 잇고.)
 107013 @ 예.(예.)
 107013 #3 무수도 썰엉 넣엉 먹을 때도 잇고. 이제 메역도 즈물어당 먹을 때 잇고. 이제 툃도 먹어.(무도 썰어서 넣어서 먹을 때도 잇고. 이제 미역도 캐어다가 먹을 때 잇고. 이제 툃도 먹어.)
 107013 @ 예.(예.)
 107013 #3 먹는 사람은 국 허멍.(먹는 사람은 국 하면서.)
 107013 @ 예.(예.)
 107013 #3 게난 그거주게.(그러니까 그거지.)
 107014 @ 그럼 녹말국 잇잖아예? 녹말국. 녹말국 좀 곱아 줘서. 만드는 거. 그런 거마씨.(그럼 나물국 잇잖아요? 나물국. 나물국 좀 말해 주십시오. 만드는 거. 그런 거요.)
 107014 #3 녹말 맛이 갈앗당 이제 강 캐다근엥 썰엉 판짜¹⁰⁶⁾ 썰엉 썰어 놔근엥 된장 넣고 국 허민 그거.(나물 밭에 갈앗다가 이제 가서 캐다가 썰어서 ‘판짜’ 썰어서 썰어 놔서 된장 넣고 국 하면 그거.)
 107014 @ 그거 녹말국?(그거 나물국?)
 107014 #3 으.(어.)
 107015 @ 그럼 옛날에 콩나물국도 드셨지예?(그럼 옛날에 콩나물국도 드셨지요?)
 107015 #3 이제도 콩나물국. 이제도 먹주게 먹어.(이제도 콩나물국. 이제도 먹지 먹어.)
 107015 @ 예. 이제도 많이 먹지예?(예. 이제도 많이 먹지요?)
 107015 #3 어.(어.)
 107015 @ 그럼 그 콩나물국은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그 콩나물국은 어떻게 만 들어요?)
 107015 #3 그거 콩 이젠 질르는 데 잇이난 질리는 데 강 받아근엥 허염신디. 옛날엔 집에서 이녁냥으로 질러근엥 헤낫인디 이젠 질르지 안 허고 사당 허여.(그거 콩 이젠는 기르는 데 잇으니까 기르는 데 가서 받아서 하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스스로 길러서 했었는데 이제는 기르지 안 하고 사다가 해.)
 107015 @ 예전에 콩나물 키워 보신 적 잇어마씨?(예전에 콩나물 키워 보신 적 잇어요?)
 107015 #3 키우젠 허난.(키우려고 하니까.)
 107015 @ 예.(예.)
 107015 #3 저 잘못허민 썩어불곡 허난 안 허연.(저 잘못하면 썩어버리고 하니까 안 했어.)
 107016 @ 그믄 못국 못국도 드셨지예? 늬뻬국.(그러면 못국 못국도 드셨지요?)

106) ‘판짜’은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못국.)

107016 #3 늪빼국은 항상.(못국은 항상.)

107016 @ 아, 항상.(아, 항상.)

107016 #3 그건 김치도 허영 떡국. 영 즈질게 썰영 무청도 먹고 다 허여.(그건 김치도 해서 먹고. 이렇게 잘고 가늘게 썰어서 무쳐서도 먹고 다 해.)

107016 @ 늪빼국은 어떻 만들언마씨?(못국은 어떻게 만들었어?)

107016 #3 그냥 썰영. 썰어근영 물에 넣고 장만 놓으면 되는 거.(그냥 썰어서. 썰어서 물에 넣고 장만 놓으면 되는 거.)

107017 @ 그럼 콩국도 드셨봤수광? 콩국? 콩국은 언제 드셨마씨?(그럼 콩국도 드셔봤습니까? 콩국? 콩국은 언제 드셨어?)

107017 #3 그냥 먹고 싶을 때.(그냥 먹고 싶을 때.)

107017 @ 콩국 만드는 거 좀 글아 줘서.(콩국 만드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7017 #3 그거 만드는 거?(그거 만드는 거?)

107017 @ 예.(예.)

107017 #3 저 누물이영 문딱 행 씻어근영 문딱 그릇에 낵 허곡.(저 나물하고 전부 해서 씻어서 전부 그릇에 놔서 하고.)

107017 @ 예.(예.)

107017 #3 물은 솟이 낵. 물이 와상와상 웨어가민 콩가루 칸 거 이제 누물부터 낵 허주게.(물은 솥에 넣어서. 물이 와삭와삭 끓으면 콩가루 탄 거 이제 나물부터 넣어서 하지.)

107017 @ 예.(예.)

107017 #3 콩가루 간 거 이젠 우에 영 싹 영 허게 비우민 이제 그 부끄지 안 허여근영 그대로 불 줄여근영 허민 익주게.(콩가루 간 거 이제 위에 이렇게 싹 이렇게 하게 비우면 이제 그 끓어 넘치지 않게 해서 그대로 불 줄여서 하면 익지.)

107017 @ 예.(예.)

107017 #3 게민 누물도 익고 ㄱ루도 익고 행 먹주.(그러면 나물도 익고 가루도 익고 해서 먹지.)

107018 @ 어르신 그럼 호박잎국도 드셔보셨마씨?(어르신 그럼 호박잎국도 드셔 보셨어?)

107018 #3 호박잎국은 그건 옛날에 하도 먹어부난 이제는 안 먹어.(호박잎국은 그건 옛날에 하도 먹어버리니까 이제는 안 먹어.)

107018 @ 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지예? 그럼 뭐 기억나는 거 엇수광? 특별히 호박잎국 같은 거?(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지요? 그럼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특별히 호박잎국 같은 거?)

107018 #3 호박은 썰어근영 국도 허영 먹고 반찬도.(호박은 썰어서 국도 해서 먹고 반찬도.)

107019 @ 모자반국 잇잖아예? 모자반국. 톱국.(모자반국 잇잖아요? 모자반국.

‘뭍죽’.)

107019 #3 뭍죽이주.(‘뭍죽’이지.)

107019 @ 예. 뭍죽에 대해서 뭐 어르신 말씀해 주실 거 잊어마씨? 뭍죽은? 뭍죽은 보통 언제 먹어마씨?(예. 모자반국에 대해서 뭐 어르신 말씀해 주실 거 없어요? 모자반국은? 모자반국은 보통 언제 먹어요?)

107019 #3 뭍죽은 뭍만 빨아 넣으 허는 거주게.(모자반국은 모자반만 빨아 넣어서 하는 거지.)

107019 @ 예. 옛날에는 누구 돌아가셨을 때 뭍죽 안 드셨마씨?(예. 옛날에는 누구 돌아가셨을 때 모자반국 안 드셨어요?)

107019 #3 이제 동네에 누게가 돌아가성 영장나민.(이제 동네에 누가 돌아가셔서 초상이 나면.)

107019 @ 예.(예.)

107019 #3 일포 허는 날. 뭍 사다근엥 저 듯. 드새기퀘기 숲아난 물에 낡 경 행 이제 다 오는 사람들 쥬 먹엇주게. 이제 그거 안 허여.(조건 하는 날. 모자반 사다가 저 돼지. 돼지고기 삶은 물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오는 사람들 쥬서 먹엇지. 이제는 그거 안 해.)

107019 @ 그건 지금 동네에서 이제도 하지 않아마씨?(그건 지금 동네에서 이제도 하지 않아요?)

107019 #3 이제도 어떻 허당 어떤 집은 허주만은. 그거 허젠 허민 일이 하주게. 경 헤부난 실평들 안 허여.(이제도 어떻게 하다가 어떤 집은 하지만. 그거 하려고 하면 일이 많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귀찮아서 안 해.)

107020 @ 그럼 생선국 잇잖아예? 생선국 만들 때는 보통 생선 뭐 썬수광? 고기?(그럼 생선국 잇잖아요? 생선국 만들 때는 보통 생선 뭐 썬습니까? 고기?)

107020 #3 생선 맛 좋게 허젠 허민. 생선 잡양.(생선 맛 좋게 하려고 하면. 생선 잡아서.)

107020 @ 계난 어떤 거?(그러니까 어떤 거?)

107020 #3 생선 막 싱싱한 거 벌경현 거 나오민 그거 맛 좋고. 호끔 오랜 건 맛 웃고. 고등에는 국 끓영 먹지 안 헤부난 우린.(생선 막 싱싱한 거 벌건 거 나오면 그거 맛 좋고. 조금 오랜 건 맛없고. 고등어는 국 끓여서 먹지 않으니 우리는.)

107020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20 #3 그냥 반찬이나베끼.(그냥 반찬이나밖에.)

107021 @ 그럼 메역국 잇잖아예?(그럼 미역국 잇잖아요?)

107021 #3 응.(응.)

107021 @ 메역국 보통 생일날 먹는다. 그거 만드는 것 좀 곱아 줘서.(미역국 보통 생일날 먹는데. 그거 만드는 것 좀 말해 주십시오.)

107021 #3 메역국도게 메역 막 물에서 막 물에서 잘 빨아야.(미역국도 미역 말 물에서 막 물에서 잘 빨아야.)

107021 @ 아, 잘 빨아야 돼마씨?(아, 잘 빨아야 되요?)

107021 #3 어. 경 안 허민 초라와¹⁰⁷). 계난 경 빨아근앵게 썰엉 그것도 메루치나 조금 농곡 장물이나 놓고 경 허민 그것도 맛있어.(어. 그렇게 안 하면 뽀어. 그러니 그렇게 빨아서 썰어서 그것도 멀치나 조금 농고 장물이나 놓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맛있어.)

107022 @ 그 여름에는 냉국 많이 먹잖아예? 옛날에도 냉국 많이 드셨수광? 뉘, 오이 냉국 먹언마씨?(그 여름에는 냉국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도 냉국 많이 드셨습니까? 뉘, 오이냉국 먹었어요?)

107022 #3 오이냉국도 허곡. 웨들 우영팻이 잇인 사람은 웨 나민 웨 열민 웨 타다근앵 냉국 허여.(오이냉국도 하고. 외들 텃밭이 잇는 사람은 외 나면 외 열면 외 따다가 냉국 해.)

107022 @ 웨도 해마씨?(외도 해요?)

107022 #3 어.(어.)

107022 @ 그럼 여름에 냉국 많이 드셨지예? 그믄 겨울에 막 주로 드시는 국은 엇엇수광?(그럼 여름에 냉국 많이 드셨지요? 그러면 겨울에 막 주로 드시는 국은 없었습니까?)

107022 #3 겨울엔 콩국이나 허곡. 이제 메역도 그냥 메역만 넣엉 국 허곡. 나물도 나물 넣엉 국 허곡. 이 콩국 곶은 건 자꾸 허지 안 헛어. 가끔씩 허곡.(겨울에는 콩국이나 하고. 이제 미역도 그냥 미역만 넣어서 국 하고. 나물도 나물 넣어서 국 하고. 이 콩국 곶은 건 자꾸 하지 안 헛어. 가끔씩 하고.)

107023 @ 그럼 이거 말앙 성계국은 뉘 드셔보션마씨?(그럼 이거 말고 성계국은 뉘 드셔보셨어요?)

107023 #3 성계국도 저 물 끓어가민 메역이영 성계영 놔근앵 그되 장이나 놔근앵 허민 맛 좋아.(성계국도 저 물 끓어가면 미역하고 성계하고 넣어서 거기 장이나 넣어서 하면 맛 좋아.)

107023 @ 보말국¹⁰⁸은 드셔보션마씨? 보말국.(‘보말국’은 드셔보셨어요? ‘보말국’.)

107023 #3 예고 보말국은 모살 하영 잇어부난 누게 주난 테껴불언. 못 먹으크라.(예고 ‘보말국’은 모래 많이 잇어버리니까 누가 주니까 버려버렸어. 못 먹겠더라.)

107023 @ 그믄 가시리국은 어떻 드셔보션마씨?(그러면 가시리국은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107023 #3 가시리 어디 그거 국 허여?(가시리 어디 그거 국 해?)

107023 @ 그럼 물훤는 옛날에도 많이 드셨수광? 물훤?(그럼 물회는 옛날에도 많이 드셨습니까? 물회?)

107) ‘초라하다’는 ‘뺨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 ‘보말국’은 고등으로 끓인 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23 #3 물훤? 옛날엔 그냥 먹었인디 이제도 먹주게.(물회? 옛날에는 그냥 먹었는데 이제도 먹지.)

107023 @ 예. 이제도 한치물훤, 자리물훤 먹잖아예.(예. 이제도 한치물회, 자리물회 먹잖아요.)

107023 #3 무사 아니라.(왜 아니야.)

107023 @ 그럼 할머니 옛날엔 뭐 많이 드셨수광?(그럼 할머니 옛날에는 뭐 많이 드셨습니까?)

107023 #3 옛날에도 그거주게. 자리훤. 자리훤 맛 좋아 자리훤 먹주게.(옛날에도 그거지. 자리회. 자리회 맛 좋아서 자리회 먹지.)

107001 @ 할머니 옛날에 밥 종류는 뭐, 뭐 있었수광? 밥 종류?(할머니 옛날에 밥 종류는 뭐, 뭐 있었습니까? 밥 종류?)

107001 #4 밥 종류 무싱거게. 종류가 무싱거 있었어. 보리밥 조팍이나배끼.(밥 종류 무엇. 종류가 무엇 있었어. 보리밥 조팍이나밖에.)

107001 @ 아, 보리밥, 조팍. 그 다음 또? 곤밥?(아, 보리밥, 조팍. 그 다음 또? 흰밥?)

107001 #4 곤밥.(흰밥.)

107002 @ 음. 그럼 그 밥헐 때 쌀 잇잖아예? 밥쌀.(음. 그럼 그 밥할 때 쌀 잇잖아요? 밥쌀.)

107002 #4 응.(응.)

107002 @ 그럼 밥쌀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그럼 밥쌀 종류는 뭐, 뭐 있었어요?)

107002 #4 보리, 보리게.(보리, 보리.)

107002 @ 보리랑?(보리랑?)

107002 #4 조 싯고.(조 잇고.)

107002 @ 조.(조.)

107002 #4 콩 넣젠 허민 콩도 넣곡. 팥도 넣곡게.(콩 넣으려고 하면 콩도 넣고. 팥도 넣고.)

107002 @ 예.(예.)

107002 #4 경 헤근엥 만드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

107003 @ 그럼 보리밥 잇잖아예?(그럼 보리밥 잇잖아요?)

107003 #4 예.(예.)

107003 @ 보리밥에 대해서 좀 곶아 줘서. 보리밥.(보리밥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보리밥.)

107003 #4 보리밥은 보리밥이주 무싱거 잇어게?(보리밥은 보리밥이지 무엇 잇어?)

107003 @ 그러니까 보리밥 언제 먹고 어떻 만들고 허는 거마씨?(그러니까 보리밥 언제 먹고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107003 #4 아니 보리밥 어떻 만들어게. 쓸 허영.(아니 보리밥 어떻게 만들어. 쌀 해서.)

107003 @ 예.(예.)

107003 #4 방에에 지어당 막 틀러근엥 다시 ㄹ레에 곶아근엥 그거.(방아에 지어다가 막 말려서 다시 맷돌에 갈아서 그거.)

107003 @ 예.(예.)

107003 #4 쓸 멘들어 낫다근엥 그거 거러 놓으멍 밥헛주게.(쌀 만들어 낫다가 그거 거러 놓으면서 밥헛지.)

107003 @ 그럼 보리밥을 그나마 제일 그나마 많이 먹언마씨?(그럼 보리밥을 그나마 제일 그나마 많이 먹었어요?)

107003 #4 어. 옛날인 그 보리밥을 많이 먹엇주게.(어. 옛날에는 그 보리밥을 많이 먹엇지.)

107004 @ 그럼 할머니 혹시 반지기밥도 알아마씨?(그럼 할머니 혹시 ‘반지기밥’도 알아요?)

107004 #4 반지기밥이사 요새게 스뭇 양광으로 보리쌀 게난 넣영 허는 거라. 보리 많이 나난.(‘반지기밥’이야 요새 사뭇 양광으로 보리쌀 그러니 넣어서 하는 거야. 보리 많이 나니까.)

107004 @ 예?(예?)

107004 #4 보리 많이 나난 보리쌀 흐쌀 농곡 곤 곤밥 곤쌀 농곡 허민 그것이 반지기주게.(보리 많이 나니까 보리쌀 조금 놓고 흰 흰밥 흰쌀 놓고 하면 그것이 반지기지.)

107004 @ 아, 보리쌀이랑 곤쌀이랑 조금씩 서경?(아, 보리쌀이랑 흰쌀이랑 조금씩 섞어서?)

107004 #4 게. 경 서끄영 허민 반지기주게.(그럼. 그렇게 섞어서 하면 반지기지.)

107004 @ 음. 옛날에는 반지기 많이 헛지예? 안 헛수광?(음. 옛날에는 반지기 많이 헛지요? 안 헛습니까?)

107004 #4 무사 안 헤게. 옛날에도 반지기도 하영 헛주게.(왜 안 해. 옛날에도 반지기도 많이 헛지.)

107004 @ 아, 옛날에도 하영 반지기 헛마씨?(아, 옛날에도 많이 반지기 헛어요?)

107004 #4 어.(어.)

107004 @ 그럼 그 반지기밥은 무사 헤 먹언마씨?(그럼 그 ‘반지기밥’은 왜 헤 먹었어요?)

107004 #4 곤쌀이 엇이난.(흰쌀이 없으니까.)

107004 @ 아, 곤쌀이 엇이난?(아, 흰쌀이 없으니까?)

107004 #4 엇이난 보리쌀 더러 ㄹ근엥 헛주게 반지기밥.(없으니까 보리쌀 더러

놔서 했지 ‘반지기밥’.)

107005 @ 그럼 그 곤밥은 보통 언제 먹었마씨?(그럼 그 흰밥은 보통 언제 먹었어요?)

107005 #4 곤밥은 제사 때나.(흰밥은 제사 때나.)

107005 @ 제사 때나? 그럼 곤밥이나 보리밥이나 만드는 거는 똑같아마씨?(제사 때나? 그럼 흰밥이나 보리밥이나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107005 #4 어. 똑같으주게.(어. 똑같지.)

107006 @ 그럼 조팝 잇잖아예?(그럼 조밥 잇잖아요?)

107006 #4 어.(어.)

107006 @ 조팝은 언제, 언제 먹고 어떻 만들주마씨?(조밥은 언제, 언제 먹고 어떻게 만들지요?)

107006 #4 조팝은 보리쌀 엇인 사람 줍쌀만 넣곡.(조밥은 보리쌀 없는 사람 줍쌀만 넣고.)

107006 @ 예.(예.)

107006 #4 보리 이제 그저 사름들은 보리쌀에 줍쌀에 서끄영 헤사 맛이 좋주게.(보리 이제 그저 사름들은 보리쌀에 줍쌀에 섞어서 해야 맛이 좋지.)

107006 @ 아, 보리랑 조랑 서경?(아, 보리랑 조랑 섞어서?)

107006 #4 어. 서끄영 허민 맛이 좋아.(어. 섞어서 하면 맛이 좋아.)

107006 @ 그거 서끈 것도 반지기라고 헤마씨?(그거 섞은 것도 반지기라고 헤요?)

107006 #4 아니.(아니.)

107006 @ 그럼 그 반지기는 보리랑 곤쌀만 서경?(그럼 그 반지기는 보리랑 흰쌀만 섞어서?)

107006 #4 보리랑 곤쌀만 넣영 허민 그제 반지기주게.(보리랑 흰쌀만 넣어서 하면 그제 반지기지.)

107006 @ 아, 그럼 조팝, 조팝이 보리밥보다 더 귀헌 것광?(아, 그럼 조밥, 조밥이 보리밥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107006 #4 아니.(아니.)

107006 @ 아니?(아니?)

107006 #4 귀허진 았은디 그제 보리쌀 엇이민 조팝만 행 먹었어.(귀하지는 았은데 그제 보리쌀 없으면 조밥만 해서 먹었어.)

107006 @ 아, 보리쌀 엇이른?(아, 보리쌀 없으면?)

107006 #4 어.(어.)

107007 @ 할머니 팯밥도 먹었수광? 옛날에? 팯밥?(할머니 팔밥도 먹었습니까? 옛날에? 팔밥?)

107007 #4 팯이사 그제 흐쌀 쓸에 서끄민 팯밥 웨는 거주게.(팔이야 그제 조금쌀에 섞으면 팔밥 되는 거지.)

107007 @ 아, 그럼 풋은 어디서 нама씨?(아, 그럼 팔은 어디서 나요?)

107007 #4 풋게 이디서 갈민 되는 거주게. 흥끔씩 허여근앵.(팔 여기서 갈면 되는 거지. 조금씩 해서.)

107007 @ 아. 할머니도 간 적 잇어마씨?(아. 할머니도 간 적 잇어요?)

107007 #4 어.(어.)

107007 @ 그럼 그거 팻은 언제 갈아마씨?(그럼 그거 팻은 언제 갈아요?)

107007 #4 것도 콩 갈 때.(것도 콩 갈 때.)

107007 @ 아, 콩 갈 때?(아, 콩 갈 때?)

107007 #4 어.(어.)

107007 @ 그럼 그 풋밥은 그럼 언제 먹어마씨? 보통?(그럼 그 팔밥은 그럼 언제 먹어요? 보통?)

107007 #4 어?(어?)

107007 @ 풋밥은 언제 먹어마씨?(팔밥은 언제 먹어요?)

107007 #4 풋?(팔?)

107007 @ 예.(예.)

107007 #4 아니 그거 어떻 맛 좋게 허젠 허민 풋 서끄어근앵.(아니 그거 어떻게 맛 좋게 하려고 하면 팔 섞어서.)

107007 @ 예.(예.)

107007 #4 영 모다질 때 ㄱ튼 때 행 먹엇주게.(이렇게 모여질 때 같은 때 해서 먹엇지.)

107007 @ 아, 모다졌을 때?(아, 모여졌을 때?)

107007 #4 어. 경 혈 때나. 잔치 때 ㄱ튼 때도 풋 서끄어근 행 먹엇주게.(어. 그렇게 할 때나. 잔치 때 같은 때도 팔 섞어서 해서 먹엇지.)

107007 @ 아, 잔치 때도?(아, 잔치 때도?)

107007 #4 어. 옛날에는(어. 옛날에는.)

107008 @ 할머니 피밥도 알아마씨? 피밥? 것도 햇수광?(할머니 피밥도 알아요? 피밥? 것도 햇습니까?)

107008 #4 피가 이제 지장이라.(피가 이제 기장이야.)

107008 @ 지장?(기장?)

107008 #4 어. 지장 이제 지장이라.(어. 기장 이제 기장이야.)

107008 @ 예. 그것도 이제 밥행 먹어마씨? 옛날에도?(예. 그것도 이제 밥해서 먹어요? 옛날에도?)

107008 #4 아니 옛날에 그런 거 행 먹지 았앗주게. 이제사 그거 지장쌀 행 먹어 받주.(아니 옛날에 그런 거 해서 먹지 았앗지. 이제야 그거 기장쌀 해서 먹어 보고 있지.)

107008 @ 예.(예.)

107008 #4 아니 우리 옛날엔 그런 거 안 해봤주.(아니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해봤지.)

107008 @ 아, 옛날엔 그런 거 안 해봤마씨?(아,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107008 #4 어.(어.)

107009 @ 그럼 감저밥은 드셔봤수광?(그럼 ‘감저밥’은 드셔봤습니까?)

107009 #4 아니 그거 감저는게 쓸 엇인 사람 감저 밥 할 때에 감저 썰엇 허영 밥했주게.(아니 그거 고구마는 쌀 엇는 사람 고구마 밥 할 때에 고구마 썰어서 해서 밥했지.)

107009 @ 예. 그거 어떻 해마씨? 밥할 때 그믄? 그냥 썰엇 쌀 위에 놔마씨?(예. 그거 어떻게 해요? 밥할 때 그러면? 그냥 썰어서 쌀 위에 놔요?)

107009 #4 어. 썰 흐썰 썰 불리젠.(어. 쌀 조금 쌀 불리려고.)

107009 @ 예.(예.)

107009 #4 먹을 거 엇이난 경 헝 감저밥 감저 놉 헛주. 그 감저밥 들지도 안 해게.(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감저밥’ 고구마 놔서 했지. 그 ‘감저밥’ 달지 않아.)

107009 @ 아, 잘 안 팔아마씨?(아, 잘 안 팔아요?)

107009 #4 아니. 들지도 았고게 허젠도 안 허주만은.(아니. 달지 았고 하려고도 안 하지만.)

107009 @ 예.(예.)

107009 #4 쏘이 막 봄 웨민 양성 모지른 사람이 핫주게.(쌀이 막 봄 되면 양성 부족한 사람이 많지.)

107009 @ 예.(예.)

107009 #4 이제 경 해 놓으민 그 경 해근엇 흐썰 밥 불르젠.(이제 그렇게 해 놓으면 그 그렇게 해서 조금 밥 불리려고.)

107009 @ 아, 밥 불르젠?(아, 밥 불리려고?)

107009 #4 어. 불르젠 감저 낫주.(어. 불리려고 고구마 낫지.)

107009 @ 예.(예.)

107009 #4 쟈디 감저 경 흐엇이 놓주 았앗주게.(그런데 고구마 그렇게 별로 놓지 았앗지.)

107010 @ 그럼 밥할 때 늣삐도 낫수광? 무밥으로?(그럼 밥할 때 무도 낫습니까? 무밥으로?)

107010 #4 아. 무도 넣엇주게.(아. 무도 넣엇지.)

107010 @ 아, 그건 언제 넣언마씨?(아, 그건 언제 넣엇어요?)

107010 #4 언제는? 그저 무 나올 때 허는 거주게.(언제는? 그저 무 나올 때 하는 거지.)

107010 @ 무 나올 때?(무 나올 때?)

107010 #4 그거 별미로도 허곡게.(그거 별미로도 하고.)

107011 @ 그럼 할머니 툇밥은 알아마씨? 툇밥?(그럼 할머니 툇밥은 알아요? 툇밥?)

107011 #4 툇밥은 해변서들이나 툇밥을 먹었주. 우린 그거 잘 안 헛주게. 이디선 잘 안 헛어.(툇밥은 해변서나 툇밥을 먹었지. 우리는 그거 잘 안 헛지. 여기서는 잘 안 헛어.)

107011 @ 그지예? 여기 해변. 게난 그 여기 웃드리 마을에서는 잘 안 먹었지예? 툇밥?(그렇지요? 여기 해변. 그러니까 그 여기 '웃드리' 마을에서는 잘 안 먹었지요? 툇밥?)

107011 #4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해 먹었주게. 툇밥 ㄴ튼 거.(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해 먹었지. 툇밥 같은 거.)

107012 @ 그럼 패밥도 들어봤수광?(그럼 패밥도 들어봤습니까?)

107012 #4 게메 패 ㄴ튼 거.(글쎄 패 같은 거.)

107012 @ 예, 패 ㄴ튼 거.(예, 패 같은 거.)

107012 #4 옛날에 물로 삶앙 패 ㄴ근앵 헛주게.(옛날에 물로 삶아서 패 ㄴ서 헛지.)

107012 @ 아, 물로 삶앙 패 ㄴ근앵 밥헛마씨?(아, 물로 삶아서 패 ㄴ서 밥헛어요?)

107012 #4 어. 경 헛주게.(어. 그렇게 헛지.)

107012 @ 할머니도 해냇수광?(할머니도 헛었습니까?)

107012 #4 우리도 물 삶은 거 삶은 거 ㄴ냇주게 먹어도 보고.(우리도 물 삶은 거 삶은 거 봤었지 먹어도 보고.)

107012 @ 먹어도 보고?(먹어도 보고?)

107012 #4 어.(어.)

107013 @ 그럼 밥 말앙 국 잇잖아예? 국은 무슨 종류 잇언마씨?(그럼 밥 말고 국 잇잖아요? 국은 무슨 종류 있었어요?)

107013 #4 국?(국?)

107013 @ 국은 무슨 국 무슨 국 무슨 국 잇엇주마씨?(국은 무슨 국 무슨 국 무슨 국 잇엇지요?)

107013 #4 국이사게 아무거나라도게 ㄴ뻘로도 무 무도 썰잉 ㄴ잉 허곡.(국이야 아무거나라도 무로도 무 무도 썰어서 ㄴ어서 하고.)

107013 @ 예.(예.)

107013 #4 배추도 ㄴ잉 허곡. 옛날에는 뭐 메역도 메역이라도 사당 국 ㄴ이고 경 헛주게.(배추도 ㄴ어서 하고. 옛날에는 뭐 미역도 미역이라도 사다가 국 ㄴ이고 그렇게 헛지.)

107014 @ 그럼 ㄴ물국 알아마씨? ㄴ물국?(그럼 나물국 알아요? 나물국?)

107014 #4 게메 그게 배춧국이 그 나물국이주게.(글쎄 그게 배춧국이 그 나물국이지.)

107014 @ 예, 예. 녹물국은 녹물국은 어떻 만들어마씨?(예, 예. 나물국은 나물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14 #4 녹물국 어떻 해계. 된장 넣곡 영.(나물국 어떻게 해. 된장 넣고 이렇게.)

107014 @ 예.(예.)

107014 #4 경 행 녹물국 끓이곡.(그렇게 해서 나물국 끓이고.)

107014 @ 그냥 된장만 넣으면 돼마씨?(그냥 된장만 넣으면 되요?)

107014 #4 된장도 넣곡 맛 좋게 뭐 아무거나 행 넣영 끓이면 되는 거주계.(된장도 넣고 맛 좋게 뭐 아무거나 해서 넣어서 끓이면 되는 거지.)

107015 @ 녹물국도 먹고 그 콩나물국도 해 먹었지예?(나물국도 먹고 그 콩나물국도 해 먹었지요?)

107015 #4 어 콩. 콩녹물도 사다근영 콩나물국도 행 먹곡.(어 콩. 콩나물도 사다가 콩나물국도 해서 먹고.)

107015 @ 아, 콩나물도 사당 넣영 해 먹고?(아, 콩나물도 사다가 넣어서 해 먹고?)

107015 #4 어.(어.)

107016 @ 못국은마씨?(못국은요?)

107016 #4 어?(어?)

107016 @ 못국. 늪빼국.(못국. 못국.)

107016 #4 늪빼국. 늪빼국은 이녁 드러 하영 허는 거난계 이디서도.(못국. 못국은 이녁 매우 많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107016 @ 예.(예.)

107016 #4 계난계 승키 엇이른 늪빼 썰어낱 국도 허곡계.(그러니까 푸성귀 없으면 무 썰어놔서 국도 하고.)

107016 @ 아, 승키 엇이른?(아, 푸성귀 없으면?)

107016 #4 승키 실 때도 무 좋아.(푸성귀 있을 때도 무 좋아.)

107016 @ 아, 무도 좋아마씨?(아, 무도 좋아요?)

107016 #4 어.(어.)

107016 @ 그럼 그 승키는 많이 키워마씨? 옛날에는?(그럼 그 푸성귀는 많이 키웠어요? 옛날에는?)

107016 #4 벨로.(별로.)

107017 @ 그럼 옛날에 할머니 콩국도 해 드션마씨?(그럼 옛날에 할머니 콩국도 해 드셨어요?)

107017 #4 콩은 콩 갈아다근영 콩국도 행 먹곡계.(콩은 콩 갈아다가 콩국도 해서 먹고.)

107017 @ 그럼 그건 보통 여름에 먹었수광? 콩국은?(그럼 그건 보통 여름에 먹었습니까? 콩국은?)

107017 #4 아니, 저슬에.(아니, 겨울에.)

107017 @ 아. 저슬에?(아. 겨울에?)

107017 #4 어.(어.)

107017 @ 그럼 할머니도 콩국 만들어 보셨어?(그럼 할머니도 콩국 만들어 보셨어요?)

107017 #4 어. 콩 이제도 콩 갈아다근엥 영 콩국도 허영 떡국 콩죽도 허영 먹고 햐주게.(어. 콩 이제도 콩 갈아서 이렇게 콩국도 해서 먹고 콩죽도 해서 먹고 하지.)

107018 @ 그럼 호박잎국도 알아마씨?(그럼 호박잎국도 알아요?)

107018 #4 어. 호박잎국도 햐 먹고.(어. 호박잎국도 해서 먹고.)

107018 @ 다 알았신게마씨. 호박잎국은 뭐햐?(다 아시는군요. 호박잎국은 뭐입니까?)

107018 #4 호박잎 툄아근엥게.(호박잎 뜯어다가.)

107018 @ 예.(예.)

107018 #4 저 무신 무신 ㄱ루 햐쌀 영 허민 맛 좋아.(저 무슨 무슨 가루 조금 이렇게 하면 맛 좋아.)

107018 @ 이것도 그냥 된장에 막 풀엥 만들어마씨?(이것도 그냥 된장에 막 풀어서 만들어요?)

107018 #4 아니 된장 아니 넣어도 그건 만들엥 햐주게.(아니 된장 안 넣어도 그건 만들어서 햐지.)

107018 @ 예.(예.)

107018 #4 소금이라도 햐쌀 낱 허민 햐는 거주게. 맛 좋아.(소금이라도 조금 놔서 하면 되는 거지. 맛 좋아.)

107018 @ 아, 햐쌀 허영 놔근엥 햐야 맛 좋구나예?(아, 조금 해서 놔서 햐야 맛 좋군요?)

107018 #4 게.(그럼.)

107019 @ 그럼 몃국은 알지예? 몃국? 그건 어햐 만들어마씨?(그럼 모자반국은 알지요? 모자반국. 그건 어햐 만들어요?)

107019 #4 몃은 돼지고기나 허영 몃 허여근엥 햐는 거주게. 몃국도 맛 좋국.(모자반은 돼지고기나 해서 모자반 해서 햐는 거지. 모자반국도 맛 좋고.)

107019 @ 예. 몃국은 보통 언제 햐 먹어마씨?(예. 모자반국은 보통 언제 햐 먹어요?)

107019 #4 것도 큰일 때나 어햐 허영 돼지 잡아질 때나 허영 먹엿주게.(것도 큰일 때나 어햐 해서 돼지 잡아질 때나 해서 먹엿지.)

107019 @ 아, 돼지는 뭐 마을에서 보통 같이 잡아마씨?(아, 돼지는 뭐 마을에서 보통 같이 잡아요?)

107019 #4 마을에서 햐 잡국 무신 햐사 실 때 햐 잡국.(마을에서 해서 잡고 무

슨 행사 있을 때 해서 잡고.)

107019 @ 최근에는 돼지, 돼지 같은 거 마을에서 안 잡잖아예?(최근에는 돼지, 돼지 같은 거 마을에서 안 잡잖아요?)

107019 #4 응.(응.)

107019 @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잡았지예? 돼지 같은 거?(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잡았지요? 돼지 같은 거?)

107019 #4 옛날에는 잔치 때 허영 잡았주만은 이제는 경 안 허여.(옛날에는 잔치 때 해서 잡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

107019 @ 경 안 해?(그렇게 안 해?)

107019 #4 어.(어.)

107020 @ 그럼 할머니 생선국도 종류가 잇수광? 할머니?(그럼 할머니 생선국도 종류가 있습니까? 할머니?)

107020 #4 생선국도게 생선 사당 먹젠 허민.(생선국도 생선 사다가 먹으려고 하면.)

107020 @ 예.(예.)

107020 #4 무도 낱 꿩영 저 싯곡 메역도 낱 꿩영 행 먹고.(무도 놔서 꿩영서 저 있고 미역도 놔서 꿩영서 해서 먹고.)

107020 @ 그럼 생선국 헐 때 그 생선은 뭐, 뭐 썬마씨? 그거 갈치국도 잇곡.(그럼 생선국 할 때 그 생선은 뭐, 뭐 썬어요? 그거 갈치국도 있고.)

107020 #4 갈치국도 싯고.(갈치국도 있고.)

107020 @ 예. 또?(예. 또?)

107020 #4 생선 그거 옥돔 생선도 허곡.(생선 그거 옥돔 생선도 하고.)

107020 @ 뭐, 뭐, 뭐마씨?(뭐, 뭐, 뭐요?)

107020 #4 옥돔, 생선.(옥돔, 생선.)

107020 @ 옥돔?(옥돔?)

107020 #4 어.(어.)

107020 @ 아, 옥돔도 허곡 그 다음 또 다른 거 뭐 엇언마씨?(아, 옥돔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뭐 없었어요?)

107020 #4 다른 것도게 무싱거 사지른 허는 거주게.(다른 것도 무엇 살 수 있으면 하는 거지.)

107021 @ 그럼 메역국 잇잖아예? 메역국은 보통 생일날 먹지예?(그럼 미역국 잇잖아요? 미역국은 보통 생일날 먹지요?)

107021 #4 아니.(아니.)

107021 @ 아니?(아니?)

107021 #4 이디 생일 안 허여.(여기 생일 안 해.)

107021 @ 여기는 그냥 안 해?(여기는 그냥 안 해?)

107021 #4 여기서는 먹젠 허민 아무 때나 허영 먹어.(여기서는 먹으려고 하면

아무 때나 해서 먹어.)

107022 @ 그럼 할머니 옛날에도 냉국 먹지예? 냉국?(그럼 할머니 옛날에도 냉국 먹지요? 냉국?)

107022 #4 냉국?(냉국?)

107022 @ 예. 냉국.(예. 냉국.)

107022 #4 냉국이사게 으름에 시원하게 행 먹엇주게.(냉국이야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먹엇지.)

107022 @ 냉국은 어떻 만들어마씨?(냉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22 #4 어떻 만들어게. 하간 것 으름에 아무거나라도 이 웨라도 썰어 냉국. (어떻게 만들어. 여러 것 여름에 아무거나 이 오이라도 썰어 넣고.)

107022 @ 예.(예.)

107022 #4 원 야채들 놔근엔게 초 넣으면 냉국이주게.(원 야채들 놔서 초 넣으면 냉국이지.)

107022 @ 아, 초 넣으면 냉국.(아, 초 넣으면 냉국.)

107022 #4 어.(어.)

107023 @ 그럼 할머니 성계국, 보말국 뭐 이런 거 알아마씨?(그럼 할머니 성계국, 보말국 뭐 이런 거 알아요?)

107023 #4 아, 그런 거 그런 거 먹젠 허민 사다근엔들 별미로 먹엇주게.(아, 그런 거 그런 거 먹으려고 하면 사다가 별미로 먹엇지.)

107023 @ 아, 별미로 먹어?(아, 별미로 먹어?)

107023 #4 어.(어.)

107023 @ 여름에 별미로 그럼 물훤도 먹잖아예?(여름에 별미로 그럼 물회도 먹잖아요?)

107023 #4 물훤도 먹고.(물회도 먹고.)

107023 @ 물훤은 뭐 어떤 훤 들어가주마씨? 물훤에는?(물회는 뭐 어떤 회 들어가지요? 물회에는?)

107023 #4 무싱거 잇어게.(무엇 있어.)

107023 @ 생선 종류 들어가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잊수광?(생선 종류 들어가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7023 #4 아니게. 그냥 생선 종류사 국 끓일 때 놓는 거난 허곡. 반찬 허젠 허민 그런 거 사당 허곡.(아니. 그냥 생선 종류야 국 끓일 때 놓는 거니까 하고. 반찬 하려고 하면 그런 거 사다가 하고.)

107023 @ 그럼 평상시에 국은 보통 어떤 거 제일 많이 드션마씨?(그럼 평상시에 국은 보통 어떤 거 제일 많이 드셨어요?)

107023 #4 우리사 이디서게 누물국 그튼 거 헛주게.(우리야 여기서 나물국 같은 거 했지.)

107023 @ 예.(예.)

107023 #4 그런 거 행 먹었주 뭐 고깃국을 먹어져게?(그런 거 해서 먹었지 머 고깃국을 먹어져?)

107023 @ 아, 기지예? 누물국을 제일 많이 먹지예?(아, 그렇지요? 나물국을 제일 많이 먹지요?)

107023 #4 어.(어.)

107023 @ 그럼 여름에는 그래도 좀 냉국 많이 먹잖아예?(그럼 여름에는 그래도 좀 냉국 많이 먹잖아요?)

107023 #4 어. 으름에는 냉국 먹주게.(어. 여름에는 냉국 먹지.)

107023 @ 그럼 겨울에는 뭐 먹언마씨?(그럼 겨울에는 뭐 먹었어요?)

107023 #4 겨울엔게 누물국도 먹고.(겨울에는 나물국도 먹고.)

107023 @ 아, 누물국 먹고.(아, 나물국 먹고.)

107023 #4 어.(어.)

107023 @ 겨울에만 특별히 먹는 국은 엇엇수광?(겨울에만 특별히 먹는 국은 없 었습니까?)

107023 #4 특별허게 행 먹는 거 엇어.(특별허게 해서 먹는 거 없어.)

107023 @ 여름에는 특별히 그냥 냉국 먹는데 나머지는 특별헌 거 엇언마씨?(여 름에는 특별히 그냥 냉국 먹는데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107023 #4 어. 엇어.(어. 없어.)

죽류

107024 @ 죽 할 때 집어넣는 거 다르잖아예? 뭐 보리 넣고 팔 넣고 하잖아예? (죽 할 때 집어넣는 거 다르잖아요? 뭐 보리 넣고 팔 넣고 하잖아요?)

107024 #3 아니. 저 죽은 보리쌀 안 들어가는데 좁쌀 넣고 곤쌀도 봐.(아니. 저 죽은 보리쌀 안 들어가는데 좁쌀 넣고 흰쌀도 넣어.)

107024 @ 예.(예.)

107024 #3 겐디 그거 죽이주게.(그런데 그거 죽이지.)

107024 @ 예.(예.)

107024 #3 경흐니 무신 바당에 땡기는 사람은 바당에 강 뭐 허여 오면 그디 뇌 근앵 ㄴ치 넣으민 맛 좋고.(그러니 무슨 바다에 다니는 사람은 바다에 가서 뭐 해 오면 거기 넣어서 같이 넣으면 맛 좋고.)

107024 @ 예.(예.)

107024 #3 경 허고 그거베피 뭐 넣는 거 엇어.(그렇게 하고 그거밖에 뭐 넣는 거 없어.)

107024 @ 아 그럼 죽에 넣을 때 뭐, 뭐 들어가마씨? 죽 만들 때.(아 그럼 죽에 넣을 때 뭐, 뭐 들어가요? 죽 만들 때.)

107024 #3 저. 풋이나.(저. 팔이나.)

107024 @ 예.(예.)

107024 #3 녹되나 그거.(녹두나 그거.)

107024 @ 아. 그거?(아. 그거?)

107024 #3 어.(어.)

107025 @ 그럼 흰죽 잇잖아예. 곤죽?(그럼 흰죽 잇잖아요. 흰죽?)

107025 #3 그건 곤쌀만 넣엉 쭈난 흰죽이주게.(그건 흰쌀만 넣어서 쭈니까 흰죽이지.)

107025 @ 그럼 그건 어떻 만들어마씨? 만드는 것도 계속 곱아 줘서. 어떻 만드는지.(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것도 계속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만드는지.)

107025 #3 만드는 건?(만드는 건?)

107025 @ 예.(예.)

107025 #3 찰 씻어근엥 물이영 ㄴ치 ㅈ. 솔이. 경 짓으멍 허여가면 필필허게 죽이 돼주게. 게민 먹는 거.(쌀 씻어서 물하고 같이 넣어. 솔에. 그렇게 저으면서 해가면 팔팔하게 죽이 되지. 그러면 먹는 거.)

107026 @ 그면 조죽은 뭐짱? 조죽은 어떻 만들어마씨?(그러면 조죽은 뭐입니까? 조죽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26 #3 좁쌀죽도 그거나 마찬가지로.(좁쌀죽도 그거나 마찬가지.)

107026 @ 마찬가지로.(마찬가지.)

107026 #3 마찬가지로 경 찰 넣어근엥 물 넣곡 허영 삶아가면 익어근엥 죽 되는 거.(마찬가지 그렇게 쌀 넣어서 물 넣고 해서 삶아가면 익어서 죽 되는 거.)

107026 @ 그럼 조죽에는 뭐, 뭐 들어가마씨? 아간 흰죽에는 쌀 들어가잖아예? 곤쌀.(그럼 조죽에는 뭐, 뭐 들어가요? 아까 흰죽에는 쌀 들어가잖아요? 흰쌀.)

107026 #3 어.(어.)

107026 @ 그럼 조죽에는?(그럼 조죽에는?)

107026 #3 조죽에도 콩ㄴ루.(조죽에도 콩가루.)

107026 @ 콩ㄴ루.(콩가루.)

107026 #3 콩ㄴ루 넣으멍 썬.(콩가루 넣으면서 썬.)

107026 @ 아, 그럼 콩ㄴ루 넣으면 조죽이짱? 그럼 콩ㄴ루랑 또 뭐 넣어마씨?(아, 그럼 콩가루 넣으면 조죽입니까? 그럼 콩가루와 또 뭐 넣어요?)

107026 #3 그것뿐.(그것뿐.)

107026 @ 콩ㄴ루랑 물 넣어근엥 만드는 게 조죽?(콩가루와 물 넣어서 만드는 게 조죽?)

107026 #3 콩ㄴ루허고 좁쌀허곡 물 허영 ㅈ면 돼주게.(콩가루하고 좁쌀하고 물 해서 넣어서 쭈면 되지.)

107026 @ 게난 조죽에는 콩ㄴ루허고 좁쌀허고 물만?(그러니까 콩가루하고 좁쌀하고 물만?)

107026 #3 어.(어.)

107027 @ 그럼 팟죽 잇잖아예? 팟죽은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팔죽 잇잖아요? 팔죽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27 #3 팟죽은 잘 헤영 먹젠 허민 팟만 문딱 삶아. 그거 이제 손으로 막 주물렁 이젠 그티 쓸 낱 또 죽 썬. 그거 팟죽.(팔죽은 잘 해서 먹으려고 하면 팔만 전부 삶아. 그거 이제 손으로 막 주물려서 이제는 거기에 쌀 넣어서 또 죽 썬. 그거 팔죽.)

107027 @ 아.(아.)

107027 #3 맛 좋주게. 그건.(맛 좋지. 그건.)

107028 @ 그럼 콩죽은 뭇팡? 콩죽은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콩죽은 뭇니까? 콩죽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28 #3 콩죽은 이제 곤쌀 낱 허주만은 그 옛날은 엇으난 좁쌀만 놔.(콩죽은 이제 흰쌀 넣어서 하지만 그 옛날은 없으니까 좁쌀만 넣어.)

107028 @ 예.(예.)

107028 #3 좁쌀만 넣으면. 콩가루허고 좁쌀허고 놔근엥 그저 들어 젓으멍 풀풀 허도록 허민 그 죽 뒸여.(좁쌀만 넣으면. 콩가루하고 좁쌀하고 넣어서 그저 들어 저 으면서 풀풀하도록 하면 그 죽 돼.)

107028 @ 그럼 그 콩죽은 보통 언제 먹는 거 그런 거 엇우광?(그럼 그 콩죽은 보통 언제 먹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107028 #3 옛날에는 아무 때라도 먹엇주만은 이제 입들 높아 부난 그런 거 먹지 않주게.(옛날에는 아무 때라도 먹엇지만 이제는 입들 높아 버리니까 그런 거 먹지 않지.)

107029 @ 아, 기구나예. 그럼 메밀죽 잇잖아예? 메밀죽.(아, 그렇군요. 그럼 메밀죽 잇잖아요? 메밀죽.)

107029 #3 메밀죽도 나도 메밀죽 먹어났는디 오래 헤여.(메밀죽도 나도 메밀죽 먹었는데 오래 해.)

107029 @ 오래 헤여?(오래 해?)

107029 #3 어.(어.)

107029 @ 메밀죽은 그럼 언제 해 드셔보션마씨?(메밀죽은 그럼 언제 해 드셔보셨어요?)

107029 #3 옛날엔 메밀 이녁 맛이 강도 허고 콩도 허고 그런디 이젠 안 허여. 안 허는디 저 식당에 가민 메밀국수.(옛날에는 메밀 자기 밭에 가서도 하고 콩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안 해. 안 하는데 저 식당에 가면 메밀국수.)

107029 @ 예.(예.)

107029 #3 요 저기 강 먹엇인디 잘도 맛 좋은데 잇어라.(요 저기 가서 먹었는데 잘도 맛 좋은데 있더라.)

107029 @ 아, 기팡? 그럼 메밀죽은 옛날에는 좀 드셔보션마씨? 옛날에는.(아, 그렇습니까? 그럼 메밀죽은 옛날에는 좀 드셔보셨어요? 옛날에는.)

107029 #3 옛날에는 먹어 봤.(옛날에는 먹어 봤어.)

107029 @ 아, 요즘에는 안 해 먹고?(아, 요즘에는 안 해 먹고?)

107029 #3 요즘엔게 식당에서 허난 돈 아저강 사먹으면 돼는 거주게.(요즘에는 식당에서 하니까 돈 가져가서 사먹으면 되는 거지.)

107029 @ 메밀죽은 어떻 만들언마씨? 메밀죽.(메밀죽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메밀죽.)

107029 #3 저 거시기게 무싱거추룩게 그거 뽑아 낱 그것이 요만씩 넣으멍 사발에 넣으멍 그 국물 그리 거러 낱 그추룩 허는 거주게.(저 거시기 무엇처럼 그거 뽑아 놓아서 그것이 요만씩 넣으면서 사발에 넣으면서 그 국물 그리 덜어 놔서 것처럼 하는 거지.)

107030 @ 그믐 녹두죽 잇잖아예? 녹두죽. 녹두죽도 드션마씨?(그러면 녹두죽 잇잖아요? 녹두죽. 녹두죽도 드셨어요?)

107030 #3 녹두죽은 녹두 므짜 삶아. 경 행 것도 주물렁 그리 쌀 낱 죽 쭈면 돼주.(녹두죽은 녹두 전부 삶아. 그렇게 해서 것도 주물러서 그리 쌀 넣어서 죽 쭈면 되지.)

107030 @ 전부 다 쌀은 그냥 곤쌀 넣어마씨? 좁쌀 넣어마씨?(전부 다 쌀은 그냥 흰쌀 넣어요? 좁쌀 넣어요?)

107030 #3 곤쌀로 허여.(흰쌀로 해.)

107031 @ 할머니 그럼 닭죽. 닭죽은 옛날에 드셔보셨지예?(할머니 그럼 닭죽. 닭죽은 옛날에 드셔보셨지요?)

107031 #3 닭죽은 닭 막 삶양.(닭죽은 닭 막 삶아서.)

107031 @ 예.(예.)

107031 #3 저 득죽 허영 푸는 디션. 쌀을 호끔베끼 안 놔. 게민 고기 먹으민 죽 무싱거 호끔 먹영 아니 먹영 고기들만 먹곡. 경 저 집이 사다근영 먹는 사람은 쌀 하영 넣어근영 풀풀허게 ㄴ치 썰 고기영 ㄴ치 막 허영 먹는 건디. 식당에서는 경 안 허여.(저 닭죽 해서 파는 데서는. 쌀을 조금밖에 안 넣어. 그러면 고기 먹으면 죽 무엇 조금 먹어서 안 먹어서 고기들만 먹고. 그렇게 저 집에 사다가 먹는 사람은 쌀 많이 넣어서 풀풀허게 같이 썰서 고기와 같이 막 많이 먹는 건데. 식당에서는 그렇게 안 해.)

107031 @ 아. 경 안 해마씨?(아. 그렇게 안 해요?)

107031 #3 어.(어.)

107032 @ 그럼 강이죽도 드션마씨? 강이죽?(그럼 계죽도 드셨어요? 계죽?)

107032 #3 그건.(그건.)

107032 @ 예.(예.)

107032 #3 심어다근영 막 헛주게. 그건 그냥 삶아근영 썰믈 막 슬 하. 게믈 그거 영 영 입으로 빨아 먹으민 슬 다 먹을 수 잇주게.(심어다가 막 했지. 그건 그냥 삶아서 썰면 막 살 많아. 그러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빨아 먹으면 살 다 먹

을 수 있지.)

107032 @ 예.(예.)

107032 #3 허고 쟈쟈헌 건 뺏아근엥 방에에서 뺏아근엥 걸렁 걸렁 그 물만 낭 죽 쭈민 막 맛있어.(하고 작은 거는 빵아서 방아에서 빵아서 걸러서 걸러서 그 물만 넣어서 죽 쭈면 막 맛있어.)

107032 @ 아 그게 계죽?(아, 그게 계죽?)

107032 #3 어.(어.)

107033 @ 그 다음에 아까 막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예? 죽? 안 물어본 거 잇우광? 죽. 어르신 드신 것 중에?(그 다음에 아까 막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요? 죽? 안 물어본 거 있습니까? 죽. 어르신 드신 것 중에?)

107033 #3 아니 물어본 거 잇어.(안 물어본 거 없어.)

107033 @ 뭐. 꿩죽 이런 거는 안 드셔보셨마씨?(뭐, 꿩죽 이런 거는 안 드셔보셨어요?)

107033 #3 꿩죽도 득죽이랑 마찬가지로 허는 거주게.(꿩죽도 닭죽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지.)

107033 @ 그럼 그거 드셔보셨수광? 꿩죽?(그럼 그거 드셔보셨습니까? 꿩죽?)

107033 #3 어.(어.)

107033 @ 옛날엔 꿩 막 잡앙 죽 해 먹언마씨?(옛날에는 꿩 막 잡아서 죽 해 먹었어요?)

107033 #3 옛날엔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저 하여간에 막 즘진 거 헤여근엥 어디 가근엥 요런 곳에 코 낭 놔두민 그리 걸렁 죽주게.(옛날에는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저 하여간에 막 작은 거 해서 어디 가서 요런 곳에 올라미 놔서 놔두면 그리 걸러서 죽지.)

107033 @ 아.(아.)

107033 #3 계민 막 심어당 할망들 잇인 디 풀곡 허여. 학생들이.(그러면 막 잡아서 할머니들 잇는 곳에 팔고 해. 학생들이.)

107033 @ 그럼 그거 사당 죽 썰 먹언마씨?(그럼 그거 사다가 죽 썰서 먹었어요?)

107033 #3 어. 옛날에 그거 그거주.(어. 옛날에 그거 그거지.)

107024 @ 할머니 그럼 죽 잇잖아예? 죽 만들 때는 그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 죽 종류는?(할머니 그럼 죽 잇잖아요? 죽 만들 때는 그 종류가 뭐, 뭐 잇지요? 죽 종류는?)

107024 #4 죽은게 풋도 낭 풋죽도 썰 먹고게.(죽은 팔도 놔서 팔죽도 썰서 먹고.)

107024 @ 예.(예.)

107024 #4 콩가루 콩 헤다근엥 갈아당 콩죽도 썰 먹고.(콩가루 콩 해서 갈아다가 콩죽도 썰서 먹고.)

107024 @ 예.(예.)

107024 #4 거 무슨 종류가 셔?(거 무슨 종류가 있어?)

107025 @ 그럼 그 곤죽 잇잖아예? 흰죽이지예?(그럼 그 흰죽 잇잖아요? 흰죽이지요?)

107025 #4 건 흰죽은게 뭐 아무것도 안 낱 허민 흰죽게 곤죽 행.(그건 흰죽은 뭐 아무것도 안 낱서 하면 흰죽 흰죽 해서.)

107025 @ 예. 그건 언제 보통 먹주마씨?(예. 그건 언제 보통 먹지요?)

107025 #4 것도 아무 때나 이녁 생각나면 먹는 거주게.(것도 아무 때나 이녁 생각나면 먹는 거지.)

107025 @ 이녁 생각나면 먹는 거?(이녁 생각나면 먹는 거?)

107025 #4 어.(어.)

107026 @ 그럼 난 이거 안 먹어 봤인디 조죽도 먹엇수광? 조죽?(그럼 난 이거 안 먹어 봤는데 조죽도 먹엇습니까? 조죽?)

107026 #4 조, 조죽은 좁쌀 낱 행 허민 조죽이주게.(조, 조죽은 좁쌀 낱서 해서 하면 조죽이지.)

107026 @ 예. 요즘에는 좁쌀 낱 조죽 그거 잘 안 행 먹잖아예?(예. 요즘에는 좁쌀 낱서 조죽 그거 잘 안 해서 먹잖아요?)

107026 #4 엇어 엇어. 옛날에는 그거 어디 셔?(없어 없어. 옛날에는 그거 어디 있어?)

107026 @ 계난 옛날에 옛날에는 그거 자주 안 먹언마씨?(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는 그거 자주 안 먹엇어요?)

107026 #4 자주 그것도 그것도 싯당 혼 번이나 먹주. 좁쌀 낱 죽 허지 안 허여.(자주 그것도 그것도 있다가 한 번이나 먹지. 좁쌀 낱서 죽 하지 않아.)

107026 @ 아, 좁쌀 낱 죽 잘 안 헨마씨?(아, 좁쌀 낱서 죽 잘 안 했어요?)

107026 #4 어.(어.)

107027 @ 그럼 팻죽은?(그럼 팔죽은?)

107027 #4 계메 그거 팻 삶아근앵 그거 허는 거주게.(글쎄 그거 팔 삶아서 그거 하는 거지.)

107027 @ 예. 이건 언제 해 먹어마씨?(예. 이건 언제 해 먹어요?)

107027 #4 그거 저슬에 보통 행 먹엇주게.(그거 겨울에 보통 해서 먹엇지.)

107027 @ 언제마씨?(언제요?)

107027 #4 저슬 저슬에.(겨울 겨울에.)

107028 @ 그럼 콩죽 잇잖아예? 콩죽도 그냥 이녁 먹고 싶을 때 먹어마씨?(그럼 콩죽 잇잖아요? 콩죽도 그냥 이녁 먹고 싶을 때 먹어요?)

107028 #4 어. 먹고 싶을 때 그냥 그것도 행 먹주게.(어. 먹고 싶을 때 그냥 그것도 해서 먹지.)

107028 @ 그럼 콩죽은 그건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콩죽은 그건 어떻게 만들어

요?)

107028 #4 뭐 좁쌀이나 무싱거 곤쌀이나 이제 좁쌀 엇어 부난 좁쌀 낱 콩죽 썬 사 맛 좋아.(뭐 좁쌀이나 무엇 흰쌀이나 이제 좁쌀 없어 버리니까 좁쌀 놔서 콩죽 썬야 맛 좋아.)

107028 @ 아.(아.)

107028 #4 경 헛인디 이젠 쌀 놔근엿 콩죽 만들엿 먹엄주게.(그렇게 했는데 이젠 쌀 놔서 콩죽 만들어서 먹고 있지.)

107029 @ 할머니 그 모밀죽 잇잖아예? 모밀죽?(할머니 그 메밀죽 잇잖아요? 메밀죽?)

107029 #4 모밀죽이야게 그거 아픈 사람이나 먹는 거주게.(메밀죽이야 그거 아픈 사람이나 먹는 거지.)

107029 @ 아, 아플 때는 모밀죽 먹어마씨?(아, 아플 때는 메밀죽 먹어요?)

107029 #4 어. 뭐 아픈 사람들이나 그거 헿 먹엇주게.(어. 뭐 아픈 사람들이나 그거 해서 먹엇지.)

107029 @ 뭐 허는 사람?(뭐 하는 사람?)

107029 #4 아픈 때난 뭐 느리우지 못 허난.(아픈 때니까 뭐 내리우지 못 하니까.)

107029 @ 느리우지 못 해?(내리우지 못 해?)

107029 #4 어.(어.)

107029 @ 그게 뭐짱?(그게 뭐입니까?)

107029 #4 뭐 또 몬 아파근엿 뭐 먹지 못 허는 사름.(뭐 또 전부 아파서 뭐 먹지 못 하는 사람.)

107029 @ 아, 뭐 먹지 못 허는 사름?(아, 뭐 먹지 못 하는 사람?)

107029 #4 어. 경 헿 거 모밀죽이나 먹주. 어디 모밀죽 허여게.(어. 그렇게 한 거 메밀죽이나 먹지. 어디 메밀죽 해.)

107029 @ 아,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사람은 모밀죽 잘 안 해 먹언마씨?(아,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사람은 메밀죽 잘 안 해 먹었어요?)

107029 #4 어. 잘 안 허연.(어. 잘 안 했어.)

107030 @ 녹디죽도 알아마씨?(녹두죽도 알아요?)

107030 #4 어. 녹디죽도 그거 풋죽처럼 헿 먹는 거.(어. 녹두죽도 그거 팔죽처럼 해서 먹는 거.)

107030 @ 아, 그것도 풋죽처럼?(아, 그것도 팔죽처럼?)

107030 #4 어.(어.)

107030 @ 녹디죽은 녹디 이렇게 헿 그냥 썬엿 먹언마씨?(녹두죽은 녹두 이렇게 해서 그냥 썬서 먹었어요?)

107030 #4 어. 삶아근엿게.(어. 삶아서.)

107030 @ 예.(예.)

107030 #4 쌀 넣꼭 허영 만들영 먹엇주게.(쌀 넣고 해서 만들어서 먹었지.)
107030 @ 쌀 넣고?(쌀 넣고?)
107030 #4 어.(어.)
107031 @ 게른 득죽 잇잖아예?(그러면 닭죽 잇잖아요?)
107031 #4 어. 득?(어. 닭?)
107031 @ 예. 그 득죽은 보통 언제 언제 먹주마씨?(예. 그 닭죽은 보통 언제 언제 먹지요?)
107031 #4 득죽도 이녀 먹젠 허민 득 사다근엥 득죽 행 먹는 거주. 뭐 언제 먹는 게 셔?(닭죽도 이녀 먹으려고 하면 닭 사다가 닭죽 해서 먹는 거지. 뭐 언제 먹는 게 있어?)
107032 @ 할머니 갱죽도 알아마씨?(할머니 갱죽도 알아요?)
107032 #4 어?(어?)
107032 @ 갱죽? 갱죽?(갱죽? 갱죽?)
107032 #4 갱죽이 뭇이라.(갱죽이 무엇이야.)
107032 @ 갱죽 그거 시래기 같은 거 넣영 끓인 죽인데.(갱죽 그거 시래기 같은 거 넣어서 끓인 죽인데.)
107032 #4 어.(어.)
107032 @ 그건 안 들어보션마씨?(그건 안 들어보셨어요?)
107032 #4 어.(어.)
107033 @ 그럼 흑시 갱이죽은 알아마씨?(그럼 흑시 게죽은 알아요?)
107033 #4 아, 갱이죽은 잘 안 허여.(아, 게죽은 잘 안 해.)
107033 @ 그럼 지금 죽 종류 많이 얘기헛잖아예?(그럼 지금 죽 종류 많이 얘기헛잖아요?)
107033 #4 어.(어.)
107033 @ 이거 말양 또 뭐 해 먹은 죽 잇수광?(이거 말고 또 뭐 해 먹은 죽 잇습니까?)
107033 #4 그거 말양 무싱거 잇어게.(그거 말고 무엇 있어.)
107033 @ 뭐 동지 풋죽 잇잖아예?(뭐 동지 팔죽 잇잖아요?)
107033 #4 아, 그건 동짓날게.(아, 그건 동짓날.)
107033 @ 동짓날?(동짓날?)
107033 #4 동짓날 동지 풋죽 허영 먹주게.(동짓날 동지 팔죽 해서 먹지.)
107033 @ 동짓날만 먹어?(동짓날만 먹어?)
107033 #4 아니. 동짓날 아니라도 풋죽 행 먹주만은.(아니. 동짓날 아니라도 팔죽 해서 먹지만.)
107033 @ 예.(예.)
107033 #4 특별히 동짓날 풋죽 행 먹젠 허여. 옛날식으로.(특별히 동짓날 팔죽 해서 먹으려고 해. 옛날식으로.)

107033 @ 뭐 썩죽도 먹었수광?(뭐 썩죽도 먹었습니까?)

107033 #4 뭐, 썩도 그거 썩 잡는 디서나 먹주. 아무나 썩죽 못 먹주게.(뭐, 썩도 그거 썩 잡는 데서나 먹지. 아무나 썩죽 못 먹지.)

107033 @ 아, 아무나 썩죽 못 먹언마씨?(아, 아무나 썩죽 못 먹었어요?)

107033 #4 어.(어.)

107033 @ 무사마씨?(왜요?)

107033 #4 잡기 힘든 먹기가 아무나 못 먹었주게.(잡기 힘들니까 먹기가 아무나 못 먹었지.)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럼 어르신 범벅은 종류가 뭐, 뭐 잇언마씨?(그럼 어르신 범벅은 종류가 뭐, 뭐 있었어요?)

107034 #2 범벅은게 저 지실 넣엉.(범벅은 저 감자 넣어서.)

107034 @ 예.(예.)

107034 #2 삶다근엥 모멸가루 넣어근엥 막 영 짓어근엥 경 행 먹었주게.(삶다가 메밀가루 넣어서 막 이렇게 저어서 먹었지.)

107034 @ 그럼 무슨 범벅이라고 헨마씨? 그냥 범벅이라?(그럼 무슨 범벅이라고 했어요? 그냥 범벅이에요?)

107034 #2 기냥 범벅.(그냥 범벅.)

107035 @ 그럼 수제비는? 수제비도 해 먹지 았안마씨? 수제비는 어떻 만들언마씨?(그럼 수제비는? 수제비도 해 먹지 았았어요? 수제비는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107035 #2 수제비는게 보리쌀 곶아근엥 즈배기로 행 먹주게. 즈배기 수제비라 즈배기.(수제비는 보리쌀 갈아서 ‘즈배기’로 해서 먹지. ‘즈배기’ 수제비더러 ‘즈배기’.)

107035 @ 즈배기? 아.(‘즈배기’? 아.)

107036 @ 그럼 옛날에 칼국수도 해 먹언마씨?(그럼 옛날에 칼국수도 해 먹었어요?)

107036 #2 칼국수는 모멸가루로 행 칼국수 허여근엥.(칼국수는 메밀가루로 해서 칼국수 해서.)

107036 @ 음.(음.)

107036 #2 영 밀어근엥 칼로 썰어근엥.(이렇게 밀어서 칼로 썰어서.)

107036 @ 예.(예.)

107036 #2 그것이 칼국수.(그것이 칼국수.)

107034 @ 그믄 할머니 그 범벅 알아마씨? 범벅? 범벅?(그러면 할머니 그 범벅 알아요? 범벅? 범벅?)

107034 #3 범벅도 종류가 여러 개주게.(범벅도 종류가 여러 개지.)

107034 @ 예. 그것 좀 곱아 줘서.(예. 그것 좀 말해 주십시오.)

107034 #3 저 모멸ㄹ 허영 하간 감자 영 빛이영 썰어 낱 물 췌영 ㄹ루 놉근
앵 막 짓으면 범벅.(저 메밀가루 해서 여러 감자 이렇게 뭐랑 썰어 놉서 물 끓여 가
루 놉서 막 짓으면 범벅.)

107034 @ 예.(예.)

107034 #3 이제 그거 이제 또 ㄹ루 췌근앵 즈배기 요만씩 맨들명 놉근앵 솥앙
먹어도 그것도 모멸즈배기.(이제 그거 이제 또 가루 췌서 수제비 요만씩 만들면서
놉서 삶아서 먹어도 그것도 메밀수제비.)

107034 @ 아. 그 다음 또? 또 옛우광?(아. 그 다음 또? 또 없습니까?)

107034 #3 또?(또?)

107034 @ 범벅은 그게 전부? 그문 그 범벅 만들 때 뭐, 뭐 필요해마씨? 범벅
만들 때?(범벅은 그게 전부? 그러면 그 범벅 만들 때 뭐, 뭐 필요해요? 범벅 만들
때?)

107034 #3 만들 때?(만들 때?)

107034 @ 예.(예.)

107034 #3 저 옛날엔 저 하간 게 옛으난 어려우난.(저 옛날에는 저 여러 것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107034 @ 예.(예.)

107034 #3 감저도 그레 췌영 농곡 늣뻬도 췌영 농곡 막 하간 거 놉근앵 불 놉.
경 허영 먹는디 이젠 그런 거 안 넣주게.(고구마도 그리 췌어서 놓고 무도 췌어서
놓고 막 온갖 거 놉서 불 놉. 그렇게 해서 먹는데 이젠 그런 거 안 넣지.)

107034 @ 아, 이젠 안 넣어마씨?(아, 이제는 안 넣어요?)

107034 #3 그냥 그것만. 경 헤사 맛이 더 좋주게.(그냥 그것만. 그렇게 해야 맛
이 더 좋지.)

107035 @ 수제비도 옛날에도 드셔봤수광? 수제비?(수제비도 옛날에도 드셔봤습
니까? 수제비?)

107035 #3 수제비 먹주게.(수제비 먹지.)

107035 @ 옛날에도 그럼 수제비 자주 먹언마씨?(옛날에도 그럼 수제비 자주 먹
었어요?)

107035 #3 옛날부터 옛날에도 수제비는 허여. 감저뻬때기 물령.(옛날부터 옛날
에도 수제비는 해. 고구마말랭이 말려서.)

107035 @ 예.(예.)

107035 #3 그거 그 뻬때기 ㄹ루로 즈배기 요만씩허게 아기 손추룩 맨들앙 그거
항상 먹어난.(그거 그 말랭이 가루로 수제비 요만씩하게 아기 손처럼 만들어서 그거
항상 먹어났어.)

107035 @ 그거 국물 내잖아예? 국물 내서 그거 즈배기 넣잖아예?(그거 국물 내
잖아요? 국물 내서 그거 수제비 넣잖아요?)

107035 #3 국물 거머허게 해. 그건.(국물 거머게 해. 그건.)

107035 @ 아, 국물 거머허게 해마씨? 무사마씨?(아, 국물 거머게 해요? 왜요?)

107035 #3 몰라. 그건 그냥 국물 거머허게 헛주게. 그건.(몰라. 그건 그냥 국물 거머게 했지. 그건.)

107036 @ 그른 수제비 말고 칼국수 잇잖아예?(그러면 수제비 말고 칼국수 잇잖아요?)

107036 #3 무사 엇어?(왜 없어?)

107036 @ 칼국수도 잇잖아예? 그건 어떻 행 먹언마씨?(칼국수도 잇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107036 #3 칼국수도 이녀 집에서 헛주게.(칼국수도 자기 집에서 했지.)

107036 @ 그니까 그거 허는 거 곶아 줍서. 칼국수.(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말해주십시오. 칼국수.)

107036 #3 영 저 이건 돛베 영 허여근엥 하간 거 양념 행 꿩기 영 씨는 돛베 요만한 거 그것에 놔근엥 이제 미는 걸로 밀어.(이렇게 저 이건 도마 이렇게 해서 여러 거 양념 해서 고기 이렇게 씨는 도마 요만한 거 그것에 놔서 이제 미는 걸로 밀어.)

107036 @ 예.(예.)

107036 #3 밀어근엥 이젠 칼로 영 씨는 거라. 흐끔씩. 썰어근엥 이젠 국수추룩 썰어근엥 이제 그거 놔근엥 하간 양념 넣곡 허민 그것이 국. 모멸국수.(밀어서 이제 는 칼로 이렇게 씨는 거야. 조금씩. 썰어서 이제 는 국수처럼 썰어서 이제 그거 놔서 여러 양념 넣고 하면 그것이 국. 메밀국수.)

107036 @ 그게 모멸국수. 칼국수?(그게 메밀국수. 칼국수?)

107036 #3 어. 칼국수.(어. 칼국수.)

107034 @ 그럼 범벅 잇잖아예? 할머니?(그럼 범벅 잇잖아요? 할머니?)

107034 #4 어. 범벅은게.(어. 범벅은.)

107034 @ 예.(예.)

107034 #4 모멸ㄹ르나 행 허민.(메밀가루나 해서 하면.)

107034 @ 예. 어떻 만드는 것광? 범벅은 옛날에?(예.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범벅은 옛날에?)

107034 #4 감저나 숲아근엥.(고구마 삶아서.)

107034 @ 예.(예.)

107034 #4 그거 범벅 멘들엥 먹으면 그거 맛 좋아.(그거 범벅 만들어서 먹으면 그거 맛 좋아.)

107034 @ 아, 그거 맛 좋아?(아, 그거 맛 좋아?)

107034 #4 어.(어.)

107035 @ 그럼 즈배기 잇잖아예?(그럼 수제비 잇잖아요?)

107035 #4 그것도 모멸ㄹ르나 곶아 오민 모멸즈배기 행 먹엇주게.(그것도 메밀

가루나 갈아 오면 메밀수제비 해서 먹었지.)

107035 @ 예.(예.)

107035 #4 겐디.(그런데.)

107035 @ 그럼 즈배기랑 범벅이랑은 어떻 달라마씨?(그럼 수제비랑 범벅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107035 #4 그거게 범벅은 그냥 솔이 놔근엔 막 무싱거 감저나 뭐 무싱거 놔근엔 허는 거고게.(그거 범벅은 그냥 솔에 놔서 막 무엇 고구마나 뭐 무엇 놔서 하는 거고.)

107035 @ 예.(예.)

107035 #4 즈배기는 그냥게 저 무싱거 국시 끓이듯이 허영 즈배기 행 먹는 거주게. 그게 다르주게.(수제비는 그냥 저 무엇 국수 끓이듯이 해서 수제비 해서 먹는 거지. 그게 다르지.)

107035 @ 아, 국시 끓이 듯이?(아, 국수 끓이 듯이?)

107035 #4 어.(어.)

107036 @ 칼국시 알아마씨? 칼국수?(칼국수 알아요? 칼국수?)

107036 #4 계메. 칼국수.(글쎄. 칼국수.)

107036 @ 그거 칼국수는 즈배기랑 다르지예?(그거 칼국수는 수제비랑 다르지요?)

107036 #4 다르주게.(다르지.)

107036 @ 칼국수는 뭐짱?(칼국수는 뭐입니까?)

107036 #4 칼국수는 칼로 만들어근엔게 허는 거주게.(칼국수는 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

107036 @ 예.(예.)

107036 #4 저 만약에 모멸 허여근엔 모멸ㄹ르 헤 오민 그거 손으로 허영.(저 만약에 메밀 해서 메밀가루 해 오면 그거 손으로 해서.)

107036 @ 예.(예.)

107036 #4 영 밀어.(이렇게 밀어.)

107036 @ 예.(예.)

107036 #4 밀어근엔 영 허영 떡 멘들영 그것 똑똑 썰영 허민 그게 칼국수주게.(밀어서 이렇게 해서 떡 만들어서 그것 똑똑 썰어서 하면 그게 칼국수지.)

107036 @ 아, 그게 칼국수.(아, 그게 칼국수.)

김치

107037 @ 어 어르신 그럼 이제 좀 더 물어볼게예. 어르신 김치 잇잖아예? 김치? 김치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 옛날에 김치 종류는?(어 어르신 그럼 이제 좀 더 물어볼게요. 어르신 김치 잇잖아요? 김치? 김치 종류는 뭐, 뭐 잇어요? 옛날에 김치 종류는?)

107037 #3 김치 종류도 하영 종류 허는 사람은 허고 경 안 허는 사람은 무시 거 햅뽀 넣으민 맛이 엇고.(김치 종류도 많은 종류 하는 사람은 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무엇 조금 넣으면 맛이 없고.)

107037 @ 어르신 아는 거 김치 다 곺아 줍서.(어르신 아는 거 김치 다 말해 주십시오.)

107037 #3 계난 우리 딸 김치 허는 거 보면 종류가 막 하.(그러니까 우리 딸 김치 하는 거 보면 종류가 아주 많아.)

107037 @ 하?(많아?)

107037 #3 나 다 못 곺으큰게.(나 다 못 말하겠다.)

107037 @ 그럼 아는 것만. 기억나는 것만 곺아 줍서.(그럼 아는 것만. 기억나는 것만 말해 주십시오.)

107037 #3 계난 배, 사과, 메루치, 이제 뭐꼬 또 막 여러 가지인디.(그러니 배, 사과, 멸치, 이제 뭐 또 막 여러 가지인디.)

107037 @ 여러 가지 있어?(여러 가지 있어요?)

107037 #3 그걸 막 넣어근앵.(그거를 막 넣어서.)

107037 @ 예.(예.)

107037 #3 그거 다 넣엉 허민 그 국물이 경 맛있어.(그거 다 넣어서 하면 그 국물이 그렇게 맛있어.)

107037 @ 예.(예.)

107037 #3 계민 그 국물에 그춧가루 넣엉 캥 이제 마농 뽀얗 넣곡 경 허영 닐 췌영 낫당 그것에 막 버무려. 그거 김치.(그러면 그 국물에 고춧가루 넣어서 타서 이제 마늘 빵아서 넣고 그렇게 해서 나물 췌어서 뵤다가 그것에 막 버무려. 그계 김치.)

107037 @ 그거 김치?(그거 김치?)

107037 #3 췌디 경 맛 좋게 허는 사람이 벨로 엇어.(그런데 그렇게 맛 좋게 하는 사람이 벨로 없어.)

107038 @ 그럼 배추김치 잇잖아예? 배추김치 만드는 것 줌 곺아 줍서.(그럼 배추김치 잇잖아요? 배추김치 만드는 것 줌 말해 주십시오.)

107038 #3 그거 ㄴ췌 곺앗던 거랑 마찬가지로.(그거 아까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107038 @ 아, 마찬가지로?(아, 마찬가지로?)

107038 #3 어.(어.)

107038 @ 마찬가지로인데 한 번 더 곺아 줍서.(마찬가지인데 한 번 더 말해 주십시오.)

107038 #3 아니. 마찬가지로라. 메루치 헤근앵 그추룩 허면 뷌는 거.(아니. 마찬가지로야. 멸치 해서 것처럼 하면 되는 거.)

107038 @ 그럼 배추김치는 언제 만들언마씨?(그럼 배추김치는 언제 만들었어

요?)

107038 #3 아이고 계메. 올히는 배추 엇영 비쌍 먹어지카. 이제 이 달 세 달 이
제 세 달 또 세 달 뒤에?(아이고 글썸. 올해는 배추 없어서 비싸서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이 달 세 달 이제 세 달 또 세 달 뒤에?)

107038 @ 음.(음.)

107038 #3 이거 음력 오늘 이것이 팔, 칠월이지?(이거 음력 오늘 이것이 팔, 칠
월이지?)

107038 @ 예. 칠월마씨.(예. 칠월이요.)

107038 #3 칠월이난 팔월 구월. 구월도 허고 시월도 허고.(칠월이니까 팔월 구
월. 구월도 하고 시월도 하고.)

107039 @ 그든 열무김치 잇잖아예? 배추김치 말고 열무김치마씨.(그러면 열무
김치 잇잖아요? 배추김치 말고 열무김치요.)

107039 #3 열무김치도 이만씩 크게.(열무김치도 이만씩 크게.)

107039 @ 예.(예.)

107039 #3 착 갈라근엥 담아근엥 오래 놔두면 그거 막 맛 좋아. 겐디 그런 거
허는 사람은 웃어. 가끔 허주. 경혀여도 배추김치 네 사람이 허여도.(착 갈라서 담
가서 오래 놔두면 그거 막 맛 좋아. 그런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없어. 가끔 하지.
그래도 배추김치 네 사람이 해도.)

107039 @ 삼촌은 어르신은 열무김치 안 만들엇수광?(삼촌은 어르신은 열무김치
안 만들엇습니까?)

107039 #3 난 딸이 막 잘 허여. 이것저것 일등으로 잘 허난.(난 딸이 막 잘 해.
이것저것 일등으로 잘 하니까.)

107039 @ 예.(예.)

107039 #3 이제는 딸신디 얻어당 먹으난 잘 안 허여.(이제는 딸한테 얻어다가
먹으니까 잘 안 해.)

107039 @ 그 젊으섯을 때는 헤낫수게? 젊으섯을 때도 안 헨마씨?(그 젊으섯을
때는 했었지요? 젊으섯을 때도 안 했어요?)

107039 #3 젊을 때는 하간 게 엇어 부난 어려워 부난 경 맛있게 못헨.(젊을 때
는 여러 가지 것이 없어 버리니까 어려워 버리니까 그렇게 맛있게 못헨.)

107039 @ 젊으섯을 때는 그냥 배추김치만 헨마씨?(젊으섯을 때는 그냥 배추김
치만 했어요?)

107039 #3 그자 소금 허영 무시거 고춧가루 넣영 헛주게. 이젠 막 하간 거 막
넣주게.(그저 소금 해서 무엇 고춧가루 넣어서 헛지. 이제는 막 여러 가지 거 막 넣
지.)

107040 @ 그럼 물김치 잇잖아예? 물김치도 만들어 보션마씨?(그럼 물김치 잇잖
아요? 물김치도 만들어 보셨어요?)

107040 #3 물김치 우리 딸 물김치 만든 거 보민 무시거 고춧가루 조금 넣영 그

저 색깔만 나게 하고.(물김치 우리 딸 물김치 만든 거 보면 무엇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그제 색깔만 나게 하고.)

107040 @ 예.(예.)

107040 #3 뭇사 넣어신지 그게 경 맛이 좋아.(무엇을 넣었는지 그게 그렇게 맛이 좋아.)

107040 @ 아이고 게난 지금 딸 자랑험수광?(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딸 자랑하십니까?)

107040 #3 그거 그거민 그 물김치민 아무 것도 웃어도 밥 먹어져.(그거 그거면 그 물김치면 아무 것도 없어도 밥 먹어져.)

107040 @ 아, 기짱? 맛있겠다예? (아, 그렇습니까? 맛있겠군요?)

107040 #3 게난 제주시에서 소문난. 집집마다 땡기명 헤드렌 허명 바쁘게 땡기주게.(그러니 제주시에서 소문났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면서 바쁘게 다니지.)

107041 @ 어르신 동지김치¹⁰⁹도 알아마씨? 동지김치?(어르신 ‘동지김치’도 알아요? 동지김치?)

107041 #3 그거 이제 잘 안 허여.(그거 이제 잘 안 해.)

107041 @ 동지김치가 뭐짱?(‘동지김치’가 뭘니까?)

107041 #3 그것도 배추 커근영 영 동지 사주게?(그것도 배추 커서 이렇게 ‘동지’ 서지?)

107041 @ 예.(예.)

107041 #3 그거 꺾어당 덩케기는 못 먹어 세영. 영 요만씩 꺾어당 소금에 죽였당 이제 그제 양념허영 김치 허듯이 양념허영 버무령 딱 허게 허영 통에 담양 놔두민 익으면 딱 그것도 맛있어.(그제 꺾어다가 등치는 못 먹어 세어서. 이렇게 요만씩 꺾어다가 소금에 죽였다가 이제 그제 양념해서 김치 하듯이 양념해서 버무려서 딱 하게 해서 통에 담가서 놔두면 익으면 딱 그것도 맛있어.)

107041 @ 겐디 그건 무사 동지김치라고 불런마씨?(그런데 그건 왜 ‘동지김치’라고 불렀어요?)

107041 #3 동지난게. 게난 동지가 이만큼 사주게.(‘동지’니까. 그러니 ‘동지’가 이만큼 서지.)

107041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41 #3 응.(응.)

107042 @ 그른 무김치. 무김치는 어떻 만들언마씨?(그러면 무김치. 무김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07042 #3 무김치 이디선 늠빠라고 허주게. 늠빠.(무김치 여기서는 ‘늠빠’라고 하지. ‘늠빠’.)

107042 @ 예. 늠빠김치마씨.(예. 무김치요.)

109) ‘동지김치’는 배추 따위에서 돌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42 #3 그것도 동지김치랑 마찬가지로 담야. 막 큰 그릇에 담양 봄 나도록 먹주게.(그것도 '동지김치'랑 마찬가지로 담가. 막 큰 그릇에 담가서 봄 나도록 먹지.)

107042 @ 봄 나도록 먹어마씨?(봄 나도록 먹어요?)

107042 #3 어.(어.)

107042 @ 그럼 동지김치랑 늬빠김치랑 만드는 거는 똑같아마씨?(그럼 '동지김치'랑 무김치랑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107042 #3 어. 똑같아.(어. 똑같아.)

107043 @ 그럼 파김치는 어떻 만들어마씨? 파김치?(그럼 파김치는 어떻게 만들어요? 파김치?)

107043 #3 파김치는 임시 그자 허멍 썰영 그거 허는 날부터 먹주게.(파김치는 임시 그자 하면서 썰어서 그거 하는 날부터 먹지.)

107043 @ 예.(예.)

107043 #3 먹는다 저 양념이 더 들어가.(먹는데 저 양념이 더 들어가.)

107043 @ 파김치에?(파김치에?)

107043 #3 어.(어.)

107043 @ 무사?(왜요?)

107043 #3 양념 족게 넣으면 파김치 먹지 못 허여. 맛 엇어.(양념 적게 넣으면 파김치 먹지 못 해. 맛 엇어.)

107044 @ 그럼 어르신 달래김치도 들어봤수광? 달래김치? 달래김치는 안 들어봤수광?(그럼 어르신 달래김치도 들어봤습니까? 달래김치? 달래김치는 안 들어봤습니까?)

107044 #3 달래김치는 안 들어봤어.(달래김치는 안 들어봤어.)

107044 @ 아, 기광?(아, 그렇습니까?)

107044 #3 어.(어.)

107045 @ 그럼 갓김치는 알아마씨?(그럼 갓김치는 알아요?)

107045 #3 으.(어.)

107045 @ 갓김치는 뭐광?(갓김치는 뭐니까?)

107045 #3 그거? 이제 씨 아니 뿌려도 어디 밭이 영 질담에 영 나매. 그냥 씨 아니 놔둬.(그거? 이제 씨 안 뿌려도 어디 밭에 이렇게 길담에 이렇게 나. 그냥 씨 안 놔둬.)

107045 @ 예.(예.)

107045 #3 그거 이제 막 강 손으로 강 허당근영 죽영 허주게. 그것도 꼭 김치영 ㅁ치 허여.(그거 이제 막 가서 손으로 가서 해다가 죽여서 하지. 그것도 꼭 김치와 같이 해.)

107045 @ ㅁ치 허여?(같이 해?)

107045 #3 게민 그거 저 향기가 썩허게 해. 게난 그것이 좋덴 경 허맨.(그러면

그거 저 향기가 썩하게 해. 그러니 그것이 좋다고 그렇게 해.)

107046 @ 그믐 부추김치는 알아마씨? 부추김치는 안 들어봤?(그러면 부추김치는 알아요? 부추김치는 안 들어봤어요?)

107046 #3 그건 모르کن게.(그거는 모르겠다.)

107047 @ 그럼 아까 김치 담그는 거 말해줬인디. 배추김치나 늬삐김치 담글 때 좀 다른 거 엇우광?(그럼 아까 김치 담그는 거 말해줬는데. 배추김치나 무김치 담글 때 좀 다른 거 없습니까?)

107047 #3 다른 거 엇어. 그제 배추김치 허는 거 양념 ㄹ트게 허면 돼여.(다른 거 엇어. 그제 배추김치 하는 거 양념 같게 하면 돼.)

107037 @ 할머니 이제 김치 종류 좀 물어보젠 햄신디예.(할머니 이제 김치 종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07037 #4 김치 종류?(김치 종류?)

107037 @ 예. 김치 종류는 뭐, 뭐 잇주마씨? 김치 종류?(예. 김치 종류는 뭐, 뭐 잇지요? 김치 종류?)

107037 #4 김치 종류도게 에이 김치 종류 그제 여러 가지라.(김치 종류도 에이 김치 종류 그제 여러 가지야.)

107037 @ 예. 여러 가지 잇주마씨. 여러 가지 뭐, 뭐 잇주마씨?(예. 여러 가지 잇지요. 여러 가지 뭐, 뭐 잇지요?)

107037 #4 깍두기도 싯고 이제.(깍두기도 있고.)

107037 @ 예.(예.)

107037 #4 배추김치도 싯고.(배추김치도 있고.)

107037 @ 예.(예.)

107037 #4 뭐 몬 곶아지크라? 어디?(뭐 전부 말할 수 있겠어? 어디?)

117038 @ 그럼 그 배추김치는 어떻 만들주마씨?(그럼 그 배추김치는 어떻게 만 들지요?)

117038 #4 배추김치는 소곰에 죽엿다근엿게.(배추김치는 소곰에 죽엿다가.)

117038 @ 예.(예.)

117038 #4 건정 물 빠지믄 그제 양념 허엿당 양념 버무렁 놔두면 김치 돼는 거 난게.(건져서 물 빠지면 그제 양념 했다가 양념 버무리서 놔두면 김치 되는 거니까.)

117039 @ 음. 그럼. 열무김치도 행 드션마씨?(음. 그럼. 열무김치도 해서 드셨어요?)

117039 #4 게. 열무김치도 행 먹곡.(그럼. 열무김치도 해서 먹고.)

117039 @ 열무김치는 어떻 만드는 거마씨? 배추김치랑 만드는 거 똑같아마씨? (열무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배추김치랑 만드는 거 똑같아요?)

117039 #4 같아.(같아.)

117040 @ 물김치는마씨?(물김치는요?)

117040 #4 물김치는게 그거 소금 영 헛다근엥 물 넣으멍 손으로 영 행 만드는 거난게.(물김치는 그거 소금 이렇게 했다가 물 넣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니까.)

117041 @ 그럼 동지김치도 알아마씨?(그럼 '동지김치'도 알아요?)

117041 #4 어. 동지김치도 행 먹곡.(어. '동지김치'도 해서 먹고.)

117041 @ 그럼 동지김치는 뭐짱?(그럼 '동지김치'는 뭐입니까?)

117041 #4 누물 동지 흐쫄 사가민.(나물 장다리 조금 서가면.)

117041 @ 예.(예.)

117041 #4 그걸로 김치 허는 것이라 동지김치라고 허주게.(그걸로 김치 하는 것 더러 '동지김치'라고 하지.)

117041 @ 아, 그럼 그거는 지금도 행 만들어마씨?(아, 그럼 그거는 지금도 해서 만들어요?)

117041 #4 어. 지금도 만들야.(어. 지금도 만들어.)

117042 @ 그럼 늠뻘김치 잇잖아예? 그 무김치.(그럼 '늠뻘김치' 잇잖아요? 그 무김치.)

117042 #4 어. 무김치 그것도 만들곡.(어. 무김치 그것도 만들고.)

117043 @ 파김치도 만들엇수짱?(파김치도 만들엇습니까?)

117043 #4 파김치도 만들곡.(파김치도 만들고.)

117043 @ 어떻 만들어마씨?(어떻게 만들어요?)

117043 #4 부추김치도 만들곡.(부추김치도 만들고.)

117046 @ 어. 그럼 그 부추김치는 어떻 만들어마씨?(어. 그럼 그 부추김치는 어떻게 만들어요?)

117046 #4 그거 파김치나 일체로 만들어.(그거 파김치나 일체로 만들어.)

117046 @ 아, 부추김치는 파김치랑 일체로 만들어마씨?(아, 부추김치는 파김치랑 일체로 만들어요?)

117046 #4 어. 일체로 만들야.(어. 일체로 만들어.)

117046 @ 같이 만드는 건 아니지예?(같이 만드는 건 아니지요?)

117046 #4 아니.(아니.)

117044 @ 그럼 달래김치도 만들언마씨?(그럼 달래김치도 만들엇어요?)

117044 #4 달래? 달래가 어디 경 쉬와? 못 허주게.(달래? 달래가 어디 그렇게 쉬워? 못 하지.)

117044 @ 아, 달래는 여기 별로 엇어 부난 잘 안 만들엇수짱?(아, 달래는 여기 별로 없어 버리니까 잘 안 만들엇습니까?)

117044 #4 어. 달래가 쉽지 았앗주게. 이디서는.(어. 달래가 쉽지 았앗지. 여기서는.)

117045 @ 갓김치는?(갓김치는?)

117045 #4 어?(어?)

117045 @ 갓김치. 갓김치마씨?(갓김치. 갓김치요?)

117045 #4 어?(어?)

117045 @ 저기 남해안 쪽에 경상남도 쪽에 갓김치 잇잖아예?(저기 남해안 쪽에 경상남도 쪽에 갓김치 잇잖아요?)

117045 #4 어. 그거 여기도 그런 거 만들었주게.(어. 그거 여기도 그런 거 만들었지.)

117045 @ 아, 여기도 만들언마씨?(아, 여기도 만들었어요?)

117045 #4 게.(그럼.)

107045 @ 그럼 그건 어떻 만들었수광?(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45 #4 만들기는 허여도 난 안 허곡 먹기만 헛낫주게.(만들기는 해도 난 안 하고 먹기만 했었지.)

젓갈

107048 @ 그럼 젓갈 잇잖아예? 젓갈. 젓갈.(그럼 젓갈 잇잖아요? 젓갈. 젓갈.)

107048 #2 제사할 때?(제사할 때?)

107048 @ 아니 그냥 그 뭐 자리젓, 멜젓.(아니 그냥 그 뭐 자리젓, 멀치젓.)

107048 #2 아, 그 젓.(아, 그 젓.)

107048 @ 예. 젓 좀 종류는 뭐, 뭐 잇었주마씨?(예. 젓 좀 종류는 뭐, 뭐 있었지요?)

107048 #2 아 이딴 이딴 자리젓만 행 먹언. 자리젓.(아 여기 여기 자리젓만 해서 먹었어. 자리젓.)

107049 @ 그럼 그 자리젓은 옛날에 어떻 만들언마씨? 그 좀 자세하게 길게 얘기해 줘서.(그럼 그 자리젓은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좀 자세하게 길게 얘기해 주십시오.)

107049 #2 자리 사당계 소금 영 놔근영 호끔 영 대가리 뺏아야 돼여. 영 뺏아사 경 안 하든 냄새나. 게난 머리에 아무래도 소금 담양 허는 모양이라. 경 행 호끔 영 두드려근영 머리뺏 같은데 두드렁 단지에 담가 놔두면게 젓이 되는 거주게. 경 행 여름에도 먹곡 봄에도 먹곡.(자리 사다가 소금 이렇게 놔서 조금 이렇게 대가리 뺏아야 돼. 이렇게 뺏아야 그렇게 안 하면 냄새나.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두드려서 머리뺏 같은데 두드려서 단지에 담가 놔두면 젓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름에도 먹고 봄에도 먹고.)

107050 @ 멜젓은 안 해 먹언마씨?(멜치젓은 안 해 먹었어요?)

107050 #2 멜젓 행 먹지.(멜치젓 해서 먹지.)

107050 @ 그럼 멜젓은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멀치젓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50 #2 멜젓도 그추룩. 건 뺏지 았안. 그냥 영 영 버무리기만 행 단지에 담양 낫당 먹주게.(멜치젓도 그처럼. 그거는 뺏지 았았어. 버무리기만 해서 단지에 담가서 낫다가 먹지.)

107051 @ 그 아감, 아감젓은 어떻 만들어마씨?(그 아감미, 아감젓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51 #2 이딴 안 허여. 그런 거.(여기는 안 해. 그런 거.)

107051 @ 아, 이딴는 안 허여. 그럼 어떻 만드는 방법은 아시지예?(아, 여기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만드는 방법은 아시지요?)

107051 #2 몰라.(몰라.)

107052 @ 게젓은 안 먹었수광? 게젓? 갱이젓?(게젓은 안 먹었습니까? 게젓? 갱 ‘갱이젓’?)

107052 #2 이딴도 이딴는 갱이젓도 안 먹언. 갱이 약 행 먹으며. 다리 아픈 사람들 삶아근엿.(여기도 여기는 게젓도 안 먹었어. 게 약 해서 먹으며. 다리 아픈 사람들 삶아서.)

107052 @ 예.(예.)

107052 #2 죽도 쭈엿 먹곡.(죽도 쭈서 먹고.)

107052 @ 예.(예.)

107048 @ 할머니 그러면 젊으셨을 때 만든 종류 좀 얘기해 줘서. 젓갈.(할머니 그러면 젊으셨을 때 만든 종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젓갈.)

107048 #3 음. 자리 행 가근엿 모실포 강 상 왕.(음. 자리 해서 가서 ‘모슬포’ 가서 사서 와서.)

107048 @ 예.(예.)

107048 #3 이제 소곰 막 하엿 낵 그거 익으면 완전 잘 돼민 맛이 좋아. 게곡 멜도 사당 소곰 막 하엿 낵 버무렁 망데기¹¹⁰)에 딱 담양 익으면 것도 맛 좋으며. 옛날엔 돈도 엷고 하민 사먹지 못 허민 그거 경 행 놔두민 것이 반찬이라.(이제 소곰 막 많이 놔서 그거 익으면 완전 잘 되면 맛이 좋아. 그리고 멸치도 사다가 소곰 막 많이 놔서 버무려서 ‘망데기’에 딱 담가서 익으면 것도 맛 좋아. 옛날에는 돈도 없고 하면 사먹지 못 하면 그거 그렇게 해서 놔두면 것이 반찬이야.)

107048 @ 그러면 젓갈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 옛날에?(그러면 젓갈 종류는 뭐, 뭐 있었어요? 옛날에?)

107048 #3 젓갈 종류는 하주게.(젓갈 종류는 많지.)

107048 @ 예. 그거 한 거 좀 곱아 줘서.(예. 그거 많은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7048 #3 이제 뭐꼬 잇어 부린.(이제 뭐지 잇어 버렸어.)

107048 @ 멜젓?(멸치젓?)

107048 #3 멜젓도 허곡 새우젓도 허곡.(멸치젓도 하고 새우젓도 하고.)

107048 @ 그 다음에?(그 다음에?)

107048 #3 것배끼 엷어.(것밖에 없어.)

107048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10)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리지 않은 용기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망다기’라고도 한다.

107048 #3 어.(어.)

107049 @ 그럼 자리젓도 헛지예?(그럼 자리젓도 헛지요?)

107049 #3 어.(어.)

107049 @ 자리젓 만드는 거나 그런 거 좀 곱아 줘서.(자리젓 만드는 거나 그런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7049 #3 자리젓 만드는 거?(자리젓 만드는 거?)

107049 @ 예.(예.)

107049 #3 자리 가근엥 바구니로 하나 사당 비우민 큰 다라¹¹¹⁾로 하나 허민. 소금 넣엉 뒷박으로 경 허영 그거 젓엉 이젠 그건 이젠 걸이멍 사발로 걸이멍 이레 낱 돌 딱 지들와근엥 혼두 달은 놔뒤사 허여. 경 놔두민 벌겁게 익어. 익으면 하나씩 꺼내멍 먹주게.(자리 가서 바구니로 하나 사다가 부우면 큰 대야로 하나 하면. 소금 넣어서 뒷박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 저어서 이제는 그건 이제는 덜어서 사발로 덜어서 이리 놔서 돌 딱 지질러서 한두 달은 놔뒤야 해. 그렇게 놔두면 벌겁게 익어. 익으면 하나씩 꺼내면서 먹지.)

107049 @ 그럼 뭐 맛있게 만드는 방법 엿수광?(그럼 뭐 맛있게 만드는 방법 없습니까?)

107049 #3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 허당근엥 맛있게도 짓고 맛엇일 때도 잇곡.(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다가 맛있게도 있고 맛없을 때도 있고.)

107050 @ 그럼 멜젓은 어떻 담아마씨?(그럼 멀치젓은 어떻게 담가요?)

107050 #3 멜젓도 멜 사다근엥 다락에 놔근엥 멜젓은 소금이 하영 더 넣어야. 두 돼 넣을 때 석 돼 넣어야. 경 허민 것도 맛 좋아. 김치에도 넣곡 뒷에도 넣곡.(멀치젓도 멀치 사다가 다락에 놔서 멀치젓은 소금이 많이 더 넣어야. 두 돼 넣을 데 석 돼 넣어야. 그렇게 하면 것도 맛 좋아. 김치에도 넣고 뭐에도 넣고.)

107051 @ 할머니 아감젓 들어봤수광?(할머니 아감젓 들어봤습니까?)

107051 #3 아감지젓?(아감젓?)

107051 @ 예.(예.)

107051 #3 이제도 막 장이 나와.(이제도 막 장이 나와.)

107051 @ 아, 그건 뭐팡? 그건 어떻 만드는 거마씨?(아, 그건 뭐입니까?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7051 #3 그 고기.(그 고기.)

107051 @ 예.(예.)

107051 #3 고기 영 헤여근엥 영 배 가르민 저 뵈이 잇주게.(고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 가르면 저 뵈이 있지.)

107051 @ 예.(예.)

107051 #3 그거 떼어내어근엥 문딱 떼어내어근엥 그것이 젓 헤어 낫당 장이서 폴아. 그거 영 이제 저 무시거 오징에젓이영 허주게. 그거.(그거 떼어내서 전부 떼

111) '다라'는 일본어 '罎:たらい'로 대야를 의미한다.

어내서 그것이 젓 해 놔다가 장에서 팔아. 그거 이렇게 이제 저 무엇 오징어젓과 하지. 그거.)

107052 @ 할머니 그럼 김이젓은 어떻 만들어마씨?(할머니 그럼 게젓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52 #3 김이젓은? 저 이만씩 큰 김이. 그것이라 게영 허여.(게젓? 저 이만씩 큰 게. 그것더러 게라고 해.)

107052 @ 예. 게.(예. 게.)

107052 #3 게 그건 이제 영 낱 이제 장물 막 물 비와 낱 그 비와 둔 디에 또 양념 넣주게. 이것저것 낱 딱 허게 허영 놔두면 얼마 오래 안 해도 그거 익영 막 맛 좋아.(게 그건 이제 이렇게 놔서 이제 장물 막 물 부어 놔서 그 부어 둔 데에 또 양념 넣지. 이것저것 놔서 딱 하게 해서 놔두면 얼마 오래 안 해도 그거 익어서 아주 맛 좋아.)

107053 @ 그른 자리젓이랑 펠젓 만드는 거 다른 거는 엇수광? 차이는?(그러면 자리젓이랑 멸치젓 만드는 거 다른 거는 없습니까? 차이는?)

107053 #3 엇어. 저 오징어젓도 잇곡.(없어. 저 오징어젓도 있고.)

107053 @ 예. 그럼 오징어젓 만드는 거 좀 곱아 줘서.(예. 그럼 오징어젓 만드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7053 #3 오징어젓은? 오징어 막 낱양 허민 사당 씻고 몬딱 헤다근영 저 막 줍질게 썰어. 썰영 것도 소곰 넣곡 저 요즘은 설탕도 호끔 넣곡 경 허영 놔두면 그거 그저 그거. 장에 거 다 나와.(오징어젓? 오징어 막 낱아서 하면 사다가 씻고 전부 헤다가 저 막 잘게 썰어. 썰어서 것도 소곰 넣고 저 요즘은 설탕도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놔두면 그거 그저 그거. 장에 거 다 나와.)

107054 @ 할머니 출레¹¹²⁾ 잇잖아예 출레. 반찬. 출레.(할머니 ‘출레’ 잇잖아요. ‘출레’. 반찬. ‘출레’.)

107054 #3 출레?(‘출레’?)

107054 @ 출레는 안 들어보션마씨?(‘출레’는 안 들어보셨어요?)

107054 #3 출레 몰라. 이제 곱을 말 엇어.(‘출레’ 몰라. 이제 말할 거 없어.)

107048 @ 그럼 젓갈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 젓갈? 무슨 젓갈 잇언마씨?(그럼 젓갈 종류는 뭐, 뭐 잇었어요? 젓갈? 무슨 젓갈 잇었어요?)

107048 #4 젓갈 종류 무싱거 새우젓같이영 무신 무신 젓같이엔 해도 이디선 우린 잘 몰라.(젓갈 종류 무엇 새우젓갈과 무슨 무슨 젓갈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우리는 잘 몰라.)

107048 @ 음. 그럼 자리젓 알지예? 그건 어떻?(음. 그럼 자리젓 알지요? 그건 어떻게?)

107048 #4 어.(어.)

107049 @ 그거 자리젓은 어떻 만들주마씨? 자리젓은?(그거 자리젓은 어떻게 만

112)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들지요? 자리젓은?)

107049 #4 자리젓은게 자리 사다근엥 소금 맞게 낡 놔두면 익어. 익으면 자리젓이 돼주게.(자리젓은 자리 사다가 소금 맞게 놔서 놔두면 익어. 익으면 자리젓이 되지.)

107049 @ 음. 자리젓은 자주 해 먹었어? 옛날에도?(음. 자리젓은 자주 해 먹었어요? 옛날에도?)

107049 #4 어. 그건 자주 해 먹었어.(어. 그건 자주 해 먹었어.)

107050 @ 멸젓은?(멸치젓은?)

107050 #4 멸젓은 김치 할 때나 멸젓 허주게. 이제는 멸젓 잘 안 허여.(멸치젓은 김치 할 때나 멸치젓 하지. 이제는 멸치젓 잘 안 해.)

107050 @ 아, 멸젓 김치 할 때나 넣젠 헨마씨?(아, 멸치젓 김치 할 때나 넣으려고 했어요?)

107050 #4 어. 경 허젠들 해 오더라.(어. 그렇게 하려고들 해 오더라.)

107051 @ 그럼 아감젓은 어떻 헨마씨? 아감젓은?(그럼 아감젓은 어떻게 해요? 아감젓은?)

107051 #4 아감젓이 뭇이라?(아감젓이 무엇이야?)

107051 @ 아가미젓? 아게미젓?(아감젓? 아감젓?)

107051 #4 아니 그거 여기 바닷가에서나 꿩기 허는 데서나 허지. 이딴서 그런 거 젓 잘 안 허여.(아니 그거 여기 바닷가에서나 고기 하는 데서나 하지. 여기서 그런 거 젓 잘 안 해.)

107052 @ 그럼 게젓 강이젓은 잘 몰라마씨?(그럼 게젓 게젓은 잘 몰라요?)

107052 #4 어. 게젓, 강이젓은 사먹는 거라. 여기서는.(어. 게젓, 게젓은 사먹는 거야. 여기서는.)

107052 @ 아, 사먹는 거마씨?(아, 사먹는 거예요?)

107052 #4 어.(어.)

107054 @ 할머니 출레 알아지지예?(할머니 ‘출레’ 알아지지요?)

107054 #4 출레사게 밥반찬ㄹ라 출레라고 헛주게.(‘출레’야 밥반찬보고 ‘출레’라고 했지.)

107054 @ 예. 뭇 옛날에는 출레에 뭇, 뭇 들어간마씨?(예. 뭇 옛날에는 ‘출레’에 뭇, 뭇 들어갔어요?)

107054 #4 옛날에는 출레엔 허민 자리젓 허영 차려 먹어도 출레.(옛날에는 ‘출레’라고 하면 자리젓 해서 차려 먹어도 ‘출레’.)

107054 @ 예.(예.)

107054 #4 경 허영 출레라고 헛주. 출레가 뭇 따로 잇어게.(그렇게 해서 ‘출레’라고 했지. ‘출레’가 뭇 따로 잇어.)

107054 @ 예. 따로 잇지예?(예. 따로 없지요?)

107054 #4 어. 따로 잇어.(어. 따로 없어.)

107054 @ 요즘 아이들은 출레라 허민 잘 몰라예?(요즘 아이들은 ‘출레’라 하면 잘 몰라요?)

107054 #4 모르지. 이젠 반찬이엔 허주 반찬.(모르지. 이제는 반찬이라고 하지 반찬.)

107054 @ 예. 반찬이라고 해주마씨.(예. 반찬이라고 하지요.)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종류는 뭐, 뭐 있어마씨? 음식. 이제 음식 물어볼 거마씨. 장아찌 종류마씨.(장아찌 종류는 뭐, 뭐 있어요? 음식. 이제 음식 물어볼 거예요. 장아찌 종류요.)

107055 #2 마늘도 허영 장아찌하고 장아찌 종류가계.(마늘도 해서 장아찌하고 장아찌 종류가.)

107055 @ 예. 기억나는 거 좀 다 곁아 줍서. 마늘이랑 또.(예. 기억나는 거 좀 다 말해 주십시오. 마늘이랑 또.)

107055 #2 그거 이제 잘 안 먹으난계.(그거 이제 잘 안 먹으니까.)

107055 @ 그럼 마늘장아찌 잇잖아예?(그럼 마늘장아찌 잇잖아요?)

107055 #2 어.(어.)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방법 좀 곁아 줍서.(마늘장아찌 만드는 방법 좀 말해 주십시오.)

107056 #2 그거게 저 어린 때도 허여. 어린 때 메다근엥 찢라.(그거 저 어릴 때도 해. 어릴 때 메다가 잘라.)

107056 @ 예.(예.)

107056 #2 마늘 찢라근엥 장아찌 허주게. 또 익어가민 메영 장아찌 허주게.(마늘 잘라서 장아찌 하지. 또 익어 가면 메어서 장아찌 하지.)

107056 @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방법 곁아 줍서.(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방법 얘기해 주십시오.)

107056 #2 저 장물 만들엥 그디 식형 허주게. 장물 그냥 담으면 돼주게. 장물에 식형 담으면 장아찌 그거 돼여. 경 해야 변허지 않고.(저 장물 만들어서 거기 식혀서 하지. 장물 그냥 담으면 되지. 장물에 식혀서 담으면 장아찌 그거 돼. 그렇게 하여 변하지 않고.)

107057 @ 휘 잇잖아예? 휘.(회 잇잖아요? 회.)

107057 #2 어.(어.)

107057 @ 휘 종류는 뭐, 뭐 있어마씨? 여기는?(회 종류는 뭐, 뭐 있어요? 여기는?)

107057 #2 자리휘.(자리회.)

107057 @ 예.(예.)

107057 #2 방어휘.(방어회.)

107057 @ 예.(예.)

107057 #2 그것 ㄹ라 뭐라고 했지.(그것더러 뭐라고 했지.)

107057 @ 그럼 주로 여기서 드시는 횡는 뭐마씨?(그럼 주로 여기서 드시는 횡는 뭐예요?)

107057 #2 여기서는 자리횡 먹주게. 모슬포서 자리 많이 나주게. 겐디 횡는 다 행 먹었어. 싱싱만 허민게.(여기서는 자리횡 먹지. 모슬포에서 자리 많이 나지. 그런데 횡는 다 해서 먹었어. 싱싱하기만 하면.)

107057 @ 싱싱허면?(싱싱하면?)

107057 #2 어. 방어 뭐 저 것 ㄹ라 무싱거라 헛인디 잊어불었다.(어. 방어 뭐 저 것더러 무엇이라 했는데 잊어버렸다.)

107057 @ 뭐 광어나 우럭마씨?(뭐 광어나 우럭이요?)

107057 #2 어. 광어, 광어 같은 것도 먹어났주게. 광어 같은 거는 첫째 좋은 거. 광어 말고 저 그 무싱거 맛엇인 거 잊인디.(어. 광어, 광어 같은 것도 먹어났지. 광어 같은 거는 첫째 좋은 거. 광어 말고 저 그 무엇 맛없는 거 있는데.)

107058 @ 그럼 옛날에는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해 먹는 반찬이 따로 잊지 않아마씨?(그럼 옛날에는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해 먹는 반찬이 따로 잊지 않아요?)

107058 #2 옛날에는 자리젓 해낫주게.(옛날에는 자리젓 헛엇지.)

107058 @ 아, 자리젓?(아, 자리젓?)

107058 #2 어. 반찬 엇일 때.(어. 반찬 없을 때.)

107058 @ 그럼 봄에만 할 수 잇는 반찬은 뭐 잊어마씨? 봄에 주로 해 먹는 건 뭐 잇언마씨? 봄에 주로 해 먹는 거.(그럼 봄에만 할 수 잇는 반찬은 뭐 잇어요? 봄에 주로 해 먹는 건 뭐 잇엇어요? 봄에 주로 해 먹는 거.)

107058 #2 게나저나 옛날은 자리가, 자리가 최고. 자리도 먹곡, 생기리¹¹³⁾도 행 먹고 헛주게.(그나저나 옛날은 자리가, 자리가 최고. 자리도 먹고, ‘생기리’도 해서 먹고 헛지.)

107058 @ 생기리마씨? 그거 생기리가 뭐짱?(‘생기리’요? 그거 ‘생기리’가 뭐입니까?)

107058 #2 무수 썰영 물령.(무 썰어서 말려서.)

107058 @ 예.(예.)

107058 #2 그거 장아찌추룩 만들영 먹엇주게.(그거 장아찌처럼 만들어서 먹엇지.)

107058 @ 아, 그럼 무수로도 장아찌 만들 수 잇네예?(아, 그럼 무로도 장아찌 만들 수 잇군요?)

107058 #2 어.(어.)

107058 @ 게난 얘기허니까 막 나왔신게마씨.(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막 나오는

113) ‘생기리’는 무말랭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군요.)

107058 @ 그 큰 뽕 물회는 보통 여름에 먹잖아예?(그러면 뽕 물회는 보통 여름에 먹잖아요?)

107058 #2 물회는 자리회가 제일. 무신 이 저 오징에 말고 낙지 낙지도 낙지 말고.(물회는 자리회가 제일. 무엇 이 저 오징어 말고 낙지 낙지도 낙지 말고.)

107058 @ 문어?(문어?)

107058 #2 아니 저 문어보다 비싸고 더 맛있는 거. 것보고 뽕시라 허는데.(아니 저 문어보다 비싸고 더 맛있는 거. 것보고 뽕라 하는데.)

107058 @ 문어 말앙 뽕 오징어, 문어 비슷한 거마씨? 낙지. 세 가지밖에 엇인디.(문어 말고 뽕 오징어, 문어 비슷한 거예요? 낙지. 세 가지밖에 없는데.)

107058 #2 아니. 그 여름에 한 때 나는 거 그거.(아니. 그 여름에 한 때 나는 거 그거.)

107058 @ 한치마씨?(한치요?)

107058 #2 어. 한치. 한치.(어. 한치. 한치.)

107058 @ 한치물회가 맛있지예?(한치물회가 맛있지요?)

107058 #2 어. 한치물회. 그거 한치물회 먹엇주게.(어. 한치물회. 그거 한치물회 먹엇지.)

107058 @ 그럼 고사리무침은 언제 해 드션마씨?(그럼 고사리무침은 언제 해 드셨어요?)

107058 #2 봄에. 봄에. 봄에 고사리 나주게. 이 고사리 처음에 날 거라 봄이 뜻아 가민 겨울 들엇당 봄이 뜻아 가민.(봄에. 봄에. 봄에 고사리 나지. 이 고사리 처음에 날 거야. 봄에 따듯해 가면 겨울 들엇다가 봄에 따듯해 가면.)

107058 @ 그러니까 봄에는 고사리 보통 많이 해 먹잖아예?(그러니까 봄에는 고사리 보통 많이 해 먹잖아요?)

107058 #2 어.(어.)

107058 @ 봄에는 고사리 먹고. 여름에는 물회 먹고. 그럼 가을에는 뽕 이렇게 먹는 거 엇어마씨?(봄에는 고사리 먹고. 여름에는 물회 먹고. 그럼 가을에는 뽕 이렇게 먹는 거 없어요?)

107058 #2 이즈음에 방어 알지?(이즈음에 방어 알지?)

107058 @ 아 알주마씨.(아 알지요.)

107058 #2 방어 모슬포에서 방어가 경 많이 나.(방어 모슬포에서 방어가 그렇게 많이 나.)

107058 @ 아, 지금이 딱 방어 먹을 때구나예?(아, 지금이 딱 방어 먹을 때군요?)

107058 #2 방어 축제도 헐 거라. 십일월 초에.(방어 축제도 할 거야. 십일월 초에.)

107058 @ 십이월?(십이월?)

107058 #2 십일월. 십일월 초에. 방어 많이 나쁜 모슬포에서 어 자라도 많이 나지. 우리나라에서 모슬포가 제일 많이 자리 잡힐 거라. 마라도 가파도에 그 근처에 자리가 많주게.(십일월. 십일월 초에. 방어 많이 나면 ‘모슬포’에서 어 자라도 많이 나지. 우리나라에서 ‘모슬포’가 제일 많이 자리 잡힐 거야. ‘마라도’ ‘가파도’에 그 근처에 자리가 많지.)

107058 @ 그럼 겨울에는 옛날엔 뭐 주로 해 드셨마씨? 겨울에는?(그럼 겨울에는 옛날에는 뭐 주로 해 드셨어요? 겨울에는?)

107058 #2 자리젓 해놔당 먹고 뭐 잇어게. 자리젓 주로 먹었주게.(자리젓 해놔다가 먹고 뭐 잇어. 자리젓 주로 먹었지.)

107058 @ 계난 여름에 보통 자리훤 먹고 그거 담가놔당 겨울에 자리젓을 먹는 거마씨?(그러니까 여름에 보통 자리훤 먹고 그거 담가놔다가 겨울에 자리젓을 먹는 거예요?)

107058 #2 어. 보통 자리젓으로 살았주게.(어. 보통 자리젓으로 살았지.)

107055 @ 그럼 할머니 장아찌 잇잖아예? 장아찌?(그럼 할머니 장아찌 잇잖아요? 장아찌?)

107055 #4 어.(어.)

107055 @ 장아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잇잖아예? 뭐, 뭐 잇었주마씨?(장아찌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잇잖아요? 뭐, 뭐 잇었지요?)

107055 #4 아무거나라도 멘들면게 장아찌난게.(아무거나라도 만들면 장아찌니까.)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것 좀 곱아 줘서 할머니.(마늘장아찌 만드는 것 좀 말해 주십시오 할머니.)

107056 #4 이거 마농, 마농.(이거 마늘, 마늘.)

107056 @ 예. 이걸로 허는 거잖아예? 마농으로.(예.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마늘로.)

107056 #4 이걸로 허여근엥 이거 이거 스뭇 굳기 전에 강 허영 오는 거라 장아찌 허젠 허민.(이걸로 해서 이거 이거 사뭇 굳기 전에 가서 해서 오는 거야 장아찌 하려고 하면.)

107056 @ 예.(예.)

107056 #4 이거 매기 전이.(이거 매기 전에.)

107056 @ 아, 이거 매기 전이?(아, 이거 매기 전에?)

107056 #4 어. 씨 허기 전이.(어. 씨 하기 전에.)

107056 @ 예.(예.)

107056 #4 흐쉴 선 때에 강 허여다근엥 껍질 벗겨지지 않주게.(조금 선 때에 가서 해다가 껍질 벗겨지지 않지.)

107056 @ 예.(예.)

107056 #4 경 혈 때 허여당 장아찌 헐게.(그렇게 할 때 해다가 장아찌 했어.)

107056 @ 음.(음.)

107056 #4 이거 영 이젠 허민 이거 세영 먹지 못 해 장아찌.(이거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거 세서 먹지 못 해 장아찌.)

107056 @ 아, 이걸 세서 못 먹어마씨?(아, 이걸 세서 못 먹어요?)

107056 #4 어. 세영 못 먹어 이걸. 계란 막 어랑어랑 허영 클 때에.(어. 세서 못 먹어 이걸. 그러니 아주 ‘어랑어랑’ 해서 클 때.)

107056 @ 예.(예.)

107056 #4 동지 소꿉으로 스몫 나오지 안 할 때에 이거 허여다근엥 장아찌 허난 좋안게.(장다리 속으로 사몫 나오지 안 할 때에 이거 해다가 장아찌 하니까는 좋았어.)

107056 @ 아, 경 허난 장아찌 허난 좋아?(어, 그렇게 하니까 장아찌 하니까 좋아?)

107056 #4 어.(어.)

107057 @ 그 아까 장아찌 막 물어봤잖아예?(그 아까 장아찌 막 물어봤잖아요?)

107057 #4 응.(응.)

107057 @ 근데 여기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잘 아는 건데 휘 종류는 좀 아시는 거 잇어마씨? 할머니?(근데 여기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잘 아는 건데 회 종류는 좀 아시는 거 잇어요? 할머니?)

107057 #4 휘 난 몰라 휘.(회 난 몰라 회.)

107057 @ 휘 종류는 잘 모르지예?(회 종류는 잘 모르지요?)

107057 #4 어.(어.)

107058 @ 그럼 계절마다 출레가 조금 좀 달라지잖아예? 계절마다.(그럼 계절마다 ‘출레’가 조금 좀 달라지잖아요? 계절마다.)

107058 #4 계절마다 달라지주게.(계절마다 달라지지.)

107058 @ 뭐, 예를 들어 고사리무침은 보통 언제 해 먹언마씨?(뭐, 예를 들어 고사리무침은 보통 언제 해 먹었어요?)

107058 #4 고사리무침 ㄱ튼 것도 그거 흔엇이.(고사리무침 같은 것도 그거 별로.)

107058 @ 그럼 봄에 주로 먹는 반찬은 뭐 잇인가마씨?(그럼 봄에 주로 먹는 반찬은 뭐 없을까요?)

107058 #4 주로 먹는 반찬 무싱거 무싱거?(주로 먹는 반찬 무엇 무엇?)

107058 @ 그러니까 여름에는 보통 냉국 잘 행 먹잖아예?(그러니까 여름에는 보통 냉국 잘 해서 먹잖아요?)

107058 #4 어.(어.)

107058 @ 그런 것처럼 여름에 보통 뭐 자리휘 이런 거는 뭐 보통 겨울에 먹고 그런 거 잇잖아예?(그런 것처럼 여름에 보통 뭐 자리회 이런 거는 뭐 보통 겨울에 먹고 그런 거 잇잖아요?)

107058 #4 어.(어.)

107058 @ 방어 같은 거는 보통 가을에 먹잖아예?(방어 같은 거는 보통 가을에 먹잖아요?)

107058 #4 어. 그런 것도게 강 사 오라 질 때나 먹지 무신.(어. 그런 것도 가서 사 올 수 있을 때나 먹지 무슨.)

107058 @ 그럼 호박무침 같은 거는 보통 언제 해 먹었마씨? 것도 그냥 사와 먹어마씨?(그럼 호박무침 같은 거는 보통 언제 해 먹었어요? 것도 그냥 사와 먹어요?)

107058 #4 아니게. 호박은 이녀 저녀 행 허민 것사 이녀 행 먹주게. 그냥 행 먹는 거.(아니. 호박은 이녀 저녀 해서 하면 거야 이녀 해서 먹지. 그냥 해서 먹는 거.)

107058 @ 그럼 할머니 옛날을 기억해 보면예. 겨울에는 보통 어떤 반찬 행 먹었마씨?(그럼 할머니 옛날을 기억해 보면. 겨울에는 보통 어떤 반찬 해서 먹었어요?)

107058 #4 어?(어?)

107058 @ 추울 때마씨.(추울 때요.)

107058 #4 저울에 무신 뭐 김치나 허곡 무신 트멍에 반찬에 행 먹을 때 돼지 ㄱ튼 거.(겨울에 무슨 뭐 김치나 하고 무슨 틈에 반찬에 해서 먹을 때 돼지 같은 거.)

107058 @ 돼지 ㄱ튼 거?(돼지 같은 거?)

107058 #4 어.(어.)

107058 @ 그래도 고기는 좀 드셨군요? 좀 잘 사셨군요?(그래도 고기는 좀 드셨군요? 좀 잘 사셨군요?)

107058 #4 응. 고기는 좀 사 먹었주게.(응. 고기는 좀 사 먹었지.)

107058 @ 아, 사 먹었마씨?(아, 사 먹었어요?)

107058 #4 어.(어.)

장 담그기

107059 @ 어르신 그럼 예전에도 장 담그잖아예?(어르신 그럼 예전에도 장 담그잖아요?)

107059 #2 어.(어.)

107059 @ 장은 보통 언제 담그셨마씨? 예전에?(장은 보통 언제 담그셨어요? 예전에?)

107059 #2 이 겨울 들어가야.(이 겨울 들어가야.)

107059 @ 예.(예.)

107059 #2 이 그 변허지 못허게 해야 하난 십일월 달 넘어가민 메주를 삶아.(이 그 변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십일월 달 넘어가면 메주를 삶아.)

107059 @ 예.(예.)

107059 #2 이제 조금 잇이른 이 콩 헐 때가 됐어 지금. 콩 헐 때가 됐난 그걸 장만해영 십일월 구물어¹¹⁴ 가든 그걸 메줄 삶아 경 허영 이걸 키와근엥 이제 겨울 지나근엥 이제 음력으로 일월 나기 전이 십이월 달에 담야. 담가.(이제 조금 있으면 이 콩 할 때가 됐어 지금. 콩 할 때가 되니까 그걸 장만해서 십일월 ‘구물어’ 가던 그거를 메주를 삶아서 그렇게 해서 이걸 키워서 이제 겨울 지나서 이제 음력으로 일월 되기 전에 십이월 달에 담가. 담가.)

107059 @ 예.(예.)

107059 #2 소금 행 담갔당 또 늦은 봄 나쁜 또 여 웬장하고 장물을 따로 만들어야.(소금 해서 담갔다가 또 늦은 봄 나면 또 여 된장하고 장물을 따로 만들어.)

107059 @ 예.(예.)

107059 #2 경 허민 뉘주게.(그렇게 하면 되지.)

107060 @ 그럼 장 종류는 뭐 잇언마씨?(그럼 장 종류는 뭐 있었어요?)

107060 #2 콩으로 뿐. 콩 허영 장 허여.(콩으로 뿐. 콩 해서 장 해.)

107060 @ 그러니까 콩으로 뭐 무슨 장 무슨 장 만들언마씨? 고추장, 웬장?(그러니까 콩으로 뭐 무슨 장 무슨 장 만들었어요? 고추장, 된장?)

107060 #2 고추장, 웬장 만들주게.(고추장, 된장 만들지.)

107060 @ 간장은?(간장은?)

107060 #2 게.(그럼.)

107061 @ 그든 고추장, 웬장, 간장 또 엇인가마씨?(그러면 고추장, 된장, 간장 또 없어요?)

107060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7060 @ 그든 고추장이나 웬장이나 간장은 딱 만드는 게 다르잖아예? 방법은 같은 거마씨.(그러면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은 딱 만드는 게 다르잖아예? 방법은 같은 거요.)

107061 #2 게. 고추장 만들젠 하면게 고춧가루 넣곡 고추장 만들고. 웬장 넣곡 서경.(그럼. 고추장 만들려고 하면 고춧가루 넣고 고추장 만들고. 된장 넣고 섞어서.)

107061 @ 예.(예.)

107061 #2 경만 허주게. 웬장은 이 메주 허지.(그렇게만 하지. 된장은 이 메주로 하지.)

107061 @ 예.(예.)

107061 #2 콩 삶양 메주 만들영 몰려왕. 몰려왕 소금물에 영 담강 건진 것이 웬장. 물은 그 간장이주게.(콩 삶아서 메주 만들어서 말려. 말려서 소금물에 이렇게 담가서 건진 것이 된장. 물은 그 간장이지.)

114) ‘구물다’는 그 달의 날짜가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다 혹은 그 해가 거의 세밑에 가까워지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107061 @ 아, 그렇게 허는 거구나예?(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107061 #2 어.(어.)

107062 @ 그러면 메주는 어 메주는 그러니까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만들기 전에 이렇게 쓰는 거구나예. 메주는 딱히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엇어마씨? 이렇게 드라마 보민 영 허잖아예? 달려 잇잖아예? 그건 어떻 만들어마씨?(그러면 메주는 어 메주는 그러니까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만들기 전에 이렇게 쓰는 거군요. 메주는 딱히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드라마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달려 잇잖아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107062 #2 아니게 콩 해다근엥.(아니 콩 해다가.)

107062 @ 예.(예.)

107062 #2 술이다 삶양 익형.(술에다 삶아서 익혀서.)

107062 @ 예.(예.)

107062 #2 익혀근엥 막 뺏아. 뺏앙게 영 뜨뜻하게 해근엥 그거를 곰생이 피게 허영 경 헤사 발효되는 거주게. 발효돼어. 발효돼게 발효돼어사.(익혀서 막 뺏아. 뺏아서 이렇게 뜨뜻하게 해서 그거를 곰팡이 피게 해서 그렇게 해야 발효되는 거지. 발효돼. 발효되게 발효되어야.)

107062 @ 예.(예.)

107062 #2 이제 옆이서 시쳐 뒤근엥 소금물 헤영.(이제 옆에서 씻어 뒤서 소금물 해서.)

107062 @ 예.(예.)

107062 #2 소금물 헤냥 그거를 메주로 들이쳐부러. 들이청 늦은 봄 돼민 영 메주를 건져. 건지든 된장 그 물은 간장. 경 허영게 따로 행 먹는 거주게. 콩 발효시켜사 발효.(소금물 해놔서 그거를 메주로 들이뜨려. 들이뜨려서 늦은 봄 되면 이렇게 메주를 건져. 건지면 된장 그 물은 간장. 그렇게 해서 따로 해서 먹는 거지. 콩 발효시켜야 발효.)

107062 @ 아.(아.)

107062 #2 발효 영 세계 해야 돼주게.(발효 이렇게 세계 해야 되지.)

107062 @ 그럼 발효 세계 안 허민 어떻 돼마씨?(그럼 발효 세계 안 하면 어떻게 되요?)

107062 #2 안 돼주게.(안 되지.)

107063 @ 그럼 장 담글 때 옛날에 막 그런 거 잇수게. 뭐 할 때 뭐 허지 말아라 그런 거. 혹시 장 담글 때도 그런 거 잇어마씨? 장 담글 때 뭐 육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그런 거 잇언마씨?(그럼 장 담글 때 옛날에 막 그런 거 잇지 않습니까. 뭐 할 때 뭐 하지 마라 그런 거. 혹시 장 담글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장 담글 때 뭐 육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런 거 있었어요?)

107063 #2 그런 건 아닌디 영장밭에 강 오지 마라. 안 돼주게. 게고 바닷물이 쌀 때 허지 말앙 들 때 허라고 헛주게.(그런 건 아닌데 장지에 가서 오지 마라. 안

되지. 그리고 바닷물이 썰물 때 하지 말고 밀물 때 하라고 했지.)

107063 @ 아, 장 담글 때마씨?(아, 장 담글 때요?)

107063 #2 어. 게고 날 봐. 베염날 그런 날에 하면 안 된다고 개날 염소날 토끼날 그런 좋은 짐승날 담그주게. 그런 거 봐. 지금도.(어. 그리고 날 봐. 뱀날 그런 날에 하면 안 된다고. 개날 염소날 토끼날 그런 좋은 짐승날 담지. 그런 거 봐. 지금도.)

107063 @ 아, 지금도마씨?(아, 지금도요?)

107063 #2 아니, 아니. 지금도 봐. 베염날 이런 날.(아니, 아니. 지금도 봐. 뱀날 이런 날.)

107063 @ 그럼 그건 누구한테 봐마씨? 그런 날 보는 건?(그럼 그건 누구한테 봐요? 그런 날 보는 건?)

107063 #2 이녁냥으로 달력 봐 허주게.(자기 스스로 달력 봐서 하지.)

107059 @ 그럼 장 잇잖아예? 장? 장은 언제 담그주마씨? 장?(그럼 장 잇잖아요? 장? 장은 언제 담그지요? 장?)

107059 #4 장?(장?)

107059 @ 예.(예.)

107059 #4 이 묵은해 담는 사람도 잇고.(이 묵은해 담는 사람도 잇고.)

107059 @ 묵은해?(묵은해?)

107059 #4 묵은해 이 설달에도 담그곡.(묵은해 이 설달에도 담그고.)

107059 @ 설달?(설달?)

107059 #4 어.(어.)

107059 @ 아, 설달이 언제짱?(아, 설달이 언제입니까?)

107059 #4 십이월.(십이월.)

107059 @ 십이월에.(십이월에.)

107059 #4 어.(어.)

107060 @ 그럼 장 종류는 뭐, 뭐 잇주마씨? 담그는 거는?(그럼 장 종류는 뭐, 뭐 잇지요? 담그는 거는?)

107060 #4 담그는 거게 무싱거 메주 삶아근엿게 메주 지왓다근엿.(담그는 거 무엇 메주 삶아서 메자 지었다가.)

107060 @ 예.(예.)

107060 #4 장, 장 담는 거주 뭐.(장, 장 담는 거지 뭐.)

107060 @ 고추장, 간장, 된장 잇잖아예?(고추장, 간장, 된장 잇잖아요?)

107060 #4 어. 것도 만들엿 먹고게.(어. 것도 만들어서 먹고.)

107061 @ 그믐 장은 어떻 담그주마씨? 고추장은 어떻 담가마씨? 할머니?(그러면 장은 어떻게 담그지요? 고추장은 어떻게 담가요? 할머니?)

107061 #4 그 고추장 담그는 거 몰라 우린. 젊은 사람이나이 요새 드러 담강 먹엿주.(그 고추장 담그는 거 몰라 우리는. 젊은 사람이나 요새 자주 담가서 먹고 잇)

지.)

107061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07061 #4 어.(어.)

107061 @ 그럼 옛날에는 고추장 안 담갔수광?(그럼 옛날에는 고추장 안 담갔습니까?)

107061 #4 옛날에는 고추장 아니 담갔주게.(옛날에는 고추장 안 담갔지.)

107061 @ 그럼 웬장은 헛지예?(그럼 된장은 했지요?)

107061 #4 어. 웬장은 헛주게.(어. 된장은 했지.)

107061 @ 그럼 그 웬장은 어떻 담가마씨?(그럼 그 된장은 어떻게 담가요?)

107061 #4 웬장게 콩 삶아근엥 메주 띄왕 바삭 물렁.(된장 콩 삶아서 메주 띄워서 바삭 말려서.)

107061 @ 예.(예.)

107061 #4 경 행 소금물 영 골아근엥 그레 툽툽 메주 들이청 놔두민 장 웬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소금물 이렇게 갈아서 거기로 툽툽 메주 들이쳐서 놔두면 장 되는 거지.)

107061 @ 그럼 간장은 거기서 나온 물이 간장이지예?(그럼 간장은 거기서 나온 물이 간장이지요?)

107061 #4 응.(응.)

107062 @ 그럼 메주는 보통 그것도 선달에 썬마씨?(그럼 메주는 보통 그것도 선달에 썬요?)

107062 #4 아니. 일 끝나민 우리 촌에서 저슬 들어가민.(아니. 일 끝나면 우리 촌에서 겨울 들어가면.)

107062 @ 예.(예.)

107062 #4 시월 달 넘어가민 메주 삶주게게.(시월 달 넘어가면 메주 삶지.)

107062 @ 아, 그건 어떻게 삶아마씨? 메주는?(아, 그건 어떻게 삶아요? 메주는?)

107062 #4 그거 솔이 놔근엥 콩.(그거 솔에 놔서 콩.)

107062 @ 예.(예.)

107062 #4 흥끔 다듬엥 콩 삶아근엥.(조금 다듬어서 콩 삶아서.)

107062 @ 예.(예.)

107062 #4 이제 발로 볏으나 방에툽에 찍으나.(이제 발로 밟거나 돌방아에 찍으나.)

107062 @ 예.(예.)

107062 #4 경 행 손으로 영 막 만들어근엥 허영 놔뒀다근엥 띄우민 콩 콩고질 콩 해난 콩고질이나 우리 옛날에는.(그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해서 놔뒀다가 띄우면 콩 콩짚 콩 했던 콩짚이나 우리 옛날에는.)

107062 @ 예.(예.)

107062 #4 콩고질 행 뇌근엥 그거 사이 사이 놓으멍 우에 툃툃 뇌두민 막 곱생 이 피는 거라.(콩집 해서 뇌서 그거 사이 사이 놓으면서 위에 툃툃 뇌두면 막 곱팡 이 피는 거야.)

107062 @ 예.(예.)

107062 #4 누룩 트듯이 이 이 저 메주도 터.(누룩 트듯이 이 이 저 메주도 터.)

107062 @ 예.(예.)

107062 #4 터 트민 경 허민 몬 트민 물러와근엥 물렁 바싹 물르민 정월 나기 전에 우리는 담앗주게 장을.(터 트면 그렇게 하면 전부 트면 말려서 말려서 바싹 마르면 정월 나기 전에 우리는 담앗지 장을.)

107062 @ 아, 정월 나기 전에?(아, 정월 나기 전에?)

107062 #4 어.(어.)

107062 @ 음.(음.)

107062 #4 육지서는 정월 난 후에 담는다고 해도 이 제주도는 정월 나기 전에 장을 담아.(육지에서는 정월 난 후에 담는다고 해도 이 제주도는 정월 나기 전에 장을 담가.)

107062 @ 예.(예.)

107062 #4 경 허영 담양 뇌두민 삼월 달 나가민 장물 끓영 웬장을 웬장 다시 그것만 다시 쨍 뇌뵈다근엥 거리멍 국 행 먹고 허주게.(그렇게 해서 담가서 뇌두면 삼월 달 나가면 장물 끓여서 된장을 된장 다시 그것만 다시 쨍서 뇌뵈다가 잡아 올리면서 국 해서 먹고 하지.)

107063 @ 그럼 그 장 담글 때 잇잖아예?(그럼 그 장 담글 때 잇잖아요?)

107063 #4 어.(어.)

107063 @ 그거 뭐 금기사항 같은 거 잇엇수광?(그거 뭐 금기사항 같은 거 잇엇 습니까?)

107063 #4 금기? 금기 엇엇어.(금기? 금기 없엇어.)

107063 @ 금기 엇언마씨?(금기 없엇어요?)

107063 #4 어떤 사람은 뭐 고치 놓는다 뭐 놓는다 허여도 우린 그런 거 안 놓 으니깐계.(어떤 사람은 뭐 고추 놓는다 뭐 놓는다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놓으니까.)

107063 @ 예. 그럼 할머니 아는 금기사항 같은 거 혹시 잇수광?(예. 그럼 할머니 아는 금기사항 같은 거 혹시 잇습니까?)

107063 #4 어?(어?)

107063 @ 금기사항 같은 거 아는 거 잇수광?(금기사항 같은 거 아는 거 잇습니까?)

107063 #4 금기사항이 뵈이라?(금기사항이 무엇이야?)

107063 @ 뭐 허지 마라 허는 거 잇잖아예? 뭐 결혼 전이는 영장밭이 가지 마라 이런 거 잇지 않아마씨?(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잇잖아요? 뭐 결혼 전에는 장지에

가지 마라 이런 거 있지 않아요?)

107063 #4 아, 아. 제주도 흔적이 그런 거 었어.(아, 아. 제주도 별로 그런 거 없
어.)

107063 @ 아, 별로 었어마씨?(아, 별로 없어요?)

107063 #4 어.(어.)

떡류

107064 @ 그러면 떡 잇잖아예?(그러면 떡 잇잖아요?)

107064 #2 어.(어.)

107064 @ 떡은 종류가 뭐, 뭐 잇언마씨? 떡. 기억나시는 거?(떡은 종류가 뭐,
뭐 있었어요? 떡. 기억나시는 거?)

107064 #2 게. 침떡¹¹⁵, 새미떡¹¹⁶ 옛날에 뭐 술변¹¹⁷ 절편 이렇게 잇엇주게.
(그럼. 시루떡, '새미떡' 옛날에 뭐 '술변', 절편 이렇게 잇엇지.)

107064 @ 아, 다 기억나는구나예.(아, 다 기억나는군요.)

107064 #2 다 해 먹엇주게.(다 해 먹엇지.)

107065 @ 그럼 이제 떡 그 물어볼게예. 시루떡 잇잖아예? 시루떡은 제주도에서
뭐라고 헨마씨? 혹시 시리떡이라고 헨마씨?(그럼 이제 떡 그 물어볼게요. 시루떡 잇
잖아요? 시루떡은 제주도에서 뭐라고 했어요? 혹시 '시리떡'이라고 했어요?)

107065 #2 침떡, 침떡.(‘침떡’, ‘침떡’.)

107065 @ 아, 시루떡이 침떡?(아, 시루떡이 ‘침떡’?)

107065 #2 어.(어.)

107065 @ 그럼 침떡은 뭘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마씨?(그럼 시루떡은 무엇으
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요?)

107065 #2 찰가루로 헤근엥 시리에.(쌀가루로 해서 시루에.)

107065 @ 예.(예.)

107065 #2 영 동그란 한 시리에 떡 치는 거.(이렇게 동그략게 한 시루에 떡 치
는 거.)

107065 @ 예.(예.)

107065 #2 그것들에 ㄹ루를 영 영 ㄴ근엥게 막 삶아근엥 이제 비왕 썰어근엥
썰민 침떡이 돼주게.(그것에 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ㄴ서 막 삶아서 이제 부어서 썰
어서 썰면 시루떡이 되지.)

107065 @ 그럼 거기다가 쌀가루밖에 안 들어가마씨?(그럼 거기다가 쌀가루밖에
안 들어가요?)

115) '침떡'은 시루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친떡, 시리떡'이라고도 한다.

116)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
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새미, 세미, 세미떡'이라고도 한다.

117) '술변'은 반월형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술벤, 술펜, 수랑곤떡'
이라고도 한다.

107065 #2 팟 나아지. 팟을 영 허꺼야 붙으주 않주게.(팟 나아지. 팟을 이렇게 섞어야 붙지 않지.)

107065 @ 아.(아.)

107065 #2 영 처음에 쌀가루부터 이만큼 두껍게 영 낱 다음은 팟 꼬아근영 영 영 허경 다음은 그루 넣어야 붙으주 않주게.(이렇게 처음에 쌀가루부터 이만큼 두껍게 이렇게 놔서 다음은 팟 깔아서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다음은 가루 넣어야 붙지 않지.)

107065 @ 아, 팟 넣어근영?(아, 팟 넣어서?)

107065 #2 어.(어.)

107066 @ 그럼 송편도 만들잖아예? 송편.(그럼 송편도 만들잖아요? 송편.)

107066 #2 송편은 그루로 해근영 막 손으로 쟁. 경 행 송편 영 이것저것 만들어 낱 그 속에 뭐 담양 영 허영 영 췌민 송편 돼지.(송편은 가루로 해서 막 손으로 썰서. 그렇게 해서 송편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어놔서 그 속에 뭐 담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쥐면 송편 되지.)

107066 @ 그럼 그 속에 담는 거는 뭐라고 해마씨?(그럼 그 속에 담는 거는 뭐라고 해요?)

107066 #2 그 때는 팟 담았주만은 요새 뭐 이 설탕 담아야 맛 좋아.(그 때는 팟 담았지만 요새는 뭐 이 설탕 담아야 맛 좋아.)

107066 @ 아, 기지예?(아, 그렇지요?)

107066 #2 아 첨 저 꽤, 꽤. (아, 참 저 깨, 깨.)

107067 @ 어르신 빙떡 알잖아예? 빙떡.(어르신 빙떡 알잖아요? 빙떡.)

107067 #2 응.(응.)

107067 @ 요만한 거. 빙떡은 뭘로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 좀 골아 줘서.(요만한 거. 빙떡은 무엇으로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지 좀 말해 주십시오.)

107067 #2 빙떡은게 그 모밀 쫄 곁양 혼 거 빙떡이주게.(빙떡은 그 메밀 쌀 갈아서 한 거 빙떡이지.)

107067 @ 예.(예.)

107067 #2 메밀.(메밀.)

107067 @ 예.(예.)

107067 #2 모밀. 모밀 곁아근영 곁아 온 걸 영 젓영어.(메밀. 메밀 갈아서 곁아 온 거를 이렇게 저어서.)

107067 @ 예.(예.)

107067 #2 젓어근영 영 그 그루 젓인 걸로 해근영 영 만들어 동글락허게.(저어서 이렇게 그 가루 저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동그렇게.)

107067 @ 예.(예.)

107067 #2 동글락허게 만들어근영게 무 데우쳐근영 무신 파 같은 거 놓고 해근영게 영 낱 돌아. 돌아근영 영 만들면 그게 빙떡이주게.(동그렇게 만들어서 무 데쳐

서 무슨 과 같은 거 놓고 해서 이렇게 놓아서 말아. 말아서 이렇게 만들면 그게 빙떡이지.)

107067 @ 그럼 그건 언제 먹었마씨? 빙떡은?(그럼 그건 언제 먹었어요? 빙떡은?)

107067 #2 제사 때 같은 때. 우리 마을은 잔치할 때 막 잘 해놨어. 맛 좋아. 제사할 때 잔치할 때 막 해놨는디 지금은 이 사람들이 경 허젠 허민 복잡허주게. 게난 안 허주게.(제사 때 같은 때. 우리 마을은 잔치할 때 막 잘 했었어. 맛 좋아. 제사할 때 잔치할 때 막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잡하지. 그래서 안 하지.)

107067 @ 예.(예.)

107067 #2 경허난 떡집이서 사당 헤여.(그러니까 떡집에서 사다가 해.)

107067 @ 아, 그냥 사당?(아, 그냥 사다가?)

107067 #2 어. 우리 잔치할 때는 헛지. 요즘 식당에 강 허난 안 허여. 옛날엔 집에서 잔치할 때는 사람마다 허여.(어. 우리 잔치할 때는 헛지. 요즘 식당에 가서 하니까 안 해. 옛날에는 집에서 잔치할 때는 사람마다 해.)

107068 @ 상웨떡¹¹⁸⁾ 잇잖아예? 상웨떡.(상화떡 잇잖아요? 상화떡.)

107068 #2 어.(어.)

107068 @ 상웨떡은 뭐 말하는 거마씨?(상화떡은 뭐 말하는 거예요?)

107068 #2 상웨떡은게 요새 푸는 뭐 잇잖아게. 아까 무신 떡이라고 곶앗어? 세미떡 말앙.(상화떡은 요새 파는 뭐 잇잖아. 아까 무슨 떡이라고 말했어? ‘세미떡’ 말고.)

107068 @ 뭐 송편마씨?(뭐 송편이요?)

107068 #2 어. 그거 송편ㄴ라 상웨떡이엔 허주게.(어. 그거 송편더러 상화떡이라고 하지.)

107068 @ 아, 송편보고 상웨떡이라고 헨마씨?(아, 송편보고 상화떡이라고 했어요?)

107068 #2 어. 옛날은 크게 만들었어. 지금은 죽게 해도 옛날은 막 크게 만들어. 그것ㄴ라 저 상웨떡이라고 헛주게.(어. 옛날은 크게 만들었어. 지금은 작게 해도 옛날은 막 크게 만들어. 그것더러 저 상화떡이라고 헛지.)

107069 @ 그믂 제사상에 올리는 떡은 뭐, 뭐 잇주마씨?(그러면 제사상에 올리는 떡은 뭐, 뭐 잇지요?)

107069 #2 게 침떡허고게 침떡허고 또 뭇도 올려. 그 송편 절편 그런 거. 그런 거 올려. 그건 제라한 떡이라.(그게 시루떡하고 시루떡하고 또 무엇도 올려. 그 송편 절편 그런 거. 그런 거 올려. 그건 ‘제라한’ 떡이야.)

107069 @ 그믂 설기떡도 들어보션마씨? 설기떡? 백설기?(그러면 ‘설기떡’도 들

118) 상화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삼메떡, 상왜떡’이라고도 한다.

어보셨어요? ‘설기떡’? 백설기?)

107069 #2 그건 잘 모르켜.(그건 잘 모르겠다.)

107072 @ 인절미는 알지예? 콩고물 물여근엥 만드는 거마씨. 요만해서 갈색해가지고. 그건 안 만들언마씨?(인절미는 알지요? 콩고물 물여서 만드는 거요. 요만해서 갈색해가지고. 그건 안 만들었어?)

107072 #2 그건 지금사 만드는 거주게.(그건 지금에야 만드는 거지.)

107072 @ 지금사 만드는 거마씨?(지금이야 만드는 거예요?)

107072 #2 집에서 만드는 거주게. 옛날에 하여튼 저 절편 솔변했어.(집에서 만드는 거지. 옛날에 하여튼 저 절편, ‘솔변’했어.)

107073 @ 그럼 절편 이제 절편 만드는 거 좀 곱아 줘서. 절편은 뭘로 만들어마씨?(그럼 절편 이제 절편 만드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절편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107073 #2 쌀가루로.(쌀가루로.)

107073 @ 아, 쌀가루로.(아, 쌀가루로.)

107073 #2 어. 쌀가루로 허영 본만 이렇게 떳주게. 본만 옛날엔 이 저 권당 집이 그런 거 다 있었어. 영 헤근엥 동글락허게 만드는 거 반달 같이 만드는 거 기구가 있었어. 떡 찌근엥 영 밀엥 그걸로 뽁뽁 문질어. 문질어근엥 본 문질어근엥 솔썩 허영 만드는 거주게.(어. 쌀가루로 해서 본만 이렇게 떳지. 본만 옛날에는 이 저 권당 집에 그런 거 다 있었어. 이렇게 해서 동그략게 만드는 거 반달 같이 만드는 거 기구가 있었어. 떡 찌서 이렇게 밀어서 그걸로 뽁뽁 문질러. 문질러서 본 문질러서 솔잎 해서 만드는 거지.)

107073 @ 그게 절편마씨?(그게 절편이에요?)

107073 #2 솔변, 절편.(‘솔변’, 절편.)

107073 @ 아, 그럼 솔변이랑 절편이랑 뭐가 달라마씨? 다른 건 엇인가마씨? 좀 다르잖아예?(아, 그럼 ‘솔변’이랑 절편이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건 없어요? 좀 다르잖아요?)

107073 #2 본이 틀리주게.(본이 다르지.)

107073 @ 아, 그럼 본만 다른 거마씨?(아, 그럼 본만 다른 거예요?)

107073 #2 어, 본만 틀려.(어, 본만 달라.)

107073 @ 아, 그러니까 쌀가루 쓰는 건 똑같고?(아, 그러니까 쌀가루 쓰는 건 똑같고?)

107073 #2 어.(어.)

107075 @ 어르신 웃기떡은 안 들어보셨마씨? 웃기떡?(어르신 웃기떡은 안 들어보셨어요? 웃기떡?)

107075 #2 웃기떡은 저 무싱거 아니냐. 저 제일 밀이 영 지정.(웃기떡은 저 무엇 아니냐. 저 제일 밀에 이렇게 지져서.)

107075 @ 예.(예.)

107075 #2 경 허는 것이 웃기떡이라.(그렇게 하는 것이 웃기떡이야.)

107075 @ 그럼 지름떡은 어떻 만들어마씨? 지름떡?(그럼 기름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기름떡?)

107075 #2 지름떡도 이제야 헤여. 그것도.(기름떡도 이제야 해. 그것도.)

107075 @ 이제야 헤마씨?(이제야 해요?)

107075 #2 어. 그건 찹쌀ㄱ루로 허영.(어. 그건 찹쌀가루로 해서.)

107075 @ 예.(예.)

107075 #2 영 문들영 해서 만드는 거주게. 것도 이제야 하는 거.(이렇게 문질러서 해서 만드는 거지. 것도 이제야 하는 거.)

107076 @ 그럼 고사나 이렇게 당에 가져갈 때 떡을 좀 가져가잖아예? 고사 지낼 때. 무당들이 왕 굿할 때?(그럼 고사나 이렇게 당에 가져갈 때 떡을 좀 가져가잖아요? 고사 지낼 때. 무당들이 와서 굿할 때?)

107076 #2 아, 코시 헐 때?(아, 굿할 때?)

107076 @ 예. 코시 헐 때.(예. 굿할 때.)

107076 #2 코시헐 때는 동글락헌 떡 헤여.(굿할 때는 동그란 떡 해.)

107076 @ 그건 무슨 떡마씨?(그건 무슨 떡이에요?)

107076 #2 그냥 쓸ㄱ루로 행.(그냥 쌀가루로 해서.)

107076 @ 예.(예.)

107076 #2 본 하지 말앙 손으로 동글락허게 만들어.(본 하지 말고 손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107076 @ 아, 동글락허게 만들어? 제사할 때는 그거 가져가고?(아, 동그랗게 만들어? 제사할 때는 그거 가져가고?)

107076 #2 어.(어.)

107078 @ 그럼 보통 떡은 언제 헤 드션마씨?(그럼 보통 떡은 언제 헤 드셨어요?)

107078 #2 제사할 때게. 멩질 헐 때나.(제사할 때. 멩질 지낼 때나.)

107078 @ 그럼 지금이랑 비슷하다예? 제사할 때나 허는 거는.(그럼 지금이랑 비슷하군요? 제사할 때나 하는 거는.)

107078 #2 어.(어.)

107078 @ 그럼 제가 말한 거 말앙 다른 떡도 혹시 잇인가마씨?(그럼 제가 말한 거 말고 다른 떡도 혹시 있을까요?)

107078 #2 지금이야 뭐 चु쌀로 헤근앵 시리떡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잇주만은. 옛날엔 그저 쓸ㄱ루만 행 만들었어.(지금이야 뭐 찹쌀로 해서 시루떡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쌀가루만 해서 만들었어.)

107064 @ 그럼 할머니 떡 잇잖아예? 우리 먹는 떡.(그럼 할머니 떡 잇잖아요? 우리 먹는 떡.)

107064 #4 어.(어.)

107064 @ 떡은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떡은 종류가 뭐, 뭐 잇지요?)

107064 #4 떡 무싱거게 인절미여 무신.(떡 무엇 인절미여 무슨.)
 107064 @ 예.(예.)
 107064 #4 또 떡 무싱거게 아 원 근도 못 허켜.(또 떡 무엇 아 원 말하지도 못 하겠다.)
 107065 @ 알앗수다 물어보면 돼주마씨. 시리떡 알지예? 시리떡?(알았습니다 물어보면 되지요. 시루떡 알지요? 시루떡?)
 107065 #4 어.(어.)
 107065 @ 시리떡은 어떻 그거 재료가 뭐팡?(시루떡은 어떻게 그거 재료가 뭐입 니까?)
 107065 #4 시리떡 다 ㄴ튼 재료주만은.(시루떡 다 같은 재료지만.)
 107065 @ 예.(예.)
 107065 #4 쌀 곁아근엥 시리떡에 영 혼 줌 혈 만씩 영 혜근엥 혼 줌 혈 만씩 툃툃 ㄴ르 낱.(쌀 갈아서 시루떡에 이렇게 한 줌 할 만큼 이렇게 해서 한 줌 할 만큼 툃툃 가루 놔서.)
 107065 @ 예.(예.)
 107065 #4 그 우에 다시 쉬 저 콩ㄴ르나 풋 삶아근엥 풋이나 영 허끄는 거라.(그 위에 다시 소 저 콩가루나 팥 삶아서 팥이나 이렇게 섞는 거야.)
 107065 @ 예.(예.)
 107065 #4 그건 징 허려고 영.(그건 경그레 하려고 이렇게.)
 107065 @ 예.(예.)
 107065 #4 경 행 그 우에 다시 ㄴ르 낱 ㄴ르 낱 허명 경 징 멘들민 시리떡이주 게.(그렇게 해서 그 위에 다시 가루 놔서 가루 놔서 하면서 그렇게 경그레 만들면 시루떡이지.)
 107065 @ 아, 그게 시리떡?(아, 그게 시루떡?)
 107065 #4 어.(어.)
 107066 @ 그럼 송편은?(그럼 송편은?)
 107066 #4 송편은 이녁 손으로 만들고.(송편은 이녁 손으로 만들고.)
 107066 @ 아, 그냥 손으로 만드는 거?(아, 그냥 손으로 만드는 거?)
 107066 #4 어.(어.)
 107066 @ 그럼 뭘로 만들어마씨? 송편은? 그 재료는?(그럼 무엇으로 만들어요? 송편은? 그 재료는?)
 107066 #4 재료는게 그 찰로 찰 ㄴ르로게.(재료는 그 쌀로 쌀가루로.)
 107066 @ 아, 찰 ㄴ르로.(아, 쌀가루로.)
 107066 #4 저 시리떡 만드는 ㄴ르로.(저 시루떡 만드는 가루로.)
 107066 @ 음. 그럼 시리떡이랑 송편이랑은 어떻 달라마씨?(음. 그럼 시루떡이랑 송편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107066 #4 달름이사게 시리떡 또 다르곡 송편은 손으로 막 썬근엥 허는 거난.

(다름이야 시루떡 또 다르고 송편은 손으로 막 찌서 하는 거니까.)

107066 @ 예.(예.)

107066 #4 경 행 다르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다른 거지.)

107067 @ 그럼 빙떡 잇잖아예?(그럼 빙떡 잇잖아요?)

107067 #4 어?(어?)

107067 @ 빙떡, 빙떡.(빙떡, 빙떡.)

107067 #4 빙떡은 믈말ㄹ르나 허영 허민 빙떡 지지는 거난게.(빙떡은 메밀가루나 해서 하면 빙떡 지지는 거니까.)

107067 @ 예. 빙떡 만드는 거 좀 곶아 줘서.(예. 빙떡 만드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7067 #4 그거 믈말ㄹ르 곶아다근엥 이제 저 그냥 이제는 옛날 닥지 안 허영 하간 재료 놔서 돌아 빙떡도.(그거 메밀가루 곶아다가 이제 저 그냥 이제는 옛날 닥지 않아서 여러 재료 놔서 돌아 빙떡도.)

107067 @ 뭐 놔마씨?(뭐 놔요?)

107067 #4 재료를 잘 놔사.(재료를 잘 놔야.)

107067 @ 예.(예.)

107067 #4 이거 계란도 혼 믈말ㄹ르 혼 줘에 계란도 혼 서너 개 풀어넣곡.(이거 계란도 한 메밀가루 한 줘에 계란도 한 서너 개 풀어넣고.)

107067 @ 예.(예.)

107067 #4 지름도 조금 넣곡 경 허여근엥 막 끓영 그 ㄹ르를.(기름도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막 끓여서 그 가루를.)

107067 @ 예.(예.)

107067 #4 빙떡 멘들게 허여근엥 허민 빙떡 맛 좋아.(빙떡 만들게 해서 하면 빙떡 맛 좋아.)

107068 @ 그럼 상화떡도 알아마씨?(그럼 상화떡도 알아요?)

107068 #4 삼메떡은게 그거 ㄹ르 찌근엥 손으로 만드는 거주게게.(상화떡은 그거 가루 찌서 손으로 만드는 거지.)

107068 @ 아. 손으로 만드는 거 아까 송편도 손으로 만들었잖아예?(아. 손으로 만드는 거 아까 송편도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107068 #4 것도 손으로 것도 손으로 만들었주게.(것도 손으로 것도 손으로 만들었지.)

107068 @ 그럼 삼메떡이랑 송편은 뭐 재료가 달라마씨?(그럼 상화떡이랑 송편은 뭐 재료가 달라요?)

107068 #4 삼메떡이엔 현 건.(상화떡이라고 한 건.)

107068 @ 예.(예.)

107068 #4 밀ㄹ르 헤근엥 쩡 저 막걸리나 무싱거 흐쫄 놔근엥 쩡 놔두민 이만 히 올라와 부꺼.(밀가루 해서 찌서 저 막걸리나 무엇 조금 놔서 찌서 놔두면 이만히

올라와 솟아올라와.)

107068 @ 예.(예.)

107068 #4 게민 그걸로 떡 손으로 영 만들엉 밀엉 만들엉 영 허영 놔두민 요만히 올라오민 삼메떡.(그러면 그걸로 떡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밀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놔두면 요만큼 올라오면 삼화떡.)

107068 @ 음.(음.)

107068 #4 쓸그르는 경 안 허여근엥 송편도 만들곡.(쌀가루는 그렇게 안 해서 송편도 만들고.)

107069 @ 그럼 제사할 때 허는 떡은 뭐, 뭐 잇주마씨?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는?(그럼 제사할 때 허는 떡은 뭐, 뭐 잇지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는?)

107069 #4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는 시리떡 허곡.(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는 시루떡 하고.)

107069 @ 예.(예.)

107069 #4 이제 영 인절미여 무신.(이제 이렇게 인절미여 무슨.)

107069 @ 그거 올라가마씨?(그거 올라가요?)

107069 #4 어. 또 것보고 뭇이라고 허는디. 절편, 솔펜¹¹⁹.(어. 또 것보고 무엇이라고 하는데. 절편, '솔펜'.)

107069 @ 예.(예.)

107069 #4 절편은 영 허여근엥 들 혼 착 허곡.(절편은 이렇게 해서 달 한 짝 하고.)

107069 @ 예.(예.)

107069 #4 아, 솔펜은 경 허곡. 절편은 동글락허게 영 허영 판때기로 딱 찍는 거 절편.(아, '솔펜'은 그렇게 하고. 절편은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판때기로 딱 찍는 거 절편.)

107070 @ 그럼 상례 때 떡에 떡은 뭐, 뭐 잇어마씨? 상례 때?(그럼 상례 때 떡에 떡은 뭐, 뭐 잇어요? 상례 때?)

107070 #4 삼메떡이엔 현 건 그 그 두꺼운 것 보고 삼메떡이엔 허고계.(상화떡이라고 한 건 그 가루 두꺼운 것 보고 상화떡이라고 하고.)

107071 @ 예, 예. 삼메떡은 그거고. 그럼 설기떡도 알아마씨?(예, 예. 상화떡은 그거고. 그럼 백설기도 알아요?)

107071 #4 설기떡은 몰라.(백설기는 몰라.)

107072 @ 인절미 잇잖아예?(인절미 잇잖아요?)

107072 #4 어, 인절미.(어, 인절미.)

107072 @ 인절미는 뭇로 만들주마씨?(인절미는 무엇으로 만들지요?)

107072 #4 인절미도 다 쓸그르로 만들야.(인절미도 다 쌀가루로 만들어.)

119) '솔펜'은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에 반달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경그레 위에서 찢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72 @ 아, 콩ㄴ르가 아니고?(아, 콩가루가 아니고?)

107072 #4 어.(어.)

107072 @ 쌀ㄴ르?(쌀가루?)

107072 #4 어.(어.)

107073 @ 그럼 그 절벤도 쌀ㄴ르로 만들어마씨?(그럼 그 절편도 쌀가루로 만들어요?)

107073 #4 그것도 절벤도 쌀ㄴ르.(그것도 절편도 쌀가루.)

107073 @ 음.(음.)

107073 #4 문딱 절벤, 솔벤 전부 쌀ㄴ르.(전부 절편, ‘솔벤’ 전부 쌀가루.)

107074 @ 그럼 절벤이랑 솔벤이랑 어떻 달라마씨?(그럼 절편이랑 ‘솔벤’이랑 어떻게 달라요?)

107074 #4 절벤은.(절편은.)

107074 @ 예.(예.)

107074 #4 흔 착 들 흔 착 영 사발 허영 딱 찍으면 반 착 같은 것이 절벤.(한 쪽 달 한 쪽 이렇게 사발 해서 딱 찍으면 반 쪽 가른 것이 절편.)

107074 @ 예.(예.)

107074 #4 솔벤은 들추룩 동글락허게 행 판때기로 찍는 것ㄴ라 솔벤. 아, 절벤. 이제 인절미는 영 허여근영 허는 거.(‘솔벤’은 달처럼 동그략게 해서 판때기로 찍는 것더러 ‘솔벤’. 아, 절편. 이제 인절미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거.)

107074 @ 예.(예.)

107074 #4 인절미.(인절미.)

107075 @ 음. 그럼 웃기떡도 알아마씨?(음. 그럼 웃기떡도 알아요?)

107075 #4 어?(어?)

107075 @ 웃기떡?(웃기떡?)

107075 #4 웃기떡은 거 무싱거 옛날 저되 대정이나 허주 그거.(웃기떡은 거 무옛 옛날 저기 ‘대정’이나 하지 그거.)

107075 @ 아, 대정이나 허여? 그럼 지름떡은마씨?(아, ‘대정’이나 해? 그럼 기름떡은요?)

107075 #4 지름떡은 맛 좋게들 잘 허주.(기름떡은 맛 좋게 잘 하지.)

107076 @ 그럼 코시나 당에 갈 때 떡 가져가잖아예? 코시힐 때?(그럼 고사나 당에 갈 때 떡 가져가잖아요? 고사할 때?)

107076 #4 옛날 그거.(옛날 그거.)

107076 @ 예. 옛날. 코시힐 때는 어떤 떡 가져가주마씨?(예. 옛날. 고사할 때는 어떤 떡 가져가지요?)

107076 #4 코시힐 때 떡은 따로 또 달라. 영 손으로 딱 찍어근영.(고사할 때 떡은 따로 또 달라. 이렇게 손으로 딱 찍어서.)

107076 @ 예.(예.)

107076 #4 이상하게 해근엥 동글락허게 멘들엥 허는 거고.(이상하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

107076 @ 아, 동글락허게 멘들어?(아, 동그랗게 만들어?)

107076 #4 스랑허게 해근엥.(가늘고 길게 해서.)

107076 @ 예.(예.)

107076 #4 손으로 푹 찍어근엥.(손으로 푹 찍어서.)

107077 @ 그럼 굻할 때도 떡 허잖아예? 굻떡?(그럼 굻할 때도 떡 허잖아요? 굻떡?)

107077 #4 어. 굻떡은 그냥 저 사발이나 양철이나 놔근엥 시리떡 허듯이.(어. 굻떡은 그냥 저 사발이나 양철이나 놔서 시루떡 하듯이.)

107077 @ 예.(예.)

107077 #4 그냥 동글락허게 그냥 칭 내놓는 것이 굻떡.(그냥 동그랗게 그냥 쳐서 내놓는 것이 굻떡.)

107077 @ 아, 그게 굻떡?(아, 그게 굻떡?)

107077 #4 어.(어.)

107077 @ 그 다음에 그래도 떡 종류 많이 알았신게예? 할머니? 물어보니까 다 기억나지예? 그래도.(그 다음에 그래도 떡 종류 많이 알고 있네요? 할머니? 물어보니까 다 기억나지요? 그래도.)

107077 #4 옛날 허는 것만 보난게.(옛날 하는 것만 보니까.)

소와 고물

107079 @ 어르신 그럼 떡마다 속에 집어넣는 게 종류가 다르잖아예?(어르신 그럼 떡마다 속에 집어넣는 게 종류가 다르잖아요?)

107079 #2 종류가 달라.(종류가 달라.)

107079 @ 그러니까 무슨 떡에는 뭐가 들어가고 무슨 떡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좀 곱아 줘서.(그러니까 무슨 떡에는 뭐가 들어가고 무슨 떡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7079 #2 그건 마음대로주게.(그건 마음대로지.)

107079 @ 아, 마음대로마씨? 그럼 어르신 헛던 방법은?(아, 마음대로요? 그럼 어르신 헛던 방법은?)

107079 #2 우리는 송편 만들 때 꿍 넣는 것이 제일 맛 좋아.(우리는 송편 만들 때 깨 넣는 것이 제일 맛 좋아.)

107079 @ 뭐마씨?(뭐요?)

107079 #2 꿍.(깨.)

107079 @ 꿍? 음.(깨? 음.)

107079 #2 옛날 헛던 사람들은 팻 넣어. 팻. 팻을 주로 넣어.(옛날 헛던 사람들은 팻 넣어. 팻. 팻을 주로 넣어.)

107079 @ 송편 만들 때는 그거고 다른 거 만들 때 집어넣는 거는 뭐 있어마씨? 빙떡 만들 때 아까 뭐?(송편 만들 때는 그거고 다른 거 만들 때 집어넣는 거는 뭐 있었어요? 빙떡 만들 때 아까 뭐?)

107079 #2 무. 무.(무. 무.)

107079 @ 아, 무?(아, 무?)

107079 #2 어. 무로.(어. 무로.)

107079 @ 무만 집어넣어마씨?(무만 집어넣어요?)

107079 #2 쪽과도 넣고.(쪽과도 넣고.)

107079 @ 그럼 뭐 상화떡이나 제사떡 올릴 때는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넣어마씨? 송편 말랑 다른 떡에 안에 뭐 집어넣지 않아마씨?(그럼 뭐 상화떡이나 제사떡 올릴 때는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넣어요? 송편 말고 다른 떡에 안에 뭐 집어넣지 않아요?)

107079 #2 아니. 멥질 그 송편 절편 할 때는 그냥 납작하게 해.(아니. 멥질 그 송편 절편 할 때는 그냥 납작하게 해.)

107079 @ 아, 그냥 납작하게 하고?(아, 그냥 납작하게 하고?)

107079 #2 어. 그건 그냥 본만 떠근앵 그냥 허주게.(어. 그건 그냥 본만 떠서 그냥 하지.)

107081 @ 그럼 떡 만들 때는. 아까 장 만들 때는 날 본다고 했잖아예?(그럼 떡 만들 때는. 아까 장 만들 때는 날 본다고 했잖아요?)

107081 #2 어.(어.)

107081 @ 떡 만들 때는 날 안 봐마씨?(떡 만들 때는 날 안 봐요?)

107081 #2 아니라. 거사 제삿날 하는 건디.(아니야. 거야 제삿날 하는 건데.)

107081 @ 그럼 어르신 떡에 얹힌 속담이나 그런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어마씨?(그러 어르신 떡에 얹힌 속담이나 그런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107081 #2 그런 거 었어.(그런 거 없어.)

107081 @ 떡은 모르겠고.(떡은 모르겠고.)

107079 @ 그믐 떡 안에 뭐 들어가는 떡 안에 뭐, 뭐 들어가주마씨? 떡 안에?(그러면 떡 안에 뭐 들어가는 떡 안에 뭐, 뭐 들어가지요? 떡 안에?)

107079 #4 떡 안에서 무싱거 들어가?(떡 안에야 무엇 들어가?)

107079 @ 뭐 풋도 들어가고 깨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잖아예?(뭐 팔도 들어가고 깨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잖아요?)

107079 #4 아, 송편 ㄴ튼 거나 허젠 허민 삼메떡 ㄴ튼 거 세미떡 ㄴ튼 거 그런 거 허젠 허민.(아, 송편 같은 거나 하려고 하면 상화떡 같은 거 ‘세미떡’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107079 @ 예.(예.)

107079 #4 그런 거 하영 설탕이여 무싱거 하영 거 소곱에 넣주만은 절벤, 솔벤은 그런 거 안 넣어.(그런 거 많이 설탕이여 무엇 많이 거 속에 넣지만 절편, ‘솔벤’

은 그런 거 안 넣어.)

107079 @ 아, 절벤, 솔벤은 그런 거 안 넣어마씨?(아, 절편, ‘솔벤’은 그런 거 안 넣어요?)

107079 #4 어.(어.)

107081 @ 그럼 떡에 얹힌 속담이나 그런 거 아는 거 있어마씨? 할머니?(그럼 떡에 얹힌 속담이나 그런 거 아는 거 있어요? 할머니?)

107081 #4 어?(어?)

107081 @ 떡이랑 관련된 속담.(떡이랑 관련된 속담.)

107081 #4 무신 속담 잇인가.(무슨 속담 있을까.)

별식

107082 @ 다음에 그 어르신 순대 잇잖아예? 예전에도 순대 드셨지예? 순대 옛날에 만들었던 방법 그거 좀 곱아 줘서.(다음에 그 어르신 순대 잇잖아요? 예전에도 순대 드셨지요? 순대 옛날에 만들었던 방법 그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7082 #2 이제나 그때나 같으주게. 그 저 이제 저 무시 거 그 비닐에 그 옛날엔 밀가루엿주만은 요새는 모밀가루로 헤여.(이제나 그때나 같지. 그 저 이제 저 무슨 거 그 비닐에 그 옛날에는 밀가루였지만 요새는 메밀가루로 해.)

107082 @ 예.(예.)

107082 #2 그 무슨 밀가루로 허영. 피영 영 서꺼근영.(그 무슨 밀가루로 해. 피와 이렇게 섞어서.)

107082 @ 예.(예.)

107082 #2 순대에 쌀 호끔 넣고 쌀 호끔 넣어. 쌀 호끔 이경 넣엇인가? 생채 안 허고. 물에 넣어근영 놓고 양념 넣어.(순대에 쌀 조금 넣고 쌀 조금 넣어. 쌀 조금 이겨서 넣엇나? 생채 안 하고. 물에 넣어서 놓고 양념 넣어.)

107082 @ 예.(예.)

107082 #2 양념허영 그레 낱 담으면 게 순대가 돼주게. 이제도 이 저 친목헤근 영 돛 잡아.(양념해서 그리 놔서 담으면 그게 순대가 돼지. 이제도 이 저 친몰해서 돼지 잡아.)

107082 @ 아, 경 헨마씨?(아, 그렇게 했어요?)

107082 #2 어.(어.)

107082 @ 언제마씨?(언제요?)

107082 #2 겨울 들어갈 때. 이제도 잡아.(겨울 들어갈 때. 이제도 잡아.)

107082 @ 아, 여기서도?(아, 여기서도?)

107082 #2 어. 양력 설 때 돼 가민 그 우리 신도에서도 돛 잡아 해당 먹고. 지금도 허주게.(어. 양력 설 때 되어 가면 그 우리 신도에서도 돼지 잡아서 해다가 먹고. 지금도 하지.)

107082 @ 그걸로 그럼 순대도 만드는데냐예?(그걸로 그럼 순대도 만드는데냐?)

107082 #2 응. 우리냥으로 만들어.(응. 우리식으로 만들어.)

107083 @ 그럼 두부는? 두부는 어떻 만들마씨?(그럼 두부는? 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요?)

107083 #2 두부도 이젠 공장에서 만들었주만은.(두부도 이제는 공장에서 만들었지만.)

107083 @ 예.(예.)

107083 #2 옛날엔 콩 삶양게 영 곱아.(옛날에는 콩 삶아서 이렇게 곱아.)

107083 @ 예.(예.)

107083 #2 아니 삶지 안 허여. 안 삶양. 삶앗인가?(아니 삶지 았아. 안 삶아서. 삶았나?)

107083 @ 삶지 았아마씨?(삶지 았았어요?)

107083 #2 아, 삶안 삶안. 게삶양 곱양 놀체¹²⁰⁾ 잇어. 놀체에 곱양.(아, 삶았어 삶았어. 삶아서 곱아서 ‘놀체’ 잇어. ‘놀체’에 곱아서.)

107083 @ 예.(예.)

107083 #2 놀체에 곱아근앵 물 컷당 막 곱아근앵 그 물.(‘놀체’에 곱아서 물 섞었다가 막 곱아서 그 물.)

107083 @ 예.(예.)

107083 #2 곱은 물 해근앵 또 삶양 그것 가운데로 담양 딱 놔두민 두부 돼주게.(간 물 해서 또 삶아서 그것 가운데로 담가서 딱 놔두면 두부 되지.)

107084 @ 그럼 모멸, 모멸로 묵도 만들잖아예?(그럼 메밀, 메밀로 묵도 만들잖아요?)

107084 #2 게.(그럼.)

107084 @ 그럼 모멸묵은 어떻 만들언마씨? 뭘로 만들언마씨?(그럼 메밀묵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107084 #2 모멸로게. 모멸가루 해근앵게 영 것이명 불 슴으명 익혀.(메밀로. 메밀가루 해서 이렇게 저으면서 불 때면서 익혀서.)

107084 @ 예.(예.)

107084 #2 그거 익혀 놔두민 튼튼해여.(그거 익혀서 놔두면 튼튼해.)

107084 @ 그냥 놔둬 익히기만 허면 돼마씨?(그냥 놔둬서 익히기만 하면 돼요?)

107084 #2 어.(어.)

107085 @ 그럼 청묵은 알아마씨? 청묵?(그럼 청묵은 알아요? 청묵?)

107085 #2 청묵은 놀체. 쌀가루 물 커근앵 막 짜. 막 짜근앵 삶아. 삶양 놔두민 경 허민 돼여.(청묵은 ‘놀체’. 쌀가루 물 섞어서 막 짜. 막 짜서 삶아. 삶아서 놔두면 그렇게 하면 돼.)

107085 @ 그럼 모멸묵이랑 청묵이랑 뭐가 달라마씨?(그럼 메밀묵이랑 청묵이랑 뭐가 달라요?)

120) ‘놀체’는 삶아 익히지 않고 날것 그대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85 #2 청묵은 허영하고 호끔 물렁물렁헤여. 하양허여.(청묵은 하얗고 조금 물렁물렁해. 하얗고.)

107085 @ 겐디 청묵도 모멸로 만들지 않아마씨?(그런데 청묵도 메밀로 만들지 않아요?)

107085 #2 으 모멸. 그건 모멸쌀로 생체 막 허영 만드는 거주게.(어 메밀. 그건 메밀쌀로 생체 막 해서 만드는 거지.)

107085 @ 똑같이 모멸로 허는데 청묵은 허영허고.(똑같이 메밀로 하는데 청묵은 하얗고.)

107085 #2 어.(어.)

107086 @ 그럼 미숫가루 잇잖아예? 미숫가루는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미숫가루 잇잖아요? 미숫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요?)

107086 #2 미숫가루는게 보리헤여근엥 볶양 근 것이 미숫가루지.(미숫가루는 보리해서 볶아서 간 것이 미숫가루지.)

107086 @ 보리?(보리?)

107086 #2 어.(어.)

107086 @ 요즘은 콩으로 안 헛인가마씨?(요즘은 콩으로 안 했어요?)

107086 #2 콩이영 서꺼 지금은. 지금은 콩, 찹쌀, 보리 세 가지 서꺼근엥 헤사 맛있주게. 옛날은 보리로만 헛주게.(콩과 섞어 지금은. 지금은 콩, 찹쌀, 보리 세 가지 섞어서 해야 맛있지. 옛날은 보리로만 헛지.)

107086 @ 옛날은 보리로만 헛마씨? 그럼 맛은 비슷해마씨? 옛날이나 지금이나?(옛날은 보리로만 했어요? 그럼 맛은 비슷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107086 #2 아니. 맛은 지금 것이 맛있주게. 비싸기도 허여.(아니. 맛은 지금 것이 맛있지. 비싸기도 해.)

107086 @ 아, 옛날은 미숫가루 보리로만 헛구나예?(아, 옛날은 미숫가루 보리로만 헛군요.)

107086 #2 옛날은 보리로만.(옛날은 보리로만.)

107087 @ 지짐이 잇잖아예? 지짐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잇이든 줌 곶아 줍서.(지짐이 잇잖아요? 지짐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줌 말해 주십시오.)

107087 #2 지짐이 무슨 지짐이게?(지짐이 무슨 지짐이?)

107087 @ 게니깐 지짐이는 뭐, 뭐 잇어마씨?(그러니까 지짐이는 뭐, 뭐 잇어요?)

107087 #2 여러 가지주게.(여러 가지이지.)

107087 @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마씨.(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요.)

107087 #2 고구마로 지지미도 허곡 뭐 동태로도 허곡 초기로도 허곡 호박으로도 허곡.(고구마로 지지마도 하고 뭐 동태로도 하고 버섯으로도 하고 호박으로도 하고.)

107087 @ 예. 예. 그거 다 곱아주면 돼마씨.(예. 예. 그거 다 말해주면 돼요.)

107088 @ 그럼 오매기술 잇잖아예? 오매기술도 담그션마씨?(그럼 오매기술 잇잖아요? 오매기술도 담그셨어요?)

107088 #2 그 오매기술은 좁쌀로 허영.(그 오매기술은 좁쌀로 해서.)

107088 @ 예.(예.)

107088 #2 곱앙 오매길 만들야.(갈아서 오매기를 만들어.)

107088 @ 예. 그럼 오매기는 오매기가 어떤 거마씨?(예. 그럼 오매기는 오매기가 어떤 거예요?)

107088 #2 이 좁쌀로 행 가루 곱아 땡.(이 좁쌀로 해서 가루 갈아 땡서.)

107088 @ 예.(예.)

107088 #2 찌근앵.(찌서.)

107088 @ 예.(예.)

107088 #2 저 영 동글락허게 만들면 요 동글락허게 만들면 잘 익지 안 허여. 구멍을 뚫어 속으로. 구멍 뚫어야 잘 익주게.(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요 동그랗게 만들면 잘 익지 않아. 구멍을 뚫어 속으로. 구멍 뚫어야 잘 익지.)

107088 @ 예.(예.)

107088 #2 좁쌀은 이 튼튼허영 익으민 힘들어. 좁쌀로 침떡 만들젠 허민 막 힘들주게.(좁쌀은 이 튼튼해서 익으면 힘들어. 좁쌀로 시루떡 만들려고 하면 막 힘들지.)

107088 @ 아, 힘들어마씨?(아, 힘들어요?)

107088 #2 어. 왜냐면 그것이 튼튼허기 때문에 잘 익지 안 허여. 겐디 오매기해도 영 동글락허게 해 불면 잘 익지 았으난. 일로 구멍 뚫어.(어. 왜냐면 그것이 튼튼하기 때문에 잘 익지 았어. 그런데 오매기해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 버리면 잘 익이 았으니까. 여기로 구멍 뚫어.)

107088 @ 예.(예.)

107088 #2 오매기를 만들야. 오매기를 만들영 물에 낱 막 익형 또 그것을 막 찌근앵 그것들에 누룩 넣으민게 그게 오매기술이주게. 누룩 넣어.(오매기를 만들어. 오매기를 만들어서 물에 놔서 막 익혀서 또 그것을 막 찌서 그것들에 누룩 넣으면 그게 오매기술이지. 누룩 넣어.)

107089 @ 그믄 쉰다리¹²¹⁾는 들어보션마씨? 쉰다리는 뭐짱?(그러면 ‘쉰다리’는 들어보셨어요? ‘쉰다리’는 뭐입니까?)

107089 #2 쉰다리는 옛날에 냉장고 엇이난 밥 먹당 쉬면.(‘쉰다리’는 옛날에 냉장고 없으니까 밥 먹다가 쉬면.)

107089 @ 예.(예.)

107089 #2 그게 그 위에 누룩 넣으민 쉰다리 땡고.(그게 그 위에 누룩 넣으면

121)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여름철에 많이 해 먹는다. ‘순다리’라고도 한다.

‘췌다리’ 되고.)

107089 @ 아.(어.)

107089 #2 지금은 쉬는 밥 엇주게. 밥허영 우리도 일할 때 시원하게 먹젠.(지금은 쉬는 밥 없지. 밥해서 우리도 일할 때 시원하게 먹으려고.)

107089 @ 예.(예.)

107089 #2 밥헤근엥 저 누룩 낱.(밥해서 저 누룩 놔서.)

107089 @ 예.(예.)

107089 #2 누룩 영 낱당 누룩 건져 불어 던져 불민 그것이 췌다리라.(누룩 이렇게 낱다가 누룩 건져 버려 던져 버리면 그것이 ‘췌다리’야.)

107089 @ 췌다리도 무슨 술이짱?(‘췌다리’는 무슨 술입니까?)

107089 #2 아니. 누룩 놓으면 막걸리 햅뵁 닙아.(아니. 누룩 놓으면 막걸리 조금 같아.)

107089 @ 아, 막걸리 닙아마씨?(아, 막걸리 같아요?)

107089 #2 어. 막걸리 닙아.(어. 막걸리 같아.)

107090 @ 그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마씨?(그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90 #2 누룩은 보리 곱앙.(누룩은 보리 같아서.)

107090 @ 예.(예.)

107090 #2 영 동글락허게 영 떡 같이 만들어근엥 영 저 가루 만들어 가루. 메주 허듯. 쉬와. 그것이주게.(이렇게 동그략게 이렇게 떡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저 가루 만들어 가루. 메주 하듯. 쉬워. 그것이지.)

107091 @ 그럼 어르신 옛날에도 옛은 드섯수짱? 옛?(그럼 어르신 옛날에도 옛은 드섯습니까? 옛?)

107091 #2 게. 우리도 옛 만들엇주게.(그럼 우리도 옛 만들엇지.)

107091 @ 옛은 어떻게 만들어마씨?(옛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91 #2 옛은게 좍쌀로 밥허영.(옛은 좍쌀로 밥해서.)

107091 @ 예.(예.)

107091 #2 곱 잇짱아. 곱 모르지?(옛기름 잇짱아. 옛기름 모르지?)

107091 @ 곱?(옛기름?)

107091 #2 곱이라는 건 보리 물에 서경 놔두민 보리가 나.(옛기름이라는 건 보리 물에 섞어서 놔두면 보리가 나.)

107091 @ 예.(예.)

107091 #2 보리 영 영 싹도 나와 가민 물러와.(보리 이렇게, 이렇게 싹도 나와 가면 말러.)

107091 @ 예.(예.)

107091 #2 들령 그거 곱아. 곱아근엥 곱아낱당 좍쌀로 밥헤영 그 아까 곱 넣으면 그 쌀이 진 빠져. 빠지른 이제 채로 곱어근엥 곱허고 좍쌀은 건져뵁 그 물을 팔리면 옛이 돼.(말려서 그거 같아. 같아서 곱아낱다가 좍쌀로 밥해서 그 아까 옛기름

넣으면 그 쌀이 진 빠져. 빠지면 이제 채로 걸어서 엿기름하고 좁쌀은 건져둬서 그 물을 딸리면 엿이 돼.)

107091 @ 아. 그럼 그 엿은 종류는 엿인가마씨?(아. 그럼 그 엿은 종류가 없나요?)

107091 #2 좁쌀. 좁쌀로 검은 좁쌀로 해사 맛 좋주. 이 곤쌀로 허민 맛이 엿어. (좁쌀. 좁쌀로 검은 좁쌀로 해야 맛 좋지. 이 흰쌀로 하면 맛이 없어.)

107091 @ 아, 맛이 엿어.(아, 맛이 없어.)

107091 #2 어. 좁쌀로 해야 맛 좋주게. 이제도 좁쌀로 허여. 좁쌀 비싸.(어. 좁쌀로 해야 맛 좋지. 이제도 좁쌀로 해. 좁쌀 비싸.)

107082 @ 그럼 떡 말앙 이제 밥이랑 반찬 말앙 그 순대 같은 것도 해 먹잖아예?(그럼 떡 말고 이제 밥이랑 반찬 말고 그 순대 같은 것도 해 먹잖아요?)

107082 #4 어, 순대?(어, 순대?)

107082 @ 예. 그 순대 해 먹어 만들어 본 적 있어마씨?(예. 그 순대 해 먹어 만들어 본 적 있어요?)

107082 #4 순대사 듯 잡으민게 그거 허영 재료 해근엥 그것에 마지갱이¹²²⁾ 것도 질어야 그거 질어근엥 즐라멩 삶으민 순대주게.(순대야 돼지 잡으면 그거 해서 재료 해서 그것에 ‘마지갱이’ 것도 질어야 그거 길어서 즐라매서 삶으면 순대지.)

107082 @ 아, 마지갱이? 마지갱이가 뭐팡?(아, ‘마지갱이’? ‘마지갱이’가 뭐입니까?)

107082 #4 그거 ㄹ르 칸 거 재료 허영 하영 놓으민.(그거 가루 섞은 거 재료 해서 많이 놓으면.)

107082 @ 예.(예.)

107082 #4 하영 너미 놓으민 그게 확 터져 불곡.(많이 너무 놓으면 그게 확 터져 버리고.)

107082 @ 예.(예.)

107082 #4 배 차근엥 터져 불곡 터지지 않게 마지갱이.(배 차서 터져 버리고 터지지 않게 ‘마지갱이’.)

107082 @ 아, 마지갱이?(아, ‘마지갱이’?)

107082 #4 어.(어.)

107082 @ 적당히?(적당히?)

107082 #4 적당히. 적당히 놔근엥 허는 거.(적당히. 적당히 놔서 하는 거.)

107083 @ 그럼 두부, 두부도 만들잖아예? 콩으로.(그럼 두부, 두부도 만들잖아요? 콩으로.)

107083 #4 콩으로 그것도 두부 곶아근엥 막 짜근엥 그것도 허는 거난. 아이고.(콩으로 그것도 두부 같아서 막 짜서 그것도 하는 거니까. 아이고.)

107084 @ ㄹ땨땨은 어떻 만들어마씨?(메밀묵은 어떻게 만들어요?)

122) ‘마지갱이’는 ‘알맞게, 적당히’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마직이’라고도 한다.

107084 #4 멧멸묵은 ㄹ르 곶아다근엥.(메밀묵은 가루 갈아서.)

107084 @ 예.(예.)

107084 #4 저 빙떡 허듯이 카근엥 막 짓이멍 허영 계민 그 솔에서 몬 익어근엥 몬 익으민 이제 다락들에나 무싱거 양철에 툇 비왕 놔두민 그거 묵 돼는 거.(저 빙떡 하듯이 타서 막 저으면서 해서 그러면 그 솔에서 전부 익어서 전부 익으면 이제 다락들에나 무엇 양철에 툇 부어서 놔두면 그거 묵 되는 거.)

107085 @ 아, 그럼 청묵도 알아마씨? 할머니?(아, 그럼 청묵도 알아요? 할머니?)

107085 #4 청묵은 그 물로 만들어근엥 저 ㄹ르로 아니.(청묵은 그 물로 만들어서 저 가루로 아니.)

107085 @ 예.(예.)

107085 #4 쌀물 컷다근엥 막 짜근엥 허는 게 청묵.(쌀물 섞었다가 막 짜서 하는 게 청묵.)

107085 @ 아, 그럼 멧멸묵이랑은 좀 다르다예?(아, 그럼 메밀묵이랑은 좀 다르군요?)

107085 #4 멧멸묵 멧멸묵은 멧멸 ㄹ르로 허는 거고.(메밀묵 메밀묵은 메밀가루로 하는 거고.)

107085 @ 예.(예.)

107085 #4 솔로 물 컷다근엥 그거 허는 거라. 주머니 담아근엥.(쌀로 물 섞었다가 그거 하는 거야. 주머니 담아서.)

107085 @ 예.(예.)

107085 #4 담양 그 물로 행 묵 쬐는 것 ㄹ라 청묵.(담아서 그 물로 해서 묵 쬐는 것더러 청묵.)

107085 @ 음.(음.)

107085 #4 그냥 그 ㄹ르로 허는 거는 그냥 묵.(그냥 그 가루로 하는 거는 그냥 묵.)

107085 @ 아, 그냥 묵?(아, 그냥 묵?)

107085 #4 어.(어.)

107086 @ 그럼 그 개역은 보리로 만들어마씨?(그럼 그 미숫가루는 보리로 만들어요?)

107086 #4 응. 계난 개역은게 보리로 보리 장만행 오민 파싹 물렸다근엥 솔이 몬 볶으주게.(응. 그러니까 미숫가루는 보리로 보리 장만해서 오면 바싹 말렸다가 솔에 전부 볶지.)

107086 @ 예.(예.)

107086 #4 볶양 곶아오민 그게 개역이고 많이 행 먹엇주게.(볶아서 곶아오면 그게 미숫가루이고 많이 해서 먹엇지.)

107086 @ 콩으로는 안 헛수광?(콩으로는 안 했습니까?)

107086 #4 콩ㄴ르도 허여. 콩, 콩도 볶양 콩ㄴ르도 서끄영 허여.(콩가루도 해. 콩, 콩도 볶아서 콩가루도 섞어서 해.)

107086 @ 아, 콩ㄴ르도 서꺼?(아, 콩가루도 섞어?)

107086 #4 어. 맛 좋게 허젠 허민 이것저것 넣어. 쌀ㄴ르도 넣곡.(어. 맛 좋게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넣어. 쌀가루도 넣고.)

107087 @ 쌀ㄴ르도 넣고. 그럼 그 지짐이 알지예?(쌀가루도 넣고. 그럼 그 지짐이 알지요?)

107087 #4 아, 지짐이사게 그거 요 세우리라도 헤다근엥.(아, 지짐이야 그거 요 부추라도 헤다가.)

107087 @ 뭐, 뭐 헤다근엥?(뭐, 뭐 헤다가?)

107087 #4 부추?(부추?)

107087 @ 아, 세우리.(아, 부추.)

107087 #4 세우리라도 허영 그거 낱 ㄴ르 카근엥 지지민 지짐이주게.(부추라도 해서 그거 놔서 가루 섞어서 지지면 지짐이지.)

107088 @ 할머니 그럼 그 오매기술도 알아마씨?(할머니 그럼 그 오매기술도 알아요?)

107088 #4 오매기술은 좁쌀 허영 좁쌀ㄴ르 갈아다근엥.(오매기술은 좁쌀 해서 좁쌀가루 갈아다가.)

107088 @ 예.(예.)

107088 #4 그거 좁쌀ㄴ르 썬근엥 멘든 것이 오매기.(그거 좁쌀가루 썬서 만든 것이 오매기.)

107088 @ 아, 좁쌀ㄴ르로 만든 게?(아, 좁쌀가루로 만든 게?)

107088 #4 어.(어.)

107089 @ 그럼 썬다리는?(그럼 ‘썬다리’는?)

107089 #4 썬다리는 밥이나 허여근엥 누룩 누룩헤다근엥 서끄영 놔두민 썬다리 웨는 거주게.(‘썬다리’는 밥이나 해서 누룩 누룩헤다가 섞어서 놔두면 ‘썬다리’ 되는 거지.)

107090 @ 아, 그럼 누룩,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마씨?(아, 그럼 누룩,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90 #4 누룩은게 보리나 밀이나 시민 그거 곶아근엥 서끄영 저 콩 삶아근엥 메주 멘들 듯이 허민 그것도 터.(누룩은 보리나 밀이나 있으면 그거 갈아서 섞어서 저 콩 삶아서 메주 만들 듯이 하면 그것도 터.)

107090 @ 음. 예.(음. 예.)

107090 #4 터사 누룩 웨는 거. 트지 았으면 누룩 아니 웨영 썬다리도 못 허곡. 오매기술도 못 허곡.(터야 누룩 되는 거. 트지 았으면 누룩 안 되어서 ‘썬다리’도 못 하고. 오매기술도 못 하고.)

107090 @ 아, 터야 돼?(어, 터야 돼?)

107090 #4 거 누룩이 터근앵 그거 뺏아근앵 현디 서끄엉 오매기 삶아근앵 그거 막 쩡 그 누룩 서끄민 오매기술 되는 거.(거 누룩이 터서 그거 빵아서 한테 섞어서 오매기 삶아서 그거 막 찌서 그 누룩 섞으면 오매기술 되는 거.)

107091 @ 그럼 옛종류도 알아마씨? 옛? 옛은 만들어 봤수광?(그럼 옛종류도 알아요? 옛? 옛은 만들어 봤습니까?)

107091 #4 그것도 우리 옛날에는 만들어 봤주게.(그것도 우리 옛날에는 만들어 봤지.)

107091 @ 아, 만들어 판마씨? 어떻 만들어마씨? 옛은?(아, 만들어 보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옛은?)

107091 #4 옛은게 그거 골 그건 골 허여근앵 골 골아다근앵.(옛은 그거 옛기름 그건 옛기름 해서 옛기름 갈아다가.)

107091 @ 예.(예.)

107091 #4 옛 만들 거 이제 독을 잡아 넣든가 돼지고기를 넣든가 경 허영 감주 허영 쌀밥허여근앵 좁쌀밥 허영 그것에 골에 서끄엉 놔두민 흐쉴 올라왕 허민 그거 짜근앵 삶아가민 옛 되는 거.(옛 만들 거 이제 닭을 잡아 넣든가 돼지고기를 넣든가 그렇게 해서 감주해서 쌀밥해서 좁쌀밥 해서 그것에 옛기름에 섞어서 놔두면 조금 올라와서 하면 그거 짜서 삶아가면 옛 되는 거.)

107091 @ 아, 경 허민 옛 되는 거마씨?(아, 그렇게 하면 옛 되는 거예요?)

107091 #4 어.(어.)

107091 @ 옛은 언제부터 해 먹언마씨?(옛은 언제부터 해 먹었어요?)

107091 #4 옛, 옛 가을에 허영 한걸허민 집이 모영 옛 허주게.(옛, 옛 가을에 해서 한가하면 집에 모여서 옛 하지.)

기타

107092 @ 어르신 그러면 여기 그 그나마 신도에서 잘 많이 해 먹는 음식은 뭐 잇어마씨? 신도만 이렇게 먹는 음식 옛어마씨?(어르신 그러면 여기 그 그나마 신도에서 잘 많이 해 먹는 음식은 뭐 잇어요? 신도만 이렇게 먹는 음식 없어요?)

107092 #2 뭐 저을에는 빙떡 안 허여. 제주시서는 잘 안 허여. 주로 이디서는 빙떡 많이 허여.(뭐 겨울에는 빙떡 안 해. 제주시에서는 잘 안 해. 주로 여기서는 빙떡 많이 해.)

8. 주생활

구조

108001 @ 집. 집은 어떻 허당 세 번 지언마씨?(집. 집은 어떻게 하다가 세 번 지었어요?)

108001 #2 첨에 곧 살 때게 집이 하도 굿어 부난.(처음에 곧 살 때 집이 많이 굿어 버리니까.)

108001 @ 예.(예.)

108001 #2 초집을 짓엇주게. 다시 짓엇주게. 막 굿어 부난.(초가집을 지엇지. 다시 지엇지. 막 굿어 버리니까.)

108001 @ 예.(예.)

108001 #2 게난 집 짓어근엥 영 불 슬아가민 이제 방 따뜻허주게.(그러니 집 지어서 이렇게 불 사르면 이제 방 따뜻하지.)

108001 @ 예.(예.)

108001 #2 경 행 집을 만들엥 새로 짓엇주게. 나가 짓엇주게.(그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서 새로 지엇지. 내가 지엇지.)

108001 @ 옛날 할아버지랑 같이 들어서 짓인 거마씨?(옛날 할아버지와 같이 들어서 짓은 거예요?)

108001 #2 응, 요디 처음에. 옛날 집은 영 들어가근엥 영 불불이젠 하민 굿언 게.(응. 요기 처음에. 옛날 집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불불이려고 하면 굿었어.)

108001 @ 예.(예.)

108001 #2 게난 조금 낮게 행 살젠.(그러니 조금 낮게 해서 살려고.)

108001 @ 예.(예.)

108001 #2 여기 집 짓어근엥 이제 온불이라고 헛어. 그때 밥해 가민 방이 따뜻해.(여기 집 지어서 이제 온불이라고 헛어. 그때 밥해 가면 방이 따뜻해.)

108001 @ 예.(예.)

108001 #2 불불이지 안 헛. 경 허영 짓엥 호끔 살당 이제 또 쓰레뜨 집을 짓엇주게.(불불이지 았았어. 그렇게 해서 지어서 조금 살다가 이제 또 슬레이트 집을 지엇지.)

108001 @ 음.(음.)

108001 #2 쓰레뜨로.(슬레이트로.)

108001 @ 예.(예.)

108001 #2 말째에는 쓰레뜨로 짓어가난.(말째에는 슬레이트로 지어가니까.)

108001 @ 예.(예.)

108001 #2 쓰레뜨로 저거 짓엇다근엥 이제 저거 짓엥 점빵하고 허다근엥 이젠 이 집 짓엇주게 조립식. 게난 세 번 아니.(슬레이트로 저거 지어다가 이제 저거 지어서 점빵하고 하다가 이제는 이 집 지엇지 조립식. 그러니 세 번 아니.)

108001 @ 이걸 조립식이고예?(이걸 조립식이고요?)

108001 #2 이거 조립식 이거 신식으로 허영 짓엇주게. 호끔 시원하게 살젠.(이거 조립식 이거 신식으로 해서 지엇지. 조금 시원하게 살려고.)

108001 @ 두 번째 집은 언제 점빵 하션마씨?(두 번째 집은 언제 점빵 하셨어요?)

108001 #2 응.(응.)

108001 @ 두 번째 집은 언제 지으셨마씨?(두 번째 집은 언제 지으셨어요?)

108001 #2 몇 년도 알아지크냐.(몇 년도 알아지겠냐.)

108001 @ 아.(아.)

108001 #2 우리 결혼허여근엥 초집 짓엉 살다근엥 현 십년 더 살앗인가.(우리 결혼해서 초가집 지어서 살다가 한 십년 더 살았는가.)

108001 @ 아. 십년 살당 초집에서 바뀐마씨?(아. 십년 살다가 초가집에서 바뀐어요?)

108001 #2 어. 경 허당 또 쓰레뜨 집으로 바뀐.(어. 그렇게 하다가 또 슬레이트 집으로 바뀐.)

108002 @ 그러면 집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 옛날에 집 종류.(그러면 집 종류는 뭐, 뭐 있어요? 옛날에 집 종류.)

108002 #2 초집허곡 뭐 쓰레집배끼 더 잇었어.(초가집하고 뭐 슬레이트집밖에 더 있었어.)

108002 @ 기와집은?(기와집은?)

108002 #2 기와집은 이따가 하나씩.(기와집은 이따가 하나씩.)

108002 @ 아 이따가 하나씩? 좀 잘사는 집인가마씨?(아, 이따가 하나씩? 좀 잘사는 집인가요?)

108002 #2 응. 저 경 허여근엥 상점허당.(응. 저 그렇게 해다가 상점하다가.)

108002 @ 예.(예.)

108002 #2 상점 이십 년 허당 늙어가고 시골에 장사가 안 돼서.(상점 이십 년 하다가 늙어가고 시골에 장사가 안 돼서.)

108002 @ 예.(예.)

108002 #2 이제 경흐난 이제 이 집 짓엉 이제 저기는 민박햐주게.(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지어서 이제 저기는 민박하고 있지.)

108002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08002 #2 어.(어.)

108002 @ 아, 어디 어디 민박햐햐마씨?(아, 어디 어디 민박햐햐요?)

108002 #2 여기영 여기.(여기와 여기.)

108002 @ 아, 나중에 여기 올 일 잇어민 어르신한테 부탁햐햐햐햐야, 민박 어르신한테 부탁햐햐햐햐야크라마씨.(아, 나중에 여기 올 일 있으면 어르신한테 부탁햐햐햐햐야, 민박 어르신한테 부탁햐햐햐햐야.)

108002 #2 여긴 저 일 년씩 혼 달씩 살아.(여긴 저 일 년씩 한 달씩 살아.)

108002 @ 한 달씩마씨? 뭐하는 사람인데 한 달씩 살아마씨?(한 달씩이요? 뭐하는 사람인데 한 달씩 살아요?)

108002 #2 일 년씩 자주 바꾸니까. 방 청소햐햐햐햐도 실프고.(일 년씩 자주 바꾸니까. 방 청소햐햐햐햐도 귀찮고.)

108002 @ 아, 그게 편하겠다예. 근데.(아, 그게 편하겠군요. 근데.)

108002 #2 아니, 오면 저 이디 민박은 싸.(아니, 오면 저 여기 민박은 싸)

108002 @ 아, 싸마씨? 하루 사는 건?(아, 싸요? 하루 사는 건?)

108002 #2 하루 사는 건. 만원만 주민 하루 살아.(하루 사는 건. 만원만 주면 하루 살아.)

108002 @ 만원밖에 안 헤마씨? 돈 더 받아야지.(만원밖에 안 해요? 돈 더 받아야지.)

108002 #2 촌에 나가 소개 해주크라.(촌에 내가 소개 해주겠어.)

108003 @ 그 집 옛날에 좀 크게 지으면 집채가 잇잖아예, 집채 종류가 잇잖아예 뭐 안거리, 밖거리.(그 집 옛날에 좀 크게 지으면 집채가 잇잖아요, 집채 종류가 잇잖아요 뭐 안채, 바깥채.)

108003 #2 응.(응.)

108003 @ 그건 종류가 뭐, 뭐 잇어마씨?(그건 종류가 뭐, 뭐 잇어요?)

108003 #2 계메게 옛날에는 안거리 밖거리, 옛날에는 헛지.(글쎄 옛날에는 안채 바깥채, 옛날에는 헛지.)

108003 @ 예. 또 엇인가마씨? 안거리, 밖거리랑?(예. 또 없을까요? 안채, 바깥채랑?)

108003 #2 창고 뭐.(창고 뭐.)

108003 @ 창고? 혹시 모커리는 안 들어보셨마씨?(창고? 혹시 곁채는 안 들어보셨어요?)

108003 #2 그건 아주 옛날에 모커리라고, 모커리. 들어오는 디 이문간 허는 데가 모커리지.(그건 아주 옛날에 곁채라고, 곁채. 들어오는 데 문간채 하는 데가 곁채이지.)

108003 @ 그러니까 그거 설명해 줘서. 안거리, 모커리, 밖거리는 뭔지 아는데. 안거리가 뭔지 밖거리가 뭔지 모르거든마씨?(그러니까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안채, 곁채, 바깥채는 뭔지 아는데. 안채가 무엇인지 바깥채가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108003 #2 안거리는 큰 집이고.(안채는 큰 집이고.)

108003 @ 예.(예.)

108003 #2 안거리는 이렇게 큰 집 빠지면.(안채는 이렇게 큰 집 빠지면.)

108003 @ 예.(예.)

108003 #2 밖거리는 헛꼐 작게.(바깥채는 조금 작게.)

108003 @ 예.(예.)

108003 #2 허꼭 모커리엔 현 거는 들어오는 디.(하고 곁채라고 한 거는 들어오는 데.)

108003 @ 예.(예.)

108003 #2 들어오는 디 이문간추록 허는 디가 모커리라구.(들어오는 데 문간채 처럼 하는 데가 곁채라고.)

10800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8004 @ 삼간집도 알아마씨? 어르신?(삼간집도 알아요? 어르신?)

108004 #2 계.(그럼.)

108004 @ 삼간집은 뭐짱?(삼간집은 뭐입니까?)

108004 #2 작은 것ㄴ라 삼간집이라 허주게.(작은 것더러 삼간집이라 하지.)

108004 @ 작은 거?(작은 거?)

108004 #2 어.(어.)

108004 @ 그럼 삼간집은 어떻 만들어마씨? 그 과정. 좀 약간 자세하게.(그럼 삼간집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 과정. 좀 약간 자세하게.)

108004 #2 아니, 구들허고 마리하고 부엌뿐 삼간집.(아니, 구들하고 마루하고 부엌뿐 삼간집.)

108004 @ 다시 한 번 뭐랑 뭐마씨?(다시 한 번 뭐랑 뭐요?)

108004 #2 저 삼간집은 구들허고 마리하고 부엌뿐.(저 삼간집은 구들하고 마루하고 부엌뿐.)

108004 @ 아, 그것뿐?(아, 그것뿐.)

108004 #2 어. 그거 삼간집. 서간집은 이제 구들 두 개.(어. 그거 삼간집. 서간집은 이제 구들 두 개.)

108004 @ 예.(예.)

108004 #2 뭐. 마리. 경 허주게 서간집. 큰 건 서간집. 삼간집은 세 개.(뭐. 마루. 그렇게 하지 서간집. 큰 거는 서간집. 삼간집은 세 개.)

108004 @ 세 개밖에 엇이난 삼간집? 그럼 삼간집은 어떻 만들어마씨?(세 개밖에 없으니까 삼간집? 그럼 삼간집은 어떻게 만들어요?)

108004 #2 계, 구들 하나허고 마리하고 부엌뿐.(구들 하나하고 마루하고 부엌뿐.)

108004 @ 그니까 그거만 만들면 되는 거마씨?(그러니까 그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108004 #2 응. 경 허면 그계 삼간집.(응. 그렇게 하면 그계 삼간집.)

108004 @ 방은 엇우광? 아, 구들 하나.(방은 없습니까? 아, 구들 하나.)

108004 #2 응, 응. 저 서간집은 구들 두 개.(응, 응. 저 서간집은 구들 두 개.)

108004 @ 음.(음.)

108004 #2 마루, 부엌, 안방. 안방은 집마다 다르주게.(마루, 부엌, 안방. 안방은 집마다 다르지.)

108005 @ 그니까예. 그럼 집마다 이렇게 주춧돌이나 막 그런 거 잇잖아예.(그러니까요. 그럼 집마다 이렇게 주춧돌이나 막 그런 거 잇잖아요.)

108005 @ 어.(어.)

108005 #2 기와나 집 지을 때 대는 거 대. 그런 거 서까래 같은 거 잇잖아예. 그 서까래나 뭐 그런 거. 서까래는 안 들어보고마씨?(기와나 집 지을 때 대는 거

대. 그런 거 서까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서까래나 뭐 그런 거. 서까래는 안 들어 보고요?)

108005 #2 서까래는 이거 영 뭣?라 서까래라 허는디. 서리¹²³). 서리.(서까래는 이거 이렇게 무엇더러 서까래라 하는데. ‘서리’. ‘서리’.)

108005 @ 서리?(‘서리’?)

108005 #2 응.(응.)

108007 @ 다음에 방 잇잖아예. 그 집에 잇으면 큰 방 작은 방 뭘 시렁 벽장. 그런 거 잇잖아예. 방 종류가 여러 가지 잇잖아예? 집이 잇이믄.(다음에 방 잇잖아요. 그 집에 잇으면 큰 방 작은 방 뭘 시렁 벽장. 그런 거 잇잖아요. 방 종류가 여러 가지 잇잖아요? 집이 잇으면.)

108007 #2 무슨. 서리? 다시 곺아봐.(무슨. 서까래? 다시 얘기해봐.)

108007 @ 방, 방. 와나 신자 임방은 안 들어보셨지예? 임방.(방, 방. 와나 신자 임방은 안 들어보셨지요? 임방.)

108007 #2 그 옛날 집은.(그 옛날 집은.)

108007 @ 예.(예.)

108007 #2 크게 짓곡 잘 사는 집은 이 마루에 문만 하지 않앙. 죽은 문 헛어. 그디 영 아지는 디. 죽은 문.(크게 직고 잘 사는 집은 이 마루에 문만 하지 않아서. 작은 문 헛어. 거기 이렇게 앉는 데. 작은 문.)

108008 @ 그럼 마루 잇잖아예?(그럼 마루 잇잖아요?)

108008 #2 응.(응.)

108008 @ 그 마루는 아까 마리라고 헛지예?(그 마루는 아까 ‘마리’라고 헛지요?)

108008 #2 마루, 마루? 마리. 마리.(마루, 마루? ‘마리’. ‘마리’.)

108008 @ 그럼 마리는 보통 집마다 다 잇인가마씨?(그럼 마루는 보통 집마다 다 잇나요?)

108008 #2 으. 마루는 집마다 잇주게.(어. 마루는 집마다 있지.)

108008 @ 그럼 마루에는 보통 뭘 허지마씨? 마루에서는?(그럼 마루에는 보통 뭘 하지요? 마루에서는?)

108008 #2 영 아장 우리추룩 얘기허주게. 저 가운데 잇인 것이 마루주게.(이렇게 앉아서 우리처럼 얘기하지. 저 가운데 있는 것이 마루이지.)

108009 @ 그럼 고방 잇잖아예?(그럼 고방 잇잖아요?)

108009 #2 안방¹²⁴). 안방.(광. 광.)

108009 @ 아, 안방이 고방이꽝?(아, ‘안방’이 고방입니까?)

108009 #2 어. 안방은게 이제 곡식 놓고게.(어. ‘안방’은 이제 곡식 놓고.)

108009 @ 안방에다가마씨?(‘안방’에다가요?)

123) ‘서리’는 서까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24) ‘안방’은 ‘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09 #2 응. 곡식 농곡 하는 디가 안방.(응. 곡식 놓고 하는 데가 ‘안방’.)

108009 @ 아, 안방이? 안방이 사람 자는 데 아니잖?(아, ‘안방’이? ‘안방’이 사람 자는 데 아닙니까?)

108009 #2 아니.(아니.)

108009 @ 안방은 창고 그러면?(‘안방’은 창고 그러면?)

108009 #2 아니 옛날엔 안방이엔 허주게. 쌀 놓고 곡식 놓는 디가.(아니 옛날에 ‘안방’이라고 하지. 쌀 놓고 곡식 놓는 데가.)

108010 @ 아, 그게 안방. 쌀 놓고 곡식 놓고?(아, 그게 ‘안방’. 쌀 놓고 곡식 놓고?)

108010 #2 응.(응.)

108010 @ 그럼 부엌 잇잖아예?(그럼 부엌 잇잖아요?)

108010 #2 어.(어.)

108010 @ 부엌에는 뭐, 뭐 옛날에 잇언마씨?(부엌에는 뭐, 뭐 옛날에 있었어요?)

108010 #2 무싱거 잇어게. 그릇 놓고게 밥 그딴서 밥허고게 물항도 넣고.(무엇 있어. 그릇 놓고 밥 거기서 밥하고 물독도 넣고.)

108010 @ 아, 물항, 물항은 뭐잖?(아, 물독, 물독은 뭐입니까?)

108010 #2 영 항에다가 옛날엔 수도 잇이난.(이렇게 독에다가 옛날에는 수도 없으니까.)

108010 @ 예.(예.)

108010 #2 영, 영 항에다가 어디 물통에 왕 물 질러다 그리 비와근엿 물을 항상 거기 셔사 밥허고 허주게.(이렇게, 이렇게 독에다가 어디 물통에 와서 물 길러다 거기 부어서 물을 항상 거기 있어야 밥하고 하지.)

108010 @ 음.(음.)

108010 #2 물을 질어당 놔. 물항 잇어야주게.(물일 길어다가 놔. 물독 있어야지.)

108010 @ 찻방은 안 들어보셴마씨? 찻방?(찻방은 안 들어보셨어요? 찻방?)

108010 #2 찻방은? 이런 디서 그런 말 안 헛는디? 찻방.(찻방은? 이런 데서 그런 말 안 헛는데? 찻방.)

108011 @ 그럼, 어르신 문설주는 알아마씨? 문설주?(그럼, 어르신 문설주는 알아요? 문설주?)

108011 #2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이딴서 안 써.(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여기서는 안 써.)

108012 @ 그럼 방마다 이렇게 창문이 잇잖아예? 문이.(그럼 방마다 이렇게 창문이 잇잖아요? 문이.)

108012 #2 어. 어.(어. 어.)

108012 @ 문이 잇인디 어. 그 창문 뭐 특이허게. 방에 몇 개 보통 창문 만들고

허주마씨?(문이 있는데 어. 그 창문 뭐 특이하게. 방에 몇 개 보통 창문 만들고 하
지요?)

108012 #2 아니, 옛날엔 이런 디 영 창문 하나뿐이주게. 창문.(아니, 옛날에는
이런 데 이렇게 창문 하나뿐이지. 창문.)

108012 @ 아, 하나배끼.(아, 하나밖에.)

108012 #2 방마다 창문 영 허여. 저레. 마루도.(방마다 창문 이렇게 해. 저리. 마
루도.)

108013 @ 호령창¹²⁵⁾은 알아마씨? 어르신? 호령창?(‘호령창’은 알아요? 어르신?
‘호령창’?)

108013 #2 모르켄게.(모르겠다.)

108013 @ 호령창은 안 들어보셨마씨?(‘호령창’은 안 들어보셨어요?)

108014 @ 그럼 굴묵? 굴묵은 알아마씨?(그럼 굴뚝? 굴뚝은 알아요?)

108014 #2 굴묵은 저 옛날에게.(굴뚝은 저 옛날에.)

108014 @ 예. 방 뜻이게 허젠 허는 건디예?(예. 방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요?)

108014 #2 방 뜻이게 하는디 영 영. 이런 디 영 영 해근앵 들어가근앵 영. 이
불 밑으로 영 무시거 문도 지금 불살랏주게 방 뜻이게.(방 따뜻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불 밑으로 이렇게 무엇 문
도 지금 불살랏지. 방 따뜻하게.)

108014 @ 그럼 뭘로 그건 불살란마씨? 나무로?(그럼 뭘로 그건 불살랐어요? 나
무로?)

108014 #2 ㄹ스락으로 ㄹ스락으로.(까끄라기로 까끄라기로.)

108014 @ ㄹ스락으로? 그러니까 나뭇가지 막 이런 거 모아.(까끄라기로? 그러
니까 나뭇가지 막 이런 거 모아.)

108014 #2 나뭇가지 이디 엇엇어. 나뭇가지는 불 때야지.(나뭇가지 여기 없었어.
나뭇가지는 불 때야지.)

108014 @ 아, 그럼 뭘로 헨마씨?(아, 그럼 무엇으로 했어요?)

108014 #2 ㄹ스락이라고 불이땡이 장만해난. 그. ㄹ스락. 불이땡이.(까끄라기라
고 부지깽이 장만해났어. 그. 까끄라기. 부지깽이.)

108014 @ 아, 계난 그 남은 찌꺼기마씨, 꺾데기?(아, 그러니까 그 남은 찌꺼기
요, 꺾데기?)

108014 #2 그 나무가 어디 셔? 나무는 밥해야지. (그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는
밥해야지.)

108014 @ 나무로는 밥허고?(나무로는 밥하고?)

108014 #2 응. 그런 걸로 또 경 현 거 아니면 쉼뚱으로.(응. 그런 걸로 또 그렇

125) ‘호령창’은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판문으로 만
들어진다.

게 한 거 아니면 쇠똥으로.)

108014 @ 아, 쇠똥?(아, 쇠똥?)

108014 #2 쇠똥 들려와근영. 그렇게 허지. 그것이 더 오래가고 뜻아.(쇠똥 말려 와서. 그렇게 하지. 그것이 더 오래가고 따듯해.)

108014 @ 그래도 막 추우면 나무로는 안 헤마씨? 나무는 그냥 밥 지을 때만 써마씨?(그래도 막 추우면 나무로는 안 해요? 나무는 그냥 밥 지을 때만 써요?)

108014 #2 밥 지을 것도 없어. 나무는.(밥 지을 것도 없어. 나무는.)

108014 @ 아, 여기는 나무는 그렇게 안 많아마씨?(아, 여기는 나무는 그렇게 안 많아요?)

108014 #2 안 많아. 나무는 그 솔뿔 끊어왔지. 나무로 떨어진 거. 그 나라에서도 나무 붙이지 못하게 했어.(안 많아. 나무는 그 솔잎 끊어왔지. 나무로 떨어진 거. 그 나라에서도 나무 붙이지 못하게 했어.)

108014 @ 아, 경 헨마씨?(아, 그렇게 했어요?)

108014 #2 어. 나무 키우젠 허민 그 솔잎이 떨어지지 바람 불어나면.(어. 나무 키우려고 하면 그 솔잎이 떨어지지 바람 불면.)

108014 @ 예.(예.)

108014 #2 그러면 그거 막 굽어다가 밥하고 굴뚝 떼는 건 쇠똥 들리고 그 보리 ㄱ스락으로 헤근영 그걸로 헛주게.(그러면 그거 막 굽어다가 밥하고 굴뚝 떼는 거는 쇠똥 말리고 그 보리 까끄라기로 해서 그걸로 헛지.)

108016 @ 어르신, 물팡¹²⁶ 잇잖아예?(아르신, ‘물팡’ 잇잖아요?)

108016 #2 어.(어.)

108016 @ 물팡. 물팡에 대해 좀 글아 줘서.(‘물팡’. ‘물팡’에 대해 좀 말해 주십시오.)

108016 #2 물팡은게.(‘물팡’은.)

108016 @ 예.(예.)

108016 #2 이제 수도 엇이난게, 이 마을은 물이 막 먼 디 가야 돼여. 어떤 마을은 물 나는 동네도 있어.(이제 수도 없으니까, 이 마을은 물이 막 먼 데 가야 돼. 어떤 마을은 물 나는 동네도 있어.)

108016 @ 예.(예.)

108016 #2 이 논 깎고 바닷가에는 물 나고 여기 서리렌 허는 디는 막 큰물 나.(이 논 깎고 바닷가에는 물 나고 여기 서리라고 하는 데는 막 큰물 나.)

108016 @ 아, 여기 위에마씨?(아, 여기 위예요?)

108016 #2 응. 요, 요 동네. 모슬포 가기 전이.(응. 요, 요 동네. 모슬포 가기 전에.)

108016 @ 모슬포 가기 전에.(모슬포 가기 전에.)

108016 #2 응. 서리라는 디 완전 물이 팔팔팔팔 솟아.(응. 서리라는 데 완전 물

126)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 팔팔팔팔 솟아.)

108016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08016 #2 경 허민 저 썰렁허주게.(그렇게 하면 저 썰렁하지.)

108016 @ 예.(예.)

108016 #2 앓지 못 허여. 막 실려와. 쿵쿵쿵쿵. 이젠 물 안 나오주게. 막 그거 수도 뽑아 부난.(앓지 못 해. 막 차가워. 쿵쿵쿵쿵. 이제는 물 안 나오지. 막 그거 수도 뽑아 버리니까.)

108016 @ 아, 뽑아 부난?(아, 뽑아 버리니까?)

108016 #2 어.(어.)

108016 @ 그럼 물팡이 그거랑 무슨?(그럼 ‘물팡’이 그거랑 무슨?)

108016 #2 경흐난.(그러니까.)

108016 @ 예.(예.)

108016 #2 우리 마을은 저래 막 올라가야 이 사람 손으로 물을 파서 영 움틀락 하게¹²⁷⁾ 팡 그 물로 허주게. 우리가 강 질어와 북으로 지어당 허벽¹²⁸⁾에.(우리 마을은 저리 막 올라가야 이 사람 손으로 물을 파서 이렇게 ‘움틀락하게’ 파서 그 물로 하지. 우리가 가서 길러와 북으로 지어다가 ‘허벽’에.)

108016 @ 아.(아.)

108016 #2 게민 이 허벽 놓는 디가 물팡이라.(그러면 이 ‘허벽’ 놓는 데가 ‘물팡’이야.)

108016 @ 아, 허벽 놓는 디가 물팡마씨?(아, ‘허벽’ 놓는 데가 ‘물팡’이에요?)

108016 #2 어.(어.)

108016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8016 @ 그러면 이 동네 신도에서 옛날에 뭐 물팡은 다 잇언마씨?(그러면 이 동네 신도에서 옛날에 뭐 ‘물팡’은 다 있었어요?)

108016 #2 집집마다 션.(집집마다 있었어.)

108016 @ 아, 물팡이?(아, ‘물팡’이?)

108016 #2 어. 이거 허벽 놓는 디 물팡.(어. 이거 ‘허벽’ 놓는 데 ‘물팡’.)

108016 @ 아아, 허벽 놓는 디가 물팡이지예.(아아, ‘허벽’ 놓는 데가 ‘물팡’이지요.)

108016 #2 어. 집집마다 물팡 잇꼭 허벽도 잇어야지 물 질르젠 허믄.(어. 집집마다 ‘물팡’ 있고 ‘허벽’도 잇어야지 물 기르려고 하면.)

108016 @ 그럼 물 뭇로 이렇게 물 떠 마션마씨?(그럼 물 무엇으로 이렇게 물 떠 마셨어요?)

108016 #2 허벽이. 허벽 몰라?(‘허벽’. ‘허벽’ 몰라?)

108016 @ 허벽 알주마씨. 이만한 거.(‘허벽’ 알지요. 이만한 거.)

127) ‘움틀락하다’는 오목하게 파여 들어간 것이 둥글고 미끈둥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128) ‘허벽’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허배기, 허베기, 험데기, 짓가달’이라고도 한다.

108016 #2 응. 그걸로. 그걸로 영 물통 이제 등가근엥 가득허민 들리당 놔근엥 허주게.(응. 그걸로. 그걸로 이렇게 물통 이제 담가서 가득하면 들어다가 놔서 하지.)

108017 @ 골목도 알아마씨? 어르신?(골목은 알아요? 어르신?)

108017 #2 골목은게 이제 영 영 들어가는 디ㄴ라 골목이라 허주게.(골목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데더러 골목이라 하지.)

108018 @ 문간채는 들어보션마씨?(문간채는 들어보셨어요?)

108018 #2 문간채는 이문간을. 이문간.(문간채는 ‘이문간’을. ‘이문간’.)

108018 @ 이문간?(‘이문간’?)

108018 #2 옛날에는 크게 낭으로 해근엥. 저 문 더끄곡 열고 이문간이라고 했주게.(옛날에는 크게 나무로 해서. 저 문 닫고 열고 ‘이문간’이라고 했지.)

108018 @ 아. 것ㄴ라. 그럼 가리터도 들어보션마씨? 가리터?(아. 것더러. 그럼 가리터도 들어보셨어요? 가리터?)

108019 # 가리터는 안 들어 봤인디.(가리터는 안 들어 봤는데.)

108020 @ 그 옛날에 돼지 키우섯을 때 돼지우리 잇엇잖아예.(그 옛날에 돼지 키우섯을 때 돼지우리 잇엇잖아요.)

108020 #2 응.(응.)

108020 @ 돼지우리는 어떻 만들고 뭐, 뭐 어떻 만들어마씨?(돼지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뭐, 뭐 어떻게 만들어요?)

108020 #2 통지¹²⁹⁾주게 것ㄴ라 통지엔 헤여.(‘통지’이지 것더러 ‘통지’라고 해.)

108020 @ 통지?(‘통지’?)

108020 #2 응. 통지.(응. ‘통지’.)

108020 @ 통지는 어떻 만들어마씨?(‘통지’는 어떻게 만들어요?)

108020 #2 통지는 집집마다 영 울타리 옆이. 여기 구석에.(‘통지’는 집집마다 이렇게 울타리 옆에. 여기 구석에.)

108020 @ 예.(예.)

108020 #2 영 흐뎡 파근엥 돼지 집을 영 만들영. 그 돼지를 거기 질르고 사람 똥 싸고. 거기. 똥 허여근엥. 또 내여근엥. 밧이 강 뿌렸지 그걸. 비료 잇일 때라 부난. 비료 잇일 때난.(이렇게 조금 파서 돼지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돼지를 거기 기르고 사람 똥 싸고. 거가. 동 해서. 또 내어서. 밧에 가서 뿌렸지 그걸. 비료 없을 때라 버리니까. 비료 없을 때니까.)

108020 @ 예.(예.)

108020 #2 경 허영 보리 같고. 이 제주도에서 이 마을이 이등이라. 제주도에서 일 강정¹³⁰⁾. 강정이 제일 땅 좋아.(그렇게 해서 보리 같고. 이 제주도에서 이 마을이 이등이야. 제주도에서 일 ‘강정’. ‘강정’이 제일 땅 좋아.)

129) ‘통지’는 돼지우리의 제주어이다. ‘똥통지’라고도 한다.

130) ‘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108020 @ 아, 땅이.(아, 땅이.)

108020 #2 응. 다음은 이 이 돈이¹³¹.(응. 다음은 이 이 ‘도원’.)

108020 @ 아, 그 토양이?(아, 그 토양이?)

108020 #2 응. 땅이. 제주도이서 일 강정, 이 돈이라고. 땅이 그렇게 좋은디.(응. 땅이. 제주도에서 일 ‘강정’, 이 ‘도원’라고. 땅이 그렇게 좋은데.)

108020 @ 아, 옛날부터 그런 말 잇언마씨?(아, 옛날부터 그런 말 있었어요?)

108020 #2 응. 옛날에.(응. 옛날에.)

108020 @ 일 강정?(일 ‘강정’?)

108020 #2 이 돈이.(이 ‘도원’.)

108020 @ 이 돈이.(이 ‘도원’.)

108020 #2 이 지금은 뭐 저 동쪽들엔 막 박혀여근엿 조코고리도 이만씩 허고 이 마을은 이만씩 커. 땅이 좋아.(이 지금은 뭐 저 동쪽들에는 막 박해서 조이삭 이만씩 하고 이 마을은 이남씩 커. 땅이 좋아.)

108020 @ 땅이 좋아 부난.(땅이 좋아 버리니까.)

108020 #2 어.(어.)

108021 @ 옛날에 변소는 어떻 만들언마씨? 변소는. 어르신. 초집힐 때. 통지? 통시?(옛날에 변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변소는. 어르신. 초가집할 때. ‘통지’? ‘통시’?)

108021 #2 통지.(‘통지’.)

108021 @ 통지?(‘통지’?)

108021 #2 내중엔 또 나라에서 화장실 만들렌 헨. 바깥디 만들엇주게. 바깥디 만들다가 지금은 다 안에다.(나중에는 또 나라에서 화장실 만들라고 했어. 바깥에 만들엇지. 바깥에 만들다가 지금은 다 안에다.)

108021 @ 옛날엔 나라에서 밖에 만들라고 헨마씨?(옛날에는 나라에서 밖에 만들라고 했어요?)

108021 #2 게. 막 막 만들렌. 우리 처음 만들엇어.(그럼. 막 막 만들라고. 우리 처음 만들엇어.)

108021 @ 아 기짱? 초집 초집 지엿을 때는?(아 그렇습니까? 초가집 초가집 지엿을 때는?)

108021 #2 아니, 아니야.(아니, 아니야.)

108021 @ 아, 그면 초집 지엿을 때는 통지, 통지만 잇언마씨?(아, 그러면 초가집 지엿을 때는 ‘통지’, ‘통지’만 있었어요?)

108021 #2 통지만 잇엇주게.(‘통지’만 있었지.)

108021 @ 그럼 그때 어르신 돼지 키웠겠다예?(그럼 그때 어르신 돼지 키웠겠군요?)

131) 제보자는 ‘돈이’라고 발음하였는데, 문맥상 ‘도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을 의미한다.

108021 #2 계. 새끼 내고. 그땐 돼지 새끼 나와야 돈 버는 거.(그럼. 새끼 내고. 그때는 돼지 새끼 나와야 돈 버는 거.)

108021 @ 아, 그걸 팔아마씨?(아, 그걸 팔아요?)

108021 #2 새끼 팔아. 경 행 아이들 학비하고.(새끼 팔아.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학비하고.)

108021 @ 그럼 예전에 그걸 어디다가 팔안마씨?(그럼 예전에 그걸 어디다가 팔았어요?)

108021 #2 장에 강.(장에 가서.)

108021 @ 아, 여기는 가까운 장은 어디 잇었마씨?(아, 여기는 가까운 장은 어디 있었어요?)

108021 #2 고산.(‘고산’.)

108021 @ 아, 고산.(아, ‘고산’.)

108021 #2 경 허고 도새기 장사들이 있어. 도새기 새끼 내왕 커근엥 많은 장사꾼들이 왕 사가.(그렇게 하고 돼지 장사들이 있어. 돼지 새끼 내와서 커서 많은 장사꾼들이 와서 사가.)

108021 @ 그때 그거 한 마리는 얼마에 팔안마씨?(그때 그거 한 마리는 얼마에 팔았어요?)

108021 #2 몰라. 얼마다. 그때 하여튼 그땐 도새기 새끼 나와야 돈 벌어.(몰라. 얼마인지. 그때 하여튼 그때는 돼지 새끼 나와야 돈 벌어.)

108022 @ 그러면 헛간도 예전에 만들었마씨? 헛간.(그러면 헛간도 예전에 만들었어요? 헛간?)

108022 #2 돼지 헛간? 아니 소에, 소 지르는 헛간 잇었주게.(돼지 헛간? 아니 소에, 소 기르는 헛간 있었지.)

108023 @ 웨양간?(외양간?)

108023 #2 으.(어.)

108023 @ 웨양간은 어떻 만들었마씨?(외양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108023 #2 그냥게 영 초집. 짝으로 행, 창고추록 호끔만허게 행 쉼 질러와 경 헛주.(그냥 이렇게 초가집. 짝으로 해서, 창고처럼 조금하게 해서 소 길러. 그렇게 했지.)

108023 @ 쉼도 키워 보션마씨?(소도 키워 보셨어요?)

108023 #2 계.(그럼.)

108023 @ 아, 몇 마리나?(아, 몇 마리나?)

108023 #2 우린, 옷드르¹³²⁾는 암소들을 질렀어.(우리는, ‘옷드르’는 암소들을 길렀어.)

108023 @ 예.(예.)

132) ‘옷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23 #2 새끼 내영 팔민 막 돈 돼, 그 때. 여기, 여기들은 소 하나 질러와. 부룽이. 솃채 막 크게 질러와. 겨울 낭 슬찌믄 팔민 돈 돼고.(새끼 내어서 팔면 막 돈 돼, 그 때. 여기, 여기들은 소 하나 질러와. 수소. 수소 막 크게 질러와. 겨울 나서 살찌면 팔면 돈 되고.

108023 @ 밧 갈젠, 보통?(밭 가려고, 보통?)

108023 #2 밧도 같고. 췌 한 마리 풀민 옛날엔 밧 하나 샀어.(밭도 같고. 소 한 마리 팔면 옛날에는 밧 하나 샀어.)

108023 @ 아 그지예.(아. 그렇지요.)

108023 #2 큰 집 하나.(큰 집 하나.)

108023 @ 그럼 웃드리는 많이 경 키워마씨?(그럼 ‘웃드리’는 많이 그렇게 키워어요?)

108023 #2 웃드리들은 이 암췌들만 질러와 새끼 낳고.(‘웃드리’들은 이 암소들만 질러와 새끼 낳고.)

108023 @ 아, 새끼. 여기는 별로 암췌는 안 키워마씨?(아, 새끼. 여기는 별로 암소는 안 키워어요?)

108023 #2 여기 암췌 질르면 못 질러. 막 솃채들이 많아 부난. 못 질러.(여기 암소 기르면 못 질러. 막 수소들이 많아 버리니까. 못 질러.)

108023 @ 무사 못 질러마씨?(왜 못 질러요?)

108023 #2 솃채들이 암췌 보민 막 왕왕왕왕 하명 안 돼어.(수소들이 암소 보면 막 왕왕왕왕 하면서 안 돼.)

108024 @ 아, 기짱? 그러면 장독대 잇잖아예?(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독대 잇잖아요?)

108024 #2 응.(응.)

108024 @ 장독, 장독대에도 여기도 많이 옛날에 잇었지예?(장독, 장독대에도 여기도 많이 옛날에 있었지요?)

108024 #2 게.(그럼.)

108024 @ 그럼 뭐, 뭐 담아놔마씨? 장독대에.(그럼 뭐, 뭐 담가놔어요? 장독대에.)

108024 #2 장 담고게 고추장 담곡. 그뒤에, 김치도 담고게 다 그런 거.(장 담고 고추장 담고. 거기에, 김치도 담고 다 그런 거.)

108024 @ 그거는 뭐 옛날에도 그걸 파는 사람이 잇언마씨? 장독대를?(그거는 뭐 옛날에도 그걸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독대를?)

108024 #2 게. 요 마을에서 구웠지, 향아리.(그럼. 요 마을에서 구웠지, 향아리.)

108024 @ 아, 구웬마씨? 향아리 구웬 디 잇언마씨? 요 위에?(아, 구웠어요? 향아리 구웬 데 있었어요? 요 위에?)

108024 #2 이제. 이제도 험실거라. 어디.(이제. 이제도 하고 있을 거야. 어디.)

108024 @ 이제도 허험마씨?(이제도 하고 있어요?)

108024 #2 그 땀 이 플라스틱 엇어놓난.(그 때는 이 플라스틱 없어버리니까.)
 108024 @ 예.(예.)
 108024 #2 흑 헤근엥 그 마을 흑이 좋아.(흙 해서 그 마을 흙이 좋아.)
 108024 @ 예.(예.)
 108024 #2 땅 파근엥 흑을 막 찌근엥.(땅 파서 흙을 막 찌서.)
 108024 @ 예.(예.)
 108024 #2 뭇으로 찌근엥 영 향아리 만들어.(뭇으로 찌서 이렇게 향아리 만들어.)
 108024 @ 예.(예.)
 108024 #2 불에 낡 불 때민 별경게 막 향아리가 뒤여. 경 팔아낫주게.(불에 놔서 불 때면 별경게 막 향아리가 되어. 그렇게 팔았었지.)
 108025 @ 어르신, 춤향133)은 들어보셨마씨? 춤향? 춤134)이나 춤향?(어르신, ‘춤향’은 들어보셨어요? ‘춤향’? ‘춤’이나 ‘춤향’?)
 108025 #2 그런 거는 안 들어봤인디.(그런 거는 안 들어봤는데.)
 108025 @ 아 춤향은 안 들어보셨마씨?(아 ‘춤향’은 안 들어보셨어요?)

초가지붕 이기

108026 @ 그러면 이 초가지집, 초집 좀 물어보젠 험신디예. 초집 지붕이기 허잖아 예. 그거 지붕이기가 뭐짱?(그러면 이 초가지집, 초가지집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초가지집 지붕이기 하잖아요. 그거 지붕이기가 뭐입니까?)
 108026 #2 지붕. 두 해에 혼 번.(지붕. 두 해에 한 번.)
 108026 @ 언제 한 번마씨?(언제 한 번이요?)
 108026 #2 두 해에.(두 해에.)
 108026 @ 아 두 해에 한 번.(아 두 해에 한 번.)
 108026 #2 예, 이 년에 한 번.(예, 이 년에 한 번.)
 108026 @ 예.(예.)
 108026 #2 이 새 비어다강 영 깔아 지붕에다.(이 띠 베어다가 이렇게 깔아 지붕에다.)
 108026 @ 예.(예.)
 108026 #2 깔곡 또 작은 새, 작은 새를 비어당.(깔고 또 작은 띠, 작은 띠를 베어다가.)
 108026 @ 예.(예.)
 108026 #2 이 영 영 영 영 손으로 줄 만들앙 누 만들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줄 만들어서 누 만들어.)
 108026 @ 예.(예.)

133) ‘춤향’은 ‘춤’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담은 향아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34) ‘춤’은 새를 머리 땅듯이 땅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향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26 #2 누 만들어근앵. 영 새 더꺼근앵 묶어야지. 딱 묶어.(누 만들어서. 이렇게 띠 덮어서 묶어야지. 딱 묶어.)

108026 @ 예.(예.)

108026 #2 이 년에 한 번. 그렇게 해야 풀리지 안 해주게.(이 년에 한 번. 그렇게 해야 풀리지 않지.)

108026 @ 아, 안 풀리려고?(아, 안 풀리려고?)

108026 #2 으 바람에 풀려 불지. 계난에 경 못 허게 이 년에 한 번 허는 거라.(어 바람에 풀려 버리지. 그러니 그렇게 못 하게 이 년에 한 번 하는 거야.)

108027 @ 그 새하고 또 각단¹³⁵도 필요하잖아예.(그 띠하고 또 ‘각단’도 필요하잖아요.)

108027 #2 각단은 줄 허는 거.(‘각단’은 줄 하는 거.)

108027 @ 아, 그러면 새하고 각단은 어떻 준비해마씨?(아, 그러면 띠하고 ‘각단’은 어떻게 준비해요?)

108027 #2 새는 길, 길어야 지붕에 더끄주게 영 더꺼. 더끄고, 각단은 이만히 짧른 거.(띠는 길, 길어야 지붕에 덮지 이렇게 덮어. 덮고, ‘각단’은 이만큼 짧은 거.)

108027 @ 예.(예.)

108027 #2 짧른 거라 각단이라고 해주게. 각단은 줄은 만들어 영 영 영 영 허명.(짧은 거더러 ‘각단’이라고 하자. 각단은 줄을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108027 @ 예.(예.)

108027 #2 줄을 만들어. 경 허여근앵 새 짚아와근앵 딱 묶어야지.(줄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띠 깔아와서 딱 묶어야지.)

108027 @ 그럼 각단은 줄이고 새는 그러면 뭘로 만들어마씨?(그럼 ‘각단’은 줄이고 띠는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어요?)

108027 #2 길어. 밧에 강 비어 완주게. 새를. 지냥으로 커.(길어. 밧에 가서 베어 오지. 띠를. 자기대로 커.)

108028 @ 아, 그냥 지냥으로 커마씨? 아, 기구나예. 그러면 각단이 집줄¹³⁶, 집줄 만드는 거.(아, 그냥 자기대로 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각단’이 ‘집줄’, ‘집줄’ 만드는 거.)

108028 #2 으응. 만드는 거.(으응. 만드는 거.)

108029 @ 그럼 집줄 만들 때 쓰는 연장은 뭐, 뭐 잇언마씨? 호롱이¹³⁷는 들어보션마씨?(그럼 ‘집줄’ 만들 때 쓰는 연장은 뭐, 뭐 있었어요? ‘호롱이’는 들어보셨어요?)

108029 #2 사람 손으로.(사람 손으로.)

108029 @ 예.(예.)

135)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각다니’라고도 한다.

136)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엮어매는 줄의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37) ‘호롱이’는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제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훼롱, 훼롱이’라고도 한다.

108029 #2 이디션 영 각단 놓고 사람 손으로 영 영 허민, 그 영 허여가. 이쪽으로 영 영.(여기서는 이렇게 ‘각단’ 놓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108029 @ 예.(예.)

108029 #2 영 영 영 영 헤가민 노 꼬는 것처럼 허여.(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노 꼬는 것처럼 해.)

108030 @ 어르신 그럼 평고대, 평고대도 알아마씨?(어르신 그럼 평고대, 평고대도 알아요?)

108030 #2 그런 건 안 들어 봤어. 몰라.(그런 건 안 들어 봤어. 몰라.)

108031 @ 그럼 집줄 매기도 몇 번 해야 돼마씨? 집줄 매기는? (그럼 ‘집줄’ 매기도 몇 번 해야 돼요? ‘집줄’ 매기는?)

108031 #2 이 년에 한 번.(이 년에 한 번.)

108031 @ 그러니까 그거는 지붕이기이고예.(그러니까 그거는 지붕이기이고요.)

108031 #2 아니 집줄도 이 년에 한 번.(아지 집줄도 이 년에 한 번.)

108031 @ 아 집줄 매기도 이 년에 한 번. 그럼 집줄은 뭐짱?(아 ‘집줄’ 매기도 이 년에 한 번. 그럼 ‘집줄’은 뭐입니까?)

108031 #2 지붕에 영 매여사 새 더껍.(지붕에 이렇게 매어야 띠 덮어서.)

108031 @ 그게 지붕이기 아니마씨?(그게 지붕이기 아니에요?)

108031 #2 응.(응.)

108031 @ 그럼 집줄 매는 건 또 다른 거 아니짱?(그럼 ‘집줄’ 매는 건 또 다른 거 아닙니까?)

108031 #2 아니, 그게 그거.(아니, 그게 그거.)

108032 @ 아 그게 그거. 그럼 이렇게 새나 그런 거 다 더끈 거 쓰다가 남잖아 예. 남을 거 아니마씨? 그 다 한 다음에?(아 그게 그거. 그럼 이렇게 떠나 그런 거 다 덮은 거 쓰다가 남잖아요.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다 한 다음에?)

108032 #2 어.(어.)

108032 @ 그럼 남는 것들은 어떻 헤마씨? 그냥 버려마씨? 아니면?(그럼 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요? 아니면?)

108032 #2 느람지로 해야주게. 느람지.(이영으로 해야지. 이영.)

108032 @ 느람지가 뭐짱?(이영은 뭐입니까?)

108032 #2 이. 이제는 가빠 낫주만은.(이. 이제는 가빠 낫지만.)

108032 @ 예.(예.)

108032 #2 곡식을 그 새 헤다근영 영 짜그녕이.(곡식을 그 띠 헤다가 이렇게 짜서.)

108032 @ 예.(예.)

108032 #2 곡식을 더꺼야 웨여. 비 안 들게.(곡식을 덮어야 돼. 비 안 들어가게.)

108032 @ 아, 비 안 들게.(아, 비 안 들어가게.)

108032 #2 어. 이제는 가빠 잇어도 그때는 새로만 헛지. 느람지 손으로 짜근엥 더꺼줘야.(어. 이제는 가빠 잇어도 그 때는 띠로만 헛지. 이엥 손으로 짜서 덮어줘야.)

108032 @ 음. 그걸 느람지라고 헤마씨? 어르신?(음. 그걸 이엥라고 해요? 어르신?)

108032 #2 어.(어.)

108032 @ 가빠는 알아지크라마씨 이렇게 뒤는 거예?(가빠는 알아지겠어요 이렇게 덮는 거요?)

108032 #2 이제는 가빠 봐오난 그땐 그런 거 었언.(이제는 가빠 나오니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108032 @ 아, 그때는 가빠 었어부난?(아, 그때는 가빠 없어버리니까?)

108032 #2 느람지로.(이엥로.)

108032 @ 아, 느람지로.(아, 이엥로.)

연장

108033 @ 어르신, 그럼 집 지어봤으니깐 집 지을 때 쓰는 연장들 잇잖아예. 그건 뭐, 뭐 잇었을까마씨?(어르신, 그럼 집 지어봤으니까는 집 지을 때 쓰는 연장들 잇잖아요. 그건 뭐, 뭐 잇었을까요?)

108033 #2 예, 옛날엔 그냥 영 돌로 헤영 그냥. 흑 허여근엥 보릿낭 막 영 그냥 끼와. 끼와근엥 착착 발랏주게 담 휘어지지, 휘어지지 안 하게.(예,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돌로 해서 그냥. 흑 해서 보릿질 막 이렇게 그냥 끼워. 끼워서 착착 발랏지 담 휘어지지, 휘어지지 안 하게.)

108033 @ 예.(예.)

108033 #2 경 허영게. 영 노프게 헤근엥 낭 흥폼 낭 집 짓엇주게.(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게 해서 나무 조금 놔서 집 지엇지.)

108034 @ 음. 그럼 톱도 쓰션마씨?(음. 그럼 톱도 쓰셨어요?)

108034 #2 게. 톱으로게, 낭도 싸고.(그럼. 톱으로, 나무도 켜고.)

108034 @ 톱은 종류가 었엇인가마씨? 뽕족한 거 하나?(톱은 종류가 없었나요? 뽕족한 거 하나?)

108034 #2 여러 가지지, 큰 것도 잇고 작은 것도 잇고.(여러 가지이지, 큰 것도 잇고 작은 것도 잇고.)

108034 @ 보통 뭐 할 때 큰 거 쓰고 뭐 할 때 작은 거 써마씨?(보통 뭐 할 때 큰 거 쓰고 뭐 할 때 작은 써요?)

108034 #2 큰 낭 헐 땐 큰 거 쓰고, 작은 낭 할 땐 작은 거 쓰고.(큰 나무 할 때는 큰 거 쓰고, 작은 나무 할 때는 작은 거 쓰고.)

108035 @ 그럼 못도 이렇게 하다 못 뽕잖아예.(그럼 못도 이렇게 하다 못 뽕잖

아요.)

108035 #2 응.(응.)

108035 @ 망치로 못 뽑았다가. 못 뽑는 건 필로 뽑아마씨? 못 뒤에 부분은 뭐라고 해마씨?(망치로 못 뽑았다가. 못 뽑는 거는 무엇으로 뽑아요? 못 뒤에 부분은 뭐라고 해요?)

108035 #2 마, 두드리는 거 그거 망친가.(마, 두드리는 거 그거 망치인가.)

108035 @ 예, 그게 망친데, 망치 뒤에 이렇게 되어 잇는 거 잇잖아예.(예, 그게 망치인데, 망치 뒤에 이렇게 되어 잇는 거 잇잖아요.)

108035 #2 응.(응.)

108035 @ 이렇게 갈라진 거.(이렇게 갈라진 거.)

108035 #2 그게 못 뽑는 것ㄴ라.(그게 못 뽑는 것더러.)

108035 @ 그거 혹시 장도리라 허지 않아마씨?(그거 혹시 장도리라 하지 않아요?)

108035 #2 몰라. 그건.(몰라. 그건.)

108035 @ 아, 그건 모르크라마씨?(아, 그건 모르겠어요?)

108036 @ 그럼 대패도 쓰션마씨? 그 집 지을 때.(그럼 대패도 쓰셨어요? 그 집 지을 때.)

108036 #2 어. 거기 강 영 까끄는 거.(어. 거기 가서 이렇게 깎는 거.)

108036 @ 뭘 까까마씨? 나무?(뭘 깎아요?)

108036 #2 나무 까까야지. 대피로 영 영 까까야. 민짜하게.(나무 깎아야지. 대패로 이렇게 이렇게 깎아야. 밋밋하게.)

108038 @ 떡통이랑 떡줄도 쓰션마씨? 어르신?(떡통이랑 떡줄도 쓰셨어요? 어르신?)

108038 #2 떡통?(떡통?)

108038 @ 예.(예.)

108038 #2 아, 그건 영 저 이런 줄 맞추젠 허믄 떡통 췌주게.(아, 그건 이렇게 저 이런 줄 맞추려고 하면 떡통 췌지.)

108038 @ 아, 무사 어떤 무슨 줄마씨?(아, 왜 어떤 무슨 줄이요?)

108038 #2 이 집을게 구짜허게 허젠 허민게.(이 집을 곧게 하려고 하면.)

108038 @ 예.(예.)

108038 #2 그 영 떡통으로 영 짹 해서게. 이젠 잣대로 허지.(그 이렇게 떡통으로 이렇게 짹 해서. 이제는 잣대로 하지.)

108038 @ 예.(예.)

108038 #2 그 땀 그걸로 헛지.(그 때는 그걸로 헛지.)

108039 @ 아, 떡통으로마씨? 그럼 떡, 떡통에다가 떡줄을 이렇게 연결해서.(아, 떡통으로요? 그럼 떡, 떡통에다가 떡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108039 #2 응.(응.)

108039 @ 아, 경 행 쓰는 거구나예. 그럼 아까 얘기한 건데 흑손이나 흑받이도 있어야 되잖아예. 흑 영 발르젠 허믄?(아, 그렇게 해서 쓰는 거군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건데 흑손이나 흑받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흑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

108039 #2 손으로 발랏주게.(손으로 발랏지.)

108039 @ 아 손으로 발란마씨?(아 손으로 발랏어요?)

108039 #2 손으로 영 헤다근엥 그러고 여기에다가는 손 희어지지 못하게 착착 이제 같으면 석회 허듯, 석회 허듯.(손으로 이렇게 헤다가 그러고 여기에다가는 손 희어지지 못하게 착착 이제 같으면 석회 하듯, 석회 하듯.)

108039 @ 아, 석회로.(아, 석회로.)

108039 #2 석회 허듯.(석회 하듯.)

9. 신앙

109001 @ 어. 어르신, 가신은 알아마씨? 가신.(어. 어르신, 가신은 알아요? 가신.)

109001 #2 가신이 뭐라?(가신이 뭐라?)

109001 @ 집에 잇는 신. 집신. 가신에 대해서. 집집마다 신들이 잇다고 하잖아예.(집에 잇는 신. 집신. 가신에 대해서. 집집마다 신들이 잇다고 하잖아요.)

109001 #2 아, 신. 구신. 건 잘 모르켜.(아, 신. 귀신. 그거는 잘 모르겠다.)

109002 @ 가신은 모르겠다. 성주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잇어마씨? 성주?(가신은 모르겠다. 성주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잇어요? 성주?)

109002 #2 성주는 집 짓으면.(성주는 집 지으면.)

109002 @ 예.(예.)

109002 #2 성주 험주게. 집 짓으면.(성주 하고 있지. 집 지으면.)

109002 @ 집 짓으면 성주 한다고마씨? 그게 뭐팡?(집 지으면 성주 한다고요? 그게 뭐입니까?)

109002 #2 옛날사람들은 잘 알주만은 집 짓으면 성주도 다 허여. 우리도 헛어.(옛날사람들은 잘 알지만 집 지으면 성주도 다 해. 우리도 헛어.)

109002 @ 아.(아.)

109002 #2 그런디. 그. 이. 낭. 생낭으로 해당 집 짓고 허민.(그런데. 그. 이. 나무. 생나무로 해당 집 짓고 하면.)

109002 @ 예.(예.)

109002 #2 나쁜 거 붙든댄.(나쁜 거 붙는다고.)

109002 @ 예.(예.)

109002 #2 다 그거를 없애고 깨끗하게 허젠 헛주게. 깨끗하게 허라고.(다 그거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 깨끗하게 하라고.)

109003 @ 그림 문전¹³⁸은?(그림 문전은?)

109003 #2 문전은 옛날에.(문전은 옛날에.)

109003 @ 예.(예.)

109003 #2 하. 옛날에 저. 그 남자가 막 순허난 남선¹³⁹이라고.(하. 옛날에 저. 그 남자가 막 순하니까 ‘남선비’라고.)

109003 @ 예.(예.)

109003 #2 남선이라고 허는 사람이 각시를 얻었어.(‘남선비’라고 하는 사람이 각시를 얻었어.)

109003 @ 예.(예.)

109003 #2 각시를 얻으니까 아니 첫 각시에 아들을 일곱 형제 난 사람이 각시를 얻으레 남선비가 각시를 얻언, 허난 막 요망지는 사람을 얻어근엥게 이제 큰 각시잇인디.(각시를 얻으니까 아니 첫 각시에 아들을 일곱 형제 난 사람이 각시를 얻으러 ‘남선비’가 각시를 얻었어, 하니 막 똑똑한 사람을 얻어서 이제 큰 각시 있는 데.)

109003 @ 예.(예.)

109003 #2 등뎡이에 물 놔주켠 허영 밀려 불언. 죽여 불언.(등뎡이에 물 놔주겠다고 해서 밀어 버렸어. 죽여 버렸어.)

109003 @ 예.(예.)

109003 #2 그거 밀려 불고. 이제 남선비는 위난 순혜노난.(그거 밀어 버리고. 이제 ‘남선비’는 위낙 순하니까.)

109003 @ 예.(예.)

109003 #2 죽은 각시 말만 들으멍. 이제. 저 이녁이 막 아프덴. 아프덴 이제 허난 어디 강 점 허난 이제 사람 간을 먹어사 되켠.(작은 마누라 말만 들으면서. 이제. 저 이녁이 막 아프다고. 아파다고 이제 하니까 어디 가서 점 하니까 이제 사람 간을 먹어야 되겠다고.)

109003 @ 예.(예.)

109003 #2 먹어사 좋켠 험젠.(먹어야 좋게 된다고.)

109003 @ 예.(예.)

109003 #2 경 혜근엥. 아들 간 뭐 헤 왓인디 남선비가.(그렇게 해서. 아들 간 뭐 헤 왓는데 ‘남선비’가.)

109003 @ 예.(예.)

109003 #2 그거 허여당 이제, 죽은 아들이 그걸 발견허연. 게난 이제 죽은 어멍을 죽여 버렸어.(그거 해다 이제, 작은 아들이 그걸 발견했어. 그러니 이제 작은 어머니를 죽여 버렸어.)

109003 @ 예.(예.)

138) ‘문전’은 마루방의 문(門)을 관장하는 신(神)을 의미한다.

139) ‘남선비’는 정살신을 의미한다. 문전신의 아버지로 죽어서 정살신이 된다.

109003 #2 경흐난 남선비는 문전에 문전이 돼곡, 또 큰 어명은.(그러니까 ‘남선비’는 문전에 문전이 되고, 또 큰 어머니는.)

109003 @ 예.(예.)

109003 #2 조왕이 돼고.(조왕이 되고.)

109003 @ 아, 큰 어명이 조왕이 돼고?(아, 큰 어머니가 조왕이 되고?)

109003 #2 어. 작은 어명은 저 드들팡에 변소에 그딤 귀신이 뻬어. 경 헛어.(어. 작은 어머니는 저 부춘돌에 변소에 거기 귀신이 뻬어. 그렇게 뻬어.)

109003 @ 아.(아.)

109003 #2 게난 저 제사나 뭐 헐 때 문전에 기도허고 허잖아?(그러니 저 제사나 뭐 할 때 문전에 기도하가 하잖아?)

109003 @ 예.(예.)

109003 #2 그 조왕에도 불 싸고 보민 뉘, 또 무슨 동티나면 이제 그 칙간에 가서.(그 조왕에도 불 켜고 보면 뉘, 또 무슨 동티나면 이제 그 변소에 가서.)

109003 @ 예.(예.)

109003 #2 동티허는 걸로. 심방에.(동티하는 걸로. 무당에.)

109005 @ 그럼 그게 문전이랑 조왕이다예. 조왕도 물어보젠 헛인디 같이 말해 주셨다예. 그럼 칠성도 혹시 알아마씨?(그럼 그게 문전이랑 조왕이군요. 조왕도 물어버려고 했는데 같이 말해 주셨어요. 그럼 칠성도 혹시 알아요?)

109005 #2 칠성은 그 하르방네 칠형제가 낫주게. 경흐난 칠형제 낳아 놓으니 그 걸 칠성이라 헤여. 별들이 칠 개 있어. 칠 개. 그 일곱 개. 칠성이 그거.(칠성은 그 할아버지네 칠형제가 낫지. 그러니까 칠형제 낳아 놓으니 그거를 칠성이라고 해. 별들이 칠 개 있어. 칠 개. 그 일곱 개. 칠성이 그거.)

109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세시풍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월 달 정월 명절 잇잖아예?(세시풍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월 달 정월 명절 잇잖아요?)

110001 #2 어.(어.)

110001 @ 정월 명절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거 다 한번 얘기해주시면 돼마씨.(정월 명절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거 다 한번 얘기해주시면 돼요.)명절날 뭐하고 이런 거.

110001 #2 명절날은게 세배허고게.(명절날은 세배하고.)

110001 @ 예.(예.)

110001 #2 명절허고, 그 친척네 집이 명절 먹으러 다니고, 종손네 집은 제일 말제에 허여.(명절하고, 그 친척네 집에 명절 먹으러 다니고, 종손네 집은 제일 나중에 해.)

110001 @ 제일 말제? 음.(제일 나중에? 음.)

110001 #2 마지막에.(마지막에.)

110001 @ 정월 명절이 언제주마씨?(정월 명절이 언제이지요?)

110001 #2 음력계, 일월 일일 날 아니? 옛날에는 양력으로 해났는데.(음력, 일월 일일 날 아니? 옛날에는 양력으로 했었는데.)

110001 @ 예.(예.)

110001 #2 지금은 음력으로 허주게.(지금은 음력으로 하지.)

110002 @ 그러면 정월 대보름 잇잖아예?(그러면 정월 대보름 잇잖아요?)

110002 #2 응.(응.)

110002 @ 정월대보름은 언제고 그때는 뭐허주마씨? 정월대보름에?(정월대보름은 언제이고 그때는 뭐하지요? 정월대보름에?)

110002 #2 그 제주도선 잘 안 해도 육지서는, 제주도선 저 육지서는 막 떡 행 먹고 막 보름. 정월 보름도 막 크게 허는데 제주도는 저. 그. 일 년을 대해서 이 방법¹⁴⁰허영. 방법.(그 제주도에서는 잘 안 해도 육지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저 육지에서는 막 떡 해서 먹고 마 보름. 정월 보름도 막 크게 하는데 제주도는 저. 그. 일 년을 대해서 이 방법해서. 방법.)

110002 @ 방법? 그게 뭐짱?(방법? 그게 뭐입니까?)

110002 #2 일 년에, 일 년 살면서.(일 년에. 일 년 살면서.)

110002 @ 예.(예.)

110002 #2 잘 뭐라고 방법허여.(잘 뭐라고 방법해.)

110002 @ 아.(아.)

110002 #2 나쁘면 저 질에 가서 대보름날 밤에 막 밤 짙은 때에 가근에 막 무시거 허여근영 저 영 태우려고. 첫 번에 넘어가는 사람 올르라고.(나쁘면 저 기에 가서 대보름날 밤에 막 밤 짙은 데에 가서 막 무엇 해서 저 이렇게 태우려고. 첫 번에 넘어가는 사람 오르라고.)

110002 @ 올르라고?(오르라고?)

110002 #2 그거를, 저. 나쁜 거를 영 그 사람한테 가라고.(그거를, 저. 나쁜 거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가라고.)

110003 @ 아. 그러니까 그게 방사랑 액막이 하는 거지예?(아. 그러니까 그게 방사와 액막이 하는 거지요?)

110003 #2 으응. 액막이 맞아. 맞아. 그게 액막이주게.(으응. 액막이 맞아. 맞아. 그게 액막이지.)

140) '방법'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방세, 방쉬'라고도 한다.

110003 @ 아, 그거구나.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그런 거 해마씨?(아, 그거구나.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그런 거 해요?)

110003 #2 응응.(응응.)

110003 @ 그럼 잠깐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마씨? 액막이 같은 거는? 어떤 게 잇인지 기억나시는 거 있어마씨?(그럼 잠깐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요? 액막이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110003 #2 액막이게 그거는 집에서게, 막 굿해근앵.(액막이 그거는 집에서 막 굿해서.)

110003 @ 예.(예.)

110003 #2 굿덴 허민, 그 사람이 굿덴 허민 대보름날 막 집에서 허여근앵. 이딴 사람. 액을 가져가라고, 나쁜 걸 가져가라고 막 액막이 허주게, 경 허영. 질에다 놔 불려, 질내에. 이. 저, 사거리에.(굿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굿다고 하면 대보름날 막 집에서 해서. 이 다른 사람. 액을 가져가라고, 나쁜 거를 가져가라고 막 액막이 하지, 그렇게 해서. 질에가 놔 버려, 길 안에. 이. 저, 사거리에.)

110003 @ 아.(아.)

110003 #2 사거리에 놔 불어.(사거리에 놔 버려.)

110003 @ 질에 그냥 놔 불어마씨? 그럼 누가 막 밟으면 어떻 해마씨?(길에 그냥 놔 버려요? 그럼 누가 막 밟으면 어떻게 해요?)

110003 #2 그럼 그 사람이 나쁘지게. 경 허렌 경 허렌.(그럼 그 사람이 나쁘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110004 @ 그럼 어르신 포제는 들어보셨마씨? 포제? 마을제 뭐 그런 거. 마을에서 하는 제는 잇언마씨?(그럼 어르신 포제는 들어보셨어요? 포제? 마을제 뭐 그런 거. 마을에서 하는 제는 있었어요?)

110004 #2 어어. 그건 옛날에 해났주게 저 오름에 강.(어어. 그건 옛날에 했었어지 저 오름에 가서.)

110004 @ 예.(예.)

110004 #2 어어. 그건 옛날에 헛엇지. 오름에 가근앵 사람들 혼 며칠 저, 내려오지도 안 허고 거기서 살다가.(어어. 그건 옛날에 했엇지. 저 오름에 가서. 오름에 가서 사람들 한 며칠 저, 내려오지도 았고 거기서 살다가.)

110004 @ 예.(예.)

110004 #2 제를 허여. 비 잘 오고 올히 농사 잘 돼라고. 저, 이 오름에 가서.(제를 해. 비 잘 오고 올해 농사 잘 되라고. 저, 이 오름에 가서.)

110004 @ 어디 오름?(어디 오름?)

110004 #2 이딴 오름 잇잖아.(여기 오름 잇잖아.)

110004 @ 여긴 무슨 오름마씨? 여기는?(여기는 무슨 오름이에요? 여기는?)

110004 #2 녹남봉.(‘녹남봉’.)

110004 @ 아, 녹남, 녹남오름?(아, 녹남, ‘녹남오름’?)

110004 #2 녹내가 많이 그딴 있어. 계란 이름이 녹남오름.(녹나무가 많이 거기에 있어. 그러니 이름이 '녹남오름'.)

110005 @ 그럼 안택은 들어보셨마씨?(그럼 안택은 들어보셨어요?)

110005 #2 응?(응?)

110005 @ 안택? 안택은 안 들어보셨마씨?(안택? 안택은 안 들어보셨어요?)

110005 #2 안택이엔 현 건 저, 이 뭐주게. 집 짓을 때에 이, 저. 이런 디, 이런 거 허는 거. 옛날엔 영 대를 엮어근영 안택했지게. 영 불량 흑으로 불량.(안택이라고 한 거는 저, 이 뭐지. 집 지을 때에 이, 저. 이런 데, 이런 거 하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대를 엮어서 안택했지. 이렇게 발라서 흙으로 발라서.)

110005 @ 아, 계란 그게 뭐하는 거마씨? 그게?(아, 그러니까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게?)

110005 #2 안택허는 거주게, 그 저. 저. 이젠 세멘으로 헤근영.(안택하는 거지, 그 저. 저. 이제는 시멘트로 해서.)

110005 @ 예.(예.)

110005 #2 영 허영, 쓸엄주만은 옛날엔 흑 케근영 손으로 영 매끈하게 험주게, 험주게.(이렇게 해서, 쓸고 있지만 옛날에는 흙 캐어서 손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했었지, 했지.)

110005 @ 그거 말앙, 그러니까 막, 음. 그. 집에서 한 해 농사 잘 되라고 뭐, 제 지내거나 그런 거 엇언마씨? 그런 것도 잇었지예?(그거 말고, 그러니까 막, 음. 그. 집에서 한 해 농사 잘 되라고 뭐, 제 지내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잇었지요?)

110005 #2 코시 그건.(고사 그건.)

110005 @ 아, 그냥 코시?(아, 그냥 고사?)

110005 #2 응. 심방허는 거, 코시.(응. 무당하는 거, 고사.)

110005 @ 그럼 코시에 대해서 좀 곱아 줘서.(그럼 고사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110005 #2 코신게 일 년에 혼 번 정월달 나민.(고사는 일 년에 한 번 정월달 되면.)

110005 @ 예.(예.)

110005 #2 심방 빌어다근영 농사 잘 돼고 몸 건강해달라고 빌었주게.(무당 불러다가 농사 잘 되고 몸 건강해달라고 빌었지.)

110005 @ 음.(음.)

110005 #2 심방 빌어다근영.(무당 불러다가.)

110005 @ 뭐, 뭐 준비해마씨? 그러면? 그때는?(뭐, 뭐 준비해요? 그러면? 그때는?)

110005 #2 그땐 떡하곡게, 과일허곡게, 뭐 백지 같은 거 헤근영 썰고.(그때는 떡하고, 과일하고, 뭐 백지 같은 거 해서 썰고.)

110005 @ 이 마을에도 심방이 잇언마씨?(이 마을에도 무당이 있었어요?)
 110005 #2 이젠 엇어. 옛날엔 잇어낫인다.(이제는 없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110005 @ 아, 옛날에 잇어난. 요즘에 그러면 코시 잘 안 하지예?(아,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 그러면 고사 잘 안 하지요?)
 110005 #2 안 해. 안 해. 옛날엔 정월달만 나민 막 소리가 나, 굿허는 소리.(안 해. 안 해. 옛날에는 정월달만 되면 막 소리가 나, 굿하는 소리.)
 110005 @ 아, 정월달만 뒤면?(아, 정월달만 되면?)
 110005 #2 응.(응.)
 110006 @ 그럼 어르신, 보리밭 밟기는 들어보션마씨?(그럼 어르신, 보리밭 밟기는 들어보셨어요?)
 110006 #2 뭐?(뭐?)
 110006 @ 보리밭 밟기. 보리밭 밟기.(보리밭 밟기. 보리밭 밟기.)
 110006 #2 보리 갈면 막 블랏주게, 잘 뒤렌.(보리 갈면 막 밟았지, 잘 되라고.)
 110006 @ 아, 잘 뒤렌? 그건 언제 헨마씨, 그건?(아, 잘 되라고? 그건 언제 했어요, 그건?)
 110006 #2 그건 보리 이제 십일월 달에 갈아근엿, 이. 저. 이른 봄에, 이 겨울에.(그건 보리 이제 십일월 달에 갈아서, 이. 저. 이른 봄에, 이 겨울에.)
 110006 @ 예.(예.)
 110006 #2 눈 내리민 땅이 막 북삭흐주¹⁴¹게.(눈 내리면 땅이 막 ‘북삭흐지’.)
 110006 @ 예.(예.)
 110006 #2 경 허민 막 뽏아주민 튼튼허영. 잘 뒤렌.(그렇게 하면 막 밟아주면 튼튼해. 잘 되라고.)
 110006 @ 일 년에 한 번마씨?(일 년에 한 번이요?)
 110006 #2 응.(응.)
 110007 @ 그믐 걸궁은 들어보션마씨?(그러면 걸립은 들어보셨어요?)
 110007 #2 걸궁 헛주게.(걸립 했지.)
 110007 @ 아, 걸궁은 뭐마씨? 난 걸궁은 처음 들어뵈신디예.(아, 걸립은 뭐예요? 난 걸립은 처음 들어봤는데.)
 110007 #2 걸궁은게 이제 ㄱ트면 각설이 허는 거주게.(걸립은 이제 같으면 각설이 하는 거지.)
 110007 @ 아, 각설이 허는 거?(아, 각설이 하는 거?)
 110007 #2 각설이추룩. 그 각설이나 마찬가지로, 그 걸궁은.(각설이처럼. 그 각설이나 마찬가지로, 그 걸립은.)
 110007 @ 그 뭐 그거 굿허는 거 아니짱? 코시.(그 뭐 그거 굿하는 거 아닙니까? 고사.)
 110007 #2 아니, 아니야. 걸궁은 노리개주게.(아니, 아니야. 걸립은 놀음놀이이

141) ‘북삭흐다’는 무거운 물건이 움푹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는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지.)

110007 @ 아, 노리개?(아, 놀음놀이?)

110007 #2 응. 이 방, 이 각설이하고 꼭 같은 거. 노리개.(응. 이 방, 이 각설이하고 꼭 같은 거. 놀음놀이.)

110007 @ 그럼 누가 허는 거마씨? 걸궁은?(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걸립은?)

110007 #2 그건. 영 호끔. 우스개 잘 허고게 허는 사람들 허는 거주게.(그건. 이렇게 조금. 우스개 잘 하고 하는 사람들 하는 거지.)

110007 @ 막 귀신 몰아내고 그런 게 걸궁은 아니마씨?(막 귀신 몰아내고 그런 게 걸립은 아니예요?)

110007 #2 그건 걸궁 아니여, 귀신 몰아내는 건. 저, 구양풀이. 아니. 구양풀이. 구양풀이주게 구양풀이. 막 귀신 몰아내는 건 구양풀이.(그건 걸립 아니야, 귀신 몰아내는 건. 저, 귀양풀이. 아니. 귀양풀이. 귀양풀이지 귀양풀이. 막 귀신 몰아내는 건 귀양풀이.)

110008 @ 그럼 입춘 잇잖아예. 봄 올 때 입춘에는 뭐 하선마씨? 입춘 때 보통 제주도에선, 이 마을에선?(그럼 입춘 잇잖아요. 봄 올 때 입춘에는 뭐 하셨어요? 입춘 때 보통 제주도에서는, 이 마을에서는?)

110008 #2 입춘 뎨 새해라 부난 보릿밭 매영, 보릿밭 매영. 보릿밭이 마르민 비가 잘 오고, 보릿밭이 화나민 비가 잘 안 온덴 해서. 그리고 새철¹⁴²⁾ 들인 날은 이. 어떤 집에 가지 말아야 돼주게.(입춘 때는 새해라 버리니까 보릿밭 매어서, 보릿밭 매어서. 보릿밭이 마르면 비가 잘 안 오고, 보릿밭이 화나면 비가 잘 안 온다고 해서. 그리고 ‘새철’ 들인 날은. 어떤 집에 가지 말아야 되지.)

110008 @ 무슨 들인 날마씨?(무슨 들인 날이요?)

110008 #2 새철 들인 날은 남의 집에 가지 말아야.(‘새철’ 들인 날은 남의 집에 가지 말아야.)

110008 @ 새철 들인 날?(‘새철’ 들인 날?)

110008 #2 새철 들인 날.(‘새철’ 들인 날.)

110008 @ 새철 들인 날?(‘새철’ 들인 날?)

110008 #2 입춘날. 입춘날.(입춘날. 입춘날.)

110008 @ 아, 입춘날이 새철 드는 날마씨?(아, 입춘날이 ‘새철’ 드는 날이예요?)

110008 #2 응. 새철 드는 날. 새철 드는 날이주.(응. ‘새철’ 드는 날. ‘새철’ 드는 날이지.)

110008 @ 경 행 남의 집에 가지 말라는 거마씨?(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110008 #2 응. 가면, 여자 가면 검질 많이 진텐.(응. 가면, 여자 가면 김 많이 온다고.)

110008 @ 아. 그런 것도 잇엇다예.(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142) ‘새철’은 입춘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0008 #2 계난 그런 거 잇엇주 옛날에는.(그러니 그런 거 잇엇지 옛날에는.)

110008 @ 저기 고산에서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던데, 그런 거.(저기 '고산'에서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던데, 그런 거.)

110008 #2 무사?(왜?)

110008 @ 그러면 우수 잇잖아예. 그러면 우수. 우수는 알아져마씨?(그러면 우수 잇잖아요. 그러면 우수. 우수는 알아져요?)

110008 #2 우. 우수가 무신건고?(우. 우수가 무엇인가?)

110008 @ 입춘 다음에 우수가 오는데.(입춘 다음에 우수가 오는데.)

110008 #2 그것도 아무나신디 들영 안 돼주게. 그것도 흐끔 똑똑한 사람헌티.(것도 아무나에게 들어서는 안 되지. 그것도 조금 똑똑한 사람한테.)

110008 @ 예.(예)

110008 #2 이 노인회장 헌 사람이나 이장 헌 사람, 옛날 이장이나 지금 노인회장이나 허는 사람안티 물어야 알주. 아무사람헌티 물으면 안 돼여, 몰라.(그 이 노인회장 한 사람이나 이장 한 사람, 옛날 이장이나 지금 노인회장이나 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알지. 아무사람헌테 물으면 안 돼, 몰라.)

110008 @ 그래도 입춘 지금 잘 아시잖아마씨.(그래도 입춘 지금 잘 아시잖아요.)

110008 #2 입춘은 알지 그야. 입춘은 같은 건 누구라도 알주게.(입춘을 알지 그야. 입춘은 같은 건 누구라도 알지.)

2월

110009 @ 그럼 이월 달에는 그.(그러 이월 달에는 그.)

110009 #2 영등 들어 이월에.(영등 들어. 이월에.)

110009 @ 예. 그거 좀 곱아 줍서.(예. 그거 좀 말해 주십시오.)

110009 #2 영등 드는 건.

110009 @ 예.(예.)

110009 #2 바당에.(바다에.)

110009 @ 예.(예.)

110009 #2 이제, 이제도 가파도엔 굿허여.(이제도 가파도에서는 굿해.)

110009 @ 아, 가파도에서는 굿혜마씨?(아, 가파도에서는 굿해요?)

110009 #2 응, 지금도. 그 마을에서 건너와그녕 부두에서 우리도 한번, 가파도 강 보난 이월. 초심에 막 굿햐서라 일주일. 그건 바당에 이제 그 빠지지 말고 물건, 물건 잘 잡게 해달라고 비는 거주게. 바다에, 바다에.(응, 지금도. 그 마을에서 건너와서 부두에서 우리도 한번, 가파도에 가서 보니까 이월. 초심에 막 굿하고 있더라 일주일. 그건 바다에 이제 그 빠지지 말고 물건, 물건 잘 잡게해달라고 비는 거지. 바다에, 바다에.)

110009 @ 그른 영등에는 뭐 어디 가지마라 그런 건 엇언마씨?(그러면 영등에는

뭐 어디 가지마라 그런 거 없었어요?)

110009 #2 엇어. 영등 들 때에 희한한 옷 빨래 널면.(없어. 영등 들 때에 희한한 옷 빨래 널면.)

110009 @ 예.(예.)

110009 #2 막 버랭이 일어. 지금도 그래여.(막 벌레 생겨. 지금도 그래.)

110009 @ 아, 지금도 경 해마씨?(아, 지금도 그렇게 해요?)

110009 #2 걸레 같은 거 추잡한 거 내던지 허민 버랭이 일어.(걸레 같은 거 추잡한 거 내던지 하면 벌레 생겨.)

110010 @ 그럼 경칩이나 춘분은 들어보셨마씨? 혹시? 경칩. 이월달에.(그럼 경칩이나 춘분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경칩. 이월달에.)

110010 #2 경칩날. 경칩 잘 모르켜.(경칩날? 경칩 잘 모르겠다.)

3월

110011 @ 그럼 삼월달에 뭐 잇주마씨? 삼월달에? 한식 명절은 들어보셨마씨? (그럼 삼월달에 뭐 잇지요? 삼월달에? 한식 명절은 들어보셨어요?)

110011 #2 한식 명절은 그거 저 산에.(한식 명절은 그거 저 산에)

110011 @ 예.(예.)

110011 #2 산에 명절 허는 거지께.(산에 명절 하는 거지.)

110011 @ 산에 명절 허지마씨? 그 언제 뭐허는 거마씨? 왜 하는 거마씨?(산에 명절하지요? 그 언제 뭐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110011 #2 그거는 저 그날 이제, 이제도 허여 한식. 그 사월 오일날인가?(그거는 저 그날 이제, 이제도 해 한식. 그 사월 오일날인가?)

110011 @ 사월 오일날?(사월 오일날?)

110011 #2 응. 한식은 그 귀신.(응. 한식은 그 귀신.)

110011 @ 예.(예.)

110011 #2 그날은 산 손 받았당 강 헤여. 귀신 손 받았다는. 또 친구간도 잇잖아 친구간.(그날은 산 손 받았다가 가서 해. 귀신 손 받았다는. 또 친구간도 잇잖아 친구간.)

110011 @ 예.(예.)

110011 #2 친구간은 그 귀신이.(친구간은 그 귀신이.)

110011 @ 친구간은 십이월인디?(친구간은 십이월인데?)

110011 #2 으.(어.)

110011 @ 친구간은 좀 이따 물어볼게마씨. 이따 차례차례.(친구간은 좀 이따 물어볼게요. 이따 차례차례.)

4월

110013 @ 그러면 그. 사월에 초파일 잇잖아예.(그러면 그. 사월에 초파일 잇잖

아요.)

110013 #2 응.(응.)

110013 @ 사월 초과일날. 사, 사월 초과일날은 사람들이 뭐하고 뭐허주마씨?(사월 초과일날. 사, 사월 초과일날은 사람들이 뭐하고 뭐하지요?)

110013 #2 그 법당에 가는 날이지.(그 법당에 가는 날이지.)

110013 @ 예.(예.)

110013 #2 부처님 내려오는 날.(부처님 내려오는 날.)

110013 @ 뭐 특별한 거 여기서 허는 거는 엇언마씨?(뭐 특별한 거 여기서 하는 거는 없었어요?)

110013 #2 엇어. 저 법. 절에 가근엥 그날은. 저 부처님 내려오는 날이난.(없어. 저 법. 절에 가서 그날은. 저 부처님 내려오는 날이니까.)

110013 @ 그 사월달에 입하가 있는데, 여름이 이제 온다고 그럴 때는 또 특별히 허는 거는 엇언마씨?(그 사월달에 입하가 있는데, 여름이 이제 온다고 그럴 때는 또 특별히 하는 거는 없었어요?)

110013 #2 그건 모르컨게.(그건 모르겠다.)

5월

110015 @ 그럼 오월에 단오명절 잇잖아예?(그럼 오월에 단오명절 잇잖아요?)

110015 #2 응.(응.)

110015 @ 단오 명절날은 뭐허주마씨?(단오 명절날은 뭐하지요?)

110015 #2 제주도는 단오명절 안 해. 단오날에 저. 숯 굶은 거 약 해놔두민 약재 돼여. 단오, 단오날에.(제주도는 단오명절 안 해. 단오날에 저. 숯 굶은 거 약 해놔두면 약재 돼. 단오, 단오날에.)

110015 @ 단오날에 약재.(단오날에 약재.)

6월

110017 @ 그럼 유월달에 닭 잡아먹는 날 잇잖아예. 유월 이십날?(그럼 유월달에 닭 잡아먹는 날 잇잖아요. 유월 이십날?)

110017 #2 응, 유월 스무날.(응, 유월 스무날.)

110017 @ 그게 무슨. 뭐마씨.(그게 무슨. 뭐예요?)

110017 #2 옛날에.(옛날에.)

110017 @ 예.(예.)

110017 #2 조농사가 대목이주게 보리허고. 조나. 보리는 갈면 돼도 조나. 조농사는 일기 봐야 돼여, 조 갈아서 헌 일주일 보름만 비 안 오민 조가 잘 돼여. 비 와 불면 잘 안 돼고 계난 농사 다 해 불민 그때는 시간이 나니깐 옛날엔 득 잡아먹언. 그거.(조농사가 대목이지 보리하고. 조나. 보리는 갈면 돼도 조나. 조농사는 일기 봐야 돼, 조 갈아서 한 일주일 보름만 비 안 오면 조가 잘 돼. 비 와버리면 잘 안 되

고 그러니 농사 다 해 버리면 그때는 시간이 나니까는 옛날에는 닭 잡아먹었어. 그거.)

110017 @ 그거 유월 스무날?(그거 유월 스무날?)

110017 #2 응. 유월 스무날.(응. 유월 스무날.)

110017 @ 그럼 이거 말앙 또 요즘엔 삼복 잇잖아예.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닭 먹는 날.(그럼 이거 말고 또 요즘에는 삼복 잇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닭 먹는 날.)

110017 #2 으.(어.)

110017 @ 계난 그때도 옛날엔 삼복이 잇언마씨?(그러니까 그때도 옛날에는 삼복이 있었지요?)

110017 #2 그런 거 잘 안 헛주마는 이제. 그거는 저 뵈이주게. 이 일, 날씨, 일기.(그런 거 잘 안 헛지만 이제. 그거는 저 뵈이지. 이 일, 날씨, 일기.)

110017 @ 예.(예.)

110017 #2 이제 입춘 무시거 허듯이 그걸 농사에 대허영.(이제 입춘 무엇 하듯이 그걸 농사에 대하여서.)

110017 @ 예.(예.)

110017 #2 아까 초복 무시거.(아까 초복 무엇.)

110017 @ 예.(예.)

110017 #2 초복.(아까 초복 무엇, 초복.)

110017 @ 중복, 말복.(중복, 말복.)

110017 #2 응. 그런 거 말복에는 농사가 늦었어. 초복엔 처음 농사한다고.(응. 그런 거 말복에는 농사가 늦었어. 초복에는 처음 농사한다고.)

110017 @ 예.(예.)

110017 #2 중복엔 중간에 농사한다고 말복엔 농사허민 늦었어. 그런 거주게.(중복에는 중간에 농사한다고 말복에는 농사하면 늦었어. 그런 거지.)

110017 @ 막 더울 때가 막 소서 대서는 들어보션마씨?(막 더울 때가 막 소서 대서는 들어보셨어요?)

110017 #2 계.(그럼.)

110017 @ 막 더울 때는 뭐 딱히 하는 거 엇인가마씨? 마을에서? 막 더울 때 사람들 더워 이기젠. 옛날에는 어떤 게 잇어마씨? 지금은 막 에어컨 틀고 하잖아예. (막 더울 때는 뭐 딱히 하는 거 없었나요? 마을에서? 막 더울 때 사람들 더워 이기려고.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은 막 에어컨 틀고 하잖아요.)

110017 #2 응. 그럴 적에 막 더워. 백중날이 막 더워. 백중날.(응. 그럴 적에 막 더워. 백중날이 막 더워. 백중날.)

110017 @ 백중날? 예, 그럼 백중날. 예. 백중날, 백중날 백중제 하는 거마씨? 그건 다른 건가?(백중날? 예, 그럼 백중날. 예. 백중날, 백중날 백중제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건가?)

110017 #2 그. 것도 아니고 그냥 백중이엔 허여근엥 저. 바다에 모욕허래들 가주게.(그. 것도 아니고 그냥 백중이라고 해서 저. 바다에 목욕하래 가지.)

110017 @ 아. 그게 백중날?(아. 그게 백중날?)

110017 #2 응 백중날. 모욕허래 가.(응 백중날. 목욕하러 가.)

110017 @ 여기서는 어디 간마씨?(여기서는 어디 갔어요?)

110017 #2 바다에들 가.(바다에 가.)

110017 @ 그니까 바로 옆에 그냥?(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냥?)

110017 #2 응.(응.)

110017 @ 아, 제일 가까운 바다가?(아, 제일 가까운 바다가?)

110017 #2 이 신도 바다 가주게. 가서 목욕도 허고 놀고. 백중날.(이 ‘신도’ 바다 가지. 가서 목욕도 하고 놀고. 백중날.)

7월

110020 @ 그림 칠월에는 칠월 칠석 잇잖아예.(그림 칠월에는 칠월 칠석 잇잖아요.)

110020 #2 응.(응.)

110020 @ 칠석날은 뭐. 칠석에 대해서 아는 거 잇이믄 좀 곶아 줘서.(칠석날은 뭐. 칠석에 대해서 아는 거 잇으면 좀 말해 주십시오.)

110020 #2 칠석날도 불공허지, 법당에 가지. 칠석날도. 칠석은게 그 별도 칠성 잇고. 그 그거 그 옛날 아들 일곱 성제연.(칠석날도 불공허지, 법당에 가지. 칠석날도. 칠석은 그 별도 칠성 잇고. 그 그거 그 옛날 아들 일곱 성제였어.)

110020 @ 예.(예.)

110020 #2 지금도 허주게, 경허난 그날도 법당에 가는 날이라.(지금도 하지, 그러니까 그날도 법당에 가는 날이야.)

110020 @ 법당에 가는 날?(법당에 가는 날?)

110020 #2 응.(응.)

110021 @ 그림 칠월달에 백중제 잇지 았아마씨? 백중제?(그림 칠월달에 백중제 잇지 았아요? 백중제?)

110021 #2 백중제, 그, 저 농사 잘 뒤편 그때, 그때 헛일 거라.(백중제, 그, 저 농사 잘 되라고 그때, 그때 했을 거야.)

110021 @ 뭐 허는 거마씨?(뭐 하는 거예요?)

110021 #2 이, 저 오름에 강, 제 허여 제. 제게 그 올허 농사 잘 뒤편서 해근엥 허는 거주게.(이, 저 오름에 가서, 제 해 제. 제 그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해서 하는 거지.)

110021 @ 그걸 칠월달에 해마씨?(그걸 칠월달에 해요?)

110021 #2 응.(응.)

110021 @ 무사 그 뿌리는 건 그 예, 더 전에 뿌리지 았아마씨? 무사 칠월에 할

까마씨?(왜 그 뿌리는 건 그 예, 더 전에 뿌리지 않아요? 왜 칠월에 할까요?)

110021 #2 유월. 유월달엔 장마 잇잖아.(유월. 유월달에는 장마 잇잖아.)

110021 @ 예.(예.)

110021 #2 장마 넘어 조 허는 거라.(장마 넘어서 조 하는 거야.)

110021 @ 아, 장마하면 조 하니까.(아, 장마하면 조 하니까.)

110021 #2 조 허영 비 안 와사 막 잘 돼여.(조 해서 비 안 와야 막 잘 돼.)

110022 @ 그럼 칠월에 모래짐도 헤마씨? 모래짐? 모래짐 들어보셨마씨?(그럼 칠월에 모래짐도 해요? 모래짐? 모래짐 들어보셨어요?)

110022 #2 예. 이디 안 헤여.(예. 여기는 안 해.)

110022 @ 그럼 모래짐. 아, 들어보기는 험마씨?(그럼 모래짐. 아, 들어보기는 했어요?)

110022 #2 모래짐게 그 이디 몸들 관절염으로 아픈 사람.(모래짐 그 여기 몸들 관절염으로 아픈 사람.)

110022 @ 예.(예.)

110022 #2 그. 모래로 헤근영 영 따뜻하게 허는 거게.(그. 모래로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

110022 @ 근데 이디는 하는 데 엇어마씨?(근데 여기는 하는 데 없었어요?)

110022 #2 이디는 안 헤여. 저 한림 강 헤사주.(여기는 안 해. 저 한림 가서 해야지.)

110023 @ 그럼 물맞이는 들어보셨마씨? 물맞이?(그럼 물맞이는 들어보셨어요? 물맞이?)

110023 #2 그 백중날 물맞이 허주게.(그 백중날 물맞이 하지.)

110023 @ 물맞이는 뭐짱?(물맞이는 뭐입니까?)

110023 #2 물 영 맞아. 착착하게 맞고 모욕허는 거주게.(물 이렇게 맞아. 착착하게 맞고 목욕하는 거지.)

110023 @ 아, 그냥 백중날 더워 부난?(아, 그냥 백중날 더워 버리니까?)

110023 #2 응.(응.)

110024 @ 그럼 입추나 입추에는 따로 하는 거 엇인가마씨?(그럼 입추나 입추에는 따로 하는 거 없었나요?)

110024 #2 입추?(입추?)

110024 @ 예, 입추. 가을 시작하는 날.(예, 입추. 가을 시작하는 날.)

110024 #2 허는 거 엇지.(하는 거 없지.)

8월

110025 @ 그럼 우리 그 산소에 강 팔월달에 벌초 하잖아예.(그럼 우리 그 산소에 가서 팔월달에 벌초 하잖아요.)

110025 #2 응.(응.)

110025 @ 벌초에 대해서 좀 글아 줘서. 벌초.(벌초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벌초.)

110025 #2 팔월 초하룻날 벌초허주게. 옛날엔. 이젠 공일날 해도. 옛날엔 팔월 초하룻날에 정식으로 허여.(팔월 초하룻날 벌초하지. 옛날에는. 이제는 공일날 해도. 옛날에는 팔월 초하룻날에 정식으로 해.)

110025 @ 그러니까 요즘엔 막 기계도 하고 사람도 막 상 허잖아예.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엇엇잖아예.(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기계도 하고 사람도 막 사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엇잖아요.)

110025 #2 게. 친척이나 허영 호미로 가 다 비엿주게. 산 좋은 자리 허면 자손 잘 된덴 허영. 영 막 먼디 강 묻으면 그디 벌초를 다녀.(그럼. 친척이나 해서 낮으로 가 다 베엇지. 산 좋은 자리 하면 자손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먼데 가서 묻으면 거기 벌초를 다녀.)

110025 @ 예.(예.)

110025 #2 이젠 다 파근엿 가족 공동묘지 허여. 벌초허기가 힘드니까.(이제는 다 파서 가족 공동묘지 해. 벌초허기가 힘드니까.)

110026 @ 팔월 명절 잇잖아예. 팔월 명절날은 뭐 해주마씨?(팔월 명절 잇잖아요. 팔월 명절날은 뭐 하지요?)

110026 #2 무시거게. 파. 팔월 보름날 떡허곡 행 멩질 먹으러 다녔지게 뭐.(무엇. 파. 팔월 보름날 떡하고 해서 멩질 먹으로 다녔지 뭐.)

110026 @ 예.(예.)

110026 #2 친척네 집에. 돌아다니멍.(친척네 집에. 돌아다니면서.)

110026 @ 그럼 정월 멩절이랑 팔월 멩절이랑 비슷허잖아예.(그럼 정월 멩절이랑 팔월 멩절이랑 비슷하잖아요.)

110026 #2 게.(그럼.)

110026 @다른 게 뭐가 잇지마씨?(다른 게 뭐가 잇지요?)

110026 #2 정월엔 저레 세배도 허곡게, 허주게.(정월에는 저리 세배도 하고, 하지.)

110026 @ 근데 팔월 멩절에는 그건 안 하지예?(근데 팔월 멩절에는 그건 안 하지요?)

110026 #2 그거 안 허여.(그거 안 해.)

9월

110028 @ 그럼 구월달에 뭐 따로 하는 거 엇인가마씨? 백로나 상강 뭐 그런 거.(그럼 구월달에 뭐 따로 하는 거 없었나요? 백로나 상강 뭐 그런 거.)

110028 #2 상강 헛주게 상강.(상강 헛지 상강.)

110028 @ 아, 상강은 뭐 해주마씨?(아, 상강은 뭐 하지요?)

110028 #2 상강은. 그때부터 상강 후로는 추워.(상강은. 그때부터 상강 후로는

추워.)

110028 @ 예.(예.)

110028 #2 고구마 ㄱ튼 것도 상강 전에 파야 썩지 않아여.(고구마 같은 것도 상강 전에 파여 썩지 않아.)

110028 @ 아, 상강 전에 해야?(아, 상강 전에 해야?)

110028 #2 응. 상강 넘으면 고구마도 썩어.(응. 상강 넘으면 고구마도 썩어.)

110028 @ 상강날은 뭐 딱히 허는 거 없어마씨?(상강날은 뭐 딱히 하는 거 없어요?)

110028 #2 엇어.(없어.)

110028 @ 그냥 그거 기준으로.(그냥 그거 기준으로.)

110028 #2 응.(응.)

10월

110029 @ 그럼 시월에 입동 잇잖아예. 입동. 이제 겨울이 시작한다.(그럼 시월에 입동 잇잖아요. 입동. 이제 겨울이 시작한다.)

110029 #2 응.(응.)

110029 @ 입동 때는 뭐 딱히 하는 거 없언마씨?(입동 때는 뭐 딱히 하는 거 없었어요?)

110029 #2 엇어.(없어.)

11월

110030 @ 그러면 십일월 달에 동지 팔죽 먹는다고 하는데, 그, 뭐 무슨 말마씨? 동지팔죽이 어떻 만드는 거고.(그러면 십일월 달에 동지 팔죽 먹는다고 하는데, 그, 뭐 무슨 말이예요? 동지팔죽이 어떻게 만드는 거고.)

110030 #2 그 만드는 건게 풋 삶양 죽 허여근영. 그 먹기도 허고 막 케우려¹⁴³ 그 귀신을 오지 못하라고 방법하는 거야. 거, 방법하는 거라.(그 만드는 건 팔 삶아서 죽 해서. 그 먹기도 하고 막 ‘케우려’ 그 귀신을 오지 못하라고 방법하는 거야. 거, 방법하는 거야.)

110030 @ 아, 귀신 오지 말렌?(아, 귀신 오지 마라고?)

110030 #2 응.(응.)

110030 @ 그냥 먹으면 돼는 거마씨?(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110030 #2 먹고 케우려.(먹고 ‘케우려’.)

110030 @ 케우려? 케우리는 게 뭐 허는 거마씨?(‘케우려’? ‘케우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110030 #2 죽 허영게 이제 저레 막 케우려. 뿌려.(죽 해서 이제 저리 막 ‘케우

143) ‘케우리다’는 남의 집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귀신에게 대접하느라고 조금 뜯어서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려'. 뿌려.)

110030 @ 아, 훌뿌리는 거구나.(아, 훌뿌리는 거구나.)

110031 @ 그럼 십일월에 납평날¹⁴⁴은 들어보셨마씨? 납평날?(그럼 십일월에 납일은 들어보셨어요? 납일?)

110031 #2 납평날. 옛 허는 날, 그거. 옛 허는 날.(납일. 옛 하는 날, 그거. 옛 하는 날.)

110031 @ 그때는 왜 옛 허는 거마씨?(그때는 왜 옛 하는 거예요?)

110031 #2 일 다 허고 허난 겨울에 옛 행 먹엇주게.(일 다 하고 하니까 겨울에 옛 해서 먹엇지.)

110031 @ 그럼 뭐 언제마씨? 그럼 납평날은?(그럼 뭐 언제예요? 그럼 납일은?)

110031 #2 언제산진 몰라. 납평날. 옛날에는 어느 날 지정해놨인다.(언제인지 몰라. 납일. 옛날에는 어느 날 지정해놨는데.)

110031 @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영 현 거마씨?(그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한 거예요?)

110031 #2 아니, 이녁 집서만, 득 잡아먹듯이.(아니, 이녁 잡에서만, 닭 잡아먹듯이.)

110031 @ 아, 득 잡아먹듯이.(아, 닭 잡아먹듯이.)

110031 #2 이 농사 다 허고 허난.(이 농사 다 하고 하니까.)

12월

110033 @ 그 아까 말씀하시려는 거 십이월에 친구간 잇잖아예? 친구간에 대해서 좀 알아 줘서. 제주도만 잇는 거잖아예.(그 아까 말씀하시려는 거 십이월에 친구간 잇잖아요? 친구간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제주도만 잇는 거잖아요.)

110033 #2 응. 친구간은 그 저 이. 정월. 그 해가 구물엇주게. 올히 이거 이천십오년 아니?(응. 시구간은 그 저 이. 정월. 그 해가 '구물엇지'. 올해 이거 이천십오년 아니?)

110033 @ 예.(예.)

110033 #2 십오년이 다 구무난, 구물민 귀신들이 하늘에 올라간덴 올라가 불민 귀신 엇일 때에 이사를 허여. 경 허는 거주게 그거.(십오년이 다 끝나니깐, 끝나면 귀신들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올라가 버리면 귀신 없을 때에 이사를 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110034 @ 그든 보통 그 옛날에는 이사갈 집을 요즘에는 막 부동산 하잖아예. 옛날에는 이사 갈 집 어떻게 구하셔, 구헛주마씨?(그러면 보통 그 옛날에는 이사갈 집을 요즘에는 막 부동산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사 갈 집 어떻게 구하셔, 구헛지요?)

110034 #2 기냥 이녁냥으로 구헛주게. 이녁냥으로 빌어근영 구허고 허는디 귀신

144) '납평날'은 동위 뒤의 셋째 술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납평날', '남평날'이라고도 한다.

하늘에 올라가 부렁 헤여근엥 그 동티가 어떻 허영 친구간에 하는 거라. 친구간에 집도 고치고 뭐 변소도 고치곡 조왕도 고치곡 귀신이 하늘에 올라가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허는 거지.(그냥 이녁대로 구했지. 이녁대로 빌려서 구하고 하는데 귀신 하늘에 올라가 버려서 해서 그 동티가 어떻게 해서 친구간에 하는 거야. 친구간에 집도 고치고 뭐 변소도 고치고 부엌도 고치고 귀신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하는 거지.)

110035 @ 그럼 이사 갈 때 뭐부터 처음에 가져가마썬? 뭐 처음에 챙기는 게 뭐 잇언마썬?(그럼 이사 갈 때 뭐부터 처음에 가져가요? 뭐 처음에 챙기는 게 뭐 있었어요?)

110035 #2 그 성냥 마튼 거. 초 마튼 거 불, 불나는 거 좋은 거.(그 성냥 같은 거. 초 같은 거 불, 불나는 거 좋은 거.)

110035 @ 그거부터, 왜 그거부터 가져가마썬?(그거부터, 왜 그거부터 가져가요?)

110035 #2 그거 허민 좋은데. 불 일어나게 재산도 많이 일어나고.(그거 하면 좋은데. 불 일어나게 재산도 많이 일어나고.)

110035 @ 아 그래서.(아. 그래서.)

110035 #2 그 잔치할 때 왜 저. 그. 무시거 허잖아. 잔치할 땐 이 그 세탁하는 거 뭐시라. 그 그릇 씻는 거 마튼 거게. 그 세타크 스파크.(그 잔치할 때 왜 저. 그. 무엇 하잖아. 잔치할 때는 이 그 세탁하는 거 뭐야. 그 그릇 씻는 거 같은 거. 그 세타크 스파크.)

110035 @ 예.(예.)

110035 #2 왜 그런 거 하느냐면 저 빨래 같은 거 깨끗이 씻듯이 살림 살 때에 잘 깨끗하라고 그런 거 허는 거라.(왜 그런 거 하느냐면 저 빨래 같은 거 깨끗이 씻듯이 살림 살 때에 잘 깨끗하라고 그런 거 하는 거야.)

110035 @ 아 경 헤 부난 그런 거 주는 거마썬?(아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 거 주는 거예요?)

110035 #2 응.(응.)

110035 @ 세제 같은 거 주는 게?(세제 같은 거 주는 게?)

110035 #2 응. 그러니 그릇 씻는 거. 그 스파크 같은 거.(응. 그러니 그릇 씻는 거. 그 스파크 같은 거.)

110035 @ 예.(예.)

110035 #2 그런 거 허잖아?(그런 거 하잖아?)

110035 @ 예.(예.)

110035 #2 그런 거 잔치 때 허여.(그런 거 잔치 때 해.)

110035 @ 난 잔치 때 무사 이거 줘신가 헛인디. 아 그것 때문에 이유가 잇엇구나예?(난 잔치 때 왜 이거 주는가 했는데. 아 그것 때문에 이유가 잇엇군요.)

110035 #2 응. 영장할 땐 아무거나 줘도 돼주게.(응. 영장할 때에는 아무거나 줘

도 돼.)

110035 @ 아 영장할 땐 아무거나 주고? 잔치 때는 그런 거 주고마씨?(아 영장할 때는 아무거나 주고? 잔치 때는 그런 거 주고요?)

110035 #2 응, 잔치 때는 그런 거 해.(응, 잔치 때는 그런 거 해.)

110035 @ 그럼 이사 갈 때는 초량 그런 거 먼저 가져가고마씨?(그럼 이사 갈 때는 초량 그런 거 먼저 가져가고요?)

110035 #2 어.(어.)

110036 @ 집알이 잇잖아예. 집알이. 그니까 새로 집 이사 가면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주고 허는 거. 집들이 같은 거.(집알이 잇잖아요. 집알이. 그러니까 새로 집 이사 가면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주고 하는 거. 집들이 같은 거.)

110036 #2 그거 집들이주게.(그거 집들이지.)

110036 @ 그런 거 예전에도 잇언마씨?(그런 거 예전에도 있었어요?)

110036 #2 옛날에는 엇엇어. 옛날엔 집 짓으면 저. 것ㄴ라 무시. 성주풀이 했주게 성주풀이.(옛날에는 없엇어. 옛날에는 집 지으면 저, 것더러 뭐. 성주풀이 했지 성주풀이.)

110036 @ 성주풀이?(성주풀이?)

110036 #2 응. 성주풀이는 이 집 짓으면 그 나무 ㄴ튼 거 옛날에는 비어당 짓엇주게.(응. . 성주풀이는 이 집 지으면 그 나무 같은 거 옛날에는 베어다가 지엇지.)

110036 @ 예.(예.)

110036 #2 지금은 경 안 해도. 경 허민 그런 디 귀신 붙은 거 저 막 방비 허는 거. 도치ㄴ튼 걸로 나무에 찍어 굿허면서 그 경 해근엥 굿허는 거.(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면 그런 데 귀신 붙은 거 저 막 방비 하는 거. 도끼 같은 걸로 나무에 찍어 굿하면서 그 그렇게 해서 굿하는 거.)

110037 @ 그러면 집들이 하면 집들이 할 때 이렇게 가면 보통 선물 사가잖아예?(그러면 집들이 하면 집들이 할 때 이렇게 가면 보통 선물 사가잖아요?)

110037 #2 응.(응.)

110037 @ 근데 요즘이야 뭐 이것저것 살 게 많은데 옛날에는 가져갈 거 없죠?(근데 요즘이야 뭐 이것저것 살 게 많은데 옛날에는 가져갈 거 없죠?)

110037 #2 그. 그 성냥 ㄴ튼 거. 그 초 같은 거 사서 가주게. 잘 돼라고.(그. 그 성냥 같은 거. 그 초 같은 거 사서 가지. 잘 되라고.)

110038 @ 그럼 소한이나 대한에 대해서는 어르신 뭐 기억나는 거.(그럼 소한이나 대한에 대해서는 어르신 뭐 기억나는 거.)

110038 #2 거 추워. 소한은 덜 춥고, 대한에 나가는 사람은 믿지 말렌 헛어. 거 막 추울 때라. 제일 일 년 중에 추우, 추운날.(거 추워. 소한은 덜 춥고, 대한에 나가는 사람은 믿지 말라 헛어. 거 막 추울 때라. 제일 일 년 중에 추우, 추운날.)

110038 @ 믿지 말라 헛마씨 무사?(믿지 말라 했어요 왜요?)

110038 #2 응. 대만에 나간 사람 믿지 말랑, 추잉 죽는다고게.(응. 대만에 나간 사람 믿지 말라고, 추워서 죽는다고.)

110038 @ 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 그 말은 여기에도 잇었구나예. 고산에서도 뭐 소한인가 대만에 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잇었다고 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예전부터 그런 말은 잇었구나예.(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 그 말은 여기에도 있었군요. ‘고산’에서도 뭐 소한인가 대만에 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있었다고 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예전부터 그런 말은 있었군요.)

11. 놀이

111001 @ 예전에는 지금은 막 어린아이들 게임하고 막 노는데 예전에는 뭐하시면서 놀안마씨?(예전에는 지금은 막 어린아이들 게임하고 막 노는데 예전에는 뭐하시면서 놀았어요?)

111001 #2 남자는게 팽이치고게.(남자는 팽이치고.)

111001 @ 예.(예.)

111001 #2 여자들은 베뿔락허고게.(여자들은 줄넘기하고.)

111001 @ 뭐마씨?(뭐요?)

111001 #2 베뿔락.(줄넘기.)

111001 @ 베뿔락?(줄넘기?)

111001 #2 어.(어.)

111001 @ 베뿔락이 뭐팡?(줄넘기가 뭐입니까?)

111001 #2 영게 베로게 영 영 영 허는 거 노로. 베뿔락.(이렇게 베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노로. 줄넘기.)

111001 @ 줄넘기 같은 거?(줄넘기 같은 거?)

111001 #2 으 줄넘기주게.(어 줄넘기이지.)

111001 @ 아, 그게 베뿔락이팡?(아, 그게 ‘베뿔락’입니까?)

111001 #2 게고 영 뿔도 허고 영 주멩기로 영 영 허는 거.(그리고 이렇게 뿔도 하고 이렇게 주머니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11001 @ 주멩기?(주머니?)

111001 #2 응. 주멩기로 만들영게. 영 영 영 손으로 허는 거.(응. 주머니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111001 @ 공기? 이렇게 공 던정 허는 거마씨?(공기? 이렇게 공 던져서 하는 거요?)

111001 #2 응. 응.(응. 응.)

연(鳶)

111002 @ 연놀이도 하셨지예?(연놀이도 하셨지요?)

111002 #2 연놀이도 했주게 남자들은.(연놀이도 했지 남자들은.)

111002 @ 음. 그럼 연은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음. 그럼 연은 종류가 뭐, 뭐 잇지요?)

111002 #2 종류 무시거게 그 연 동글락허게도 만들고 네모 영 허게 만들고 연 올렸주게.(종류 무엇 그 연 동그랴게 만들고 네모 이렇게 하게 만들고 연 올렸지.)

111003 @ 방패연, 가오리연 막 그런 거 만들었지예? 그럼 연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마씨?(방패연, 가오리연 막 그런 거 만들었지요? 그럼 연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111003 #2 대로 헨게.(대로 했지.)

111003 @ 그니깐 만드는 거 곶아 줘서. 처음부터.(그러니까 만드는 거 말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111003 #2 대 까까근엥게. 영 대로 헤근엥 영 제영.(대 깎아서. 이렇게 대로 해서 이렇게 짜어서.)

111003 @ 예.(예.)

111003 #2 제영게 까까근엥 영 오그라근엥게 창호지 블랏주게 종이 블랏어. 경행 실 허영 영 허영 허민 놀아. 바람에 날려.(짜어서 깎아서 이렇게 오그려서 창호지 발랐지 종이 발랐어. 그렇게 해서 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날아. 바람에 날려.)

111003 @ 그럼 옛날에는 창호지 귀하지 았안마씨?(그럼 옛날에는 창호지 귀하지 았았어요?)

111003 #2 창호지 흔했지.(창호지 흔했지.)

111003 @ 아, 창호지가 흔헨마씨?(아, 창호지가 흔했어요?)

111003 #2 응. 옛날엔 창호지로 문도 바르곡 연도 만들곡 뭐 글도 제사 때 글도 쓰곡 막 경 했지. 창호지가 흔했어.(응. 옛날에는 창호지로 문도 바르고 연도 만들고 뭐 글도 제사 때 글도 쓰고 막 그렇게 했지. 창호지가 흔했어.)

111003 @ 그른 연대나 아까 대 까깎다고 헛잖아예.(그러면 연대나 아까 대 깎았다고 헛잖아요.)

111003 #2 응.(응.)

111003 @ 그 대는 어디서 구헨마씨?(그 대는 어디서 구했어요?)

111003 #2 그 옛날엔 이 집 짓어난 디 문딱 대 심어.(그 옛날에는 이 집 지어난 데 전부 심어.)

111003 @ 아.(아.)

111003 #2 왜냐면 대로 바구니도 허고 바구니 만들었주게. 경 헤사 바구니를 사 용했지. 대로 게난 집 짓어난 디 지금도 대 잇어. 집 짓어난 데. 자리는 옛날 저 집

튼어분 디 옛날 사삼사건 때 전이는 집들이 막 지금처럼 짓어주게. 이디 저디 짓었어.(왜냐하면 대로 바구니도 하고 바구니 만들었지. 그렇게 해야 바구니를 사용했지. 대로 그러니 집 지어난 데 지금도 대 있어. 집 지어난 데. 자리는 옛날 저 집 뜯어버린 데 옛날 사삼사건 때 전에는 집들이 막 지금처럼 지었지. 여기 저기 지었어.)

111003 @ 예.(예.)

111003 #2 겐디 사삼사건 때에 무서워서 폭도들 때문에 이 큰 마을에 다 속까지 왔주게. 경 행 집 짓어난 자리에 안 짓은디 이제 대가 있어 다. 우영에들 다 심어 집 짓은 디 집은 다 대 심어. 그 대로 혜영 바구니도 짜고 뿔도 만들고 대가 필요했어.(그런데 사삼사건 때에 무서워서 폭도들 때문에 이 큰 마을에 다 속까지 왔지. 그렇게 해서 집 지어난 자리에 안 지은디 이제 대가 있어 다. 텃밭에 다 심어 집 지은 데 집은 다 대 심어. 그 대로 해서 바구니도 짜고 뿔도 만들고 대가 필요했어.)

111004 @ 그럼 그 대로 연 만들고. 연 하면 실도 필요하고.(그럼 그 대로 연 만들고. 연 하면 실도 필요하고.)

111004 #2 응.(응.)

111004 @ 영 돌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예. 그거는 어떻 만드는 거마씨?(이렇게 돌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11004 #2 그 실은게 미녕으로 미녕 허는 거처럼 혜근영 실을 만들고.(그 실은 무명으로 무명 하는 것처럼 해서 실을 만들고.)

111004 @ 미녕으로?(무명으로?)

111004 #2 응. 그 소게로.(응. 그 솜으로.)

111004 @ 예. 소게로.(예. 솜으로.)

111004 #2 멘네, 멘네로 혜영 이녁냥으로 만들영 대 까까근영게 연 만들영 올렸주게.(목화, 목화로 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대 깎아서 연 만들어서 올렸지.)

111005 @ 그럼 연싸움은 하는 거 혹시 아서마씨?(그럼 연싸움은 하는 거 혹시 아세요?)

111005 #2 게 알주게.(그럼 알지.)

111005 @ 아, 연싸움 허는 거 좀 곱아 줍서.(아, 연싸움 하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11005 #2 게 어떻 혜게. 연싸움은게 연 두개를 올령.(어떻게 해. 연싸움은 연 두 개를 올려서)

111005 @ 예.(예.)

111005 #2 영 막 부닥쳐. 게른 잘 만들어사 잘 올라. 잘못 만들면 잘 올르지 않았지. 게면 이 잘 만든 거는 막 올라근영 허곡 잘못 만든 거는 지주게 이거한티.(이렇게 막 부닥쳐. 그러면 잘 만들어야 잘 올라. 잘못 만들면 잘 오르지 않았지. 그러면 이 잘 만든 거는 막 올라서 하고 잘못 만든 거는 지지 이거한테.)

111005 @ 예.(예.)

111005 #2 이거는 활발하게 막 올르고 잡아당기면 내리고 쪽 가면 싹 올르고 이거는 잘 안 돼여.(이거는 활발하게 막 오르고 잡아당기면 내리고 쪽 가면 싹 오르고 이거는 잘 안 돼.)

111005 @ 예.(예.)

111005 #2 잘 안 만들면 게든 지지.(잘 안 만들면 그러면 지지.)

111006 @ 어르신도 연 날리기 해 보셨마씨?(어르신도 연 날리기 해 보셨어요?)

111006 #2 여자들은 잘 안 허지. 남자들만 허여.(여자들은 잘 안 하지. 남자들만 해.)

제기차기

111007 @ 어르신 이걸 많이 안 해보셔도 알 것 같은데 제기차기 아시잖아예?(어르신 이걸 많이 안 해보셔도 알 것 같은데 제기차기 아시잖아요?)

111007 #2 응. 게.(응. 그럼.)

111007 @ 그럼 제기는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주마씨? 옛날에도 만들었지예?(그럼 제기는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지요? 옛날에도 만들었지요?)

111007 #2 그거게 저 종이 창호지로도 허곡 창호지로 영 처음엔 이 이제 ㄱ트민 백 원짜리 영 놔. 이거 창호지면게 백 원짜리를 이디 놔근엔게 알로 실로 감아.(그거 저 종이 창호지로도 하고 창호지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 이제 같으면 백 원짜라 이렇게 놔. 이거 창호지면 백 원짜리를 여기 놔서 아래로 실로 감아.)

111007 @ 예.(예.)

111007 #2 이거를 막 ㄱ앗지. 막 ㄱ이민 실로 감아 싹 벌개져.(이거를 막 자르지. 막 자르면 실로 감아 싹 싹 벌어져.)

111007 @ 예.(예.)

111007 #2 경 행 영 발로 찿주게.(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로 찿지.)

111008 @ 그럼 제기도 제기 차는 것도 종류가 있지 않안마씨? 한발로 차는 것도 있고 양발로 뭐, 뭐 잇언마씨?(그럼 제기도 제기 차는 것도 종류가 있지 않았어요? 한발로 차는 것도 있고 양발로 뭐, 뭐 있었어요?)

111008 #2 으. 경흐난게 잘하는 사람은 혼발로도 차고 잘하는 사람은 두발로 영 찿주게. 두발로.(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한발로도 차고 잘하는 사람은 두발로 이렇게 찿지. 두발로.)

111008 @ 아.(아.)

111008 #2 겐디 익숙하면게 양쪽으로 찿주 양발로.(그런데 익숙하면 양쪽으로 찿지 양발로.)

111009 @ 제기차기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주마씨?(제기차기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지요?)

111009 #2 오래차면 이기주게.(오래차면 이기지.)

111010 @ 그럼 어르신 재기차기 안 하셨지예?(그럼 어르신 재기차기 안 하셨지요?)

111010 #2 여자들은 안 허여.(여자들은 안 해.)

자치기

111011 @ 자치기는 아시지예? 자치기. 어르신.(자치기는 아시지요? 자치기. 어르신.)

111011 #2 그건 저 무싱건가.(그건 저 무엇인가.)

111011 @ 나무 막대기로 딱 치는 거마씨.(나무 막대기로 딱 치는 거요.)

111011 #2 그건 저 무싱걸로 저 영 발로 차나실거라.(그건 저 무엇으로 저 이렇게 발로 찼을거야.)

111011 @ 이렇게 하는 거 아니마씨? 이렇게 작은 거 있고 긴 거 있고 막대기로 하는 건디.(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거 있고 긴 거 있고 막대리고 하는 건데.)

111011 #2 그건 안 해낫인디.(그건 안 했었는데.)

111011 @ 아, 그럼 자치기는 안 해보셨마씨?(아, 그럼 자치기는 안 해보셨어요?)

말타기

111015 @ 말타기는 혹시 해 보셨마씨?(말타기는 혹시 해 보셨어요?)

111015 #2 이디선 안 해 봤어. 말타기.(여기서는 안 해 봤어. 말타기.)

111015 @ 이디선 말타기 안 하고.(여기서는 말타기 안 하고.)

111015 #2 어른 어떤 어른들은 이제 그트민 택시 모양이라. 물로 허영 탕 다녀.(어른 어떤 어른들은 이제 같으면 택시 모양이야. 말로 해서 타고 다녀.)

111015 @ 아 그 말타기 말앙 노는 거마씨. 사람들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는 거.(아 그 말타기 말고 노는 거요. 사람들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는 거.)

111015 #2 아 그건 아이들이 허주게.(아 그건 아이들이 하지.)

111015 @ 물 타는 거 말앙 진짜 말 타는 거 말앙. 그 말타기.(말 타는 거 말고 진짜 말 타는 거 말고. 그 말타기.)

111015 #2 그건 더러 허주게. 아이들 학교에서.(그건 더러 하지. 아이들 학교에서.)

111015 @ 말타기 종류는 들어보신 거 잇어마씨?(말타기 종류는 들어보신 거 있어요?)

111015 #2 아니. 들어본 적 었어.(아니. 들어본 적 없어.)

구슬치기

111020 @ 그럼 구슬치기 잇잖아예. 구슬치기. 다마.(그럼 구슬치기 잇잖아요. 구슬치기. 구슬.)

111020 #2 다마치기. 다마.(구슬치기. 구슬.)

111020 @ 다마는 옛날에 어떻게 준비했주마씨?(구슬은 옛날에 어떻게 준비했지요?)

111020 #2 몰라.사와신지사 동글락헌 거 사왔주게. 그거게 다마.(몰라. 사왔는지 동그란 거 사왔지. 그거 구슬.)

111021 @ 다마치기는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 고양이 집어넣는 것도 잇을 거고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잇고.(구슬치기는 종류가 뭐, 뭐 잇지요? 구멍에 집어넣는 것도 잇을 거고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잇고.)

111021 #2 맞추지 맞춰.(맞추지 맞춰.)

111021 @ 보통 맞추지예?(보통 맞추지요?)

111021 #2 응.(응.)

111027 @ 그럼 어르신 다마치기 해보신 적은 잇어마씨?(그럼 어르신 구슬치기 해보신 적은 잇어요?)

111027 #2 안 해봤주게. 그런 거.(안 해봤지. 그런 거.)

딱지치기

111028 @ 그러면 혹시 딱지치기는 해보셨마씨?(그러면 혹시 딱지치기는 해보셨어요?)

111028 #2 것도 남자가 허주게. 딱지치기 헨게. 남자들.(것도 남자가 하지. 딱지치기 했어. 남자들.)

숨바꼭질

111032 @ 그럼 숨바꼭질은?(그럼 숨바꼭질은?)

111032 #2 숨바꼭질 여자 허주게. 그건 숨바꼭질은 여자들 허는 거라.(숨바꼭질 여자 하지. 그건 숨바꼭질은 여자들 하는 거야.)

111032 @ 그거 숨바꼭질은 옛날에도 숨바꼭질이라고 헨마씨? 아니면 다른 제주도말 엇엇인가마씨?(그거 숨바꼭질은 옛날에도 숨바꼭질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제주도말 없었나요?)

111032 #2 숨바꼭질 헛어.(숨바꼭질 했어.)

111032 @ 게난 제주도말로 곱음재기, 곱을내기 그런 거 엇엇인가마씨?(그러니까 제주도말로 ‘곱음재기’, ‘곱을내기’ 그런 거 없었어요?)

111032 #2 게. 곱을락.(그럼. ‘곱을락’.)

111032 @ 아, 곱을락이엔 헨마씨? 거는 어떻 허는 거마씨? 숨바꼭질 옛날엔.(아, ‘곱을락’이라고 했어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바꼭질 옛날에는.)

111032 #2 어디게 영게 확 곱아근영게 곱을락 허여.(어디 이렇게 확 숨어서 숨

바꼭질 해.)

111032 @ 예.(예.)

111032 #2 어디 강 곱을락허민 찾지 못했주게. 경 헛주게.(어디 가서 숨으면 찾지 못했지. 그렇게 했지.)

111033 @ 그럼 막 여러 명이 하면 찾는 사람 정해야 하잖아예.(그럼 막 여러 명이 하면 찾는 사람 정해야 하잖아요.)

111033 #2 게.(그럼.)

111033 @ 게든 찾는 사람보고 뭐라고 헛주마씨?(그러면 찾는 사람보고 뭐라고 했지요?)

111033 #2 몰라. 그건.(몰라. 그건.)

111033 @ 술래라고 안 헛수광? 찾는 사람 한 명 정하는 건 어떻 정헛마씨?(술래라고 안 헛습니까? 찾는 사람 한 명 정하는 건 어떻게 정했어요?)

111033 #2 장개보로게.(가위바위보로.)

111034 @ 주로 어르신 어디에 몸 숨견마씨? 어디서 곱안마씨?(주로 어르신 어디에 몸 숨겼어요? 어디서 숨었어요?)

111034 #2 어디 돌 트멍 ㄴ튼 디 곱앗주게.(어디 돌 틈 같은 데 숨었지.)

111035 @ 그 곱을내기 허멍 그 기억나는 거 엇어마씨? 어렸을 때 한 거. 어렸을 때 하는 것 중에? 흑시?(그 숨바꼭질 하면서 그 기억나는 거 없어요? 어렸을 때 한 거. 어렸을 때 하는 것 중에? 흑시?)

111035 #2 별로 엇주게. 우리 어릴 때.(별로 없지. 우리 어릴 때.)

111035 @ 음. 어릴 때 막 먹고 살기 힘들어 부난 막 놀지는 았았지예? 그래도 막 놀았인가마씨?(음. 어릴 때 막 먹고 살기 힘들어 버리니까 막 놀지는 았았지요? 그래도 막 놀았나요?)

111035 #2 어릴 때 별로 안 놀았어. 이디 우리 국민학교 일훤주게.(어릴 때 별로 안 놀았어. 여기 우리 초등학교 일회지.)

111035 @ 아.(아.)

111035 #2 일훤라 부난 옛날엔 저 막 크지 았았지게 학교가.(일회라 버리니 옛날에는 저 막 크지 았았지 학교가.)

111035 @ 예.(예.)

111035 #2 우린 별로 운동도 못하고 경 헛어. 경 허영 뭐 그자 베떨락하고 그자 오주미로구나 영 오주미, 오주미 허는 거. 험벅 행 속에 모살 담양.(우리는 별로 운동도 못하고 그렇게 헛어. 그렇게 해서 뭐 그저 줄넘기하고 그저 오자미로구나 이렇게 오자미, 오자미 하는 거. 형겘 해서 속에 모래 담아서.)

111035 @ 예.(예.)

111035 #2 영 행 하나씩 하나씩 허는 거 손으로.(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손으로.)

111035 @ 아.(아.)

111035 #2 오주미.(오자미.)

실뜨기

111036 @ 실뜨기도 하셨지예? 실뜨기.(실뜨기도 하셨지요? 실뜨기.)

111036 #2 실뜨기 뭇인고?(실뜨기 무엇인고?)

111036 @ 실뜨기 영 손으로 이렇게 허는 거마씨.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헛인 디예.(실뜨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했는데.)

111036 #2 어.(어.)

111036 @ 그 실은 그냥 멘네로 멘네로 하션마씨?(그 실은 그냥 목화로 목화로 하셨어요?)

111036 #2 어.(어.)

111037 @ 그럼 실뜨기할 때 어떤 속가락이 필요하주마씨?(그럼 실뜨기할 때 어떤 손가락이 필요하지요?)

111037 #2 그냥게 영 해근앵 영 허곡게 영 허주게.(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111037 @ 그러니까 무슨 손가락?(그러니까 무슨 손가락?)

111037 #2 상손가락이 필요했주. 가운데손가락.(가운뎃손가락이 필요했지. 가운뎃손가락.)

111037 @ 아, 가운뎃손가락.(아, 가운뎃손가락.)

111037 #2 거 실로 헛주게 실로.(거 실로 헛지 실로.)

111038 @ 그럼 엄지손가락이랑 집게손가락은 뭐 해마씨? 실뜨기할 때.(그럼 엄지손가락이랑 집게손가락은 뭐 해요? 실뜨기할 때.)

111038 #2 뭐 다 썬주게. 새끼손가락만 안 썬. 별로 안 썬.(뭐 다 썬지. 새끼손가락만 안 썬. 별로 안 썬.)

111039 @ 새끼손가락은 거의 뭐 허는 거 엇어마씨?(새끼손가락은 거의 뭐 하는 거 없어요?)

111039 #2 으.(어.)

111036 @ 할머니 그 어렸을 때 실뜨기 하명 놀지 았안마씨?(할머니 그 어렸을 때 실뜨기 하면서 놀지 았았어요?)

111036 #3 무사 안 해게.(왜 안 해.)

111036 @ 실로 하는 거 그 실은 어디서 난마씨?(실로 하는 거 그 실은 어디서 났어요?)

111036 #3 실은 이녁집이서.(실은 이녁집에서.)

111036 @ 예.(예.)

111036 #3 그 미녕 허여근앵 미녕 그 실로 영 허곡 영 허곡 허는 거.(그 무명 해서 무명 그 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111037 @ 그럼 그 실뜨기 헐 때는 어떤 손가락 필요혜마씨?(그럼 그 실뜨기 할

때는 어떤 손가락 필요해요?)

111037 #3 이 손가락이 필요해 이거 이거.(이 손가락이 필요해 이거 이거.)

111037 @ 이거 뭐라고 해마씨?(이거 뭐라고 해요?)

111037 #3 이거 상손가락.(이거 가운데손가락.)

111037 @ 아, 상손가락?(아, 가운데손가락.)

111037 #3 어. (어.)

111037 @ 그럼 그거 좀 얘기해 줘서. 어떻 허는 건지.(그럼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111037 #3 실 시른 허주만은 실 엇이난. 실 영 해근엿 이디 이디도 영 결국 이 손가락은 안 걸어. 안 걸민 이디 영 허곡 다시 이디 영 허영 허곡 이 엄지손가락으로 영 걸리고 또 이착 영 걸리곡 허는 거주게.(실 있으면 하지만 실 없으니까. 실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도 이렇게 걸고 이 손가락은 안 걸어. 안 걸면 여기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걸리고 또 이쪽 이렇게 걸리고 하는 거지.)

111037 @ 예.(예.)

111037 #3 경 허영 허민 것도 일등 이등 허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하면 것도 일등 이등 하는 거지.)

111037 @ 예.(예.)

111037 #3 잘하민 그것도 일등으로 허는 거고 못허민 풀등으로 허는 거주게.(잘 하면 그것도 일등으로 하는 거고 못하면 풀등으로 하는 거지.)

공기놀이

111041 @ 그 아까 공기? 아까 던지는 거 뭐라고 했주마씨?(그 아까 공기? 아까 던지는 거 뭐라고 했지요?)

111041 #2 오주미? 그거는 아까 형겘으로. 힘벽으로 모살 담양 꿰메엿.(오자미? 그거는 아가 형겘으로. 형겘으로 모래 담아서 꿰메어서.)

111041 @ 예.(예.)

111041 #2 이제도 운동회 때 허는디?(이제도 운동회 때 하는데?)

111041 @ 아.(아.)

111041 #2 운동회 때 그 이추룩 이추룩 만들엿. 동글락허게 이추룩 만들엿 영 던지는 거게.(운동회 때 그 이처럼 이처럼 만들어서. 동그랗게 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

111041 @ 아, 던지는 거.(아, 던지는 거.)

111041 #2 많이 던지민 많이 던지민 일등 허는 거. 그거 행 영 영 영 헛어. 오주미. 양쪽으로도 허고게.(많이 던지면 많이 던지면 일등 하는 거. 그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 오자미. 양쪽으로도 하고.)

111041 @ 어르신 그럼 옛날에 어렸을 때 요만한 동그랗게 작게 만들엿 공기는

안 헨마씨?(어르신 그럼 옛날에 어렸을 때 요만한 동그랗게 작게 만들어서 공기는 안 했어요?)

111041 #2 무사 안 해계?(왜 안 해?)

111041 @ 공기 헛주마씨. 그럼 공기는 어디서 난마씨?(공기 했지요. 그럼 공기는 어디서 났어요?)

111041 #2 돌로, 돌로.(돌로, 돌로.)

111041 @ 돌로.(돌로.)

111041 #2 쪼끌락헌 돌. 동글락헌 걸로.(작은 돌. 동그란 걸로.)

111041 @ 어디서 봉가완마씨?(어디서 주워왔어요?)

111041 #2 어디 땅에서나 봉강 헛주.(어디 땅에서나 주워서 했지.)

111042 @ 공기할 때는 순서는 어떻 돼주마씨? 공기하는 방법.(공기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공기하는 방법.)

111042 #2 게 영 허영게 영 해근앵 게 땀주. 따.(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따지. 따.)

고누

111044 @ 어르신 고누, 고누는 알아마씨?(어르신 고누, 고누는 알아요?)

111044 #2 고누가 뭇인고.(고누가 무엇인고.)

땅뺏기

111049 @ 그럼 땅뺏기는 알아마씨? 땅에다가 막 선 그영 땅뺏기 하는 건데. 그 놀이는 기억 안 나마씨?(그럼 땅뺏기는 알아요? 땅에다가 막 선 그어서 땅뺏기 하는 건데. 그 놀이는 기억 안 나요?)

111049 #2 그거 모르컨계.(그거 모르겠다.)

웃놀이

111053 @ 그럼 웃놀이는 많이 헛잖아예? 지금도 허고 웃놀이는.(그럼 웃놀이는 많이 헛잖아요? 지금도 하고 웃놀이는.)

111053 #2 그 시절에는 웃놀이 잘 남자들 헛주게. 웃놀이 지금은 여자도 해도.(그 시절에는 웃놀이 잘 남자들 헛지. 웃놀이 지금은 여자도 해도.)

111053 @ 아, 그 시절에는.(아, 그 시절에는.)

111053 #2 그 시절에는 남자들 헛주게.(그 시절에는 남자들 헛지.)

111053 @ 그럼 그 때 웃가락은. 지금은 막 팔잖아예? 웃. 근데 그 때는 나무로 만들엇인가마씨?(그럼 그 때 웃가락은. 지금은 막 팔잖아요? 웃. 근데 그 때는 나무로 만들엇어요?)

111053 #2 나무로 만들엇주게. 요새추룩 나무로 만들영 헛주게. 놀 때 나무로 만들영 옛날 종지해근앵. 옛날 종지해근앵.(나무로 만들엇지. 요새처럼 나무로 만들

어서 했지. 놀 때 나무로 만들어서 옛날 종지해서. 옛날 종지해서.)

111054 @ 그럼 무슨 나무, 무슨 나무로 만들었주마씨?(그럼 무슨 나무, 무슨 나무로 만들었지요?)

111054 #2 아무 나무라도. 아무 나무라도 깨어근앵.(아무 나무라도. 아무 나무라도 쪼개서.)

111054 @ 예.(예.)

111054 #2 동글락현 나무허여근앵. 솟이영 뭐 걸 낫져.(동그란 나무해서. 옷하고 뭐 걸 낫다.)

111054 @ 아, 솟이라고 헨마씨?(아 ‘솟’이라고 했어요?)

111054 #2 아니 영 네 게 허영.(아니 이렇게 네 개 해서.)

111054 @ 예.(예.)

111054 #2 영 던정 다 갈라지면 솟.(이렇게 던져서 다 갈라지면 옷.)

111054 @ 아, 모가 아니라 솟?(아, 모가 아니라 옷?)

111054 #2 엮어진 건 모.(엮어진 건 모.)

111054 @ 모고 이건 솟?(모고 이건 옷?)

111054 #2 어.(어.)

111054 @ 하나는?(하나는?)

111054 # 걸. 아, 두 개 엮어진 건 개.(걸. 아, 두 개 엮어진 건 개.)

111055 @ 그믐 그 종지랑 옷판은 뭘로 만들어마씨?(그럼 그 종지랑 옷판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111055 #2 옷판은 이딴서 영계 종지로 하나 무슨 가움 낱 허주게. 경 행 옛날 종지로 영 영 행 헛주게.(옷판은 여기서 이렇게 종지로 하나 무슨 가움 놔서 하지. 그렇게 해서 옛날 종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지.)

111055 @ 그럼 종지는 뭘로 만들어마씨? 이렇게 말 같은 거는.(그럼 종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말 같은 거는.)

111055 #2 종진게 옛날 술잔 닳은 거.(종지는 옛날 술잔 닳은 거.)

111055 @ 아, 술잔?(아, 술잔?)

111055 #2 그릇, 그릇.(그릇, 그릇.)

111055 @ 그릇. 그러니까 간장 종지 같은 거마씨?(그릇. 그러니까 간장 종지 같은 거요?)

111055 #2 어. 그거.(어. 그거.)

팽이치기

111059 @ 그럼 어 팽이치기도 막 남자들이 헛잖아예?(그럼 어 팽이치기도 막 남자들이 헛잖아요?)

111059 #2 게.(그럼.)

111059 @ 팽이는 옛날에 남자들은 어떻게 만들었주마씨?(팽이는 옛날에 남자들

은 어떻게 만들었지요?)

111059 #2 가까근엥 만들었주게. 가깡.(깡아서 만들었지. 깡아서.)

111059 @ 그러니까 뭘로?(그러니까 무엇으로?)

111059 #2 그 저 나무로.(그 저 나무로.)

111061 @ 주로 무슨 나무로 만들었마씨? 아무 나무나 하긴 헛인디 주로?(주로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무 나무나 하긴 했는데 주로?)

111061 #2 그 땀 소나무배피 더 잇었어?(그 때는 소나무밖에 더 있었어?)

111061 @ 아, 소나무배피.(아, 소나무밖에.)

111061 #2 소나무 가까근엥 막 가까근엥 팽이 만들엉 첫주게.(소나무 깡아서 막 깡아서 팽이 만들어서 쳤지.)

111062 @ 팽이 잘 돌게 허젠 허민 어떻 해야 뉘주마씨?(팽이 잘 돌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111062 #2 그 끈을.(그 끈을.)

111062 @ 예.(예.)

111062 #2 막 잘 감아근엥.(막 잘 감아서.)

111062 @ 예.(예.)

111062 #2 착하게 뿌리면 막 오래돌주게.(착하게 뿌리면 막 오래돌지.)

111062 @ 그 끈은 뭘로 만들어마씨? 그 팽이채에 쓰는 끈.(그 끈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그 팽이채에 쓰는 끈.)

111062 #2 가옴으로 가옴으로.(가옴으로 가옴으로.)

111062 @ 뉘마씨?(뉘요?)

111062 #2 가옴 이런 무슨 가옴.(가옴 이런 무슨 가옴.)

111062 @ 가옴은 뉘짱?(가옴은 무엇입니까?)

111062 #2 그 무슨 미녕으로 만든 거게.(그 무슨 무명으로 만든 거.)

굴렁쇠

111066 @ 굴렁쇠도 알아마씨?(굴렁쇠도 알아요?)

111066 #2 굴렁쇠는 뉘라.(굴렁쇠는 뉘야.)

111066 @ 이렇게 동그략게 현 거 굴리는 건데.(이렇게 동그략게 현 거 굴리는 건데.)

111066 #2 그거 아이들 헛주. 영 영 영 허는 거. 그건 막 후에 현 거라.(그거 아이들 헛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막 후에 현 거야.)

111066 @ 막 후에?(막 후에?)

111066 #2 어. 그건 오래사 안 헛주. 난 저것이 쉐 재미잇주.(어. 그건 오래 안 헛지. 난 저것이 제일 재미잇지.)

111066 @ 뉘마씨?(뉘요?)

111066 #2 이 텔레비 위. 뉘시 허는 거 재미났주.(이 텔레비전 위. 뉘시 하는 거

재미났지.)

(강)통차기

111069 @ 강통차기도 해 보셨어요? 옛날에?(강통차기도 해 보셨어요? 옛날에?)

111069 #2 강통차기 잘 안 헛인다.(강통차기 잘 안 했는데.)

‘뽕기치기’

111072 @ 뽕이치기는 알아마씨? 어르신.(뽕기치기는 알아요? 어르신.)

111072 #2 게.(그럼.)

111072 @ 뽕이치기는 뭐짱? 난 뽕이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뽕기치기는 무엇
입니까? 난 뽕기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111072 #2 뽕이 빵양.(뽕기 빵아서.)

111072 @ 예.(예.)

111072 #2 내기헛주게. 내기허연.(내기헛지. 내기헛어.)

111073 @ 뽕이치기 뭐 허는 거고. 어떻게 허민 이기는 거고 어떻게 허는 거마
씨? 좀 설명 해 줘서.(뽕기치기 뭐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고 어떻게 하
는 거예요? 좀 설명 해 주십시오.)

111073 #2 이거 영 열어 영 몇 개냐 숫자 알민.(이거 이렇게 열어 이렇게 몇 개
냐 숫자 알면.)

111073 @ 예.(예.)

111073 #2 뽕이를 내놔야지 숫자 알면 맞으면. 맞지 않으면 안 내놓고. 맞으면
그 뽕이 다 줘버려야 돼. 뽕이 빵다근영.(뽕기를 내놔야지 숫자 알면 맞으면. 맞
지 않으면 안 내놓고. 맞으면 그 뽕기 다 줘버려야 돼. 뽕기 빵아서.)

111073 @ 뽕이는 어디서나마씨?(뽕기는 어디서 나요?)

111073 #2 산에, 새로 된 거. 새로 처음에. 그 새에 나 뽕이가. 새로.(산에. 띠로
된 거. 띠로 처음에. 그 띠에 나 뽕기가. 띠로.)

111073 @ 새에 뽕이가나마씨?(띠에 뽕기가 나요?)

111073 #2 응.(응.)

고무줄놀이

111075 @ 그럼 어르신 그럼 고무줄놀이는 해봤지예?(그럼 어르신 그럼 고무줄
놀이는 해봤지요?)

111075 #2 게.(그럼.)

111075 @ 할아버지들 대답 못 허는 건디. 고무줄은 어디서나마씨? 옛날에는?
고무줄놀이 할 때 고무줄은.(할아버지들 대답 못 하는 건데. 고무줄은 어디서 냐어
요? 옛날에는? 고무줄놀이 할 때 고무줄은.)

111075 #2 어떻 해. 고무줄 할 때에 여자들 고무줄 헛주게.(어떻게 해. 고무줄

할 때에 여자들 고무줄 했지.)

111075 @ 경흐난 어디서 난마씨? 고무줄은.(그러니까 어디서 났어요? 고무줄은.)

111075 #2 어디서사 나신지 고무줄 헤다근앵 그 지금은 무슨 뭐 헤근앵 막 짤랑 뜨는 생이라 고무줄은.(어디서야 났는지 고무줄 해서 그 지금은 무슨 뭐 해서 막 잘라서 파는 모양이야 고무줄은.)

111075 @ 예.(예.)

111075 #2 고무줄더러 해주게.(고무줄더러 했지.)

111076 @ 고무줄 동작은 뭐, 뭐 했인지 기억나는 거 잇수광? 고무줄놀이 했던 거 좀 글아 줘서. 어르신 예전에 고무줄놀이 했던 거.(고무줄 동작은 뭐, 뭐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고무줄놀이 했던 거 좀 말해 주십시오. 어르신 예전에 고무줄놀이 했던 거.)

111076 #2 이 노래 불으멍 헛어. 고무줄 노래 불으멍.(이 노래 부르면서 헛어. 고무줄 노래 부르면서.)

111076 @ 노래 불으멍?(노래 부르면서?)

111076 #2 응.(응.)

111076 @ 무슨 노래 불렀주마씨? 그때는?(무슨 노래 불렀지요? 그때는?)

111076 # 몰라 뭐 산토끼, 산토끼 ㄴ튼 거 불렀주.(몰라 뭐 산토끼, 산토끼 같은 거 불렀지.)

줄넘기

111078 @ 그럼 줄넘기도 헛잖아예?(그럼 줄넘기도 헛잖아요?)

111078 #2 으. 그건 보통허지. 영 둘이 허여근앵 영 영 치민 넘어가곡 넘어가고.(어. 그건 보통허지. 이렇게 둘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111076 @ 둘이 허멍? 그럼 줄넘기는, 줄넘기는 어디서 난마씨? 그냥 굴러다니는 줄 췌인가마씨?(둘이 하면서? 그럼 줄넘기는, 줄넘기는 어디서 났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줄 췌었나요?)

111076 #2 그계 손으로게 꼬아근앵 짝 헤근앵.(그계 손으로 꼬아서 짤 해서.)

111076 @ 짝 헤근앵.(짤 해서.)

111076 #2 응. 꼬아근에게 영 둘이가 저디서 치고 이디서 영 치민 글로 훌훌 넘어가. 경 해주게. 우리 그때 그거허고 고무줄 해주게. 아까 오주메.(응. 꼬아서 이렇게 둘이가 저기서 치고 여기서 이렇게 치면 거기서 훌훌 넘어가. 그렇게 했지. 우리 그때 그거하고 고무줄 했지. 아까 오지미.)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기는 안 헛마씨?(그네뛰그는 안 했어요?)

111080 #2 안 허연. 그네뛰기 잇어사 해주게. 엇언.(안 헛어. 그네뛰기 잇어야

하지. 없었어.)

‘한다리인다리’

111082 @ 한다리인다리¹⁴⁵⁾ 알아마씨?(‘한다리인다리’ 알아요?)

111082 #2 어?(어?)

111082 @ 한다리인다리?(‘한다리인다리’?)

111082 #2 게 알주게. 영 한다리인다리 허는 거.(그럼 알지. 이렇게 ‘한다리인다리’ 하는 거.)

111082 @ 그건 어떻 허는 거마씨? 그거 처음 들어봬신디 한다리인다리.(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한다리인다리’.)

111082 #2 한다리인다리 무신거 잊어 붙엇인디. 다리들 영 폐와.(‘한다리인다리’ 무엇 잊어버렸는데. 다리들 이렇게 퍼.)

111082 @ 예.(예.)

111082 #2 경 헤낫주게.(그렇게 했었지.)

111084 @ 그럼 그건 어떻게 허면 이기는 거마씨?(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111084 #2 그 때 영 한다리인다리 무싱거옴 무싱거옴 행 딱 찍어.(그때 이렇게 ‘한다리인다리’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해서 딱 찍어.)

111084 @ 게난 이렇게 얘기 곶으난 기억나마씨?(그러니 이렇게 얘기 말하니까 기억나요?)

111084 #2 어.(어.)

12. 통과이레

출생

112001 @ 어르신 태교에 대해서 물어보젠 험신디예. 노인 회장한테 물어봤인디 잘 모르더라고예. 할아버지라 부난. 옛날에 태교는 어떻게 헛주마씨?(어르신 태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노인 회장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할아버지라 버리니까. 옛날에 태교는 어떻게 했지요?)

112001 #2 그 이제 노인 회장 그 사람은 이회고 우린 일회라.(그 이제 노인 회장 그 사람은은 이회고 우리는 일회야.)

112001 @ 아.(아.)

112001 #2 나보단 현 두 살 아래.(나보다는 한 두 살 아래.)

145) ‘한다리인다리’는 제주도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느 집의 마루나 평상 등 한 자리에 모여 편을 갈라 노래에 맞춰 손바닥으로 다리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다리세기를 하는 놀이이다. 놀이의 범위는 형제 자매, 부모에서부터 동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행해져 왔다.

112001 @ 태교는 어떻 해마씨?(태교는 어떻게 해요?)

112001 #2 태교가 무시거라?(태교가 무엇이야?)

112001 @ 태교 그러니까 애 배었을 때 그 준비하잖아예? 이제 애 낳을 준비하고.(태교 그러니까 애 배었을 때 그 준비하잖아요? 이제 애 낳을 준비하고.)

112001 #2 애 낳을 준비?(애 낳을 준비?)

112001 @ 예. 애 낳을 준비는 어떻게 허주마씨? 태교할 때?(예. 애 낳을 준비는 어떻게 하지요? 태교할 때.)

112001 #2 어떻 해게. 물질허당 놔둬. 애기 낳을 때 돼가민.(어떻게 해. 물질하다가 놔둬. 애기 낳을 때 되가면.)

112001 @ 예.(예.)

112001 #2 물질허당 낳곡. 옛날에는 보릿낭 위에서 낳앗주게.(물질하다가 낳고. 옛날에는 보릿짚 위에서도 낳았지.)

112001 @ 예.(예.)

112001 #2 보릿낭을 준비허여.(보릿짚을 준비해.)

112001 @ 예. 보릿낭마씨?(예. 보릿짚이요?)

112001 #2 으. 저 그 땐 가움이 엇이니깐.(어. 저 그 때는 가움이 없으니깐.)

112001 @ 예.(예.)

112001 #2 아기 내치면 막 피 쏟아지주게.(아기 내치면 막 피 쏟아지지.)

112001 @ 예.(예.)

112001 #2 게문 보릿낭을 준비행 낳다고. 아기 낳을 때 보릿낭을 깔앙 그 위에서 아기 낳았어.(그러면 보릿짚을 준비해서 낳다고. 아기 낳을 때 보릿짚을 깔아서 그 위에서 아기 낳았어.)

112002 @ 그럼 어디서 보통 출산헨마씨?(그럼 어디서 보통 출산했어요?)

112002 #2 방안에서 헛엇주게.(방안에서 헛엇지.)

112002 @ 아, 옛날에는 병원 안 가고?(아, 옛날에는 병원 안 가고?)

112002 #2 병원이 어디 셔?(병원이 어디 있어?)

112002 @ 그럼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잇지 았안마씨?(그럼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잇지 았았어요?)

112002 #2 도와주는 사람 동네에 영 애기 낳을 때 오는 사람도 잇고 경 안 하민 이녁냥으로 낳아야주게.(도와주는 사람 동네에 이렇게 애기 낳을 때 오는 사람도 잇고 그렇게 안 하면 스스로 낳아야지.)

112002 @ 어르신은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엇언마씨?(어르신은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112002 #2 별로 엇엇지. 시어멍 잇인 사람은 시어멍이 도와주고.(별로 없엇지. 시어머니 잇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112002 @ 그럼 애 배었을 때 요즘에는 막 좋은 음악 듣고 막 그러잖아예? 그런 거는 엇언마씨?(그럼 애 배었을 때 요즘에는 막 좋은 음악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

런 거는 없었어요?)

112002 #2 그런 거 엇엇주게. 밧에 일허당 어떤 사람은 질에서도 애 낳앗주게. 우리 마을 사람 질에서 아기 낳앗어.(그런 거 없었지. 밧에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질에서도 애 낳았지. 우리 마을 사람 질에서 아기 낳았어.)

112003 @ 그럼 그 태랑 텃줄 잇잖아예? 집에서 낳으면 태랑 텃줄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주마씨?(그럼 그 태랑 텃줄 잇잖아요? 집에서 낳으면 태랑 텃줄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지요?)

112003 #2 물어 물어. 저 어디 가근앵 그 물어. 막은 방쉬¹⁴⁶⁾ 말고.(문어 물어. 저 어디 가서 그 물어. 막은 '방쉬' 말고.)

112003 @ 예?(예?)

112003 #2 막은 방쉬라고 잇어.(막은 '방쉬'라고 잇어.)

112003 @ 막은 방쉬마씨?(막은 '방쉬'요?)

112003 #2 어.(어.)

112003 @ 그게 뭐짱?(그게 뭐입니까?)

112003 #2 새해에는 남 막아.(새해에는 남 막아.)

112003 @ 예.(예.)

112003 #2 새해에 이디 강 막아. 올히는 서 막앗어. 새해 나면 남 막아.(새해에 여기 가서 막아. 올히는 서 막았어. 새해 되면 남 막아.)

112003 @ 남쪽을 막아마씨?(남쪽을 막아요?)

112003 #2 어. 그 막은 쪽에는 안 가주게. 막은 쪽에 가면 다신 아기 못 낳은다고 해서. 경 해서 안 막은 쪽에 가서 물어 땅에.(어. 그 막은 쪽에는 안 가지. 막은 쪽에 가면 다신는 아기 못 낳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막은 쪽에 가서 물어 땅에.)

112004 @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도 엇일 거 같은데 그래도 산모만 이렇게 애 낳으면 기력 보충하라고 음식 좀 좋은 거 해주잖아예?(그러면 지금은 옛날에도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산모만 이렇게 애 낳으면 기력 보충하라고 음식 좀 좋은 거 해주잖아요?)

112004 #2 메역국 헛주게. 메역국.(미역국 했지. 미역국.)

112004 @ 메역국. 그거 말고 또 엇엇인가마씨?(미역국. 그거 말고 또 없었나요?)

112004 #2 엇주게게 무신.(없지 무슨.)

112005 @ 그 아기 나오면 모욕 시켜야 하잖아예?(그 아기 나오면 모욕 시켜야 하잖아요?)

112005 #2 어.(어.)

112005 @ 그럼 아기 모욕은 어떻 시켜마씨? 그냥 물에다 막 하면 안 돼잖아

146) '방쉬'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방법, 방세'라고도 한다.

예?(그럼 아기 목욕은 어떻게 시켜요? 그냥 물에다 막 하면 안 되잖아요?)

112005 #2 숙 허영 숙 숲양.(숙 해서 숙 삶아서.)

112005 @ 아, 예.(아. 예.)

112005 #2 숙 숲양 이제도 경 숙 숲양 허민 피부가 예뻐.(숙 삶아서 이제도 그렇게 숙 삶아서 하면 피부가 예뻐.)

112005 @ 아.(아.)

112005 #2 숙 숲아근엥 깨끗이 씻쳐.(숙 삶아서 깨끗이 씻겨.)

112005 @ 숙물로?(숙물로?)

112005 #2 어.(어.)

112006 @ 그럼 깃저고리 알아마씨? 어르신 깃저고리?(그럼 깃저고리 알아요? 어르신 깃저고리?)

112006 #2 깃저고리는 그 저 베로.(깃저고리는 그 저 베로.)

112006 @ 예.(예.)

112006 #2 아기 낳은 때에 입주는 것이 베적삼이라고.(아기 낳은 때에 입히는 것이 베적삼이라고.)

112006 @ 아, 베적삼.(아, 베적삼.)

112006 #2 아기마다 입져.(아기마다 입혀.)

112006 @ 예.(예.)

112006 #2 베는 사락사락헌 거난 그 이 몸이 막 굼어지라고 옛날 이제는 깨끗하게 뭐 목욕을 시켰주마는 옛날에는게 추운 때 낳으면 목욕도 잘 못 시키난 그거를 입져. 이 피부 아멩헤도 좋게 허라고 입주는 생이라. 베 경 행 입졌다근엥 흐쫄흔 칠 일 동안 입져. 경 헛다근엥 그거 빨앙 낫다가 또 아기 낳으면 입지고. 경 허여.(베는 사락사락헌 거니까 그 이 몸이 막 굼어지라고 옛날 이제는 깨끗하게 뭐 목욕을 시켰지만 옛날에는 추운 때 낳으면 목욕도 잘 못 시키니까 그거를 입혀. 이 피부 아무리 하여도 좋게 하라고 입히는 모양이야. 베 그렇게 해서 입혔다가 조금 한 칠 일 동안 입혀. 그렇게 했다가 그거 빨아서 낫다가 또 아기 낳으면 입히고. 그렇게 해.)

112007 @ 할망상¹⁴⁷⁾ 들어보션마씨?(‘할망상’ 들어보셨어요?)

112007 #2 게.(그럼.)

112007 @ 할망상은 뭐마씨?(‘할망상’은 뭐예요?)

112007 #2 그 애기가 아프면 그 심방 돌아와근엥 할망상 놔. 그 옛날엔 그 옛날에 할망이 애기 배우곡 내우곡 헛어 그 할망이. 옛날에 경흐난 그 할망을 위허는 거라. 계난 할망상 놔 그 할망신디 비는 거라.(그 애기가 아프면 그 무당 데려와서 ‘할망상’ 놔. 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 할머니가 애기 배고 내고 헛어 그 할머니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위하는 거야. 그러니 ‘할망상’ 놔서 그 할머니에게 비는

147)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거야.)

112007 @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거구나예?(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거군요?)

112007 #2 어. 채려근엥 심방 빌어당 그 할망신디 애기 잘 키워주고 아픈 거 좋게 해 줘서 허여. 또 홍역 잇잖아 홍역.(어. 차려서 무당 빌려다가 그 할머니에게 애기 잘 키워주고 아픈 거 좋게 해 주십시오 해. 또 홍역 잇잖아. 홍역.)

112007 @ 홍역마씨?(홍역이요?)

112007 #2 어.(어.)

112007 @ 그게 뭐짱? 홍역이.(그게 뭐입니까? 홍역이.)

112007 #2 이젠 예방접종 해부난 안 허여.(이제는 예방접종 해버리니까 안 해.)

112007 @ 아, 홍역, 홍역.(아, 홍역, 홍역.)

112007 #2 어. 홍역. 홍역하는데 거는 남저라. 남저귀신.(어. 홍역. 홍역하는데 그거는 남자야. 남자귀신.)

112007 @ 아.(아.)

112007 #2 애기는 할망이고 애기귀신은 할망이고 그 홍역은 남저라. 남저가 이제 이 집안에 들어와.(애기는 할머니이고 애기귀신은 할머니이고 그 홍역은 남자야. 남자가 이제 이 집안에 들어와.)

112007 @ 예.(예.)

112007 #2 들어와서 그 홍역은 이제 그트민 군대 갖다오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허여.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허민 그 그 남저귀신은 홍역할 때 막 흥을 잘 봐. 담배 피우, 그 애기 아픈 때 그 홍역할 때 담배 피우거나 고기를 굽거나 그런 나쁜 짓 허민 막 아기 아파. 경 허민 그 홍역상 낱 막 빌어.(들어와서 그 홍역은 이제 같으면 군대 갖다오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해.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하면 그 그 남저귀신은 홍역할 때 막 흥을 잘 봐. 담배 피우, 그 애기 아픈 때 그 홍역할 때 담배 피우거나 고기를 굽거나 그런 나쁜 짓 하면 막 아기 아파. 그렇게 하면 그 ‘홍역상’ 와서 막 빌어.)

112007 @ 음.(음.)

112007 #2 빌고 잘못허당 죽는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보난 저 열 막 나주게 홍역할 때.(빌고 잘못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보니 저 열 막 나지 홍역할 때.)

112007 @ 예.(예.)

112007 #2 게민 그건 잘못허민 죽는 거주게. 귀신이 잇인지 잇인지 병원 엇고 허난 그 미신을 지경 살앗주게.(그러면 그건 잘못하면 죽는 거지. 귀신이 잇는지 없는지 병원 엇고 하니까 그 미신을 지켜서 살았지.)

112007 @ 기주마씨. 병원 엇이난.(그렇지요. 병원 없으니까.)

112007 #2 경허난 우리도 애기 서이는 홍역헛어. 그 다음에는 예방접종 허난 안 허고 그 전에는 세 명이 헛어. 열 막 나고. 막 허여. 경 허영 그거 사람마다 하는 모양이라 그건 아무나. 꼭 해야 웰 일. 겐디 그거를 예방허니깐 안 험서 지금은.(그

러니까 우리도 애기 셋은 흥역했어. 그 다음에는 예방접종 하니 안 하고 그 전에는 세 명이 했어. 열 막 나고. 막 해. 그렇게 해서 그거 사람마다 하는 모양이야 그건 아무나. 꼭 해야 될 일. 그런데 그거를 예방하니까 안 하고 있어 지금은.)

112007 @ 그 배냇머리도 하잖아예?(그 배냇머리도 하잖아요?)

112007 #2 무싱거?(무엇?)

112007 @ 배냇, 배냇머리는 안 들어보셨마씨? 배냇머리?(배냇, 배냇머리는 안 들어보셨어요? 배냇머리?)

112007 #2 배냇머리가 뭐라? 그건 똥 허는 거라?(배냇머리가 뭐야? 그거는 무엇 하는 거야?)

112008 @ 그 애 이렇게 태어나면 머리가 머리털 한 번도 안 깎은 거 잇잖아예? 머리털 맨 처음에 깎잖아예?(그 애 이렇게 태어나면 머리가 머리털 한 번도 안 깎은 거 잇잖아요? 머리털 맨 처음에 깎잖아요?)

112008 #2 어.(어.)

112008 @ 애기 그게 그거는 안 깎아마씨? 애기 머리털은?(애기 그게 그거는 안 깎아요? 애기 머리털은?)

112008 #2 그거는 스월 초파일날 깎아.(그거는 사월 초파일날 깎아.)

112008 @ 아, 사월 초파일날마씨? 누가 깎아마씨?(아, 사월 초파일날요? 누가 깎아요?)

112008 #2 아무라도게 아무라도 스월 초파일날 깎아야 그 아이가 좋다고 했어.(아무라도 아무라도 사월 초파일날 깎아야 그 아이가 좋다고 했어.)

112009 @ 그 아까 흥역은 말씀해주셨고. 어르신 천연두도 알아마씨? 천연두?(그 아까 흥역은 말씀해주셨고. 어르신 천연두도 알아요? 천연두?)

112009 #2 그건 모르켄게. 천연두가 뭐 허는 거라?(그건 모르겠다. 천연두가 뭐 하는 거야?)

112010 @ 그럼 출산할 때 뭐 허지 마라 뭐 보지 마라 그런 건 엇언마씨? 출산할 때?(그럼 출산할 때 뭐 하지 마라 뭐 보지 마라 그런 거는 없었어요? 출산할 때?)

112010 #2 애기 낳아근엥 혼 삼일 전이는 저 사람 잘 가지 말아야주게. 육지는 남저나면 고치 돌아멩 줄 매어 사람 오지 말라고.(애기 낳아서 한 삼일 전에는 저 사람 잘 가지 말아야지. 육지는 남자나면 고추 달아매어서 줄 매어 사람 오지 말라고.)

112010 @ 육지는 경 허는디 제주도는 뭐 엇언마씨?(육지는 그렇게 하는데 제주도는 뭐 없었어요?)

112010 #2 제주도는 그런 건 엇엇인디 조금 조심해근엥 오지 았앗주게.(제주도는 그런 건 없었는데 조금 조심해서 오지 았앗지.)

112001 @ 음 지금은 막 애 이렇게 배면 태교한다고 하잖아예? 막 좋은 거 보고. 애 배면. 옛날에는 태교 같은 거 뭐 엇엇수광? 어르신 이렇게 애기 이렇게 안에

있을 때 허는 거마씨. 태교.(음 지금은 막 애 이렇게 배면 태교한다고 하잖아요? 막 좋은 거 보고. 애 배면. 옛날에는 태교 같은 거 뭐 없었습니까? 어르신 이렇게 애기 이렇게 안에 있을 때 하는 거요. 태교.)

112001 #3 뭐?(뭐?)

112001 @ 태교. 그 애기 배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해야 돼잖아예.(태교. 그 애기 배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해야 되잖아요.)

112001 #3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셔.(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

112001 @ 아.(아.)

112001 #3 돈 엇영 사 먹지도 못하고 경 헛주게.(돈 없어서 사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지.)

112001 @ 아, 기짱. 그래도 주변에서 임신하면 막 축하합니다허면서 그런 건 엇 언마씨?(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임신하면 막 축하합니다하면서 그런 건 없었어요?)

112001 #3 무사 엇어? 그추룩은 허긴 허는디.(왜 엇어? 그처럼은 하기는 하는데.)

112001 @ 예.(예.)

112001 #3 옛날 옛날에는 돈 엇영 뭐 사 먹지 못 허연.(옛날 옛날에는 돈 없어서 뭐 사 먹지 못 했어.)

112002 @ 아, 그럼 옛날에는 출산 준비 헛잖아예?(아, 그럼 옛날에는 출산 준비 헛잖아요?)

112002 #3 응.(응.)

112002 @ 애기 나오젠 허면 그 준비는 어떻게 헛마씨?(애기 나오려고 하면 그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112002 #3 아이고 옛날엔 이제 병원에 가근영 낳는디. 옛날은 집이서만.(아이고 옛날에는 이제는 병원에 가서 낳는데. 옛날은 집에서만.)

112002 @ 집이서만?(집에서만?)

112002 #3 힘들게 낳아.(힘들게 낳아.)

112002 @ 힘들게 낳아마씨?(힘들게 낳아요?)

112002 #3 어.(어.)

112002 @ 그럼 집에서 출산헛마씨? 그럼 출산할 때 도와주는 사람 어떻 잇지 않안마씨?(그럼 집에서 출산했어요? 그럼 출산할 때 도와주는 사람 어떻게 잇지 않았어요?)

112002 #3 도와주는 사람 이제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나 시민 다 도와주고.(도와주는 사람 이제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112003 @ 아, 다 도와줬마씨. 아, 기구나예. 그럼 이제 딱 애 낳으면 탯줄이나 태 잇잖아예?(아, 다 도와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딱 애 낳으면 탯줄이나 태 잇잖아요?)

112003 #3 어.(어.)

112003 @ 그럼 그거는 옛날에 지금은 병원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 헨마씨?
(그럼 그거는 옛날에 지금은 병원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12003 #3 옛날에는 집이서 ㄴ세로 ㄴ세로 꿩 줄라매면 돼주게.(옛날에는 집에서 가위로 가위로 꿩어서 잘라매면 되지.)

112003 @ 아, 줄라맨마씨. 그럼 그 남은 건 버려마씨?(아, 잘라냈어요. 그럼 그 남은 건 버렸어요?)

112003 #3 그거 어느만히 시게 허영 그 해뵈 일로 꿩어근영 이리 딱 묶으면 그거 이제 말제에 막 오래 헤사 떨어지주게. 그 줄이.(그거 어느만치 세게 해서 그 해뵈서 여기로 꿩어서 이리 딱 묶으면 그거 이제 나중에 막 오래 해야 떨어지지. 그 줄이.)

112003 @ 예.(예.)

112003 #3 게민 그때사 베똥줄 털어젓저허는 거주게.(그러면 그때야 텃줄 떨어졌다하는 거지.)

112003 @ 베똥줄?(텃줄?)

112003 #3 응.(응.)

112003 @ 아, 그거 베똥줄이라고 헨마씨?(아, 그거 ‘베똥줄’이라고 해요?)

112003 #3 어. 그것ㄴ라 베똥줄이라고 해.(어. 그것더러 ‘베똥줄’이라고 해.)

112004 @ 그럼 그 얘기 낱으면 어르신 몸보신 해야 돼잖아예?(그럼 그 얘기 낱으면 어르신 몸보신 해야 되잖아요?)

112003 #3 응.(응.)

112004 @ 그럼 그때는 보통 음식 뭐 해 드션마씨?(그럼 그때는 보통 음식 뭐 해 드셨어요?)

112004 #3 아이고 이 사람아. 음식 옛날엔 보리밥배끼 엇엇지.(아이고 이 사람아. 음식 옛날에는 보리밥밖에 없었지.)

112004 @ 아. 그것밖에 엇언마씨?(아, 그것밖에 없었어요?)

112004 #3 어.(어.)

112004 @ 요즘에는 미역국, 곰국 이것저것 먹잖아예? 옛날에는 뭐 그래도 드신 거 엇언마씨?(요즘에는 미역국, 곰국 이것저것 먹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래도 드신 거 없었어요?)

112004 #3 경 해도 메역국은 줏주게.(그렇게 해도 미역국은 줏지.)

112004 @ 아, 메역국은 드션마씨?(아, 미역국은 드셨어요?)

112004 #3 응.(응.)

112005 @ 그럼 얘기 이제 태어나면 목욕 시켜야 돼잖아예? 그 목욕은 언제 시켜마씨?(글머 얘기 이제 태어나면 목욕 시켜야 되잖아요? 그 목욕은 언제 시켜요?)

112005 #3 금방이라도.(금방이라도.)

112005 @ 예.(예.)

112005 #3 물 데와근앵 큰 영 통에 낱 들이쳐근앵 그냥 거 그디서 영 영 허주
게.(물 데워서 큰 이렇게 통에 놔서 들이쳐서 그냥 거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112005 @ 아, 경 혜근앵 목욕 시켜마씨?(아, 그렇게 해서 목욕 시켜요?)

112005 #3 경 행 기저귀에 쌓근앵 다시 혼 이틀 아니면 사흘 싯당 또 경 허고
헛주.(그렇게 해서 기저귀에 쌓아서 다시 한 이틀 아니면 사흘 있다가 또 그렇게 하
고 했지.)

112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2005 #3 몇 번 몇 번 모욕 허주게.(몇 번 몇 번 목욕 하지.)

112006 @ 그럼 그 깃저고리도 알아마씨? 깃저고리?(그럼 그 깃저고리도 알아
요? 깃저고리?)

112006 #3 깃저고리는 어뎡 허당 이녁냥으로 맨들영 입지는 사람은 허곡. 사근
앵 허는 사람은 상.(깃저고리는 어떻게 하다가 자기대로 만들어서 입히는 사람은 하
고. 사서 하는 사람은 사서.)

112006 @ 그건 어뎡 만드는 거마씨? 깃저고리? 깃저고리 나 뭘 줄 몰라 부난
좁 굴아 줍서.(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깃저고리? 깃저고리 나 뭘 줄 몰라 버리
니까 좁 말해 주십시오.)

112006 #3 영 허영 길게 허영 그 저고리 입으면 이 몸뎡이가 전부 감춰지주게.
(이렇게 해서 길게 해서 그 저고리 입으면 이 몸이 전부 감춰지지.)

112006 @ 아.(아.)

112006 #3 아기가 흐끌락흐난.(아기가 아주 작으니까.)

112006 @ 예.(예.)

112006 #3 그것이 그거주게 깃저고리.(그것이 그거지 깃저고리.)

112006 @ 그럼 옛날에도 깃저고리 다 행 입언마씨?(그럼 옛날에도 깃저고리 다
해서 입었어요?)

112006 #3 그것만 입젓주게 뵈이 잇어.(그것만 입혔지 뵈이 잇어.)

112007 @ 어르신 그럼 할망상도 알아마씨? 할망상? 할망상은 들어보션마씨?(어
르신 그럼 ‘할망상’도 알아요? ‘할망상’? ‘할망상’은 들어보셨어요?)

112007 #3 할망상?(‘할망상’?)

112007 @ 예. 할망상.(예. ‘할망상’.)

112007 #3 아기가 퀘로우민.(아기가 괴로우면.)

112007 @ 예.(예.)

112007 #3 아프거나 어뎡 허민 이제 심방허는 할망 돌아당 좋게 해 줍서 빌민
좋아.(아프거나 어떻게 하면 이제 무당하는 할머니 데려다가 좋게 해 주십시오 빌민
좋아.)

112007 @ 아, 그럼 그게 할망상마씨?(아, 그럼 그게 ‘할망상’이에요?)

112007 #3 어.(어.)

112008 @ 그럼 배넛머리 잇잖아예? 배넛머리. 배넛머리 들어봤수광? 배넛머

리?(그럼 배넛머리 있잖아요? 배넛머리. 배넛머리 들어봤습니까? 배넛머리?)

112008 #3 배넛머리가 뭐여?(배넛머리가 뭐여?)

112008 @ 배넛머리는 모르쿠와? 그럼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예.(배넛머리는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112009 @ 그러면 그 애기 낳으면 천연두나 홍역 같은 거 어릴 때 걸릴 수 있잖아예? 그거 예방하젠 허민 요즘은 병원 강 주사 맞는데.(그러면 그 애기 낳으면 천연두나 홍역 같은 거 어릴 때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거 예방하려고 하면 요즘은 병원 가서 주사 맞는데.)

112009 #3 아이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못 허연.(아이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못했어.)

112009 @ 그것도 못 헨마씨?(그것도 못 했어요?)

112009 #3 엇어 엇어. 허지를 안 허여.(없어 없어. 허지를 안 해.)

112009 @ 뭐 민간요법은 엇엇수광? 집에서 웬장 같은 거 바르거나 그런 민간요법은 엇언마씨? 병원 엇이른 다른 거 뭐 엇언마씨?(뭐 민간요법은 없었습니까? 집에서 된장 같은 거 바르거나 그런 민간요법은 없었어요? 병원 없으면 다른 거 뭐 없었어요?)

112009 #3 다른 거 엇어. 아기 뭐 먹어근앵 좋은 건 엇고.(다른 거 없어. 아기 뭐 먹어서 좋은 건 없고.)

112009 @ 예.(예.)

112009 #3 어멍이나 먹음배끼.(어머니나 먹음밖에.)

112010 @ 그럼 출산할 때 금기사항 잇엇수광? 애기 낳을 때 뭐 허지 마라 뭐 허지 마라 그런 거.(그럼 출산할 때 금기사항 잇엇습니까? 애기 낳을 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

112010 #3 그런 건 엇언.(그런 건 없었어.)

112010 @ 그러니까 애기 낳을 때 뭐 먹지 마라. 그런 거.(그러니까 애기 낳을 때 뭐 먹지 마라. 그런 거.)

112010 #3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2010 @ 술도 먹지 말고 요즘 같으면.(술도 먹지 말고 요즘 같으면.)

112010 #3 그 옛날은 술이 이젠 여자고 남저고 다 먹어도 옛날엔 여자들은 술 아니 먹엇어.(그 옛날은 술이 이제는 여자고 남자고 다 먹어도 옛날에는 여자들은 술 안 먹엇어.)

112010 @ 그럼 뭐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엇엇수광?(그럼 뭐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없었습니까?)

112010 #3 아니, 몬딱 먹어.(아니, 전부 먹어.)

112010 @ 아, 몬딱 먹어마씨. 기구나예.(아, 전부 먹어요. 그렇군요.)

혼례

112011 @ 어르신 그 옛날에 결혼할 때 옛날 결혼식은 절차가 어떻 돼주마씨? 요즘이랑 같은가마씨? 결혼식?(어르신 그 옛날에 결혼할 때 옛날 결혼식은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요즘이랑 같은가요? 결혼식?)

112011 #1 그 육지식으로 여기는 그렇게 안 했주게.(그 육지식으로는 여기는 그렇게 안 했지.)

112011 @ 예. 제주식으로는?(예. 제주식으로는?)

112011 #1 어렵고 하니까 제주도는 특히나 이쪽에는 더 어렵고 하니까 그 옛날 그 혼례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했주 뒤. 사모관대 족두리 써근엔 결혼을 했고 한 육십 년대 육십 년대 전후 오십팔 오십, 오십 년대 후반 육십 년대 초에는 사모관대 족두리 쓴 그 옛날식으로도 결혼했고.(어렵고 하니까 제주도는 특히나 이쪽에는 더 어렵고 하니까 그 옛날 그 혼례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했지 뒤. 사모관대 족두리 써서 결혼을 했고 한 육십 년대 육십 년대 전후 오십팔 오십, 오십 년대 후반 육십 년대 초에는 사모관대 족두리 쓴 그 옛날식으로도 결혼했고.)

112011 @ 예.(예.)

112011 #1 양복 면사포 써근엔 신식으로 했고 했는데. 뭐 그건 무슨 걸 물어보는 거라?(양복 면사포 써서 신식으로 했고 했는데. 뭐 그건 무슨 거를 물어보는 거야?)

112011 @ 그냥 절차하고 인사하고 예전이랑 지금이랑 어떻 달라마씨?(그냥 절차하고 인사하고 예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요?)

112011 #1 아, 계난 옛날에는 그 육지는 신부 집에서 택일을 허주게.(아, 그러니 옛날에는 그 육지는 신부 집에서 택일을 하지.)

112011 @ 예.(예.)

112011 #1 근디 여기는 그 남자가 그 여자 측에 청혼을 해서.(근데 여기는 그 남자가 그 여자 측에 청혼을 해서.)

112011 @ 예.(예.)

112011 #1 거기에 그 나이를 그 나이 생년월일 받아다가 사주를 봐서 그 날짜를 정해근엔 그 신부 댁에 보냈주게.(거기에 그 나이를 그 나이 생년월일 받아다가 사주를 봐서 그 날짜를 정해서 그 신부 댁에 보냈지.)

112011 @ 예.(예.)

112011 #1 그것이 남편이. 계경 해서 이제 결혼을 허는데. 그 결혼식 날은 보통 뭐 여러 가지 집안마다 허지만은 가기 전에 대문에서 잘 갔다 오겠다고 해서 그 신랑이 문전에 절 허고 이제 그 뭐냐 여기서 그 신부 데리고 올 사람.(그것이 남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허는데. 그 결혼식 날은 보통 뭐 여러 가지 집안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대문에서 잘 갔다 오겠다고 해서 그 신랑이 문전에 절 하고 이제 그 뭐냐 여기서 그 신부 데리고 올 사람.)

112011 @ 예.(예.)

112011 #1 신부 데려올 그 들러리 영 데려올 사람도 허고 또 옛날엔 마을마다

저 마을 일을 봐주는 심부름 허는 사람 잇었어.(신부 데려올 그 들러리 이렇게 데려올 사람도 하고 또 옛날에는 마을마다 저 마을 일을 봐주는 심부름 하는 사람 잇었어.)

112011 @ 예.(예.)

112011 #1 게심부름 허는 사람 같이 그 말을 잡아주 말. 게니깐 말 탕 가게 댜면 신랑 말이 어디 뛰어갈 수 잇으니까 그 심부름 말 심부름 허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신부 집에 가면은 이제 뭐 그 집안마다 여러 가지 잇주게. 이녁 집안이 권위가 잇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뭐냐 예장 들이는 데도 그 차이가 잇주만은 보통 어 신랑 부모를 대신한 사람이 예장을 들여. 신부 댜에. 신부 댜에 예장을 들이고 거기서 오케이 허면은 들어가서 이제 상 받고 신부 가마에 태우고 영 오는디 그렇게 허민 여기 와서 끌이고. 뭐 주로 에 여기 들어오면은 신부가 어느 방향으로 앞으라는 것까지는.(심부름 하는 사람 같이 그 말을 잡아서 갔지 말. 그러니까 말 타서 가게 되면 신랑 말이 어디 뛰어갈 수 잇으니까 그 심부름 말 심부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신부 집에 가면은 이제 뭐 그 집안마다 여러 가지 잇지. 이녁 집안이 권위가 잇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뭐냐 예장 들이는 데도 그 차이가 잇지만 보통 어 신랑 부모를 대신한 사람이 예장을 들여. 신부 댜에. 신부 댜에 예장을 들이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 들어가서 이제 상 받고 신부 가마에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와서 끌이고. 뭐 주로 에 여기 들어오면 신부가 어느 방향으로 앞으라는 것까지는)

112011 @ 예.(예.)

112011 #1 정해졌어 그 당시 뭐 그 당시.(정해졌어 그 당시 뭐 그 당시.)

112011 @ 예.(예.)

112011 #1 그 당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밥상을 받으라 허는 것까지 허고. 그 옛날, 옛날 그 육지는 뭐 여기서 영 해근엥 뭐 독도 놔근엥 허던데 이턴 그런 것은 엇고. 어 이제 신식으로 이제 그 양복 입엥 결혼할 때는 요 헌 육십 년대 후반 댜면은 트럭을 이용했는데.(그 당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밥상을 받으라 하는 것까지 하고. 그 옛날, 옛날 그 육지는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닭도 놔서 하던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고. 어 이제 신식으로 이제 그 양복 입어서 결혼할 때는 요 한 육십 년대 후반 되면 트럭을 이용했는데.)

112011 @ 예.(예.)

112011 #1 그전이는 걸어서 하고.(그전에는 걸어서 하고.)

112011 @ 아.(아.)

112012 @ 예전에는 중매가 그래도 좀 많았지예?(예전에는 중매가 그래도 좀 많았지요?)

112012 #1 그주게.(그렇지.)

112012 @ 그럼 마을마다 중매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잇언마씨?(그럼 마을마다 중매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잇었어.)

112012 #1 아니 그런 사람은 엇고.(아니 그런 사람은 없고.)
 112012 @ 예.(예.)
 112012 #1 뭐 보통 친척을 통해서 서로 소개를 받거나. 경 허주게.(뭐 보통 친척을 통해서 서로 소개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112013 @ 그럼 막펜지¹⁴⁸가 뭐마씨? 막펜지.(그럼 ‘막펜지’가 뭐예요? ‘막펜지’.)
 112013 #1 막펜지가.(‘막펜지’가.)
 112012 @ 예.(예.)
 112012 #1 몇 날 며칠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해근영 신부 측에 통보하는 걸 막펜지라고 허는 거주게.(몇 날 며칠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신부 측에 통보하는 거를 ‘막펜지’라고 하는 거지.)
 112013 @ 신랑이 신부 측에마씨?(신랑이 신부 측에요?)
 112013 #1 신랑 댁에서.(신랑 댁에서.)
 112013 @ 예.(예.)
 112013 #1 제주도는.(제주도는.)
 112013 @ 예.(예.)
 112013 #1 육지는 신부 댁에서 택일하는데.(육지는 신부 댁에서 택일하는데.)
 112013 @ 예.(예.)
 112013 #1 여기는 신랑 쪽에서 신부 사주엔 헌 거는 생년월일이주게.(여기는 신랑 쪽에서 신부 사주라 한 거는 생년월일이지.)
 112013 @ 예.(예.)
 112013 #1 사주를 받아근영 서로 사주를 봐가지고 궁합이 맞으면은 언제 택일 허는 거. 궁합이 맞으면 맞으면 이제 그 서로 통제도 하고.(사주를 받아서 서로 사주를 봐가지고 궁합이 맞으면 언제 택일하는 거. 궁합이 맞으면 맞으면 이제 그 서로 통제도 하고.)
 112013 @ 예.(예.)
 112013 #1 막펜지는 어느 날 몇 시에 신부 댁에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허는 것이 막펜지라.(‘막펜지’는 어느 날 몇 시에 신부 댁에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하는 것이 ‘막펜지’야.)
 112013 @ 신랑이 그 신부 뭐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마씨?(신랑이 그 신부 뭐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112013 #1 신랑 아방이.(신랑 아버지가.)
 112013 @ 신랑 아버지가.(신랑 아버지가.)
 112013 #1 신부 부모.(신부 부모.)
 112014 @ 그럼 이바지는 뭐 하는 거마씨? 이바지. 어디서 준비하는 거마씨?(그

148)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 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럼 이바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바지. 어디서 준비하는 거예요?)

112014 #1 이바지 음식은 신부 댁에서.(이바지 음식은 신부 댁에서.)

112014 @ 예.(예.)

112014 #1 그 신랑 집에 허는 건데. 거의 뭐 이바지 음식. 뭐 여기는 그런 거 했주. 신부 댁에 갈 때.(그 신랑 집에 하는 건데. 거의 뭐 이바지 음식. 뭐 여기는 그런 거 했지. 신부 댁에 갈 때.)

112014 @ 예.(예.)

112014 #1 여기서 돼지 다리 하나를 신부 데리러 갈 때 가져가곡. 신부 댁에서 당일 답례를 허는데.(여기서 돼지 다리 하나를 신부 데리러 갈 때 가져가고. 신부 댁에서 당일 답례를 하는데.)

112014 @ 예.(예.)

112014 #1 이바지엔 현 건 사실상 어 신랑이 신부 댁에 가서 하룻밤 장 올 때 신부 댁에서 신랑 집에 보내는 음식이주게.(이바지라고 한 거는 사실상 어 신랑이 신부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 때 신부 댁에서 신랑 집에 보내는 음식이지.)

112014 @ 예.(예.)

112014 #1 겐디 이 우리 마을은 이 근방은 이바지 음식 해난 지가 우리 우리가 알기로는 엇언.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게워 이바지 음식 헐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을 못 했으니까.(그런데 이 우리 마을은 이 근방은 이바지 음식 했던 지가 우리 우리가 알기로는 없었어.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뭐 이바지 음식 할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을 못 했으니까.)

112015 @ 그럼 뭐 혼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안 했겠다예?(그럼 뭐 혼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안 했겠군요?)

112015 #1 그렇지 혼수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불, 요. 그때는 자식들 많이 날 때니까.(그렇지 혼수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불, 요. 그때는 자식들 많이 날 때니까.)

112015 @ 예.(예.)

112015 #1 이불, 요 네 채 정도 가져오면 잘 헛젠 허고.(이불, 요 네 채 정도 가져오면 잘 했다고 하고.)

112016 @ 그럼 예장은 뭐하는 거마씨?(그럼 예장은 뭐하는 거예요?)

112016 #1 예장은 그 신랑 아버지가.(예장은 그 신랑 아버지가.)

112016 @ 예.(예.)

112016 #1 신부 아버지한테.(신부 아버지한테.)

112016 @ 예.(예.)

112016 #1 딸을 게난 예장은 딸을 줘서 감사합니다 해근앵 신부를 데리러 가명 가명 어 그 옛날에는 신랑 아버지를 대신행 친족 대표가.(딸을 그러니 예장은 딸을 줘서 감사합니다해서 신부를 데리러 가면서 가면서 어 그 옛날에는 신랑 아버지를 대신해서 친족 대표가.)

112016 @ 예.(예.)

112016 #1 예장을 갖고 갖추게.(예장을 갖고 갔지.)

112016 @ 아.(아.)

112016 #1 가서 이제 신부 집에 들어근영 주는 거주게. 옛날은 예장 때문에 다 톱도 하영 낫지. 글자 하나가 틀려도 틀렸다고 해근영 안 받고.(가서 이제 신부 집에 들어서 주는 거지. 옛날은 예장 때문에 다 톱도 많이 낫지. 글자 하나가 틀려도 틀렸다고 해서 안 받고.)

112016 @ 아, 진짜마씨?(아, 진짜요?)

112016 #1 또 어떤 때는 신랑이 틀리게 써 가근영.(또 어떤 때는 신랑이 틀리게 써 가서.)

112016 @ 예.(예.)

112016 #1 틀렸젠 허면은 필, 먹 가져오렌 행 마루에서 예장 또 쓰고.(틀렸다고 하면 필, 먹 가져오라고 해서 마루에서 예장 또 쓰고.)

112016 @ 아.(아.)

112016 #1 그건 신랑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근디 예장은.(그건 신랑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장은.)

112016 @ 예.(예.)

112016 #1 결혼 당일 날.(결혼 당일 날.)

112016 @ 아, 당일 날마씨?(아, 당일 날이요?)

112016 #1 당일 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당일 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112016 @ 아.(아.)

112016 #1 요즘은 쉽게 말행 거.(요즘은 쉽게 말해서 거.)

112016 @ 함?(함?)

112016 #1 함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아니 함, 함이랑 거의 비슷허여. 함에다가 예장 낱 가는 경우도 있고. 경 허는데.(함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아니 함, 함이랑 거의 비슷해. 함에다가 예장 놔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112016 @ 예.(예.)

112016 #1 함 저 개념은 함하고 틀릴 거라.(함 저 개념은 함하고 다른 거야.)

112016 @ 예.(예.)

112016 #1 여기는 그 함이나 비슷허겠다. 함 비슷헌데.(여기는 그 함이나 비슷 하겠다. 함 비슷한데.)

112016 @ 예.(예.)

112016 #1 이쪽에는 함 거의 안 쓰주게.(이쪽에는 함 거의 안 쓰지.)

112016 @ 아, 안 써마씨?(아, 안 써요?)

112016 #1 봉투에 그 문서만 담아근영 가주게. 저 어디 제주시나 저쪽은 함에 뭐냐 그 예장도 써 놓곡 행 또 거기 또 그 신부 예단.(봉투에 그 문서만 담아서 가지. 저 어디 제주시나 저쪽은 함에 뭐냐 그 예장도 써 놓고 해서 또 거기 또 그 신

부 예단.)

112016 @ 예.(예.)

112016 #1 그런 것도 농곡 혜영 하느디 여기는 함 제도가 거의 없어. 여기는 그냥 봉투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큰아들하고 닥의 따님을 맺어서 뭐 허는 인사 편지로 허는 거주게.(그런 것도 놓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함 제도가 거의 없어. 여기는 그냥 봉투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큰아들하고 닥의 따님을 맺어서 뭐 허는 인사 편지로 하는 거지.)

112017 @ 그럼 가문잔치¹⁴⁹는 어 뭐허는 거마씨?(그럼 ‘가문잔치’는 어 뭐하는 거예요?)

112017 #1 가문잔치는 보통 결혼식 전날.(‘가문잔치’는 보통 결혼식 전날.)

112017 @ 예.(예.)

112017 #1 원래는 친족들만 모여서 잔치한다는 건데.(원래는 친족들만 모여서 잔치한다는 건데.)

112017 @ 그믐 친족은 어느 정도까지마씨? 팔촌?(그러면 친족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팔촌?)

112017 #1 옛날에는 뭐 팔촌이고 열촌이고 만약 가까운데 살면은 뭐 삼십촌이라도 뭐 허고 성가 웨가 이렇게 모여서.(옛날에는 뭐 팔촌이고 열촌이고 만약 가까운데 살면 뭐 삼십촌이라도 뭐 하고 성가 외가 이렇게 모여서.)

112017 @ 예.(예.)

112017 #1 그 가문잔치 가족잔치를 헛주. 가족잔치.(그 ‘가문잔치’ 가족잔치를 헛지. 가족잔치.)

112017 @ 아 가족잔치 헛마씨. 음식은 뭐 해 먹언마씨?(아 가족잔치 했어요. 음식은 뭐 해 먹었어요?)

112017 #1 음식은 뭐 보통 먹는 음식 그대로 돼지고기 쓰곡 잔치 음식 그대로게.(음식은 뭐 보통 먹는 음식 그대로 돼지고기 쓰고 잔치 음식 그대로.)

112017 @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 하는 거지예?(그러니까 결혼식 전날 하는 거지요?)

112017 #1 오. 전날.(어. 전날.)

112018 @ 그럼 우시는 언제하는 거마씨?(그럼 위요는 언제하는 거예요?)

112018 #1 우시는 상객을 얘기 아니가? 사람 얘기 아니가 우시?(위요는 상객을 얘기 아니야? 사람 얘기 아니야 위요?)

112018 @ 예. 혼례할 때. 결혼할 때. 우시.(예. 혼례할 때. 결혼할 때. 위요.)

112018 #1 결혼할 때 우시간다허면은 그 예를 들었 아버지 대신해서 가는 친족 대표주게.(결혼할 때 위요간다하면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 대신해서 가는 친족 대표이지.)

149)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의미한다.

112018 @ 예.(예.)

112018 #1 거기 또 그 그 친족 대표영 ㄴ치 가는 일행을 다 우시라고 그래.(거기 또 그 그 친족 대표와 같이 가는 일행을 다 위요가로 그래.)

112018 @ 아, 우시라고 헤마씨?(아, 위요라고 해요?)

112018 #1 어.(어.)

112019 @ 그럼 대반이나 중반은 뭐 하는 거마씨?(그럼 대반이나 중반은 뭐 하는 거예요?)

112019 #1 대반은 신부 방에.(대반은 신부 방에.)

112019 @ 예.(예.)

112019 #1 신부를 맞이해서 모든 신부 방에 모든 예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반이고.(신부를 맞이해서 모든 신부 방에 모든 예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반이고.)

112019 @ 아.(아.)

112019 #1 중방은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맞으러 갈 때. 저 신부 택에 갈 때.(중방은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맞으러 갈 때. 저 신부 택에 갈 때.)

112019 @ 예.(예.)

112019 #1 신랑 방에 모든 예를 담당하는 게 중방. 신랑을 안내하곡.(신랑 방에 모든 예를 담당하는 게 중방. 신랑을 안내하고.)

112019 @ 음.(음.)

112019 #1 그 안에서 모든 거 케니깐 신부 아버지 어머니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 서로 어떻게 허는 거 연락하고 모든, 모든 행사를 거 신랑 방 안에서.(그 안에서 모든 거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 어머니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 서로 어떻게 하는 거 연락하고 모든, 모든 행사를 거 신랑 방 안에서.)

112019 @ 예.(예.)

112019 #1 안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중방이고. 대반은 신부 방에서 이 모든 그 예를, 예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반이고.(안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중방이고. 대반은 신부 방에서 이 모든 그 예를, 예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반이고.)

112020 @ 그럼 예전에도 그 결혼식 때 부조 하잖아예? 예전에는 부조 뭘로 헨마씨? 지금은 돈으로 하는디.(그럼 예전에도 그 결혼식 때 부조 하잖아요? 예전에는 부조 무엇으로 했어요? 지금은 돈으로 하는데.)

112020 #1 옛날에는.(옛날에는.)

112020 @ 예.(예.)

112020 #1 좀 가까운 친족.(좀 가까운 친족.)

112020 @ 예.(예.)

112020 #1 한 육촌이나 팔촌 육촌 팔촌까지 거기까지.(한 육촌이나 팔촌 육촌 팔촌까지 거기까지는.)

112020 @ 예.(예.)

112020 #1 쌀 한 말.(쌀 한 말.)

112020 @ 쌀 한 말?(쌀 한 말?)

112020 #1 어. 계난 한 먼 친척은 쌀 닷 돼 쌀 두 돼 두 돼. 요즘말로 한 말이 아니라.(어. 그러니 한 먼 친척은 쌀 닷 되 쌀 두 되 두 되. 요즘말로 한 말이 아니라.)

112020 @ 예.(예.)

112020 #1 에 팔 리터지. 팔 리터. 가까운 친척은 팔 리터. 먼 친척은 사 리터.(에 팔 리터지. 팔 리터. 가까운 친척은 팔 리터. 먼 친척은 사 리터.)

112020 @ 음.(음.)

112020 #1 그걸로 주로 허고 것도 그 요 중간에 난 거주. 옛날에는 보리쌀로 허고게.(그걸로 주로 하고 것도 그 요 중간에 생긴 거지. 옛날에는 보리쌀로 하고.)

112020 @ 예.(예.)

112020 #1 쌀이 엇을 때는. 쌀이 엇을 때는 여하튼 보리쌀로 보리쌀이나 뭐 쌀이나 하여튼 가까운 친족은 팔 리터 먼 친족은 사 리터 헛주게.(쌀이 없을 때는. 쌀이 없을 때는 여하튼 보리쌀로 보리쌀이나 뭐 쌀이나 하여튼 가까운 친족은 팔 리터 먼 친족은 사 리터 했지.)

112021 @ 그럼 암창개¹⁵⁰도 알아마씨? 암창개.(그럼 ‘암창개’도 알아요? ‘암창개’.)

112021 #1 한자로 안 나와사?(한자로 안 나왔냐?)

112021 @ 한자로 안 나오고. 암창개 누가 한 분 돌아가성 하는 거지예?(한자로 안 나오고. ‘암창개’ 누가 한 분 돌아가셔서 하는 거지요?)

112021 #1 암창개는 남편이.(‘암창개’는 남편이.)

112021 @ 예.(예.)

112021 #1 바다일 때문에 나가 가지고. 계난 남편이 만약 예를 들어서 쉽게 말행 군에 갖는데.(바다일 때문에 나가 가지고. 그러니 남편이 만약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군에 갖는데.)

112021 @ 예.(예.)

112021 #1 휴가 올 걸로 했는데 휴가 못 왕 그 결혼 못 허는 것도 암창개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휴가 올 걸로 했는데 휴가 못 와서 그 결혼 못 하는 것도 ‘암창개’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112021 @예. 그런 거 맞아마씨.(예. 그런 거 맞아요.)

112022 @ 혹시 사혼, 사혼은 알아마씨?(혹시 사혼, 사혼을 알아요?)

112022 #1 아, 사혼은.(아, 사혼은.)

112022 @ 예.(예.)

112022 #1 그.(그.)

112022 @ 보신 적 잇어마씨?(보신 적 있어요?)

150) ‘암창개’는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예정된 날에 신랑 집에서 상객들만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를 의미한다.

112022 #1 아, 사혼 직접 시켜도 보고 했는데.(아, 사혼 직접 시켜도 보고 했는데.)

112022 @ 아, 기똥?(아, 그렇습니까?)

112022 #1 그 사혼은 여기 그 후사를 잇기 위해서.(그 사혼은 여기 그 후사를 잇기 위해서.)

112022 @ 예.(예.)

112022 #1 계니깐 에 조금 옛날에 양반 사농, 사농공상 할 때 양반, 양반집은 한 십이삼세만 지난 돌아가면은 사혼을 시켜서 그 형제간에 자식을 그 돌아간 형제 밑으로 영.(그러니까 에 조금 옛날에 양반 사농, 사농공상 할 때 양반, 양반집은 한 십이삼세만 지나서 돌아가면 사혼을 시켜서 그 형제간에 자식을 그 돌아간 형제 밑으로 이렇게.)

112022 @ 예.(예.)

112022 #1 양자를 보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사혼을 시키는 건데.(양자를 보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사혼을 시키는 건데.)

112022 @ 예.(예.)

112022 #1 계난 사혼은 꼭 뭐 허는 건 비슷허여. 절차나 뭐 예장, 예장 행 가는 거나 우시 가는 거나 비슷한데.(그러니 사혼은 꼭 뭐 하는 건 비슷해. 절차나 뭐 예장, 예장 해서 가는 거나 위요 가는 거나 비슷한데.)

112022 @ 예.(예.)

112022 #1 조금 그 엄격허지. 그 신, 신끼리 결혼을 허는 거니깐. 신끼리 결혼을 허니깐. 어 그 계난 후를 잇기 위해서 사혼을 시키는 거라.(조금 그 엄격하지. 그 신, 신끼리 결혼을 하는 거니깐. 신끼리 결혼을 하니깐. 어 그 그러니 후를 잇기 위해서 사혼을 시키는 거야.)

112022 @ 예.(예.)

112022 #1 후대를 잇기 위해서.(후대를 잇기 위해서.)

112023 @ 그럼 그 혼례할 때 금기사향 같은 거 있지 않아마씨? 뭐 결혼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제사 가지 마라 그런 금기사향 같은 거마씨.(그럼 그 혼례할 때 금기사향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제사 가지 마라 그런 금기사향 같은 거요.)

112023 #1 여기는 거의 잇는데.(여기는 거의 없는데.)

112023 @ 예.(예.)

112023 #1 제주시 같은 데는 제주시는 복잡허더라.(제주시 같은 데는 제주시는 복잡하더라.)

112023 @ 예.(예.)

112023 #1 무신 집이 가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무슨 집에 가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112023 @ 예 맞아마씨. 여긴 잇언마씨?(예 맞아요. 여긴 없었어요?)

112023 #1 여기는 거의. 여기는 여기는 요즘 우리 아이들 결혼 시킬 때 어제 친구 돌아갈 죽어도 거기 간 사람도 여기 오고 하난.(여기는 거의. 여기는 여기는 요즘 우리 아이들 결혼 시킬 때 어제 친구 돌아가서 죽어도 거기 간 사람도 여기 오고 하나까.)

112023 @ 예.(예.)

112023 #1 계난 여기는 그런 것에는 조금 앞섰다고 봐야 돼여.(그러니 여기는 그런 것에는 조금 앞섰다고 봐야 돼.)

112011 @ 어르신 그 옛날에 결혼할 때 옛날 결혼식은 절차가 어떻 돼주마씨? 요즘이랑 같은가마씨? 결혼식?(어르신 그 옛날에 결혼할 때 옛날 결혼식은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요즘이랑 같은가요? 결혼식?)

112011 #2 우리 할 때도 우리 흐끔 전이 우리보다 흐끔 전에.(우리 할 때도 우리 조금 전에 우리보다 조금 전에.)

112011 @ 예.(예.)

112011 #2 그 땐 가메 타고 했지. 우리 할 땐 신식으로 우린 흐끔 허연.(그 때는 가마 타고 했지. 우리 할 때는 신식으로 우리는 조금 했어.)

112011 @ 아.(아.)

112011 #2 사진 찍고.(사진 찍고.)

112011 @ 그럼 구식은 기억나는 거 잊어마씨? 구식 결혼식도?(그럼 구식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구식 결혼식도?)

112011 #2 게. 가메 타고 새서방은 몰 타고 헨.(그럼. 가마 타고 새서방은 말 타고 했어.)

112011 @ 아, 그거 좀 알아 줘서. 어떻게 뭐 들어오고 어떻게 허는지. 절차만 간단하게라도.(아, 그거 좀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뭐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지. 절차만 간단하게라도.)

112011 #2 그게 우리 동창 오빠가 이제 저 우리 오빠 이제 그 때는 차 영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도 기억나. 우리 오빠 이제 신식으로 차로 해근엔 막 결혼 할 거옐.(그게 우리 동창 오빠가 이제 저 우리 오빠 이제 그 때는 차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도 기억나. 우리 오빠 이제 신식으로 차로 해서 막 결혼할 거라고.)

112011 @ 예.(예.)

112011 #2 우린 이딴 학교고 그 우리 동창은 저 마을이고. 오빠 신부는 이 마을이라. 게 이리 건너 올 거주게. 계난 막 그날을 기다렸어.(우리는 여기 학교이고 그 우리 동창은 저 마을이고. 오빠 신부는 이 마을이야. 그래서 여기로 건너 올 거지. 그러니 막 그날을 기다렸어.)

112011 @ 예.(예.)

112011 #2 그 차가 흐끔 그 때는 어려운 생이라. 신식으로 할 거옐 막 자랑했어.(그 차가 조금 그 때는 어려운 모양이야. 신식으로 할 거라고 막 자랑했어.)

112011 @ 예.(예.)

112011 #2 게난 그때는 신식으로도 아니고 옛날식으로 몰 타고 행 왓주게게. 왕 밤에 허영 여자는 새각시는 가메 속으로 넣꼭 이제 그 옛날에는 하인이 잇었어. 하인.(그러니 그때는 신식으로도 아니고 옛날식으로 말 타고 해서 왔지. 와서 밤에 해서 여자는 새신부는 가마 속으로 넣고 이제 그 옛날에는 하인이 있었어. 하인.)

112011 @ 예.(예.)

112011 #2 이제 ㄹ트민 학교 그거 ㄹ튼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렁 가. 들렁 가. 경 몰 타근영 왕 게민 새각시 신부 측에 올 때엔 그거 세왕 들러리 온 사람이 막 그 물어. 뵈이 어찌구 어찌구 물으민 대답 잘 해사 들여놔.(이제 같으면 학교 그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 가. 들어서 가. 그렇게 말 타서 와서 그러면 새신부 신부 측에 올 때에는 그거 세워서 들러리 온 사람이 막 그 물어. 무엇이 어찌구 어찌구 물으면 대답 잘 해야 들여놔.)

상례

112024 @ 죽음을 맨 처음에 확인하는 거는 어떻 확인하지마씨?(죽음을 맨 처음에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112024 #1 지금은 증명했다고 영 허면은 우선 이 맥박 ㄹ튼 거 보고 최종확인 은 그 병원에서 안 했어. 옛날, 옛날 여기서 돌아가는 거 확인은 그 워낙 연한 숨.(지금은 증명했다고 이렇게 하면 우선 이 맥박 같은 거 보고 최종확인 은 그 병원에서 안 했어. 옛날, 옛날 여기서 돌아가는 거 확인은 그 워낙 연한 숨.)

112024 @ 예.(예.)

112024 #1 숨을 여기 대보는 거라. 숨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은 아직은 살아있다고 헛주게. 젠디 그 임종이 그 게니깐 옛날에는 그 전설같이 내려온 말이지만은 다 돌아간 걸로 행 관, 관에 입관헌 후에도 밑에서 안에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잇주게. 게니까 그것은 죽엇당 산 게 아니라 다 돌아가기 전이.(숨을 여기 대보는 거야. 숨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아직은 살아있다고 헛지. 그런데 그 임종이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전설같이 내려온 말이지만 다 돌아간 걸로 해서 관, 관에 입관한 후에도 밑에서 안에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지. 그러니까 그것은 죽엇다가 산 게 아니라 다 돌아가기 전에.)

112024 @ 예.(예.)

112024 #1 수의로 관으로 뭐 해 버린 거주게.(수의로 관으로 뭐 해 버린 거지.)

112025 @ 그럼 복부르기는 어떻게 해마씨?(그럼 복부르기는 어떻게 해요?)

112025 #1 아. 혼, 혼 부르는 거주 혼.(아. 혼, 혼 부르는 거지 혼.)

112025 @ 예. 그건 뭐 어떻 허는 거마씨?(예.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25 #1 아, 게니깐.(아, 그러니까.)

112025 @ 예.(예.)

112025 #1 이제 그 돌아간 사람이 이 저 원래는 저 입관허고 대령ㄹ지 끝난 다 음에 복부르는 거 혼 부른덴 허주게.(이제 그 돌아간 사람이 이 전 원래는 저 입관

하고 대령까지 끝난 다음에 복부르는 거 혼 부른다고 하지.)

112025 @ 아.(아.)

112025 #1 그 복부르기엔 허는데 그건 세 번 허는데 그건 혼 부른덴 허는데.(그 복부르기라고 하는데 그건 세 번 하는데 그건 혼 부른다고 하는데.)

112025 @ 예.(예.)

112025 #1 그 겁나서 사람이 딱혜근엔 저승 찾아강 저승 딱 찾아와서 데려가 버리니까.(그 겁나서 사람이 딱해서 저승 찾아가서 저승 딱 찾아와서 데려가 버리니까.)

112025 @ 예.(예.)

112025 #1 혼하고 시신이 신체하고 영혼하고 이제 몸이 따로따로 어 이제 있는 걸로 옛날은 생각했주게.(혼하고 시신이 신체하고 영혼하고 이제 몸이 따로따로 어 이제 있는 걸로 옛날은 생각했지.)

112025 @ 예.(예.)

112025 #1 딱 돌아가고 저승사자 왕 데리고 가면 헛는데. 이제 모든 걸 갖추고 했으니까 혼이 돌아와근엔 이제 그 시신에 같이 시신으로 같이 돌아오십쇼 허고 부르는 거주게.(딱 돌아가고 저승사자 와서 데리고 가면 헛는데. 이제는 모든 걸 갖추고 했으니까 혼이 돌아와서 이제 그 시신에 같이 시신으로 같이 돌아오십쇼 하고 부르는 거지.)

112025 @ 아.(아.)

112025 #1 계난 영혼하고 신체하고 따로 떨어진 것을 합쳐주는 거주게.(그러니 영혼하고 신체하고 따로 떨어진 것을 합쳐주는 거지.)

112026 @ 그럼 이제 그 돌아가시면 장지 마련은 예전에는 어떻 해주마씨?(그럼 이제 그 돌아가시면 장지 마련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112026 #1 장지는 요즘은 가족묘지 해주마는 옛날은.(장지는 요즘은 가족묘지 했지만 옛날은.)

112026 @ 예.(예.)

112026 #1 뭐 있는 집 여유 잇꼭 조금 워낙 그 좀 명당자리 보고 싶은 사람은 오일장 칠일장 허면서 정시 지관 지관 그 정시 지관을 청해서 며칠 간 돌아다니명 장지를 봤주게. 계난 장지를 봤는데 뭐 그 여유가 엇는 사람은 뭐 그런대로 삼일장 오일장 헛어. 겐디 자기 밧 장지는 아무튼 간에 상주하고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근엔 남향으로 써야할 건디 북향을 쓰거나 서향 쓰면 안 된다고 헛어. 지금도 택일하면 정시가 아 이 사람 이분은 돌아간 분이 만약 쥐띠니깐.(뭐 있는 집 여유 있고 조금 워낙 그 좀 명당자리 보고 싶은 사람은 오일장 칠일장 하면서 지관 지관 지관 그 지관 지관을 청해서 며칠 간 돌아다니면 장지를 봤지. 그러니 장지를 봤는데 뭐 그 여유가 엇는 사람은 뭐 그런대로 삼일장 오일장 헛어. 그런데 자기 밧 장지는 아무튼 간에 상주하고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향으로 써야할 건데 북향을 쓰거나 서향 쓰면 안 된다고 헛어. 지금도 택일하면 지관이 아 이

사람 이분은 돌아간 분이 만약 쥐띠니까는.)

112026 @ 예.(예.)

112026 #1 어느 쪽은 쓰지 말고 어느 쪽을 쓰라는 뜻이 잇주게. 정시 그 지관이 이제 택일허곡 그 사람 만일 돌아간 사람이 그 생일에 맞춰 결정하는 게 장지도 마찬가지로.(어느 쪽은 쓰지 말고 어느 쪽을 쓰라는 무엇이 있지. 지관 그 지관이 이제 택일하고 그 사람 만일 돌아간 사람이 그 생일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장지도 마찬가지로이지.)

112027 @ 그럼 관이나 횡대는 어떻 준비해마씨? 관이랑 횡대?(그럼 관이나 횡대는 어떻게 준비해요? 관이랑 횡대?)

112027 #1 아, 그건 옛날부터.(아, 그건 옛날부터.)

112027 @ 예.(예.)

112027 #1 옛날에는 잇는 집안은 미리씩 관이나 개관 그것을 준비행 놔둬.(옛날에는 잇는 집안은 미리씩 관이나 개관 그것을 준비해서 놔둬.)

112027 @ 아, 준비해 놔둬마씨?(아, 준비해 놔둬요?)

112027 #1 전부 그 짱 놔두주게. 만들엉 허는 게 아니고.(전부 그 짜서 놔두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112027 @ 예.(예.)

112027 #1 그 재료를 다 준비해근영 그 정결함 속에 딱 보관했다가.(그 재료를 다 준비해서 그 정결함 속에 딱 보관했다가.)

112027 @ 예.(예.)

112027 #1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목수가 목수만 빌어근영 그 준비했던 재료로 관을 짚주게. 개관도 그랬고. 겐디 뭐 그 아까 수의 ㄱ튼 것도.(만약 아버지가 돌아가면 목수가 목수만 빌려서 그 준비했던 재료로 관을 짚지. 개관도 그랬고. 그런데 뭐 그 아까 수의 같은 것도.)

112028 @ 예. 수의랑 상복 물어보젠 헛인디예.(예. 수의랑 상복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112028 #1 계메 수의 ㄱ튼 것도.(글세 수의 같은 것도.)

112028 @ 예.(예.)

112028 #1 돈 잇는 분은 전부 살아 잇을 때 준비허주게. 수의 이제 보통 요즘은 뭐 장의사가 허니깐 돈만 잇으면 뭐 다 돼는데.(돈 잇는 분은 전부 살아 잇을 때 준비하지. 수의 이제 보통 요즘은 뭐 장의사가 하니까 돈만 잇으면 뭐 다 되는데.)

112028 @ 예.(예.)

112028 #1 다 수의는 자기대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 수의는 그 상복들도 마찬가지로.(다 수의는 자기대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 수의는 그 상복들도 마찬가지.)

112028 @ 상복도 마찬가지마씨?(상복도 마찬가지요?)

112028 #1 만들엉 놔두는 사람도 잇고.(만들어서 놔두는 사람도 잇고.)

112029 @ 상장이나 짚동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잇어마씨? 상장, 짚동.(상장이나

짚동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상장, 짚동.)

112029 #1 상장?(상장?)

112029 @ 예.(예.)

112029 #1 아, 짚동은 저 상주 베개가 짚동이고.(아, 짚동은 저 상주 베개가 짚동이고.)

112029 @ 아 상주 베개가 짚동마씨?(아 상주 베개가 짚동이에요?)

112029 #1 상주 베개가 짚동이고 그 뭐 길이는 일정허여. 요즘 워낙 간소화행 뭐 한 사십 센치 오십 센치 미만으로 허는 거 ㄴ튼데 옛날엔 거의 거의 한 팔십 센치 정도로 헛는데 그걸 일곱 동으로 묶어 일곱 동으로.(상주 베개가 짚동이고 그 뭐 길이는 일정해. 요즘 워낙 간소화해서 뭐 한 사십 센티 오십 센티 미만으로 하는 거 같은데 옛날에는 거의 거의 한 팔십 센티 정도로 헛는데 그걸 일곱 동으로 묶어 일곱 동으로.)

112029 @ 예.(예.)

112029 #1 일곱 동으로 게난 보통 일곱 동으로 영 묶으는 게.(일곱 동으로 그러니 보통 일곱 동으로 이렇게 묶는 게.)

112029 @ 예.(예.)

112029 #1 전삼후사거든.(전삼후사거든.)

112029 @ 전삼후사마씨?(전삼후사요?)

112029 #1 전삼후사. 게난 사대까지 제사를 쪽 지내고 삼년상 치르는 거라. 게난 전삼후사인데. 그 상주도 이 두건에 건 잇잖아 건.(전삼후사. 그러니 사대까지 제사를 쪽 지내고 삼년상 치르는 거야. 그러니 전삼후사인데. 그 상주도 이 두건에 건 잇잖아 건.)

112029 @ 예.(예.)

112029 #1 안에는 이렇게 그 뭐냐 대를 세 개 놓곡 뒤에는 네 개 놔. 게니깐 전삼후사. 그래서 게난 뭐 아까 짚동허고 뭐?(안에는 이렇게 그 뭐냐 대를 세 개 놓고 뒤에는 네 개 놔. 그러니까 전삼후사. 그래서 그러니 뭐 아까 짚동하고 뭐?)

112029 @ 상장.(상장.)

112029 #1 상장은 상례에 엇인디.(상장은 상례에 없는데.)

112030 @ 그럼 두건이랑 복치마는 어떻게 준비허고 누구한테 줘마씨?(그럼 두건이랑 복치마는 어떻게 준비하고 누구한테 줘요?)

112030 #1 두건은 원래는 일반 두건은 친족들한테 가까운데 다 주는 거고게.(두건은 원래는 일반 두건은 친족들한테 가까운데 다 주는 거고.)

112030 @ 예.(예.)

112030 #1 복치마 ㄴ튼 것도 요즘 광목으로 옛날엔 광목으로 만든 거는 에 한 사촌 오촌 주고.(복치마 같은 것도 요즘 광목으로 옛날에는 광목으로 만든 거는 에 한 사촌 오촌 주고.)

112030 @ 예.(예.)

112030 #1 바로 조카까지는 저 베로 만든 베로 만든 복치마는 이제 메누리나 딸 메누리 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두건도 상주 두건이 따로 있어.(바로 조카까지는 저 베로 만든 베로 만든 복치마는 이제 며느리나 딸 며느리 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두건도 상주 두건이 따로 있어.)

112030 @ 예.(예.)

112024 @ 상 치를 때 이렇게 누가 임종 누가 돌아가시면 누가 확인해마씨? 어떻 확인해마씨?(상 치를 때 이렇게 누가 임종 누가 돌아가시면 누가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112024 #2 뭇을 죽으면?(무엇이 죽으면?)

112024 @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야 돼잖아예? 이렇게 돌아가시면. 확인하는 사람이 잇인가마씨? 지금은 의사들한테 병원 간 다음에.(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의사들한테 병원 간 다음에.)

112024 #2 아니 이디선 누게 아프면게 친척이나 자식이나 봐야주게. 저 구들에서 죽어 가면 지키지. 언제 죽을지 몰라서.(아니 여기서는 누가 아프면 친척이나 자식이나 봐야지. 저 구들에서 죽어 가면 지키지. 언제 죽을지 몰라서.)

112024 @ 예.(예.)

112024 #2 앓양 지키다가 돌아가면 뭐 동네 사람이 와서 옷 입지는 사람이 있어.(앓아서 지키다가 돌아가면 뭐 동네 사람이 와서 옷 입히는 사람이 있어.)

112024 @ 아, 옷 입지는 사람이 잇언마씨?(아, 옷 입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112024 #2 어. 옷 입져근엥 관에다가 넣곡 다 허주게.(어. 옷 입혀서 관에다가 넣고 다 하지.)

112025 @ 복부르기는 어떻 해마씨?(복부르기는 어떻게 해요?)

112025 #2 복부르기가 뭇이라?(복부르기가 무엇이야?)

112026 @ 그먼 그 장지를 이제 마련해야 돼잖아예? 돌아가시면 그 무덤.(그러면 그 장지를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무덤.)

112026 #2 정시, 정시.(지관, 지관.)

112026 @ 정시?(지관?)

112026 #2 정시가 다 택일허곡 문을 자리를 다 그 사람이 택허지.(지관이 다 택일하고 문을 자리를 다 그 사람이 택하지.)

112026 @ 아, 정시라고 해마씨?(아, ‘정시’라고 해요?)

112026 #2 이제도 경 허여.(이제도 그렇게 해.)

112026 @ 예. 저도 그 날짜도 정하잖아예? 삼일장 할지 오일장 할지. 그게 정시라고 해마씨?(예. 저도 그 날짜도 정하잖아요? 삼일장 할지 오일장 할지. 그게 ‘정시’라고 해요?)

112026 #2 응. 정시.(응. ‘정시’.)

112026 @ 마을에 한 명씩 잇어마씨?(마을에 한 명씩 있어요?)

112026 #2 아니, 이 동네는 저 마을 사람 데려다가 이 근처에서는 다 허지 그 사람 빌어당.(아니, 이 동네는 저 마을 사람 데려다가 이 근처에서는 다 하지 그 사람 빌어다가.)

112030 @ 다음에 두건이랑 복치마 잇잖아예?(다음에 두건이랑 복치마 잇잖아요?)

112030 #2 어.(어.)

112030 @ 그건 누가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그거 쓰주마씨? 두건이랑 복치마는?(그건 누가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그거 쓰지요? 두건이랑 복치마는?)

112030 #2 복치마는게 메누리나 딸이나 입곡.(복치마는 며느리나 딸이나 입고.)

112030 @ 예.(예.)

112030 #2 두건은 친척들이 다 쓰는 거주게. 건대는 아들이 쓰고.(두건은 친척들이 다 쓰는 거지. 건대는 아들이 쓰고.)

112030 @ 아, 건대는?(아, 건대는?)

112030 #2 건대는 자식이나 딸이나 메누리 그런 사람들이 쓰고 두건은 친척들 쓰는 거.(건대는 자식이나 딸이나 며느리 그런 사람들이 쓰고 두건은 친척들 쓰는 거.)

112031 @ 그럼 그 때 상 낫을 때 팔죽도 보통 만들잖아예. 팔죽은 왜 만드는 거마씨?(그럼 그 때 상 낫을 때 팔죽도 보통 만들잖아요. 팔죽은 왜 만드는 거예요?)

112031 #2 그것도 방법으로.(그것도 ‘방법’으로.)

112031 @ 아, 방법으로.(아, ‘방법’으로.)

112031 #2 굻 헤나민 막 풋 뿌려. 굻 헤나민.(굻 하면 막 팔 뿌려. 굻 하면.)

112031 @ 근데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팟죽 먹어마씨?(근데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팟죽 먹어요?)

112031 #2 그 돌아갈 때엔 밥 못 걸영 못 먹어. 사람들이.(그 돌아갈 때에는 밥 못 걸어서 못 먹어. 사람들이.)

112031 @ 예.(예.)

112031 #2 사람 죽으니까.(사람 죽으니까.)

112031 @ 예.(예.)

112031 #2 게서 팟죽을 쑤영 먹는 거라 죽을 쑤어 먹어.(그래서 팟죽을 쑤어서 먹는 거야 죽을 쑤어 먹어.)

112032 @ 성복제도 하잖아예?(성복제도 하잖아요?)

112032 #2 어.(어.)

112032 @ 성복제는 언제 하는 거주마씨?(성복제는 언제 하는 거지요?)

112032 #2 죽으면 곧 허는 거주게.(죽으면 곧 하는 거지.)

112032 @ 바로 허는 게 성복제. 성복제는 왜 허는 거주마씨?(바로 하는 게 성복제. 성복제는 왜 하는 거지요?)

112032 #2 성복젠계 사람 죽었다 해서 처음 햅주게. 상 놓고계.(성복제는 사람 죽었다 해서 처음 하는 거지. 상 놓고.)

112032 @ 예.(예.)

112032 #2 처음 시작하는 거주계.(처음 시작하는 거지.)

112033 @ 예. 처음 시작할 때 허고. 그 다음에 일포제 지내잖아예?(예. 처음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일포제 지내잖아요?)

112033 #2 일포는 딸이 하는 거라 일포는. 큰 딸이.(일포는 딸이 하는 거야 일포는. 큰 딸이.)

112033 @ 큰 딸이 하는 거마씨? 일포가 그냥 그 무덤 이렇게 가기 전날 아니 팡?(큰 딸이 하는 거예요? 일포가 그냥 그 무덤 이렇게 가기 전날 아닙니까?)

112033 #2 계. 전날.(그럼. 전날.)

112033 @ 근데 그때 제 허는 게 딸이 허는 거?(근데 그때 제 하는 게 딸이 하는 거?)

112033 #2 일포 허는 거는.(일포 하는 거는.)

112033 @ 딸 잊이든 어떻게 그냥 아들이 허는 거마씨?(딸 없으면 어떻게 그냥 아들이 하는 거예요?)

112033 #2 아들이 하는 거주계.(아들이 하는 거지.)

112033 @ 그럼 일포제는 원래 딸이 허는 거마씨?(그럼 일포제는 원래 딸이 하는 거예요?)

112033 #2 옛날에는 경 허여. 딸이 일포제 허여. 지금에야 뭐 안 허여 딸. 지금은 그냥 그대로 막 허주만은 옛날엔 딸이 헛어.(옛날에는 그렇게 해. 딸이 일포제 해. 지금에야 뭐 안 해 딸. 지금은 그냥 그대로 막 하지만 옛날에는 딸이 헛어.)

112034 @ 그럼 그 부조랑 조문도 하잖아예? 지금은 돈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뭐 옛날에도 돈으로 헛인가마씨? 아니면 떡이나 음식 같은 걸로 헛인가마씨?(그럼 그 부조랑 조문도 하잖아요? 지금은 돈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뭐 옛날에도 돈으로 헛었나요? 아니면 떡이나 음식 같은 걸로 헛었나요?)

112034 #2 그계 저 영장할 때는 쓸로 헛어 쓸로.(그계 저 영장할 때는 쌀로 헛어 쌀로.)

112034 @ 아, 쓸로.(아, 쌀로.)

112034 #2 어. 소상할 땐 떡 해 가고.(어. 소상할 때는 떡 해 가고.)

112034 @ 음.(음.)

112034 #2 사람 죽으면 고적¹⁵¹⁾ 고적쌀.(사람 죽으면 ‘고적’ ‘고적쌀’.)

112034 @ 고적쌀?(‘고적쌀’?)

112034 #2 어.(어.)

112034 @ 그계 무슨 쓸이팡? 고적쌀.(그계 무슨 쌀입니까? ‘고적쌀’?)

151) ‘고적’은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적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이나 쌀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2034 #2 권당게 그 혼 말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가까운 친척은 혼 말.(권당 그 한 말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가까운 친척은 한 말.)

112034 @ 예.(예.)

112034 #2 허곡 먼 친척은 두 돼. 쌀로 다. 또 소상 때는 떡 해 가고. 떡으로 다 행 가고.(하고 먼 친척은 두 되. 쌀로 다. 또 소상 때는 떡 해 가고. 떡으로 다 해서 가고.)

112035 @ 토신제도 하션마씨? 토신제. 토신제는 언제 허는 거고 누가 허는 거고 왜 허는 거마씨?(토신제도 하셨어요? 토신제. 토신제는 언제 하는 거고 누가 하는 거고 왜 하는 거예요?)

112035 #2 토신제는 산 묻젠 허른 토신 이 땅.(토신제는 산 묻으려고 하면 토신 이 땅.)

112035 @ 예.(예.)

112035 #2 땅ㄴ라 토신이렌 허여. 땅 귀신을 이디 이제 시체를 낳 묻겠습니다 허영 이제도 허여. 이제도.(땅더러 토신이라고 해. 땅 귀신을 여기 이제 시체를 놔서 묻겠습니다 해서 이제도 해. 이제도.)

112035 @ 이제도?(이제도?)

112035 #2 응. 이제도 허여 토신제. 아니 그건 산제고.(응. 이제도 해 토신제. 아니 그건 산제고.)

112035 @ 예.(예.)

112035 #2 토신제는 이 집 집이서 허는 거.(토신제는 이 집 집에서 하는 거.)

112035 @ 집이서 허는 거?(집에서 하는 거?)

112035 #2 집이서 허여. 집 아니 영장나지 말고 토신제는 일 년에 혼 번 옛날엔 했어. 토신에 대해서 땅을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집 잘 지켜 달렌 해서 토신제고. 영장나서 묻을 때는 산제. 산제.(집에서 해. 집 아니 영장나지 말고 토신제는 일 년에 한 번 옛날에는 했어. 토신에 대해서 땅을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집 잘 지켜 달라고 해서 토신제고. 초상이 나서 묻을 때는 산제. 산제.)

112035 @ 아, 산제라고 헨마씨?(아, 산제라고 했어요?)

112035 #2 어.(어.)

112035 @ 산제는 어떻게 허는 거주마씨?(산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112035 #2 산제는게 이 토신 해서 이제 시체를 낳 허영 묻겠습니다 허영.(산제는 이 토신 해서 이제 시체를 놔서 해서 묻겠습니다 해서.)

112035 @ 예.(예.)

112035 #2 경 헤근앵 이 영장 헐 때도 이 영장 허는 날도 산제 허여. 오늘 묻습니다. 몇 시에 묻습니다 허영. 다 끝나면 다했습니다 허고 제 허고. 경 허는 거.(그렇게 해서 이 영장 할 때도 이 영장 하는 날도 산제 해. 오늘 묻습니다. 몇 시에 묻습니다 해서. 다 끝나면 다했습니다 하고 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112036 @ 상여꾼도 부리잖아예? 상여꾼.(상여꾼도 부리잖아요? 상여꾼.)

112036 #2 어. 상여꾼 영장 묻는 사람들.(어. 상여꾼 송장 묻는 사람들.)

112036 @ 예. 그럼 누가 도와줘마씨?(예. 그럼 누가 도와줘요?)

112036 #2. 동네 사람들 빌영 허지.(동네 사람들 빌려서 하지.)

112036 @ 동네 사람들 빌영. 그럼 홑으로 뭐 좀 줘야 돼지 았아마씨?(동네 사람들 빌려서. 그럼 홑으로 뭐 좀 줘야 되지 았아요?)

112036 #2 아니, 아니. 옛날에는 저 뭐 테와 줘. 다 뭐 우리 전이 헤 갈 때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줘지. 맥여주기만 허여. 그건 이 동네 사람 이 사람 죽으면 묻고 저 사람 묻으면 묻고 해서 젊은 사람들 다 나와 가지고 도와주는 거지. 그 내중에라 하면 친척이나 영장밭이 간 사람들은 뭐 옛날에 난닝구도 주고 뭐 테와 줘나 니깐 그걸 막아 부러터.(아니, 아니. 옛날에는 저 뭐 태워 줘. 다 뭐 우리 전에 헤 갈 때에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줘지. 맥여주기만 해. 그건 이 동네 사람 이 사람 죽으면 묻고 저 사람 묻으면 묻고 해서 젊은 사람들 다 나와 가지고 도와주는 거지. 그 나중에 하면 친척이나 ‘영장밭’에 간 사람들은 뭐 옛날에 러닝셔츠도 주고 뭐 태워 줘었으니까 그걸 막아 버러터.)

112037 @ 그면 이제 돌아가시면 운상 하잖아예? 집에서 장지까지. 운상은 어떻게 헤마씨?(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운상 하잖아요? 집에서 장지까지. 운상은 어떻게 해요?)

112037 #2 운상은게 그 사람 죽으면 관에 놓잖아.(운상은 그 사람 죽으면 관에 놓잖아.)

112037 @ 예.(예.)

112037 #2 그 관을 메어 가는 사람이 운상해 가는 거주게.(그 관을 메어 가는 사람이 운상해 가는 거지.)

112038 @ 봉분 만들잖아예? 봉분은 어떻게 만들주마씨?(봉분 만들잖아요? 봉분은 어떻게 만들지요?)

112038 #2 그 영 땅 팡 관 영 냥.(그 이렇게 땅 파서 관 이렇게 놔서.)

112038 @ 예.(예.)

112038 #2 흑 냥 흑 영 산에 잇잖아.(흑 놔서 흑 이렇게 산에 잇잖아.)

112038 @ 예.(예.)

112038 #2 다음은 떼 허여당 떼.(다음은 떼 헤다가 떼.)

112038 @ 예.(예.)

112038 #2 떼 헤다근엥 영 조근조근 쌓앗주게.(떼 헤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쌓았지.)

112039 @ 그럼 호충 하잖아예?(그럼 호충 하잖아요?)

112039 #2 골충, 골충.(고충, 고충.)

112039 @ 골충?(고충?)

112039 #2 그 아니 산에 잇는 거 아니?(그 아니 산에 잇는 거 아니?)

112039 @ 예?(예?)

112039 #2 골충 입자 엇는 산.(고충 입자 없는 산.)

112039 @ 아, 그건 뭐짱?(아, 그건 뭐입니까?)

112039 #2 그거는게 영 산 물어도 자손이 죽어 불거나 어디 일본이나 미국 가 불면 벌초도 안 하고 내부는 것이 골충이라.(그거는 이렇게 산 물어도 자손이 죽어 버리거나 어디 일본이나 미국 가버리면 벌초도 안 하고 내버리는 것이 고충이야.)

112040 @ 그럼 장지에서 이제 상여꾼이 이제 같이 운상하잖아예?(그럼 장지에서 이제 사영꾼이 이제 같이 운상하잖아요?)

112040 #2 응.(응.)

112040 @ 그럼 장지에서 상여꾼한테 음식은 이렇게 뭐 줘마씨? 보통?(그럼 장지에서 상여꾼한테 음식은 이렇게 뭐 줘어요? 보통?)

112040 #2 음식은 잘해줘야지. 상뒤꾼.(음식은 잘 해줘야지. 상여꾼.)

112040 @ 아, 상뒤꾼.(아, 상여꾼.)

112040 #2 이제는 장의사들 빌영 허주마는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저 몇 사람 막 불러와. 위에서 음식도 막 잘 해주고.(이제는 장의사를 빌려서 하지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저 몇 사람 막 불러와. 위에서 음식도 막 잘 해주고.)

112041 @ 그 장제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거 엇언마씨?(그 장제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거 없었어요?)

112041 #2 옛날에는 안 줘어. 얘기만 허연 얘기만.(옛날에는 안 줘어. 얘기만 했어 얘기만.)

112042 @ 상식은 어떻게 헨마씨? 상식?(상식은 어떻게 했어요? 상식?)

112042 #2 경 행계 그 아까 죽으면게 그 무시겨 일포산지 무시겨 거 허잖아.(그렇게 해서 그 아까 죽으면 그 무엇 일포인지 무엇 거 하잖아.)

112042 @ 예. 일포제.(예. 일포제.)

112042 #2 그거 해 낱게 이제 상 놓기 시작해근영계 산에 가도 상 놓곡 허영 또 집에 가져 왕 상을 모셨주게게.(그거 해 놔서 이제 상 놓기 시작해서 산에 가도 상 놓고 해서 또 집에 가져 와서 상을 모셨지.)

112042 @ 예.(예.)

112042 #2 상을게 이제 음식 이제 해놔주게. 조반 점심 저녁 음식을 해놔. 경 행 이제 보름 초하루 하고 색일 헛어. 색일이라 그거.(상을 이제 음식 이제 해놔. 조반 점심 저녁 음식을 해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름 초하루 하고 삭제 했어. 삭제야 그거.)

112043 @ 음.(음.)

112043 #2 초하루 날도 저 멩질추룩 저 지내고 영 가까운 친척이영 또 보름날도 경 허고. 경 허영 삼 년을 현 거라. 영장 끝나민 또 다음 해 돌아오면 소상하고 또 다음 해 돌아오면 대상하곡 허영 그 다음에는 제사 지내고.(초하루 날도 저 멩질처럼 저 지내고 이렇게 가까운 친척과 또 보름날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삼

년을 한 거야. 영장 끝나면 또 다음 해 돌아오면 소상하고 또 다음 해 돌아오면 대상하고 해서 그 다음에는 제사 지내고.)

112043 @ 아.(아.)

112043 #2 경 초하루 보름을 허는 거라 이년 동안.(그렇게 초하루 보름을 하는 거야 이년 동안.)

112044 @ 그럼 소상 대상 잇잖아예? 아까 말한 거.(그럼 소상 대상 잇잖아요? 아까 말한 거.)

112044 #2 응.(응.)

112044 @ 그 지금이랑 뭐 좀 다른 거 잇인가마씨? 소상, 대상?(그 지금이랑 뭐 좀 다른 거 없었나요? 소상, 대상?)

112044 #2 다른 거 잇어. 그냥 소상, 대상 허는디. 저 지금은 안 헌 것 뿐이지. (다른 거 없어. 그냥 소상, 대상 하는데. 저 지금은 안 한 것 뿐이지.)

112044 @ 아.(아.)

112044 #2 안 험주게. 처음엔 대상까지 허당 또 중간엔 소상까지 허당. 이젠 아무 것도 안 험주게. 영장행 오민 상도 안 놓곡 끝 해근엔 이제 납골당에 가는 사람은 납골당에 가고. 경 안 허는 사람은 묻고 가족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은 거기 허고게.(안 하고 있지. 처음에는 대상까지 하다가 또 중간에는 소상까지 하다가. 이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 영장해서 오면 상도 안 놓고 끝 해서 이제 납골당에 가는 사람은 납골당에 가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묻고 가족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은 거기 하고.)

112045 @ 토롱, 토롱은 알아마씨?(토롱, 토롱은 알아요?)

112045 #2 토롱은 그 영 상지가 걸림젠 허여. 게곡 바쁘면 농사 때 되면 토롱 헛당 영장허여.(토롱은 그 이렇게 상지가 걸린다고 해. 그리고 바쁘면 농사 때 되면 토롱 했다가 영장해.)

112045 @ 토롱 헛당 영장해마씨?(토롱 했다고 영장해요?)

112045 #2 어.(어.)

112045 @ 어떻게 하는 거마씨? 토롱은.(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롱은.)

112945 #2 어디 영 밧에.(어디 이렇게 밧에.)

112045 @ 예.(예.)

112945 #2 밧에 임시 묻엇주게 느람지¹⁵²⁾ 더꺼근엔.(밧에 임시 묻엇지 이영 텃어서.)

112045 @ 예.(예.)

112945 #2 느람지 더경 막 바쁠 때 죽으면.(이영 텃어서 막 바쁠 때 죽으면.)

112045 @ 예.(예.)

112945 #2 영장할 수가 잇지 바쁠. 게면 토롱 헛다근엔 한걸허면 허고.(영장할

152) 이영은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텃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느라미, 느래미, 느람쥐, 느레, 놀래’라고도 한다.

수가 없지 바빠서. 그러면 토롱 했다가 한거하면 하고.)

112945 @ 잠깐 잠깐 묻었다가?(잠깐 잠깐 묻었다가?)

112945 #2 응. 혼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경 묻었다가.(응.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그렇게 묻었다가.)

112046 @ 이묘도 하잖아예? 묘 이렇게 옮기는 거.(이묘도 하잖아요? 묘 이렇게 옮기는 거.)

112046 #2 응.(응.)

112046 @ 이묘는 어떻게 해마씨?(이묘는 어떻게 해요?)

112046 #2 이묘게 그 묻엇당 묻엇다근에게 그 가족 공동 허젠 허민 이묘해 완주게 천리¹⁵³ 허는 거라 천리.(이묘는 그 묻엇다가 묻엇다가 그 가족 공동 하려고 하면 이묘해 왔지 ‘천리’ 하는 거야 ‘천리’.)

112046 @ 천리.(‘천리’.)

112046 #2 옛날엔 천리라 했어. 천리를 해 와야 천리 해 오는 거주게. 영 가족 공동묘지 허젠 허민. 이디저디 묻엇던 거를 다 천리 해 와.(옛날에는 ‘천리’라 했어. ‘천리’를 해 와야 ‘천리’ 해 오는 거지. 이렇게 가족 공동묘지 하려고 하면. 여기서 기 묻엇던 거를 다 ‘천리’ 해 와.)

112047 @ 그 복은 언제 벗어마씨? 그 상복은? 옛날에.(그 복은 언제 벗어요? 그 상복은? 옛날에.)

112047 #2 그거게 대상 해나민 벗지.(그거 대상 한 후에 벗지.)

112048 @ 그 상례 할 때 금기사항 많이 잇을 거 아니마씨?(그 상례 할 때 금기사항 많이 잇을 거 아니에요?)

112048 #2 뭐?(뭐?)

112048 @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상례 때. 상 치를 때.(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상례 때. 상 치를 때.)

112048 #2 상 치를 때 아니고 영장 묻을 때게.(상 치를 때 아니고 송장 묻을 때.)

112048 @ 아, 영장 묻을 때?(아, 송장 묻을 때?)

112048 #2 응. 영장 묻을 때 지금도 허여.(응. 영장 묻을 때 지금도 해.)

112048 @ 뭐, 뭐 하지 마라고마씨?(뭐, 뭐 하지 마라고요?)

112048 #2 그 죽은 사람허고 맞지 않으민 보지 말렌.(그 죽은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보지 말라고.)

112048 @ 음.(음.)

112048 #2 그 자식이라도 그 죽은 사람 땅에 묻을 때 보지 말렌. 자식이라도 보지 말렌 맞지 아니허민.(그 자식이라도 그 죽은 사람 땅에 묻을 때 보지 말라고. 자식이라도 보지 말라고 맞지 않으면.)

153) ‘천리’는 밋자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제례

112052 @ 그 제사 지낼 때 제육 잇잖아예? 고기들. 고기들 뭐, 뭐 제사상에 올리주마씨? 옛날에는?(그 제사 지낼 때 제육 잇잖아요? 고기들. 고기들 뭐, 뭐 제사상에 올리지요? 옛날에는?)

112052 #2 이제나 마찬가지로. 생선허곡게 돼지고기허곡게 옛날엔 소고기 안 했지.(이제와 마찬가지로이지. 생선하고 돼지고기하고 옛날에는 소고기 안 했지.)

112052 @ 옛날에는 소고기 안 허고?(옛날에는 소고기 안 하고?)

112052 #2 옛날엔 소고기 엇엇주게. 돼지고기만 허주.(옛날에는 소고기 없었지. 돼지고기만 하지.)

112052 @ 그럼 생선은 뭐 안 허는 거 엇어언마씨? 다 올려마씨? 아니면 안 되는 생선도 잇지 않아마씨?(그럼 생선은 뭐 안 하는 거 없었어요? 다 올려요? 아니면 안 되는 생선도 잇지 않았어요?)

112052 #2 게. 그 올리는 건게 생선허고 그 우럭 ㄹ튼 거.(그럼. 그 올리는 건 생선하고 그 우럭 같은 거.)

112052 @ 우럭 같은 거?(우럭 같은 거?)

112052 #2 어.(어.)

112053 @ 그럼 적은 몇 종류 준비해마씨? 적?(그럼 적은 몇 종류 준비해요? 적?)

112053 #2 적은게 한 가지. 게난 적 저 영 사람이 매지. 그 ㄹ몰가루 헤근엿.(적은 한 가지. 그러니 적 저 이렇게 사람이 매지. 그 메밀가루 해서.)

112053 @ 예.(예.)

112053 #2 적도 허고 또 어떤 사람은 영 그 지저근엿 ㄹ몰가루로 영 지정도 허고게.(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지저서 메밀가루로 이렇게 지저서도 하고.)

112054 @ 그럼 떡은 몇 종류 준비해마씨? 제사상에 올릴 때.(그럼 떡은 몇 종류 준비해요? 제사상에 올릴 때.)

112054 #2 그건 마음이라.(그건 마음이야.)

112054 @ 마음대로?(마음대로?)

112054 #2 잘 차리는 사람은 막 여러 가지 허고 못 차리는 사람은 한두 가지 허고.(잘 차리는 사람은 막 여러 가지 하고 못 차리는 사람은 한두 가지 하고.)

112054 @ 어르신은 대략 몇 가지 정도 헨마씨?(어르신은 대략 몇 가지 정도 했어요?)

112054 #2 그 대략은 침떡허곡 그 송편, 절편 그런 거 허지.(그 대략은 시루떡 하고 그 송편, 절편 그런 거 하지.)

112055 @ 그럼 과일은 몇 종류 준비헨마씨?(그럼 과일은 몇 종류 준비했어요?)

112055 #2 세 가지 허여 대게.(세 가지 해 대게.)

112055 @ 제주도에선 뭐, 뭐 헤마씨?(제주도에서는 뭐, 뭐 해요?)

112055 #2 사과하고 미짱 배 세 가지.(사과하고 굴 배 세 가지.)

112055 @ 그럼 몇 개씩 올려마씨?(그럼 몇 개씩 올려요?)

112055 #2 그건 사람이 허여. 영 올리는 사람 단단해근영 높으게 행 올리고 경 안 헌 사람은 세 개씩 올리고 경 허주.(그건 사람이 해. 이렇게 올리는 사람 단단해서 높게 해서 올리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세 개씩 올리고 그렇게 하지.)

112055 @ 막, 홀수로 올리라고 허지 얹안마씨?(막, 홀수로 올리라고 하지 얹았어요?)

112055 #2 아니.(아니.)

112056 @ 그럼 채소는 뭐, 뭐 올린마씨? 채소 뭐, 뭐 준비헨마씨?(그럼 채소는 뭐, 뭐 올렸어요? 채소 뭐, 뭐 준비했어요?)

112056 #2 고사리는 꼭 해야지.(고사리는 꼭 해야지.)

112056 @ 고사리.(고사리.)

112056 #2 응.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 경 세 가지주게.(응.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 그렇게 세 가지이지.)

112057 @ 그럼 진설은 누가 해마씨? 진설.(그럼 진설은 누가 해요? 진설.)

112057 #2 남자들이 허지. 아들이. 이젠 아무라도 해. 여자들도.(남자들이 하지. 아들이. 이제는 아무라도 해. 여자들도.)

112057 @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112057 #2 옛날에는 이 묶으는 거 고기 적갈 끼는 것도 남자만 헛어.(옛날에는 이 묶는 거 고기 적갈 끼는 것도 남자만 헛어.)

112057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12057 #2 어 여자 안 허여. 남자들만. 우리 할 때도 남자만 헛어. 우리 중간에 살아갈 때는 여자들도 막 허곡 빨리 출렁 내놔. 겐디 우리 전에는 남자만 헛어.(어 여자 안 해. 남자들만. 우리 할 때도 남자만 헛어. 우리 중간에 살아갈 때는 여자들도 막 하고 빨리 차려서 내놔. 그런데 우리 전에는 남자만 헛어.)

112058 @ 메랑 갱은 누가 떠마씨? 메랑 갱.(메랑 갱은 누가 떠요? 메랑 갱.)

112058 #2 여자들 허지.(여자들 하지.)

112058 @ 예. 여자들이 보통 허는데.(예. 여자들이 보통 하는데.)

112058 #2 응.(응.)

112058 @ 뭐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잇이른 뭐 정해진 거 엇어마씨?(뭐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있으면 뭐 정해진 거 없어요?)

112058 #2 엇어 엇어. 시어명도 허고 며느리도 허고. 며느리가 대개 허지. 젊으니까.(없어 없어. 시어머니도 하고 며느리도 하고. 며느리가 대개 하지. 젊으니까.)

112059 @ 현관에 대해 아는 거 좀 곶아 줘서.(현관에 대해 아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12059 #2 현관은 안 들어봤인다.(현관은 안 들어봤는데.)

112060 @ 그럼 과제는 보통 몇 시에 헨마씨?(그럼 과제는 보통 몇 시에 했어요?)

112060 #2 열한시만 넘으면 그 다음날 돼니까 열한시만 넘으면 제 지내주게.(열한시만 넘으면 그 다음날 되니까 열한시만 넘으면 제 지내지.)

112061 @ 그러면 문전제는 언제 지내마씨? 어떻게 지내마씨?(그러면 문전제는 언제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112061 #2 문전제는 아무거나 해도 문전제는 제사허여. 이 문전에.(문전제는 아무거나 해도 문전제는 제사해. 이 문전에.)

112061 @ 예.(예.)

112061 #2 오늘 끝났잖아 남선비. 그건 제사 때도 처음에 허여. 이 상 차릴 때도 처음에 허고. 계난 이 문전 이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오젠 허민 문전이 알지. 계면 제사 할 때도 문전상부터 절 헤영 허여 똥 제사상 허곡. 떡 올릴 때도 문전상부터 차려 낵 또 사람 절 허고.(오늘 말했잖아 '남선비'. 그건 제사 때도 처음에 해. 이 상 차릴 때도 처음에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전 이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문전이 알지. 그러면 제사 할 때도 문전상부터 절 해서 해 두고 제사상 하고. 떡 올릴 때도 문전상부터 차려 낵서 또 사람 절 하고.)

112062 @ 아, 기구나예. 그럼 제반은 어떻게 헤마씨? 제반.(아, 그렇군요. 그럼 제반은 어떻게 해요? 제반.)

112062 #2 제반이 뭇이라?(제반이 무엇이야?)

112062 @ 제사 지내 놓고 그 위에 밥이나 반찬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헤마씨?(제사 지내 놓고 그 위에 밥이나 반찬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112062 #2 처음엔게 떡허고 과일 올렸당.(처음에는 떡하고 과일 올렸다가.)

112062 @ 예.(예.)

112062 #2 그 제사 시간 돼 가민 메 헤영 올려.(그 제사 시간 돼 가면 메 해서 올려.)

112062 @ 예.(예.)

112062 #2 경 행 제사 지내지.(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지.)

112063 @ 그럼 지제도 헤마씨? 지제?(그럼 지제도 해요? 지제?)

112063 #2 계.(그럼.)

112063 @ 지제는 뭐마씨?(지제는 뭐예요?)

112063 #2 지제는 지금은 막 빨리 지제 헤 붙어. 옛날에는.(지제는 지금은 막 빨리 지제 헤 버려. 옛날에는.)

112063 @ 예.(예.)

112063 #2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고조뉘민 지제허여.(할아버지 증조 고조 고조뉘면 지제해.)

112063 @ 아, 고조뉘면?(아, 고조뉘면?)

112063 #2 어. 지금은 하르방,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지제해. 지금은. 옛날

에는 고조까지 했지.(어. 지금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지제해. 지금은. 옛날에는 고조까지 했지.)

112063 @ 지제는 뭐 허는 거마씨? 어르신?(지제는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

112063 #2 제사 안 헌다고 끝내 부는 거.(제사 안 한다고 끝내 버리는 거.)

112064 @ 묘제는 어떻게 해마씨? 묘제.(묘제는 어떻게 해요? 묘제.)

112064 #2 묘제는 김칩이면 김칩이 웃대 할아버지한테 제사 끝나면 지제 해 보면.(묘제는 김칩이면 김칩이 웃대 할아버지한테 제사 끝나면 지제 해 버리면.)

112064 @ 예.(예.)

112064 #2 다음은 아까 곶은 거 무시거?(다음은 아까 말한 거 무엇?)

112064 @ 묘제.(묘제.)

112064 #2 묘제허지. 묘제. 삼월 초하루날이나. 우리 권당은 벌초하는 날 허여. 팔월 초하루날.(묘제하지. 묘제. 삼월 초하루날이나. 우리 권당은 벌초하는 날 해. 팔월 초하루날.)

112065 @ 그림 제사할 때 금기사향 있어마씨?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뭐 엇인 가마씨?(그림 제사할 때 금기사향 있어요?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뭐 없었나요?)

112065 #2 제사할 때는 영장칩이 가지 말아사. 저 영장칩에 가지 말아야.(제사할 때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야. 저 초상집에 가지 말아야.)

112049 @ 제사 많이 지냈지예?(제사 많이 지냈지요?)

112049 #3 제사 많이 아니 지내도.(제사 많이 안 지내도.)

112049 @ 그래도 했지예?(그래도 했지요?)

112049 #3 그래도 몇 번 했주게.(그래도 몇 번 했지.)

112049 @ 아, 몇 번 헨마씨?(아, 몇 번 했어요?)

112049 #3 겐디 옛날은.(그런데 옛날은.)

112049 @ 예.(예.)

112049 #3 잘 처리지 못 허여.(잘 처리지 못 해.)

112049 @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 처리는지 곶아 줘서.(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처리는지 말해 주십시오.)

112049 #3 돈도 엇고 가난허고 허민 저 이젠 막 이것저것 하간 것 뭐 온갖 것 다 허는다.(돈도 없고 가난하고 하면 저 이제는 막 이것저것 여러 것 뭐 온갖 것 다 하는데.)

112049 @ 예.(예.)

112049 #3 그 때는 돼지래기 사당 그거 영 적 허영 요만씩 그칭 적 허영 그거 후라이팬에서 지정 다 이딘 고쟁이 꿰어근영 상에 올리매. 그추룩 허고 또 이젠 묵 허영 쏜 것도 이제 썰명 고쟁이 꿰영 또 적같이영 같으게 허영 농곡. 생선 므른 거 사당 구영 놓고. 이제 또 국 끓이는 것도 생선 해당근영 국 끓영 게염국¹⁵⁴⁾이렌 허여.(그 때는 돼지고기 사다가 그거 이렇게 적 해서 요만씩 끓어서 적 해서 그거 프

154) '게염국'은 제사 때 생선으로 푹 끓인 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라이팬에서 지져서 다 여기는 꼬챙이 꿰어서 상에 올려. 것처럼 하고 또 이제는 목해서 쏜 것도 이제 썰면서 꼬챙이 꿰어서 또 적갈과 같이 해서 놓고. 생선 마른 거 사다가 구워서 놓고. 이제 또 국 끓이는 것도 생선 해다가 국 끓여서 ‘계엄국’이라고 해.)

112049 @ 예.(예.)

112049 #3 경 허고 밥허영 그거주게.(그렇게 하고 밥해서 그거지.)

112049 @ 그거?(그거?)

112049 #3 이젠 막 하간 것 출려.(이제는 막 여러 것 차려.)

112050 @ 그럼 제물로는 뭐 준비하는 거 엇우광? 제물로?(그럼 제물로는 뭐 준비하는 거 없습니까? 제물로?)

112050 #3 제물로는 저 쌀 이제 떡들 아니 먹으니깐 쌀 두 되민 제사허여.(제물로는 저 쌀 이제 떡들 안 먹으니까는 쌀 두 되면 제사해.)

112050 @ 아. 쌀 두 되면?(아. 쌀 두 되면?)

112050 #3 아무 집이라도 강 그 무시거 요만씩 헌 거 만들고 침떡 만들고 허면 웨여.(아무 집이라도 가서 그 무엇 요만씩 한 거 만들고 시루떡 만들고 하면 돼.)

112051 @ 그믐 콩나물도 준비하잖아예?(그러면 콩나물도 준비하잖아요?)

112051 #3 콩나물도 조금 사당 숲양 그거 하간 양념 넣영 서경 허곡.(콩나물도 조금 사다가 삶아서 그거 여러 양념 넣어서 섞어서 하고.)

112052 @ 그럼 그 제육은 어떻 준비해마씨? 바닷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그냥 사와서 만들지예?(그럼 그 제육은 어떻게 준비해요? 바닷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그냥 사와서 만들지요?)

112052 #3 사와사. 바닷게기도 므른 건 구워 놓곡.(사와야. 바닷고기도 마른 건 구워서 놓고.)

112052 @ 예.(예.)

112052 #3 늘 건 그냥 그건 끓여. 끓여근영 허주게.(날 건 그냥 그건 끓여. 끓여서 하지.)

112053 @ 적은 종류가 몇 개 잇수광? 이렇게 허는 거는?(적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112053 #3 적 이제 적 하간 것 종류가 하도. 그 옛날은.(적 이제 적 여러 것 종류가 많아도. 그 옛날은.)

112053 @ 옛날에는?(옛날에는?)

112053 #3 그것베피 엇어.(그것밖에 없어.)

112053 @ 뭐. 돼지고기밖에 엇우광?(뭐. 돼지고기밖에 없습니까?)

112053 #3 돼지케기허곡 저 메밀로 허여근영 적 허여. 그걸로 적 허고 떡 허영 놓곡 이제 무시거 더 사당 놓을 사람은 더 음료수여 뭐여 이것저것 해도.(돼지고기 하고 저 메밀로 해서 적 해. 그걸로 적 하고 떡 해서 놓고 이제 무엇 더 사다가 놓을 사람은 더 음료수여 뭐여 이것저것 해도.)

112053 @ 예.(예.)

112053 #3 그거. 계고 이젠.(그거. 그리고 이제는.)

112053 @ 예.(예.)

112053 #3 저 쉼레기도 상 허는디 그 옛날은 쉼레기 상 못 해봤어.(저 소고기도 사서 하는데 그 옛날은 소고기 사서 못 해봤어.)

112053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12053 #3 이젠 다 쉼레기 상 허주게.(이제는 다 소고기 사서 하지.)

112054 @ 그럼 떡은 종류가 뭐, 뭐 잇언마씨?(그럼 떡은 종류가 뭐, 뭐 있었어요?)

112054 #3 떡 종류는 쌀만.(떡 종류는 쌀만.)

112054 @ 쌀만?(쌀만?)

112054 #3 쌀 허여근엥 혼 말이면 혼 말 두 뉘면 두 뉘 허영 헤 줍서 허민 그걸로 호끔씩 허여. 송편 요만씩 현 거 만들곡. 침떡 맨들아.(쌀 해서 한 말이면 한 말 두 되면 두 되 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로 조금씩 해. 송편 요만씩 한 거 만들고. 시루떡 만들어.)

112055 @ 그럼 과일은 옛날에 한 몇 가지 올려신가마씨?(그럼 과일은 옛날에 한 몇 가지 올렸었나요?)

112055 #3 옛날이나 이제나 저 텔레비전 보난 그추록 나오란게. 우리 큰아들은 제사 때 꼭 텔레비전에 나온 거추록 올리매.(옛날이나 이제나 저 텔레비전 보니까 것처럼 나오던데. 우리 큰아들은 제사 때 꼭 텔레비전에 나온 것처럼 올려.)

112055 @ 아.(아.)

112055 #3 하영 올리지 앓어. 혼 사라에 시 개씩.(많이 올리지 앓아. 한 그릇에 세 개씩.)

112055 @ 아.(아.)

112055 #3 시 개씩 배면 시 개. 사과민 시 개. 미깡이면 시 개. 영 허곡 허여근엥 우이 다 허영 허주게.(세 개씩 배명 세 개. 사과면 세 개. 밀감이면 세 개. 이렇게 하고 해서 위에 다 해서 하지.)

112056 @ 그럼 채소는 뭐, 뭐 준비 헤마씨? 채소?(그럼 채소는 뭐, 뭐 준비해요? 채소?)

112056 #3 채소? 콩나물허곡 고사리 볶양 허주게.(채소? 콩나물하고 고사리 볶아서 하지.)

112057 @ 그럼 진설은 누가 헤마씨? 진설?(그럼 진설은 누가 해요? 진설?)

112057 #3 진설할 때?(진설할 때?)

112057 @ 예. 그거 누가 헤마씨?(예. 그거 누가 해요?)

112057 #3 그거 우리 집이 부 잇일 땐 아방만 제사 그거 써근엥 붙영 상에 올령 허는디.(그거 우리 집에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만 제사 그거 써서 붙여서 상에 올려서 하는데.)

112057 @ 예.(예.)

112057 #3 큰아들이 대학교 할 때에 그거 못허난 아방안티 욱 듣고 아방안티 이제 영 영 허라 가르쳐주난 이제 잘 허여.(큰아들이 대학교 할 때에 그거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욱 듣고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니까 이제 잘 해.)

112058 @ 그럼 메랑 갯은 누가 해마씨?(그럼 메랑 갯은 누가 해요?)

112058 #3 응?(응?)

112058 @ 메랑 갯은 안 들어보셨마씨?(메랑 갯은 안 들어보셨어요?)

112058 #3 메 저 밥 허영 올리는 거? 그거는 아무 집이나 다 허는 거주게.(메 저 밥 해서 올리는 거? 그거는 아무 집이나 다 하는 거지.)

112058 @ 예. 그거 시어머니가 가져와마씨? 며느리가 가져와마씨?(예. 그거 시어머니가 가져와요? 며느리가 가져와요?)

112058 #3 며느리 시면 며느리가 행 오고게.(며느리 있으면 며느리가 해서 오고.)

112058 @ 예.(예.)

112058 #3 시어멍 시면 시어멍만 허곡. ㄹ치 심부름 허고. 경 허는 거.(시어머니 있으면 시어머니만 하고. 같이 심부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112059 @ 현관에 대해서 알아마씨?(현관에 대해서 알아요?)

112059 #3 응?(응?)

112059 @ 현관 들어봤수광?(현관 들어봤습니까?)

112059 #3 이거 현관이지? 저 문 열으면 나가는데. 저 문 열어근엥 이제 그 무슨 상이엔 허영 그것부터 절 허여근엥 그디 상에 거 조금씩 잡아 낱 저레 버리주게. 구신 먹영 가랜.(이거 현관이지? 저 문 열으면 나가는데. 저 문 열어서 이제 그 무슨 상이라고 해서 그것부터 절 해서 거기 상에 거 조금씩 잡아 낱서 저리 버리지. 귀신 먹고 가라고.)

112060 @ 보통 그럼 그 파제는 몇 시에 해마씨?(보통 그럼 그 파제는 몇 시에 해요?)

112060 #3 파제?(파제)

112060 @ 예.(예.)

112060 #3 옛날엔 막 오래 헤영 밤 들영 혼 열두시 돼어야 허는디.(옛날에는 막 오래 해서 밤 들어서 한 열두시 돼야 하는데.)

112060 @ 예.(예.)

112060 #3 이젠 열 시 되면 마쳐버려.(이제는 열 시 되면 마쳐버려.)

112061 @ 문전제도 지내셨마씨?(문전제도 지내셨어요?)

112061 #3 문전제 허여.(문전제 해.)

112061 @ 문전제는 뭐팡?(문전제는 뭐입니까?)

112061 #3 상 조그만한 상에 하간 거 그디 만든 거 다 놓아근엥.(상 조그만한

상에 여러 거 거기 만든 거 다 놓아서.)

112061 @ 예.(예.)

112061 #3 영 요래 놔근앵 절허영 저 문 열어근앵 허는 거주게.(이렇게 요리 놔서 절해서 저 문 열어서 하는 거지.)

112062 @ 제반은 어떻 헤마씨?(저반은 어떻게 해요?)

112062 #3 제반은 그거 문전상 놔 허영. 문전상 앓아당 이레 놓으민 저 제관들 이제 큰 상에 절 허주게.(제반은 그거 문전상 놔서 해. 문전상 가져다가 이리 놓으면 저 제관들 이제 큰 상에 절 하지.)

112063 @ 지제는 언제 헤마씨? 지제.(지제는 언제 해요? 지제.)

112063 #3 지제는.(지제는.)

112063 @ 예.(예.)

112063 #3 즈손이 오대ㄱ정 잇어야 허주게. 오대 됴민 지제 허는디. 이젠 오대 전에 다 허여.(자손이 오대까지 잇어야 하지. 오대 되면 지제 하는데. 이제는 오대 전에 다 해.)

112064 @ 그럼 묘제는 어떻 헤마씨? 묘제.(그럼 묘제는 어떻게 해요? 묘제.)

112064 #3 묘제도 지제 헌 산에.(묘제도 지제 한 산에.)

112064 @ 예.(예.)

112064 #3 몇 년씩 오래민 저 허는 거.(몇 년씩 오래면 저 하는 거.)

112065 @ 그럼 제사할 때 뭐 하지 말아야 허는 거 잇수광?(그럼 제사할 때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있습니까?)

112065 #3 제사할 때 뭐 허지 말라야 허는 거 벨로 엇어.(제사할 때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벨로 엇어.)

13. 민간요법

113001 @ 그 민간요법 물어볼 거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지금은 감기 걸리면 그냥 약, 약 먹거나 병원 가잖아예? 고뿔 걸리면.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신가 물어보젠 험신디예.(그 민간요법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지금은 감기 걸리면 그냥 약, 약 먹거나 병원 가잖아요? 고뿔 걸리면.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13001 #2 어.(어.)

113001 @ 먼저, 기계충이라고 들어보셨마씨? 기계충?(먼저, 기계충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기계충?)

113001 #2 기계충?(기계충?)

113001 @ 옛날에 그 막 머리 이렇게 기계로 꺾으면 머리에 막 뭐 나는 게 기계충이라고 하는데. 이밭소에서나 아니면 미용실에서 머리 기계로 꺾잖아예?(옛날에

그 막 머리 이렇게 기계로 꺾으면 머리에 막 뭐 나는 게 기계총이라고 하는데. 이 발소에서나 아니면 미용실에서 머리 기계로 꺾잖아요?)

113001 #2 어. 기계로 허주게.(어. 기계로 하지.)

113001 @ 기계로 꺾으면 머리에 기계가 더러워 부난 머리에 뭐 나는 게 잇엇인디 그런 거 들어본 적 엇어마씨?(기계로 꺾으면 머리에 기계가 더러워 버리니까 머리에 뭐 나는 게 잇었는데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113001 #2 하여튼 기계로 꺾앗주게. 근디 그건 들어본 적 엇인 거 님은디.(하여튼 기계로 꺾앗지. 근데 그건 들어본 적 없는 거 같은데.)

113002 @ 독창은 들어보션마씨? 독창?(독창은 들어보셨어요? 독창?)

113002 #2 독창은게 허물 낭.(독창은 헌데 나서.)

113002 @ 예.(예.)

113002 #2 이건 허물 나민 허물이주게. 주짜¹⁵⁵⁾ 튀어 나와 허물이.(이건 헌데 나면 헌데이지. ‘주짜’ 튀어 나와 헌데가.)

113002 @ 예.(예.)

113002 #2 게믄 옛추룩 허영 그 탕약추룩 맨들어근앵.(그러면 옛처럼 해서 그 탕약처럼 만들어서.)

113002 @ 예.(예.)

113002 #2 하루방이 침주는 하루방이 만들엉 그걸 붙여. 게믄 구멍 얼른 하면 고치주게. 그 약을 붙이믄 고름 나와 붙믄.(할아버지가 침주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그걸 붙여. 그러면 구멍 얼른 하면 고치지. 그 약을 붙이면 고름 나와 버리면.)

113002 @ 아.(아.)

113002 #2 그 병원도 엇고게 허난게 그 의원 하루방이.(그 병원도 없고 하니까 그 의원 할아버지가.)

113002 @ 예.(예.)

113002 #2 그거를 약초영 막 솟아근앵 옛처럼 솟앙 그걸 만들어. 만들어근앵 그거 영 불르민 좋주게. 그거 궤약, 궤약이엔 허주게 그것 마라.(그거를 약초와 막 삶아서 옛처럼 삶아서 그걸 만들어. 만들어서 그거 이렇게 바르면 좋지. 그거 고약 고약이라고 하지. 그것더러.)

113002 @ 궤약?(고약?)

113002 #2 궤약. 그거 만들어근앵 궤약 행 발르면 그것이 고름 터져.(고약. 그거 만들어서 고약 해서 바르면 그것이 고름 터져.)

113002 @ 경 행 낮는 거마씨?(그렇게 해서 낮는 거예요?)

113002 #2 어.(어.)

113003 @ 그럼 옛날에 그 머리에 이렇게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엇인디 하얗게 비듬 잇엇잖아예? 그거 생기면 옛날엔 어떻 헨마씨?(그럼 옛날에 그 머리에 이렇게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없는데 하얗게 비듬 잇엇잖아요? 그거 생기면

155) ‘주짜’은 물건의 윗머리가 높이 솟아 튀어난 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13003 #2 그거 곧 날 때 모욕을 잘 안 해 부난.(그거 곧 날 때 모욕을 잘 안 해 버리니까.)

113003 @ 예.(예.)

113003 #2 깨끗이 안 해 부난.(깨끗이 안 해 버리니까.)

113003 @ 예.(예.)

113003 #2 경 행 생기는 것이 그것이 비듬이주게.(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그것이 비듬이지.)

113003 @ 예.(예.)

113003 #2 비듬 그거.(비듬 그거.)

113003 @ 그거 없애려고 허민 뭐 소금물에다 뭐 그런 거 엇언마씨?(그거 없애려고 하면 뭐 소금물에다 뭐 그런 거 없었어요?)

113003 #2 그거 소금물에 쑥 허영 자주 감으면 그것이 엇어져.(그거 소금물에 쑥 해서 자주 감으면 그것이 없어져.)

113006 @ 그면 얼굴에 막 그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여드름 나잖아예? 여드름? 그거 나면 뭐 바르는 거 엇언마씨?(그러면 얼굴에 막 그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여드름 나잖아요? 여드름? 그거 나면 뭐 바르는 거 없었어요?)

113006 #2 엇엇주게. 영 손으로 짚주게 짜. 경 허든 막 뭐 낫주게.(없었지. 이렇게 손으로 짚지 짜. 그렇게 하면 막 뭐 낫지.)

113007 @ 아, 기구나예. 그럼 기미 잇잖아예? 기미?(아, 그렇군요. 그럼 기미 잇잖아요? 기미?)

113007 #2 지미 있어.(기미 있어.)

113007 @ 예. 지미. 지미 나면 뭐 허는 거 엇어마씨? 지미 생기면?(예. 기미. 기미 나면 뭐 하는 거 없어요? 기미 생기면?)

113007 #2 지미는 고치지 못 허여. 지미는 그거는 아기 베면 막 지미 생겨. 아기 가지면. 얼굴에. 게난 그것이 못 견더 가난 지미 얼굴에 나는 모양이라 힘들어 부난.(기미는 고치지 못 해. 기미는 그거는 아기 베면 막 기미 생겨. 아기 가지면. 얼굴에. 그러니 그것이 목 견더 가니까 기미 얼굴에 나는 모양이야 힘들어 버리니까.)

113008 @ 그문 주근깨 짜글짜글 나잖아예? 나는 사람들 잇잖아예 얼굴에. 그건 어떻 고쳐마씨?(그러면 주근깨 짜글짜글 나잖아요? 나는 사람들 잇잖아요 얼굴에. 그건 어떻게 고쳤어요?)

113008 #2 그건 본래 경 허여. 사름 늙어가도 어떤 사람은 그 그것⁷라 뿔이라 허는디 늙어 강 나는 거. 초기, 초기.(그건 본래 그렇게 해. 사름 늙어가도 어떤 사람은 그 그것더러 뿔이라 하는데 늙어 가서 나는 거. 검버섯, 검버섯.)

113008 @ 초기? 버짐 같은 거마씨?(검버섯? 버짐 같은 거예요?)

113008 #2 응. 초기. 거뭇거뭇¹⁵⁶ 현 거.(응. 검버섯. ‘거뭇거뭇’ 한 거.)

113008 @ 아, 버짐을 초기라고 헤마씨?(아, 버짐을 ‘초기’라고 해요?)

113008 #2 응.(응.)

113008 @ 그럼 그거 나면 뭐 어떻 없애는 방법은 엇어마씨?(그럼 그거 나면 뭐 어떻게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113008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13010 @ 그럼 눈에 이렇게 다래끼 나잖아예? 막 눈 이렇게 여기에 막 나잖아예?(그럼 눈에 이렇게 다래끼 나잖아요? 막 눈 이렇게 여기에 막 나잖아요?)

113010 #2 응.(응.)

113010 @ 지금은 뭐 눈썹 뽑앙 뭐 허는데. 지금도 경 헤마씨?(지금은 뭐 눈썹 뽑아서 뭐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113010 #2 게. 저 눈썹 뽑앙 허는데.(그럼. 저 눈썹 뽑아서 하는데.)

113010 @ 예.(예.)

113010 #2 거 무시거도 허엿인다. 보리, 산디. 그것 ㄹ라 개쫓¹⁵⁷이렌 허주게. 아래 나는 건 개썸¹⁵⁸이고.(거 무엇도 했는데. 보리, 발벼. 그것더러 ‘가쫓’이라고 하지. 아래 나는 건 ‘개썸’이고.)

113010 @ 아.(아.)

113010 #2 아래도 나고 우에도 나.(아래도 나고 위에도 나.)

113010 @ 아래 나면 뭐마씨?(아래 나면 뭐예요?)

113010 #2 개썸.(‘개썸’.)

113010 @ 개썸. 우에 나면?(‘개썸’. 위에 나면?)

113010 #2 개쫓.(‘개쫓’.)

113010 @ 아.(어.)

113010 #2 경 곺아나서.(그렇게 말했었지.)

113010 @ 아, 위아래가 달랐다예?(아, 위아래가 달랐군요?)

113010 #2 어.(어.)

113011 @ 그럼 눈 빨갱게 뵤면 뭐 먹는 거나 허는 거는 엇언마씨? 눈 피곤하면 빨갱게 뵤잖아예? 충혈 뵤고.(그럼 눈 빨갱게 뵤면 뭐 먹는 거나 하는 거는 없었어요? 눈 피곤하면 빨갱게 뵤잖아요? 충혈 뵤고.)

113011 #2 아이 그거 옛날에는 그냥 잇엇주게.(아이 그거 옛날에는 그냥 잇엇지.)

113012 @ 그럼 막 이빨 아플 때는 뭐 허는 거 엇언마씨? 이빨 아플 때?(그럼 막 이빨 아플 때는 뭐 하는 거 없었어요? 이빨 아플 때?)

113012 #2 이빨 아프민 췌우리 씨 허영.(이빨 아프면 부추 씨 해서.)

113012 @ 예?(예?)

156) ‘거뭇거뭇’은 색이 거무스름한 상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가뭇가뭇, 거물거물, 가물가물’이라고도 한다.

157) ‘개쫓’은 윗눈시울에 난 다래끼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58) ‘개썸’은 아랫눈시울에 난 다래끼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3012 #2 쉼우리 씨.(부추 씨.)

113012 @ 쉼우리 씨? 그게 뭐깡?(부추 씨? 그게 뭐입니까?)

113012 #2 이제, 부추, 부추 열매 행 그 씨 허여근앵이 뺏앙 이레 놓으민.(이제, 부추, 부추 열매 해서 그 씨 해서 뺏아서 여기 놓으면.)

113012 @ 예.(예.)

113012 #2 그거 막 독헌 거라. 그 쉼우리 씨 허민 죽어났어. 이빨에도 충 잇는 모양이라.(그거 막 독한 거야. 그 부추 씨 하면 죽어났어. 이빨에도 충 잇는 모양이야.)

113012 @ 예. 기주마씨.(예. 그렇지요.)

113012 #2 그걸로 치료했주게.(그걸로 치료했지.)

113013 @ 그럼 혀에 뭐 나잖아예? 헛바늘 같이 막 잠 안자고 일 많이 허고 피곤하면.(그럼 혀에 뭐 나잖아요? 헛바늘 같이 막 잠 안자고 일 많이 하고 피곤하면.)

113013 #2 세까지 일엇젠 허여.(헛바늘 생겼다고 해.)

113013 @ 뭐마씨?(뭐요?)

113013 #2 세까지 일엇젠.(헛바늘 생겼다고.)

113013 @ 아, 세까지 일엇젠. 그럼 세까지 일든 뭐 허는 거 엇언마씨? 어떻 그거 없앤마씨?(아, 헛바늘 생겼다고. 그럼 헛바늘 생기면 뭐 하는 거 없었어요? 어떻게 그거 없었어요?)

113013 #2 허는 건 엇어. 내불면 좋주. 피곤하면 세까지 일어. 세에 뭐 난 것추록.(하는 건 없어. 내버리면 좋지. 피곤하면 헛바늘 생겨. 혀에 뭐 난 것처럼.)

113015 @ 그럼 홍역 잇잖아예? 홍역 나면 그때도 곤긴 헛인디. 홍역 나면 옛날엔 어떻 해서 없엇주마씨?(그럼 홍역 잇잖아요? 홍역 나면 그때도 말하기는 했는데. 홍역 나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없엇지요?)

113015 #2 홍역 나면게 막 빌엇주게. 빌만 허주 뭐 약 잇이까?(홍역 나면 막 빌엇지. 빌기만 하지 뭐 약 있을까?)

113015 @ 누구한테 빌언마씨?(누구한테 빌엇어요?)

113015 #2 심방 헤다근앵 할망헌데 허는 건 할망신디 비는 거고.(무당 불러서 할머니한테 하는 건 할머니한테 비는 거고.)

113015 @ 예.(예.)

113015 #2 그 아까 굿을 할 때는 남저 남저귀신. 남저귀신한테 빌어.(그 아까 굿을 할 때는 남자 남자귀신. 남자귀신한테 빌어.)

113019 @ 그럼 여름에 막 그 땀 많이 나면 뭐 나잖아예?(그럼 여름에 막 그 땀 많이 나면 뭐 나잖아요?)

113019 #2 으. 땀 두드레기.(어. 땀 두드러기.)

113019 @ 예. 땀 두드레기. 그거 나면 어떻 헤마씨?(예. 땀 두드러기. 그거 나면 어떻게 해요?)

113019 #2 찬물에 강 모욕허여. 바다에 강 모욕허주게.(찬물에 가서 목욕해. 바다에 가서 목욕하지.)

113019 @ 바다에 강 목욕해마씨? 그거밖에 엇언마씨?(바다에 가서 목욕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113019 #2 어.(어.)

113028 @ 그럼 막 뜨거운 거 뜨거운 거 갑자기 만지면 화상 입잖아예?(그럼 막 뜨거운 거 뜨거운 거 갑자기 만지면 화상 입잖아요?)

113028 #2 어.(어.)

113028 @ 화상 입었을 때는 뭐 바르는 거 엇언마씨? 지금이야 약 바르는데 병원 가거나.(화상 입었을 때는 뭐 바르는 거 없었어요? 지금이야 약 바르는데 병원 가거나.)

113028 #2 그 술 바르면 좋아.(그 술 바르면 좋아.)

113028 @ 뭐마씨?(뭐요?)

113028 #2 술. 소주. 완전 좋아 이제도. 약이 필요 엇어.(술. 소주. 완전 좋아 이제도. 약이 필요 없어.)

113028 @ 음.(음.)

113028 #2 그 불에 데민 소주 그레 부으민 막 좋아 불어.(그 불에 데이면 소주 그리 부으면 막 좋아 버려.)

113029 @ 그른 제주도는 막 안 추워 부난 동상은 안 걸리지예? 옛날에는?(그러면 제주도는 막 안 추워 버리니까 동상은 안 걸리지요? 옛날에는?)

113029 #2 무사?(왜?)

113029 @ 동상 걸린마씨?(동상 걸렸어요?)

113029 #2 아이들 걸리주.(아이들 걸리지.)

113029 @ 아, 그럼 동상 걸리면 어떻 헤마씨?(아, 그럼 동상 걸리면 어떻게 해요?)

113029 #2 어떻 헤게. 그 아이들 양말 잘 안 신영 추운디 막 돌아댕기면게 막 붓어. 붓었다근영 좋아 버리주게.(어떻게 해. 그 아이들 양말 잘 안 신어서 추운데 막 돌아다니면 막 부어. 부었다가 좋아 버리지.)

113030 @ 옛날엔 감기 걸리면 어떻 헨마씨?(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113030 #2 저 서가웨 허영 딸렁 먹엇주게.(저 ‘서가웨’ 해서 딸려서 먹었지.)

113030 @ 뭐 딸렁마씨?(뭐 딸려서요?)

113030 #2 서가웨 서가웨라고.(‘서가웨’ ‘서가웨’라고.)

113030 @ 서가웨.(‘서가웨’.)

113030 #2 하늘레기허고.(하늘타리하고.)

113030 @ 서가웨가 뭐마씨?(‘서가웨’가 뭐예요?)

113030 #2 영 웨 닳은 거 잇어. 서가웨라고. 그거 딸려 나민 그것이 수세미허곡

수세미영 같이 먹었주게.(이렇게 외 닳은 거 있어. ‘서가워’라고. 그거 달이고 나면 그것이 수세미하고 수세미와 같이 먹었지.)

113030 @ 그거 딸렁 먹언마씨?(그거 딸려서 먹었어요?)

113030 #2 지금도 약 텔 거라 하늘레기허곡 그거. 하늘레기도 막 좋은 거.(지금도 약 될 거야 하늘타리하고 그거. 하늘타리도 막 좋은 거.)

113031 @ 그럼 기침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먹는 거 엇언마씨? 감기 말양 기침만 막 많이 하는 사람 먹는 거.(그럼 기침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먹는 거 없었어요? 감기 말고 기침만 막 많이 하는 사람 먹는 거.)

113031 #2 그 콩나물 뎡가리허곡.(그 콩나물 즐거리하고.)

113031 @ 예.(예.)

113031 #2 배 농곡 해근엥 딸렁 먹어.(배 놓고 해서 딸려서 먹어.)

113031 @ 음.(음.)

113031 #2 지금도 테레비 저 배허곡 도라지 슽양 먹으라고 헨게. 옛날엔 콩나물 뎡가리.(지금도 텔레비전 저 배하고 도라지 삶아서 먹으라고 하던데. 옛날에는 콩나물 즐거리.)

113031 @ 예.(예.)

113031 #2 양쪽 그 뎡가리 그쳐당 그거허곡 배 뇌근엥 슽아 먹으면 막 좋아.(양쪽 그 즐거리 끊어다가 그거하고 배 뇌서 삶아 먹으면 막 좋아.)

113032 @ 그럼 막 딸꼭질 많이 하는 사람 잇잖아예? 딸꼭질 허면 어뎡 허주마씨?(그럼 막 딸꼭질 많이 하는 사람 잇잖아요? 딸꼭질 하면 어떻게 하지요?)

113032 #2 그거는 영 겁나게 헤 불면 좋아. 깜짝 놀라게 헤 불면 좋아.(그거는 이렇게 겁나게 헤 버리면 좋아. 깜짝 놀라게 헤 버리면 좋아.)

113032 @ 지금이랑 비슷하다예.(지금이랑 비슷하군요.)

113033 @ 그럼 코피 막 나면 뭐 어뎡 허는 거 엇언마씨? 코피 나면 어뎡 헤마씨? 옛날에는?(그럼 코피 막 나면 뭐 어떻게 하는 거 없었어요? 코피 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113033 #2 코피 나면 속으로 막앗주게. 코 심줄.(코피 나면 쪽으로 막앗지. 코 힘줄.)

113033 @ 예.(예.)

113033 #2 코 심줄이 끊어지면 경 피난데. 약허여부난.(코 힘줄이 끊어지면 그렇게 피난데. 약해버리니까.)

113033 @ 아.(아.)

113033 #2 운동허는 아이들도 코로 피 나고 피곤해도 나고 허주게.(운동하는 아이들도 코포 피 나고 피곤해도 나고 하지.)

113033 @ 예.(예.)

113033 #2 코에 그 심줄이 끊어졌덴.(코에 그 힘줄이 끊어졌다고.)

113034 @ 그럼 막 목에서 가래 나올 때는 뭐 딸렁 먹는 거는 엇언마씨? 가래

나오면은?(그럼 막 목에서 가래 나올 때는 뭐 딸려서 먹는 거는 없었어요? 가래 나오면?)

113034 #2 거시기 감기 걸리면 저 서가워허곡 배허곡 딸렁 먹어.(거시기 감기 걸리면 저 '서가워'하고 배하고 딸려서 먹어.)

113039 @ 그럼 체했을 때는 체했을 때는 어떻 헨마씨? 옛날에?(그럼 체했을 때는 체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113039 #2 득발 사당.(삼천발이 사다가.)

113039 @ 예?(예?)

113039 #2 득발 사당 먹여. 그거 약이라고. 나가 어떻 해근앵 저 바닷고기 주난게 국 끓여 먹으난게 나온 거 닳아.(삼천발이 사다가 먹여. 그거 약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저 바닷고기 주니까 국 끓여서 먹으니까 나온 거 같아.)

113039 @ 아.(아.)

113039 #2 이젠 병원에 가도 어떻 안 낫지 체 내리러 가도 어떻 안 낫지. 어떤 사람은 그거 때문에 죽은 사람 있어. 그 전에. 그 사람은 아는 거 잇인가? 막 걱정 해주게. 우리 점빵 볼 때난.(이제는 병원에 가도 어떻게 안 낫지 체 내리러 가도 어떻게 안 낫지. 어떤 사람은 그거 때문에 죽은 사람 있어. 그 전에. 그 사람은 아는 거 있었을까? 막 걱정했지. 우리 가게 볼 때니까.)

113039 @ 예.(예.)

113039 #2 경 허난 모슬포 시장에 가근앵 나가 그 옛날엔 체 걸리면 아기들 막 득발 사당 먹였주게. 그 생각 낭 득발 사왕 막 그 후라이팬에 낵 막 케왕 뽕앙 참지를 서경 영 먹언. 누워 자근앵 뒷날 아침이 일어나난 지침 캉 나왕 가지 나완.(그렇게 하니 모슬포 시장에 가서 내가 그 옛날에는 체 걸리면 아기들 막 삼천발이 사다가 먹였지. 그 생각 나서 삼천발이 사와서 막 그 프라이팬에 놔서 막 태우어서 빵아서 참기름 섞어서 이렇게 먹었어. 누워서 자서 뒷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캉 나와서 가지 나왔어.)

113039 @ 아.(아.)

113039 #2 계난 움직이는 거 득발 사당 먹으면. 빠나 가시나 뵈이던지 나오주게.(그러니 움직이는 거 삼천발이 사다가 먹으면. 빠나 가시나 뵈이던지 나오지.)

113039 @ 아, 그런 것도 잇었다예?(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113039 #2 응. 아이고 득발 막 약이란게. 나 해보난.(응. 아이고 삼천발이 막 약이던데. 나 해보니까.)

113040 @ 그럼 막 이렇게 손 베이면 피 나잖아예. 피 날 때 쓰는 거 옛날에는 뭐 엇언마씨?(그럼 막 이렇게 손 베이면 피 나잖아요. 피 날 때 쓰는 거 옛날에는 뭐 없었어요?)

113040 #2 썩으로 헛주게. 썩이 되게 약이라. 썩 허민 피 가두와. 피 안 나.(썩으로 했지. 썩이 되게 약이야. 썩 하면 피 가뵈. 피 안 나.)

113041 @ 그럼 모기 물린 데에는 뭐 발란마씨?(그럼 모기 물린 데에는 뭐 발랐

어요?)

113041 #2 무신 모기 물린 거 뭐 붙었어? 옛날엔 아무 것도 안 붙었주게.(무슨 모기 물린 거 뭐 붙었어? 옛날에는 아무 것도 안 붙었지.)

113042 @ 그럼 산에 가당 여기도 뱀 잇언마씨?(그럼 산에 가다가 여기도 뱀 잇었어요?)

113042 #2 뱀?(뱀?)

113042 @ 예. 뱀. 뱀한테 물리면 어떻 험마씨?(예. 뱀.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했어요?)

113042 #2 뱀 물리면 혼나주게. 의원신디 가야주게.(뱀 물리면 혼나지. 의원에게 가야지.)

113043 @ 그럼 벌 쏘였을 때도 뭐 다른 거 잇언마씨?(그럼 벌 쏘였을 때도 뭐 다른 거 없었어요?)

113043 #2 옛날엔 벌 쏘였을 때는 새 씹엉 발라.(옛날에는 벌 쏘였을 때는 새 씹어서 발라.)

113043 @ 새?(새?)

113043 #2 새 영 그거 씹엉 바르고. 벌 췌여도 그거 붙라. 벌.(새 이렇게 그거 씹어서 바르고. 벌 췌여도 그거 붙라. 벌.)

113043 @ 벌도?(벌도?)

113043 #2 어. 벌허고 이 주녕이 쏘이민 득똥도 붙라야 돼여. 득똥.(어. 벌하고 이 지네 쏘이면 닭똥도 붙라야 돼. 닭똥.)

113045 @ 그럼 막 가당 넘어져가지고 명들잖아예? 명들면 명든 데도 뭐 바르는 거 잇언마씨?(그럼 막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명들잖아요? 명들면 명든 데도 뭐 바르는 거 있었어요?)

113045 #2 그거는 저 돌에 넘어지민 돌, 돌 해당 귀근엥 올려.(그거는 저 돌에 넘어지면 돌, 돌 해당 구워서 올려.)

113045 @ 돌 구워마씨?(돌 구워요?)

113045 #2 어. 돌을 불에 또똥하게 허영.(어. 돌을 불에 따똥하게 해서.)

113045 @ 예.(예.)

113045 #2 이디 영 영 허주게. 경 허민 좋아.(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좋아.)

113045 @ 아, 그 부딪힌 돌에다가?(아, 그 부딪힌 돌에다가?)

113045 #2 어.(어.)

113046 @ 그럼 옛날에 막 말 더듬는 사람 잇잖아예? 말 더듬는 사람한테 먹이는 거 잇언마씨?(그럼 옛날에 막 말 더듬는 사람 잇잖아요? 말 더듬는 사람한테 먹이는 거 있었어요?)

113046 #2 그건 고치지 못허여. 본래 경 허는 건데.(그건 고치지 못해. 본래 그렇게 하는 건데.)

113047 @ 그럼 막 허리 빼었을 때는 어떻 헨마씨?(그럼 막 허리 빼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47 #2 개똥물 솥양 먹어. 개똥물.(개똥물 삶아서 먹어. 개똥물.)

113047 @ 그거는 고산이영 똑같다예?(그거는 '고산'하고 똑같군요?)

113047 #2 개똥물 솥아근영 영 흐룻밤 영 그릇에 놔.(개똥물 삶아서 이렇게 흐룻밤 이렇게 그릇에 놔.)

113047 @ 예.(예.)

113047 #2 흐룻밤 잇이민 그러면 막 개똥 냄새도 공기로 나가고 해서 개똥 막 솥양 그걸로 먹영 땀 내면 좋주게.(하룻밤 있으면 그러면 막 개똥 냄새도 공기로 나가고 해서 개똥 막 삶아서 그걸로 먹어서 땀 내면 좋지.)

113048 @ 그럼 발목 빼었을 때도 뭐 개똥물 먹언마씨?(그럼 발목 빼었을 때도 뭐 개똥물 먹었어요?)

113048 #2 아니. 발 빼었을 때는 하늘레기 허여.(아니. 발 빼었을 때는 하늘타리 해.)

113048 @ 예?(예?)

113048 #2 하늘레기.(하늘타리.)

113048 @ 하늘레기? 그게 뭐짱?(하늘타리? 그게 뭐입니까?)

113048 #2 하늘레기 빨리 뺏아근영 영 브르주게.(하늘타리 뿌리 뺏아서 이렇게 바르지.)

113049 @ 그럼 귀에 물 들어갔을 때는 뭐 허는 거 었언마씨?(그럼 귀에 물 들어갔을 때는 뭐 하는 거 없었어요?)

113049 #2 귀에 물 들면 찰락찰락허민 영 허민 나와.(귀에 물 들면 찰락찰락하면 이렇게 하면 나와.)

113001 @ 할머니 아까 얘기헌 거 기계총 잇잖아예.(할머니 아까 얘기한 거 기계총 잇잖아요.)

113001 #4 어.(어.)

113001 @ 그거 기계로 뭐 머리 깎거나 그렇게 할 때 머리에 뭐 막 나거나 할 때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었어마씨?(그거 기계로 뭐 머리 깎거나 그렇게 할 때 머리에 뭐 막 나거나 할 때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113001 #4 어. 그런 건 들어본 적 었어.(어. 그런 건 들어본 적 없어.)

113002 @ 할머니 그럼 독창은 들어봤수광? 독창?(할머니 그럼 독창은 들어봤습니까? 독창?)

113002 #4 독창?(독창?)

113002 @ 예.(예.)

113002 #4 독창 무싱거 뭐 그거 무싱거라 독창이?(독창 무엇 뭐 그거 무엇이야 독창이?)

113002 @ 그 머리에 피부병 같은 거 나는 건데. 머리에 피부병 나는 거는 안

들어보셨마씨?(그 머리에 피부병 같은 거 나는 건데. 머리에 피부병 나는 거는 안 들어보셨어요?)

113002 #4 아니. 그런 것도 우리는 나 보지 않으니깐 우린 몰라.(아니. 그런 것도 우리는 나 보지 않으니깐 우리는 몰라.)

113003 @ 할머니 그럼 그 머리에 하얗게 비듬 잇잖아예?(할머니 그럼 그 머리에 하얗게 비듬 잇잖아요?)

113003 #4 예.(예.)

113003 @ 비듬은 옛날에도 잇엇잖아예?(비듬은 옛날에도 잇엇잖아요?)

113003 #4 예.(예.)

113003 @ 지금도 잇고 그 비듬 나면 어떻 헛주마씨? 옛날에는?(지금도 잇고 그 비듬 나면 어떻게 했지요? 옛날에는?)

113003 #4 비듬, 비듬 나민 우린 드리 굵으멍 살았는데.(비듬, 비듬 나면 우리는 매우 굵으면서 살았는데.)

113003 @ 그거 없애젠 뭐 머리 뭘로 다른 물로 감고 이런 건 잇언마씨?(그거 없애려고 뭐 머리 무엇으로 다른 물로 감고 이런 건 없엇어요?)

113003 #4 아니, 우린 그런 거 안 해부난.(아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버리니까.)

113004 @ 그럼 버짐 같은 거 얼굴에 나잖아예?(그럼 버짐 같은 거 얼굴에 나잖아요?)

113004 #4 예.(예.)

113004 @ 그거는 어떻 고치주마씨?(그거는 어떻게 고치지요?)

113004 #4 그건 버즘 나는 건.(그건 버짐 나는 건.)

113004 @ 예.(예.)

113004 #4 우린 옛날에 떡 굴아근엿.(우리는 옛날에 떡 갈아서.)

113004 @ 아, 떡 굴앙?(아, 떡 갈아서?)

113004 #4 떡.(떡.)

113004 @ 아. 떡 굴앙.(아. 떡 갈아서.)

113004 #4 떡 굴앙 영 허영 딱 허게 찍으민 그게 하얗게 나오라났어. 버즘은.(떡 갈아서 이렇게 해서 딱 하게 찍으면 그게 하얗게 나왔어. 버짐은.)

113004 @ 아, 버즘은?(아, 버짐은?)

113004 #4 어. 경 행 우린 지워났어.(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웠어.)

113004 @ 아, 떡으로?(아, 떡으로?)

113004 #4 어.(어.)

113006 @ 그럼 여드름은 혹시 알아마씨? 여드름?(그럼 여드름은 혹시 알아요? 여드름?)

113006 #4 여드름은 그거?(여드름은 그거?)

113006 @ 여드름 안 나보고?(여드름 안 나보고?)

113006 #4 흔 그냥 들어가는 거난게.(한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113006 @ 아, 그냥 들어간마씨?(아, 그냥 들어갔어요?)

113006 #4 어.(어.)

113007 @ 그럼 옛날에 기미나 주근깨 같은 거 잇엇잖아예?(그럼 옛날에 기미나 주근깨 같은 거 잇엇잖아요?)

113007 #4 어.(어.)

113007 @ 그런 거 날 때는 뭐 그거 없애젠 허는 건 엇엇수광?(그런 거 날 때는 뭐 그거 없애려고 하는 거는 없엇습니까?)

113007 #4 옛날에 아니 나고 이제 드러 남서. 이제.(옛날에 안 나고 이제 매우 나고 있어. 이제.)

113007 @ 아, 이제 드러 나멘마씨?(아, 이제 매우 나요?)

113007 #4 그게 막 나.(그게 막 나.)

113009 @ 그럼 그 막 사마귀 난다고 허잖아예? 사마귀, 사막.(그럼 그 막 사마귀 난다고 하잖아요? 사마귀, 사막.)

113009 #4 어.(어.)

113009 @ 그럼 그거 날 때는 어떻 치료헛주마씨?(그럼 그거 날 때는 어떻게 치료헛지요?)

113009 #4 그것도 아니 나 봤는데 이제사 나 이거, 이거.(그것도 안 나 봤는데 이제야 나 이거, 이거.)

113009 @ 아.(아.)

113009 #4 치료허로 가도 못 허고 이젠.(치료하러 가도 못 하고 이제는.)

113010 @ 그럼 눈에 다래끼 잇잖아예?(그럼 눈에 다래끼 잇잖아요?)

113010 #4 예.(예.)

113010 @ 그거 날 때는 옛날에는 뭐 헨마씨?(그거 날 때는 옛날에는 뭐 했어요?)

113010 #4 그거 날 때 옛날에 어떻 헛인지 윈 눈 어두웁 스뭇 어떻 해 나곡 헛 인디.(그거 날 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윈 눈 어두워서 사뭇 어떻게 해 나고 헛는데.)

113010 @ 예.(예.)

113010 #4 어떻사 구완허엇는지 잘 모르킨게 그건.(어떻게 구완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건.)

113011 @ 그럼 눈 막 피곤허민 눈 충혈 뒤잖아예? 빨강게.(그럼 눈 막 피곤하면 눈 충혈 되잖아요? 빨강게.)

113011 #4 예.(예.)

113011 @ 눈 빨강게 뒤민 옛날엔 뭐 헨마씨?(눈 빨강게 되면 옛날에는 뭐 했어요?)

113011 #4 옛날에 윈 그런 것도 몰라.(옛날에 윈 그런 것도 몰라.)

113011 @ 아, 그런 것도 몰라?(아, 그런 것도 몰라?)

113011 #4 어명이 예전 어떻사 구완해줘나신지.(어머니가 예전에 어떻게 구완해줬었는지.)

113012 @ 그럼 이빨 아플 때 치통 잇잖아예?(그럼 이빨 아플 때 치통 잇잖아요?)

113012 #4 예.(예.)

113012 @ 이빨 아플 때는 어떻 헨마씨? 옛날에는? 뭐 치료법 잇수광? 누가 이빨 아프다 허민 해주는 거 잇엇수광?(이빨 아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 치료법 없습니까? 누가 이빨 아프다 하면 해주는 거 없었습니까?)

113012 #4 그건 이빨에 무싱거 나가민.(그건 이빨에 무엇 나가면.)

113012 @ 예.(예.)

113012 #4 저 췌우리 저 부추.(저 부추 저 부추.)

113012 @ 예. 부추.(예. 부추.)

113012 #4 그거 헤다근엥 소금, 소금에 영 컷당 막 부비어 주는 거라.(그거 헤다가 소금, 소금에 이렇게 섞었다가 막 비벼 주는 거야.)

113012 @ 아, 부벼줘?(아, 비벼줘?)

113012 #4 어. 이 이빨에 부벼주민 좋아 불어.(어. 이 이빨에 비벼주면 좋아 버려.)

113012 @ 아, 좋아 불어?(아, 좋아 버려?)

113012 #4 어.(어.)

113012 @ 세우리로?(부추로?)

113012 #4 세우리로 세우리 소금 헷다근엥.(부추로 부추 소금 헷다가.)

113015 @ 그럼 홍역 잇잖아예? 홍역?(그럼 홍역 잇잖아요? 홍역?)

113015 #4 어.(어.)

113015 @ 홍역 헷을 때는 옛날에는 어떻 헨마씨?(홍역 헷을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13015 #4 홍역 헷 때는 뭇이여 곧지도 말곡 하도 숨겨노난. 줌줍허여근엥 허민 좋아 불엇주게.(홍역 할 때는 뭇이여 말하지도 말고 많이 숨기니까. 조용해서 하면 좋아 버렸지.)

113015 @ 아, 줌줍허면?(아, 조용하면?)

113015 #4 어.(어.)

113016 @ 그믄 학질은 혹시 알아마씨? 학질?(그러면 학질은 혹시 알아요? 학질?)

113016 #4 학질은 그거 학질 허민 스뭇 어디 가근엥 들 가죽 씌엥 험져 무신 뭇 험져 구완허는 사람은 헤도 우리는 그런 거 걸려 보지 았으난.(학질은 그거 학질 하면 사뭇 어디 가서 말 가죽 씌어서 하고 있다. 무엇 뭇 하고 있다 구완하는 사람은 헤도 우리는 그런 거 걸려 보지 았으니까.)

113017 @ 그럼 볼거리나 그 목거리 들어보션마씨? 그 볼거리 걸렸다 목거리 걸렸다 허잖아예?(그럼 볼거리나 그 목거리 들어보셨어요? 그 볼거리 걸렸다 목거리 걸렸다 하잖아요?)

113017 #4 그런 건 안 들어봤어.(그런 건 안 들어봤어.)

113019 @ 그럼 여름에 더우면 막 땀띠 나잖아예?(그럼 여름에 더우면 막 땀띠 나잖아요?)

113019 #4 예.(예.)

113019 @ 땀띠 날 때는 어떻 허주마씨? 옛날에는?(땀띠 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옛날에는?)

113019 #4 땀띠 날 때 무싱거 시원하게 물이나 적시고.(땀띠 날 때 무엇 시원하게 물이나 적시고.)

113019 @ 물이나 적시고?(물이나 적시고?)

113019 #4 어.(어.)

113019 @ 여기서 물 적시젠 허민 바닷가는 안 간마씨?(여기서 물 적시려고 하면 바닷가는 안 갔어요?)

113019 #4 바닷가에도 가는 사람은 가.(바닷가에도 가는 사람은 가.)

113019 @ 막 소금물에 담그거나 경은 안 헨마씨?(막 소금물에 담그거나 그렇게는 안 했어요?)

113019 #4 어. 경은 안 해도 것 땀띠 나면 매해에 버릇되는 거난게.(어. 그렇게는 안 해도 것 땀띠 나면 매해에 버릇되는 거니까.)

113020 @ 그 다음에 부스럼 날 때는 뭐 허는 거 잊수광?(그 다음에 부스럼 날 때는 뭐 하는 거 없습니까?)

113020 #4 부스럼 날 때 옛날엔 막 굵아근앵.(부스럼 날 때 옛날에는 막 굵아서.)

113020 @ 예.(예.)

113020 #4 그 부스럼이 스뭇 열랑열랑¹⁵⁹⁾ 건들지 못 해 가민 그 영 허영 막 고름에 누르뜨는 거라. 막 누르뜨민.(그 부스럼이 사뭇 ‘열랑열랑’ 건들지 못 해 가면 그 이렇게 해서 막 고름에 누르는 거야. 막 누르면.)

113020 @ 예.(예.)

113020 #4 그 아래깁정 소곱에 덩어리로 툭 허게 나오민 좋아 불어 우린.(그 아래까지 속에 덩어리로 툭 하게 나오면 좋아 버려 우리는.)

113020 @ 아, 그냥 막 그 손으로 짜버련? 부스럼을?(아, 그냥 막 손으로 짜버렸어요? 부스럼을?)

113020 #4 손으로 짜근앵.(손으로 짜서 했지.)

113020 @ 아. 경 헛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13021 @ 할머니 혹시 현대는 들어봤수광? 현대?(할머니 혹시 현대는 들어봤습

159) ‘열랑열랑’은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어랑어랑’이라고도 한다.

니까? 헌데?)

113021 #4 어?(어?)

113021 @ 헌데는 안 들어봤지예?(헌데는 안 들어봤지요?)

113021 #4 헌데가 뭇이라?(헌데가 무엇이야?)

113022 @ 아, 그럼 종기 낫을 때는 어떻 헨마씨?(아, 그럼 종기 낫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22 #4 아, 종기 낫 때는 계메 그 말이주게.(아, 종기 낫 때는 글썸 그 말이 지.)

113024 @ 그 큰 생손알이도 들어보셨마씨? 생손알이?(그러면 생손알이도 들어보셨어요? 생손알이?)

113024 #4 저 종지 크게 나근엥 구완 못 허민.(저 종지 크게 나서 구완 못 하면.)

113024 @ 예.(예.)

113024 #4 옛날엔 나도 우리 이제 죽은아들 이제 좀 가버렸주만은 그 아들 저 고등학교 땡가.(옛날에는 나도 우리 이제 막내아들 이제 좀 가버렸지만 그 아들 저 고등학교 때인가.)

113024 @ 예.(예.)

113024 #4 어떻 어떻 이 영치에 영 이렇게 크게 난 거라.(어떻게 어떻게 이 영치에 이렇게 이렇게 크게 난 거야.)

113024 @ 예.(예.)

113024 #4 막 앓령 걸지도 못 허난 막 이만히 굶앙 막 허난게.(막 앓아서 걸지도 못 하니까 막 이만큼 굶아서 막 하니까.)

113024 @ 예.(예.)

113024 #4 모슬포¹⁶⁰⁾ 가근엥 화침.(‘모슬포’ 가서 화침.)

113024 @ 화침?(화침?)

113024 #4 화침. 침에 막 불 구워근엥.(화침. 침에 막 불 구워서.)

113024 @ 아.(아.)

113024 #4 불 구워 그걸로 꼭 찢르난 고름이 팍팍 터져근엥 구완해났어.(불 구워서 그걸로 꼭 찢르니까 고름이 팍팍 터져서 구완했었어.)

113024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13024 #4 어. 화침 찢렁.(어. 화침 찢러서.)

113024 @ 화침 찢렁.(화침 찢러서.)

113024 #4 화침이엔 헨 거 그 침에 불로 굶는 거란게.(화침이라고 한 거 그 침에 불로 굶는 거더라.)

113024 @ 아.(아.)

113024 #4 그거 파씩¹⁶¹⁾ 허게 행 구우난 다시 돌지도 안 허고 그 고름 막 엇어

160) ‘모슬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포구의 이름이다.

지난게.(그거 ‘파쌉’ 하게 해서 구우니까 다시 돋지도 안 하고 그 고름 막 없어지니까.)

113024 @ 예.(예.)

113024 #4 막 허영 옛날에는 경 허영 구완했었주게.(막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구완했었지.)

113025 @ 그럼 그 두드러기 잇잖아예?(그럼 그 두드러기 잇잖아요?)

113025 #4 응.(응.)

113025 @ 뭐 잘못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 나잖아예?(뭐 잘못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 나잖아요?)

113025 #4 어.(어.)

113025 @ 그럴 때는 어떻 헨마씨? 옛날에는?(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113025 #4 그거 그거 비리여 무시거엔 허여근엥 가시새. 가시새 파다근엥.(그거 그거 비루야 무엇이라고 해서 파리풀. 파리풀 파서.)

113025 @ 가시새? 가시새는 뭐팡?(파리풀? 파리풀은 무엇입니까?)

113025 #4 풀 닦은 거 가시새 셔낫어. 독헌 거.(풀 닦은 거 파리풀 있었어. 독한 거.)

113025 @ 예.(예.)

113025 #4 게난 그거 파당 그거 스못 부비멍 행 우리 구완해낫어.(그러니 그거 파다가 그거 사못 비비면서 해서 우리 구완했었어.)

113025 @ 아, 그것도 해난마씨?(아, 그것도 했었어요?)

113025 #4 어. 비리, 비리 허멍 옛날엔 스못 그걸로 해낫주.(어. 비루, 비루 하면서 옛날에는 사못 그걸로 했었지.)

113027 @ 그 막 경기 낫을 때는 옛날에 허는 것 잇엇수광? 사람들 막 갑자기 경기 나거나 헐 때.(그 막 경기 낫을 때는 옛날에 하는 것 잇엇습니까? 사람들 막 갑자기 경기 나거나 할 때.)

113027 #4 아니 그건게 이제나저제나 무신 그거사 겁나근엥 뭐.(아니 그건 이제나저제나 무엇 그거야 겁나서 뭐.)

113028 @ 그럼 막 그 불에 데이든 화상 입잖아예?(그럼 막 그 불에 데면 화상 입잖아요?)

113028 #4 예.(예.)

113028 @ 그 화상 입었을 때는 어떻 헨마씨? 옛날에는? 지금이야 막 병원 갈 건디 옛날에는?(그 화상 입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막 병원 갈 건디 옛날에는?)

113028 #4 옛날에는 난 저 무싱거 술주시에 발 데영 허난게 저 들에 가근엥 쉼똥 빌레에 쉼똥 싸근엥 헐 거 막 그걸로 바르는 거라.(옛날에는 난 저 무엇 지게미

161) ‘파쌉’은 ‘더할 나위 없이’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에 발 데어서 하니까 저 들에 가서 소똥 너럭바위에 소똥 싸서 한 거 막 그걸로 바르는 거야.)

113028 @ 예.(예.)

113028 #4 계난 그런 거 허여근엥 헤낫어 우린.(그러니 그런 거 해서 했었어 우리는.)

113028 @ 음. 뜨거운 거 데었을 때 경 헛수광?(음. 뜨거운 거 데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113028 #4 이디 막 뜨거운 걸로 오뎬 발 데영 허난.(여기 막 뜨거운 걸로 그만 발 데어서 하니까.)

113028 @ 예.(예.)

113028 #4 난 물에 가젠 마당에 비 오는 날이난 막 더우난게 물신티 강 차박차박 허난 그 가족에 데인 거 다 벗어지는 거라.(난 물에 가려고 마당에 비 오는 날이니까 막 더우니까 물한테 가서 차박차박 하니까 그 가족에 텐 거 다 벗어지는 거야.)

113028 @ 예.(예.)

113028 #4 벗어지난 막 그거에 스똥 고름이 빙글빙글 낫주게. 계난 뭇이 좋지 안 허난 병원 엇언 병원에 안 가난 초약으로만 헐.(벗어지니까 막 그거에 사똥 고름이 빙글빙글 낫지. 그러니 무엇이 좋지 안 하니까 병원 없어서 병원에 안 가니까 초약으로만 했어.)

113028 @ 예.(예.)

113028 #4 경 허영 난 쉼똥 그 마른 거 허영 부수명 이디 서끄명 행 구완헤낫어.(그렇게 해서 난 소똥 그 마른 거 해서 부수면서 여기 섞으면서 해서 구완했었어.)

113028 @ 기억 다 나는 구나예?(기억 다 나는 군요?)

113028 #4 옛날은 옛날은 약이 엇이난 경 헛주게.(옛날은 옛날은 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

113028 @ 옛날은 약이 엇이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젠 허는 거마씨.(옛날은 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113029 @ 그럼 제주도는 따뜻허난 동상은 안 걸렸지예? 잘 동상?(그럼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동상은 안 걸렸지요? 잘 동상?)

113029 #4 동상은 혼엇이 잘 안 걸려.(동상은 별로 잘 안 걸려.)

113029 @ 아, 혼엇이 잘 안 걸려?(아, 별로 잘 안 걸려?)

113029 #4 어.(어.)

113030 @ 그럼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는 어떻 헛주마씨?(그럼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는 어떻게 했지요?)

113030 #4 감기 걸렸을 때는 그 저 우린 어디 초약 허레 가지 못 허민.(감기 걸렸을 때는 그 저 우리는 어디 초약 하러 가지 못 하면.)

113030 @ 예.(예.)

113030 #4 꽤마농 해근엥.(과 해서.)

113030 @ 꽤마농 해근엥.(과 해서.)

113030 #4 그냥 불휘채 씻엥 흰죽에 썬근엥 뜨뜻이 먹어근엥 뚝 나오멍 경 허영 구완헨.(그냥 뿌리채 씻어서 흰죽에 썬서 뜨뜻이 먹어서 뚝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구완헨어.)

113030 @ 아, 경 헛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13030 #4 어, 꽤마농.(어, 과.)

113030 @ 꽤마농? 음.(과? 음.)

113030 #4 흰죽에 놔근엥 그거 그냥 해서 먹었주게.(흰죽에 놔서 그거 그냥 해서 먹었지.)

113030 @ 흰죽에 놔근엥?(흰죽에 놔서?)

113030 #4 어.(어.)

113031 @ 그럼 막 기침 많이 날 때는 뭐 해 먹언마씨? 기침 많이 날 때는?(그럼 막 기침 많이 날 때는 뭐 해 먹었어요? 기침 많이 날 때는?)

113031 #4 기침 날 때 어떻게 헛인지. 뭐 잇어?(기침 날 때 어떻게야했는지. 뭐 잇어?)

113032 @ 그럼 딸꾹질 할 때 잇잖아예?(그럼 딸꾹질 할 때 잇잖아요?)

113032 #4 응?(응?)

113032 @ 딸꾹질.(딸꾹질.)

113032 #4 딸꾹질 날 때는 그냥 놔두민 좋은 거난게.(딸꾹질 날 때는 그냥 놔두면 좋은 거니까.)

113032 @ 그냥 놔뒤?(그냥 놔뒤?)

113032 #4 응.(응.)

113032 @ 따로 뭐 먹는 거나 막 놀래키거나 그런 거 하잖아예? 딸꾹질 멈추젠 허면. 그런 건 엇언마씨?(따로 뭐 먹는 거나 막 놀래키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딸꾹질 멈추려고 하면. 그런 건 없었어요?)

113032 #4 엇언.(없었어.)

113033 @ 그믐 코피 날 때는 어떻 헨마씨? 코에서 피 날 때는?(그러면 코피 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코에서 피 날 때는?)

113033 #4 코피 날 때는 우리 썩 허여근엥 썩으로 영 부병 막앗주.(코피 날 때는 우리 썩 해서 썩으로 이렇게 비벼서 막았지.)

113033 @ 아, 썩으로?(아, 썩으로?)

113033 #4 어.(어.)

113033 @ 썩으로 비병?(썩으로 비벼서?)

113033 #4 썩이 질 약이라.(썩이 제일 약이야.)

113033 @ 아, 썩이 질 약이라?(아, 썩이 제일 약이야?)

113033 #4 어.(어.)

113036 @ 그럼 설사 할 때는 어떻 헨마씨? 옛날에는?(그럼 설사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113036 #4 설사 헐 때는 어떻 헤 그거?(설사 할 때는 어떻게 해 그거?)

113036 @ 뭐 따로 먹는 거나 그런 거는 엇언마씨? 설사 헐 때는?(뭐 따로 먹는 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설사 할 때는?)

113036 #4 몰라. 어떻사 헛인지 그런 건 안 허난.(몰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안 하나까.)

113039 @ 그럼 체헛을 때는 어떻 헨마씨? 옛날에는?(그럼 체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113039 #4 어?(어?)

113039 @ 뭐 먹엉 체헛을 때는?(뭐 먹어서 체헛을 때는?)

113039 #4 체헛을 때는 체 내리는 사람신디 강 체 내오랏주게.(체헛을 때는 체 내리는 사람한테 가서 체 내왔지.)

113039 @ 아, 그럼 체 내리는 사람 여기도 잇엇수광?(아, 그럼 체 내리는 사람 여기도 잇엇습니까?)

113039 #4 여기 모슬포도 잇어나곡 시에도 강 내곡.(여기 '모슬포'도 잇엇고 시에도 가서 내고.)

113039 @ 아, 시에도 강 내곡.(아, 시에도 가서 내고.)

113039 #4 어.(어.)

113040 @ 그럼 칼 같은 데 이렇게 날카로운 데에 베엇을 때 피 나잖아예?(그럼 칼 같은 데 이렇게 날카로운 데에 베엇을 때 피 나잖아요?)

113040 #4 어.(어.)

113040 @ 그럴 때는 어떻 헨마씨?(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40 #4 그런 때사게 우린 쑥 부벼근엿 딱 헛주게.(그런 때야 우리는 쑥 비벼서 딱 헛지.)

113040 @ 아, 그것도 쑥 비병?(아, 그것도 쑥 비벼서?)

113040 #4 어. 쑥 비병.(어. 쑥 비벼서.)

113041 @ 그럼 지금 저 모기 물렸인디 모기 물렸을 때는 뭐 어떻 헨마씨?(그럼 지금 저 모기 물렸는데 모기 물렸을 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113041 #4 모기만씩 헛 거 무신 뭐 어떻 헤?(모기만큼 한 거 무엇 뭐 어떻게 해?)

113041 @ 그냥 놔두지예?(그냥 놔두지요?)

113041 #4 어.(어.)

113042 @ 여기 뱀도 잇엇수광?(여기 뱀도 잇엇습니까?)

113042 #4 어?(어?)

113042 @ 뱀, 뱀.(뱀, 뱀.)

113042 #4 뱀도 씯주게.(뱀도 있지.)

113042 @ 그럼 뱀한테 물렸을 때는 어떻 헨마씨?(그럼 뱀한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42 #4 뱀에 물린 건 위험해여근앵.(뱀에 물린 건 위험해서.)

113042 @ 예.(예.)

113042 #4 곧 물릴 때 알아지른 어디 발이라민 딱 즐라매영.(곧 물릴 때 알아지면 어디 발이라면 딱 즐라매서.)

113042 @ 예.(예.)

113042 #4 우에 올르지 못 허게.(위에 오르지 못 하게.)

113042 @ 아.(아.)

113042 #4 머리레 강 그 창통에 가근앵 팍 살에 아지른 버청 사람이 죽는 거라.(머리로 가서 그 창통에 가서 팍 살에 앓으면 힘들어서 사람이 죽는 거야.)

113042 @ 예.(예.)

113042 #4 게민 이디 딱 즐라매영 강 침 맞는 거주게. 침 맞앙.(그러면 여기 딱 즐라매서 가서 침 맞는 거지. 침 맞아서.)

113042 @ 아. 즐라매영 침 맞아?(아. 즐라매서 침 맞아?)

113042 #4 어. 침 맞아근앵 구완해낫주게.(어. 침 맞아서 구완했었지.)

113043 @ 그럼 벌한테 쏘일 때도 잇언마씨?(그럼 벌한테 쏘일 때도 있었어요?)

113043 #4 벌한테 쏘인 건 흔 며칠 잇이른 좋아 부는 거난게.(벌한테 쏘인 건 한 며칠 있으면 좋아 버리는 거니까.)

113045 @ 그럼 이렇게 어디 부딪혀근앵 멍들잖아예?(그럼 이렇게 어디 부딪혀서 멍들잖아요?)

113045 #4 응.(응.)

113045 @ 멍들 때는 어떻 해마씨?(멍들 때는 어떻게 해요?)

113045 #4 멍들 때사게 어떻 해? 그 그냥 내볼른 좋아.(멍들 때야 어떻게 해? 그 그냥 내버리면 좋아.)

113045 @ 것도 내볼른 좋아마씨?(것도 내버리면 좋아요?)

113045 #4 어.(어.)

113046 @ 그럼 옛날에 동네에 말 더듬는 사람도 잇엇수광?(그럼 옛날에 동네에 말 더듬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113046 #4 예.(예.)

113046 @ 말 더듬는 사람한테는 뭐 먹이거나 어떻 허는 거 엇엇수광?(말 더듬는 사람한테는 뭐 먹이거나 어떻게 하는 거 없었습니까?)

113046 #4 아니, 경 현 거 엇어.(아니, 그렇게 한 거 없어.)

113047 @ 그럼 허리 다쳤을 때는 뭐 따로 허는 거 엇수광? 허리 다쳤을 때?(그럼 허리 다쳤을 때는 뭐 따로 하는 거 없습니까? 허리 다쳤을 때?)

113047 #4 허리 다쳤을 때 어떻 헤게? 그냥 무시걸로 무싱거 초약 헤근앵 어디

강.(허리 차였을 때 어떻게 해? 그냥 무엇으로 무엇 초약 해서 어디 가서.)

113047 @ 초약?(초약?)

113047 #4 어, 초약. 들에 강 무시거 허여근엥 그 따뜻하게 행도 살곡.(어, 초약. 들에 가서 무엇 해서 그 따뜻하게 해서도 살고.)

113047 @ 아, 따뜻하게 행?(아, 따뜻하게 해서?)

113047 #4 어.(어.)

113048 @ 그럼 발목 삐었을 때도 이렇게 뭐 허는 거 잊어신가마씨?(그럼 발목 삐었을 때도 이렇게 뭐 하는 거 없었어요?)

113048 #4 어. 그런 거 뭐 어떻 어떻 행 해주게.(어. 그런 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지.)

113049 @ 그럼 귀에 물 들어가면 어떻 해마씨?(그럼 귀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113049 #4 귀에 물 든거사 어떻 해게 그냥 놔둬주게.(귀에 물 든거야 어떻게 해 그냥 놔뒀지.)

113049 @ 그냥 탈탈 털어마씨?(그냥 탈탈 털어요?)

113049 #4 털어근엥게 무싱겔로 행 그냥 허민 뉘주게.(털어서 무엇으로 해서 그냥 하면 되지.)

113053 @ 그 그럼 보통 옛날에 보통 병원 엇일 때는 아프면 어떻 해주마씨?(그럼 보통 옛날에 보통 병원 없을 때는 아프면 어떻게 했지요?)

113053 #4 아프민 그냥 내불민 죽음도 허곡게 해주게. 구완 못 행게.(아프면 그냥 내버리면 죽기도 하고 했지. 구완 못 해서.)

113053 @ 아, 구완 못 행?(아, 구완 못 해서?)

113053 #4 구완 못 행 죽음도 허곡게.(구완 못 해서 죽기도 하고.)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어르신 그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 곱아 주면 뉘는데. 혹시 막 죽을 뻔 하거나 그런 일 잇언마씨?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다치거나?(어르신 그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 말해 주면 되는데. 혹시 막 죽을 뻔 하거나 그런 일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다치거나?)

114001 #2 게.(그럼.)

114001 @ 그럼 그런 일 얘기 잠깐 곱아 줘서. 언제?(그럼 그런 일 얘기 잠깐 말해 주십시오. 언제?)

114001 #2 난 창고에서.(난 창고에서.)

114001 @ 예.(예.)

114001 #2 양과 입생기를 뵈앗당.(양과 입사귀를 뵈앗다가.)

114001 @ 예.(예.)

114001 #2 그거 민짜흐주게. 양과 잎생기가.(그거 미끈하고 평평평하지. 양과 잎사귀가.)

114001 @ 예.(예.)

114001 #2 그거 밭앗당 넘어정 이디가 파씩¹⁶²⁾ 꺾어전.(그거 밭앗다가 넘어져서 여기가 ‘파씩’ 꺾어졌어.)

114001 @ 언제마씨?(언제요?)

114001 #2 몇 년 돼신고? 혼 십 년 됐지.(몇 년 되신고? 한 십 년 됐지.)

114001 @ 음.(음.)

114001 #2 경 행 한라의료원 강 영 저 뭐 허연. 붙연 쇠로 행.(그렇게 해서 한라의료원 가서 이렇게 저 뭐 했어. 붙였어 쇠로 해서.)

114001 @ 그럼 지금도 막 그거 때문에 막 아픈 거마씨?(그럼 지금도 막 그거 때문에 막 아픈 거예요?)

114001 #2 그거 때문도 허곡. 이착 또 영 이 무릎 연골 다 허연. 걷지 못 허여.(그거 때문도 하고. 이쪽 또 이렇게 이 무릎 연골 다 했어. 걷지 못 해.)

114001 @ 하도 막 일 많이 해부난예?(하도 막 일 많이 해버리니까요?)

114002 @ 혹시 도깨비나 귀신 만난 적 잇어마씨?(혹시 도깨비나 귀신 만난 적 있었어요?)

114002 #2 난 귀신은 안 봐반. 사람들 뭐 우리 어릴 때 보민 뭐 도채비 낫어라 뭐. 옛날에는 이 마을이 막 물이 멀어. 물 지르다 놓는 디가. 물통이.(난 귀신은 안 봐봤어. 사람들 뭐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도깨비 낫어라 뭐. 옛날에는 이 마을이 막 물이 멀어. 물 기르다 놓는 데가. 물통이.)

114002 @ 예.(예.)

114002 #2 머니깐 막 일찍이들 일허기 전에 물을 질러 와 텡 밧이 가야주게. 게 난 뭐 도채비도 나서라 막 곱아도.(머니까는 막 일찍이 일하기 전에 물을 질러 와 뒤서 밧에 가야지. 그러니 뭐 도깨비도 나서라 막 말해도.)

114002 @ 예.(예.)

114002 #2 난 봐보지는 안 허연.(난 봐보지는 안 했어.)

114003 @ 봐보지 안 허연. 음. 그럼 어렸을 때 참웨나 수박 서리 해보신 적 잇어마씨? 엇지예?(봐보지 안 했어요. 음. 그럼 어렸을 때 참외나 수박 서리 해보신 적 있었어요? 없지요?)

114003 #2 엇어. 옛날엔 우리 마을 미깡낭도 엇고 수박 ㄱ튼 것도 해 나지도 안 허고. 우린 또 저 이 바닷가에 가도 물질도 안 허곡. 흐뎡 학교 허당근엔 어린 때 결혼해 부난 어디 객지에도 안 가보고.(없어. 옛날에는 우리 마을 밀감나무도 없고 수박 같은 것도 해 나지도 안 하고. 우리는 또 저 이 바닷가에 가도 물질도 안 하고. 조금 학교 하다가 어린 때 결혼해 버리니까 어디 객지에도 안 가보고.)

162) ‘파씩’은 단단한 물건을 깨뜨릴 때 나는 소리 혹은 그 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4003 @ 미깡도 안 헨마씨?(밀간도 안 했어요?)

114003 #2 여기 미깡 잘 안 허는다. 바람이 고산으로 바람 막 들어쳐.(여기 밀감 잘 안 하는데. 바람이 '고산'으로 바람 막 들어쳐.)

114003 @ 음.(음.)

114003 #2 바닷가에는 미깡 못 허여 바람 췌서. 서귀포는 한라산이 막아 부니깐 미깡 허주게.(바닷가에는 밀감 못 해 바람 세서. 서귀포는 한라산이 막아 버리니까 밀감 하지.)

114006 @ 그럼 옛날 그 옛날 옛날에 살았던 거랑 지금의 살았던 거랑 비교하면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주마씨? 달라진 게 너무 많잖아예?(그럼 옛날 그 옛날 옛날에 살았던 거랑 지금의 살았던 거랑 비교하면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지요? 달라진 게 너무 많잖아요?)

114006 #2 물도게 우리 마을은 막 물도 질러왔인디 지금은 집 안에서 수도 나고. 이 불도게 옛날엔 호얏불도 싸고 허는디게 이젠 전깃불 들엉 살기가 얼마나 좋아.(물도 우리 마을은 막 물도 길러왔는데 지금은 집 안에서 수도 나고. 이 불도 옛날에는 호룽불도 켜고 하는데 이제는 전깃불 들어서 살기가 얼마나 좋아.)

114006 @ 예.(예.)

114006 #2 살기는 좋은디 노력은 더 해야 돼여.(살기는 좋은데 노력은 더 해야 돼.)

114006 @ 아.(아.)

114006 #2 노력은 왜냐면 돈이 많이 있어야 다 돈이라.(노력은 왜냐면 돈이 많이 있어야 다 돈이야.)

114006 @ 예.(예.)

114006 #2 똥 싸는 것도 돈 물도 돈 뭐 다 돈이라 부난. 돈을 많이 벌어야 생활을 허는 거라. 게난 노력을 더 해야 돼여.(똥 싸는 것도 돈 물도 돈 뭐 다 돈이라 버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 노력을 더 해야 돼.)

114001 @ 그럼 할머니 살면서 죽을 뻔하거나 크게 다친 적 잇어마씨?(그럼 할머니 살면서 죽을 뻔하거나 크게 다친 적 없어요?)

114001 #3 아이고 몇 번 죽엇정 소문나당 살아나곡 살아나곡 허연.(아이고 몇 번 죽었다고 소문나다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했어.)

114001 @ 그럼 그 얘기 좀 곱아 줘서.(그럼 그 얘기 좀 말해 주십시오.)

114001 #3 이제 농촌이난.(이제 농촌이니까.)

114001 @ 예.(예.)

114001 #3 경운기 허여근엥 짐 이만히 놓고 행 신주게. 그 신근 위 앓앙 집더레 오당 저 오름 옆이서 탁 하게 뒤싸져 부난 나가 어디 돌에 탁 행 허리 꺾어전. 허리 꺾어전 일 년 병원에 살았어.(경운기 해서 짐 이만이 놓고 해서 신지. 그 실은 위 앓아서 집으로 오다가 저 오름 옆에서 탁 하게 뒤집어져 버리니까 내가 어디 돌에 탁 해서 허리 꺾어졌어. 허리 꺾어져서 일 년 병원에 살았어.)

114001 @ 예.(예.)

114001 #3 게고 또 이 머리 뇌출혈이렌 허영 대학병원에 강 수술허연 허곡. 뒤 병원에만 살았어.(그리고 또 이 머리 뇌출혈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했어 하고. 뒤 병원에만 살았어.)

114001 @ 병원에만?(병원에만?)

114001 #3 어.(어.)

114001 @ 그럼 그 젊으셨을 때는 다친 적은 엇어마씨?(그럼 그 젊으셨을 때는 다친 적은 없어요?)

114001 #3 그거 그것이 젊을 때라.(그거 그것이 젊을 때야.)

114001 @ 그럼 나이 먹고는?(그럼 나이 먹고는?)

114001 #3 나이 먹어는 죽죽 아파도 경 크게는 안 헛주게.(나이 먹어는 죽죽 아파도 그렇게 크게는 안 헛지.)

114002 @ 할머니 그럼 지금까지 살명 도깨비 본 적 잇수광?(할머니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도깨비 본 적 잇습니까?)

114002 #3 이젠 엇인디 우리 혼 어렸을 땐 도깨비가 저 소낭 위에도 드랑드랑¹⁶³⁾ 돌아지고 길에도 탕기당 보면 봐지는데 이제는 하나도 엇어.(이제는 없는데 우리 한 어렸을 때는 도깨비가 저 소나무 위에도 ‘드랑드랑’ 달리고 길에도 다니다 보면 봐지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어.)

114002 @ 이제는 하나도 엇어마씨?(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114002 #3 이제는 이 가로등이영 막 전깃불 싸 불민 무서왕 도채비 안 나와.(이제는 이 가로등과 막 전깃불 켜 버리면 무서워서 도깨비 안 나와.)

114002 @ 그럼 옛날 옛날에 도깨비 잇엇수광?(그럼 옛날 옛날에 도깨비 잇엇습니까?)

114002 #3 옛날엔 셔난.(옛날에는 잇엇지.)

114002 @ 그럼 그거 얘기해 줘서.(그럼 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114002 #3 막 캄캄하게 길에 걸어오는데 무시거 알로 저 하늘⁷정 거멍 현 게 셔. 경흐난 그건 그것⁷라 빛이라고 허는데 저 허께.(막 캄캄하게 길에 걸어오는데 무엇 아래로 저 하늘까지 거떻게 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건 그것⁷더러 빛이라고 하는데 저 허께비.)

114002 @ 예.(예.)

114002 #3 그건 이제 사람이 영 걸어가 가민 확 ⁷려근엥 넘어가민 그 사람이 그디서 엇어정 죽지 앓을 뿐 허영 살앙 집이 가면 열매 엇영 그 사람이 죽어. 그 혼 빼 가버려. 경흐난 그게 그거주게. 이제 도깨비고 뒤고 아무 것도 엇어. 전이 옛날에만.(그건 이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 가면 확 가려서 넘어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 엇어져서 죽지 앓을 뿐 해서 살아서 집에 가면 얼마 없어서 그 사람이 죽어. 그

163) ‘드랑드랑’은 굽직한 나무 열매 같은 것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드랑드랑’이라고도 한다.

혼 빼 가버려.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이제 도깨비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 전에 옛날에만.)

114003 @ 그럼 어렸을 때 참웨나 수박 같은 거 서리하신 적 있어마씨?(그럼 어렸을 때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서리하신 적 있어요?)

114003 #3 아이고, 어릴 때엔 저 하르방 지키민 우리가 참웨 강 놓주게 그 밧이 강. 두 고지 놓는 사람 세 고지 놓는 사람 잇이민 그거 하르방이 지켰주게. 지키민 이제 썬이나 보리나 이제 받아당 이제 그 할아방이 먹주게. 그런 거 허영 타 먹고 이제 또 가파도 저 섬에서 참웨 막 큰 가마니로 담양 와근앵 여기 왕 픈는다.(아이고, 어릴 때에는 저 할아버지 지키면 우리가 참외 가서 놓지 그 밧에 가서. 두 이랑 놓는 사람 세 이랑 놓는 사람 있으면 그거 할아버지가 지켰지. 지키면 이제 썬이나 보리나 이제 받아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먹지. 그런 거 해서 타 먹고 이제 또 ‘가파도’ 저 섬에서 참외 막 큰 가마니로 담아서 와서 여기 와서 파는데.)

114003 @ 예.(예.)

114003 #3 건 이만씩 큰 것도 맛이 있어.(그건 이만씩 큰 것도 맛이 없어.)

114003 @ 맛엇어마씨?(맛없어요?)

114003 #3 그거 경 허고 이제 걸영 모실포 강.(그거 그렇게 하고 이제 걸어서 ‘모슬포’ 가서.)

114003 @ 예.(예.)

114003 #3 자리 빼오민 자리 상 한 줌 쥐영 여기 신도ㄱ정 와 걸영.(자리 빼오면 자리 사서 한 줌 쥐어서 여기 ‘신도’까지 와 걸어서.)

114003 @ 예.(예.)

114003 #3 그추룩.(그처럼.)

114003 @ 얼마나 걸려마씨? 이디까지 걸영 오면.(얼마나 걸려요? 여기까지 걸어서 오면.)

114003 #3 혼 삼십 분은 걸어사 와질 거라.(한 삼십 분은 걸어야 와질 거야.)

114004 @ 그 할머니 어렸을 때 들엇던 재미난 얘기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엇수광? 재미난 이야기?(그 할머니 어렸을 때 들엇던 재미난 얘기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재미난 이야기?)

114004 #3 어린 때 재미나게 하는 건 엇어.(어린 때 재미나게 하는 건 없어.)

114004 @ 아니, 재미난 이야기.(아니, 재미난 이야기.)

114004 #3 이야기 들은 거?(이야기 들은 거?)

114004 @ 예.(예.)

114004 #3 이야기 들은 거는 할머니가 사난 할머니가 영 어디 도깨비 난당 무서거 난당 허민 그런 저 집이 따로 잇이민 밤이 공부허는디 가젠 해도 우린 못 가 닳어. 우리 몇 형제가. 무서왕 허께 나오난.(이야기 들은 거는 할머니가 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어디 도깨비 난다고 무엇 난다고 하면 그런 저 집이 따로 잇으니까 밤에 공부하는데 가려고 해도 우리는 못 갔엇어. 우리 몇 형제가. 무서워서 허깨비

나오니까.)

114004 @ 음.(음.)

114004 #3 게고 저 돈 엇이 사난 우리 흑교 시켜주지 았안 부모네가.(그리고 저 돈 없이 사니까 우리 학교 시켜주지 았았어 부모네가.)

114004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4004 #3 어.(어.)

114005 @ 그럼 속담이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 들은 거 잇수광? 그러니까 제사 때 뭐 허지 마라 그런 거마씨. 그러니까 임신하면 뭐 먹지 마라 하잖아예?(그럼 속담이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 들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때 뭐 하지 마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뭐 먹지 마라 하잖아요?)

114005 #3 어.(어.)

114005 @ 그런 거 뭐 기억나는 거 어땡 엇어마씨?(그런 거 뭐 기억나는 거 어떻게 없어요?)

114005 #3 그건 난 안 해도.(그건 난 안 해도.)

114005 @ 예.(예.)

114005 #3 영 사름들 경 현 사름들이 있어.(이렇게 사름들 그렇게 한 사름들이 있어.)

114005 @ 잇어? 그럼 그거 들은 거 뭐 좀 얘기 곶아 줍서.(잇어? 그럼 그거 들은 거 뭐 좀 얘기 말해 주십시오.)

114005 #3 들은 거 허민 저 임신허민 영 못 먹는 사름이 잇어. 게고 이땅 가끔씩 임신해도 하간 거 먹는 사름도 많았주게. 경 허연.(들은 거 하면 저 임신하면 이렇게 못 먹는 사름이 잇어. 그리고 이따가 임신해도 여러 거 먹는 사름도 많았지. 그렇게 했어.)

114006 @ 그럼 할머니 옛날 젊으셨을 때 그 사는 거랑 요즘에 사는 거랑 막 많이 다르잖아예? 전화도 생기고 티비도 생기고 많이 다르지예?(그럼 할머니 옛날 젊으셨을 때 그 사는 거와 요즘에 사는 거와 막 많이 다르잖아요? 전화도 생기고 티비도 생기고 많이 다르지요?)

114006 #3 응.(응.)

114006 @ 그런 거 달라진 거 할머니가 느낄 때 그 막 달라진 거 잇이든 좀 곶아 줍서.(그런 거 달라진 거 할머니가 느낄 때 그 막 달라진 거 있으면 좀 말해 주십시오.)

114006 #3 달라진 거?(달라진 거?)

114006 @ 예.(예.)

114006 #3 이제는 그자 눈으로 눈으로만 보는 거난게.(이제는 그저 눈으로 눈으로만 보는 거니까.)

114006 @ 예.(예.)

114006 #3 게고 옛날엔 텔레비전도 아무 것도 선풍기도 아무 것도 웃이 저 막 더우면 바깥에 마당에 강 누웠 자곡. 그 그거.(그리고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아무 것도 선풍기도 아무 것도 없이 저 막 더우면 바깥에 마당에 가서 누워서 자고. 그 그 거.)

114006 @ 게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마씨?(그러니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114006 #3 밧이 가근엥 저 농사허민 매날 강 검질메는 거. 풀.(밭에 가서 저 농사하면 매일 가서 김매는 거. 풀.)

114006 @ 예.(예.)

114006 #3 풀 베는 거. 그것만 허멍 살았어.(풀 베는 거. 그것만 하면서 살았어.)

114001 @ 할머니 그 좀 죽을 뻔했던 일도 잊엇수광? 지금까지 살면서? 막 크게 다친 적?(할머니 그 좀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막 크게 다친 적?)

114001 #4 그게 크게 다쳐 죽을 뻔도 허주만은게.(그게 크게 다쳐서 죽을 뻔도 하지만.)

114001 @ 언제?(언제?)

114001 #4 원 아팠 한 때도 굿 해도 좋지 안 허난게.(원 아파서 한 때도 굿 해도 좋지 않으니까.)

114001 @ 아, 몇 살때마씨?(아, 몇 살때요?)

114001 #4 나 스물 하나 때.(나 스물 하나 때.)

114001 @ 아, 스물 하나 때 굿 해도 좋지 않안마씨?(아, 스물 하나 때 굿 해도 좋지 않았어요?)

114001 #4 굿해도 좋지 않으난게.(굿해도 좋지 않으니까.)

114001 @ 예.(예.)

114001 #4 속가에 저되 강 살명 거기 강 어떻 어떻 행 좋아근엥 살안 나오랏 주.(속가에 저기 가서 살면서거 거기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아서 살아서 나왔었지.)

114001 @ 아, 그때 뭐 이유도 엇이 막 아팠마씨?(아, 그때 뭐 이유도 없이 막 아팠어요?)

114001 #4 아무 이유도 엇이.(아무 이유도 없이.)

114001 @ 아무 이유도 엇이? 근데 그냥 시간 지나니깐 괜찮아전마씨?(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그냥 시간 지나니깐 괜찮아졌어요?)

114001 #4 게. 그냥 혼 석 달 너무 너무 고생했어.(그럼. 그냥 한 석 달 너무 너무 고생했어.)

114001 @ 아, 석 달이나 고생 했수광? 무사마씨?(아, 석 달이나 고생 했습니까? 왜요?)

114001 #4 어. 사람 옴 감도 모르고 경 헛주.(어. 사람 오는 것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지.)

114001 @ 예.(예.)

114001 #4 속가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윈 업엉 탕기난 난.(속가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윈 업어서 다니니까 난.)

114001 @ 아.(아.)

114001 #4 경 해도 살아전게. 이거.(그렇게 해도 살아졌어. 이거.)

114001 @ 경 해도 살아져?(그렇게 해도 살아져?)

114001 #4 어.(어.)

114001 @ 다행이우다. 그 다음에 크게 뭐 다치거나 뭐 넘어지거나 그런 거 었엇수광?(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뭐 다치거나 뭐 넘어지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114001 #4 어. 그런 일 었언.(어. 그런 일 없었어.)

114002 @ 그럼 할머니 도채비 잇잖아예? 도채비?(그럼 할머니 도깨비 잇잖아요? 도깨비?)

114002 #4 예.(예.)

114002 @ 옛날에 그 도채비도 만난 적 잇수광?(옛날에 그 도깨비도 만난 적 잇습니까?)

114002 #4 아니. 우린.(아니. 우리는.)

114002 @ 도채비는 었언마씨?(도깨비는 없었어요?)

114002 #4 우리 도채비 봐 보지 않언. 그거 직성 야린 사람이나 봐지는 거주게.(우리 도깨비 봐 보지 않았어. 그거 직성 야린 사람이나 봐지는 거지.)

114002 @ 무슨 거 낮은 사람?(무슨 거 낮은 사람?)

114002 #4 직성 야린 사람.(직성 야린 사람.)

114002 @ 직성 야린 사람?(직성 야린 사람?)

114002 #4 어.(어.)

114002 @ 그럼 뭐 도채비 이야기 들은 건 었엇수광?(그럼 뭐 도깨비 이야기 들은 건 없었습니까?)

114002 #4 이야기 들은 거 었어.(이야기 들은 거 없어.)

114002 @ 아, 들은 거 었어? 귀신 만난 적도 었고예?(아, 들은 거 없어? 귀신 만난 적도 없고요?)

114002 #4 예.(예.)

114003 @ 그럼 참웨나 수박 같은 거는 흑시?(그럼 참외나 수박 같은 거는 흑시?)

114003 #4 어.(어.)

114003 @ 그 참웨나 수박 같은 거 서린헛던 경험은 었지예?(그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서리헛던 경험은 없지요?)

114003 #4 그런 것도 었고.(그런 것도 없고.)

114004 @ 그럼 어렸을 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었엇수광?(그럼 어렸을 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114004 #4 재미있는 이야기 무싱거게. 어떻 거 말이냐?(재미있는 이야기 무엇. 어떤 거 말이야?)

114004 @ 예?(예?)

114004 #4 시국 만나난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헐 뭐가 었어.(시국 만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할 뭐가 없어.)

114004 @ 아, 시국 만나난?(아, 시국 만나니까?)

114004 #4 예.(예.)

114004 @ 그럼 할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옛날 얘기해 준 거 었어마 씨?(그럼 할머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옛날 얘기해 준 거 없어요?)

114004 #4 계메 계난 우린 할머니 할아버지도 재기 죽어 불곡.(글세 그러니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빨리 죽어 버리고.)

114004 @ 예.(예.)

114004 #4 어떻게 재기 죽어 불곡 허난 몰라 잘.(어머니도 빨리 죽어 버리고 하니까 몰라 잘.)

114004 @ 아.(아.)

114004 #4 그자 나 눈 산 때 해 놓은 것만 알주.(그저 나 눈 산 때 해 놓은 것만 알지.)

114005 @ 그럼 그 속담이나 금기어 같은 거 속담, 제주도 속담 뭐 기억나는 거 잇수광? (그럼 그 속담이나 금기어 같은 거 속담, 제주도 속담 뭐 기억나는 거 잇습니까?)

114005 #4 제주도 속담 뭐 알아져? 우린 잘 몰라.(제주도 속담 뭐 알아져? 우리는 잘 몰라.)

114005 @ 뭐, 가파도 종곡 마라도 종곡 이런 거 잇잖아예?(뭐, 가파도 좋고 마라도 좋고 이런 거 잇잖아요?)

114005 #4 아, 그런 거는 우리 장난헐 때 허는 거고게.(아, 그런 거는 우리 장난할 때 하는 거고.)

114005 @ 예. 장난헐 때 허는 거. 그럼 그런 거 말앙 뭐 금기어 같은 거 었언마 씨? 옛날에 뭐 허지 마라 뭐 허지 마라 그런 거 잇엇잖아예?(예. 장난할 때 하는 거. 그럼 그런 거 말고 뭐 금기어 같은 거 없엇어요? 옛날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 잇엇잖아요?)

114005 #4 뭇 허지 마라. 놈헌테 욱 허지 말곡게.(무엇 하지 마라. 남헌테 욱 하지 말고.)

114005 @ 예.(예.)

114005 #4 궂은 소리 허지 마라 그런 거배피.(궂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밖

에.)

114005 @ 아, 궂은 소리 허지 마라.(아, 궂은 소리 하지 마라.)

114005 #4 어.(어.)

114006 @ 그럼 옛날의 삶, 옛날의 삶이랑 지금 삶이랑 뭐가 좀 달라전마씨? 할머니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그럼 옛날의 삶, 옛날의 삶이랑 지금 삶이랑 뭐가 좀 달라졌어요? 할머니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114006 #4 몬 달라졌주게.(전부 달라졌지.)

114006 @ 예. 전부 다 달라졌지예?(예. 전부 다 달라졌지요?)

114006 #4 다 달라전.(다 달라졌어.)

114006 @ 그럼 뭐가 좀 제일 달라진 거 닳아마씨?(그럼 뭐가 좀 제일 달라진 거 같아요?)

114006 #4 스몫 나라에서 영 살려주곡.(사몫 나라에서 이렇게 살려주고.)

114006 @ 음.(음.)

114006 #4 하간 것 구경 시켜 주고 허난 그것이 달라진 거주. 옛날에사 어디 그런 거 잇었어? 법이 잇었어? 이녁 돈 잇이믄 어디 가도 못 허곡.(여러 것 구경 시켜 주고 하니까 그것이 달라진 거지. 옛날에야 어디 그런 거 잇었어? 법이 잇었어? 이녁 돈 없으면 어디 가도 못 하고.)

114006 @ 예. 어디 어디 구경 시켜 줘수광? 할머니?(예. 어디 어디 구경 시켜 줘습니까? 할머니?)

114006 #4 어디사 구경 시켰인지 하간 디 몬 구경 시켜도 잘 모르켄게.(어디 구경 시켰는지 여러 군데 전부 구경 시켜도 잘 모르겠다.)

114006 @ 아, 모르켄게?(아, 모르겠다?)

114006 #4 잇어, 잇어 불언.(잇어, 잇어 버렸어.)

114006 @ 아, 잇어 불언? 최근에는 어디 가본 적 잇수광?(아, 잇어 버렸어요? 최근에는 어디 가본 적 없습니까?)

114006 #4 어?(어?)

114006 @ 최근에 어디 여기 물이 가본 적 잇어마씨?(최근에 어디 여기 물에 가본 적 없어요?)

114006 #4 아, 육지도 육지도 강 흔 흔 며칠 살았주만은게.(아, 육지도 육지도 가서 한 한 며칠 살았지만.)

114006 @ 예.(예.)

114006 #4 그거 가본 데 무신 온천이여 어디여 설악산이여 어디 가봤주만은 몬 딱 잇어 불언.(그거 가본 데 무슨 온천이여 어디여 설악산이여 어디 가봤지만 전부 잇어 버렸어.)

114006 @ 잇어 불언? 그럼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밧일 허는 것도 많이 달라졌잖아예?(잇어 버렸어요? 그럼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밧일 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114006 #4 밭일 허는 것도 달라지고.(밭일 하는 것도 달라지고.)

114006 @ 예. 지금이 지금이 사는 게 편해지예?(예. 지금이 지금이 사는 게 편하지요?)

114006 #4 아이고 편하고 말곡.(아이고 편하고 말고.)

114006 @ 뭐가 제일 편해마씨?(뭐가 제일 편해요?)

114006 #4 이 저 나라에서 돈도 주고 영 우린 이제 차도 공짜로 태워주곡 허난 좋주게.(이 저 나라에서 돈도 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차도 공짜로 태워주고 하니까 좋지.)

114006 @ 예. 차도 공짜로 태워주곡 허난. 어디 시에도 자주 나감수광?(예. 차도 공짜로 태워주고 하니까. 어디 시에도 자주 나가십니까?)

114006 #4 시에 자주 가지 안허주만은 모슬포 ㄹ튼 디 가는 디 돈 차비도 아니 들고 이젠.(시에 자주 가지 않지만 ‘모슬포’ 같은 데 가는 데 돈 차비도 안 들고 이제는.)

114006 @ 아, 모슬포는 언제, 언제 가마씨? 할머니?(아, ‘모슬포’는 언제, 언제 가요? 할머니?)

114006 #4 자주 가져.(자주 가져.)

114006 @ 자주 가져?(자주 가져?)

114006 #4 어.(어.)

114006 @ 강 뭐해마씨? 근데?(가서 뭐해요? 근데?)

114006 #4 한의원신디 가곡게 병원에도 가곡게.(한의원한테 가고 병원에도 가고.)

114006 @ 아, 병원에도 가곡. 어디 아픈 데 잇수광?(아, 병원에도 가고.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114006 #4 아팠 막 나 하간 디 아파근엥 자주게.(아파서 막 나 여러 군데 아파서 가지.)

114006 @ 지금은 뭐 안 아픈 거 같은데예?(지금은 뭐 안 아픈 거 같은데요?)

114006 #4 눈 보기에는 안 아파도.(눈 보기에는 안 아파도.)

114006 @ 예.(예.)

114006 #4 요 하루에도 숨차근엥 시에 강 약 지어당 먹고 행 이제 그되도 좇아 가지 못 험직 행 못 감신게.(요 하루에도 숨차서 시에 가서 약 지어다가 먹고 해서 이제 거기도 찾아가지 못 할 것 같아서 못 가고 있어.)

114006 @ 무사, 못 찾아가마씨?(왜, 못 찾아가요?)

114006 #4 나가 이젠 어디 좇아가기에는.(나가 이제는 어디 찾아가기에는.)

114006 @ 어두와? 길 어두와?(어두워? 길 어두워?)

114006 #4 예.(예.)

114006 @ 음.(음.)

114006 #4 잘 좇아가지 못 험직 허영.(잘 찾아가지 못 할 것 같아.)

114006 @ 옛날에는 그럼 시에 모슬포 가젠 허민 버스도 옛일 때 어땡 갓수광? 옛날에는?(옛날에는 그럼 시에 ‘모슬포’ 가려고 하면 버스도 없을 때 어떻게 갔습니까? 옛날에는?)

114006 #4 모슬포 가는 버스 셋주게게. 좇게 옛언 뿐이주.(‘모슬포’ 가는 버스 있었지. 자주 없었을 뿐이지.)

114006 @ 아, 좇게는 옛언마씨?(아, 자주는 없었어요?)

114006 #4 좇게는 옛어도 모슬포 가는 버스는 션.(자주는 없어도 ‘모슬포’ 가는 버스는 있었어.)

114006 @ 할머니 막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옛엇진 았안마씨?(할머니 막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지 았았어요?)

114006 #4 막 어렸을 때는 버스 그런 거 옛엇주게.(막 어렸을 때는 버스 그런 거 없었지.)

114006 @ 음.(음.)

114006 #4 차 흔 번 보젠 허민 우린 저 저 산양에 잇일 때는.(차 한 번 보려고 하면 우리는 저 저 ‘산양’에 있을 때는.)

114006 @ 예.(예.)

114006 #4 사뭇 차 흔 번 버스 흔 번 구경했주. 옛날은 이추록 버스가 어디 잇엇어.(사뭇 차 한 번 버스 한 번 구경했지. 옛날은 이처럼 버스가 어디 있었어.)

114006 @ 아, 옛날에는 버스 많이 옛엇지예?(아, 옛날에는 버스 많이 없었지요?)

114006 #4 어. 옛언. 옛언.(어. 없었어. 없었어.)

114006 @ 그 집, 집은 어때마씨? 지금은 요런 집에 사는데 옛날은 초집에 살았잖아예?(그 집, 집은 어때요? 지금은 요런 집에 사는데 옛날은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114006 #4 초집이 살안 옛날엔.(초가집에 살았어 옛날에는.)

114006 @ 초집이랑 지금 요즘 집이랑은 뭐가 다르주마씨?(초가집이랑 지금 요즘 집이랑은 뭐가 다르지요?)

114006 #4 하간 거가 다르주게.(여러 것이 다르지.)

114006 @ 음.(음.)

114006 #4 초집 허민 캄캄헝 스뭇.(초가집 하면 캄캄해서 사뭇.)

114006 @ 캄캄해?(캄캄해?)

114006 #4 어. 궂엇인디 이젠.(어. 궂엇는데 이제는.)

114006 @ 전기 안 들 때도 살았수광? 옛날에 초집에?(전기 안 들 때도 살았습니까? 옛날에 초가집에?)

114006 #4 전기 안 들 때 우리 때. 그때 초집에 살았주게.(전기 안 들 때 우리 때. 그때 초가집에 살았지.)

114006 @ 아, 전기 안 들언마씨?(아, 전기 안 들었어요?)

114006 #4 어.(어.)

114006 @ 그럼 몇 시에 보통 주무셨마씨? 그때에는?(그럼 몇 시에 보통 주무셨어요? 그때에는?)

114006 #4 전기 들어 온 때가 이거 몇 년 안 됐어.(전기 들어 온 때가 이거 몇 년 안 됐어.)

114006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14006 #4 우리가 흔 마흔 마흔 즈음에 들어와신가?(우리가 한 마흔 마흔 즈음에 들어왔는가?)

114006 @ 아, 마흔 즈음에 전기 들어왔마씨?(아, 마흔 즈음에 전기 들어왔어요?)

114006 #4 마흔 아니 마흔사 넘어 들어왔는지 몰라.(마흔 아니 마흔이야 넘어서 들어왔는지 몰라.)

114006 @ 예.(예.)

114006 #4 전기가 어디셔?(전기가 어디있어?)

114006 @ 전기 엇엇을 때는 많이 불편했지예?(전기 없었을 때는 많이 불편했지요?)

114006 #4 아이고, 불편허고 말고게.(아이고, 불편하고 말고.)

114006 @ 뭐가 제일 불편했수광?(뭐가 제일 불편했습니까?)

114006 #4 뭐 촛불 싸고게 허젠 허민 그게 불편했주게.(뭐 촛불 키고 하려고 하면 그게 불편했지.)

114006 @ 아, 그게 불편헨마씨? 그럼 뭐가 요즘에는 제일 편해마씨?(아, 그게 불편했어요? 그럼 뭐가 요즘에는 제일 편해요?)

114006 #4 하간 것이 다 편허주게.(여러 것이 다 편하지.)

114006 @ 하건 것이 다 편해마씨?(여러 것이 다 편해요?)

114006 #4 어.(어.)

114006 @ 그 중에 그래도 할머니가 생각할 때 제일 편헌 거 뭐 하나 엇수광?(그 중에 그래도 할머니가 생각할 때 제일 편한 거 뭐 하나 없습니까?)

114006 #4 편헌 건게 불 아니 습고 물 아니 질어오곡.(편한 거는 불 안 켜고 물 안 길어오고.)

114006 @ 물 안 질어오곡. 아, 옛날에 막 물 질러왔지예?(물 안 길어오고. 아, 옛날에 막 물 질러왔지요?)

114006 #4 물 허벅 허영 물 질러당 살앗주게.(물 허벅 해서 물 질러다가 살았지.)

114006 @ 음.(음.)

114006 #4 모욕할 물도 엇어근엥 스뭇 질어오민 아까와근엥 흐끔만 행.(목욕할 물도 없어서 사뭇 길어오면 아까워서 조금만 해서.)

114006 @ 예.(예.)

114006 #4 목욕도 못 허여근엥 등따리에 영 굽어근엥 물 낱 살곡.(목욕도 못 해서 등에 이렇게 굽어서 물 낱서 살고.)

114006 @ 음. 어디서 물 질러왔수광?(음. 어디서 물 길러왔습니까?)

114006 #4 우린 저 맨처남¹⁶⁴ 물 이 동네에는 맨처남배피 엇이난.(우리는 저 ‘맨처남’ 물 이 동네에는 ‘맨처남’밖에 없으니까.)

114006 @ 어디 맨처남?(어디 ‘맨처남’?)

114006 #4 응. 맨처남 강 질러와근엥.(응. ‘맨처남’ 가서 길어와서.)

114006 @ 맨처남? 그건 어디짱?(‘맨처남’? 그건 어디입니까?)

114006 #4 일루 영 옷드리에 잇는 거.(여기로 이렇게 ‘옷드리’에 잇는 거.)

114006 @ 예.(예.)

114006 #4 경 행 그거 질러당 그거 먹으멍 살곡 목욕할 물도 엇어근엥 스뭇.(그렇게 해서 그거 질러다가 그거 먹으면서 살고 목욕할 물도 없어서 사뭇.)

114006 @ 경 행 지금은 많이 편했지예?(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편했지요?)

114006 #4 아이고, 편언허곡 말곡. 집에서 물 나왕 목욕허고.(아이고, 편안하고 말고. 집에서 물 나와서 목욕하고.)

114006 @ 집에서 물 나오니까 그것도 좋고예?(집에서 물 나오니까 그것도 좋지요?)

114006 #4 어.(어.)

114006 @ 음.(음.)

114006 #4 밥행 먹는 것도 좋곡.(밥해서 먹는 것도 좋고.)

114006 @ 밥행 먹는 것도 좋고?(밥해서 먹는 것도 좋고?)

114006 #4 모든 것이 다 좋주게. 젊은 사람 세금 내젠 허난 곳엄주만은.(모든 것이 다 좋지. 젊은 사람 세금 내려고 하니까 곳지만.)

164) ‘맨처남’은 신도 일리에 있는 우물의 지명이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공연못을 만들어 봉천수원을 확보해 놓았다. 마을사람들은 서로 아끼고 보존하면서 이용해 왔다. 최초의 개정우물은 현 맨처남 우물중 면적이 가장 큰 우물을 확장하기전 동남쪽으로 20평 정도의 우물이 있었다.(당시 이름을 ‘술량통’이라 했음) 상수도 시설이 확충되면서부터 그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우마의 급수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그대로 방치된 채 현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남국의 지명유래(진성기 지음, 1975)]에 의하면 옛날 이곳에 처남이 무성했던 곳이라는 데서 연유하여 이 못(池)을 처남못이라 불렀다. [맨처남 못]의 [맨]은 (문 = 맨 = 모두) 온통 전부 덮여 있다는 데서 연유된 말이며 [처남]은 [초남] = 차나무 : [진목(眞木)]의 뜻으로 변화된 것이라 한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8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